

수능완성

국어영역 독서·문학·언어와 매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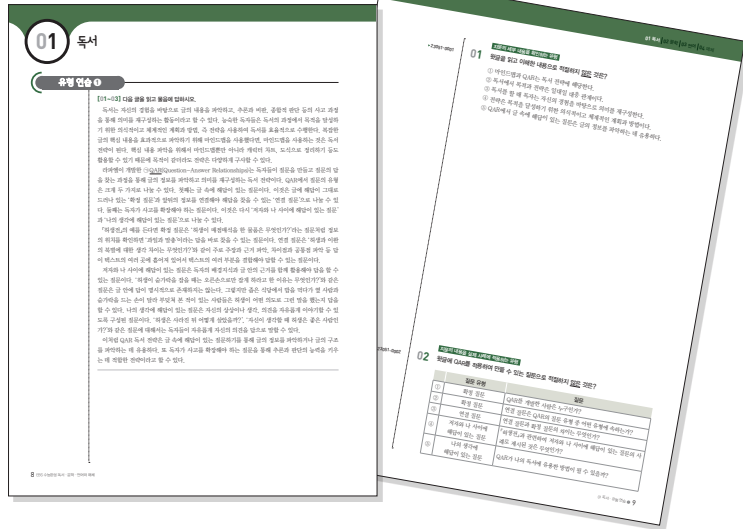
이 책의 구성과 특징

유형편

수능완성 <유형편>은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영역에 대비하여 수험생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알아 두어야 할 출제 유형을 독서, 문학, 언어, 매체 영역별로 구분하여 구성하였습니다. 영역별로 정리된 유형별 문항을 풀어보는 과정에서 스스로 취약한 문제 유형이 무엇인지 쉽게 파악하도록 하였으며, 자세한 유형 설명과 정답 해설로 보다 정확한 유형 이해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유형 연습

유형 연습은 독서, 문학, 언어, 매체 영역을 독립된 장으로 구성한 코너입니다. 꼭 알아 두어야 할 영역별 필수 유형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실전과 유사한 문항 풀이를 통해 자신의 유형 이해 정도를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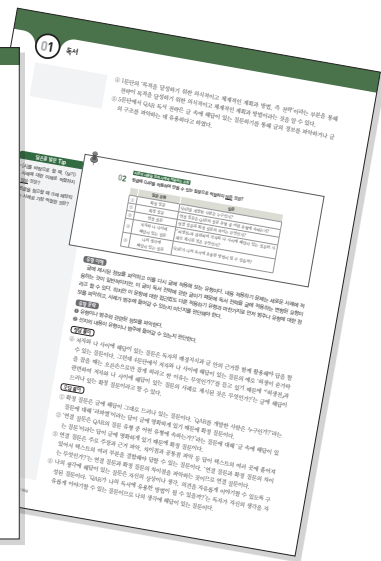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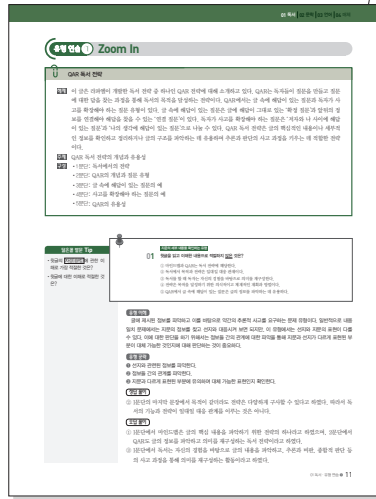


Zoom In 유형 연습

유형 연습을 통해 제시된 문항들과 관련된 모든 것을 Zoom In하여 꼼꼼하게 분석한 코너입니다.

유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는 '유형 이해'는 물론, 실전에서 필요한 '유형 공략' 방법을 제시하여 학습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짧은골 발문 Tip도 함께 참고하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학생 EBS 교재 문제 검색

EBS 단추에서 문항코드나 사진으로 문제를 검색하면 푸러봇이 해설 영상을 제공합니다.

[23051-0001]
1. 아래 그래프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3051-0001

※ EBS 사이트 및 모바일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 사진 검색은 EBSi 교강의 앱에서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교사 교사지원센터 교재 자료실

교재 문항 한글 문서(HWP)와 교재의 이미지 파일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교재 자료실

- 한글다운로드
- 교재이미지 활용
- 강의활용자료

※ 교사지원센터(<http://teacher.ebsi.co.kr>) 접속 후 '교사인증'을 통해 이용 가능

유형편

01 독서	유형 연습 ①	8
	유형 연습 ②	14
	유형 연습 ③	25
	유형 연습 ④	33
02 문학	유형 연습 ①	43
	유형 연습 ②	52
	유형 연습 ③	63
	유형 연습 ④	72
	유형 연습 ⑤	81

03 언어	유형 연습 ①	91
	유형 연습 ②	95
	유형 연습 ③	100
	유형 연습 ④	105
04 매체	유형 연습 ①	109
	유형 연습 ②	115
	유형 연습 ③	121

EBS 수능완성 국어영역

독서·문학·언어와 매체

01 **독서**

02 **문학**

03 **언어**

04 **매체**



유형 연습 ①

[01~0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독서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글의 내용을 파악하고, 추론과 비판, 종합적 판단 등의 사고 과정을 통해 의미를 재구성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능숙한 독자들은 독서의 과정에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의식적이고 체계적인 계획과 방법, 즉 전략을 사용하여 독서를 효율적으로 수행한다. 복잡한 글의 핵심 내용을 효과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마인드맵을 사용했다면, 마인드맵을 사용하는 것은 독서 전략이 된다. 핵심 내용 파악을 위해서 마인드맵뿐만 아니라 캐릭터 차트, 도식으로 정리하기 등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목적이 같더라도 전략은 다양하게 구사할 수 있다.

라파엘이 개발한 ㉠QAR(Question-Answer Relationships)는 독자들이 질문을 만들고 질문의 답을 찾는 과정을 통해 글의 정보를 파악하고 의미를 재구성하는 독서 전략이다. QAR에서 질문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글 속에 해답이 있는 질문이다. 이것은 글에 해답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확정 질문’과 앞뒤의 정보를 연결해야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연결 질문’으로 나눌 수 있다. 둘째는 독자가 사고를 확장해야 하는 질문이다. 이것은 다시 ‘저자와 나 사이에 해답이 있는 질문’과 ‘나의 생각에 해답이 있는 질문’으로 나눌 수 있다.

「허생전」의 예를 든다면 확정 질문은 ‘허생이 매점매석을 한 물품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처럼 정보의 위치를 확인하면 ‘과일과 말총’이라는 답을 바로 찾을 수 있는 질문이다. 연결 질문은 ‘허생과 이완의 북벌에 대한 생각 차이는 무엇인가?’와 같이 주로 주장과 근거 파악, 차이점과 공통점 파악 등 답이 텍스트의 여러 곳에 흩어져 있어서 텍스트의 여러 부분을 결합해야 답할 수 있는 질문이다.

저자와 나 사이에 해답이 있는 질문은 독자의 배경지식과 글 안의 근거를 함께 활용해야 답을 할 수 있는 질문이다. ‘허생이 숟가락을 잡을 때는 오른손으로만 잡게 하라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와 같은 질문은 글 안에 답이 명시적으로 존재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좁은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옆 사람과 숟가락을 드는 손이 달라 부딪쳐 본 적이 있는 사람들은 허생이 어떤 의도로 그런 말을 했는지 답을 할 수 있다. 나의 생각에 해답이 있는 질문은 자신의 상상이나 생각, 의견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구성된 질문이다. ‘허생은 사라진 뒤 어떻게 살았을까?’, ‘자신이 생각할 때 허생은 좋은 사람인가?’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는 독자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답으로 말할 수 있다.

이처럼 QAR 독서 전략은 글 속에 해답이 있는 질문하기를 통해 글의 정보를 파악하거나 글의 구조를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또 독자가 사고를 확장해야 하는 질문을 통해 추론과 판단의 능력을 키우는 데 적합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 23051-0001

01

지문의 세부 내용을 확인하는 유형

윗글을 읽고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마인드맵과 QAR는 독서 전략에 해당한다.
- ② 독서에서 목적과 전략은 일대일 대응 관계이다.
- ③ 독서를 할 때 독자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미를 재구성한다.
- ④ 전략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의식적이고 체계적인 계획과 방법이다.
- ⑤ QAR에서 글 속에 해답이 있는 질문은 글의 정보를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 23051-0002

02

지문의 내용을 실제 사례에 적용하는 유형

윗글에 QAR를 적용하여 만들 수 있는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질문 유형	질문
①	확정 질문	QAR를 개발한 사람은 누구인가?
②	확정 질문	연결 질문은 QAR의 질문 유형 중 어떤 유형에 속하는가?
③	연결 질문	연결 질문과 확정 질문의 차이는 무엇인가?
④	저자와 나 사이에 해답이 있는 질문	「허생전」과 관련하여 저자와 나 사이에 해답이 있는 질문의 사례로 제시된 것은 무엇인가?
⑤	나의 생각에 해답이 있는 질문	QAR가 나의 독서에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을까?

외부 자료와 비교하여 평가하는 유형

03 읽글의 ㉠과 <보기>의 ㉡을 비교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 KWL은 독서의 목적을 분명히 하여 글을 읽게 해 주고, 독자의 배경지식과 독서를 통해 얻은 새로운 지식 사이의 결합을 촉진하기 위한 독서 전략이다. KWL에서는 독자가 '아는 것'(Know), '알고 싶은 것'(Want to learn), '배운 것'(Learned)을 표에 각각 작성한다. 우선 글의 제목이나 목차를 통해 화제를 파악한 후, 화제와 관련하여 알고 있는 것을 K에 자유롭게 적는다. W에는 더 깊이 알고 싶은 내용에 대한 질문을 만든다. W의 내용을 작성한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글을 읽어 가면서 K와 내용이 일치하는지, W의 내용이 나오는지 유의한다. 글을 다 읽고 난 후 L에는 새로 알게 된 내용을 기록한 다음, 새롭게 알게 된 것 중에서 의심이 생기는 내용이 없는지를 검토하여 L에 추가로 기록한다.

- ① ㉠이 독서 전과 중에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과 달리, ㉡에서는 독서가 끝난 후 활동이 이루어지는군.
- ② ㉠에서 질문을 작성하는 것과 ㉡에서 W에 질문을 작성하는 것은 모두 읽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겠군.
- ③ ㉡에서 ㉠과 달리 K를 작성하는 것은, 배경지식과 새로운 지식 사이의 결합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겠군.
- ④ ㉡은 ㉠과 달리 추론과 판단을 위한 질문이 강조되므로, 독자가 독서를 통해 사고를 확장해 나가는 데 유용한 방법이겠군.
- ⑤ ㉠에서 글 속에 해답이 있는 질문은 독자가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이므로, ㉡의 L에 작성하는 내용과는 성격이 상이하겠군.

유형 연습 1 Zoom In



QAR 독서 전략

예제 이 글은 라파엘이 개발한 독서 전략 중 하나인 QAR 전략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QAR는 독자들이 질문을 만들고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을 통해 독서의 목적을 달성하는 전략이다. QAR에서는 글 속에 해답이 있는 질문과 독자가 사고를 확장해야 하는 질문 유형이 있다. 글 속에 해답이 있는 질문은 글에 해답이 그대로 있는 ‘확정 질문’과 앞뒤의 정보를 연결해야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연결 질문’이 있다. 독자가 사고를 확장해야 하는 질문은 ‘저자와 나 사이에 해답이 있는 질문’과 ‘나의 생각에 해답이 있는 질문’으로 나눌 수 있다. QAR 독서 전략은 글의 핵심적인 내용이나 세부적인 정보를 확인하고 정리하거나 글의 구조를 파악하는 데 유용하며 추론과 판단의 사고 과정을 키우는 데 적합한 전략이다.

주제 QAR 독서 전략의 개념과 유용성

- 구성**
- 1문단: 독서에서의 전략
 - 2문단: QAR의 개념과 질문 유형
 - 3문단: 글 속에 해답이 있는 질문의 예
 - 4문단: 사고를 확장해야 하는 질문의 예
 - 5문단: QAR의 유용성

짧은골 발문 Tip

- 윗글의 **자성(自性)**에 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지문의 세부 내용을 확인하는 유형

01 윗글을 읽고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마인드맵과 QAR는 독서 전략에 해당한다.
- ② 독서에서 목적과 전략은 일대일 대응 관계이다.
- ③ 독서를 할 때 독자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미를 재구성한다.
- ④ 전략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의식적이고 체계적인 계획과 방법이다.
- ⑤ QAR에서 글 속에 해답이 있는 질문은 글의 정보를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유형 이해

글에 제시된 정보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약간의 추론적 사고를 요구하는 문제 유형이다. 일반적으로 내용 일치 문제에서는 지문의 정보를 찾고 선지와 대응시켜 보면 되지만, 이 유형에서는 선지와 지문의 표현이 다를 수 있다. 이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정보들 간의 관계에 대한 파악을 통해 지문과 선지가 다르게 표현된 부분이 대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형 공략

- ① 선지와 관련된 정보를 파악한다.
- ② 정보들 간의 관계를 파악한다.
- ③ 지문과 다르게 표현된 부분에 유의하며 대체 가능한 표현인지 확인한다.

정답 풀이

② 1문단의 마지막 문장에서 목적이 같더라도 전략은 다양하게 구사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독서의 기능과 전략이 일대일 대응 관계를 이루는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 ① 1문단에서 마인드맵은 글의 핵심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전략의 하나라고 하였으며, 2문단에서 QAR도 글의 정보를 파악하고 의미를 재구성하는 독서 전략이라고 하였다.
- ③ 1문단에서 독서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글의 내용을 파악하고, 추론과 비판, 종합적 판단 등의 사고 과정을 통해 의미를 재구성하는 활동이라고 하였다.

- ④ 1문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의식적이고 체계적인 계획과 방법, 즉 전략'이라는 부분을 통해 전략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의식적이고 체계적인 계획과 방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⑤ 5문단에서 QAR 독서 전략은 글 속에 해답이 있는 질문하기를 통해 글의 정보를 파악하거나 글의 구조를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고 하였다.

짧은골 발문 Tip

- [A]를 바탕으로 할 때, <보기> 사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윗글을 참고할 때 ㉠에 해당되는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지문의 내용을 실제 사례에 적용하는 유형

02 윗글에 QAR를 적용하여 만들 수 있는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질문 유형	질문
①	확정 질문	QAR를 개발한 사람은 누구인가?
②	확정 질문	연결 질문은 QAR의 질문 유형 중 어떤 유형에 속하는가?
③	연결 질문	연결 질문과 확정 질문의 차이는 무엇인가?
④	저자와 나 사이에 해답이 있는 질문	「허생전」과 관련하여 저자와 나 사이에 해답이 있는 질문의 사례로 제시된 것은 무엇인가?
⑤	나의 생각에 해답이 있는 질문	QAR가 나의 독서에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을까?

유형 이해

글에 제시된 정보를 파악하고 이를 다시 글에 적용해 보는 유형이다. 내용 적용하기 문제는 새로운 사례에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 글이 독서 전략에 관한 글이기 때문에 독서 전략을 글에 적용하는 변형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문항에 대한 접근법도 다른 적용하기 유형과 마찬가지로 먼저 범주나 유형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사례가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한다.

유형 공략

- 1 유형이나 범주와 관련된 정보를 파악한다.
- 2 선지의 내용이 유형이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는지 판단한다.

정답 풀이

- ④ 저자와 나 사이에 해답이 있는 질문은 독자의 배경지식과 글 안의 근거를 함께 활용해야 답을 할 수 있는 질문이다. 그런데 4문단에서 저자와 나 사이에 해답이 있는 질문의 예로 '허생이 숟가락을 잡을 때는 오른손으로만 잡게 하라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를 들고 있기 때문에 '허생전과 관련하여 저자와 나 사이에 해답이 있는 질문의 사례로 제시된 것은 무엇인가?'는 글에 해답이 드러나 있는 확정 질문이라고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확정 질문은 글에 해답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질문이다. 'QAR를 개발한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라파엘'이라는 답이 글에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확정 질문이다.
- ② '연결 질문은 QAR의 질문 유형 중 어떤 유형에 속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글 속에 해답이 있는 질문'이라는 답이 글에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확정 질문이다.
- ③ 연결 질문은 주로 주장과 근거 파악, 차이점과 공통점 파악 등 답이 텍스트의 여러 곳에 흩어져 있어서 텍스트의 여러 부분을 결합해야 답할 수 있는 질문이다. '연결 질문과 확정 질문의 차이는 무엇인가?'는 연결 질문과 확정 질문의 차이점을 파악하는 것이므로 연결 질문이다.
- ⑤ 나의 생각에 해답이 있는 질문은 자신의 상상이나 생각, 의견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구성된 질문이다. 'QAR가 나의 독서에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을까?'는 독자가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질문이므로 나의 생각에 해답이 있는 질문이다.

답은골 발문 Tip

- 윗글과 <보기>를 통해 이끌어 낼 수 있는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기>의 @가 윗글의 ㉠에 대해 비판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 윗글과 <보기>를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외부 자료와 비교하여 평가하는 유형

03 윗글의 ㉠과 <보기>의 ㉡을 비교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 KWL은 독서의 목적을 분명히 하여 글을 읽게 해 주고, 독자의 배경지식과 독서를 통해 얻은 새로운 지식 사이의 결합을 촉진하기 위한 독서 전략이다. KWL에서는 독자가 '아는 것(Know)', '알고 싶은 것(Want to learn)', '배운 것(Learned)'을 표에 각각 작성한다. 우선 글의 제목이나 목차를 통해 화제를 파악한 후, 화제와 관련하여 알고 있는 것을 K에 자유롭게 적는다. W에는 더 깊이 알고 싶은 내용에 대한 질문을 만든다. W의 내용을 작성한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글을 읽어 가면서 K와 내용이 일치하는지, W의 내용이 나오는지 유의한다. 글을 다 읽고 난 후 L에는 새로 알게 된 내용을 기록한 다음, 새롭게 알게 된 것 중에서 의문이 생기는 내용이 없는지를 검토하여 L에 추가로 기록한다.

- ① ㉠이 독서 전과 중에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과 달리, ㉡에서는 독서가 끝난 후 활동이 이루어지는군.
- ② ㉠에서 질문을 작성하는 것과 ㉡에서 W에 질문을 작성하는 것은 모두 읽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겠군.
- ③ ㉡에서 ㉠과 달리 K를 작성하는 것은, 배경지식과 새로운 지식 사이의 결합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겠군.
- ④ ㉡은 ㉠과 달리 추론과 판단을 위한 질문이 강조되므로, 독자가 독서를 통해 사고를 확장해 나가는 데 유용한 방법이겠군.
- ⑤ ㉠에서 글 속에 해답이 있는 질문은 독자가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이므로, ㉡의 L에 작성하는 내용과는 성격이 상이하겠군.

유형 이해

지문의 정보와 <보기>의 정보를 비교하는 문제 유형이다. 이 유형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먼저 ㉠, ㉡과 같이 표시된 부분과 관련된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두 개를 비교하라고 하였을 때는 표시된 부분들의 관계, 차이점 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선지를 읽을 때는 '㉠은 ㉡과 달리 ~하다.'와 같은 표현의 경우 ㉠은 ~하고, ㉡은 ~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유형 공략

- ① 표시된 부분과 관련된 정보들을 찾는다.
- ② 표시된 부분들 간의 차이점을 파악한다.
- ③ '~과 달리'에 유의하며 선지의 타당성을 판단한다.

정답 풀이

③ ㉠에서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표에 기록하지 않지만 ㉡에서는 K란에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적는다. ㉡에서 배경지식인 K를 적는 것은 배경지식을 활성화하여 새로운 지식과의 결합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에서는 질문과 답을 하는 활동이 주로 책을 읽은 후 이루어지는 반면, ㉡에서는 독서 후에만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책을 읽기 전에도 K와 W를 적는 활동이 이루어진다.
- ② ㉠에서 질문은 글의 정보를 파악하고 의미를 재구성하기 위한 것이지만, ㉡에서 W에 적는 질문은 알고 싶은 내용을 작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의 질문은 글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이 아니다.
- ④ 5문단에서 ㉠은 저자와 나 사이에 해답이 있는 질문과 나의 생각에 해답이 있는 질문을 통해 추론과 판단의 능력을 키우는 데 적합하다고 하였다. 추론과 판단을 위한 질문은 ㉠에서 강조된다.
- ⑤ ㉠에서 글 속에 해답이 있는 질문은 독자가 이미 알고 있는 배경지식이 아니라 독서를 해야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이다.

유형 연습 2

[01~0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상징은 말이나 형상이 명백한 의미 이상의 무언가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그 무언가는 정확하게 정의하거나 완벽하게 설명하지는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의식과 관련이 깊다. 어떤 환자는 음식을 삼키려 할 때마다 심한 경련을 일으키는데, 그것은 음식물로 상징되는 상황을 용납할 수 없는 무의식의 발현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무의식에서의 문제는 신체적 증상, 즉 신경증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꿈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더 많다. 지크문트 프로이트는 꿈의 상징이 신경증보다 훨씬 더 풍부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꿈은 환자의 무의식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고 보았다.

프로이트는 신경증 환자의 꿈을 분석하기 위해 ‘자유 연상법’을 창안하였다. 이 방법은 의사가 꿈을 꾸 사람에게 그 꿈의 이미지나 이미지를 통해 환기되는 생각들에 대해 계속 이야기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다. 의사는 환자와 ㉠이야기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환자가 말한 것과 의도적으로 말하지 않은 것을 통해 병의 무의식적 배경을 밝혀낼 수 있다는 것이다. 프로이트는 자유 연상을 통해 환자들이 감추려고 하고 억누르려고 하는, 문제의 무의식적 근원에 이를 수 있었다. 임상 경험을 통해 프로이트는 억압되어 무의식에 잠재하던 욕구가 꿈으로 나타난다는 이론을 제시했고, 이 이론은 널리 인정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카를 구스타프 융은 무의식을 분석하는 데 자유 연상법은 오류가 생기기 쉬운 방법이라는 의혹을 가지게 되었다. 그의 동료는 러시아 여행 중 처음 보는 ㉡키릴 문자를 보고 공상에 빠졌는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콤플렉스라 불리는 무의식적 근원에 이르는 경험을 하였다. 융은 이를 통해 자유 연상의 출발점이 꿈일 필요는 없으며 키릴 문자와 같은 상징물도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또 꿈은 의식이 사라질 때 나타나기 때문에 꿈의 상징적 이미지 자체가 무의식의 내용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자유 연상에 의해 일련의 생각을 이리저리 따라가다 보면 ㉢꿈의 실체에서 멀어진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융은 자신의 견해가 확고해짐에 따라 프로이트의 방법과 결별하고 새로운 방법을 정립해 나갔다. 그는 환자들에게 꿈에서 본 이미지들을 자세하게 기술하도록 하여 무의식이 최대한 드러날 수 있도록 하였다. ㉣꾸며서 만들어 낸 이야기에는 체계적인 전개가 있지만 꿈은 체계나 논리성이 없었다. 융은 꿈의 실체와는 관련이 없는 관념이나 연상, 억지로 논리성을 맞추려는 의식적인 노력들을 모두 배제하고 꿈의 이미지들이 상징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 결과 융은 꿈의 이미지들이 ‘리비도’라는 성적 에너지의 표현이라고 본 프로이트와 달리 다양한 근원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나) 융은 꿈의 이미지와 고대 신화 연구에 몰두하면서 신화와 신경증 환자가 떠올리는 이미지들 사이에 유사점이 있음을 발견했다. 한 환자는 ㉤태양의 한가운데서 둥근 관이 나오고 그 관을 움직여 바람을 만들어 냈다는 이야기를 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고대 미트라교 경전에 나오는데, 환자는 미트라교에 대해 아는 것이 전혀 없었다. 융은 환자가 기술하는 꿈에서 본 환상이 고대로부터 이어져 오는 이미지나 상징의 집단적 저장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발견하고 개인적 무의식에 덧붙여 ‘본능’과 ‘원형’이라는 두 개의 요소로 이루어진 ‘집단 무의식’을 가정했다.

본능이란 특정 행동을 하게 하는 충동으로 새들의 귀소 본능처럼 ㉥생물학적으로 전달되는 것이다. 융은 인간에게는 이와 더불어 대상을 인식하는 무의식적 이해 양식이 있다고 보았는데, 이를 원

형이라고 하였다. 융에 따르면 둘은 모두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보편적이고 집단적인 것이며, 본능이 개인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처럼 원형은 개인의 이해 방식을 결정한다.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행동하고자 하는 충동이 결정되고, 행동하려는 충동도 상황 이해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융은 이처럼 본능과 원형의 관계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원형은 본능처럼 유전자를 통해 전달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런데 원형이 유전된다는 것은 획득 형질이 유전된다는 라마르크의 오류를 답습한다는 반론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융은 유전을 통해 전달되는 것은 경험을 통해 얻은 이미지들의 내용이 아니라 형식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원형은 순전히 형식적이고 구조적인 개념이고, 원형적 이미지를 구성하는 세부 내용들은 환경이나 역사적인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보았다. ㉔이런 점 때문에 융은 후기 저작에서 ‘원형 자체’와 원형적 이미지를 엄격하게 구분하였다. 원형적 이미지들은 언어와 역사를 공유하는 집단들 사이에 다양하게 변이되어 나타나지만, 그것들은 원형 자체에서 비롯된다고 하였다. 융은 원형 자체가 최초의 무형 상태로부터 구체적 이미지를 만들어 내는 틀이라고 보았다. 그로부터 만들어진 이미지는 원시의 초자연적이고 신성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신화의 형태로 남는다고 보았다.

지문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유형

▶ 23051-0004

0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가)에서 융이 언급한 프로이트의 오류를 (나)에서 예를 들어 상술하고 있다.
- ② (가)에서 언급한 융의 새로운 꿈 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연구한 결과가 (나)에 제시되어 있다.
- ③ (가)에서 인정을 받았던 프로이트의 방법이 융에 의해 권위를 잃게 된 과정이 (나)에 제시되어 있다.
- ④ (가)에서는 프로이트와 융의 연구 방법이 가진 차이점을, (나)에서는 공통점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
- ⑤ (가)에서는 프로이트와 융이 모두 의미를 두었던 대상을, (나)에서는 두 사람이 간과했던 대상을 언급하고 있다.

주요 소재들끼리 비교하는 유형

▶ 23051-0005

02 ㉑과 ㉒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㉑은 무의식적 근원에 이르는 데 단서가 된 상징이다.
- ② ㉒은 신경증 환자의 과거 경험과는 관련 없는 이미지이다.
- ③ ㉒은 인류가 보편적으로 원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의 근거가 된다.
- ④ ㉒은 ㉑과 달리 의식이 사라진 상태에서 본 이미지이다.
- ⑤ ㉒은 ㉑과 달리 콤플렉스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보여 준다.

▶ 23051-0006

핵심 화제에 대한 세부 정보를 파악하는 유형

03

원형 자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유전을 통해 계속해서 전달되는 것이다.
- ② 대상을 인식하는 무의식적 이해 양식이다.
- ③ 언어와 역사를 공유하는 집단 내에서만 존재한다.
- ④ 구체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이미지를 만들어 내는 틀이다.
- ⑤ 감각적으로 인식되지 않는 형식적이고 구조적인 개념이다.

▶ 23051-0007

지문의 내용을 관련 사례에 적용하는 유형

04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사례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사례 1]

신경증 환자 A는 유니콘을 타고 나는 꿈을 꾸 뒤 의사와 상담을 하였다. 의사가 A에게 꿈과 관련하여 마음에 일어나는 것들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도록 했다. A는 유니콘을 마스코트로 하는 야구팀의 팬이었고, 어린 시절 형과 함께 야구장에서 열렬하게 응원했던 경험을 신나게 이야기했다. 야구를 보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의 이야기를 하면서는 이전과 달리 멍뭉거리며 말하고, 아버지에 대한 화제에 이르자 다른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다.

[사례 2]

케쿨레는 벤젠의 구조를 연구하던 중 꿈속에서 자기 꼬리를 물고 있는 뱀의 모양을 보았다. 이와 비슷한 이미지는 기원전 3세기 그리스 문서에도 나타나는데 케쿨레가 이 문서를 본 적은 없었다. 그는 꿈의 이미지에 집중한 결과, 닫힌 구조의 세계에 대해 떠올리고 벤젠의 분자 구조 역시 이와 같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 ① [사례 1]의 의사는 환자의 무의식을 분석하기 위해 자유 연상법을 사용하고 있다.
- ② [사례 1]에서 프로이트의 해석에 의하면 환자 A가 회피하려고 하는 부분이 문제의 무의식적 근원일 가능성이 높다.
- ③ [사례 2]에서 케쿨레가 본 꿈의 이미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고대 문서에 있다는 점에서 집단 무의식과 관련이 된다.
- ④ [사례 2]에서 케쿨레가 본 뱀의 형상은 시공을 초월하여 똑같은 모습으로 꿈에 나타난다는 점에서 인류가 가진 본능이라고 할 수 있다.
- ⑤ [사례 2]에서 케쿨레는 꿈의 이미지에 집중하는 반면, [사례 1]에서 의사는 일련의 생각들을 따라가면서 새로운 이미지와 화제들을 이끌어 내고 있다.

▶ 23051-0008

05

지문과 보충 자료를 연결하여 적절하게 반응하는 유형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용은 프로이트와 교류하면서 자신의 꿈과 신경증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었다. 용은 퇴락한 집에 고가구들이 배치되어 있고 해골과 사체로 가득 찬 이미지들을 말했다. 프로이트는 자유 연상법을 사용하면서 해골과 사체들에 대해 요절(夭折)에 대한 두려움으로 해석했다. 그러나 용은 이미지들이 화석 인류와 해부학에 관심이 많았던 자신의 어린 시절과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퇴락한 집과 고가구의 이미지는 종교인과 의사가 많은 집안 특유의 엄숙한 분위기, 우울증을 앓는 어머니 등의 성장 환경과 관련된 것이라고 보았다. 용은 프로이트와의 상담 과정에서 자신의 내밀한 부분까지 보여 주는 것을 피하기 위해 자유 연상을 말할 때 일부 거짓이 있었다고 고백했다.

- ① 용의 꿈에 나타난 이미지들은 집단 무의식의 존재를 증명하는 결정적 근거가 되었겠군.
- ② 용처럼 환자가 자신의 성장 환경에 대해 말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환자가 가진 문제의 무의식적 근원은 발견할 수가 없겠군.
- ③ 용이 자유 연상법에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게 된 계기는 프로이트가 자신의 꿈을 억압된 욕구와 연결하여 해석했기 때문이겠군.
- ④ 용의 꿈에 나타난 해골과 사체들의 이미지들에 대해 프로이트는 이미지들 간의 논리적 인과 관계만으로도 설명이 가능하다고 보았겠군.
- ⑤ 용이 자신의 꿈을 분석할 때는 프로이트에게 말할 때와 같은 의식적인 노력은 배제하고 꿈의 상징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을 했겠군.

▶ 23051-0009

06

문맥에 맞는 다른 어구로 바꾸어 쓰는 유형

㉠~㉡를 바꾸어 쓴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자유 연상법을 시행하는
- ② ㉡: 꿈에서 본 상징적 이미지에서
- ③ ㉢: 무의식의 세계를 반영하는
- ④ ㉣: 유전자를 통해 전달되는
- ⑤ ㉤: 원형과 원형적 이미지가 다르다는 점

유형 연습 ② Zoom In



(가) 꿈에 대한 프로이트와 융의 분석

해제 이 글은 정신 분석학에서 무의식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되는 꿈에 대한 프로이트와 융의 분석법을 설명하고 있다. 프로이트는 꿈을 분석하기 위해 자유 연상법을 창안하였는데, 이것은 환자가 꿈과 관련하여 연상되는 것들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도록 하여 문제의 무의식적 근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융은 자유 연상법이 오류가 생기기 쉬우며 꿈의 실체에서 멀어지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꿈의 이미지 자체에 집중하는 새로운 방법을 정립하였다.

주제 꿈의 상징에 대한 프로이트와 융의 분석 방법

- 구성**
- 1문단: 무의식 파악의 단서가 되는 꿈
 - 2문단: 꿈의 분석을 위한 프로이트의 자유 연상법
 - 3문단: 자유 연상법에 대한 융의 문제 제기
 - 4문단: 꿈의 이미지에 집중하는 융의 분석 방법



(나) 융의 원형 이론

해제 이 글은 융이 집단 무의식의 일부분으로 상정했던 ‘원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융은 원형이 무의식적 이해 방식으로 본능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며, 유전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원형이 유전될 수 없다는 반론에 대해 융은 원형이 형식적이고 구조적인 것이라고 하였으며, 이를 강조하기 위해 ‘원형 자체’라는 말을 썼다.

주제 원형이 인류에게 존재하고 전달되는 방식

- 구성**
- 1문단: 본능과 원형으로 구성된 집단 무의식
 - 2문단: 본능과 원형의 관계
 - 3문단: ‘원형 자체’의 성격

짧은골 발문 Tip

-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가)와 (나)의 공통적인 내용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지문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유형

0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가)에서 용이 언급한 프로이트의 오류를 (나)에서 예를 들어 상술하고 있다.
- ② (가)에서 언급한 용의 새로운 꿈 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연구한 결과가 (나)에 제시되어 있다.
- ③ (가)에서 인정을 받았던 프로이트의 방법이 용에 의해 권위를 잃게 된 과정이 (나)에 제시되어 있다.
- ④ (가)에서는 프로이트와 용의 연구 방법이 가진 차이점을, (나)에서는 공통점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
- ⑤ (가)에서는 프로이트와 용이 모두 의미를 두었던 대상물, (나)에서는 두 사람이 간과했던 대상을 언급하고 있다.

유형 이해

두 개의 글이 제시된 지문에서 글의 중심 화제와 내용 전개 방법, 글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제 유형이다. 기본적으로 중심 화제를 파악하고, 중심 화제에 대해 글에서 이야기하려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와 (나)로 묶은 글은 공통된 화제를 다루고 있는 글이기 때문에 두 글의 접점이 되는 것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형 공략

- ① 중심 화제와 두 글의 접점이 되는 화제를 파악한다.
- ② 각각의 논지와 논지 전개 방식을 파악한다.
- ③ 두 글을 비교해 보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한다.

정답 풀이

- ② (가)에서는 용이 프로이트의 '자유 연상법'과 결별을 하고 꿈의 이미지를 자세하게 기술하게 하는 새로운 방법을 정립했다고 하였다. (나)에서는 용이 환자들의 꿈속 이미지들을 연구한 결과 원형이라는 개념을 도출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나)의 결과는 (가)에서 이야기한 새로운 방법을 적용하여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나)에서 프로이트의 오류에 대해 상술하지는 않는다.
- ③ (나)에는 프로이트의 자유 연상법이 권위를 잃게 된 과정에 대한 내용이 없다. (가)에 따르면 용은 프로이트의 자유 연상법과 다른 방법을 정립하였지만, 자유 연상법이 용에 의해 권위를 잃게 된 것은 아니다.
- ④ (나)에서 프로이트와 용의 연구 방법의 공통점을 서술하지는 않는다.
- ⑤ (가)에서는 프로이트와 용이 모두 의미를 두었던 대상인 꿈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나)에 두 사람이 간과했던 대상에 대한 이야기는 없다.

답은골 발문 Tip

- ㉠과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과 ㉡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윗글을 고려할 때 ㉠과 ㉡ 모두 '아니오'라고 답할 질문은?

주요 소재들끼리 비교하는 유형

02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무의식적 근원에 이르는 데 단서가 된 상징이다.
- ② ㉡은 신경증 환자의 과거 경험과는 관련 없는 이미지이다.
- ③ ㉡은 인류가 보편적으로 원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의 근거가 된다.
- ④ ㉡은 ㉠과 달리 의식이 사라진 상태에서 본 이미지이다.
- ⑤ ㉡은 ㉠과 달리 콤플렉스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보여 준다.

유형 이해

지문의 특정 개념어들의 관계와 차이점을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 유형이다. 이 유형에서는 지문의 내용 중 관련성이 있는 개념어를 선정하여 비교하는 선지를 구성한다. 개념어와 관련된 내용을 반대로 진술하거나 개념어들의 설명 내용을 엇갈리게 연결하여 적절하지 않은 내용의 선지를 구성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런 점들에 주의를 기울이며 정보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유형 공략

- ① 핵심어 및 개념어와 그에 대한 주요 서술어를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한다.
- ② 선지를 읽으면서 지문 내용 중 각 선지에서 언급한 내용에 해당하는 부분을 찾는다.
- ③ 지문 정보와 선지 내용을 비교하여 선지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한다.

정답 풀이

- ⑤ ㉠은 자유 연상의 시작점이 되는 것으로, 꿈이 자유 연상의 시작이 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물이다. ㉡은 집단 무의식을 보여 주는 원형적 이미지이다. 그러므로 ㉠뿐만 아니라 ㉡도 콤플렉스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보여 주는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 ① (가)의 3문단에 따르면 용의 동료는 ㉠을 단서로 자유 연상을 해 가면서 콤플렉스에 이르는 경험을 하였다.
- ② ㉡은 신경증 환자가 이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미지로, 환자의 과거 경험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 ③ (나)의 1문단에 따르면 ㉡은 용이 인류 보편의 집단 무의식이 있다고 주장한 것의 근거가 되었다.
- ④ ㉠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본 이미지이지만, ㉡은 의식의 영향이 사라진 꿈속에서 본 이미지이다.

짧은골 발문 Tip

- BIS 비율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아도르노가 보는 대중 예술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03

핵심 화제에 대한 세부 정보를 파악하는 유형

원형 자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유전을 통해 계속해서 전달되는 것이다.
- ② 대상을 인식하는 무의식적 이해 양식이다.
- ③ 언어와 역사를 공유하는 집단 내에서만 존재한다.
- ④ 구체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이미지를 만들어 내는 틀이다.
- ⑤ 감각적으로 인식되지 않는 형식적이고 구조적인 개념이다.

유형 이해

중심적인 제재에 대해 세부 정보를 파악하는 문제 유형이다. 중심 제재이기 때문에 답지 판단과 관련된 정보가 특정 부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문 전체에 있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비교되는 개념이 있을 때는 다른 개념에 대한 서술을 오답의 지점으로 잡을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유형 공략

- ① 지문에서 중심 제재와 관련된 정보를 파악한다.
- ② 선지의 서술이 다른 개념을 서술한 것이 아닌지 확인한다.

정답 풀이

- ③ 용은 원형 자체에 대해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원형 자체가 언어와 역사를 공유하는 집단 내에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 ① 용은 원형 자체가 새들의 귀소 본능처럼 생물학적 특성을 지닌 것으로 유전자를 통해 전달된다고 보았다.
- ② 용은 인간에게 있는 대상을 인식하는 무의식적 이해 양식을 원형이라고 하였는데, 이를 원형적 이미지와 구분하기 위해 원형 자체라고 하였다.
- ④ 용은 원형 자체가 최초의 무형 상태로부터 구체적인 이미지를 만들어 내는 틀이라고 보았다.
- ⑤ 용은 원형 자체가 이미지의 내용이 아니라 형식적이고 구조적인 개념이라고 보았다.

답은꼴 발문 Tip

-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의 사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지문의 내용을 관련 사례에 적용하는 유형

04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사례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사례 1]

신경증 환자 A는 유니콘을 타고 나는 꿈을 꾸 뒤 의사와 상담을 하였다. 의사가 A에게 꿈과 관련하여 마음에 일어나는 것들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도록 했다. A는 유니콘을 마스크트로는 하는 야구팀의 팬이었고, 어린 시절 형과 함께 야구장에서 열렬하게 응원했던 경험을 신나게 이야기했다. 야구를 보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의 이야기를 하면서는 이전과 달리 멍뭉거리며 말하고, 아버지에 대한 화제에 이르자 다른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다.

[사례 2]

케쿨레는 벤젠의 구조를 연구하던 중 꿈속에서 자기 꼬리를 물고 있는 뱀의 모양을 보았다. 이와 비슷한 이미지는 기원전 3세기 그리스 문서에도 나타나는데 케쿨레가 이 문서를 본 적은 없었다. 그는 꿈의 이미지에 집중한 결과, 닫힌 구조의 세계에 대해 떠올리고 벤젠의 분자 구조 역시 이와 같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 ① [사례 1]의 의사는 환자의 무의식을 분석하기 위해 자유 연상법을 사용하고 있다.
- ② [사례 1]에서 프로이트의 해석에 의하면 환자 A가 회피하려고 하는 부분이 문제의 무의식적 근원일 가능성이 높다.
- ③ [사례 2]에서 케쿨레가 본 꿈의 이미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고대 문서에 있다는 점에서 집단 무의식과 관련이 된다.
- ④ [사례 2]에서 케쿨레가 본 뱀의 형상은 시공을 초월하여 똑같은 모습으로 꿈에 나타난다는 점에서 인류가 가진 본능이라고 할 수 있다.
- ⑤ [사례 2]에서 케쿨레는 꿈의 이미지에 집중하는 반면, [사례 1]에서 의사는 일련의 생각들을 따라가면서 새로운 이미지와 화제들을 이끌어 내고 있다.

유형 이해

지문의 내용과 관련된 자료를 제시하고 지문과 자료를 연결하여 사례에 대해 해석할 것을 요구하는 문제 유형이다. 제시된 <보기>는 대개 지문에서 소개한 주요 정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므로, 우선 <보기>의 내용이 지문의 어떤 정보와 연관된 것인지를 파악해야 한다. 그런 다음 지문의 핵심어나 개념어가 <보기>에 사용된 맥락을 살펴보면 선지에 제시된 사례에 대해 판단해야 한다.

유형 공략

- ① <보기>의 내용을 해석하고 지문의 어떤 정보와 관련된 것인지 파악한다.
- ② <보기>에 지문의 핵심 개념이 어떤 맥락으로 사용되었는지 파악한다.
- ③ 선지와 관련된 정보를 지문에서 찾고 적절성 여부를 판단한다.

정답 풀이

- ④ 용은 생물학적 행동 양식을 결정하는 본능과 더불어 대상을 인식하는 무의식적 이해 양식인 원형 자체도 인류에게 유전된다고 보았다. [사례 2]에서 케쿨레가 본 뱀의 구체적인 형상은 원형적 이미지이며, 이것은 본능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원형적 이미지들은 언어와 역사를 공유하는 집단들 사이에 다양하게 변이되어 나타나는 것이므로 시공을 초월하여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도 아니다.

오답 풀이

- ① [사례 1]에서 의사는 유니콘을 타고 나는 꿈을 단서로 마음에 일어나는 것들을 자유롭게 이야기해 가도록 하고 있다. 이는 프로이트가 고안한 자유 연상법을 적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② 프로이트는 환자가 감추고 회피하려는 것을 통해 신경증의 무의식적 근원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사례 1]에서 환자 A는 아버지와 관련된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으므로 그 부분이 문제의 무의식적 근원일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 ③ 케쿨레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고대 문서에 나오는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다는 것은 (나의) 환자가 미트라교의 이미지를 떠올린 것처럼 개인적 무의식 외에 집단적 무의식이 있다는 것의 근거가 된다.
- ⑤ [사례 1]에서는 자유 연상법을 사용함으로써 유니콘이 날고 있다는 원래의 꿈의 내용에 어린 시

절 이야기와 같은 새로운 이미지와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와 달리 [사례 2]에서는 꿈속의 이미지에 집중을 하고 있다.

답은꼴 발문 Tip

- 뒷글과 <보기>를 통해 이끌어 낼 수 있는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뒷글을 읽은 학생이 <보기>의 『임원경제지』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지문과 보충 자료를 연결하여 적절하게 반응하는 유형

05 뒷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용은 프로이트와 교류하면서 자신의 꿈과 신경증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다. 용은 퇴락한 집에 고가구들이 배치되어 있고 해골과 사체로 가득 찬 이미지들을 말했다. 프로이트는 자유 연상법을 사용하면서 해골과 사체들에 대해 요절(夭折)에 대한 두려움으로 해석했다. 그러나 용은 이미지들이 화석 인류와 해부학에 관심이 많았던 자신의 어린 시절과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퇴락한 집과 고가구의 이미지는 종교인과 의사가 많은 집안 특유의 엄숙한 분위기, 우울증을 앓는 어머니 등의 성장 환경과 관련된 것이라고 보았다. 용은 프로이트와의 상담 과정에서 자신의 내밀한 부분까지 보여 주는 것을 피하기 위해 자유 연상을 말할 때 일부 거짓이 있었다고 고백했다.

- ① 용의 꿈에 나타난 이미지들은 집단 무의식의 존재를 증명하는 결정적 근거가 되었겠군.
- ② 용처럼 환자가 자신의 성장 환경에 대해 말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환자가 가진 문제의 무의식적 근원은 발견할 수가 없겠군.
- ③ 용이 자유 연상법에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게 된 계기는 프로이트가 자신의 꿈을 억압된 욕구와 연결하여 해석했기 때문이겠군.
- ④ 용의 꿈에 나타난 해골과 사체들의 이미지들에 대해 프로이트는 이미지들 간의 논리적 인과 관계만으로도 설명이 가능하다고 보았겠군.
- ⑤ 용이 자신의 꿈을 분석할 때는 프로이트에게 말할 때와 같은 의식적인 노력은 배제하고 꿈의 상징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을 했겠군.

유형 이해

<보기>에 새로운 읽기 자료를 제시하고 지문의 내용과 연결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묻는 문제 유형이다. 새로운 정보를 읽어 내야 하고 지문과 비교해 보아야 하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릴 뿐만 아니라 난도도 매우 높은 유형이다. 빠르게 풀기 위해서는 <보기>를 읽을 때 연결되는 지문의 내용을 환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지문의 내용과 공통점 및 차이점을 파악하는 것도 선지에 대한 판단을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선지에 대한 판단을 할 때는 답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넓게 잡고 근거가 잘못되었거나 전혀 근거를 찾을 수 없는 답을 소거해 나가야 한다.

유형 공략

- ① <보기>를 읽으면서 연관 내용을 환기한다.
- ② <보기>와 지문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한다.
- ③ 선지의 내용이 글과 맞지 않거나 근거를 찾을 수 없는 것을 소거한다.

정답 풀이

⑤ 용은 자신의 꿈에 대해 프로이트에게 말할 때 자신의 내밀한 이야기를 보여 주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꾸며서 자유 연상을 말했다. 그렇지만 스스로 꿈의 이미지를 분석할 때는 그러한 의식적인 노력을 배제하고 꿈이 상징하는 것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을 하였다.

오답 풀이

- ① <보기>에서 용의 꿈에 나타난 이미지들은 개인의 성장 환경이 반영된 것이다. 이것이 본능과 원형으로 구성된 집단 무의식의 존재를 증명하는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 ② 프로이트의 자유 연상법은 말한 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한 것과 의도적으로 말하지 않은 것을 종합하여 문제의 무의식적 근원을 찾아내는 방법이다. 그러므로 용처럼 자신의 성장 환경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환자가 가진 문제의 무의식적 근원을 발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 ③ <보기>에서 용은 거짓으로 자유 연상을 이야기한 경우 꿈에 대해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런 점 때문에 용이 자유 연상법에 의문을 가진 것이지, 꿈을 억압된 욕구와 연결하여 해석하는 것 때문에 의문을 가진 것은 아니다.
- ④ 프로이트는 자유 연상법으로 용의 꿈을 해석하고 있다. 자유 연상법은 꿈의 이미지를 단서로 연상을 따라가면서 문제의 근원을 찾는 것이다. 그러므로 프로이트가 꿈속 이미지들의 논리적 인과 관계만으로 꿈을 설명하는 것은 아니다.

답은꼴 발문 Tip

•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문맥에 맞는 다른 어구로 바꾸어 쓰는 유형

06 ㉠~㉣를 바꾸어 쓴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자유 연상법을 시행하는
- ② ㉡: 꿈에서 본 상징적 이미지에서
- ③ ㉢: 무의식의 세계를 반영하는
- ④ ㉣: 유전자를 통해 전달되는
- ⑤ ㉤: 원형과 원형적 이미지가 다르다는 점

유형 이해

단어의 의미와 글의 문맥을 함께 파악해야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 유형이다. 선지에 주로 사용되는 부분은 바꾸어 쓸 때 문맥에서 답의 근거가 명확히 나오는 경우이다. 그래서 주로 비교나 대조가 되는 부분에서 앞과 다르게 표현한 부분, 지시하는 부분 등에서 출제가 된다. 앞의 문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사전적 의미에서 벗어난 것이 아닌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유형 공략

- ① 표시된 부분과 비교나 대조가 되는 맥락을 파악한다.
- ② 표시된 부분이 지시하는 부분을 파악한다.
- ③ 단어의 의미가 사전적 의미에서 벗어난 것이 아닌지 검토한다.
- ④ 바꾸어 표현했을 때 원래의 문장과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 아닌지 검토한다.

정답 풀이

③ ‘꾸며서 만들어 낸’ 이야기는 무의식이 작용하는 꿈과 달리 체계나 논리성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를 ‘무의식의 세계를 반영하는’으로 바꿀 경우 적절하지 않게 된다.

오답 풀이

- ① 환자가 이야기를 해 나가는 것은 자유 연상법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를 ‘자유 연상법을 시행하는’으로 바꿀 수 있다.
- ② 용이 생각한 꿈의 실체는 꿈의 상징적 이미지들이다. 따라서 ㉡를 ‘꿈에서 본 상징적 이미지에서’로 바꿀 수 있다.
- ④ 본능이 생물학적으로 전달된다는 것에 대해 같은 문단의 마지막에서는 본능이 유전자를 통해 전달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를 ‘유전자를 통해 전달되는’으로 바꿀 수 있다.
- ⑤ ‘이런 점’은 앞 문장들의 내용을 받는 것으로 원형은 이미지들의 내용이 아니라 형식이며, 구조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원형적 이미지들과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를 ‘원형과 원형적 이미지가 다르다는 점’으로 바꿀 수 있다.

01

독서

유형 연습 ③

[01~0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기업의 활동을 평가하거나 투자를 위한 판단을 할 때 가장 널리 사용되는 개념은 ‘이익률’이다. 이익률은 기업이 얻은 이익을 분자로 놓고 그것을 기준치로 나눈 값이다. 그런데 이익은 정의 방법에 따라 다양한 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 이익률도 달라진다.

기업 활동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이익은 ‘영업 이익’이다. 영업 이익은 일정 기간 영업 활동을 통해 발생한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와 판매비, 관리비 등의 비용을 빼고 남은 이익을 말한다. ‘영업 이익률’은 ‘영업 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눈 값인데, 일반적으로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거나 생산성이 높은 기업은 영업 이익률이 높다. 기업의 경쟁력을 평가할 때 영업 이익률을 많이 보는 이유는 그 때문이다. 영업 이익이 크면 기업의 실적이 좋다고 할 수 있지만, 여기에는 금융 비용이나 투자 손익, 외환 거래에서의 환차 손익 등과 같은 요소는 ④ 빠져 있다. 영업 이익에서 이러한 요소들을 가감한 이익을 ‘경상 이익’이라고 한다. 일례로 부채가 많은 기업의 경우 이자로 지출하는 비용이 크기 때문에 영업 이익은 혹자라 하더라도 경상 이익은 적자가 될 수 있다. 한편 기업에도 세금이 부과되며, 우발적 원인에 의해 생기는 특별 손익이 발생할 수 있다. 경상 이익에 특별 손익을 더한 후 세금을 빼면 기업의 실질적인 이익인 ‘순이익’을 구할 수 있다. 순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눈 값인 순이익률은 일정 기간의 경영 성과에 대한 중요한 지표가 된다.

기업의 활동을 자산을 투입하여 이익을 얻는 것으로 파악하면, 이익은 투입된 자산과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이익을 어떻게 정의했든 이익을 투입된 총자산으로 나누면 총자산 이익률을 얻을 수 있다. 이익을 순이익으로 본다면 총자산 순이익률 = $\frac{\text{순이익}}{\text{총자산}}$ 이 되는데, 이 식에서 분모 분자에 매

출액을 곱하여 변형해 본다면 총자산 순이익률 = $\frac{\text{순이익}}{\text{매출액}} \times \frac{\text{매출액}}{\text{총자산}}$ 이라는 식을 얻을 수 있다. 이때

$\frac{\text{순이익}}{\text{매출액}}$ 은 ‘순이익률’이고, $\frac{\text{매출액}}{\text{총자산}}$ 은 ‘총자산 회전율’이라고 한다. 총자산 회전율은 기업이 보유한 총

자산을 이용하여 매출액을 얼마나 창출하였는지를 보여 주는 지표이다. 총자산 회전율이 높다면 기업은 보유 자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공식에 따르면 총자산 순이익률은 순이익률과 총자산 회전율에 비례한다.

기업의 총자산은 자기 자본과 타인에게서 빌려 온 부채로 구성되어 있는데, 순이익을 자기 자본으로 나누면 ‘자기 자본 순이익률’을 얻을 수 있다. 이때 분자인 순이익은 총자산 순이익률 공식에서 ‘총자산 × 총자산 순이익률’로 나타낼 수 있다. 분모인 자기 자본은 ‘총자산 × (1 - 타인 자본 비율)’로 나타낼 수 있다. 분모와 분자에서 총자산을 소거하면 자기 자본 순이익률은 $\frac{\text{총자산 순이익률}}{(1 - \text{타인 자본 비율})}$ 로도 나타낼 수

있다. 이 공식에서 보면 총자산 순이익률이 일정할 때 자기 자본 순이익률은 자기 자본의 비율이 낮을수록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⑤ 타인의 자본을 지렛대 삼아 자기 자본의 수익률을 높이는 ‘레버리지 효과’의 원리를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100의 자기 자본으로 공장을 세워 10의 순이익을 얻었다면 자기 자본 순이익률은 10%이다. 그런데 만약 이 공장을 자기 자본 50과 타인의 자본 50으로 세웠다면 자기 자본 순이익률은 20%가 된다. 타인의 자본을 끌어올 경우 지불해야 할 이자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순이익이 줄어들 수 있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순이익이 보장된다면 타인 자본 비율이 높을수록 자기 자본 순이익률은 높아진다. 그렇지만 타인 자본의 비중이 높

을수록 이자 비용이 커지게 되며 손실이 생길 때의 위험 또한 크다. 특히 불황이나 금리 상승기에는 레버리지 효과가 ㉠기업에 큰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

▶ 23051-0010

지문의 세부 내용을 확인하는 유형**01** **윗글을 읽고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총자산이 같다면 매출액이 큰 기업의 총자산 회전율이 높다.
- ② 매출액이 같다면 영업 이익이 더 큰 기업이 영업 이익률도 높다.
- ③ 매출액과 영업 이익이 같은 기업 간에도 경상 이익은 다를 수 있다.
- ④ 자기 자본 비율이 낮고 부채가 많을수록 기업의 영업 이익은 작아진다.
- ⑤ 기업이 세금을 납부했고 특별 손익이 없다면 순이익은 경상 이익보다 작다.

▶ 23051-0011

핵심 화제와 관련된 세부 내용을 추론하는 유형**02** **㉠가 나타날 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 ① 순이익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자 비용이 줄어든다.
- ② 자기 자본 비율이 높을 때보다 경상 이익이 늘어난다.
- ③ 자기 자본 비율이 낮을수록 자기 자본 순이익률은 높아진다.
- ④ 총자산 순이익률의 증가로 인해 자기 자본 순이익률이 높아진다.
- ⑤ 자기 자본 순이익률이 증가하기 때문에 타인 자본이 필요하지 않게 된다.

▶ 23051-0012

지문의 내용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는 유형**03**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보기**

A 기업은 자기 자본 10억 원과 타인 자본 40억 원으로 설립되어 영업 활동을 하였다. A 기업의 2022년 매출액은 50억 원이고, 영업 이익은 10억 원이었다. 타인 자본에 대한 이자는 5%인 2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법인세로 2억 원을 납부한 후의 순이익은 6억 원이었다. (단, 이자로 지급한 금액과 법인세 외의 다른 금융 비용이나 손익도 없으며, 영업 이익이 같다면 법인세도 같다고 가정한다.)

- ① 2022년 A 기업의 총자산 회전율은 5이다.
- ② A 기업의 자기 자본 순이익률은 총자산 순이익률보다 크다.
- ③ 이자율이 10%였다면 A 기업의 총자산 순이익률은 높아졌을 것이다.
- ④ A 기업의 총자산 50억 원이 모두 자기 자본이었다면 순이익은 감소했을 것이다.
- ⑤ A 기업이 2023년에 타인 자본을 10억 원 늘리고도 매출액과 영업 이익이 2022년과 같았다면, 영업 이익률은 내려가고 순이익률은 높아질 것이다.

▶ 23051-0013

04

생략된 전제와 이유를 추론하는 유형

㉠의 이유를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불황이나 금리 상승기에는 타인 자본을 구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자기 자본 비율을 낮추기가 어렵기 때문
- ② 금리가 인상되면 부채를 줄이고 자기 자본의 비율을 높이려는 경향이 강해져 자기 자본 이익률은 낮아지기 때문
- ③ 불황이나 금리 상승기에 손실이 생긴 기업은 경기 상황이 호전된다 하더라도 발생한 손실을 메울 수가 없기 때문
- ④ 금리가 인상되면 기업에 투자하였던 자금들이 은행으로 몰리게 되므로 기업은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기가 어렵기 때문
- ⑤ 불황이나 금리 상승기에는 자기 자본 비율이 낮은 기업일수록 금융 비용이 증가하여 자기 자본 순이익률의 하락이 커질 수 있기 때문

▶ 23051-0014

05

단어의 문맥적 의미를 파악하는 유형

㉡와 문맥적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스트레스로 머리카락이 많이 빠졌다.
- ② 오늘 장사만으로도 본전은 빠질 것 같다.
- ③ 공에 바람이 빠져서 제대로 찰 수가 없다.
- ④ 준비물 중 빠진 것이 있는지 한 번 더 보아라.
- ⑤ 그 소식을 듣고 다리에 힘이 빠져서 주저앉고 말았다.

유형 연습 ③ Zoom In



이익률과 레버리지 효과

예제 이 글은 기업 활동에 대한 평가 척도인 이익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익률은 이익을 기준으로 나눈 값인데 기업에서 매출과 관련하여 많이 사용하는 이익률에는 영업 이익률, 경상 이익률, 순이익률이 있다. 순이익을 투입된 자산으로 나누면 총자산 순이익률을 얻을 수 있는데, 총자산은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자기 자본 순이익률은 $\frac{\text{총자산 순이익률}}{(1-\text{타인 자본 비율})}$ 로 나타낼 수 있다. 이 공식에서 총자산 순이익률이 일정하다면 타인 자본 비율이 높을수록 자기 자본 순이익률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타인 자본을 지렛대 삼아 자기 자본의 수익률을 높이는 레버리지 효과의 원리를 알 수 있다.

주제 이익률의 다양한 개념과 자기 자본 순이익률을 높이기 위한 레버리지 효과의 원리

- 구성**
- 1문단: 이익률의 개념
 - 2문단: 기업에서 사용하는 이익과 이익률
 - 3문단: 투입된 자산의 측면에서 본 이익률
 - 4문단: 자기 자본 순이익률과 레버리지 효과의 원리

짧은골 발문 Tip

- ㉠~㉢을 비교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뒷글을 읽고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지문의 세부 내용을 확인하는 유형

01 뒷글을 읽고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총자산이 같다면 매출액이 큰 기업의 총자산 회전율이 높다.
- ② 매출액이 같다면 영업 이익이 더 큰 기업이 영업 이익률도 높다.
- ③ 매출액과 영업 이익이 같은 기업 간에도 경상 이익은 다를 수 있다.
- ④ 자기 자본 비율이 낮고 부채가 많을수록 기업의 영업 이익은 작아진다.
- ⑤ 기업이 세금을 납부했고 특별 손익이 없다면 순이익은 경상 이익보다 작다.

유형 이해

글의 주요 개념을 파악하고 정보를 변형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 유형이다. 문제 형태는 단순하지만 난도는 높은 유형의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선지에 제시된 개념을 지문에서 파악하고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정보, 즉 '높다/낮다', '적다/많다'와 같은 말들에 유의해야 한다. 지문에 제시된 것과 반대의 조건이 선지에 제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에 주의해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형 공략

- ① 선지에 제시된 개념과 관련된 정보를 파악한다.
- ② 지문에서 조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정보에 유의한다.
- ③ 지문의 내용과 반대의 조건을 제시한 선지에 유의하며 적절성을 판단한다.

정답 풀이

- ④ 영업 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와 판매비, 관리비 등의 비용을 빼고 남은 이익이다. 영업 이익은 매출액과 비용에 관련되는 것이며, 자기 자본 비율이 낮다고 해서 영업 이익이 작아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타인 자본을 빌려 투자를 늘리는 경우 매출액이 늘어나 영업 이익이 커질 수도 있다.

오답 풀이

- ① 총자산 회전율은 $\frac{\text{매출액}}{\text{총자산}}$ 으로 구할 수 있다. 그러므로 분모인 총자산이 같다면 분자인 매출액이 클수록 총자산 회전율은 높다.

- ② 영업 이익률은 영업 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눈 값이다. 그러므로 분모인 매출액이 같다면 분자인 영업 이익이 클수록 영업 이익률은 높다.
- ③ 경상 이익은 영업 이익에서 금융 비용이나 투자 손익, 외환 거래에서의 환차 손익 등과 같은 요소를 가감한 값이다. 영업 이익이 같더라도 이러한 요소들이 다르다면 경상 이익은 달라질 수 있다.
- ⑤ 순이익은 경상 이익에서 특별 손익을 더하고, 부과되는 세금을 뺀 값이다. 그러므로 특별 손익이 없고 세금을 납부했다면 순이익은 경상 이익보다 작은 값을 가지게 된다.

짧은골 발문 Tip

- 뒷글을 읽고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는 뒷글을 읽은 학생이 수행할 학습지의 일부이다.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핵심 화제와 관련된 세부 내용을 추론하는 유형

02 ㉠가 나타날 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 ① 순이익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자 비용이 줄어든다.
- ② 자기 자본 비율이 높을 때보다 경상 이익이 늘어난다.
- ③ 자기 자본 비율이 낮을수록 자기 자본 순이익률은 높아진다.
- ④ 총자산 순이익률의 증가로 인해 자기 자본 순이익률이 높아진다.
- ⑤ 자기 자본 순이익률이 증가하기 때문에 타인 자본이 필요하지 않게 된다.

유형 이해

지문의 특정 개념어들에 관한 정보들을 파악하고, 명시적으로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세부 내용을 추론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 유형이다. 보통 선지를 구성할 때 명시적으로 드러난 정보들의 논리적 연결 관계, 세부 정보의 추론 등이 이용되기 때문에 그런 점들에 주의를 기울이며 정보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유형 공략

- ① 핵심어에 대한 주요 서술 내용을 정리한다.
- ② 선지와 비교하면서 정보들의 논리적 연결 관계를 파악한다.
- ③ 명시적으로 나타난 정보를 통해 세부 정보를 추론한다.

정답 풀이

③ ㉠는 타인의 자본을 지렛대 삼아 자기 자본의 수익률을 높이는 것이므로 ㉠가 나타날 때는 타인 자본 비율이 높을수록 자기 자본 순이익률은 높아진다. 총자본은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으로 이루어지므로 타인 자본 비율이 높다는 것은 자기 자본 비율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레버리지 효과가 나타날 때 자기 자본 비율이 낮을수록 자기 자본의 수익률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4문단에 따르면 ㉠는 타인 자본을 이용하여 자기 자본 순이익률을 높이는 것이다. 순이익이 늘어나지 않더라도 자기 자본 순이익률은 높아질 수 있으며, 타인 자본을 끌어오기 때문에 이자 비용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 ② 4문단에 따르면 ㉠는 타인의 자본을 지렛대로 이용하는 것이므로 타인 자본에 이자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이자 비용이 늘면 영업 이익에서 이자 비용 등을 뺀 값인 경상 이익은 줄어들 수 있다.
- ④ 4문단에 따르면 ㉠는 $\frac{\text{총자산 순이익률}}{(1-\text{타인 자본 비율})}$ 의 공식에서 분모인 (1-타인 자본 비율)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총자산 순이익률의 증가로 자기 자본 순이익률이 높아진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⑤ 4문단에 따르면 ㉠는 타인의 자본을 이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 일어날 때 타인 자본이 필요하지 않게 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답은꼴 발문 Tip

- 윗글의 내용을 <보기>에 적용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지문의 내용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는 유형

03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A 기업은 자기 자본 10억 원과 타인 자본 40억 원으로 설립되어 영업 활동을 하였다. A 기업의 2022년 매출액은 50억 원이고, 영업 이익은 10억 원이었다. 타인 자본에 대한 이자는 5%인 2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법인세로 2억 원을 납부한 후의 순이익은 6억 원이었다. (단, 이자로 지급한 금액과 법인세 외의 다른 금융 비용이나 손익도 없으며, 영업 이익이 같다면 법인세도 같다고 가정한다.)

- ① 2022년 A 기업의 총자산 회전율은 5이다.
- ② A 기업의 자기 자본 순이익률은 총자산 순이익률보다 크다.
- ③ 이자율이 10%였다면 A 기업의 총자산 순이익률은 높아졌을 것이다.
- ④ A 기업의 총자산 50억 원이 모두 자기 자본이었다면 순이익은 감소했을 것이다.
- ⑤ A 기업이 2023년에 타인 자본을 10억 원 늘리고도 매출액과 영업 이익이 2022년과 같았다면, 영업 이익률은 내려가고 순이익률은 높아질 것이다.

유형 이해

지문의 내용과 관련된 자료를 제시하고 지문과 자료를 연결하여 사례에 대해 해석할 것을 요구하는 문제 유형이다. 제시된 <보기>는 대개 지문에서 소개한 주요 정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므로, 우선 <보기>의 내용이 지문의 어떤 정보와 연관된 것인지를 파악해야 한다. 그런 다음 지문의 핵심어나 개념어가 <보기>에 사용된 맥락을 살펴 보면서 선지에 제시된 사례에 대해 판단해야 한다.

유형 공략

- ① <보기>의 내용을 해석하고 지문의 어떤 정보와 관련된 것인지 파악한다.
- ② 지문의 핵심어나 개념어가 <보기>에 어떤 맥락으로 사용되었는지 파악한다.
- ③ 선지에서 제시한 사례가 지문과 <보기>의 어떤 입장과 관련되는지에 유의하며 선지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한다.

정답 풀이

- ② A 기업의 자기 자본 순이익률은 순이익 6억 원 ÷ 자기 자본 10억 원이므로 60%가 된다. 총자산 순이익률은 순이익 6억 원 ÷ 총자산 50억 원이므로 12%가 된다. 따라서 자기 자본 순이익률이 총자산 순이익률보다 크다.

오답 풀이

- ① A 기업의 총자산 회전율은 $\frac{\text{매출액}}{\text{총자산}}$ 이므로, 5가 아니라 1이다.
- ③ 이자율이 10%라면 A 기업이 부담해야 할 이자 비용은 4억 원이 된다. 따라서 순이익이 4억 원으로 줄어들게 되므로 총자산 순이익률은 낮아지게 된다.
- ④ A 기업의 총자산 50억 원이 모두 자기 자본이었다면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므로 이자 비용 2억 원만큼 경상 이익이 늘어날 수 있다. 영업 이익이 같다면 법인세도 같다고 하였으므로 순이익은 2억 원만큼 증가함을 알 수 있다.
- ⑤ A 기업이 2023년 타인 자본을 10억 원 늘리고도 2022년과 같은 매출액과 영업 이익을 올렸다고 할 때, 영업 이익률은 영업 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눈 값이므로 2022년과 같은 값을 가진다. 타인 자본이 늘면 이자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경상 이익과 순이익은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순이익률은 낮아지게 된다.

답은골 발문 Tip

-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뒷글을 바탕으로 할 때, ㉡에 대한 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생략된 전제와 이유를 추론하는 유형

04 ㉠의 이유를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불황이나 금리 상승기에는 타인 자본을 구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자기 자본 비율을 낮추기가 어렵기 때문
- ② 금리가 인상되면 부채를 줄이고 자기 자본의 비율을 높이려는 경향이 강해져 자기 자본 이익률은 낮아지기 때문
- ③ 불황이나 금리 상승기에 손실이 생긴 기업은 경기 상황이 호전된다 하더라도 발생한 손실을 메울 수가 없기 때문
- ④ 금리가 인상되면 기업에 투자하였던 자금들이 은행으로 몰리게 되므로 기업은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기가 어렵기 때문
- ⑤ 불황이나 금리 상승기에는 자기 자본 비율이 낮은 기업일수록 금융 비용이 증가하여 자기 자본 순이익률의 하락이 커질 수 있기 때문

유형 이해

특정 부분에 표시를 하고 이유를 추론하는 문제 유형이다. 이 유형의 문제에서는 선지의 표현들이 지문에 있는 표현과 일치율이 낮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유형이다. 표시된 부분과의 논리적 연결의 단서는 표시된 부분의 앞부분이나 앞 문장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표시된 부분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주변 문장들 간의 관계에서 생략된 정보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유형 공략

- ① 표시된 부분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을 파악한다.
- ② 표시된 부분의 앞뒤 문장을 보고 관계를 파악한다.
- ③ 문장들 간의 관계에서 생략된 정보를 파악한다.

정답 풀이

- ⑤ 레버리지 효과의 근거가 되는 공식 $\frac{\text{총자산 순이익률}}{(1-\text{타인 자본 비율})}$ 에 의하면 타인 자본 비율이 높을수록 자기 자본 순이익률은 높아진다. 그런데 이 공식에서 총자산 순이익률이 음수가 될 경우 레버리지 효과로 인해 자기 자본 순이익률의 하락이 더 크게 나타난다. 불황이나 금리 상승기에는 총자산 순이익률이 음수가 될 수 있고, 자기 자본 비율이 낮은 기업일수록 금융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더 큰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불황이나 금리 상승기에 타인 자본을 구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맞지만, ㉠에서 말하는 것은 타인 자본을 못 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타인 자본 비율이 높은 것이 문제이다. 그러므로 자기 자본 비율을 낮추기 어려운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 ② 금리 인상기에 부채를 줄이고 자기 자본 비율을 높이려는 경향은 위협을 낮추려는 것이므로 자기 자본 이익률이 낮아지게 되는 것이 문제는 아니다.
- ③ ㉠은 타인 자본 비율이 높은 기업의 위험, 즉 레버리지 효과로 인해 손실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기업들의 경우 불황기에 손실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경기 상황이 호전되면 메울 수 있다.
- ④ 금리가 인상되면 자금들이 은행으로 몰리게 되는 것은 맞지만, ㉠에서 말하는 위협은 금리 인상기에 자기 자본 비율이 낮은 기업들의 금융 비용이 증가하는 것이다.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지 못해서 위협에 직면하는 것은 아니다.

답은골 발문 Tip

- ㉠~㉢의 문맥적 의미를 활용하여 만든 문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윗글의 ㉠~㉢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 것은?

단어의 문맥적 의미를 파악하는 유형

05 ㉠와 문맥적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스트레스로 머리카락이 많이 빠졌다.
- ② 오늘 장사만으로도 본전은 빠질 것 같다.
- ③ 공에 바람이 빠져서 제대로 칠 수가 없다.
- ④ 준비물 중 빠진 것이 있는지 한 번 더 보아라.
- ⑤ 그 소식을 듣고 다리에 힘이 빠져서 주저앉고 말았다.

유형 이해

우리말 다의어의 문맥적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 유형이다. 다의어의 경우 의미에 따라 문장 구조, 결합할 수 있는 단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다의어가 사용된 맥락을 바탕으로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과정을 통해 어느 정도 선지를 압축한 후 문맥적 의미를 비교하면서 답을 찾아갈 수 있다.

유형 공략

- ① 밑줄 친 단어가 사용된 문장 구조를 파악한다.
- ② 밑줄 친 단어들과 결합하는 말을 파악한다.
- ③ 문맥에서 사용된 의미를 파악한다.

정답 풀이

- ④ ㉠은 ‘차례를 거르거나 일정하게 들어 있어야 할 곳에 들어 있지 아니하다.’의 의미이다.

오답 풀이

- ① ‘박힌 물건이 제자리에서 나온다.’의 의미이다.
- ② ‘어느 정도 이익이 남다.’의 의미이다.
- ③ ‘속에 있는 액체나 기체 또는 냄새 따위가 밖으로 새어 나가거나 흘러 나가다.’의 의미이다.
- ⑤ ‘정신이나 기운이 줄거나 없어지다.’의 의미이다.

01

독서

유형 연습 ④

[01~0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탈리아의 수학자 카르다노는 삼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과정에서 제곱을 하면 음수가 되는 이상한 수를 발견하였다. 그는 이 수가 모순적이고 쓸모없다고 생각하여 무시하려고 했지만, 이를 인정할 경우 근사치로 실수의 근을 찾는 기존의 방법보다 훨씬 정확하고 간단하게 근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좌표 평면을 창안한 데카르트는 이 수를 실수와 달리 좌표 평면으로는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상상의 수라는 뜻으로 ‘허수’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후 오일러는 허수에 i 라는 기호를 사용했으며 지수 함수와 삼각 함수를 연결하여 $e^{ix} = \cos x + i \sin x$ 라는 공식을 고안했다. 가우스는 허수를 이용하면 n 차 방정식에는 n 개의 해가 ㉠ 있다는 일관된 규칙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특히 가우스는 $4+2i$ 와 같이 실수와 허수로 ㉡ 이루어진 복소수도 x 축을 실수, y 축을 허수로 하는 ㉢ 복소평면에 표시하여 기하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세기 이후 양자 역학을 기반으로 하는 현대 물리학이 성립되면서 허수는 새롭게 주목을 받게 되었다. 행성의 운동이나 야구공의 움직임과 같이 뉴턴 역학이나 상대성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 관찰 가능한 세계에서는 실수만으로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었다. 그런데 전자나 광자와 같은 양자계에서는 입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관측하여 정확하게 측정, 결정할 수 없다는 불확정성의 원리가 지배한다. 슈뢰딩거는 양자계가 실수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양자계를 기술하기 위해 허수가 포함된 방정식을 고안하였다.

양자 역학에서의 허수 개념은 우주의 역사를 설명하는 데에도 중요한 아이디어를 제공하였다. 우주의 역사는 빅뱅에서 시작하여 계속 팽창하고 있다는 ‘빅뱅 우주론’이 힘을 얻고 있을 때, 호킹은 우주의 시간을 돌려 보면 ㉣ 부피는 0이지만 질량이 있기 때문에 밀도가 무한대가 되는 최초의 시점, 즉 ‘특이점’이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무한대에 특정수를 더하거나 곱하는 경우 정확한 값을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특이점에서는 어떤 물리 법칙도 계산할 수가 없으며, 어떤 것도 예측할 수가 없다. 또한 특이점 이전에는 시간도 공간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 빛이나 입자가 특이점과 그 이전에는 정의되지 않는다. 이것은 우주의 시작을 과학이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과학계보다 ㉥ 종교계에서 더 큰 지지를 받았다. 호킹은 이런 부자연스러운 상황을 피하기 위해 우주의 시공간을 새롭게 규정하고자 하였다.

호킹은 특이점이 나타나지 않는 우주 모형을 만들기 위해 우주의 시간을 가우스의 ㉦ 복소평면에 표시하였다. 여기에서 실수 시간은 가로축에, 허수 시간은 세로축에 놓인다. 동일 수평선상의 점들은 실수 시간 간격으로 배열된 사건이고, 동일 수직선상의 점들은 허수 시간 간격으로 배열된 사건이다. 그런데 실수 시간은 특이점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과거를 거슬러 올라간다고 하면 특이점에서 멈출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허수 시간을 따라갈 때, 어느 한 수직선에서는 특이점을 지나쳐 가는 것도 가능하다. 이처럼 호킹은 허수 시간이라는 축을 ㉧ 더함으로써 새로운 가능성을 열게 된다.

허수 시간에 대한 개념을 바탕으로 호킹은 우주의 역사를 설명하는 모형으로 뾰족한 시작점이 있는 모형이 아니라 지구와 같은 둥근 모형을 제시했다. 지구상에서 어떤 사람이 위도 10도 지점에서 출발하여 북쪽으로 계속 직진하다 보면 북극점을 ㉨ 거쳐 반대 방향의 위도 10도 지점으로도 이동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허수 시간을 따라가면 우주의 시작점을 지나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 계속 직진해 가면 우주의 최후라고 할 수 있는 남극점에 ㉩ 다다를 수도 있다. 지구의 크기가 북극점에서 적도까지 커졌다가 적도부터 남극점까지 작아지는 것처럼, 빅뱅 이후 팽창하던 우주가 다시 수축하면서 최후를

맞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우주의 최후인 남극점 역시 특별한 지점이 아니게 된다. 이처럼 허수 시간을 도입할 경우 우주의 시작이나 최후는 있다 하더라도 특이점은 존재하지 않게 된다. 이는 우주는 유한하지만 시공간에는 경계가 없다는 호킹의 생각을 보여 주는 것이다.

허수는 일상적인 감각으로 파악하거나 떠올리기는 어려운 수이다. $2+3i$ 와 $3-5i$ 를 더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직관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사칙 연산에 맞게 $5-2i$ 가 되고, 이후의 계산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허수가 널리 쓰이게 된 것은 이렇게 수학 법칙과 모순됨이 없으면서도 설명하기 어려운 것들을 설명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오일러의 공식의 경우 오늘날 전자 공학이나 전파 공학 등의 분야에서 필수가 된 것도 그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호킹이 주목한 점도 마찬가지이다. 당연히 허수 시간이라는 것의 개념을 떠올리기가 쉽지 않으며, 존재를 직접적으로 증명하기도 어렵다. 그렇지만 호킹은 우주의 시간이 실수 시간에 한정된다고 보지는 않았다. 실수 시간으로 계산이 불가능한 부분에서는 허수 시간으로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호킹은 완벽한 계산을 통해 우주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예측할 수 있고, 그것이 현재의 천문 관측 결과와 일치하면 된다고 보았다.

지문의 내용 전개 방법을 파악하는 유형

▶ 23051-0015

01 읽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특정 수학 개념의 등장 과정을 살펴보고, 이 개념의 변천 과정을 통시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 ② 특정 수학 개념의 역사를 살펴보고, 과학 분야에서 이 개념을 활용한 사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③ 특정 수학 개념을 정의하고, 이 정의와 관련하여 실생활에서 관찰 가능한 사례들을 보여주고 있다.
- ④ 특정 수학 개념에 대한 학자들의 의견을 제시하고, 이 개념의 확장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종합하고 있다.
- ⑤ 특정 수학 개념에 대한 사회적 통념을 제시하고, 그 통념을 깰 수 있었던 과학계의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지문의 세부 내용을 파악하는 유형

▶ 23051-0016

02 읽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카르다노는 허수가 방정식의 근을 찾는 데 유용하다고 생각했다.
- ② 데카르트는 허수가 좌표 평면에 표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실수와 다르다고 생각했다.
- ③ 가우스는 데카르트가 창안한 좌표 평면에 허수도 한 점으로 표시하는 방법을 고안하였다.
- ④ 슈뢰딩거가 허수가 포함된 방정식을 고안한 것은 양자계가 관찰 가능한 세계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다.
- ⑤ 호킹은 허수 시간의 존재를 직접적으로 증명하기는 어렵지만 우주의 역사를 잘 설명할 수 있다면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 23051-0017

03

생략된 전제를 파악하는 유형

㉠~㉡의 추론 과정에서 생략된 전제를 파악한 것으로 옳은 것끼리 묶인 것은?

	㉠	㉡	㉢
①	질량이 있는 것을 0으로 나누면 무한대가 된다.	특이점은 정의하기에 따라 달라진다.	특이점 이론은 종교계의 관점과 부합한다.
②	질량이 있는 것을 0으로 나누면 무한대가 된다.	빛이나 입자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만 정의된다.	종교와 과학은 상호 보완적 관계이다.
③	밀도는 질량을 부피로 나눈 값이다.	빛이나 입자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만 정의된다.	특이점 이론은 종교계의 관점과 부합한다.
④	부피가 0이면 질량은 존재할 수 없다.	시간이 음의 값을 가질 수는 없다.	종교와 과학은 상호 보완적 관계이다.
⑤	부피가 0이면 질량은 존재할 수 없다.	시간이 음의 값을 가질 수는 없다.	과학은 종교를 뒷받침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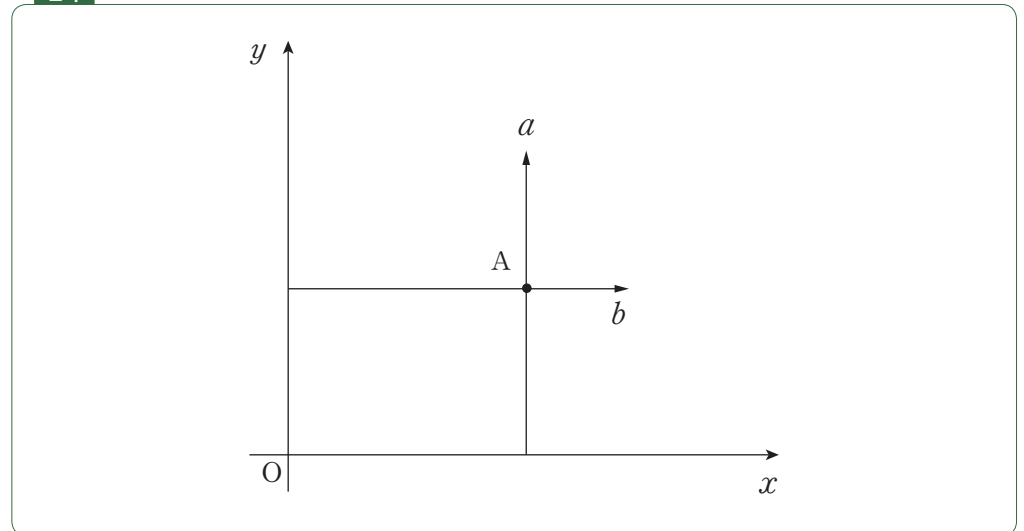
▶ 23051-0018

04

지문의 핵심 내용을 적용하는 유형

<보기>는 가우스의 복소평면이다.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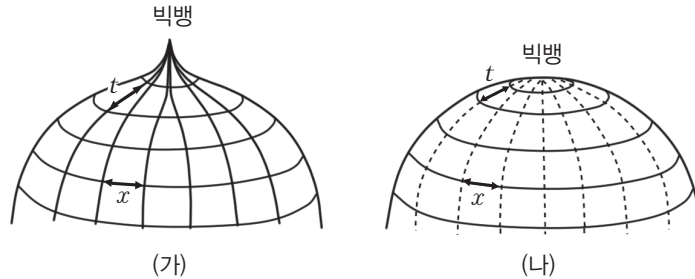
- ① ㉠: 점 A는 $4+2i$ 와 같은 형식으로 표시되는 복소수이다.
- ② ㉠: x 와 y 의 값이 모두 0보다 작아도 표시를 할 수 있다.
- ③ ㉡: 선 a 를 따라 시간을 거슬러 가면 더 갈 수 없는 시점이 있다.
- ④ ㉡: 선 a 와 평행한 선들 중에는 특이점을 지나는 것도 있다.
- ⑤ ㉡: 선 b 상의 점들은 실수 시간 간격으로 배열된 사건들이다.

▶ 23051-0019

지문의 내용을 시각 자료로 설명하는 유형

05 <보기>는 학생이 우주 모형에 대해 조사하여 발표한 내용이다. ㉠~㉥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가)는 일반적인 '빅뱅 우주론'의 모형이고, (나)는 호킹의 모형입니다. (가)의 실선으로 된 t 는 실수 시간이고, (나)의 점선으로 된 t 는 허수 시간입니다. ㉠(가)에서 t 를 거슬러 올라가면 뾰족한 특이점에 이르게 됩니다. ㉡ 특이점 이전에는 어떤 입자도 정의되지 않기 때문에 특이점은 시공간의 경계가 됩니다. 반면 (나)에서는 t 가 허수이기 때문에 특이점이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 허수 시간을 따라가면 지구에서 북극점을 지나서도 계속 갈 수 있는 것처럼 우주의 시작도 지나치게 됩니다. ㉣ 이 시간을 따라 계속 가다 보면 우주의 최후도 지나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 두 모형은 공간 x 의 팽창을 통해 우주의 시작은 다르지만 최후는 같아진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① ㉠

② ㉡

③ ㉢

④ ㉣

⑤ ㉤

▶ 23051-0020

문맥에 맞는 어휘로 바꾸어 쓰는 유형

06 ㉠~㉥를 바꾸어 쓴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존재(存在)한다는
- ② ㉡: 생성(生成)된
- ③ ㉢: 추가(追加)함으로써
- ④ ㉣: 경유(經由)하여
- ⑤ ㉤: 도착(到着)할

유형 연습 4 Zoom In



허수와 호킹의 우주론

예제 이 글은 허수가 발견되고 사용된 과정을 살펴보고 허수를 이용하여 기존 빅뱅 우주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호킹의 우주론을 설명하고 있다. 허수는 제곱이 되면 음수가 되는 수로, 양자 역학을 기반으로 하는 현대 물리학이 성립되면서 주목을 받게 되었다. 호킹은 시간도 허수의 시간이 있다는 우주론을 펼쳤다. 호킹은 실수의 시간을 따라가면 밀도가 무한대가 되는 특이점이 있는데, 이 점에서는 물리 법칙을 계산할 수도 없고, 어떤 입자도 특이점 이전의 시간에서는 정의될 수 없다고 보았다. 호킹은 허수의 시간을 적용하면 특이점으로 인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다. 호킹은 허수 시간 개념을 적용한 우주 모형을 제시하면서, 허수 시간이 확인하기 어렵지만 계산을 통해 우주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고 관측 결과와 일치한다면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주제 허수의 특성과 허수 시간을 적용하여 설명한 호킹의 우주론

- 구성**
- 1문단: 허수의 역사
 - 2문단: 현대 물리학에서의 허수 사용
 - 3문단: 빅뱅 우주론이 가진 문제점
 - 4문단: 호킹이 허수를 이용해 표시한 우주의 시간
 - 5문단: 허수 시간을 이용한 호킹의 우주 모형
 - 6문단: 허수의 특성과 유용성

짧은골 발문 Tip

-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윗글의 논지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지문의 내용 전개 방법을 파악하는 유형

0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특정 수학 개념의 등장 과정을 살펴보고, 이 개념의 변천 과정을 통시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 ② 특정 수학 개념의 역사를 살펴보고, 과학 분야에서 이 개념을 활용한 사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③ 특정 수학 개념을 정의하고, 이 정의와 관련하여 실생활에서 관찰 가능한 사례들을 보여주고 있다.
- ④ 특정 수학 개념에 대한 학자들의 의견을 제시하고, 이 개념의 확장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종합하고 있다.
- ⑤ 특정 수학 개념에 대한 사회적 통념을 제시하고, 그 통념을 깰 수 있었던 과학계의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유형 이해

지문 전체에 걸쳐 주로 사용된 내용 전개 방식의 특징을 묻는 문제 유형이다. 수능에서 독서 지문으로 사용되는 글은 중심이 되는 제재를 제시한 후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 내용을 전개한다. 그러므로 글의 첫 부분에서 중심 제재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논지들이 문단별로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설명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유형 공략

- ① 글의 첫 부분을 통해 중심 제재를 파악한다.
- ② 문단을 중심으로 논지의 흐름을 파악한다.
- ③ 어떤 설명 방식을 사용하여 설명했는지 파악한다.

정답 풀이

- ② 1문단에서 허수의 역사를 살펴보고, 2~6문단에서 양자 역학과 호킹의 우주론에서 허수 개념을 사용한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허수라는 개념의 등장 과정을 살펴보고 허수의 사용에 대해 통시적으로 설명한 부분은 있지만, 허수 개념의 변천 과정을 설명한 것은 아니다.
- ③ 허수의 수학적 정의가 나와 있기는 하지만, 이 정의와 관련하여 실생활에서 관찰 가능한 사례들을 보여 주는 것은 아니다.
- ④ 허수 개념에 대한 카르다노, 데카르트, 오일러, 가우스 등의 의견이 제시되어 있지만, 허수 개념의 확장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종합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 ⑤ 허수에 대한 사회적 통념이 제시된 것은 아니며, 통념을 깬 과학계의 사례를 제시하는 것도 아니다.

▶ 읽은골 발문 Tip

- (가)에 나타난 '라모'의 생각과 일치하는 것은?
- 뒷글을 읽고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지문의 세부 내용을 파악하는 유형

02 뒷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카르다노는 허수가 방정식의 근을 찾는 데 유용하다고 생각했다.
- ② 데카르트는 허수가 좌표 평면에 표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실수와 다르다고 생각했다.
- ③ 가우스는 데카르트가 창안한 좌표 평면에 허수도 한 점으로 표시하는 방법을 고안하였다.
- ④ 슈뢰딩거가 허수가 포함된 방정식을 고안한 것은 양자계가 관찰 가능한 세계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다.
- ⑤ 호킹은 허수 시간의 존재를 직접적으로 증명하기는 어렵지만 우주의 역사를 잘 설명할 수 있다면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 유형 이해

여러 인물과 관련된 설명이 나오는 글에서 특정인과 관련된 세부 정보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각 인물의 업적이나 특성에 대해 지문에 명시적으로 답이 있는 정보를 찾는 것이기 때문에 쉬울 수도 있지만, 지문에 있는 정보들에서 문장 구조나 용어를 미세하게 바꾸어 선지를 구성하는 경우가 있다. 미세한 부분에서 정오 판단이 완전히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빠르게 문제를 풀다 보면 실수를 할 수도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 유형 공략

- ① 지문에서 특정인과 관련된 정보를 파악한다.
- ② 지문과 선지에서 바뀐 표현을 유의하며 판단한다.

▶ 정답 풀이

- ③ 가우스는 x 축을 실수, y 축을 허수로 하는 복소평면을 통해 실수와 허수로 이루어진 복소수도 평면의 한 점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하였다. 이것은 복소수를 평면에 표시하는 방법이지만 데카르트의 좌표 평면에 한 점으로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허수는 데카르트의 좌표 평면에 나타낼 수 없는 수이다.

▶ 오답 풀이

- ① 1문단에 따르면 카르다노는 허수를 무시하려고 했으나 삼차 방정식의 근을 찾는 데 유용하다고 생각했다.
- ② 1문단에 따르면 데카르트는 허수는 실수와 달리 좌표 평면으로는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상상의 수라고 생각했다.
- ④ 2문단에 따르면 슈뢰딩거는 양자계가 실수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양자계를 기술하기 위해 허수가 포함된 방정식을 고안하였다.
- ⑤ 6문단에 따르면 호킹은 허수 시간을 실험이나 천문 관측을 통해서 존재를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우주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예측할 수 있고, 그것이 현재의 천문 관측 결과와 일치하면 된다고 보았다.

답은꼴 받은 Tip

- ㉠의 전제로 적절한 것은?
- ㉠의 추론 과정에 생략되어 있는 전제는?

생략된 전제를 파악하는 유형

03 ㉠~㉢의 추론 과정에서 생략된 전제를 파악한 것으로 옳은 것끼리 묶인 것은?

	㉠	㉡	㉢
①	질량이 있는 것을 0으로 나누면 무한대가 된다.	특이점은 정의하기에 따라 달라진다.	특이점 이론은 종교계의 관점과 부합한다.
②	질량이 있는 것을 0으로 나누면 무한대가 된다.	빛이나 입자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만 정의된다.	종교와 과학은 상호 보완적 관계이다.
③	밀도는 질량을 부피로 나눈 값이다.	빛이나 입자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만 정의된다.	특이점 이론은 종교계의 관점과 부합한다.
④	부피가 0이면 질량은 존재할 수 없다.	시간이 음의 값을 가질 수는 없다.	종교와 과학은 상호 보완적 관계이다.
⑤	부피가 0이면 질량은 존재할 수 없다.	시간이 음의 값을 가질 수는 없다.	과학은 종교를 뒷받침해야 한다.

유형 이해

특정 부분에 밑줄을 치고 이유나 생략된 논리적 전제를 찾는 기존의 유형을 약간 변형하여 여러 개의 논리적 전제를 찾는 유형의 문제이다. 논리적 전제가 비교적 간단하여 한 부분만으로는 5개의 선지를 만들어 낼 수 없을 때 이와 같은 유형으로 출제가 가능하다. 논리적 전제라는 것은 어떤 결론이 참이 되도록 하기 위해 있어야 하는 명제이다. 그런데 실제 추론 과정을 보면 확실한 사실이나 일반적인 통념에 해당하는 것은 생략되기도 한다. 생략된 전제는 여럿일 수 있기 때문에 생략된 전제를 떠올리는 방법으로 답을 찾기는 어려울 수 있다. 대신 전제가 선지에 제시되어 있고 결론도 있으므로 결론에 이르는 과정이 합당한지를 파악하는 방법으로 풀어 가는 것이 좋다.

유형 공략

- 1 표시된 부분과 관련된 정보를 파악한다.
- 2 선지의 전제에서 결론이 나오는지 검토한다.

정답 풀이

③ ㉠ ‘부피는 0이지만 질량이 있기 때문에 밀도가 무한대가 된다.’라는 결론에서 왜 밀도가 무한대가 되는지에 대한 전제, 즉 ‘질량이 있는 것을 0으로 나누면 무한대가 된다.’, ‘밀도는 질량을 부피로 나눈 값이다.’가 생략되어 있다. ㉡ ‘특이점 이전에는 시간도 공간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전제에서 ‘빛이나 입자가 특이점과 그 이전에는 정의되지 않는다.’라는 결론이 도출될 때 빛이나 입자가 정의되는 조건, ‘빛이나 입자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만 정의된다.’라는 전제가 생략되어 있다. ㉢ ‘우주의 시작을 과학이 설명할 수 없다.’라는 전제에서 ‘특이점 이론은 종교계에서 더 큰 지지를 받았다.’라는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는 종교계에서 특이점 이론을 지지하는 이유, 즉 ‘특이점 이론은 종교계의 관점과 부합한다.’와 같은 전제가 생략되어 있다.

오답 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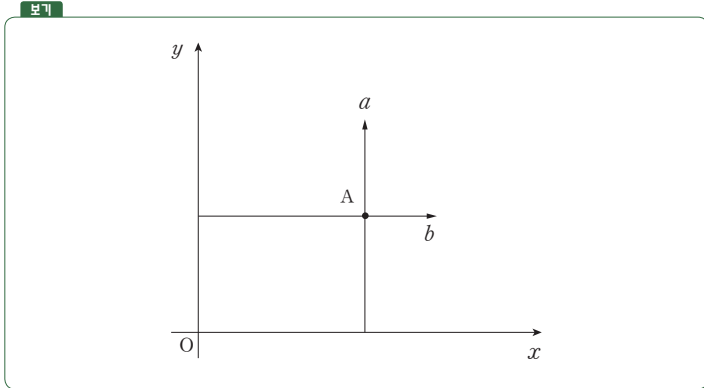
- 1 ㉡ 빛이나 입자가 특이점 이전에는 정의되지 않는다는 것은 특이점의 이전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 정의할 수 없다는 것이지만 특이점이 정의하기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은 아니다.
- 2 ㉢ 종교계가 과학과는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종교와 과학이 상호 보완적 관계라는 것을 전제하는 것은 아니다.
- 4 특이점은 시간이 0이 되는 최초의 시점이므로 ㉡의 전제는 적절하다. 그렇지만 부피가 0이면 질량은 존재할 수 없다는 전제는, 부피는 0이지만 질량이 있다는 ㉠과 모순되므로 적절하지 않으며, ㉢도 적절하지 않다.
- 5 ㉠이 적절하지 않으며 과학이 종교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것이 ㉢에 전제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답은꼴 발문 Tip

- 윗글과 <보기>를 통해 이끌어 낼 수 있는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기>의 ㉠이 윗글의 ㉠에 대해 비판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 윗글과 <보기>를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지문의 핵심 내용을 적용하는 유형

04 <보기>는 가우스의 복소평면이다.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점 A는 $4+2i$ 와 같은 형식으로 표시되는 복소수이다.
- ㉡: x 와 y 의 값이 모두 0보다 작아도 표시를 할 수 있다.
- ㉢: 선 a 를 따라 시간을 거슬러 가면 더 갈 수 없는 시점이 있다.
- ㉣: 선 a 와 평행한 선들 중에는 특이점을 지나는 것도 있다.
- ㉤: 선 b 상의 점들은 실수 시간 간격으로 배열된 사건들이다.

유형 이해

<보기>에 시각 자료를 제시하고 지문의 내용과 연결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묻는 문제 유형이다. 이 문제에서는 기존의 유형을 변형하여 서로 다른 분야에서 같은 좌표 평면을 사용한 방법을 묻고 있기 때문에 복잡도가 조금 더 높은 유형이다. 시각 자료와 관련된 지문의 정보를 읽어 내야 하고 시각 자료가 의미하는 것까지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난도가 높은 유형이다. 이 유형의 풀이를 위해서는 시각 자료의 내용, 즉 방향이나 x 축과 y 축의 의미 등을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보기>에 관련 지문의 내용을 메모해 두는 것이 좋다. 또한 두 대상을 정리하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하면 선지에 대한 판단을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다.

유형 공략

- 1 <보기> 자료의 내용을 범례나 표시를 중심으로 파악한다.
- 2 <보기>와 관련된 지문의 내용을 메모한다.
- 3 서로 다른 대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한다.

정답 풀이

- 3 가우스의 복소평면에 시간을 표시할 때, 선 a 는 허수 시간 간격으로 배열된 사건들이다. 허수 시간에는 특이점이 없기 때문에 더 갈 수 없는 시점이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 1 가우스의 복소평면에서 x 축은 실수이고 y 축은 허수이므로 이 복소평면에 있는 점 A는 $4+2i$ 와 같이 실수와 허수로 이루어진 복소수이다.
- 2 가우스의 복소평면에서 실수 부분은 음수가 될 수 있으며, 허수 부분도 $-2i$ 와 같이 음수가 될 수 있다. 따라서 x 와 y 의 값이 모두 0보다 작아도 평면에 표시를 할 수 있다.
- 4 가우스의 복소평면에 시간을 표시할 때, 허수 시간을 따라가면 어느 한 수직선에서는 특이점을 지나쳐 가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였다. 선 a 는 허수 시간 간격으로 배열된 사건들이기 때문에 선 a 와 평행한 선들 중에는 특이점을 지나는 것도 있다.
- 5 가우스의 복소평면에 시간을 표시할 때, 실수 시간은 가로축에 놓이며 동일 수평선상의 점들은 실수 시간 간격으로 배열된 사건들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선 b 는 실수 시간 간격으로 배열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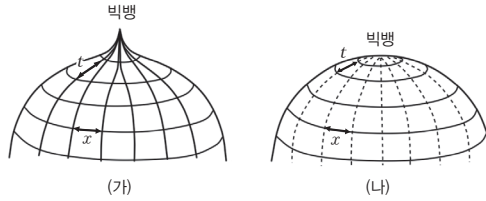
답은꼴 발문 Tip

- (그림)의 곡선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그래프를 해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지문의 내용을 시각 자료로 설명하는 유형

05 (보기)는 학생이 우주 모형에 대해 조사하여 발표한 내용이다. ㉠~㉥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가)는 일반적인 '빅뱅 우주론'의 모형이고, (나)는 호킹의 모형입니다. (가)의 실선으로 된 t 는 실수 시간이고, (나)의 점선으로 된 t 는 허수 시간입니다. ㉠(가)에서 t 를 거슬러 올라가면 뾰족한 특이점에 이르게 됩니다. ㉡ 특이점 이전에는 어떤 입자도 정의되지 않기 때문에 특이점은 시공간의 경계가 됩니다. 반면 (나)에서는 t 가 허수이기 때문에 특이점이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 허수 시간을 따라가면 지구에서 북극점을 지나서도 계속 갈 수 있는 것처럼 우주의 시작도 지나치게 됩니다. ㉣ 이 시간을 따라 계속 가다 보면 우주의 최후도 지나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 두 모형은 공간 x 의 팽창을 통해 우주의 시작은 다르지만 최후는 같아진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유형 이해

지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그래프나 시각 자료를 해석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 유형이다. 이 문제에서는 기존의 유형을 변형하여 두 가지 시각 자료를 제시하고, 두 자료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파악하는 능력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유형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두 시각 자료의 차이점과 지문의 어떤 정보와 연결되는 것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시각 자료의 각 영역이나 지점, 수치 등을 지문과 연결하여 판단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유형 공략

- 1 시각 자료의 차이점을 파악한다.
- 2 각 시각 자료가 지문의 어떤 정보와 연결되는지 파악한다.
- 3 시각 자료에 표시된 정보와 지문 내용이 일치하는지 판단한다.

정답 풀이

⑤ 5문단에 따르면 호킹은 우주 모형으로 (나)와 같은 모형을 제시했다. 이 모형은 빅뱅 이후 팽창하던 우주가 다시 수축하면서 최후를 맞는다는 것이다. 이 모형은 우주의 시작인 특이점도 지나칠 수 있듯이 우주의 최후도 지나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가)와 (나)에서 x 가 커진다는 것은 공간이 팽창하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기는 하지만, 우주의 최후가 같아짐을 보여 주는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 ① (가)는 특이점이 있는 우주의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시간 t 를 거슬러 올라가면 특이점에 이르게 된다.
- ② 호킹은 (나)와 같은 우주 모형을 통해 우주는 유한하지만 시공간에는 경계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와 달리 (가)는 특이점이 있으며 특이점의 이전에는 우주를 정의할 수 없으므로 시공간의 경계가 있는 우주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 ③ 5문단에서 허수 시간을 따라가면 우주의 시작점을 지날 수도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허수 시간 t 를 따라가면 우주의 시작도 지나치게 된다는 말은 적절하다.
- ④ (나)는 지구와 같은 모형이므로 북극점에 대응되는 우주의 시작점을 지나서도 갈 수 있으며 남극점에 대응되는 우주의 최후도 지나칠 수 있다.

답은골 발문 Tip

- 문맥상 @~@와 바꾸어 쓸 수 있는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문맥상 의미가 @와 가장 가까운 것은?

문맥에 맞는 어휘로 바꾸어 쓰는 유형

06

@~@를 바꾸어 쓴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존재(存在)한다는
- ② ㉡: 생성(生成)된
- ③ ㉢: 추가(追加)함으로써
- ④ ㉣: 경유(經由)하여
- ⑤ ㉤: 도착(到着)할

유형 이해

우리말 표현을 한자어로 바꾸어 쓰는 유형의 문제이다. 이러한 유형의 문제를 출제하는 이유는 우리말의 경우 다의어로 쓰이고 지시하는 범위가 넓지만, 한자어의 경우는 지시 범위가 좁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결국 이 유형은 문맥적 의미를 파악하고 확정할 수 있는지를 묻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문제를 풀 때 학생들은 보통 선지의 단어로 대체해 보고 말이 되면 맞는 것으로 판단을 한다. 그렇지만 바꾸어 쓸 수 있다는 것은 의미가 같으며 대체를 해도 의미의 변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유형 공략

- ① 단어의 문맥적 의미를 파악한다.
- ② 단어와 선지가 같은 의미인지 확인한다.
- ③ 바꾸어 썼을 때 의미 변화가 없는지 확인한다.

정답 풀이

② ㉡는 '몇 가지 부분이나 요소가 모여 일정한 성질이나 모양을 가진 존재가 되다.'의 의미이다. '생성(生成)된'은 '사물이 생겨나다.'의 의미이므로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지 않으며, '구성(構成)된'으로 바꾸어 쓰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풀이

- ① ㉠는 '사람, 동물, 물체 따위가 실제로 존재하는 상태이다.'의 의미이므로 '존재(存在)한다는'으로 바꾸어 쓰는 것이 적절하다.
- ③ ㉢는 '더 보태어 늘리거나 많게 하다.'의 의미이므로 '추가(追加)함으로써'로 바꾸어 쓰는 것이 적절하다.
- ④ ㉣는 '오가는 도중에 어디를 지나거나 들르다.'의 의미이므로 '경유(經由)하여'로 바꾸어 쓰는 것이 적절하다.
- ⑤ ㉤는 '목적한 곳에 이르다.'의 의미이므로 '도착(到着)할'로 바꾸어 쓰는 것이 적절하다.

02

문학

유형 연습 ①

[01~0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시에 담긴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표현 기법의 특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이러니와 알레고리는 입체적인 의미를 담아내는 기법으로 주로 사용된다. 아이러니는 시인이 표현하고자 하는 현실을 이해하는 준거의 틀로 작동한다. 흔히 아이러니를 말하는 내용과 반대되는 의미를 전달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표현 정도로 이해하고 있지만, 어떤 진술이 나온 상황으로 인해 발생하는 아이러니를 통해 상투적인 세계를 새롭게 바라보는 시인의 시각을 담아내는 방법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상황을 기반으로 한 아이러니는 외적 혹은 내적으로 대조되는 것들이 형성한 긴장이 이중적 맥락을 만들고, 열림과 닫힘처럼 서로 대조되는 속성들로 인해 발생한 상호 모순성을 가진 대상들이 형성한 맥락 속에서 시인이 발견한 세계에 대한 진실을 보여 주고자 한다. 즉 두 가지의 대립적인 요소가 짝을 이룬 이항 대립에서 발생하는 모순 허용의 아이러니와 상식적 세계와는 어긋나는 상황을 기반으로 한 아이러니를 통해 그 모순을 통합시킴으로써 새로운 의미를 드러내어 현실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보여 주는 것이다.

알레고리는 ‘다른(allos) 것으로 말하기(agoreo)’라는 뜻을 가진 ‘알레고리아(allegoria)’에서 유래했다. 추상적인 관념을 인간이 아닌 다른 대상으로 구체화하여 드러내는 경우가 많은데 현실과 밀접하게 연결되는 당대의 삶의 가치나 시대정신을 주로 드러낸다는 특징이 있다. 현대 사회에서 가속화된 물질문명과 거기서 발생한 물질적 욕망에 매몰된 현대인을 동시에 비판하기 위해 시적 주체가 ‘다른 무언가’가 되어 그 입장에서 죽음도 불사하며 욕망에 집착하는 모습을 제시하여 현대 사회와 현대인의 문제를 빚댄 작품은 알레고리의 방식을 잘 보여 주는 사례이다. 특정 대상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며 인간 세계에서 추구해야 할 가치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거나 그 가치를 상실하고 부정적 현실에 매몰된 모습을 제시하여 비판함으로써 현실에 대한 시인의 시각을 드러내는 것이다.

(나) 어느 집에나 문이 있다

우리 집의 문 또한 그렇지만
어느 집의 문이나
문이 크다고 해서 반드시
잘 열리고 닫힌다는 보장이 없듯

문은 열려 있다고 해서
언제나 열려 있지 않고
닫혀 있다고 해서
언제나 닫혀 있지 않다

어느 집에나 문이 있다
어느 집의 문이나 그러나
문이라고 해서 모두 닫히고 열리리라는
확증이 없듯

문이라고 해서 반드시
열리기도 하고 또 닫히기도 하지 않고
또 두드린다고 해서 열리지 않는다

어느 집이나 문이 있다
어느 집이나 문은
담이나 벽을 뚫고 들어가
담이나 벽과는 다른 모양으로
자리 잡는다

담이나 벽을 뚫고 들어가
담이나 벽과 다른 모양으로
자리 잡기는 잡았지만
담이나 벽이 되지 말라는 법이나
담이나 벽보다 더 든든한
문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 오규원, 「문」

- (다) ㉠ 구멍의 어둠 속에 정적의 숨죽임 뒤에
불안은 두근거리고 있다
사람이나 고양이의 잠을 깨울
- ㉡ 가볍고 요란한 소리들은 깡통 속에
양동이 속에 대야 속에 항상 숨어 있다
- ㉢ 어둠은 편안하고 안전하지만 굶주림이 있는 곳
몽둥이와 텃이 있는 대낮을 지나
번득이는 눈과 의심 많은 귀를 지나
- ㉣ 주린 위장을 끌어당기는 냄새를 향하여
걸음은 공기를 밟듯 나아간다
꾸역꾸역 굶주림 속으로 들어오는 비누 조각
비닐봉지 향기로운 쥐약이 붙어 있는 밥알들
거품을 물고 떨며 죽을 때까지 그칠 줄 모르는
아아 ㉤ 황홀하고 불안한 식욕

- 김기택, 「쥐」

▶ 23051-0021

표현상의 특징을 파악하는 유형**01 (나)와 (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영탄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강화하고 있다.
- ② 대비되는 시어들을 활용하여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 ③ 계절감이 드러나는 시어를 사용하여 화자가 처한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 ④ 후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대상에게 닥칠 비극을 역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⑤ 유사한 통사 구조를 활용하여 대상이 피하고자 하는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 23051-0022

시상 전개 방식을 파악하는 유형**02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1, 3, 5연에서는 각 연의 첫 행에 같은 시구를 반복하여 '문'에 대한 통념을 부정하고 있다.
- ② 1연에서는 '문'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 '문'의 속성을 제시하고 있다.
- ③ 2연에서는 '문'이 열린 상태에 대한 다른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 ④ 4연에서는 '문'이 열리는 기능을 회복하는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 ⑤ 6연에서는 '문'의 수동적인 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 23051-0023

시구의 의미를 파악하는 유형**03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쥐'가 처해 있는 공간의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 ② ㉡: '쥐'를 위협하는 대상들을 깨울 수 있는 것들을 의미한다.
- ③ ㉢: 이질적인 상황을 제시하여 '쥐'의 결핍된 욕망을 드러내고 있다.
- ④ ㉣: 억제하기 어려운 본능적 욕망을 자극하여 위협을 무릅쓰도록 유혹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 ⑤ ㉤: 먹이사슬 고리의 비정함을 긍정과 부정의 이미지를 동시에 활용하여 강조하고 있다.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의 적절성을 파악하는 유형

04 (가)를 참고하여 (나), (다)를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에서 ‘문’을 ‘담이나 벽’과 연결하는 것은, 연결과 단절이라는 이항 대립에서 발생하는 모순 형용의 아이러니로 볼 수 있겠군.
- ② (나)에서 ‘문’이 ‘열려 있다고 해서 / 언제나 열려 있지 않’다며 상식적인 세계와는 어긋나는 상황을 제시한 것은, 상투적 현실을 새롭게 보려는 상황 기반의 아이러니를 보여 준 것이겠군.
- ③ (나)에서 ‘문’이 ‘담이나 벽보다 더 든든한 / 문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라는 것은, 단절의 의미를 지닌 대상이 가진 연결 가능성을 강화하며 모순을 통합시킨 시인의 새로운 시각을 보여 준 것이겠군.
- ④ (다)에서 ‘쥐’의 입장에서 ‘쥐’의 불안과 욕망을 세밀하게 묘사한 것은, 시적 주체가 특정 대상의 입장이 되어 세상을 바라보는 알레고리의 형식을 통해 현대 사회에서 발생한 문제 점들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보이하고자 한 것이겠군.
- ⑤ (다)에서 ‘거품을 물고 떨며 죽을 때까지 그칠 줄 모르는’ 식욕을 ‘쥐’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형식을 통해 죽음을 무릅쓰고 욕망 충족에 집착하는 대상처럼 물질적 욕망에 매몰된 현대인을 보여 주고자 한 것이겠군.

유형 연습 1 Zoom In



(가) 아이러니와 알레고리

예제 이 글은 시의 입체적인 의미를 담아내는 기법들인 아이러니와 알레고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아이러니는 흔히 말하는 내용과 반대되는 의미를 전달하고자 하는 표현 기법으로 알려져 있지만, 모순 형용의 아이러니와 상식적 세계와 어긋나는 상황을 기반으로 한 아이러니를 통해 시인이 발견한 세계의 진실을 담아내는 특징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알레고리의 경우 인간이 아닌 다른 대상으로 구체화하여 당대의 삶의 가치나 시대정신을 드러내는 기법으로, 특히 현대 사회에서 가속화된 물질문명에 대한 비판적 조망을 드러낼 때 사용되는 알레고리의 특징을 예시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주제 입체적인 시의 의미를 담아내는 기법인 아이러니와 알레고리의 특징

- 구성**
- 1문단: 모순 형용의 아이러니와 상황을 기반으로 한 아이러니
 - 2문단: 알레고리의 개념과 물질문명에 대한 비판적 기법으로서의 알레고리



(나) 오규원, 「문」

예제 이 작품은 일상에서 수없이 접하는 ‘문’에 대한 인식을 새로운 시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일반적인 상황이나 인식과는 달리 문이 열려 있지만 열려 있지 않다는 표현과, 연결의 속성을 가진 문이 단절의 속성을 가진 담이나 벽이 된다는 표현을 통해 문이 지닌 일반적인 속성을 무너뜨림으로써 독자를 일상에서 벗어난 낯선 세계로 초대하고 있다.

주제 문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비틀기

- 구성**
- 1연: 어느 집이나 있는 문과 크기에 따른 열림의 가능성
 - 2연: 열림과 닫힘에 대한 통념 부정
 - 3연: 문의 일반적 속성에 대한 균열
 - 4연: 문의 속성과 열림에 대한 가능성 변화
 - 5연: 담과 벽이 되는 문
 - 6연: 담이나 벽보다 더 든든한 속성을 가진 문



(다) 김기택, 「쥐」

예제 이 작품은 쥐의 시각을 빌려 현대 물질문명에 매몰된 인간을 비판하고 있는 시이다. 참을 수 없는 욕망에 이끌려 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쥐를 통해 인간성을 상실한 채 황홀해 보이는 대상에 대한 욕망에 매몰된 현대인에 대한 통렬한 비판 의식을 드러낸다.

주제 욕망에 빠져 생명을 잃는 쥐와 같은 현대인

- 구성**
- 1, 2행: 어둠 속에서 때를 기다리는 쥐
 - 3~5행: 쥐를 위협할 수 있는 존재들
 - 6~10행: 식욕을 채우기 위한 여정
 - 11~14행: 식욕의 뒷에 빠져 죽어 가는 쥐

답은골 발문 Tip

- (가)와 (나)의 표현상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가)와 (나)의 표현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표현상의 특징을 파악하는 유형

01 (나)와 (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영탄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강화하고 있다.
- ② 대비되는 시어들을 활용하여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 ③ 계절감이 드러나는 시어를 사용하여 화자가 처한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 ④ 후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대상에게 닥칠 비극을 역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⑤ 유사한 통사 구조를 활용하여 대상이 피하고자 하는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유형 이해

시에 사용된 표현법이나 표현상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유형이다. 표현상의 특징은 서정 갈래를 다른 갈래와 구분하는 변별점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주 출제되는 유형이다. 따라서 시를 감상할 때에는 시적 화자의 정서에 집중할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하여 작품에 어떤 수사적 표현법들이 쓰이고 있으며, 이것이 어떠한 효과를 가져오는지 정리할 필요가 있다.

유형 공략

- ① 작품에 나타나는 표현상의 특징들을 찾는다.
- ② 각각의 표현상의 특징과 그에 따른 효과가 무엇인지를 이해한다.
- ③ 두 개 이상의 작품에서 드러나는 공통점이나 차이점을 파악한다.

정답 풀이

- ② (나)에서는 ‘열리고’, ‘닫힌다’와 같이 상황적으로 대비되는 시어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며, ‘문’과 ‘담’, ‘벽’과 같이 대비되는 시어들 역시 두 연에 걸쳐 나타나면서 ‘문’과 관련된 일반적인 인식을 비틀고 있다. (다)에서는 ‘쥐’가 숨어 있는 ‘어둠’과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지나가야 할 ‘대낮’과 같은 명암 대비를 바탕으로, 욕망 추구로 인한 위험을 드러내며 주제 의식을 강화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다)에는 ‘아아’와 같은 영탄적 표현이 나오지만, (나)에는 영탄적 표현이 활용되지 않았다.
- ③ (나)와 (다)에는 모두 계절감을 드러내는 시어가 사용되지 않았다.
- ④ (다)에서는 ‘향기로운’과 같은 후각적 심상이 드러나며, ‘쥐약’을 수식하면서 대상에게 닥칠 위험을 역설적으로 드러내고 있지만, (나)에는 후각적 심상이 활용되지 않았다.
- ⑤ (나)에는 전반적으로 유사한 통사 구조가 활용되고 있지만, ‘문’이 피하고자 하는 상황이 드러나지 않는다. (다)에서는 ‘~을(를) 지나’와 같은 유사한 통사 구조를 활용하여 ‘쥐’가 피하고자 하는 상황이 강조되고 있다.

짧은골 발문 Tip

- [A]~[E]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가)의 시상의 흐름을 <보기>와 같이 나타낸다고 할 때 이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가)를 시상 전개 관점에서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시상 전개 방식을 파악하는 유형

02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1, 3, 5연에서는 각 연의 첫 행에 같은 시구를 반복하여 '문'에 대한 통념을 부정하고 있다.
- ② 1연에서는 '문'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 '문'의 속성을 제시하고 있다.
- ③ 2연에서는 '문'이 열린 상태에 대한 다른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 ④ 4연에서는 '문'이 열리는 기능을 회복하는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 ⑤ 6연에서는 '문'의 수동적인 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유형 이해

시상이 전개되는 방식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 유형이다. 작가는 일정한 흐름을 염두에 두고 시상을 전개하는 경우가 많은데, 시상의 전개 방법에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전개, 공간의 이동에 따른 전개, 시선의 이동에 따른 전개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또한 시상이 전개되면서 시어나 시구들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시적 의미를 구현하기 때문에 이를 파악하는 것은 작품 감상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유형 공략

- ① 시상 전개의 흐름을 작품 전체의 맥락을 통해 파악한다.
- ② 시상 전개의 과정에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시어나 시구의 의미를 파악한다.

정답 풀이

- ③ 2연에서는 '문'이 '열려 있다고 해서 / 언제나 열려 있지 않'다고 하며 열려 있는 상태에 대한 다른 가능성, 즉 열려 있다고 해도 문이 열려 있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어느 집에나 문이 있다'라는 시구를 반복하는 것은 집에는 '문'이 있다는 통념을 제시한 것일 뿐 이를 부정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 ② 1연에서는 '문이 크다고 해서 반드시 / 잘 열리고 닫힌다는 보장이 없듯'이라는 시구를 통해 문의 크기에 따라 문의 속성이 달라지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 ④ 4연에서는 '문'이 '두드린다고 해서 열리지 않는다'는 것을 볼 때 '문'이 열리는 기능을 회복하는 상황을 제시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⑤ 6연에서 '문'은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답이나 벽을 뚫고 들어가'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능동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답은골 발문 Tip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 ㉠과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와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시구의 의미를 파악하는 유형

03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쥐'가 처해 있는 공간의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 ㉡: '쥐'를 위협하는 대상들을 깨울 수 있는 것들을 의미한다.
- ㉢: 이질적인 상황을 제시하여 '쥐'의 결핍된 욕망을 드러내고 있다.
- ㉣: 억제하기 어려운 본능적 욕망을 자극하여 위협을 무릅쓰도록 유혹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 ㉤: 먹이사슬 고리의 비정함을 긍정과 부정의 이미지를 동시에 활용하여 강조하고 있다.

유형 이해

시구를 읽고 시적 대상의 특징이나 시적 대상이 처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유형이다. 이러한 문제 유형에서는 시상의 흐름을 통해 시의 전후 맥락을 이해한 후에 이를 바탕으로 시어들이 담고 있는 시적 대상에 대한 정보나 의미를 파악해야만 자의적인 해석에 따른 오답을 피할 수 있다.

유형 공략

- 1 시적 화자나 주된 시적 대상을 파악한다.
- 2 시적 화자나 주된 시적 대상이 처한 상황을 시상의 흐름을 통해 이해한다.
- 3 특정 시어와 화자 혹은 시적 대상 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시구가 내포한 의미를 판단한다.

정답 풀이

- 5 '황홀하고 불안한'은 모순 형용사로 욕망을 채우는 순간의 황홀과 그 대가로 맞이할 불행의 순간이 공존함을 드러낸 표현이다. 욕망을 추구하다 목숨을 잃는 상황을 제시하였지만, 이것이 자연의 먹이사슬 고리로 인해 발생한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 1 '쥐'가 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 숨어 있는 '구멍'이라는 공간의 적막함을 드러내고 있다.
- 2 '가볍고 요란한 소리들'은 '사람'이나 '고양이'를 깨우는 소리인데, 이는 '쥐'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들이다.
- 3 편안하고 안전하지만 굶주림이 있는 이질적 상황을 제시하여 '쥐'의 결핍된 욕망이 주린 배를 채우는 것에 있음을 드러낸다.
- 4 '주린 위장'을 자극하여 발걸음을 옮기게 만드는 '냄새'는 '식욕'이라는 본능적 욕망을 자극하고 안전한 공간을 떠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위협을 무릅쓰도록 만드는 것이다.

답은골 발문 Tip

- <보기>의 '선생님'의 질문에 대해 가장 적절하게 답한 것은?
-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외적 증거에 따른 작품 감상의 적절성을 파악하는 유형

04 (가)를 참고하여 (나), (다)를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에서 '문'을 '답이나 벽'과 연결하는 것은, 연결과 단절이라는 이항 대립에서 발생하는 모순 형용의 아이러니로 볼 수 있겠군.
- ② (나)에서 '문'이 '열려 있다고 해서 / 언제나 열려 있지 않'다며 상식적인 세계와는 어긋나는 상황을 제시한 것은, 상투적 현실을 새롭게 보려는 상황 기반의 아이러니를 보여 준 것이겠군.
- ③ (나)에서 '문'이 '답이나 벽보다 더 든든한 / 문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라는 것은, 단절의 의미를 지닌 대상이 가진 연결 가능성을 강화하며 모순을 통합시킨 시인의 새로운 시각을 보여 준 것이겠군.
- ④ (다)에서 '쥐'의 입장에서 '쥐'의 불안과 욕망을 세밀하게 묘사한 것은, 시적 주체가 특정 대상의 입장이 되어 세상을 바라보는 알레고리의 형식을 통해 현대 사회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보이하고자 한 것이겠군.
- ⑤ (다)에서 '거품을 물고 펄며 죽을 때까지 그칠 줄 모르는' 식욕을 '쥐'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형식을 통해 죽음을 무릅쓰고 욕망 충족에 집착하는 대상처럼 물질적 욕망에 매몰된 현대인을 보여 주고자 한 것이겠군.

유형 이해

<보기>나 지문 등에 담긴 작품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작품을 적절하게 감상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유형이다. 이러한 유형은 <보기>나 지문에 제시되는 정보, 주로 작품 감상의 기준이 되는 문학 이론이나 작품과 관련된 내재적·외재적 정보를 숙지한 후, 이를 바탕으로 작품을 감상해야 한다.

유형 공략

- ① <보기>나 글에 제시된 핵심적인 정보들이 무엇인지 파악한다.
- ② <보기>나 글에 제시된 핵심 정보들을 바탕으로 작품을 감상한다.
- ③ 선지들을 읽고 선지들의 내용이 <보기>나 글을 바탕으로 작품 감상을 하였을 때 적절한 것인지를 판단한다.

정답 풀이

- ③ (나)에서 '문'이 '답이나 벽보다 더 든든한 / 문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는 것은 '문'과 '답이나 벽'이 지닌 연결과 단절이라는 상호 모순성의 경계를 무너뜨려 모순을 통합하여 새로운 의미를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문'이 '답이나 벽보다' '든든'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은 '문'의 단절 가능성을 강화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이것이 '답이나 벽'의 연결 가능성을 강화한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 풀이

- ① (가)에서 아이러니 중에는 '두 가지의 대립적인 요소가 짝을 이룬 이항 대립에서 발생하는 모순 형용의 아이러니'가 있다고 하였다. (나)는 '문'과 '답' 혹은 '벽'을 사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으며, 열림과 닫힘 또는 연결과 단절이라는 대립적인 요소가 짝을 이루는 이항 대립을 중심으로 시상이 전개되므로 모순 형용의 아이러니를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가)에서 아이러니 중에는 '상식적 세계와는 어긋나는 상황을 기반으로 한 아이러니'가 있다고 하였다. (나)에서 '문'이 '열려 있다고 해서 / 언제나 열려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 세계와는 어긋나는 상황을 기반으로 한 아이러니를 활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④ (가)에서 '현대 사회에서 가속화된 물질문명과 거기서 발생한 물질적 욕망에 매몰된 현대인을 동시에 비판하기 위해 시적 주체가 '다른 무언가'가 되어' 그 입장을 드러냄으로써 현대 사회와 현대인의 문제를 빗대어 비판하는 것이 알레고리 방식을 보여 주는 사례라고 하였다. (다)의 경우 시적 주체가 '쥐'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현대 사회에서 발생한 물질문명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가)에서 알레고리는 '인간 세계에서 추구해야 할 가치'를 '상실하고 부정적 현실에 매몰된 모습을 제시하여 비판함으로써 현실에 대한 시인의 시각'을 드러낸다고 하였다. 즉 식욕이라는 본능적 욕망에 빠져 생명을 잃는 '쥐'의 모습을 통해 부정적 현실에 매몰된 현대인의 모습을 비판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유형 연습 2

[01~0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나는 내가 이사를 온 첫날 저녁, 할아버지 앞에 불러 나가서 들은 얘기를 지금도 기억한다. 그것은 일종의 오리엔테이션이었다. 몇 가지 나의 가족 관계에 대해서 묻고 나서, 할아버지는 갑자기, 내가 6·25 때는 몇 살이었느냐고 물었다. 정확한 나이는 얼른 계산이 되지 않아서, 열 살이었는데요 하고 내가 우물쭈물 대답하자, 할아버지는 아마 그럴 거라고 하며 사변이 남겨 놓고 간 것이 무엇인 줄을 모르겠군 하고 말했다. 그래서 나는, 사변 전에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고, 있다고 해도 어린이로서의 기억밖에는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무엇이 사변 후에 더 보태지고 없어진 것인지는 모르겠다고 솔직히 대답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서 그것은 가정의 파괴라고 한마디로 얘기했다. 그렇게 말하는 투가 마치 내가 나쁜 일을 해서 책망이라도 한다는 것처럼 단호하고 험악했기 때문에 나는 정말 죄를 지은 기분이 되어 꿇어앉았던 자세를 더욱 여미었다. 그리고 오랫동안, 정말 오랫동안 나는 이사를 한다는 흥분과 긴장과 피로 속에서 하루를 보내었기 때문에 졸음이 퍼붓는 걸 참아 가며 할아버지의 관(觀)이랄까 주의(主義)랄까를 들었다.

그것은, 혼미(昏迷) 가운데서 들은 것을 두서가 없는 대로 요약한다면 다음과 같았다. 가풍이 없는 가정은 인간들의 모임이 아니다. 가풍이란 질서 정신에 의해서 성립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가정은 사변 때 식구들의 생사조차 서로 모를 정도로 파괴되었다. 그래서 더욱 가정의 귀중함을 알았지 않느냐. 그러니 질서 정신에 입각해서 각기 가정은 가풍을 만들어 가야 한다. 그리하는 데 장애가 아주 많은 게 우리들이 처한 현실이다. 그럴수록 우리는 지나치다 할 정도로 자신들에게 엄격해야 한다. 대강 이런 것이었다.

가풍. 내게는 낯설기 짝이 없는 단어였지만 며칠 동안에 나는 그 말의 개념이 아니라 바로 그의 실체를 온몸에 느끼게 되었다. ‘규칙적인 생활 제일주의’가 맨 먼저 나를 휘감은 이 집의 가풍이었다.

[A] 아침 여섯 시에 기상. (그러나 나의 경우는 자발적인 기상이라 아니라 할아버지가 차를 끓여 가지고 손수 들고 와서 나를 깨우고 그 차를 마시게 하고 내가 무안함에 가슴을 두근거리며 황급히 옷을 주워 입으면 아침 산보를 시키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수면 부족으로 좀 자유로운 낮에 늘 낮잠이었다. 그러나 그 집 식구들은 심지어 세 살 난 어린애마저도 그 규칙을 지키고 있는 모양이었다.) 아침 식사. 출근 혹은 등교. 할아버지도 어느 회사에 중역으로 나가고 있었으므로 집에 남는 건 할머니와 며느리, 어린애와 식모, 그리고 노곤한 몸을 주체하지 못하는 나뿐이었다. 그동안 나는 오전 열 시경에 며느리와 할머니가 놀리는 미싱 소리를 쭉 듣게 되고, 열두 시경에 라디오에서 나오는 음악을 듣고, 오후 네 시엔 「엘리제를 위하여」를 듣게 된다. 오후 여섯 시 반까지는 모든 식구가 집에 와 있어야 하고 저녁 식사. 식사가 끝나면 십여 분 동안 잡담. 그게 끝나면 모두 자기 방으로 가서 공부. 그리고 식모가 보리차가 든 주전자와 컵을 준비해서 대청마루 가운데 있는 탁자 위에 놓는 달그락 소리가 나면 그때 시간은 열 시 오륙 분 전. 그 소리가 그치면 여러 방의 문이 열리고 식구들이 모두 나와서 물 한 컵씩을 마시고 ‘안녕히 주무십시오.’를 한 차례 돌리고 잠자리로 들어간다. 세상에 이런 생활도 있었나 하고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식구 중 누구 한 사람 얼굴에 그들이 있는 사람은 없었다. 나로서는 상상도 하지 못하던 세계에 온 것이었다. 동대문이 가까운 창신동 그 빈민가의 내가 들어 있었던 집의 식구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이 정식(正式)의 생활.

내가 간혹 이 양옥의 식구들의 얼굴을 생각해 보려 할 때면, 물론 대하는 시간이 적었던 탓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차라리 아마 낮잠에서 깨어났을 때 내가 지금 있는 방에 대해서 생소감을 느끼던 그런

알 수 없는 이유로써 나는 이 집 식구들의 얼굴을 덮어 누르고 보다 명료하게 떠오르는 창신동 식구들의 얼굴 때문에 적지 않게 괴로워했다.

(중략)

이윽고 서 씨의 몸은 성벽의 저 너머로 사라져 버렸다. 그리고 잠시 후에 나는 더욱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었다. 서 씨가 성벽 위에 몸을 나타내고 그리고 성벽을 이루고 있는 커다란 금고만 한 돌덩이를 그의 한 손에 하나씩 집어서 번쩍 자기의 머리 위로 치켜올린 것이었다. 지렛대나 도르래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혹은 여러 사람이 달라붙지 않고서는 들어 올릴 수 없는 무게를 가진 돌을 그는 맨손으로 들어 올린 것이었다. 그는 나에게 보라는 듯이 자기가 들고 서 있는 돌을 여러 차례 흔들어 보이고 나서 방금 그 돌들이 있던 자리를 서로 바꾸어서 그 돌들을 곱게 내려놓았다.

나는 꿈속에 있는 기분이었다. 고담(古談) 같은 데서 등장하는 역사(力士)만은 나도 인정하고 있는 셈이지만 이 한밤중에 바로 내 앞에서 푸르게 빛나는 조명을 온몸에 받으며 성벽을 디디고 우뚝 솟아 있는 저 사내를 나는 무엇이라고 이름 붙여야 할지 몰랐다.

역사, 서 씨는 역사다, 하고 내가 별수 없이 인정하며 감탄이라기보다는 차라리 그 귀기(鬼氣)에 찬 광경을 본 무서움에 떨고 있는 동안에 그는 어느새 돌아왔는지 유령처럼 내 앞에서 자랑스러운 웃음을 소리 없이 웃고 있었다.

서 씨는 역사였다. 그날 밤 나는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까지 아무에게도 들려주지 않았다는 서 씨의 얘기를 들었다.

[B] 그는 중국인의 남자와 한국인의 여자 사이에서 난 혼혈아였다. 그의 선조들은 대대로 중국에서 이름 있는 역사들이었다. 족보를 보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장수(將帥)가 있다고 했다. 그네들이 가졌던 힘, 그것이 그들의 존재 이유였고 유일한 유물이었던 모양이었다. 그 무형의 재산은 가보(家寶)로서 후손에게 전해졌다. 그것으로써 그들은 세상을 평안하게 할 수 있었고 자신들의 영광도 차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서 씨에 와서도 그 힘이 재산이 될 수는 없었다. 이제 와서 그 힘은 서 씨로 하여금 공사장에서 남보다 약간 더 많은 보수를 받게 하는 기능밖에 가질 수가 없게 된 것이다. 결국 서 씨는 그 약간 더 많은 보수를 거절하기로 했다. 남만큼만 벽돌을 날랐고 남만큼만 땅을 팠다. 선조의 영광은 그렇게 하여 보존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서 씨는 아무도 나다니지 않는 한밤중을 택하고 동대문의 성벽에서 그 힘이 유지되고 있음을 명부(冥府)의 선조들에게 알리고 있다는 것이었다.

대낮에 서 씨가, 동대문의 바로 곁에 서서 행인들 중 누구 한 사람도 성벽을 이루고 있는 돌 한 개의 위치 변화에 관심을 보내지 않고 지나다닐 때, 옮겨진 돌을 바라보며 빙그레 웃고 있는 그의 모습을 나는 쉽게 상상할 수 있었다. 그것이 서 씨가 간직하고 있는 자기였고 내가 그와 접촉하면 할수록 빨려 들어갈 수 있었던 깊이였던 모양이었다.

그 집— 그늘 많은 얼굴들이 살던 그 집에서 나는 나 자신 속에서 꿈틀거리는 안주(安住)에의 동경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의 헤어날 길 없는 생활 속에 내가 휩쓸려 들어가게 되는 것이 무서웠기 때문이었던 모양이다. 그러나 그곳을 푹 떠나서 이 한결같은 곡이 한결같은 악기로 연주되는 집에 오자 그것은 견디어 낼 수 없는 권태와 이 집에 대한 혐오증으로 형체를 바꾸는 것이었다. 나란 놈은 아마 알 수 없는 놈인가 보다.

① 피아노 소리가 그쳤다. 무의식중에 나는 방바닥에서 팔목시계를 집어 올렸다. 내가 지금 무슨 행동을 했던가를 깨닫자 나는 쓴웃음이 나왔다. 피아노가 그친 시간을 재 보려고 했던 것이다. 그리고 나는 내일도 그 피아노가 그친 시간을 재서 그 시간들을 비교하며 이 집에 대한 혐오증의 이유를 강화시키려고 했던 것이다. 나는 자신에 대해서 어이가 없음을 느꼈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것은, 그것은 조금 전에 내가 서 씨의 그 거짓 없는 행위를 회상했던 덕분이 아니었을까? 서 씨가 내게 보여 준 게 있다면 다소 몽상적인 의미에서의 성실이었고 그리고 그것은 이 양옥 속의 생활을 비판하는 데도 필

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닌가고 내게 생각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집으로 옮겨온 다음 날의 저녁, 식사 시간도 잡담 시간도 지나고 모든 사람들의 공부 시간이 되자 나는 홀로 내 방의 벽에 기대앉아서 기타를 튕겨 보기 시작했던 때의 일을 기억하고 있다. 불현듯이 기타를 켜고 싶어지는 때가 있는 법이다. 그것은 감정의 요구이지만 그렇다고 비난할 건 못 되지 않는가. 내가 줄을 고르며 음을 시험해 보고 있는데 다색(茶色) 나왕으로 된 내 방문이 열리며 할아버지가 들어왔다. 그리고 나의 ㉠기타 켜는 시간은 오전 열 시부터 한 시간 동안 할머니와 며느리가 미상을 돌리는 같은 시각으로 배치되었던 것이다. 위대한 가풍이 내게 작용한 첫 번이었다. 그러나 그 이후 내가 내게 주어진 그 시간을 이용해 본 적은 하루도 없었다. 흥이 나지 않아서였다고 하면 적당한 표현이 되겠다.

절망감이 마루 끝에도 마당 가운데에서도 방마다에도 차서 감돌던 창신동의 그 집에서는 식구들에게 그들이 오래전에 잃어버렸던 형체 없는 감동 같은 것을 조금씩은 깨우치고 영혼의 안정에 얼마간은 공헌할 수 있었던 나의 기타는 그래서 노인들이 우연한 한마디에서 갑자기 자기의 늙음을 발견하듯이 낡아 빠진 모습으로 방의 구석지에 기대어져 있지 않으면 안 되게 된 것이었다.

처음에 나는 이 집에 대하여 존경심을 가졌다. 그러나 나는 이내 그것이 처음 보는 경치에 보내는 감탄과 같은 성질의 것밖에는 되지 않음을 알았다. 이해와 감정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발견한 것도 그때였다. 이 가족의 계획성 있는 움직임, 약간의 균열쯤은 금방 땀질해 버릴 수 있도록 훈련되어 있는 전진적 태도, 무엇인가 창조해 내고 있다는 듯한 자부심이 만들어 준 그늘 없는 표정— 문화라는 말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바로 이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희구하는 것이 아니었던가. 이 사람들은 매일매일 달리고 있는 것이었다. 따라서 어느 지점과의 거리를 단축시키고 있는 셈이었다. 이것이 나의 그들에 대한 이해였다.

그러나 그 어느 지점이 무한하게 먼 곳에 있을 때도 우리는 그들이 거리를 단축시키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더구나 나로 하여금 기타 켜는 시간의 제약까지를 주어 가면서 말이다. 차라리 이 사람들의 태도야말로 자신들은 견고 있다고 믿으면서 사실은 매일매일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바로 그것이 아닐까. 빈민가에 살던 사람들의 그 끝없는 공전(空轉) 같아 보이는 생활이 이곳보다는 오히려 더 알찬 것이 아니었을까. 이것이 나의 감정이었다.

— 김승옥, 「역사」

서술상의 특징을 파악하는 유형

▶ 23051-0025

01 [A],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는 집안 구성원들의 반복되는 일상을 하루의 일과가 진행되는 순서에 따라 서술하고 있다.
- ② [B]는 한 인물의 내력을 제시하여 인물이 지닌 특정한 능력의 시대에 따른 위상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 ③ [A]는 ‘나’가 경험한 일에 대해 서술하고 있고, [B]는 ‘나’가 만난 사람이 경험한 일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 ④ [A]에는 관찰한 인물들의 행위를 바탕으로 짐작한 내용이 나타나 있고, [B]에는 들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짐작한 내용이 나타나 있다.
- ⑤ [A]에는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인물의 행위가, [B]에는 자신의 행위를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드러내려는 인물의 의지가 나타나 있다.

▶ 23051-0026

작품의 내용을 파악하는 유형**02** 윗글의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는 사변이 남겨 놓고 간 것을 묻는 할아버지의 질문에 어린아이로서의 기억밖에 없어 잘 모르겠다고 대답한다.
- ② ‘나’는 며칠 동안 양옥집에서 생활하면서 ‘규칙적인 생활 제일주의’로 인해 양옥집 가풍의 실체를 느낀다.
- ③ ‘나’는 양옥집 식구들의 얼굴을 떠올리려 할 때면 창신동 식구들의 얼굴이 떠올라 괴로워한다.
- ④ ‘나’는 성벽에 우뚝 솟아 서 있는 서 씨가 보이는 역사(力士)의 면모로 인해 서 씨가 유명이었다는 사실을 알아챈다.
- ⑤ ‘나’는 전진적인 태도를 가진 양옥집 사람들의 표정에 무엇인가를 창조하고 있다는 듯한 자부심이 담겨 있다고 여긴다.

▶ 23051-0027

구절의 의미를 파악하는 유형**03** ㉠,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양옥집의 일상에 일어난 변화의 징조를 나타낸다.
- ② ㉡은 ‘나’와 할아버지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는 계기를 제공한다.
- ③ ㉠은 양옥집의 반복되는 일상을 드러내고, ㉡은 ‘나’가 원하는 일상의 반복을 드러낸다.
- ④ ㉠으로 인해 ‘나’는 양옥집 생활에 대한 반감을, ㉡으로 인해 ‘나’는 할아버지에 대한 호감을 드러낸다.
- ⑤ ㉠과 ㉡은 모두 ‘나’에게 양옥집의 규율을 의식하게 만든다.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의 적절성을 파악하는 유형

04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역사」는 과거를 수용하는 두 가지 생활 방식을 다루고 있다. 이 작품에서 과거는 복원되어야 할 가치를 지닌 시간으로 간주된다. 이를 인식하는 인물들은 현실에 나타난 폐해를 개선하려는 의지를 갖거나, 쇠락해 가는 가치를 보존하려는 삶의 방식을 보여 준다. ‘나’는 신비로운 체험을 통해 두 삶의 방식이 각각 다르게 작용하는 현실의 차이를 직시하게 된다. 명분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삶의 태도와 자발적인 방식으로 자긍심을 가지려는 삶의 태도를 포착하였기 때문이다. 「역사」는 이처럼 각기 다른 방식으로 과거를 수용하는 인물들의 태도를 형상화하여, 삶의 방식에 대한 반성과 전후의 세태에 대한 비판을 드러내고 있다.

- ① 할아버지가 질서 정신을 근간으로 하는 가풍을 세우려는 것은, 파괴된 가정의 복원을 통해 현실을 개선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겠군.
- ② 서 씨가 성벽의 돌을 옮겨 놓고서 ‘나’에게 자랑스러운 웃음을 보이는 것은, 쇠락해 가는 가치를 보존하고 있다는 자긍심 때문이겠군.
- ③ 할아버지의 가족들이 규칙적인 생활 제일주의를 지켜 나가면서 얼굴에 그늘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강요되는 생활 방식에 순응하고 있는 세태를 비판적으로 형상화한 것이겠군.
- ④ 할아버지가 ‘지나치다 할 정도로 자신들에게 엄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과 서 씨가 ‘약간 더 많은 보수를 거절하기로’ 한 것은, 명분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태도와 자발적인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려는 태도가 현실에 작용하는 차이를 ‘나’가 직시하게 되는 요인으로 볼 수 있겠군.
- ⑤ ‘나’가 양옥집의 생활 방식에 대해 존경심을 가지게 된 것은, 창신동에서의 생활에 대해 권태와 혐오를 느끼고 있던 상황에서 양옥집 가족들의 삶의 방식을 수용하게 됨을 계기로 자신의 생활 태도를 반성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겠군.

유형 연습 2 Zoom In



김승옥, 「역사」

예제 이 작품은 1964년에 발표된 액자형 단편 소설이다. 1960년대 도시화된 공간을 배경으로 기계적인 규율에 의해 통제되는 현대인의 삶을 비판적으로 다루고 있다. 특히 대비되는 공간의 분위기와 현실을 바라보는 인물들의 대립되는 태도를 통해, 개인의 자유 의지를 억누르는 권력의 폭력성을 고발한다.

주제 현대인의 기계적인 생활 방식에 대한 비판

전체 줄거리 (외화) ‘나’는 우연히 공원에서 한 젊은이의 이야기를 듣게 된다. (내화) ‘나’(젊은이)는 창신동의 빈민가에 살다가 양옥집으로 하숙집을 옮긴다. 그런데 집주인 할아버지는 ‘규칙 제일주의’를 강조하고 양옥집의 일상을 통제한다. 이에 ‘나’는 창신동 빈민가의 생활을 그리워하게 된다. 그리고 ‘나’는 창신동에서 만난 서 씨를 떠올린다. 어느 날 서 씨는 ‘나’를 동대문으로 인도한 적이 있다. 거기서 서 씨는 성벽을 이루고 있는 돌들을 맨손으로 들어서 자리를 바꾸는 경이로운 광경을 연출한다. 서 씨는 자신의 행위가 선조의 영광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며, 한밤중에 가문의 힘이 유지되고 있다고 명부의 선조들에게 알리기 위한 것임을 고백한다. 서 씨를 떠올린 ‘나’는 안주를 동경하고 있던 생활에 권태를 느끼고, 규칙적인 생활에 매몰된 양옥집 생활에 대한 반감으로 양옥집 식구들의 감정을 자극하려고 시도하면서 그들의 반응을 기다린다. 그러나 아무런 반응이 없자 ‘나’는 피아노 건반을 두드리기 위해 피아노 앞으로 다가간다. (외화) 젊은이는 자신이 피아노를 그렇게 두드렸건만, 방문을 열고 나온 사람은 할아버지뿐이었다는 사실을 전하며, 자신이 잘못된 것인지를 ‘나’에게 묻는다. 이에 ‘나’는 그 젊은이가 보았다는 두 가지 생활이 바로 곁에 공존하고 있다고 느낀다.

답은골 발문 Tip

- 윗글에 따라 [A], [B]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A],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A]와 [B]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서술상의 특징을 파악하는 유형

01 [A],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는 집안 구성원들의 반복되는 일상을 하루의 일과가 진행되는 순서에 따라 서술하고 있다.
- ② [B]는 한 인물의 내력을 제시하여 인물이 지닌 특정한 능력의 시대에 따른 위상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 ③ [A]는 ‘나’가 경험한 일에 대해 서술하고 있고, [B]는 ‘나’가 만난 사람이 경험한 일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 ④ [A]에는 관찰한 인물들의 행위를 바탕으로 짐작한 내용이 나타나 있고, [B]에는 들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짐작한 내용이 나타나 있다.
- ⑤ [A]에는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인물의 행위가, [B]에는 자신의 행위를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드러내려는 인물의 의지가 나타나 있다.

유형 이해

주어진 두 부분에 대해, 서술상의 특징, 서술 내용, 인물들의 행위 등을 묻는 문제 유형이다. 이러한 문제 유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지에서 제시한 내용을 두 부분과 잘 비교하여 선지 내용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유형 공략

- ① 각각의 부분에서 선지에서 제시한 서술상의 특징을 파악한다.
- ② 선지에서 제시한 두 부분의 내용에 관한 사항을 비교하여 이해한다.
- ③ 선지에서 제시한 두 부분을 살아가는 인물들의 행위를 비교하여 분석한다.

정답 풀이

- ⑤ [A]의 ‘나는 수면 부족으로 좀 자유로운 낮에 늘 낮잠이었다.’에서 알 수 있듯이, ‘나’는 할아버지의 집에서 중시하는 ‘규칙적인 생활 제일주의’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B]의 ‘서 씨는 그 약간 더 많은 보수를 거절하기로 했다.’와 ‘아무도 나다니지 않는 한밤중을 택하고 동대문의 성벽에서 그 힘이 유지되고 있음을 명부의 선조들에게 알리고 있다’에서 알 수 있듯이, 서 씨는 자신의 능력을 동시대의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인다. 따라서 [B]에 대해 자신의 행위를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드러내려는 인물의 의지가 나타나 있다고 파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오답 풀이

- ① [A]는 ‘아침 여섯 시’에 기상하여 밤 ‘열 시 오륙 분 전’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할아버지의 집 구성원들의 일상에서 반복되는 행위들을 시간의 순서에 따라 서술하고 있다.
- ② ‘그는 중국인의 남자와 한국인의 여자 사이에서 난 혼혈아였다. 그의 선조들은 대대로 중국에서 이름 있는 역사들이었다. 족보를 보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장수가 있다고 했다.’에서 알 수 있듯이 [B]는 한 인물의 내력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그러나 이 서 씨에 와서도 그 힘이 재산이 될 수는 없었다.’와 ‘남만큼만 벽돌을 날랐고 남만큼만 땅을 팠다. 선조의 영광은 그렇게 하여 보존될 수밖에 없었다.’와 같은 진술에서 서 씨의 능력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 위상 변화가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 ③ [A]는 ‘나’가 할아버지의 집에서 목격한 사실을 서술하고 있다는 점을 통해 자신이 경험한 일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B]는 서 씨가 경험한 일들을 전달하고 있다는 점을 통해 ‘나’가 만난 사람이 경험한 일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④ [A]의 ‘그러나 그 집 식구들은 심지어 세 살 난 어린애마저도 그 규칙을 지키고 있는 모양이었다.’와 같은 진술을 통해, 관찰한 인물들의 행위를 바탕으로 짐작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B]의 ‘그의 선조들은 대대로 중국에서 이름 있는 역사들이었다. 족보를 보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장수가 있다고 했다. 그네들이 가졌던 힘, 그것이 그들의 존재 이유였고 유일한 유물이었던 모양이었다.’와 같은 진술을 통해, 서 씨에게 들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짐작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답은골 발문 Tip

- 뒷글의 인물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뒷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뒷글의 등장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작품의 내용을 파악하는 유형

02 뒷글의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는 사변이 남겨 놓고 간 것을 묻는 할아버지의 질문에 어린아이로서의 기억밖에 없어 잘 모르겠다고 대답한다.
- ② '나'는 며칠 동안 양옥집에서 생활하면서 '규칙적인 생활 제일주의'로 인해 양옥집 가풍의 실체를 느낀다.
- ③ '나'는 양옥집 식구들의 얼굴을 떠올리려 할 때면 창신동 식구들의 얼굴이 떠올라 괴로워한다.
- ④ '나'는 성벽에 우뚝 솟아 서 있는 서 씨가 보이는 역사(力士)의 면모로 인해 서 씨가 유명이었다는 사실을 알아챈다.
- ⑤ '나'는 전진적인 태도를 가진 양옥집 사람들의 표정에 무엇인가를 창조하고 있다는 듯한 자부심이 담겨 있다고 여긴다.

유형 이해

이 유형은 지문의 전체 내용을 대상으로 하되 서사 구성 요소(사건, 인물, 갈등 구조 등)를 바탕으로 내용 이해를 묻는 유형이다. 주어진 문항은 특히 인물과 관련된 내용이므로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한 후 그 맥락을 고려하여 인물의 성격, 행위, 심리, 태도, 인물 간의 관계 등을 정확하게 읽어 낼 수 있어야 한다.

유형 공략

- ① 지문의 전체적 맥락을 이해하고, 이에 따라 세부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한다.
- ② 지문에 담겨 있는 인물들의 관계 및 행위에 나타나는 의미를 중심으로 선지 내용을 이해한다.
- ③ 지문과 선지에 제시된 내용을 비교하여 적절성 여부를 판단한다.

정답 풀이

④ '역사, 서 씨는 역사다, 하고 내가 별수 없이 인정하며 감탄이라기보다는 차라리 그 귀기에 찬 광경을 본 무서움에 떨고 있는 동안에 그는 어느새 돌아왔는지 유령처럼 내 앞에서 자랑스러운 웃음을 소리 없이 웃고 있었다.'에서 알 수 있듯이, '나'는 서 씨에게서 귀기를 느끼지만, 서 씨의 정체를 유령으로 간주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 ① '나는, 사변 전에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고, 있다고 해도 어린아이로서의 기억밖에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무엇이 사변 후에 더 보태지고 없어진 것인지는 모르겠다고 솔직히 대답했다.'에서 알 수 있듯이, '나'는 사변에 대해 어린아이로서 겪었던 기억밖에 가진 것이 없어 할아버지의 질문에 잘 모르겠다고 대답한다.
- ② '가풍. 내게는 낫설기 짝이 없는 단어였지만 며칠 동안에 나는 그 말의 개념이 아니라 바로 그의 실체를 온몸에 느끼게 되었다. '규칙적인 생활 제일주의'가 맨 먼저 나를 휘감은 이 집의 가풍이었다.'에서 알 수 있듯이, '나'가 양옥집의 가풍을 제일 먼저 느끼게 되는 것은 '규칙적인 생활 제일주의'로 인한 것이다.
- ③ '내가 간혹 이 양옥의 식구들의 얼굴을 생각해 보려 할 때면, 물론 대하는 시간이 적었던 탓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차라리 아마 낮잠에서 깨어났을 때 내가 지금 있는 방에 대해서 생소감을 느끼던 그런 알 수 없는 이유로써 나는 이 집 식구들의 얼굴을 덮어 누르고 보다 명료하게 떠오르는 창신동 식구들의 얼굴 때문에 적지 않게 괴로워했다.'에서 알 수 있듯이, '나'는 양옥집 식구들의 얼굴을 떠올리려 할 때면 창신동 식구들의 얼굴이 떠올라 괴로워한다.
- ⑤ '이 가족의 계획성 있는 움직임, 약간의 균열쯤은 금방 땀질해 버릴 수 있도록 훈련되어 있는 전진적 태도, 무엇인가 창조해 내고 있다는 듯한 자부심이 만들어 준 그늘 없는 표정— 문화라는 말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바로 이 사람들이었다.'에서 알 수 있듯이, '나'는 전진적인 태도를 가진 양옥집 사람들의 표정에 무엇인가를 창조하고 있다는 듯한 자부심이 담겨 있다고 여긴다.

답은골 발문 Tip

- ㉠과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윗글을 바탕으로 ㉠~㉢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구절의 의미를 파악하는 유형

03

㉠,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양옥집의 일상에 일어난 변화의 징조를 나타낸다.
- ② ㉡은 '나'와 할아버지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는 계기를 제공한다.
- ③ ㉠은 양옥집의 반복되는 일상을 드러내고, ㉡은 '나'가 원하는 일상의 반복을 드러낸다.
- ④ ㉠으로 인해 '나'는 양옥집 생활에 대한 반감을, ㉡으로 인해 '나'는 할아버지에 대한 호감을 드러낸다.
- ⑤ ㉠과 ㉡은 모두 '나'에게 양옥집의 규율을 의식하게 만든다.

유형 이해

지문에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특정 어구의 의미와 어구들의 관계를 파악하는 문제 유형이다. 이러한 유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시된 어구에 대한 정보를 지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세밀하게 파악하고, 어구의 문학적 장치로서의 역할과 함의를 잘 이해해야 한다.

유형 공략

- ① 지문의 세부 정보를 이해하고, 전후 맥락을 파악하여 특정 어구의 의미를 이해한다.
- ② 특정 어구가 사건 전개에 미치는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본다.
- ③ 지문의 정보와 맥락을 바탕으로 파악한 후 특정 어구의 의미가 선지의 내용과 부합하는지를 판단한다.

정답 풀이

- ㉠ '피아노가 그친 시간을 재 보려고 했던 것이다. 그리고 나는 내일도 그 피아노가 그친 시간을 재서 그 시간들을 비교하며 이 집에 대한 혐오증의 이유를 강화시키려고 했던 것이다.'에서 알 수 있듯이, ㉠은 일정한 시간에 그치는 피아노 소리를 통해 '나'가 양옥집의 규율을 의식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리고 '오전 열 시부터 한 시간 동안 할머니와 며느리가 미싱을 돌리는 같은 시각으로 배치되었던 것이다. 위대한 가풍이 내게 작용한 첫 번이었다.'에서 알 수 있듯이, ㉡ 역시 기타를 켜는 시간이 가풍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오답 풀이

- ① '나는 내일도 그 피아노가 그친 시간을 재서 그 시간들을 비교하며 이 집에 대한 혐오증의 이유를 강화시키려고 했던 것이다.'에서 알 수 있듯이, ㉠은 변화 없이 반복되는 양옥집의 일상에 대한 반감을 드러낸다.
- ② '내가 줄을 고르며 음을 시험해 보고 있는데 다색 나왕으로 된 내 방문이 열리며 할아버지가 들어왔다.'와 '그 이후 내가 내게 주어진 그 시간을 이용해 본 적은 하루도 없었다.'에서 알 수 있듯이, ㉡은 '나'와 할아버지 사이의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갈등을 해소하는 계기를 제공한다는 진술은 타당하지 않다.
- ③ '이 한결같은 곡이 한결같은 악기로 연주되는 집'에서 알 수 있듯이, ㉠은 양옥집의 반복되는 일상을 드러낸다. 그런데 '불현듯이 기타를 켜고 싶어지는 때가 있는 법이다.'에서 알 수 있듯이, ㉡은 '나'가 원하는 일상의 반복이라고 할 수 없다.
- ④ '무의식중에 나는 방바닥에서 팔뚝시계를 집어 올렸다.'와 '이 집에 대한 혐오증의 이유를 강화시키려고 했던 것이다.'에서 알 수 있듯이, ㉠으로 인해 '나'는 양옥집 생활에 대한 반감을 드러낸다. 하지만 '그러나 그 이후 내가 내게 주어진 그 시간을 이용해 본 적은 하루도 없었다. 흥이 나지 않아서였다고 하면 적당한 표현이 되겠다.'에서 알 수 있듯이, ㉡으로 인해 '나'가 할아버지에 대한 호감을 드러내지는 않는다.

답은골 발문 Tip

- <보기>를 바탕으로 [A]를 이해한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를 바탕으로 뒷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를 참고하여 뒷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외적 증거에 따른 작품 감상의 적절성을 파악하는 유형

04 <보기>를 바탕으로 뒷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역사」는 과거를 수용하는 두 가지 생활 방식을 다루고 있다. 이 작품에서 과거는 복원되어야 할 가치를 지닌 시간으로 간주된다. 이를 인식하는 인물들은 현실에 나타난 폐해를 개선하려는 의지를 갖거나, 쇠락해 가는 가치를 보존하려는 삶의 방식을 보여 준다. ‘나’는 신비로운 체험을 통해 두 삶의 방식이 각각 다르게 작용하는 현실의 차이를 직시하게 된다. 명분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삶의 태도와 자발적인 방식으로 자긍심을 가지려는 삶의 태도를 포착하였기 때문이다. 「역사」는 이처럼 각기 다른 방식으로 과거를 수용하는 인물들의 태도를 형상화하여, 삶의 방식에 대한 반성과 전후의 세태에 대한 비판을 드러내고 있다.

- ① 할아버지가 질서 정신을 근간으로 하는 가풍을 세우려는 것은, 파괴된 가정의 복원을 통해 현실을 개선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겠군.
- ② 서 씨가 성벽의 돌을 옮겨 놓고서 ‘나’에게 자랑스러운 웃음을 보이는 것은, 쇠락해 가는 가치를 보존하고 있다는 자긍심 때문이겠군.
- ③ 할아버지의 가족들이 규칙적인 생활 제일주의를 지켜 나가면서 얼굴에 그늘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강요되는 생활 방식에 순응하고 있는 세태를 비판적으로 형상화한 것이겠군.
- ④ 할아버지가 ‘지나치다 할 정도로 자신들에게 엄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과 서 씨가 ‘약간 더 많은 보수를 거절하기로’ 한 것은, 명분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태도와 자발적인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려는 태도가 현실에 작용하는 차이를 ‘나’가 직시하게 되는 요인으로 볼 수 있겠군.
- ⑤ ‘나’가 양옥집의 생활 방식에 대해 존경심을 가지게 된 것은, 창신동에서의 생활에 대해 권태와 혐오를 느끼고 있던 상황에서 양옥집 가족들의 삶의 방식을 수용하게 됨을 계기로 자신의 생활 태도를 반성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겠군.

유형 이해

<보기>의 내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주어진 지문을 적절하게 잘 감상하였는지를 묻는 문제 유형이다. 이러한 문제 유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기>가 제시하는 해석의 관점을 먼저 올바르게 파악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문에 대한 감상의 관점을 적용한 후, 각각의 선지가 제시하는 내용의 적절성을 잘 판단해야 한다.

유형 공략

- ① <보기>의 관점을 파악하고 이해한다.
- ② <보기>의 관점을 적용하여 지문의 전체 맥락을 이해한다.
- ③ 이해한 작품의 전체 맥락과 선지의 감상 내용을 비교하여 적절성 여부를 판단한다.

정답 풀이

⑤ ‘그러나 그 어느 지점이 무한하게 먼 곳에 있을 때도 우리는 그들이 거리를 단축시키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에서 알 수 있듯이, ‘나’는 양옥집 가족들의 삶의 방식에 대해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또한 ‘이 한결같은 곡이 한결같은 악기로 연주되는 집에 오자 그것은 견디어 낼 수 없는 권태와 이 집에 대한 혐오증으로 형체를 바꾸는 것이었다.’에 나타나듯이, 권태와 혐오증을 일으키는 것은 창신동에서의 생활에 대한 것이 아니라 양옥집에서의 생활에 대한 것이다.

오답 풀이

- ① ‘우리나라의 가정은 사변 때 식구들의 생사조차 서로 모를 정도로 파괴되었다. 그래서 더욱 가정의 귀중함을 알았지 않느냐. 그러니 질서 정신에 입각해서 각기 가정은 가풍을 만들어 가야 한다.’라는 할아버지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할아버지는 질서 정신을 근간으로 가풍을 세우려고 하고 있다. 이는 <보기>에서 제시하는 ‘현실에 나타난 폐해’를 개선하려는 할아버지의 의도로 볼 수 있다.
- ② ‘그는 어느새 돌아왔는지 유령처럼 내 앞에서 자랑스러운 웃음을 소리 없이 웃고 있었다.’와 ‘결국 서 씨는 그 약간 더 많은 보수를 거절하기로 했다. 남만큼만 벽돌을 날랐고 남만큼만 땅을 팠다. 선조의 영광은 그렇게 하여 보존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서 씨는 아무도 나다니지 않는 한 밤중을 택하고 동대문의 성벽에서 그 힘이 유지되고 있음을 명부의 선조들에게 알리고 있다는

것이였다. / 대낮에 서 씨가, 동대문의 바로 곁에 서서 행인들 중 누구 한 사람도 성벽을 이루고 있는 돌 한 개의 위치 변화에 관심을 보내지 않고 지나다닐 때, 옮겨진 돌을 바라보며 빙그레 웃고 있는 그의 모습을 나는 쉽게 상상할 수 있었다.'에서 알 수 있듯이, 서 씨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 자긍심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보기>에서 제시하는 '쇠락해 가는 가치를 보존하려는' 서 씨의 자긍심으로 볼 수 있다.

- ③ '세상에 이런 생활도 있었나 하고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식구 중 누구 한 사람 얼굴에 그늘이 있는 사람은 없었다.'와 '내가 지금 있는 방에 대해서 생소감을 느끼던 그런 알 수 없는 이유로써 나는 이 집 식구들의 얼굴을 덮어 누르고 보다 명료하게 떠오르는 창신동 식구들의 얼굴 때문에 적지 않게 괴로워했다.'에서 알 수 있듯이, '나'는 할아버지의 집에서의 생활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보인다. 이는 <보기>에서 제시하는 '명분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삶의 태도'에 대한 비판으로 볼 수 있다.
- ④ 할아버지가 '지나치다 할 정도로 자신들에게 엄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명분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태도를 나타내고, 서 씨가 '약간 더 많은 보수를 거절하기로' 한 것은 자발적인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려는 태도를 나타낸다. <보기>에 제시된 '두 삶의 방식이 각각 다르게 작용하는 현실의 차이를 직시하게 된다. 명분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삶의 태도와 자발적인 방식으로 자긍심을 가지려는 삶의 태도를 포착하였기 때문이다.'라는 내용을 고려할 때, 할아버지가 '지나치다 할 정도로 자신들에게 엄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과 서 씨가 '약간 더 많은 보수를 거절하기로' 한 것은, '나'가 현실에 작용하는 차이를 직시하게 되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02

문학

유형 연습 ③

[01~0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고산구곡가」는 작가가 주희의 「무이도가」에 영향을 받아 창작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제1수〉의 ‘무이를 상상하고’에서 ‘무이’는 주희가 정사(精舍)를 짓고 강학과 수양을 했던 무이산 일대를 의미한다. 이 작품을 읽어 보면 특히 〈제1수〉와 〈제6수〉가 시상 전개상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1수〉와 〈제6수〉를 비교하면서 주목해야 할 몇 가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종장이 ‘허리라’라는 어절로 끝맺는다는 점이다. 이는 「고산구곡가」의 나머지 8수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제1수〉와 〈제6수〉만의 특징인데, 여기서 ‘-리라’는 화자의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제1수〉와 〈제6수〉는 화자의 의지를 표현한 장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제1수〉와 〈제6수〉는 모두 구체적 시간성이 배제된 일반적 언술로 되어 있다는 점이다. 「고산구곡가」는 대부분 계절 또는 하루의 시간성을 매개로 제시된다. 그런데 〈제1수〉와 〈제6수〉에서는 계절적 배경이나 시간적 배경을 알려 주는 시어나 시구를 찾을 수 없다. 이는 구체적 시간성이 배제된 일반적 언술을 통해 ‘강학’과 ‘영월음풍’이 화자의 삶의 모든 시간대에 해당하는 사실임을 드러내려는 것과 관련이 있다. 셋째, 〈제1수〉에서는 강학의 대상인 ‘벗님’이 등장하고 있으나, 〈제6수〉에서는 ‘벗님’이 등장하지 않는다. 강학은 대상을 필요로 하지만 영월음풍은 굳이 대상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위의 몇 가지 점을 고려할 때 「고산구곡가」의 내면적 구조는 〈제1수〉부터 〈제5수〉까지는 화자의 복거를 계기로 벗들이 모여드는 과정과 강학의 즐거움에 주안점을 두어 노래한 내용으로, 〈제6수〉부터 〈제10수〉까지는 화자의 영월음풍에 주안점을 두고 노래한 내용으로 볼 수 있다.

먼저 〈제1수〉에서 〈제5수〉까지는 ‘사름’과 ‘벗님’에 관련된 내용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제1수〉에서는 자신의 복거를 계기로 자신의 가르침을 받으려는 벗들이 모여들게 되었음을 언급하고, 〈제3수〉에서는 봄이 저물어 가는 화암의 풍경을 배경으로 종장의 ‘알기 혼들 엇더허리’라는 의문형 표현을 통해 아직도 고산구곡에서 추구하는 학주자의 삶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을 깨우치려는 의도를 노래하고 있다. 「고산구곡담기(高山九曲潭記)」에 의하면 “취병 앞에 조그만 들이 있어 농사를 짓는다. 들 가운데 반송이 한 그루 있는데 그 아래에 수백 인이 앉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이로 미루어 〈제4수〉의 함의는 고산구곡에서 추구하는 학주자의 삶이 고산구곡에 모여든 많은 벗에게 확산됨을 보는 화자의 감탄을 담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시원한 바람이 부는 반송 아래에서 화자가 제자들에게 강학하며 감탄하는 모습을 떠올릴 수 있는 것이다.

〈제6수〉를 기점으로 시상이 전환되는데, 〈제6수〉부터 벗의 존재는 사라지고 〈제8수〉의 ‘혼즈 안즈 서 집을 닛고 잇노라’와 같이 ‘혼즈’가 강조되고 있다. 그리고 〈제7수〉와 〈제8수〉는 화자의 영월음풍 행위를 구체화해서 다루고 있다. 황혼에 낚싯대를 메고 달을 이고 돌아오는 모습이나 한암에 홀로 앉아서 풍암의 추색(秋色)을 즐기는 모습에서 이를 느낄 수 있다. 마지막 〈제10수〉는 작품 뒷부분 다섯 수의 마무리이면서 작품 전체의 결사이기도 하다. 기암괴석이 눈 속에 묻혀 보이지 않고, 그래서 유인은 볼 것이 없다고 하지만 화자에게는 모든 것이 다 보이고 또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제10수〉는 화자가 영월음풍을 통해 자연을 즐기는 최고의 경지에 다다른 것임을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나) 고산 구곡담(高山九曲潭)을 ㉠ 사름이 모로더니
주모 복거(誅茅卜居)*하니 ㉡ 벗님 닛 다 오신다

어즈버 무이(武夷)를 상상하고 학주자(學朱子)를 흐리라 <제1수>

이곡(二曲)은 어디미고 화암(花巖)의 춘만(春滿)커다
벽파(碧波)의 솟출 띄워 야외로 보닛로라
사름이 승지(勝地)를 모로니 알기 혼들 엇더허리 <제3수>

삼곡(三曲)은 어디미고 취병(翠屏)에 님 퍼젓다
녹수(綠樹)에 산조(山鳥)는 하상기음(下上其音)* 흐는 적의
반송(盤松)이 바람을 바드니 녀름 경(景)이 업세라 <제4수>

오곡(五曲)은 어디미고 은병(隱屏)이 보기 조희
수변 정사(水邊精舍)는 소쇄홀도 가이업다
이 중에 강학(講學)도 흐려니와 영월음풍(詠月吟風) 흐리라 <제6수>

육곡(六曲)은 어디미고 조협(釣峽)에 물이 넘다
㊸ 나와 고기와 뉘야 더욱 즐기노고
향혼의 낙덕(落德)를 메고 대월귀(帶月歸) 흐노라 <제7수>

칠곡(七曲)은 어디미고 풍암(楓巖)에 추색(秋色) 죠타
청상(淸霜)이 얹게 치니 절벽(絶壁)이 금수(錦繡)로다
한암(寒巖)의 혼즈 안즈셔 집을 닛고 잇노라 <제8수>

구곡(九曲)은 어디미고 문산(文山)의 세모(歲暮)커다
기암괴석(奇巖怪石)이 눈 속의 못쳐세라
㊸ 유인(遊人)은 오지 아니하고 볼 것 업다 흐더라 <제10수>

- 이이, 「고산구곡가」

*주모 복거: 살 만한 터를 가려 정하고 풀을 베어 집을 짓고 살아감.

*하상기음: 새가 오르내리며 우는 것.

*소쇄홀: 기운이 맑고 깨끗함.

▶ 23051-0029

01

작품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감상하는 유형

(가)를 바탕으로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제1수>의 '무이를 상상하고'는 화자가 주희의 「무이도가」에 영향을 받았음을, '학주자를 흐리라'는 화자가 학문을 닦으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② <제4수>의 '반송'은 화자가 고산구곡에 모여든 사람들에게 학문을 가르치는 장소로 볼 수 있겠군.
- ③ <제6수>의 '영월음풍 흐리라'는 화자가 자연의 경치를 즐기며 흥취를 누리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④ <제3수>의 '야외로 보너로라'는 학문 수양을 위한 장소를 탐색하는 행위를, <제7수>의 '대월귀 흐노라'는 자연을 즐기는 행위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⑤ <제8수>의 '추색'은 계절적 배경을, <제10수>의 '세모'는 시간적 배경을 알려 주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23051-0030

02

시어의 의미와 기능을 파악하는 유형

(가)를 참고하여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고산구곡에서 영월음풍의 즐거움을 인식하는 주체로, ㉢은 고산구곡에서 강학의 즐거움을 인식하는 주체로 볼 수 있다.
- ② ㉡은 ㉠과 달리 화자가 직접 가르쳐서 길러 내는 후학으로 볼 수 있다.
- ③ ㉢은 ㉡과 달리 고산구곡의 자연을 즐기는 최고의 경지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다.
- ④ ㉢은 ㉠이 알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하고 싶은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⑤ ㉢은 ㉡과 달리 제대로 실천하지 않고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23051-0031

03

표현상의 특징을 파악하는 유형

(나)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대상을 의인화하여 화자의 감정을 이입하고 있다.
- ② 청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생동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영탄적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나타내고 있다.
- ④ 의성어와 의태어를 구사하여 화자의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 ⑤ 스스로 묻고 답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23051-0032

화자의 정서와 태도를 파악하는 유형**04** (나)의 화자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고산구곡에 은거하며 살아가는 자신의 생활 방식을 타인의 부귀와 비교하며 우월하다고 여기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 ② 날이 저물어 갈 무렵 꽃이 핀 바위로부터 푸른 물결 위로 떨어지는 꽃잎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 ③ 계곡 근처의 맑은 물에 자신을 비취 보며 과거의 잘못을 반성한 후 앞으로 인재 양성에 힘쓰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④ 단풍잎으로 뒤덮인 주변 경치를 바라보며 차가운 바위에 홀로 앉아 귀가할 것을 잊은 자연 친화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⑤ 문인들이 좋아하는 기이한 바위와 괴상하게 생긴 돌이 눈 속에 묻혀 보이지 않자 이를 찾기 위해 애쓰는 초조함을 드러내고 있다.

유형 연습 ③ Zoom In



(가) 「고산구곡가」의 내면적 구조

예제 「고산구곡가」에서 <제1수>와 <제6수>는 시상 전개상 중요하다. <제1수>와 <제6수>는 모두 끝 어절이 화자의 의지를 나타내는 ‘흐리라’로 끝나며, 구체적 시간성이 배제된 일반적 언술로 되어 있다. 그런데 <제1수>에서는 강학의 대상인 ‘벗님’이 등장하나 <제6수>에서는 ‘벗님’이 등장하지 않는다. 강학은 대상을 필요로 하지만 영월음풍은 대상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고산구곡가」의 내면적 구조는 <제1수>부터 <제5수>까지는 벗들이 모여드는 과정과 강학의 즐거움에 주안점을 두어 노래한 내용으로, <제6수>부터 <제10수>까지는 화자의 영월음풍에 주안점을 두고 노래한 내용으로 볼 수 있다.

주제 강학 중심과 영월음풍 중심의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 「고산구곡가」의 내면적 구조

- 구성**
- 1문단: <제1수>와 <제6수>를 비교하며 주목해야 할 「고산구곡가」의 특징
 - 2문단: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 「고산구곡가」의 내면적 구조
 - 3문단: ‘사름’과 ‘벗님’에 관련된 내용이 중심을 이루는 부분
 - 4문단: 화자의 영월음풍 행위를 구체화해서 다루는 부분



(나) 이이, 「고산구곡가」

예제 이 작품은 작가가 벼슬에서 물러나 황해도 해주 고산 석담에 정사를 짓고 제자들을 모아 가르치며 후진 양성에 전념할 때 지은 연시조이다. 남송의 주희(주자)가 지은 「무이도가」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강학과 영월음풍의 즐거움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시상과 미의식이 인상적이다.

주제 학문을 깨우치는 즐거움과 자연을 즐기는 자세

- 구성**
- 제1수: 학문을 연구하고자 하는 결의를 나타냄.
 - 제3수: 화암의 경치와 학문의 즐거움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음.
 - 제4수: 취병에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여름을 잇음.
 - 제6수: 은병에서 강학과 영월음풍을 추구함.
 - 제7수: 조협에서 낚시를 즐기다가 달빛을 받으며 돌아옴.
 - 제8수: 풍암의 가을 경치를 즐기다가 집에 갈 생각을 잇음.
 - 제10수: 문산의 아름다움을 찾지 않는 세속의 가벼움을 경계함.

답은골 발문 Tip

- 윗글에 따라 (가)~(라)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가)를 참고하여 (나)~(라)를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작품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감상하는 유형

01 (가)를 바탕으로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제1수>의 '무이를 상상하고'는 화자가 주희의 「무이도가」에 영향을 받았음을, '학주자를 흐리라'는 화자가 학문을 닦으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② <제4수>의 '반송'은 화자가 고산구곡에 모여든 사람들에게 학문을 가르치는 장소로 볼 수 있겠군.
- ③ <제6수>의 '영월음풍 흐리라'는 화자가 자연의 경치를 즐기며 흥취를 누리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④ <제3수>의 '야외로 보너로라'는 학문 수양을 위한 장소를 탐색하는 행위를, <제7수>의 '대월귀 흐노라'는 자연을 즐기는 행위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⑤ <제8수>의 '추색'은 계절적 배경을, <제10수>의 '세모'는 시간적 배경을 알려 주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유형 이해

고전 시가와 관련한 학술적인 글을 읽고 관련된 작품을 감상하는 문제 유형이다. 해당 작품과 관련된 설명을 잘 읽고 작품의 발상, 배경, 소재, 구절의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유형 공략

- ① 지문에 제시된 이론을 읽고 작품에 적용하여 작품의 특성을 논리적으로 분석한다.
- ② 작품의 발상, 배경, 소재, 구절의 의미 등을 세밀하게 살펴본 후, 선지 진술의 타당성을 확인한다.

정답 풀이

- ④ <제3수>의 '야외'는 세상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고산구곡처럼 학문을 수양하는 공간이 아니다. 그러므로 '야외로 보너로라'는 학문 수양을 위한 장소를 탐색하는 행위와는 관련이 없다. (가)의 4문단의 '그리고 <제7수>와 <제8수>는 화자의 영월음풍 행위를 구체화해서 다루고 있다. 황혼에 낚싯대를 메고 달을 이고 돌아오는 모습이나 한암에 홀로 앉아서 풍암의 추색을 즐기는 모습에서 이를 느낄 수 있다.'를 통해, <제7수>의 '대월귀 흐노라'는 화자가 자연 속에서 낚시를 즐기다가 달빛을 받고 돌아오는 행위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가)의 1문단의 첫 문장을 통해 <제1수>의 '무이를 상상하고'는 「무이도가」의 영향을 받은 것임을 알 수 있다. (가)의 1문단의 '여기서 '-리라'는 화자의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다.'와 <제1수>에서는 강학의 대상인 '벗님'이 등장하고 있으나'를 통해, '학주자를 흐리라'는 '벗님'과 더불어 학문을 닦고 연구하려는 화자의 의지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가)의 3문단의 「고산구곡담기」의 내용과 '이로 미루어 <제4수>의 함의는 고산구곡에서 추구하는 학주자의 삶이 고산구곡에 모여든 많은 벗에게 확산됨을 보는 화자의 감탄을 담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시원한 바람이 부는 반송 아래에서 화자가 제자들에게 강학하며 감탄하는 모습을 떠올릴 수 있는 것이다.'를 통해 짐작할 수 있다.
- ③ (가)의 1문단의 '여기서 '-리라'는 화자의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제1수>와 <제6수>는 화자의 의지를 표현한 장으로 볼 수 있다.'와 (가)의 2문단의 '<제6수>부터 <제10수>까지는 화자의 영월음풍에 주안점을 두고 노래한 내용으로 볼 수 있다.'를 통해 알 수 있다.
- ⑤ (가)의 1문단의 「고산구곡가」는 대부분 계절 또는 하루의 시간성을 매개로 제시된다. 그런데 <제1수>와 <제6수>에서는 계절적 배경이나 시간적 배경을 알려 주는 시어나 시구를 찾을 수 없다.'를 통해 <제8수>와 <제10수>에는 계절적 배경이나 시간적 배경을 알려 주는 시어나 시구가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제8수>의 '추색'은 가을이라는 계절적 배경을, <제10수>의 '세모'는 한 해가 끝날 무렵이라는 시간적 배경을 나타낸다.

답은꼴 발문 Tip

- 창작 배경을 고려하여 ㉠과 ㉡을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시어의 의미와 기능을 파악하는 유형

02 (가)를 참고하여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고산구곡에서 영월읍풍의 즐거움을 인식하는 주체로, ㉡은 고산구곡에서 강학의 즐거움을 인식하는 주체로 볼 수 있다.
- ② ㉠은 ㉠과 달리 화자가 직접 가르쳐서 길러 내는 후학으로 볼 수 있다.
- ③ ㉡은 ㉡과 달리 고산구곡의 자연을 즐기는 최고의 경지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다.
- ④ ㉡은 ㉠이 알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하고 싶은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⑤ ㉡은 ㉡과 달리 제대로 실천하지 않고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유형 이해

고전 시가에 쓰인 시어의 의미와 기능을 파악하는 문제 유형이다. 작품에 등장하는 시어가 내용을 고려했을 때, 무엇을 가리키고 어떤 기능을 하며 무슨 효과가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 시어는 작품의 주제나 분위기, 화자의 정서 등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작용을 하므로, 작품의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시어의 의미와 기능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유형 공략

- ① 해당 시어가 작품의 맥락상 무엇을 가리키는지 파악한다.
- ② 해당 시어가 작품 속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 파악하며 작품을 이해한다.
- ③ 각 작품 속에서 해당 시어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인지 파악한다.

정답 풀이

- ① ㉠은 고산구곡이 어디인지, 무엇을 하는 곳인지 모르고, ㉡은 고산구곡의 기암괴석을 보러 오지 않았다. 그러므로 ㉠과 ㉡은 모두 고산구곡에서 이루어지는 강학과 영월읍풍의 즐거움을 모르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대상으로 볼 수 있다. ㉠이 영월읍풍의 즐거움을, ㉡이 강학의 즐거움을 인식하는 상황은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 ② (가)의 1문단의 ‘〈제1수〉에서는 강학의 대상인 ‘벗님’이 등장하고 있으나’를 통해 ㉡은 강학의 대상이며 화자가 가르쳐서 길러 내는 후학으로 볼 수 있다. 즉 ㉡은 고산구곡에 찾아와 화자의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는 대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 ③ (가)의 4문단의 ‘기암괴석이 눈 속에 묻혀 보이지 않고, 그래서 유인은 볼 것이 없다고 하지만 화자에게는 모든 것이 다 보이고 또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제10수〉는 화자가 영월읍풍을 통해 자연을 즐기는 최고의 경지에 다다른 것임을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를 통해, ㉡은 고산구곡의 자연을 즐기는 최고의 경지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다.
- ④ (가)의 3문단의 ‘〈제3수〉에서는 봄이 저물어 가는 화암의 풍경을 배경으로 종장의 ‘알고 흔들 엇더허리’라는 의문형 표현을 통해 아직도 고산구곡에서 추구하는 학주자의 삶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을 깨우치려는 의도를 노래하고 있다.’를 통해, ㉠이 고산구곡에서 추구하는 학주자의 삶과 관련된 즐거움을 알지 못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은 이러한 즐거움을 ㉠이 깨닫도록 하고 싶은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⑤ (가)의 4문단의 ‘기암괴석이 눈 속에 묻혀 보이지 않고, 그래서 유인은 볼 것이 없다고 하지만’을 통해, ㉡의 목적이 기암괴석을 보는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제10수〉의 종장을 보면 ㉡은 기암괴석을 보러 오지도 않으면서 볼 것도 없다고 말하고 있다. 즉 제대로 실천하지 않으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은 고산구곡에 찾아와 화자의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고 있으므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실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답은골 발문 Tip

-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윗글의 표현상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표현상의 특징을 파악하는 유형

03 (나)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대상을 의인화하여 화자의 감정을 이입하고 있다.
- ② 청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생동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영탄적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나타내고 있다.
- ④ 의성어와 의태어를 구사하여 화자의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 ⑤ 스스로 묻고 답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유형 이해

작품에 사용된 표현상의 특징을 파악하는 문제 유형이다. 연시조의 경우 여러 수가 제시되므로 각 수에 사용된 표현상의 특징을 개별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따라서 작품을 감상할 때 작품에 활용된 문학적 수사법과 그 효과를 중심으로 표현상의 특징을 잘 정리할 필요가 있다.

유형 공략

- ① 작품에 나타나는 표현상의 특징을 이해한다.
- ② 각각의 표현상의 특징이 작품에서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지 이해한다.

정답 풀이

- ④ (나)에 의성어나 의태어 같은 음성 상징어를 구사하여 화자의 상황을 제시하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 ① <제7수>의 ‘나와 고기와 뉘야 더욱 즐기노고’는 고기를 의인화하여 화자의 감정을 이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② <제4수>의 ‘녹수에 산조는 하상기음 흐는 적의’를 통해 푸른 나무에서 지저귀는 산새의 울음소리를 생동감 있게 드러내고 있다.
- ③ <제1수>의 ‘어즈버’, <제4수>의 ‘너름 경이 업세라’, <제8수>의 ‘절벽이 금수로다’ 등에서 감탄사나 감탄형 어미를 사용하여 화자의 만족감, 친근감 등의 정서를 나타내고 있다.
- ⑤ (나)는 <제3수>부터 <제10수>까지 초장에서 주로 ‘~곡은 어딴디고’라며 고산구곡의 개별적 장소를 묻은 후, 주로 ‘~에(의) ~다’라고 답하는 자문자답의 방식을 사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답은골 발문 Tip

- 뒷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뒷글을 원작에 충실한 영상으로 제작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A], [B]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화자의 정서와 태도를 파악하는 유형

04 (나)의 화자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고산구곡에 은거하며 살아가는 자신의 생활 방식을 타인의 부귀와 비교하며 우월하다고 여기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 ② 날이 저물어 갈 무렵 꽃이 핀 바위로부터 푸른 물결 위로 떨어지는 꽃잎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 ③ 계곡 근처의 맑은 물에 자신을 비춰 보며 과거의 잘못을 반성한 후 앞으로 인제 양성에 힘쓰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④ 단풍잎으로 뒤덮인 주변 경치를 바라보며 차가운 바위에 홀로 앉아 귀가할 것을 잊은 자연 친화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⑤ 문인들이 좋아하는 기이한 바위와 괴상하게 생긴 돌이 눈 속에 묻혀 보이지 않자 이를 찾기 위해 애쓰는 초조함을 드러내고 있다.

유형 이해

지문에 제시된 정보를 통해 작품을 적절하게 감상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 유형이다. 일반적으로 문항의 외적 준거인 <보기>를 통해 감상의 실마리를 제시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 지문은 학술적인 글 속에 작품과 해설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글을 읽으며 감상에 도움이 되는 적절한 정보를 잘 골라낸 후 작품 감상에 활용해야 한다.

유형 공략

- ① 글 속에서 작품과 관련된 구조와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작품을 해석하고 감상한다.
- ② 전체 맥락을 고려하여 선지와 연결되는 수를 찾은 후 작중 상황, 화자의 모습, 화자의 심리 등을 파악한다.

정답 풀이

- ④ <제8수>는 맑은 서리가 얇게 내려 단풍에 물든 절벽이 비단처럼 아름답게 보이는 광경을 묘사한 후 화자가 그 경치를 바라보며 바위에 혼자 앉아 집에 돌아갈 것을 잊고 있음을 노래하고 있다. 이는 시간의 흐름도 잊은 채 절경을 즐기는 자연 친화적인 삶의 태도로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제1수>에서 화자가 고산구곡에 은거하며 살아가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자신의 생활 방식을 타인의 부귀와 비교하며 우월하다고 여기는 모습은 찾을 수 없다.
- ② <제3수>의 시간적 배경은 날이 저물어 갈 무렵은 아니며, 화자가 안타까워하는 모습도 나타나지 않는다.
- ③ <제6수>에서 화자가 마련한 학당이 물가에 있음을 알 수 있지만, 화자가 맑은 물에 자신을 비춰 보며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 ⑤ <제10수>에서 기이한 바위와 괴상하게 생긴 돌이 눈 속에 묻혀 보이지 않는 상황은 확인할 수 있으나, 화자가 이를 찾기 위해 애쓰는 것은 아니다.

유형 연습 ④

[01~0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차설(且說) 이때 조은하의 춘광이 십오 세이라. 부드러운 태도와 뛰어난 우아한 기질이 짐짓 절대가인(絶代佳人)이라. 이왕 소상 죽림에서 일위(一位) 소년을 만나, 우연히 유자를 주고 백학선을 받아 돌아왔더니, 점점 장성하매 백학선을 내어 본즉, 요조숙녀(窈窕淑女) 군자호구(君子好逑)라 쓰고, 그 아래 사주(四柱)를 기록하였거늘, 심중은 놀라나 이 또한 천정연분(天定緣分)이라. 어찌할 길 없으며, 마음에 기록하고 말을 내지 아니하더라.

차시(此時) 남방 남촌에서 사는 상서 벼슬 최국양은 당시 임금의 총애가 으뜸이요, 서자(庶子)가 하나가 있으니 인물과 재학이 뛰어났으며, 명사(名士) 재상(宰相)의 딸을 둔 자가 구혼하고자 하나, 마침내 허락하지 않다가 조성로의 여자가 천하 경국지색(傾國之色)이란 말을 듣고, 매파를 보내어 구혼하니 조 공이 즉시 허락한지라.

은하가 이 말을 듣고 크게 놀라, 이날로부터 식음을 전폐하고 자리에 누워 일어나지 못하여 명재경각(命在頃刻)^{*}이라. 부모가 대경하고 의아하여 여아의 ㉠ 침소에 나아가 조용히 묻기를,

┌ “우리가 늦게야 너를 얻어 기쁜 마음이 측량없더니, 주야로 기다리는 바는 어진 배필을 얻어, 원
[A] 양이 짝을 이루는 재미를 볼까 하였더니, 이제 무슨 연고로 네 식음을 전폐하고 죽기를 자처하느냐. 그 곡절을 듣고자 하노라.”

은하가 주저하다가 천천히 눈물을 흘려 아뢰기를,

“소녀 같은 인생이 세상에 살아 무익한 고로, 죽어 모르고자 하옵나니, 바라건대 부모는 살피소서. 소녀가 십 세에 외가에 갔다가, 오는 길에 유자를 얻어 가지고 오다가, ㉡ 소상 죽림에서 잠깐 쉬었더니, 한 소년 선비가 지나다가 유자를 구하기로 두어 개를 주었더니 받아먹은 후에 답례로 백학선을 주어 어린 마음에 아름답게 여겨 받아 두었삽더니, 요사이 펴 본즉 그 부채의 글이 백년가약을 뜻한지라, 그때의 무심히 받은 것을 뉘우치나, 이 또한 천생연분이 분명하옵고, 또한 그 선비를 본즉 평범한 사람이 아니오라, 소녀가 이미 그 사람의 신물(信物)을 받았사오니 마땅히 그 집 사람이라, 어찌 다른 가문에 마음을 두리이까? 만일 생전에 백학선 임자를 만나지 못하오면, 죽기로써 백학선을 지키올지라.”

인하여 부채를 내어 아뢰기를,

“만일 그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소녀는 죽어 혼백이라도 유가(劉家)에 들어가 백학선을 전하고자 하옵나니, 원하건대 부모는 소녀의 박명(薄命)을 가련히 여기시고, 죽은 후라도 만일 유생이 소녀를 찾아오거든, 소녀의 조그만 정성을 갖추어 전하여, 소녀로 하여금 소상야우(瀟湘夜雨)^{*}의 고훈(孤魂)이 되지 아니하게 하소서.”

하고 말을 마친 후에 눈물이 비 오듯 하니, 조 공 부부가 또한 흐느끼며 이르기를,

┌ “네가 이 같은 사정이 있으면, 어찌 벌써 이르지 아니하였는가. 너는 일단 그 신물을 지키어 죽기로 정하거니와 저의 뜻을 어찌 알며 일시(一時) 길가에서 우연히 만나 주고 간 부채를 찾으려 오기 쉽겠느냐. 그러하나 네 뜻이 이미 이러한데 내 그 선비를 찾고자 하나, 다만 거주(居住)와 성(姓)만 갖고, 천리 원정(遠征)의 어디를 향하여 찾으리오. 일이 매우 맹랑하니 난처하도다.”

은하가 답하기를,

“충신은 불사이군(不事二君)이요, 열녀는 불경이부(不更二夫)라 하오니, 소녀는 결단코 다른 가문을 섬기지 아니할 것이요, 하물며 그 사람은 잠깐 보아도 신의를 가진 군자였으니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또한 백학선은 세상의 귀한 보배라 무단히 남에게 주지 아니할까 하나이다.”
하거늘 조 공이 들으매 그 철석같은 마음을 억제하지 못할 줄 알고 할 수 없어 이 뜻으로 최국양에게 전하니 최국양이 분함을 이기지 못하여 장차 해할 뜻을 두더라.

[중략 부분 줄거리] 조운하를 찾는 데 실패한 유백로는 병이 들어 벼슬에 물러났다. 오랑캐 가달이 쳐들어오자 원수가 되어 출전한다. 전장에 나간 유백로는 최국양의 모함으로 가달에게 붙잡히는데, 이때 조운하가 가달을 물리치고 유백로를 구출하기 위해 대원수로 출전한다.

대원수가 말에서 내려 하늘에 절하고 주문을 외워 백학선을 사면으로 부치니 천지 아득하고 뇌성벽력이 진동하며, 무수한 신장(神將)이 내려와 돕는다. 저 가달이 아무리 용맹한들 어찌 당하리오? 두려워하여 일시에 말에서 내려 항복하니 대원수가 가달과 마대영을 ㉠당하(堂下)에 꿰리고 크게 꾸짖어,

“네가 유 원수를 지금 모셔 와야 목숨을 용서하려니와, 그렇지 않은즉 군법을 시행하리라.”

하니, 가달이 급히 마대영에게 명하여 유 원수를 모셔 오라 하거늘 마대영이 급히 달려 유 원수의 곁에 나아가 고하기를,

[C] “원수는 소장(小將)이 구함이 아니런들 벌써 위태하셨을 터이오니, 소장의 공을 어찌 모르소서.”

하고 수레에 싣고 몰아가거늘, 유 원수가 아무것도 모르고 당하에 다다르니, 일위 소년 대장이 맞아 이르기를,

“장군이 대대 명가 자손으로 이렇듯 곤함이 모두 운명이라. 안심하여 개의치 마소서.”

하거늘 유 원수가 눈을 들어 본즉 이는 평생에 전혀 알지 못한 사람이라. 손을 들어 칭찬하며 이르기를,

“뉘신지는 모르거니와 뜻밖에 죽어 가는 사람을 살려, 본국의 귀신이 되게 하시니 백골난망(白骨難忘)이오나, 이제 ㉡전쟁에서 패배한 장수가 되어 군부(軍府)를 욕되게 하오니, 무슨 면목으로 군부를 뵈오리오. 차라리 이곳에서 죽어 죄를 갚을까 하나이다.”

대원수가 재삼 위로하기를,

“장수 되어 일승일패(一勝一敗)는 병가상사(兵家常事)이오니, 과히 번뇌치 마소서.”

유 원수가 예를 갖추어 인사하더라.

가달과 마대영을 수레에 싣고 회군(回軍)할새, 먼저 승전한 첩서(捷書)를 올리고 승전고(勝戰鼓)를 울리며 행할새, 유 원수가 부끄러워하는 기색이 가득한 것을 보고 대원수가 묻기를,

“장군이 이제 사지(死地)를 벗어나 고국으로 돌아오시니, 만행(萬幸)이거늘 어찌 이렇듯 수척하시뇨?”

유 원수가 차탄(嗟歎)하여 이르기를,

“소장이 불충불효한 죄를 짓고 돌아오니 무엇이 즐거우리이까? 원수가 이렇듯 유념하시니 황공(惶恐) 불안하여이다.”

대원수가 짐짓 묻기를,

“듣자온즉 원수가 일개 여자를 위하여 자원 출전하셨다 하오니, 이 말이 옳으니잇가?”

유 원수가 부끄러워하며 대답이 없거늘, 대원수가 또 가로되,

[D] “장군이 이미 노중에서 일개 여자를 만나, 백학선에 글을 써 주었던 그 여자가 장성하매 백 년을 기약하나, 임자를 만나지 못하매, 사면으로 찾아 서주에 이르러 장군의 비문을 보고 기절하여 죽었다 하니, 어찌 애석하지 않으리오?”

유 원수가 듣고 비참하여 탄식하기를,

“소장이 군부에게 욕을 끼치고, 또 여자에게 원한을 쌓게 하였으니, 차라리 죽어 모르고자 하나이다.”

대원수가 미소하고 백학선을 내어 부치거늘, 유 원수가 이윽히 보다가 묻기를,

“원수가 그 부채를 어디서 얻었나이까?”

대원수가 가로되,

“소장의 조부께서 상강 현령으로 계실 때에 용왕을 현몽(現夢)하고 얻으신 것이니이다.”

유 원수가 다시 묻지 아니하고 내심 헤아리기를 ‘세상에 같은 부채도 있도다.’ 하고 재삼 보거늘 대원수가 이를 보고 참지 못하여,

“장군이 정신이 가물거려 친히 쓴 글씨를 몰라보시는도다.”

하고 부채를 유 원수의 앞에 놓으니, 유 원수가 비로소 조 소저인 줄 알고, 비회(悲懷)를 이기지 못하여 나아가 그 손을 잡고 이르기를,

┌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깨닫지 못하리로다. 생은 대장부로 불충불효를 범하고 몸이 죽을 곳에 [E] 빠지되, 그대는 규중 여자로 출전(出戰) 입공(立功)하고, 죽은 사람을 살리니, 가히 규중(閨中) 호걸(豪傑)이로다.”

하며 여취여광(如醉如狂)하더라.

— 작자 미상, 「백학선전」

*명재경각: 거의 죽게 되어 곧 숨이 끊어질 지경에 이름.

*소상야우: 중국 호남성 소상강 지역의, 밤에 비 오는 풍경. 소상팔경의 하나.

*여취여광: 미친 듯도 하고 취한 듯도 하다는 뜻으로, 매우 기뻐 어찌할 줄을 몰라 함을 이르는 말.

작품의 내용을 파악하는 유형

▶ 23051-0033

01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조은하가 유백로를 천생연분이라 생각한 것은 조은하가 외가에 가 유자를 얻어 오는 계기가 되었다.
- ② 최국양이 조성로의 가문에 매파를 보내 구혼을 한 것은 조은하의 고뇌를 더욱 심화하게 하였다.
- ③ 조 공이 혼인에 관한 조은하의 뜻을 최국양에게 전한 것은 최국양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계기가 되었다.
- ④ 마대영이 가달의 명을 수행한 것은 대원수가 가달과 마대영을 풀어 주는 데 영향을 끼쳤다.
- ⑤ 대원수가 유 원수를 위로한 것은 유 원수가 고국으로 돌아오려고 결심하는 계기가 되었다.

인물의 심리, 태도를 파악하는 유형

▶ 23051-0034

02 [A]~[E]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 자신들의 입장을 먼저 드러낸 다음 조은하가 현재 상황에 대한 입장을 드러낼 것을 바라고 있다.
- ② [B]: 조은하의 사정을 이해하려 하면서도, 조은하를 도와주는 것이 쉽지 않음을 토로하고 있다.
- ③ [C]: 대원수의 명령을 수용하여 상대방을 구출하면서도 자신의 공을 내세우고 있다.
- ④ [D]: 유 원수에게 거짓된 정보를 알려 주며 조은하에 관한 입장을 바꾼 것을 비판하고 있다.
- ⑤ [E]: 자신의 잘못을 이야기하며 자신을 구해 준 조은하의 공을 칭송하고 있다.

▶ 23051-0035

03

작품의 맥락을 파악하는 유형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에서 조 공 부부는 조은하가 ㉡에서 겪었던 일에 대해 기억하지 못하였다.
- ② ㉠에서 조은하는 부모의 충고를 수용하였고, 그 결과 ㉡으로 회귀하려 했던 자신의 생각을 바꾸었다.
- ③ 조은하는 배필을 만나기 위해 ㉡에 가려고 했던 자신의 목적을 ㉣에 이르고 나서 성취할 수 있었다.
- ④ ㉣에서 유백로는 조은하와 ㉡에서 인연을 맺은 것을 기억하지 못한 것에 대해 부끄러워하였다.
- ⑤ ㉣에서 유백로는 자신이 ㉣에서 저지른 과오로 인한 부끄러움을 드러내었다.

▶ 23051-0036

04

외적 증거에 따른 작품 감상의 적절성을 파악하는 유형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고전 소설에서는 남녀 간의 결연의 증거로 ‘징표(徵標)’를 주고받는 경우가 많다. 징표는 다양한 서사적 기능을 하는데, 하늘의 권위나 사대부 가문의 위상을 상징함으로써 징표를 주고받는 사람들이 그것을 소중하게 간직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징표는 인물들의 만남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인연이 되는 것을 매개하는 경우가 있는데, 서로가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도 절개를 지키며 서로 간의 약속을 잊지 않게 하거나 서로의 정체를 확인하게 하는 기능을 한다. 한편, 징표가 신이한 능력을 지니고 있어 관련 인물이 위기에 처했을 때 시련을 극복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경우도 있다.

- ① 유백로가 백학선에 쓴 글씨는 유백로가 대원수의 정체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었군.
- ② 조은하가 백학선을 활용해 영웅적 능력을 발휘하는 것은 백학선의 신이함을 보여 주고 있군.
- ③ 조은하가 죽어서라도 백학선을 지키려 하는 것은 유백로에 대한 조은하의 절개를 보여 주는군.
- ④ 조은하가 자신을 유백로의 집안사람으로 여기는 것은 유백로 가문의 위상을 알았기 때문이군.
- ⑤ 조은하가 유백로에게 받은 백학선을 간직한 것은 서로가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도 서로의 인연이 끊이지 않고 있음을 나타내는군.

유형 연습 4 Zoom In



작자 미상, 「백학선전」

예제 이 작품은 남녀 주인공 조은하와 유백로가 결연을 할 때 주고받은 ‘백학선’을 표제로 한 작품으로, 천상 세계의 존재인 선관, 선녀가 인간계로 쫓겨나 갓은 고초를 겪은 다음 재회를 하고 행복한 결말을 맞는다는 내용이다. 남녀 주인공의 애정담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애정 소설로 볼 수 있는데, 혼인을 하는 과정에서 부모나 임금의 뜻보다 주인공들의 뜻이 더 존중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또한 조은하가 원수가 되어 영웅적 활약을 한다는 점에서 영웅 소설로 볼 수 있으며, 남자 주인공 유백로보다 여자 주인공 조은하가 더 적극적인 면모를 보인다는 점에서 여성 영웅 소설로 볼 수도 있다.

주제 남녀 간의 신의 있는 사랑과 우국충정

전체 줄거리 명나라 때 유 시랑은 일월성신에게 빌어 아들 유백로를 얻었고, 이부 상서 조성로도 뒤늦게 딸 조은하를 얻었는데, 유백로와 조은하는 천상계에서 죄를 지어 지상으로 쫓겨난 선관, 선녀였다. 어느 날 유백로는 소상 죽림에서 우연히 조은하를 만나 백학선에 백년가약을 맺고자 하는 글귀를 써서 조은하에게 건넨다. 유백로가 장성하자 병부 상서가 유백로를 사위로 맞으려 하지만 거절당하고, 최국양도 은하를 며느리로 삼으려 하지만 거절당한다. 유백로는 과거에 급제한 후 어사가 되어 조은하를 찾으려 했지만 실패하고, 조은하는 최국양에 의해 고난을 당한다. 이후 유백로는 오랑캐 가달을 물리치기 위해 출정을 하지만 최국양이 군사와 군수품을 지원하지 않아 포로로 잡힌다. 이때 조은하가 신통력을 발휘하여 오랑캐 가달을 물리치고 유백로를 구출한다. 이후 최국양은 처벌을 받고 유백로와 조은하는 각각 연왕과 연왕비가 되어 행복하게 살다가 하늘로 올라간다.

짧은골 발문 Tip

-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윗글에 나타난 등장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작품의 내용을 파악하는 유형

01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조은하가 유백로를 천생연분이라 생각한 것은 조은하가 외가에 가 유자를 얻어 오는 계기가 되었다.
- ② 최국양이 조성로의 가문에 매파를 보내 구혼을 한 것은 조은하의 고뇌를 더욱 심화하게 하였다.
- ③ 조 공이 혼인에 관한 조은하의 뜻을 최국양에게 전한 것은 최국양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계기가 되었다.
- ④ 마대영이 가달의 명을 수행한 것은 대원수가 가달과 마대영을 풀어 주는 데 영향을 끼쳤다.
- ⑤ 대원수가 유 원수를 위로한 것은 유 원수가 고국으로 돌아오려고 결심하는 계기가 되었다.

유형 이해

인물의 심리 및 태도를 비롯하여 작품의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문제 유형이다. 인물은 사건과 늘 관련이 있으므로, 사건의 전개 과정 및 인물 간의 갈등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아가 인물의 발화 및 행동에 담긴 인물의 의도 및 태도를 파악함으로써 작품의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도록 한다.

유형 공략

- ① 작품의 전체적인 맥락을 바탕으로 서사의 흐름을 파악한다.
- ② 주요 사건의 흐름을 파악하고 인물 간의 갈등 관계를 파악한다.
- ③ 작품의 전체적인 구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물의 심리 및 태도를 파악한다.

정답 풀이

- ② 최국양이 조성로의 가문에 구혼을 하였고 조성로는 즉시 허락을 하였는데, 조은하는 이미 유백로로부터 백학선을 받고 이를 신물로 인식한 상태였다. 따라서 최국양이 조성로의 가문에 구혼을 한 것이 혼인을 둘러싼 조은하의 고뇌를 심화하게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요사이 펴 본즉 그 부채의 글이 백년가약을 뜻한지라, 그때의 무심히 받은 것을 뉘우치나, 이 또한 천생연분이 분명하옵고’에서 조은하가 유백로를 천생연분이라 생각하였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조은하가 외가에 가 유자를 얻어 오는 것은 조은하가 유백로를 만나기 전에 일어난 상황이므로, 조은하가 유백로를 천생연분이라 생각한 것이 조은하가 외가에 가 유자를 얻어 오는 계기가 되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③ 최국양은 조 공이 전해 준 조은하의 뜻을 듣고 분함을 이기지 못하였다고 했으므로, 최국양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다고 볼 수 없다.
- ④ 대원수는 가달과 마대영에게 유 원수를 모시고 오면 목숨을 살려 준다고 하였고, 이에 가달은 마대영에게 유 원수를 모셔 오라고 명하였다. 그리고 마대영은 급히 달려가 유 원수를 수레에 싣고 대원수에게로 데려왔으므로 마대영은 가달의 명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대원수가 가달과 마대영을 수레에 싣고 회군하였으므로, 마대영이 가달의 명을 수행한 것이 대원수가 가달과 마대영을 풀어 주는 데 영향을 끼쳤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⑤ 대원수는 마대영이 유 원수를 데리고 오자 “장수 되어 일승일패는 병가상사이오니, 과히 번뇌치 마소서.”라고 말하며 유 원수를 위로하였다. 즉 대원수가 유 원수를 위로하는 것은 유 원수가 고국으로 돌아온 이후이므로 대원수가 유 원수를 위로한 것이 유 원수가 고국으로 돌아오려고 결심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답은골 발문 Tip

- [A]와 [B]에 대한 평가로 적절한 것은?
- [A]와 [B]의 말하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A]와 [B]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인물의 심리, 태도를 파악하는 유형

02 [A]~[E]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 자신들의 입장을 먼저 드러낸 다음 조은하가 현재 상황에 대한 입장을 드러낼 것을 바라고 있다.
- ② [B]: 조은하의 사정을 이해하려 하면서도, 조은하를 도와주는 것이 쉽지 않음을 토로하고 있다.
- ③ [C]: 대원수의 명령을 수용하여 상대방을 구출하면서도 자신의 공을 내세우고 있다.
- ④ [D]: 유 원수에게 거짓된 정보를 알려 주며 조은하에 관한 입장을 바꾼 것을 비판하고 있다.
- ⑤ [E]: 자신의 잘못을 이야기하며 자신을 구해 준 조은하의 공을 칭송하고 있다.

유형 이해

인물이 어떠한 방식으로 대화를 하고, 어떠한 의도로 행동하는지를 파악하여 인물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문제 유형이다. 이러한 유형의 문제에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인물 간의 갈등 관계와 사건의 진행 양상을 파악하여, 대화와 행동에 담긴 인물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형 공략

- ① 해당 부분에 드러난 인물의 의도 및 태도를 파악한다.
- ② 인물이 어떠한 방식을 통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파악한다.

정답 풀이

- ④ 대원수는 자신이 조은하라는 점을 숨기고 조은하가 죽었다고 이야기하였으므로 유 원수에게 거짓된 정보를 알려 주었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하지만 유 원수가 대원수(조은하)에 관한 입장을 바꾼 것은 아니다. 따라서 대원수가 조은하에 관한 입장을 바꾼 유 원수를 비판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 ① 조 공 부부는 조은하를 낳아 기르며 어진 배필을 얻게 되는 상황을 기대하였다는 이야기를 먼저 한 다음, 조은하에게 식음을 전폐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묻고 있다.
- ② 조 공 부부는 '그러하나 네 뜻이 이미 이러한데 내 그 선비를 찾고자 하나'와 같이 조은하의 뜻을 이해하려 하면서도, '다만 거주와 성만 갖고, 천리 원정의 어디를 향하여 찾으리오.'와 같이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 ③ 마대영은 유 원수를 모셔 와야만 목숨을 용서한다는 대원수의 명에 유 원수를 구출하러 갔다. 그리고 유 원수를 구출하면서도 '소장의 공을 어찌 모르소서.'와 같이 자신의 공을 내세우고 있다.
- ⑤ 유 원수는 '생은 대장부로 불충불효를 범하고'와 같이 자신의 잘못을 이야기한 다음, '그대는 규중 여자로 출전 입공하고, 죽은 사람을 살리니, 가히 규중 호걸이로다.'와 같이 조은하의 공을 칭송하고 있다.

답은골 발문 Tip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맥락을 고려하여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윗글의 맥락을 고려할 때, ㉢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작품의 맥락을 파악하는 유형

03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에서 조 공 부부는 조은하가 ㉡에서 겪었던 일에 대해 기억하지 못하였다.
- ② ㉠에서 조은하는 부모의 충고를 수용하였고, 그 결과 ㉡으로 회귀하려 했던 자신의 생각을 바꾸었다.
- ③ 조은하는 배필을 만나기 위해 ㉡에 가려고 했던 자신의 목적을 ㉢에 이르고 나서 성취할 수 있었다.
- ④ ㉢에서 유백로는 조은하와 ㉡에서 인연을 맺은 것을 기억하지 못한 것에 대해 부끄러워하였다.
- ⑤ ㉢에서 유백로는 자신이 ㉢에서 저지른 과오로 인한 부끄러움을 드러내었다.

유형 이해

특정 공간에서의 사건의 전개 양상을 파악하고 인물의 발화 의도 및 태도를 파악하도록 하는 문제 유형이다. 인물과 사건, 배경은 소설 구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들로, 이러한 유형의 문항을 쉽게 풀이하기 위해서는 특정 공간에서 인물이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파악하고,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어 갔지를 예측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유형 공략

- ① 사건의 전개 양상과 갈등의 원인을 정확하게 이해한다.
- ② 작품의 전체적인 맥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특정 공간에서의 인물의 상황을 파악한다.
- ③ 인물의 발화 내용을 파악하고 인물의 발화에 담긴 의도 및 태도를 파악한다.

정답 풀이

⑤ ‘이제 전쟁에서 패배한 장수가 되어 군부를 욕되게 하오니, 무슨 면목으로 군부를 뵈오리오.’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에서 유백로는 ㉢에서 패배를 하여 군부를 욕되게 한 것에 대해 부끄러움을 드러내었다.

오답 풀이

- ① 조 공 부부는 조은하가 ㉡에서 겪었던 일을 ㉠에서 처음 들은 것이므로, 조은하가 ㉡에서 겪었던 일에 대해 기억하지 못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② 조은하는 ㉠에서 조 공 부부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도 유백로에 대한 절개를 계속해서 지키고 있으므로 부모의 충고를 수용하였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조은하는 유백로에 대한 절개를 지키려 한 것이지, ㉡으로 회귀하려 한 것은 아니다.
- ③ 조은하는 십 세에 외가에 갔다가 오는 길에 소상 죽림에서 잠시 쉬던 중에 유백로를 만났다. 즉 소상 죽림에서 유백로를 만나 우연히 유자를 주고 백학선을 받아 돌아온 상황이므로, 조은하가 배필을 만나기 위해 ㉡에 갔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④ 유백로는 ㉢에서 대원수가 조은하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므로, 자신이 조은하와 ㉡에서 인연을 맺은 것을 기억하지 못한 것에 대해 부끄러워하였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답은골 발문 Tip

- <보기>를 참고할 때, [A]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기>를 바탕으로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를 참고할 때, ㉠과 ㉣의 서사적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의 적절성을 파악하는 유형

04 <보기>를 참고하여 뒷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고전 소설에서는 남녀 간의 결연의 증거로 '징표(徵標)'를 주고받는 경우가 많다. 징표는 다양한 서사적 기능을 하는데, 하늘의 권위나 사대부 가문의 위상을 상징함으로써 징표를 주고받는 사람들이 그것을 소중하게 간직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징표는 인물들의 만남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인연이 되는 것을 매개하는 경우가 있는데, 서로가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도 절개를 지키며 서로 간의 약속을 잊지 않게 하거나 서로의 정체를 확인하게 하는 기능을 한다. 한편, 징표가 신이한 능력을 지니고 있어 관련 인물이 위기에 처했을 때 시련을 극복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경우도 있다.

- ① 유백로가 백학선에 쓴 글씨는 유백로가 대원수의 정체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었군.
- ② 조은하가 백학선을 활용해 영웅적 능력을 발휘하는 것은 백학선의 신이함을 보여 주고 있군.
- ③ 조은하가 죽어서라도 백학선을 지키려 하는 것은 유백로에 대한 조은하의 절개를 보여 주는군.
- ④ 조은하가 자신을 유백로의 집안사람으로 여기는 것은 유백로 가문의 위상을 알았기 때문이군.
- ⑤ 조은하가 유백로에게 받은 백학선을 간직한 것은 서로가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도 서로의 인연이 끊이지 않고 있음을 나타내는군.

유형 이해

작품에 대한 배경지식을 설명한 <보기>는 작품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정보를 담고 있다. 따라서 작품을 감상하기 전에 <보기>에 대한 이해를 선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보기>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한 다음, 그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물의 특징 및 사건의 전개 양상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형 공략

- ① <보기>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작품에 대한 배경지식을 활성화한다.
- ② <보기>의 내용을 바탕으로 등장인물의 고뇌 및 갈등 관계를 파악한다.
- ③ 작품에 등장하는 주요한 소재의 기능을 파악하며 작품을 이해한다.

정답 풀이

- ④ 조은하가 자신을 유백로의 집안사람으로 여기는 것은 유백로로부터 사랑의 징표인 백학선을 받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지만, 백학선에는 '요조숙녀 군자호구'라는 글귀와 유백로의 사주만 기록되어 있었으므로, 조은하가 유백로 가문의 위상을 알았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 ① '장군이 정신이 가물거리 친히 쓴 글씨를 몰라보시는도다.'에서 알 수 있듯이, 유백로가 백학선에 쓴 글씨는 대원수가 조은하라는 사실을 유백로가 알게 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 ② 조은하(대원수)가 백학선을 사면으로 부치자 천지가 아득하고 뇌성벽력이 진동하며, 무수한 신장이 내려와 돕는다고 한 장면에서 백학선의 신이함을 확인할 수 있다.
- ③ 조은하가 죽어서라도 백학선을 지키려 한 것은 백학선이 유백로와의 사랑의 징표였기 때문이므로, 유백로에 대한 조은하의 절개를 보여 준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 ⑤ 백학선은 유백로와 조은하의 사랑의 징표이면서 언젠가는 둘이 재회할 것임을 암시해 주므로, 유백로와 조은하가 백학선을 주고받은 것이 서로가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도 서로의 인연이 끊이지 않고 있음을 나타낸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02

문학

유형 연습 ⑤

[01~0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두목: 어느 놈이 돈 임자냐? (허생에게) 오! 네로구나! 이 생쥐 같은 놈! 네놈이 그래 나랏돈 십만 냇을 털두 뽑지 않고 통째루 끌꺼했던 말이나? (허생, 이에 대꾸하지 않고 옆치락뒤치락, 돈 짐과 씨름하며 찢찢매는 줄개들을 보고, 체구에 맞지 않게 우렁찬 소리로 꺄꺄 웃는다.) 이놈이 우, 웃어?

허생: (뜰에 내려가서 줄개를 부축하며) 늦게 배운 도둑질이 새벽까지 걸렸구나? 이봐, 몇 냇을 가지구 이 꼬락서닌가? (두목에게) 어디서 이런 것들을 모아 놓구 이걸 밤일이랍시구 허구 있지?

두목: (줄개들에게) 이놈들아! 어서 빨랑빨랑 일어나지 못해? 이거 어디 내가 창피해서 견디겠느냐?

허생: 애, 억쇠야, 너 부축 좀 해 줘라.

억쇠: 부축입쇼, 생원님?

허생: 동여서 관가에 바칠 것두 못 된다. 여보게, 두목.

두목: 네? 예.

허생: 다음번엔 마소라두 끌구 오게나.

두목: 판은! 침 숨씨라.....

허생: 자아, 어서들 일어서지...... 해 뜨기 전엔 돌아들 가얏 게 아닌가?

강 선달: (기운이 뻗쳐서) 아니, 이 굼벵이들을 그냥 돌려보내요?

허생: 오, 참! 노자라두 조금씩 나눠 줘야겠구먼.

강 선달: 노오자?

허생: 억쇠야, 노자뿐 아니라 소용되는 대루 가지구 가게 해라. (억쇠와 강 선달, 서로 마주 보며 허생이 정상이 아니라는 시늉. 늙은 도적, 줄개 1이 외락 땅을 치며 통곡한다. 허생,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선다.)

줄개 1: 아이구, 우리네가 살아서 성인군자를 뵈는구나!

허생: 늙은이가 이게 무슨 일어요? 어서 일어나우.

줄개 1: 나으리의 하해 같은 은헬 어떻게 갚습니까요? 이 몸이 늙었을망정, 남은 생명이나마 나으릴 받들게 해 줍쇼사!

허생: 그건 곤란한데.

줄개 1: (줄개들에게) 애들아, 너희들 생각은 어떠냐?

줄개 2: 누가 좋아서 이런 짓을 허나요? 그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허생: 아니, 논밭두 없단 말이나?

줄개 2: 논밭이 있음, 누가 밤일꺼정 허겠이유?

허생: 흠! 억쇠야, 어서 나눠 주되.....

억쇠: 아니 정말 돈을 주란 말썸인갑쇼?

줄개 1: 아니올시다, 마님. 고향엘 간댕자 별수 없는 놈들이랍니다. 가뭄이라 논밭 곡식은 말라 죽구, 물난리라 초가삼간 떠내려 보냈구, 집안의 종자란 헬미, 새끼, 손주 놈꺼정 뿔뿔이 흩어졌사와요.

줄개 2: 이제 와서 쉰네들이 양민이 되구 싶단들 이미 도둑 명부에 오른 놈들이니, 갈 곳이 어딿사와요?

줄개 3: 다들 마찬가지예유. 종살이라두 좋으니 영감 밑에 뒤 주세요.

허생: 헛, 이거 야단났군.

줄개들: (무릎을 꿇고) 한 번 살렸으니, 두 번 살려 줍쇼, 마님.

허생: 두목, 나더러 자네 일을 맡아보란 말인가?

두목: 아, 아니올시다. 전 가짜 두목이올시다.

허생: 뭐, 가짜? 도둑 두목에도 진짜 가짜가 있나?

두목: 위에는 위가 있습죠. (은행나무를 쳐다보며) 수령님…… 수령님…… 애들이 몽땅 돌아섰어요.

(사이, 부시시 나뭇가지를 헤치고 박몽인이 내려와 엎드린다.)

박몽인: 비올 낮이 없습니다.

허생: 헛! 언제 날 봤다구? 아니, 당신 전수(典需)* 영감이구려? 하하, 우리 또 만났네.

박몽인: 높으신 덕을 몰라뵈구…….

허생: 하하하, 관 쓴 도둑이라더니 영감이야말로 명실상부요, 형용상중이구려.

박몽인: 십만 냥 거벨 허구설랑 한 푼 돈두 못 지니구 서울루 올라갈 지경이면 위로부터의 구박을 누가 어떻게 감당해 냅니까? 궁극에 가서는 도둑의 누명을 씌워 정배 아님 하옥이니, 이래두 저래두 도둑, 도둑의 이름을 면치 못할진댄 에라 모르겠다, 죽는 셈 치구 한번 나서 본다는 게 요 꼴이 됐습니다.

허생: 신세 처량하지만, 솔직해서 좋소.

박몽인: 널리 살피십시오.

허생: 얼마 돈이 있음 되우?

박몽인: 이제 와서 돈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소인두 이 사람들과 함께 생원님을 모실까 하옵니다.

졸개들: 땅 끝, 하늘 끝까지!

허생: 그래요? 이를 어쩐다? (생각) 이봐, 당신네들 사정이 저영 그렇담 나두 생각이 있으니까, 내달 초이렛날 여기서 다시 만나기로 합시다.

졸개 1: 그럼, 허락하십니까?

허생: 온다니 낸들 어쩔 수 없잖소?

졸개들: 고맙습니다, 마님!

허생: 그러나 홀몸은 안 되오. 홀애비나 총각은 짝을 묶어 가지고 와야 하우.

졸개들: 짝입쇼?

허생: 억쇠야, 짝 값까지 내줘라.

억쇠: 짝 값까지입쇼? 헛! (강 선달을 본다.)

강 선달: 원, 내참!

(졸개들, 억쇠와 강 선달에게서 돈을 받아 가지고 좋아라고 굽실거리며 대문으로 나간다.)

(중략)

(나) 어느덧, 흰히 밝은 아침. 밖에서 군중들의 웅소.*

억쇠: 이크! 이번엔 또 무슨 난리야?

박몽인: 나 잡으러 온 나졸 아닐까?

억쇠: 도둑놈들이 다른 도둑놈들과 합세해 가지구 쳐들어오나?

허생: 그럴 리가 있겠냐? …… 너 좀 나가서 동정을 살펴봐라.

억쇠: 쇠, 쇠네갑쇼?

허생: 그럼, 내가 나가 보련?

억쇠: 아, 아니올시다. 나, 나가 봅쇼! 권마님 말씀임 도둑놈에게 맞아 죽어두 나가얍쇼. 허, 허…….

죽어도 좋단 말이야, 죽어두……. (대문 밖으로 나가는 억쇠의 걸음이 몹시 휘청거린다. 불안한 사이.

억쇠, 나가자마자 거품을 물고 되짚어 뛰어든다.)

억쇠: 아이구! 이거 큰일 났습니다요, 권마님.

박몽인: 역시 나, 나졸이냐?

강 선달: 도둑이냐?
 억쇠: 도둑이 문제가 아니에요, 마님.
 강 선달: 그럼 민요냐?
 억쇠: 민요람 약과깍쇼? (허생에게) 큰 골칫덩어리가 생겼사와요.
 허생: ?
 억쇠: 고을 사람들이 죄마님 뵈겠다구 별 떼처럼 몰려오니, 이를 어떡함 좋습쇼?
 허생: 날 만난다구?
 억쇠: 방금 밖으루 나간 도둑들이 선봉을 서구, 어린애는 등에 업구, 늙은인 손을 잡구, 절름발인 외다 리, 앓은뱅인 두 손 걸음, 마님!
 강 선달: 그럼 역시 도둑 떼가 도둑 뿔 물구 오는구나?
 억쇠: 안성 고을은 물론, 변두리서들꺼정 몰려올 기세라는뎡쇼?
 허생: 가난한 사람이 그리 많았던가?
 강 선달: 흥! 나랏님 탓입쥬, 머.
 박몽인: 어, 헛.
 허생: (억쇠에게) 이리루 인도해라.
 억쇠: 아니, 저 비렁뱅이게두 또 돈을 주실려굽쇼?
 허생: 우선 만나 보구서 생각할 일이다.
 억쇠: 어이구머니? 말총 살 돈, 몽땅 날리겠넵쇼? (강 선달을 보며) 원 내? (소음 더욱 커진다.)

- 박지원 원작 / 오영진 각색, 「허생전」

*전수: 조선 시대에, 내수사(內需司)에 속하여 왕실에서 쓰는 미곡, 포목, 잡화 및 왕실 소속의 노비 등에 관한 일을 맡아 하던 정오품 벼슬.

*형용상중: 형태와 속이 일치함.

*흰소: 뒤떠들어서 소란함.

*민요: 포악한 정치 따위에 반대하여 백성들이 일으킨 폭동이나 소요.

작품의 내용을 파악하는 유형

▶ 23051-0037

01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허생이 ‘관 쓴 도둑이라더니 영감이야말루 명실상부요’라고 말한 것은 허생이 박몽인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이군.
- ② ‘죽는 셈 치구 한번 나서 본다는 게’를 볼 때, 박몽인이 ‘십만 냥’과 관련된 거래를 한 것은 박몽인이 돈을 흠치러 오게 된 것에 영향을 끼친 것이군.
- ③ 허생이 ‘내달 초이렛날 여기서 다시 만나기로 합시다.’라고 말한 것은 자신들을 거두어 달라는 졸개들의 부탁을 수용하려는 입장이군.
- ④ 박몽인이 ‘나 잡으러 온 나졸 아닐까?’라고 말한 것은 자신이 저지른 행위가 관으로부터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했기 때문이군.
- ⑤ 억쇠가 ‘큰 골칫덩어리가 생겼사와요.’라고 허생에게 말한 것은 도둑들이 다른 도둑들과 합세하여 돈을 흠치러 오는 것을 걱정했기 때문이군.

▶ 23051-0038

갈래의 특징 및 성격을 파악하는 유형

02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보기**

희곡은 연극의 대본으로 인물의 행동과 대사를 통해 이야기가 전개된다. 그런데 연극 공연에서는 무대 공간을 계속하여 바꿀 수는 없으므로 특정 상황을 무대에서 직접 보여 주지 않고 무대 밖의 공간에서 일어난 것으로 설정하거나 인물의 대사를 통해 공간의 상황을 드러내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관객은 무대 공간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지만, 특정 배우는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설정되기도 한다. 한편 인물의 대사 중에는 관객에게는 들리지만 무대 위 상대방은 듣지 못하는 것으로 설정된 말도 있다.

- ① 줄개 1이 허생을 성인군자라고 지칭하는 말은 관객에게는 들리지만 허생에게는 들리지 않는 대사이다.
- ② 줄개들이 살던 곳에 기뿐이 들어 논밭 곡식이 말라 죽은 상황은 무대 공간에서 인물의 대사를 통해 제시된다.
- ③ 박몽인이 은행나무 위에 올라 있는 상황은 두목은 알지 못하는 반면 관객은 알 수 있는 것으로 설정된 것이다.
- ④ 역쇠가 대문 밖을 나갔다가 되돌아오는 것은 무대에서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무대 밖의 공간에서 벌어지는 상황이다.
- ⑤ 고을 사람들이 허생을 보기 위해 몰려드는 것은 관객은 직접 볼 수 있지만 허생은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연출 계획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유형

▶ 23051-0039

03

(가), (나)를 대본으로 하여 공연을 하고자 할 때, 연출자가 등장인물에게 지시할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줄개 역할을 맡은 배우들은 돈 짐을 훔치는 데 서투른 모습으로 연기해 주세요.
- ② 허생 역할을 맡은 배우는 근엄한 표정으로 줄개들을 질책하려는 의도를 생생하게 보여주세요.
- ③ 역쇠 역할을 맡은 배우는 줄개들에게 돈을 나누어 주라는 허생의 말에 의아한 표정으로 연기해 주세요.
- ④ 두목 역할을 맡은 배우는 다양한 어투를 사용하여 허생을 대하는 태도 변화가 잘 드러나도록 연기해 주세요.
- ⑤ 박몽인 역할을 맡은 배우는 비굴함이 드러나는 몸짓을 통해 은행나무에서 내려온 후 허생과 대화를 하는 상황을 실감 나게 보여 주세요.

▶ 23051-0040

04

작품 간의 공통점 및 차이점을 파악하는 유형

(가)와 <보기>를 비교하여 파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여럿이 일제히 대답을 하고, 누구는
 “그런 별유천지가 있다면야 열 번도 더 값지요.”
 한다.
 “그러면 여러 사람은 이 길로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가족들을 거느리고 새달 보름날까
 지 충청도 강경(江景) 장터로 모이시오. 홀애비는 마누라를 얻어 가지고 오고, 총각은 장
 가를 들어 색시를 데리고 오시오.”
 네 대답도 하고, 킁킁 웃는 소리도 나고 한다. 예서 강경 장터가 몇 리나 되느냐고 옆엿사
 람더러 묻는 사람도 있다. 그러느라고 좌중은 잠깐 웅성거린다. 조용하여지기를 기다려, 허
 생은 다시
 “돈은 각기들 소용될 만치 가지고 가시오. 열 냇이 소용될 사람은 열 냇을, 백 냇이 소용
 될 사람은 백 냇을 가지고 가시오. 등으로 지고 가기에 무거운 사람은 말을 사서 싣고 가
 시오.”
 허생의 말끝은 어느덧 하시오, 가시오 하고 공대로 변화였다.
 “또, 여기 왔던 여러 사람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오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거든 많이들 데
 리고 오시오.”
 “도적놈도 상관없습니까?”
 하나가 불쑥 그렇게 묻는 것을 허생이 미처 대답을 하기 전에 다른 하나가
 “그 녀석, 저는 무척 양민인감.”
 하여서 여럿은 한꺼번에 웃었다.
 “물론 도적도 상관이 없고, 다 상관이 없소. 그러나 저는 편안하고 남이나 부러먹으려 드
 는 게으름뱅이나 찌부러진 양반 나무랑이는 데러오지 말도록 하시오.”
 허생의 신칙이었다. 허생은 강 선달을 시켜 술과 음식을 나오게 하여 여러 사람을 먹인
 후에, 그들이 가지고 온 장기를 거두고, 각기 소용되는 돈을 주어 돌려보냈다. 돈은 태반이
 열 냇씩 가지고 물러섰다.

- 채만식, 「허생전」

- ① (가)와 달리 <보기>에는 허생이 사람들에게 모이라고 한 일시와 장소가 나타나 있다.
- ② <보기>와 달리 (가)에는 허생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도둑들의 대사가 나타나 있다.
- ③ <보기>와 달리 (가)에는 양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허생의 말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 ④ (가)와 <보기> 모두 허생의 지시를 거부하는 강 선달의 행동이 나타나 있다.
- ⑤ (가)와 <보기> 모두 도둑의 부탁에 대해 곤란해하는 허생의 대사가 드러나 있다.

유형 연습 5 Zoom In



박지원 원작 / 오영진 각색, 「허생전」

어제 박지원의 「허생전」을 희곡으로 각색한 작품으로, 17~18세기에 유행한 실학사상을 1960년대 상황에 접목하여 나타난 점이 특징적이다. 박지원의 「허생전」에 나타난 당대에 대한 비판과 풍자는 1960년대 사회 현실에 대한 비판과 풍자로 변모되어 원작에 없는 여러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다. 또한 원작과 마찬가지로 주인공 허생원의 상행위를 통해 화폐 경제 사회의 모습과 인본주의를 보여 주고 있으며, 허생원을 제외한 다른 인물들이 희극적으로 그려져 허생원의 현실 개혁 의지를 더욱 돋보이게 한다.

주제 양반들의 허위의식 비판 및 현실 개혁 의지

전체 줄거리 허생원은 돈으로 양반 신분을 산 변 부자로부터 일만 냇을 빌려 과일을 매점매석한다. 그러자 왕실에 쓸 물건이 모자라게 되었고, 내수사 전수 박몽인이 관군을 앞세워 허생원에게 왕실 물건을 사러 온다. 허생원은 박몽인의 계략에 굴하지 않고 10만 냇의 비싼 값에 과일을 판다. 박몽인은 도둑들을 앞세워 허생원의 돈을 빼앗으려다 실패하고 도리어 허생원에게 감화가 되어 도둑들과 함께 백석도로 향한다. 백석도로 간 허생원은 섬에 널려 있는 대리석을 캐어 부를 축적하였는데, 변 부자와 함께 이완 대장이 찾아오자 그들과 이야기를 나눈 다음 백석도를 떠나 자취를 감춘다.

답은꼴 발문 Tip

- 뒷글에 나타난 인물들의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뒷글의 등장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뒷글의 내용을 파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작품의 내용을 파악하는 유형

01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허생이 '관 쓴 도둑이라더니 영감이야말로 명실상부요'라고 말한 것은 허생이 박몽인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이군.
- ② '죽는 셈 치구 한번 나서 본다는 게'를 볼 때, 박몽인이 '십만 냥'과 관련된 거래를 한 것은 박몽인이 돈을 훔치러 오게 된 것에 영향을 끼친 것이군.
- ③ 허생이 '내달 초이렛날 여기서 다시 만나기로 합시다.'라고 말한 것은 자신들을 거두어 달라는 졸개들의 부탁을 수용하려는 입장이군.
- ④ 박몽인이 '나 잡으러 온 나졸 아닐까?'라고 말한 것은 자신이 저지른 행위가 관으로부터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했기 때문이군.
- ⑤ 역쇠가 '큰 골칫덩어리가 생겼사와요.'라고 허생에게 말한 것은 도둑들이 다른 도둑들과 합세하여 돈을 훔치러 오는 것을 걱정했기 때문이군.

유형 이해

해당 제시문을 읽고 인물들의 행동이나 태도를 이해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제 유형이다. 극 문학도 사건의 흐름을 기반으로 하므로, 인물 간의 갈등 양상과 태도를 파악한 다음, 선지에 제시된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유형 공략

- ① 사건의 전개 과정과 그에 따른 상황을 파악한다.
- ② 인물의 성격 및 심리를 정확하게 파악한다.
- ③ 선지에 제시된 인물에 관한 정보가 글의 내용에 부합하는지를 파악한다.

정답 풀이

- ⑤ 역쇠가 '큰 골칫덩어리가 생겼사와요.'라고 허생에게 말한 것은 대문 밖에 고을 사람들이 허생을 보기 위해 몰려들었기 때문이다. 또한 역쇠는 대문 밖의 사람들을 비렁뱅이로 인식하고 있으므로, 도둑들이 다른 도둑들과 합세하여 돈을 훔치러 오는 것을 걱정했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 ① 박몽인을 명실상부한 '관 쓴 도둑'이라고 한 것을 볼 때, 허생은 박몽인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죽는 셈 치구 한번 나서 본다는 게'를 볼 때, 박몽인이 '십만 냥' 거래를 해서 한 푼도 못 건진 것이 허생의 집에 도둑질을 하러 오는 것에 영향을 끼쳤음을 알 수 있다.
- ③ 허생이 졸개들의 말을 듣고 '내달 초이렛날'에 만나자고 한 것은, 허생을 모시고자 하는 졸개들의 부탁을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④ 박몽인이 집 밖에서 들리는 소리를 듣고 '나 잡으러 온 나졸 아닐까?'라고 말한 것은 자신이 저지른 행위가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지레 겁을 먹은 것이라 할 수 있다.

답은골 발문 Tip

- <보기>를 바탕으로 뒷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를 참고하여 뒷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기>를 참고할 때, 뒷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갈래의 특징 및 성격을 파악하는 유형

02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희곡은 연극의 대본으로 인물의 행동과 대사를 통해 이야기가 전개된다. 그런데 연극 공연에서는 무대 공간을 계속하여 바꿀 수는 없으므로 특정 상황을 무대에서 직접 보여 주지 않고 무대 밖의 공간에서 일어난 것으로 설정하거나 인물의 대사를 통해 공간의 상황을 드러내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관객은 무대 공간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지만, 특정 배우는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설정되기도 한다. 한편 인물의 대사 중에는 관객에게는 들리지만 무대 위 상대방은 듣지 못하는 것으로 설정된 말도 있다.

- ① 줄개 1이 허생을 성인군자라고 지칭하는 말은 관객에게는 들리지만 허생에게는 들리지 않는 대사이다.
- ② 줄개들이 살던 곳에 가뭄이 들어 논밭 곡식이 말라 죽은 상황은 무대 공간에서 인물의 대사를 통해 제시된다.
- ③ 박몽인이 은행나무 위에 올라 있는 상황은 두목은 알지 못하는 반면 관객은 알 수 있는 것으로 설정된 것이다.
- ④ 역쇠가 대문 밖을 나갔다가 되돌아오는 것은 무대에서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무대 밖의 공간에서 벌어지는 상황이다.
- ⑤ 고을 사람들이 허생을 보기 위해 몰려드는 것은 관객은 직접 볼 수 있지만 허생은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유형 이해

<보기>에서 설명한 개념이나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작품을 파악하도록 하는 문제 유형이다. <보기>에는 작품의 내용이나 갈래상 특징, 작품에 관한 주요 개념 등 다양한 내용이 담길 수 있으므로, <보기>에 대한 이해를 선행한 다음 <보기> 내용을 근거로 하여 작품을 감상할 수 있어야 한다.

유형 공략

- ① <보기>에서 설명하는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한다.
- ② <보기>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작품의 특징을 파악한다.
- ③ 작품의 내용 및 특징에 대한 표면적 이해를 넘어 <보기>에 제시된 준거에 따라 작품의 특징을 이해한다.

정답 풀이

- ② 줄개들이 살던 곳에 가뭄이 들어 논밭 곡식이 말라 죽은 상황은 무대 위의 공간에서 직접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줄개들의 대사를 통해 제시되는 상황이다.

오답 풀이

- ① 줄개 1이 ‘우리네가 살아서 성인군자를 뵈는구나!’라고 말한 것을 듣고 허생이 ‘늙은이가 이게 무슨 일이요? 어서 일어나우.’라고 말한 것을 볼 때, 줄개 1이 허생을 성인군자라고 지칭한 말을 허생도 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③ ‘(은행나무를 쳐다보며) 수령님…… 수령님…… 애들이 몽땅 돌아섰어요. / (사이, 부시시 나뭇가지를 헤치고 박몽인이 내려와 엎드린다.)’에서 두목이 은행나무에 있던 박몽인에게 ‘수령님’이라고 부른 것을 볼 때, 박몽인이 은행나무 위에 올라 있는 상황을 두목이 알고 있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대문 밖으로 나가는 역쇠의 걸음이 몹시 휘청거린다. 불안한 사이, 역쇠, 나가자마자 거품을 물고 되짚어 뛰어든다.)’를 통해 역쇠가 대문 밖의 상황을 보고 들어오는 것은 무대 위에서 벌어지는 장면임을 알 수 있다.
- ⑤ 희곡은 무대 상연을 전제로 하므로 등장인물의 인원수에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 허생을 보기 위해 몰려드는 고을 사람들은 무대 위에서 직접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인물들의 대사를 통해 제시되는 장면이다.

답은골 발문 Tip

- 윗글의 내용대로 영상을 제작하려 할 때, [A], [B]에 대한 감독의 연출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윗글을 영상으로 만든다고 할 때, 감독의 연출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윗글을 공연할 때, ㉠~㉣에 대한 연출자의 지시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연출 계획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유형

03

(가), (나)를 대본으로 하여 공연을 하고자 할 때, 연출자가 등장인물에게 지시할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줄개 역할을 맡은 배우들은 돈 짐을 훔치는 데 서투른 모습으로 연기해 주세요.
- ② 희생 역할을 맡은 배우는 근엄한 표정으로 줄개들을 질책하려는 의도를 생생하게 보여주세요.
- ③ 역쇠 역할을 맡은 배우는 줄개들에게 돈을 나누어 주라는 희생의 말에 의아한 표정으로 연기해 주세요.
- ④ 두목 역할을 맡은 배우는 다양한 어투를 사용하여 희생을 대하는 태도 변화가 잘 드러나도록 연기해 주세요.
- ⑤ 박몽인 역할을 맡은 배우는 비굴함이 드러나는 몸짓을 통해 은행나무에서 내려온 후 희생과 대화를 하는 상황을 실감 나게 보여주세요.

유형 이해

희곡 내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연출자의 연출 계획이 적절한지를 파악하는 문제 유형이다. 등장인물의 심리 및 태도, 희곡의 특성을 고려하여 배우의 행동이나 어조 등이 작품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한지를 파악해야 한다.

유형 공략

- ① 등장인물의 심리 및 태도를 우선 파악한다.
- ② 제시된 상황에서 인물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파악한다.
- ③ 사건의 전개 상황과 갈등 양상을 파악하여 연출 계획의 적절성을 파악한다.

정답 풀이

② 희생은 자신의 집에 도둑질을 하러 들어온 줄개들에게 돈을 가져가라고 하고 있으므로, 줄개들을 질책하려는 의도를 드러낸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 ① ‘(희생, 이에 대꾸하지 않고 앞치락뒤치락, 돈 짐과 씨름하며 찢찢매는 줄개들을 보고, 체구에 맞지 않게 우렁찬 소리로 꺄꺄 웃는다.)’를 볼 때, 줄개 역할을 맡은 배우들이 돈 짐을 훔치는 데 서투른 모습으로 연기하는 것은 적절하다.
- ③ 줄개들에게 돈을 나눠 주라는 희생의 말에 역쇠가 ‘아니 정말 돈을 주란 말썸인갑쇼?’라고 말한 것을 볼 때, 역쇠 역할을 맡은 배우가 줄개들에게 돈을 나눠 주라는 희생의 말에 의아한 표정으로 연기하는 것은 적절하다.
- ④ 두목은 돈을 훔치러 와서는 ‘오! 네로구나! 이 생쥐 같은 놈! 네놈이 그래 나랏돈 십만 냥을 털두 뽑지 않고 통째루 꿀꺽했단 말이나?’와 같이 희생에게 반말 투로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다가 돈을 나눠 주려는 희생의 모습을 본 후에는 ‘아, 아니올시다. 전 가짜 두목이올시다.’와 같이 경어체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을 볼 때 두목 역할을 맡은 배우가 다양한 어투를 사용하여 희생을 대하는 태도 변화가 잘 드러나도록 연기하는 것은 적절하다.
- ⑤ 박몽인은 희생에게 ‘뵈을 낮이 없습시다.’라고 이야기하며, ‘널리 살피십시오.’, ‘소인두 이 사람들과 함께 생원님을 모실까 하옵니다.’라고 부탁을 하고 있으므로, 박몽인 역할을 맡은 배우가 비굴함이 드러나는 몸짓을 통해 희생에게 부탁을 하는 상황을 실감 나게 보여 주는 것은 적절하다.

답은골 발문 Tip

- (가)와 (다)를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를 참고할 때, (가)와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04

작품 간의 공통점 및 차이점을 파악하는 유형

(가)와 <보기>를 비교하여 파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여럿이 일제히 대답을 하고, 누구는 / “그런 벌유천지가 있다면야 열 번도 더 갚지요.” / 한다.
 “그러면 여러 사람은 이 길로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가족들을 거느리고 새달 보름날까지 충청도 강경(江景) 장터로 모이시오, 홀애비는 마누라를 얻어 가지고 오고, 총각은 장가를 들어 색시를 데리고 오시오.”
 네 대답도 하고, 킁킁 웃는 소리도 나고 한다. 예서 강경 장터가 몇 리나 되느냐고 옆엿사람더러 묻는 사람도 있다. 그러느라고 좌중은 잠깐 웅성거린다. 조용하여지기를 기다려, 허생은 다시 “돈은 각기들 소용될 만치 가지고 가시오, 열 냇이 소용될 사람은 열 냇을, 백 냇이 소용될 사람은 백 냇을 가지고 가시오, 등으로 지고 가기에 무거운 사람은 말을 사서 싣고 가시오.”
 허생의 말끝은 어느덧 하시오, 가시오 하고 공대로 변하였다.
 “또, 여기 왔던 여러 사람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오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거든 많이들 데리고 오시오.”
 “도적놈도 상관없습니까?”
 하나가 불쑥 그렇게 묻는 것을 허생이 미처 대답을 하기 전에 다른 하나가 “그 녀석, 저는 무척 양민인감.” / 하여서 여럿은 한꺼번에 웃었다.
 “물론 도적도 상관이 없고, 다 상관이 없소. 그러나 저는 편안하고 남이나 부러먹으며 드는 계오름 뱅이나 찌부러진 양반 나부랑이는 데려오지 말도록 하시오.”
 허생의 신칙이었다. 허생은 강 선달을 시켜 술과 음식을 나오게 하여 여러 사람을 먹인 후에, 그들이 가지고 온 장기를 거두고, 각기 소용되는 돈을 주어 돌려보냈다. 돈은 태반이 열 냇씩 가지고 물러갔다.
 - 채만식, '허생전'

- ① (가)와 달리 <보기>에는 허생이 사람들에게 모이라고 한 일시와 장소가 나타나 있다.
- ② <보기>와 달리 (가)에는 허생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도둑들의 대사가 나타나 있다.
- ③ <보기>와 달리 (가)에는 양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허생의 말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 ④ (가)와 <보기> 모두 허생의 지시를 거부하는 강 선달의 행동이 나타나 있다.
- ⑤ (가)와 <보기> 모두 도둑의 부탁에 대해 곤란해하는 허생의 대사가 드러나 있다.

유형 이해

상호 텍스트성에 주목하여 두 작품의 공통점 및 차이점을 파악하도록 하는 문제 유형이다. 상호 텍스트성이란 하나의 텍스트와 다른 텍스트의 관계에 주목하여 비교하며 감상함으로써 의미를 생성하는 것을 뜻하는 개념이므로, 두 작품 사이에 내용이나 표현, 구성 등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유형 공략

- ① 두 작품의 내용 및 서사 전개 과정 등을 정확하게 파악한다.
- ② 제시문에 드러난 인물의 특징 및 태도, 갈등 양상 등을 이해한다.
- ③ 두 작품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한다.

정답 풀이

- ② (가)에서는 ‘고맙습니다, 마님!’과 같은 줄개들의 대화를 통해 허생의 지시에 대해 도둑들이 고마움을 드러내며 긍정적인 반응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기>에는 도둑들이 허생에게 고마움을 드러낸 부분이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 ① (가)에서는 허생이 도둑들에게 ‘내달 초이렛날’, ‘여기서’ 만나자고 하였으며, <보기>에서는 허생이 도둑들에게 ‘새달 보름날까지’, ‘충청도 강경 장터’에서 모이자고 하였다.
- ③ (가)에는 ‘관 쓴 도둑’과 같은 허생의 말에서 양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보기>에는 ‘찌부러진 양반 나부랑이는 데려오지 말도록 하시오.’와 같이 양반에 대한 허생의 부정적 인식이 드러나 있다.
- ④ (가)에서는 도둑들에게 돈을 내주라는 허생의 지시에 강 선달이 ‘원, 내참!’과 같이 반응하였지만, 허생의 지시를 거부하는 강 선달의 행동은 나타나지 않는다. <보기>에서는 허생이 강 선달에게 술과 음식을 나오게 지시하였고, ‘여러 사람을 먹인 후에’를 볼 때 강 선달은 허생의 지시를 거부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 ⑤ (가)에서는 ‘이 몸이 늙었을망정, 남은 생명이거나 나오릴 받들게 해 줍소서!’와 같은 줄개 1의 부탁에 허생이 ‘그건 곤란한데.’라고 답한 부분에서 도둑의 부탁에 대해 곤란해하는 허생의 대사가 드러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보기>에는 도둑의 부탁에 대해 곤란해하는 허생의 대사는 나타나 있지 않다.

03

언어

유형 연습 ①

▶ 23052-0041

음운 변동의 유형을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유형

01

〈보기〉는 음운 변동의 유형을 다루는 수업의 한 장면이다. [A]에 들어갈 수 있는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선생님: 지난 시간에 배운 음운 변동의 유형 네 가지가 무엇이었죠?

학생: 네, 음운 변동의 유형에는 교체, 탈락, 첨가, 축약이 있습니다.

선생님: 맞아요. 정확히 기억하고 있네요. 그럼 ㉠~㉤을 발음해 보고 어떤 유형의 음운 변동이 있는지 설명해 볼까요?

- | | | |
|---------------|---------------|--------------|
| • 입자 → [㉠] | • 논일 → [㉡] | • 법학 → [㉢] |
| • 물난리 → [㉣] | • 여덟과 → [㉤] | |

학생: 네, ([A])

- ① ㉠은 ‘입자’이고 ‘ㅈ’이 ‘ㅉ’으로 발음되는 것은 첨가에 해당합니다.
- ② ㉡은 ‘논일’이고 ‘ㄴ’이 새로 나타난 것은 첨가에 해당합니다.
- ③ ㉢은 ‘법학’이고 ‘ㅂ’과 ‘ㅎ’이 ‘ㅍ’으로 된 것은 축약에 해당합니다.
- ④ ㉣은 ‘물난리’이고 두 ‘ㄴ’이 ‘ㄹ’로 발음되는 것은 교체에 해당합니다.
- ⑤ ㉤은 ‘여덟과’이고 ‘ㅂ’이 발음되지 않는 것은 탈락에 해당합니다.

▶ 23052-0042

음운 변동의 구체적 종류를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유형

02 <보기>는 과제로 제시된 학습 활동이다. ㉠~㉤에 따라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한 것은?

보기

우리말의 음운 변동에는 유음화, 비음화, 구개음화, 자음군 단순화, ‘ㅎ’ 탈락, ‘ㄴ’ 첨가, 된소리되기, 거센소리되기 등이 있다. 다음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예를 두 개씩 생각해 보자.

- ㉠ ‘ㄴ’ 첨가, 유음화가 모두 일어난 예
- ㉡ ‘ㄴ’ 첨가, 비음화가 모두 일어난 예
- ㉢ 구개음화, ‘ㅎ’ 탈락이 모두 일어난 예
- ㉣ 된소리되기, 자음군 단순화가 모두 일어난 예
- ㉤ 자음군 단순화, 거센소리되기가 모두 일어난 예

- ① ㉠: 물약[물랴], 불놀이[불로리]
- ② ㉡: 잠일[잠닐], 식용유[시공뉴]
- ③ ㉢: 달힌[다친], 얹히다[언치다]
- ④ ㉣: 닭장[닥짱], 드넓지[드널찌]
- ⑤ ㉤: 앓고[안코], 앓터라[안떠라]

답은골 발문 Tip

- <보기>의 ㉠~㉣에 들어갈 음운 변동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에 제시된 ㉠~㉣의 음운 변동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한 것은?
- <보기>는 수업 중 한 장면이다. [A]에 들어갈 예로 적절한 것을 ㉠~㉣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02

음운 변동의 구체적 종류를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유형

<보기>는 과제로 제시된 학습 활동이다. ㉠~㉣에 따라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한 것은?

보기

우리말의 음운 변동에는 유음화, 비음화, 구개음화, 자음군 단순화, ‘ㅎ’ 탈락, ‘ㄴ’ 첨가, 된소리되기, 거센소리되기 등이 있다. 다음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예를 두 개씩 생각해 보자.

- ㉠ ‘ㄴ’ 첨가, 유음화가 모두 일어난 예
- ㉡ ‘ㄴ’ 첨가, 비음화가 모두 일어난 예
- ㉢ 구개음화, ‘ㅎ’ 탈락이 모두 일어난 예
- ㉣ 된소리되기, 자음군 단순화가 모두 일어난 예
- ㉤ 자음군 단순화, 거센소리되기가 모두 일어난 예

- ① ㉠: 물약[물랏], 불놀이[불로리]
- ② ㉡: 잡일[잡닐], 식용유[시공뉴]
- ③ ㉢: 달힌[다친], 얹히다[언치다]
- ④ ㉣: 닭장[닥짱], 드넓지[드널찌]
- ⑤ ㉤: 앓고[안코], 앓더라[안떠라]

유형 이해

음운 변동의 구체적 종류를 파악하는 것은 음운 변동의 유형을 파악하는 것과 함께 매우 중요한 학습 목표이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한 음절 말 평파열음화, 자음군 단순화, 자음 동화(유음화, 비음화), 구개음화, 된소리되기, ‘ㅎ’ 탈락, ‘ㄴ’ 첨가, 거센소리되기가 자주 출제되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유형 공략

- ① 각 음운 변동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확히 파악한다.
- ② 두 개의 예에서 일어난 음운 변동이 무엇인지 파악한다.
- ③ <보기>에 제시된 음운 변동이 모두 일어났는지를 확인한다.

정답 풀이

④ ‘닭장[닥짱]’에서는 음절 말의 ‘ㄱ’ 때문에 뒤의 ‘ㅈ’이 ‘ㅉ’으로 발음되는 된소리되기가 일어났고, 자음군 ‘ㄹ’에서 ‘ㄹ’이 탈락하는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났다. ‘드넓지[드널찌]’에서는 음절 말의 ‘ㅂ’ 때문에 뒤의 ‘ㅈ’이 ‘ㅉ’으로 발음되는 된소리되기가 일어났고, 자음군 ‘ㅃ’에서 ‘ㅃ’이 탈락하는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났다.

오답 풀이

- ① ‘물약[물랏]’은 ‘ㅂ’의 반모음 ‘j’ 앞에서 ‘ㄴ’이 첨가된 후, 그 ‘ㄴ’이 앞의 ‘ㄹ’의 영향을 받아 ‘ㄹ’로 유음화된 것이다. 그러나 ‘불놀이[불로리]’에서는 유음화만 일어났을 뿐 ‘ㄴ’ 첨가는 일어나지 않았다.
- ② ‘잡일[잡닐]’은 ‘ㄱ’ 앞에서 ‘ㄴ’이 첨가된 후, 그 ‘ㄴ’의 영향을 받아 앞의 ‘ㅂ’이 ‘ㅃ’으로 비음화된 것이다. 그러나 ‘식용유[시공뉴]’에서는 ‘ㄴ’ 첨가만 일어났을 뿐 비음화는 일어나지 않았다.
- ③ ‘달힌[다친]’은 ‘ㄷ’과 ‘ㅎ’이 축약되어 거센소리 ‘ㅌ’이 된 후, 그 ‘ㅌ’이 ‘ㄱ’ 앞에서 구개음 ‘ㄷ’으로 바뀐 것이다. 그러므로 ‘ㅎ’은 탈락된 것이 아니다. ‘얹히다[언치다]’는 ‘ㄷ’과 ‘ㅎ’이 축약되어 거센소리 ‘ㄷ’으로 되었을 뿐, 구개음화도 ‘ㅎ’ 탈락도 일어나지 않았다.
- ⑤ ‘앓고[안코]’는 ‘ㅎ’과 ‘ㄱ’이 축약되어 거센소리 ‘ㅋ’이 되었으나, ‘ㅎ’이 탈락한 것이 아니므로 자음군 단순화는 일어나지 않았다. ‘앓더라[안떠라]’는 ‘ㄷ’에서 ‘ㅈ’이 탈락하는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났으나 ‘ㄷ’이 ‘ㅉ’으로 된 것은 된소리되기이지 거센소리되기가 아니다.

03

언어

유형 연습 2

▶ 23052-0043

형태소와 단어의 개념을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유형

01

〈보기〉의 ㉠~㉥에 대한 분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형태소는 의미를 가진 가장 작은 언어 단위이다. 하나의 형태소가 하나의 단어인 ‘하늘’과 같은 경우도 있지만, 둘 이상의 형태소가 결합하여 하나의 단어가 되는 ‘뒷개’와 같은 경우도 있다. ‘에서부터’와 같은 일부 합성 조사를 제외하고 조사는 형태소이면서 단어이지만, 어미나 파생 접사는 그 자체로는 단어가 아니고 형태소일 뿐 다른 형태소와 결합하여 단어를 이룬다.

다음 문장의 밑줄 친 ㉠~㉥를 형태소와 단어로 분석해 보자.

참새 ㉠ 떼가 ㉡ 정답게 ㉢ 지저귀는 ㉣ 소리에 ㉤ 깨었다.

		형태소	단어
①	㉠	떼, 가	떼, 가
②	㉡	정, -답-, -게	정답, 게
③	㉢	지저귀-, -는	지저귀는
④	㉣	소리, 에	소리, 에
⑤	㉤	깨-, -었-, -다	깨었다

▶ 23052-0044

02

단어를 분석하고 단어와 그 구성 성분의 품사를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유형

〈보기 1〉의 ㉠, ㉡을 모두 만족시키는 단어를 〈보기 2〉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1

- ㉠ 접사가 두 개 이상 쓰였다.
 ㉡ 어근의 품사와 파생어의 품사가 동일하다.

보기 2

짓무르다, 덧입히다, 드높이다, 휘날리다, 헛디디다

- ① 짓무르다, 드높이다
 ② 덧입히다, 드높이다
 ③ 덧입히다, 휘날리다
 ④ 짓무르다, 휘날리다, 헛디디다
 ⑤ 덧입히다, 드높이다, 헛디디다

▶ 23052-0045

03

'있다'의 의미와 품사를 올바르게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유형

〈보기〉의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있다'는 의미에 따라 두 가지 품사로 나뉜다. '있다'가 '무엇이 실제로 존재하는 상태이다.', '어떤 물체를 소유하거나 자격이나 능력 따위를 가진 상태이다.'와 같은 의미를 지닐 때에는 형용사로 처리한다. 그러나 '있다'가 '사람이나 동물이 어느 곳에서 떠나거나 벗어나지 아니하고 머물다.', '사람이나 동물이 어떤 상태를 계속 유지하다.'와 같은 의미를 지닐 때에는 동사로 처리한다. 일반적으로 '있다'의 반의어는 '없다'라고 할 수 있지만, 엄밀히 말해 형용사 '있다'만이 '없다'의 반의어이고 동사 '있다'의 반의어는 '없다'가 아니다. 이러한 특징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예를 살펴보면, ㉠

- ① '지하철에서는 조용히 있어.'에서 '있어'는 동사이다.
 ② '그는 내일 집에 있는다고 했다.'에서 '있는다'는 동사이다.
 ③ '나도 아픈 친구를 도운 적이 있다.'에서 '있다'는 형용사이다.
 ④ '내 가방에 있는 물건을 모두 잃어버렸다.'에서 '있는'은 동사이다.
 ⑤ '누구에게나 기회가 있을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에서 '있을'은 형용사이다.

유형 연습 2 Zoom In

짧은 글 발문 Tip

- <보기>를 참고할 때, 밑줄 친 부분에 대한 분석으로 적절한 것은?
- <보기>를 바탕으로 ㉠과 ㉡에 해당하는 예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 <보기>를 참고할 때, ㉠, ㉡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형태소와 단어의 개념을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유형

01 <보기>의 ㉠~㉡에 대한 분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형태소는 의미를 가진 가장 작은 언어 단위이다. 하나의 형태소가 하나의 단어인 '하늘'과 같은 경우도 있지만, 둘 이상의 형태소가 결합하여 하나의 단어가 되는 '뫼개'와 같은 경우도 있다. '에서부터'와 같은 일부 합성 조사를 제외하고 조사는 형태소이면서 단어가 아니다. 어미나 파생 접사는 그 자체로는 단어가 아니고 형태소일 뿐 다른 형태소와 결합하여 단어를 이룬다.

다음 문장의 밑줄 친 ㉠~㉡를 형태소와 단어로 분석해 보자.

참새 ㉠떼가 ㉡정답게 ㉢지저귀는 ㉣소리에 ㉤깨었다.

		형태소	단어
㉠	㉡	떼, 가	떼, 가
㉢	㉣	정, -답-, -게	정답, 게
㉤	㉥	지저귀-, -는	지저귀는
㉦	㉧	소리, 에	소리, 에
㉨	㉩	깨-, -었-, -다	깨었다

유형 이해

형태소와 단어의 관계를 알고 정확히 분석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 유형이다. 형태소와 단어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들의 관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유형 공략

- 1 형태소와 단어의 관계를 정확히 알고 이해한다.
- 2 조사는 하나의 형태소이면서 하나의 단어로 분석될 수 있고, 어미나 접사는 하나의 형태소이지만 단어로 분석될 수 없음을 안다.
- 3 제시된 문장을 형태소와 단어로 나누어 올바르게 분석해 본다.

정답 풀이

㉡ '-답-'은 접미사로 명사 '정'과 결합하여 파생 형용사 '정답다'를 만든다. '정답게'는 형용사 어간 '정답-'에 부사형 어미 '-게'가 결합된 형태로 한 단어이다. 따라서 형태소로 '정', '-답-', '-게'를 분석한 것은 적절하지만, '정답게'를 '정답'과 '게' 두 개의 단어로 분석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 1 명사 '떼'와 조사 '가'가 결합할 때 '떼가'로 붙여 쓰지만, '떼'와 '가'는 각각 하나의 형태소이면서 각각 하나의 단어이다. 따라서 형태소로 '떼'와 '가'를 분석하고, 단어로 '떼'와 '가'를 분석한 것은 적절하다.
- 3 동사 어간 '지저귀-'에 관형사형 어미 '-는'이 결합된 '지저귀는'은 한 단어이다. 따라서 형태소로 '지저귀-'와 '-는'을 분석하고, 단어로 '지저귀는'을 분석한 것은 적절하다.
- 4 명사 '소리'와 조사 '에'가 결합할 때 '소리에'로 붙여 쓰지만, '소리'와 '에'는 각각 하나의 형태소이면서 각각 하나의 단어이다. 따라서 형태소로 '소리'와 '에'를 분석하고, 단어로 '소리'와 '에'를 분석한 것은 적절하다.
- 5 동사 어간 '깨-'와 선어말 어미 '-었-', 그리고 종결 어미 '-다'가 결합된 '깨었다'는 한 단어이다. 따라서 형태소로 '깨-', '-었-', '-다'를 분석하고, 단어로 '깨었다'를 분석한 것은 적절하다.

답은꼴 발문 Tip

- <보기>의 조건에 부합하는 단어를 있는 대로 모두 고른 것은?
- <보기>를 바탕으로 ㉠과 ㉡에 해당하는 예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 <보기 1>의 ㉠과 ㉡에 해당하는 단어를 <보기 2>에서 올바르게 골라 짝지은 것은?

02

단어를 분석하고 단어와 그 구성 성분의 품사를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유형

<보기 1>의 ㉠, ㉡을 모두 만족시키는 단어를 <보기 2>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1

- ㉠ 접사가 두 개 이상 쓰였다.
- ㉡ 어근의 품사와 파생어의 품사가 동일하다.

보기 2

짓무르다, 텃입히다, 드높이다, 휘날리다, 헛디디다

- ① 짓무르다, 드높이다
- ② 텃입히다, 드높이다
- ③ 텃입히다, 휘날리다
- ④ 짓무르다, 휘날리다, 헛디디다
- ⑤ 텃입히다, 드높이다, 헛디디다

유형 이해

파생어를 형성하는 접사를 분석하고 어근의 품사와 파생어의 품사를 비교하여 파생어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제 유형이다. 단어에서 접두사와 접미사를 정확히 분석하고, 어근과 파생어의 품사를 올바르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유형 공략

- 1 접두사와 접미사를 올바르게 분석한다.
- 2 어근의 품사와 파생어의 품사를 정확하게 파악한다.
- 3 접두사와 접미사가 모두 결합된 단어를 올바르게 이해한다.

정답 풀이

- ③ ‘텃입히다’는 어근 ‘입-’에 접두사 ‘텃-’과 접미사 ‘-히-’가 결합된 단어로, 접사가 두 개 쓰였다. 그리고 어근 ‘입-’의 품사는 동사이고 ‘텃입히다’의 품사 역시 동사로 동일하다. ‘휘날리다’는 어근 ‘날-’에 접두사 ‘휘-’와 접미사 ‘-리-’가 결합된 단어로, 접사가 두 개 쓰였다. 그리고 어근 ‘날-’의 품사는 동사이고 ‘휘날리다’의 품사 역시 동사로 동일하다. 따라서 ‘텃입히다’와 ‘휘날리다’ 모두 ㉠, ㉡의 조건에 부합하는 단어로 적절하다.

오답 풀이

- ① ‘짓무르다’는 어근 ‘무르-’의 품사와 ‘짓무르다’의 품사가 형용사로 동일하지만, 접사가 한 개만 쓰였다. ‘드높이다’는 어근 ‘높-’에 접두사 ‘드-’와 접미사 ‘-이-’가 결합된 단어로 접사가 두 개 쓰였다. 그러나 어근 ‘높-’의 품사는 형용사이고 ‘드높이다’의 품사는 동사로 품사가 동일하지 않다. 따라서 ㉠, ㉡의 조건에 부합하는 단어는 없다.
- ② ‘텃입히다’는 조건에 부합한다. ‘드높이다’는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 ㉡의 조건에 부합하는 단어는 ‘텃입히다’뿐이다.
- ④ ‘짓무르다’는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휘날리다’는 조건에 부합한다. ‘헛디디다’는 어근 ‘디디-’의 품사와 ‘헛디디다’의 품사는 동사로 동일하지만, 접사가 한 개만 쓰였다. 따라서 ㉠, ㉡의 조건에 부합하는 단어는 ‘휘날리다’뿐이다.
- ⑤ ‘텃입히다’는 조건에 부합한다. ‘드높이다’와 ‘헛디디다’는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 ㉡의 조건에 부합하는 단어는 ‘텃입히다’뿐이다.

답은골 발문 Tip

- <보기>의 ㉠에 들어갈 예로 적절한 것은?
- <보기>를 참고할 때, 동사와 형용사를 적절하게 구분한 것은?
- <보기>의 ㉠~㉣에서 분석되는 동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03

'있다'의 의미와 품사를 올바르게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유형

<보기>의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있다'는 의미에 따라 두 가지 품사로 나뉜다. '있다'가 '무엇이 실제로 존재하는 상태이다.', '어떤 물체를 소유하거나 자격이나 능력 따위를 가진 상태이다.'와 같은 의미를 지닐 때에는 형용사로 처리한다. 그러나 '있다'가 '사람이나 동물이 어느 곳에서 떠나거나 벗어나지 아니하고 머물다.', '사람이나 동물이 어떤 상태를 계속 유지하다.'와 같은 의미를 지닐 때에는 동사로 처리한다. 일반적으로 '있다'의 반의어는 '없다'라고 할 수 있지만, 엄밀히 말해 형용사 '있다'만이 '없다'의 반의어이고 동사 '있다'의 반의어는 '없다'가 아니다. 이러한 특징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예를 살펴보면, ㉠

- ① '지하철에서는 조용히 **있어**.'에서 '있어'는 동사이다.
- ② '그는 내일 집에 **있는다고** 했다.'에서 '있는다'는 동사이다.
- ③ '나도 아픈 친구를 **도운 적이 있다**.'에서 '있다'는 형용사이다.
- ④ '내 가방에 **있는** 물건을 모두 잃어버렸다.'에서 '있는'은 동사이다.
- ⑤ '누구에게나 기회가 **있을**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에서 '있을'은 형용사이다.

유형 이해

동사와 형용사의 구분을 '있다'를 통해 확인하는 문제 유형이다. '있다'의 의미를 파악하고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유형 공략

- ① 의미에 따라 '있다'에 동사와 형용사 용법이 있음을 이해한다.
- ② 형용사 '있다'만 반의어로 '없다'가 성립됨을 이해한다.
- ③ 사례를 적용하여 '있다'의 용법을 파악한다.

정답 풀이

④ '가방에 있는 물건을'의 '있는'은 '무엇이 실제로 존재하는 상태이다.'의 의미를 갖고, 형용사 '없는다'와 교체가 가능하므로 형용사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동사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 ① '조용히 있어'의 '있어'는 '사람이나 동물이 어떤 상태를 계속 유지하다.'의 의미를 갖고, 형용사 '없어'와 교체가 불가하므로 동사임을 알 수 있다.
- ② '집에 있는다고'의 '있는다'는 '사람이나 동물이 어느 곳에서 떠나거나 벗어나지 아니하고 머물다.'의 의미를 갖고, 형용사 *'없는다'와 교체가 불가하므로 동사임을 알 수 있다.
- ③ '도운 적이 있다'의 '있다'는 '무엇이 현실로 존재하는 상태이다.'의 의미를 갖고, 형용사 '없다'와 교체가 가능하므로 형용사임을 알 수 있다.
- ⑤ '기회가 있을'의 '있을'은 '무엇이 현실로 존재하는 상태이다.'의 의미를 갖고, 형용사 '없을'과 교체가 가능하므로 형용사임을 알 수 있다.

유형 연습 ③

▶ 23052-0046

01

관형사절의 하위 유형을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유형

〈보기 1〉에 따라 〈보기 2〉의 ㉠~㉥를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1

관형사절은 여러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 관형사형 어미 앞에 종결 어미가 실현된 관형사절과 ㉡ 종결 어미가 실현되지 않은 관형사절로 나눌 수 있다. 둘째, ㉢ 어떤 문장 성분도 생략되어 있지 않은 관형사절과 관형사절이 꾸며 주는 체언과 동일한 말이 관형사절 안에도 있어서 그 동일한 말이 생략된 관형사절로 나눌 수 있다. 이런 관형사절은 다시 그 내부에서 어떤 문장 성분이 생략되었는지에 따라 ㉣ 주어가 생략된 관형사절, ㉤ 목적어가 생략된 관형사절, ㉥ 부사어가 생략된 관형사절로 나눌 수 있다.

보기 2

- ㉠ 그는 형이 구청에 보냈다는 서류를 입수했다.
- ㉡ 그 친구는 내가 먹자는 음식에 손도 안 댔다.
- ㉢ 나는 명진이가 순희에게 칭찬한 사실을 안다.
- ㉣ 우리는 축구를 잘하는 진호를 모두 좋아했다.
- ㉤ 나는 충무공이 왜적을 격파하신 명량에 갔다.

- ① ㉠의 관형사절은 ㉠과 ㉢에 해당한다.
- ② ㉡의 관형사절은 ㉠과 ㉤에 해당한다.
- ③ ㉢의 관형사절은 ㉡과 ㉢에 해당한다.
- ④ ㉣의 관형사절은 ㉡과 ㉤에 해당한다.
- ⑤ ㉤의 관형사절은 ㉡과 ㉤에 해당한다.

유형 연습 3 Zoom In

짧은골 발문 Tip

- <보기 1>을 바탕으로 <보기 2>의 ㉠~㉣를 분류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 <보기>의 ㉠~㉣ 중에서 관형사절에서 목적어가 생략된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보기 1>의 ㉠~㉣에 해당하는 예를 <보기 2>의 ㉠~㉣에서 찾아 바르게 짝지은 것은?

관형사절의 하위 유형을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유형

01 <보기 1>에 따라 <보기 2>의 ㉠~㉣를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1

관형사절은 여러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관형사형 어미 앞에 종결 어미가 실현된 관형사절과 ㉡종결 어미가 실현되지 않은 관형사절로 나눌 수 있다. 둘째, ㉢어떤 문장 성분도 생략되어 있지 않은 관형사절과 관형사절이 꾸며 주는 체언과 동일한 말이 관형사절 안에도 있어서 그 동일한 말이 생략된 관형사절로 나눌 수 있다. 이런 관형사절은 다시 그 내부에서 어떤 문장 성분이 생략되었는지에 따라 ㉣주어가 생략된 관형사절, ㉤목적어가 생략된 관형사절, ㉥부사어가 생략된 관형사절로 나눌 수 있다.

보기 2

- ㉠ 그는 형이 구청에 보냈다는 서류를 입수했다.
- ㉡ 그 친구는 내가 먹자는 음식에 손도 안 댔다.
- ㉢ 나는 명진이가 순희에게 청혼한 사실을 안다.
- ㉣ 우리는 축구를 잘하는 진호를 모두 좋아했다.
- ㉤ 나는 충무공이 왜적을 격파하신 명량에 갔다.

- ① ㉠의 관형사절은 ㉠과 ㉢에 해당한다.
- ② ㉡의 관형사절은 ㉠과 ㉢에 해당한다.
- ③ ㉢의 관형사절은 ㉠과 ㉢에 해당한다.
- ④ ㉣의 관형사절은 ㉠과 ㉢에 해당한다.
- ⑤ ㉤의 관형사절은 ㉠과 ㉢에 해당한다.

유형 이해

안긴문장에서 특정 문장 성분이 생략되는 경우가 있고 생략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대개 안긴문장 속의 한 성분이 전체 문장의 한 성분과 공통된 것일 때 생략된다. 관형사절을 가진 안긴문장에서는 관형사절의 꾸밈을 받는 체언과 공통적인 성분이 관형사절 안에서 생략된다. 관형사절에서 특정 문장 성분이 생략되었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지, 생략되었다면 어떤 문장 성분이 생략되었는지를 찾을 수 있는지 묻는 문항이 자주 출제된다.

유형 공략

- 1 관형사형 어미 앞에 종결 어미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 2 꾸밈을 받는 체언이 관형사절에서 생략되어 있는 문장 성분인지 확인한다.
- 3 관형사절에서 문장 성분이 생략되어 있는 경우, 그 문장 성분의 종류를 파악한다.

정답 풀이

- ① ㉠에서 관형사절은 ‘형이 구청에 보냈다는’인데, 종결 어미 ‘-다’가 실현되어 있다. 이 관형사절은 ‘형이 구청에 (서류를) 보냈다는’으로 해석되므로 목적어가 생략된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문장 성분도 생략되어 있지 않은 관형사절이라는 ㉢의 서술과는 맞지 않는다.

오답 풀이

- ② ㉡에서 관형사절은 ‘내가 먹자는’인데, 종결 어미 ‘-자’가 실현되어 있다. 이 관형사절은 ‘내가 (음식을) 먹자는’으로 해석되므로 목적어가 생략된 것이다.
- ③ ㉢에서 관형사절은 ‘명진이가 순희에게 청혼한’인데, 종결 어미가 실현되지 않았다. 이 관형사절은 주어, 필수 부사어, 서술어를 모두 갖추어 생략된 문장 성분이 없다.
- ④ ㉣에서 관형사절은 ‘축구를 잘하는’인데, 종결 어미가 실현되지 않았다. 이 관형사절은 ‘(진호가) 축구를 잘하는’으로 해석되므로 주어가 생략된 것이다.
- ⑤ ㉤에서 관형사절은 ‘충무공이 왜적을 격파하신’인데, 종결 어미가 실현되지 않았다. 이 관형사절은 ‘충무공이 (명량에서) 왜적을 격파하신’으로 해석되므로 부사어가 생략된 것이다.

답은골 발문 Tip

- 높임 표현과 관련하여 <보기>의 ㉠~㉣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는 높임 표현에 대한 설명이다. ㉠에 해당하는 예문으로 적절한 것은?
- <보기>의 ㉠~㉣에서 높이는 대상을 제시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특정 높임 표현의 사용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유형

02 <보기>는 높임 표현에 대한 수업의 한 장면이다. [A]에 들어갈 수 있는 문장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학생: 선생님, 주체를 높이는 것을 주체 높임이라고 하고 객체를 높이는 것을 객체 높임이라고 하는데, 상대 높임에는 왜 말을 듣는 상대를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높이지 않는 것도 포함되나요?

선생님: 좋은 질문이에요. '상대 높임'이라는 용어는 화자가 청자에 대해 높임의 의도를 지녔든 지니지 않았든 상관없이, 그리고 높임과 높이지 않음이 어느 정도인지도 상관없이 포괄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예요.

학생: 아, 그래서 상대 높임에는 높임의 의도가 실현되지 않은 등급도 있는 거네요.

선생님: 맞아요. 그런데 높임 표현이 무엇을 수단으로 하여 나타나는지는 기억하고 있죠?

학생: 네, 조사나 어미 혹은 특수 어휘를 통해 나타납니다.

선생님: 훌륭해요. 그러면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상대 높임 모두에서 높임의 의도가 실현된 문장을 하나만 만들어 볼까요?

학생: 예, 저는 "[A]"를 만들었습니다.

- ① 저희 어머니, 저희가 좋아하는 피자를 싸 드릴까요?
- ② 아버지께서 할머니께 정중한 태도로 길을 안내하셨어.
- ③ 그저께 영석이가 할아버지를 모시고 공원에 갔습니까?
- ④ 어머니께서는 선생님을 뵙고 그 문제를 의논하셨습니다.
- ⑤ 그분은 어려운 수학 문제를 항상 저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유형 이해

높임 표현은 문법 요소 중에서 출제 빈도가 가장 높은 주제이다. 국어는 높임 표현이 섬세하게 발달된 언어이므로 높임 표현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 자주 출제되고 있다. 높임 표현의 세 가지 유형이 어떤 대상을 높이는지를 이해하고, 각 유형의 높임 표현이 어떤 수단에 의해 실현되어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유형 공략

- ① 높이고자 하는 대상인 주체, 객체, 상대가 모두 나타나 있는지를 확인한다.
- ② 상대 높임의 경우 해라체, 해체, 하계체는 높임의 의도가 실현되지 않는 것임에 유의한다.
- ③ 주체, 객체, 상대를 높이는 수단이 모두 나타났는지를 확인한다.
- ④ 제시된 문장에서 높임 표현이 어떻게 실현되었는지를 확인한다.

정답 풀이

④ 주체 높임은 '어머니께서는'의 조사 '께서'와 '의논하셨습니다'의 선어말 어미 '-시-'를 통해 높임의 의도가 실현되었다. 객체 높임은 특수 어휘 '뵙다(뵙고)'를 통해 높임의 의도가 실현되었다. 상대 높임은 어미 '-습니다'를 통해 높임의 의도가 실현되었다.

오답 풀이

- ① 객체 높임은 특수 어휘 '드리다(드릴까요)'를 통해 높임의 의도가 실현되었다. 상대 높임은 '드릴까요'의 조사 '요'를 통해 높임의 의도가 실현되었다. 그러나 주체 높임은 높임의 의도를 드러내는 요소가 없다.
- ② 주체 높임은 '아버지께서'의 조사 '께서'와 '안내하셨어'의 선어말 어미 '-시-'를 통해 높임의 의도가 실현되었다. 객체 높임은 '할머니께'의 조사 '께'를 통해 높임의 의도가 실현되었다. 그러나 상대 높임은 높임의 의도를 드러내는 요소가 없다.
- ③ 객체 높임은 특수 어휘 '모시다(모시고)'를 통해 높임의 의도가 실현되었다. 상대 높임은 '갔습니까'의 어미 '-습니까'를 통해 높임의 의도가 실현되었다. 그러나 주체 높임은 높임의 의도를 드러내는 요소가 없다.
- ⑤ 주체 높임은 '물어보셨습니다'의 선어말 어미 '-시-'를 통해 높임의 의도가 실현되었다. 상대 높임은 '물어보셨습니다'의 어미 '-습니다'를 통해 높임의 의도가 실현되었다. 그러나 객체 높임은 높임의 의도를 드러내는 요소가 없다.

답은꼴 발문 Tip

- <보기>의 ㉠~㉣에 해당하는 문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를 바탕으로 할 때, 밑줄 친 부분이 두 가지의 동작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은?
- <보기 1>의 ㉠~㉣에 따라 <보기 2>의 ㉤~㉧를 바르게 분류한 것은?

시간 표현의 문법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유형

03 <보기>의 ㉠~㉣의 밑줄 친 시간 표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 진수는 힘차게 달리는 말을 바라보았다.
- ㉡ 선영이는 밥을 먹으면서 음악을 들었다.
- ㉢ 버스 안에는 3명의 승객만 타고 있었다.
- ㉣ 형님께서 의자에 우두커니 앉아 계신다.
- ㉤ 나는 앞으로 읽은 책도 또 읽을 것이다.

- ① ㉠: 발화시 기준으로 행동이 과거에 일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 ② ㉡: 행동이 다른 행동과 동시에 진행된 것으로 해석된다.
- ③ ㉢: 현재의 행동을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 ④ ㉣: 과거의 행동이 완료된 후의 결과 상태가 지속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 ⑤ ㉤: 발화시 기준으로 행동이 과거에 일어난 것으로도, 미래에 일어날 것으로도 해석된다.

유형 이해

문법적 시간 표현은 크게 시제와 동작상으로 나뉜다. 그동안 수능에서는 한 문항에 두 가지 시간 표현을 함께 다룬 예가 없었는데, 두 가지 시간 표현을 함께 다룬 고난도 문항이 출제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따라서 시간 표현과 관련해서는 발화시, 즉 말하고 있는 현재를 기준으로 해당 행동이 과거, 현재, 미래 중 어느 시점에 위치해 있는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동작상과 관련해서는 해당 행동이 어떤 모습인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유형 공략

- ① 밑줄 친 행동이 발화시 기준으로 시간상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생각한다.
- ② ‘-고 있다’가 진행상을 나타내는지 완료상을 나타내는지를 파악한다.
- ③ ‘-아 있다’가 완료상을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한다.

정답 풀이

③ ㉢은 ‘-고 있다’를 통해 ‘타다’라는 과거의 행동이 완료된 후, 그 결과 상태가 지속됨을 나타낸다. 이때의 ‘-고 있다’는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놀고 있다.’에서처럼 행동을 계속 진행하는 뜻의 ‘-고 있다’와 구별된다.

오답 풀이

- ① ㉠은 발화시인 현재 기준으로 말이 달리는 사건과 ‘진수’가 그 말을 바라본 사건이 모두 과거에 일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달리는’에서 현재 시제 관형사형 어미 ‘-는’을 사용한 이유는 말을 바라본 그 시점에서는 현재이기 때문이다.
- ② ㉡은 ‘밥을 먹으면서’라는 행동이 다른 행동인 ‘음악을 들었다’와 동시에 진행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 ④ ㉣은 ‘-아 있다’의 주체 존대형인 ‘-아 계시다’를 통해 ‘앉다’라는 과거의 행동이 완료된 후, 그 결과 상태가 지속됨을 나타낸다.
- ⑤ ㉤은 발화시인 현재 기준으로 ‘읽은’이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든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든 그 후에 다시 책을 읽는다면 성립되는 문장이다. 예를 들어 현재가 2023년 6월 1일이라고 가정할 때, 과거인 2022년 6월 1일에 책을 읽었던 미래인 2024년 6월 1일에 책을 읽든 그보다 더 미래인 2025년 6월 1일에 그 책을 또 읽는다면 ‘읽은’은 발화시 기준으로 과거의 사건이 될 수도 있고 미래의 사건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03

언어

유형 연습 4

▶ 23052-0049

직접 발화와 간접 발화를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 유형

01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선생님: 지난 시간에 직접 발화는 문장 종결 표현의 형식이 발화의 의도와 일치하는 표현이고, 간접 발화는 문장 종결 표현의 형식이 발화의 의도와 일치하지 않는 표현이라는 것을 배웠지요? 오늘은 다음과 같은 예들이 어떤 발화인지 알아보까요?

A: ㉠ 이토록 멋진 광경이 세상에 또 있을까요?

B: (박수를 치며) 정말 멋지네요.

A: 짐칸이 너무 높아서 그러는데 ㉡ 이 짐 좀 올려 주겠냐?

B: (짐을 들며) 예, 할머니. 제가 올려 드릴게요.

A: 상처는 아물었나요? ㉢ 어디 좀 봅시다.

B: (상처를 보여 주며) 많이 좋아졌습니다.

A: ㉣ 저 사거리에 지하철역이 있나요?

B: (계단을 가리키며) 예. 저기 계단으로 내려가면 있어요.

A: ㉤ 우리 같이 영화 보러 가자!

B: (자리에서 일어나며) 그래. 나도 오랜만에 영화 보고 싶었어.

- ① ㉠: 의문문의 형식으로 감탄의 의도를 전달하는 간접 발화이다.
 ② ㉡: 의문문의 형식으로 청유의 의도를 전달하는 간접 발화이다.
 ③ ㉢: 청유문의 형식으로 명령의 의도를 전달하는 간접 발화이다.
 ④ ㉣: 의문문의 형식으로 질문의 의도를 전달하는 직접 발화이다.
 ⑤ ㉤: 청유문의 형식으로 청유의 의도를 전달하는 직접 발화이다.

중세 국어의 특징을 파악하고 있는지를 묻는 유형

02 <학습 활동>의 [A]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학습 활동

[자료]에 나타나는 중세 국어의 특징을 알아보자.

[자료]

㉠孔子(공자) | 曾子(중자)드려 닐러 곁으샤되 몸이며 ㉡얼굴이며 머리털이며 ㉢술흔
 父母(부모)의 받즈온 ㉣거시라 敢(감)히 혈위 상히오디 ㉤아니흠이 효도이 비르소미오 몸
 을 세워 ㉥道(도)를 行(행)히야 일흠을 後世(후세)에 ㉦뵈 ㉧父母(부모)를 현더케 흠이 효
 도이 므츨이니라

- 『소학언해』

• 현대어 풀이

공자가 중자에게 일러 가로되, 몸이며 모습이며 머리털이며 살은 부모님께 받은 것이라
 감히 혈어서 상하게 하지 아니함이 효도의 시작이고 몸을 세워 도를 행하여 이름을 후세에
 베풀어 부모님을 드러나게 함이 효도의 마침이다.

[활동 결과]

[A]

- ① ㉠과 ㉡을 보니, 앞말의 마지막 음절이 모음으로 끝났는지, 자음으로 끝났는지에 따라 주격 조사 ‘이’ 또는 ‘이’가 선택되고 있다.
- ② ㉡과 ㉢을 보니, 체언과 조사가 결합할 때 끊어 적거나 이어 적기가 나타나고 있다.
- ③ ㉣과 ㉤을 보니, 앞말의 마지막 음절의 초성 자음에 따라 목적격 조사 ‘를’ 또는 ‘를’이 선택되고 있다.
- ④ ㉢을 보니, ‘술’은 ‘ㅎ’으로 끝나는 체언이고, 보조사 ‘은’이 쓰이고 있다.
- ⑤ ㉦을 보니, 어두에 서로 다른 두 자음 글자가 한꺼번에 표기되고 있다.

유형 연습 4 Zoom In

짧은골 발문 Tip

- <보기>를 바탕으로 간접 발화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의 ㉠~㉣을 직접 발화와 간접 발화로 바르게 묶은 것은?



직접 발화와 간접 발화를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 유형

01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선생님: 지난 시간에 직접 발화는 문장 종결 표현의 형식이 발화의 의도와 일치하는 표현이고, 간접 발화는 문장 종결 표현의 형식이 발화의 의도와 일치하지 않는 표현이라는 것을 배웠지요? 오늘은 다음과 같은 예들이 어떤 발화인지 알아보까요?

- A: ㉠ 이토록 멋진 광경이 세상에 또 있을까요?
- B: (박수를 치며) 정말 멋지네요.
- A: 짐칸이 너무 높아서 그러는데 ㉡ 이 짐 좀 올려 주겠나?
- B: (짐을 들며) 예, 할머니, 제가 올려 드릴게요.
- A: 상처는 아물었나요? ㉢ 어디 좀 봅시다.
- B: (상처를 보여 주며) 많이 좋아졌습니다.
- A: ㉣ 저 사거리에 지하철역이 있나요?
- B: (계단을 가리키며) 예, 저기 계단으로 내려가면 있어요.
- A: ㉤ 우리 같이 영화 보러 가자!
- B: (자리에서 일어나며) 그래, 나도 오랜만에 영화 보고 싶었어.

- ① ㉠: 의문문의 형식으로 감탄의 의도를 전달하는 간접 발화이다.
- ② ㉡: 의문문의 형식으로 청유의 의도를 전달하는 간접 발화이다.
- ③ ㉢: 청유문의 형식으로 명령의 의도를 전달하는 간접 발화이다.
- ④ ㉣: 의문문의 형식으로 질문의 의도를 전달하는 직접 발화이다.
- ⑤ ㉤: 청유문의 형식으로 청유의 의도를 전달하는 직접 발화이다.

유형 이해

직접 발화와 간접 발화를 구분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 유형이다. 문장 종결 형식과 발화의 의도가 일치하는 발화인 직접 발화와 일치하지 않는 간접 발화의 개념을 이해하고 문맥에서 발화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유형 공략

- 1 직접 발화와 간접 발화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한다.
- 2 문맥을 통해 발화가 직접 발화인지 간접 발화인지 정확히 구분한다.

정답 풀이

② 문장의 종결 형식은 의문형이나 문맥에서 해석되는 의미는 행위를 요구하는 명령에 해당하는 간접 발화이다. 따라서 청유의 의도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은 진술이다.

오답 풀이

- ① 문장의 종결 형식은 의문형이나 문맥에서 해석되는 의미는 놀라움을 표시하는 감탄에 해당하는 간접 발화이다. 따라서 적절한 진술이다.
- ③ 문장의 종결 형식은 청유형이나 문맥에서 해석되는 의미는 상처를 보여 달라는 명령에 해당하는 간접 발화이다. 따라서 적절한 진술이다.
- ④ 문장의 종결 형식은 의문형이고 문맥에서 해석되는 의미 역시 질문에 해당하는 직접 발화이다.
- ⑤ 문장의 종결 형식은 청유형이고 문맥에서 해석되는 의미 역시 화자가 청자에게 같이 행동할 것을 요청하는 직접 발화이다.

답은골 발문 Tip

-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보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중세 국어 표기의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 <보기 1>의 ㉠~㉣에 해당하는 예를 <보기 2>에서 찾아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

02

중세 국어의 특징을 파악하고 있는지를 묻는 유형

<학습 활동>의 [A]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학습 활동

[자료]에 나타나는 중세 국어의 특징을 알아보자.

[자료]

㉠孔子(공즈) | 曾子(중즈)드러 닐러 굴으샤되 몸이며 ㉡얼굴이며 머리털이며 ㉢술흔
 父母(부모)의 받조은 ㉣거시라 敢(감)히 험위 상히오디 ㉤아니흠이 효도의 비르소미오 몸
 을 세워 ㉥道(도)를 行(행)하야 일흠을 後世(후세)에 ㉦뻘 ㉧父母(부모)를 현더케 흠이 효
 도의 막춤이나라

- 「소학언해」

• 현대어 풀이

공자가 중자에게 일러 가로되, 몸이며 모습이며 머리털이며 삼은 부모님께 받은 것이라 감히 험어서 상하게 하지 아니함이 효도의 시작이고 몸을 세워 도를 행하여 이름을 후세에 베풀어 부모님을 드러나게 함이 효도의 마침이다.

[활동 결과]

[A]

- ① ㉠과 ㉡을 보니, 앞말의 마지막 음절이 모음으로 끝났는지, 자음으로 끝났는지에 따라 주격 조사 'ㅣ' 또는 '이'가 선택되고 있다.
- ② ㉢과 ㉣을 보니, 체언과 조사가 결합할 때 끊어 적거나 이어 적기가 나타나고 있다.
- ③ ㉤과 ㉥을 보니, 앞말의 마지막 음절의 초성 자음에 따라 목적격 조사 '를' 또는 '를'이 선택되고 있다.
- ④ ㉦을 보니, '술'은 'ㅎ'으로 끝나는 체언이고, 보조사 '은'이 쓰이고 있다.
- ⑤ ㉦을 보니, 어두에 서로 다른 두 자음 글자가 한꺼번에 표기되고 있다.

유형 이해

중세 국어의 특징을 이해하는 문제 유형이다. 중세 국어에서의 주격 조사, 목적격 조사, 서술격 조사 등의 쓰임, 어두의 자음군 표시, 보조사 등을 알아야 한다.

유형 공략

- ① 중세 국어에서 격 조사의 쓰임을 환경에 따라 올바르게 이해한다.
- ② 'ㅎ' 종성 체언의 쓰임을 올바르게 이해한다.
- ③ 현대 국어와 다른 표기 방식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한다.

정답 풀이

③ ㉤ '도를'과 ㉥ '부모를'은 동일한 환경에서 모음 조화가 지켜지지 않은 표기의 혼란을 보여 준다. 목적격 조사 '를'과 '를'의 교체는 결합하는 명사의 마지막 음절이 양성 모음인지 음성 모음인지에 따라 결정되므로 모음 조화가 지켜진다면 ㉤ '도를'은 '도를'로 표기되었어야 한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진술이다.

오답 풀이

- ① ㉠ '공즈'에서는 '공즈'가 모음으로 끝났으므로 주격 조사가 'ㅣ'가 쓰였고, ㉡ '아니흠이'에서는 '아니흠이' 자음으로 끝났으므로 주격 조사가 '이'가 쓰였다. 주격 조사 'ㅣ'와 '이'의 교체는 결합하는 명사가 모음으로 끝났는지 자음으로 끝났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적절한 진술이다.
- ② ㉢ '얼굴이며'에서는 끊어 적기를 하고 있고, ㉣ '거시라'에서는 이어 적기를 하고 있어 표기의 혼란을 보여 준다. 따라서 적절한 진술이다.
- ④ ㉦ '술흔'은 '술ㅎ'과 '은'의 결합으로, 이로부터 '술ㅎ이' 'ㅎ'을 종성으로 갖는 명사라는 점과 양성 모음 뒤에서 보조사 '은'이 쓰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한 진술이다.
- ⑤ ㉦ '뻘'로부터 현대 국어와 달리 어두에 서로 다른 두 자음을 표기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한 진술이다.

04

매체

유형 연습 ①

[01~03] 다음 종이 신문 기사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일보

한국 최초 달 탐사 궤도선 ‘다누리’ 발사 성공

오늘 오전 8시 8분경 미국에서 발사

우리나라의 최초 달 탐사 궤도선 ‘다누리’가 한국 시간 5일 오전 8시 8분 48초(현지 기준 4일 오후 7시 8분 48초) 우주로 발사됐다. ‘다누리’는 향후 우주 산업 기술 개발 및 정보 수집을 위해 제작된 발사체이다. 정부는 ‘다누리’가 실린 팰컨 9 발사체가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커내버럴 우주군 기지 40번 발사장에서 발사됐고, ‘다누리’는 오전 8시 48분경 고도 약 703km 지점에서 팰컨 9 발사체로부터 분리됐다고 밝혔다. ‘다누리’는 발사 약 92분 후인 오전 9시 40분경에 지상국과 첫 교신에 성공했다.



▲ [사진] ‘다누리’ 발사 장면

한국 항공 우주 연구원이 수신된 위성 정보를 분석한 결과, ‘다누리’의 태양 전지판이 전개되어 전력 생산을 시작했고, 탑재 컴퓨터를 포함한 장치들 간 통신이 원활히 이뤄지고 있으며, 각 장치의 온도도 표준 범위 내에 위치하여 ‘다누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다누리’는 연료 소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태양과 지구 중력이 균형을 이루는 지점을 향해 이동하다 추력기를 작동해 방향을 조정할 예정이다.

‘다누리’는 약 4.5개월의 항행 기간을 거쳐 올해 12월 중순 달에 도착한 후 12월 말까지 달 탐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궤도에 진입하게 된다. 이후 내년 1월부터 달 상공 100km의 원 궤도를 돌며 1년여간 달 착륙 후보지 탐색, 달 과학 연구, 우주 인터넷 기술 검증 등 본격적인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다누리’ 발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부 관계자는 “다누리는 우리나라가 처음 제작한 달 탐사 궤도선으로 다누리 개발은 누리호 개발과 더불어 우주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우리나라가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누리 개발을 통해 확보한 기술과 다누리의 임무 운영을 통해 얻은 과학 데이터는 향후 우리나라의 달 과학 연구에 크게 기여함은 물론 우주 개발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 기자

▶ 23052-0051

매체의 정보 구성 방식을 묻는 유형

01

위 신문 기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오늘 오전’에 발생한 사건을 제시하는 부분에서 시의성 있는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 ② ‘정부 관계자’의 언급을 직접 인용하여 제시하는 부분에서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 ③ ‘다누리’의 ‘달 탐사 임무’를 제시하는 부분에서 특정한 부류의 독자를 고려한 전문적인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 ④ “다누리’ 발사 장면’을 사진으로 제시하는 부분에서 글과 함께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현장감 있는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 ⑤ ‘우리나라의 최초 달 탐사 궤도선’이 발사되었다는 사건의 개요를 도입 문단에서 제시하는 부분에서 육하원칙에 따라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 23052-0052

매체의 특성을 묻는 유형

02

위 신문 기사에 나타난 매체 특성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 ㉠ 새로운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한다.
- ㉡ 동일한 정보를 많은 사람에게 보급할 수 있다.
- ㉢ 정보의 생산과 제공을 위해 자본과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다.
- ㉣ 생산자는 생산한 정보에 대해 수용자와 쌍방향적으로 소통할 수 있다.
- ㉤ 하이퍼텍스트로 구성되어 수용자는 연관된 정보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다.

- ① ㉠, ㉣
- ② ㉡, ㉢
- ③ ㉡, ㉢, ㉤
- ④ ㉠, ㉡, ㉢, ㉤
- ⑤ ㉠, ㉢, ㉣, ㉤

▶ 23052-0053

매체 자료의 수용 태도를 묻는 유형

03 다음은 위 신문 기사를 읽은 독자의 반응이다. 독자의 수용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독자 1: 신문에 실린 기사를 보니 달 탐사 궤도선 발사가 성공했다는 것이 실감 나네. 우리나라 최초로 달 탐사 궤도선 발사가 성공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노력했을까? 기사를 접하기만 한 것인데도 뿌듯한 마음이 드네.

독자 2: 달 과학 연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달의 표면 광물을 분석하거나 달에서 관측되는 자기장을 확인하는 것 같은데, 독자가 궁금해할 만한 부분을 언급하지 않았네.

독자 3: 우리나라의 달 탐사 궤도선인데 미국에서 발사했네. 그러면 온전하게 우리 기술로 쏘아 올린 달 탐사 궤도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일까? 달 탐사 궤도선 제작과 발사 모두를 우리 힘으로 해 내려면 어떤 연구가 필요한지 궁금한데, 그 부분은 다른 자료를 찾아봐야겠다.

- ① ‘독자 1’은 ‘다누리’ 발사에 대한 정보를 출처가 다른 정보와 견주어 점검하였다.
- ② ‘독자 2’는 ‘다누리’의 임무에 대한 정보가 독자의 이해를 돕기에 충분한지 점검하였다.
- ③ ‘독자 3’은 ‘다누리’ 발사의 가치에 대한 상반된 견해를 공평하게 다루는지 점검하였다.
- ④ ‘독자 1’과 ‘독자 3’은 ‘다누리’ 발사에 대한 정보가 사실에 근거한 것인지 점검하였다.
- ⑤ ‘독자 2’와 ‘독자 3’은 ‘다누리’ 제작에 대한 정보가 어떤 사람에게 유용한지 점검하였다.

유형 연습 1 Zoom In

짧은골 발문 Tip

- ㉠~㉢을 통해 알 수 있는 방송 뉴스의 구성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위 뉴스 기사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매체의 정보 구성 방식을 묻는 유형

01 위 신문 기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오늘 오전’에 발생한 사건을 제시하는 부분에서 시의성 있는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 ② ‘정부 관계자’의 언급을 직접 인용하여 제시하는 부분에서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 ③ ‘다누리’의 ‘달 탐사 임무’를 제시하는 부분에서 특정한 부류의 독자를 고려한 전문적인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 ④ ‘다누리’ 발사 장면’을 사진으로 제시하는 부분에서 글과 함께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현장감 있는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 ⑤ ‘우리나라의 최초 달 탐사 궤도선’이 발사되었다는 사건의 개요를 도입 문단에서 제시하는 부분에서 육하원칙에 따라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유형 이해

매체의 정보 구성 방식을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 유형이다. 신문, 텔레비전, 라디오 등 전통적인 매체 뿐만 아니라 인터넷에 기반을 둔 디지털 매체 등 다양한 매체가 제시된다. 동일한 정보라도 매체의 특성에 따라 정보 구성 방식은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매체에 제시된 정보가 어떠한 방식으로 구성되어 수용자에게 전달되고 있는지를 꼼꼼하게 따져 보아야 한다.

유형 공략

- ① 매체의 특성에 따라 정보를 어떻게 구성하여 제시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 ② 각 선지에서 정보 구성 방식에 대한 내용을 확인한다.
- ③ 지문에 제시된 매체 자료의 정보 구성 방식이 선지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대조한다.

정답 풀이

- ③ 종이 신문은 불특정한 다수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이므로, ‘다누리’의 ‘달 탐사 임무’를 제시하는 부분에서 특정한 독자를 고려한 전문적인 정보를 전달하고 있지 않다.

오답 풀이

- ① ‘오늘 오전’ 발생한 사건을 제시하여 사건 발생이 얼마 되지 않았음을 보임으로써 시의성 있는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 ② ‘다누리’ 발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부 관계자’의 말을 직접 인용하여 정보를 나타냄으로써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 ④ ‘다누리’ 발사 장면’ 사진은 해당 기사에서 다루는 사건의 중요 장면을 포착하여 제시함으로써, 지면으로 전달되는 종이 신문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현장감 있게 전달하고 있다.
- ⑤ 도입 문단에서 ‘우리나라의 최초 달 탐사 궤도선 ‘다누리’가 ~ 분리됐다고 밝혔다.’는 사건의 개요를 육하원칙에 따라 제시하고 있다.

답은골 발문 Tip

- 매체 특성과 관련지어 (나)의 ㉠~㉣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가)에 나타난 매체의 언어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매체의 특성을 묻는 유형

02 위 신문 기사에 나타난 매체 특성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 ㉠ 새로운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한다.
- ㉡ 동일한 정보를 많은 사람에게 보급할 수 있다.
- ㉢ 정보의 생산과 제공을 위해 자본과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다.
- ㉣ 생산자는 생산한 정보에 대해 수용자와 쌍방향적으로 소통할 수 있다.
- ㉤ 하이퍼텍스트로 구성되어 수용자는 연관된 정보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다.

- ① ㉠, ㉣
- ② ㉡, ㉢
- ③ ㉡, ㉢, ㉤
- ④ ㉠, ㉡, ㉢, ㉤
- ⑤ ㉠, ㉢, ㉣, ㉤

유형 이해

매체의 특성에 대한 설명이 적절한지 판단하는 문제 유형이다. 이러한 유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시된 매체의 언어적 특성을 비롯한 다양한 양식적 특성을 파악해야 한다.

유형 공략

- ① 지문의 매체 유형과 이에 따른 매체의 특성을 파악한다.
- ② 지문의 매체 유형과 선지에 제시된 매체의 특성에 대한 설명이 부합하는지 확인한다.

정답 풀이

② 종이 신문은 동일한 정보를 많은 사람에게 보급할 수 있으며(㉡), 신문사가 발행하는 매체로 정보의 생산과 제공을 위해 일정 수준의 자본과 기술이 요구된다(㉢).

오답 풀이

①, ③, ④, ⑤ 종이 신문은 발행 시간이 일정하여 새로운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그리고 종이 신문은 생산된 정보를 수용자에게 일방향적으로 전달하므로, 생산자가 수용자와 정보에 대해 쌍방향적으로 소통하는 데에 적합하지 않은 매체이다(㉣). 또한 종이 신문은 선형적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하이퍼텍스트를 통해 수용자가 연관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은 어렵다(㉤).

답은골 발문 Tip

- 위 방송 뉴스를 접하는 시청자가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가)의 의사소통 참여자에 대한 평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매체 자료의 수용 태도를 묻는 유형

03

다음은 위 신문 기사를 읽은 독자의 반응이다. 독자의 수용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독자 1: 신문에 실린 기사를 보니 달 탐사 궤도선 발사가 성공했다는 것이 실감 나네. 우리나라 최초로 달 탐사 궤도선 발사가 성공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노력했을까? 기사를 접하기만 한 것인데도 뿌듯한 마음이 드네.

독자 2: 달 과학 연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달의 표면 광물을 분석하거나 달에서 관측되는 자기장을 확인하는 것 같은데, 독자가 궁금해할 만한 부분을 언급하지 않았네.

독자 3: 우리나라의 달 탐사 궤도선인데 미국에서 발사했네. 그러면 온전하게 우리 기술로 쏘아 올린 달 탐사 궤도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일까? 달 탐사 궤도선 제작과 발사 모두를 우리 힘으로 해 내려면 어떤 연구가 필요한지 궁금한데, 그 부분은 다른 자료를 찾아봐야겠다.

- ① '독자 1'은 '다누리' 발사에 대한 정보를 출처가 다른 정보와 견주어 점검하였다.
- ② '독자 2'는 '다누리'의 임무에 대한 정보가 독자의 이해를 돕기에 충분한지 점검하였다.
- ③ '독자 3'은 '다누리' 발사의 가치에 대한 상반된 견해를 공평하게 다루는지 점검하였다.
- ④ '독자 1'과 '독자 3'은 '다누리' 발사에 대한 정보가 사실에 근거한 것인지 점검하였다.
- ⑤ '독자 2'와 '독자 3'은 '다누리' 제작에 대한 정보가 어떤 사람에게 유용한지 점검하였다.

유형 이해

매체 자료의 수용 태도를 점검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 유형이다. 매체 자료에는 관점과 가치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매체 자료를 접할 때에 주목해야 할 요소를 확인하고 그에 따라 매체 자료를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형 공략

- ① 지문에 나타난 매체 자료의 내용을 확인한다.
- ② 각 선지에 제시된 매체 자료 수용 태도에 대한 내용을 확인한다.
- ③ 제시된 자료의 내용이 선지의 내용과 부합하는지 확인한다.

정답 풀이

- ② '독자 2'는 '다누리'의 달 과학 연구 임무와 관련하여 '독자가 궁금해할 만한 부분'이 언급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있으며, 이는 '다누리'의 임무에 대한 정보가 독자의 이해를 돕기에 충분한지 점검한 것이다.

오답 풀이

- ① '독자 1'은 '다누리' 발사가 성공했다는 것이 실감 난다고 언급하면서 이에 대한 자신의 뿌듯한 마음을 나타내고 있으나, 이것이 신문 기사에 제시된 정보를 출처가 다른 정보와 견주어 점검한 것은 아니다.
- ③ '독자 3'은 '다누리' 발사가 온전히 우리나라의 기술로만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나타내고 있으나, 이것이 신문 기사에서 '다누리' 발사의 가치에 대한 상반된 견해를 공평하게 다루고 있는 것인지 점검한 것은 아니다.
- ④ '독자 1'과 '독자 3'은 '다누리' 발사에 대한 정보가 사실에 근거한 것인지 점검하지 않았다.
- ⑤ '독자 3'은 달 탐사 궤도선 제작에 대한 정보를 궁금해하고 있으나, '독자 2'와 '독자 3'이 '다누리' 제작에 대한 정보가 누구에게 유용한지 점검하지는 않았다.

04

매체

유형 연습 2

[01~03] 다음은 실시간 인터넷 방송이다. 물음에 답하십시오.

여러분, 안녕? 너무 오래간만에 찾아왔네요. 오늘은 시원한 음료수를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과일청을 만드는 법을 알려 드리려 해요. 그리고 제가 담근 과일청을 시청자분들께 선물로 드리려 해요. 선물은 실시간 채팅에 참여하시는 분들 중 추천되신 분께 드립니다. 과일청 만드는 방법도 알게 되고 과일청도 받고, 그야말로 일석이조겠지요?

👤 좋아좋아: 언니, 이렇게 실시간 방송으로 돌아온 것도 반가운데 선물까지. 진짜 좋아요.

좋아좋아 님, 저도 반가워요. 사실 오래간만에 개인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이 저를 잊으셨으면 어쩌나 걱정이 되기도 했거든요. 이렇게 반겨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걱정을 떨쳐 버리고 더 정성스럽게 과일청을 만들어야겠어요.

과일청은 과일 과육을 설탕에 재워 숙성시킨 것입니다. 그러니 과일과 설탕만 있으면 준비 끝. 간단하죠? 저는 오늘 레몬청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 레몬아 미안해: 저는 레몬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과일청을 만들 수 있는 다른 과일도 알려 주세요.

레몬아 미안해 님, 레몬, 딸기, 키위, 매실 등 다양한 과일로 만들 수 있으니 각자 취향껏 재료를 준비하면 된답니다. 과일마다 맛도 영양도 다르니 좋아하는 과일, 필요한 영양분을 갖추고 있는 과일을 선택하세요. 저는 여름 햇살에 지친 몸을 달래기 위해 레몬을 선택하겠습니다. 레몬청은 만드는 방법이 간단하기도 하고 비타민 함량이 풍부해서 피로 회복에도 효과가 있답니다.

자, 오늘 만들 과일청의 재료입니다. 레몬, 설탕 그리고 소독해 놓은 유리병입니다.

👤 과일청 도전: 유리병 소독은 어떻게 하나요?

아, 유리병 소독 과정을 말씀드릴까요? 과일청 도전 님,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인데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해요. 그러면 과일청 만들기를 소개하기 전에 이 부분을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유리병 소독은 간단합니다. 유리병을 소독하는 과정을 보여 드릴게요. 우선 주방 세제와 부드러운 수세미를 이용해 유리병을 씻고 깨끗하게 헹굽니다. 행군 유리병이 깨끗해 보여도 그대로 쓰면 세균이 번식할 수도 있으니 열탕 소독을 해야 해요. 이제 큰 냄비에 유리병을 똑바로 세운 뒤 유리병 전체가 물에 잠기도록 차가운 물을 한가득 채워 줍니다. 유리병과 물의 온도가 함께 올라가도록 해야 유리병이 깨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답니다. 10분에서 15분 정도 팔팔 끓이면 끝. 다 끓이고 나면 유리병을 꺼내 유리병의 물기를 말리면 됩니다. 여기 보시는 이 유리병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소독이 되었어요.

이제 레몬 손질을 해 보겠습니다. 깨끗한 레몬청을 만들기 위해서는 세척을 잘해야겠지요? 먼저 베이킹 소다를 레몬에 뿌린 후 골고루 문질러 줍니다. 다음으로 레몬을 10분간 물에 담그고, 물에 식초를 넣어 10분 더 담가 줍니다. 그다음에 레몬을 물에서 꺼내 굵은소금으로 레몬을 문지르고 끓는 물에 살짝 담갔다 빼서 소독을 하면 됩니다.

👤 나도 해 볼까?: 정말 힘드네요. 몇 번씩이나 씻어야 하다니. 진행자님도 힘드시겠어요.

맞아요. 조금 힘들기는 해요. 하지만 이렇게 알려주시는 여러분이 계시니 힘이 납니다. 레몬은 껍질째 사용하기 때문에 공들여 씻어야 합니다. 껍질을 사용하지 않는 과일은 손이 좀 덜 가겠지요. 그다

음에 레몬을 썰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썰어 주세요. 하나씩 얇게 레몬을 썰고 레몬 씨를 제거하면 됩니다. 레몬 씨는 꼭 빼 주세요. 이 부분은 화면을 확대하여 다시 한번 보여 드릴게요. 레몬 씨가 쓴맛을 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레몬 씨를 제거하는 것이 맛있는 레몬청을 만들기 위해 가장 중요하답니다.

자, 이렇게 레몬을 다 썰었습니다.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레몬과 설탕의 양을 일대일로 맞춰 주세요. 레몬이 500그램이면 설탕도 500그램이면 되겠죠? 그리고 레몬과 설탕을 섞어 주세요. 좀 더 상큼하게 먹고 싶으면 레몬의 비율을 더 높이면 되지만, 저는 일대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섞은 레몬청을 이제 유리병에 담겠습니다. 레몬을 세워서 담으면 더 예쁘게 담을 수 있어요. 레몬청을 다 담은 뒤에는 레몬의 윗부분이 덮일 정도로 설탕을 이렇게 부어서 설탕 막을 만들어 줍니다. 자, 드디어 다 만들었습니다. 어때요? 이렇게 만든 레몬청은 실온에서 이틀 정도 숙성한 후 냉장고에 보관하면 됩니다.

궁금해: 너무 달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만, 맛있겠네요. 과일청은 어떻게 먹는 게 좋은가요?

궁금해 님,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시원하게 드시고 싶다면 차가운 탄산수나 얼음물에 과일청을 타서 드시면 됩니다. 감기 기운이 있으실 때에는 따뜻한 물에 타서 드세요. 요구르트나 샐러드를 드실 때에 얹어 먹으면 새콤달콤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시원하게 먹는 걸 더 좋아하답니다. 기호에 따라 적당량을 덜어 맛있게 드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과일청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여러분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만드니 시간이 금세 지나가 버렸네요. 제가 만드는 걸 보셨다시피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도 방송을 보신 후에 직접 만들어서 드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실시간 채팅에 참여하신 분들은 영상의 공지에서 당첨자 명단을 확인해 주세요. 방금 만든 과일청을 집으로 보내 드립니다. 아, 참. 저는 식품 위생법에 따라 영업 신고 및 등록을 하였으니, 안심하고 드셔도 좋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에 만날 때까지 안녕!

▶ 23052-0054

01

매체 언어의 표현 방법을 묻는 유형

위 방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획한 내용이 반영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청자가 영상을 지루해하지 않도록 레몬을 손질하고 썰는 과정은 생략해야겠군.
- ② 방송 도중에 접속한 사람은 지나간 내용은 확인할 수 없으니 중간중간 영상의 내용을 요약해 주어야겠군.
- ③ 시청자가 영상 시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채팅에 참여한 시청자 중 일부에게 물질적 보상이 있을 것임을 안내해야겠군.
- ④ 구독자 확보와 광고를 통해 수익 창출이 가능한 인터넷 개인 방송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청자가 고정적으로 접속할 수 있도록 구독을 부탁해야겠군.
- ⑤ 텔레비전 방송에 비해 비공식적인 매체인 인터넷 개인 방송의 특성을 부각하도록 특정 시청자와 함께 겪었던 경험을 이야기하며 친밀감을 형성해야겠군.

▶ 23052-0055

02

뉴 미디어의 특성을 묻는 유형

위 방송에 나타난 정보 구성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생산자가 방송의 순서를 정하는 데에 수용자의 질문이 영향을 미친다.
- ② 생산자가 수용자의 발언에 반응을 보이며 수용자와 정서적인 유대를 형성한다.
- ③ 생산자가 수용자와 언어적으로 상호 작용을 하며 방송을 쌍방향적으로 진행한다.
- ④ 생산자가 방송의 내용을 재구성하는 데 필요한 추가 자료를 특정 수용자와 공유한다.
- ⑤ 생산자가 수용자의 반응을 고려하여 원래 제공하고자 했던 정보 이외의 정보를 제공한다.

▶ 23052-0056

03

매체 자료의 비판적, 주체적 수용을 묻는 유형

위 방송 전체를 시청한 시청자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진행자는 레몬청의 효능을 언급하여 여러 과일 중 레몬을 과일청의 재료로 선택한 이유를 드러내고 있군.
- ② 진행자는 과일청을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시청자의 질문에 답을 하면서 자신의 기호를 덧붙이고 있군.
- ③ 진행자는 시청자가 영상을 본 후 과일청을 만들어 볼 수 있도록 과일청을 만드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군.
- ④ 진행자는 과일청을 직접 만들어 먹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최근의 사회적 관심을 반영하여 방송 내용을 선정하였군.
- ⑤ 진행자는 자신이 레몬의 씨를 제거하는 모습을 확대하여 보여 줌으로써 맛있는 레몬청을 만들 때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강조하여 나타내고 있군.

유형 연습 ② Zoom In

짧은골 발문 Tip

- 위 카드 뉴스를 제작하면서 제작자가 떠올린 생각 중 카드 뉴스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가)의 ㉠~㉣을 바탕으로 학생이 세운 매체 자료 제작 계획 중 (나)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매체 언어의 표현 방법을 묻는 유형

01 위 방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획한 내용이 반영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청자가 영상을 지루해하지 않도록 레몬을 손질하고 썰는 과정은 생략해야겠군.
- ② 방송 도중에 접속한 사람은 지나간 내용은 확인할 수 없으니 중간중간 영상의 내용을 요약해 주어야겠군.
- ③ 시청자가 영상 시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채팅에 참여한 시청자 중 일부에게 물질적 보상이 있을 것임을 안내해야겠군.
- ④ 구독자 확보와 광고를 통해 수익 창출이 가능한 인터넷 개인 방송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청자가 고정적으로 접속할 수 있도록 구독을 부탁해야겠군.
- ⑤ 텔레비전 방송에 비해 비공식적인 매체인 인터넷 개인 방송의 특성을 부각하도록 특정 시청자와 함께 겪었던 경험을 이야기하며 친밀감을 형성해야겠군.

유형 이해

생산된 매체 자료를 바탕으로 매체 자료를 생산할 때에 계획한 내용들이 매체 자료에 적절히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문제 유형이다. 매체 생산 계획은 학생의 생각, 메모, 학생들의 대화, 선지 등 다양한 형태로 제시된다. 매체 생산 계획을 파악한 후 해당 정보가 매체 자료에 구현되었는지 판단해야 한다.

유형 공략

- ① 제시된 선지에서 매체 생산 계획과 관련된 정보를 파악한다.
- ② 파악한 정보에 초점을 맞추어 생산된 매체 자료를 꼼꼼히 읽는다.
- ③ 파악한 계획이 매체 자료에 구현되어 있는지를 판단한다.

정답 풀이

- ③ 방송 앞부분의 ‘제가 담근 과일청을 시청자분들께 선물로 드리려 해요. 선물은 실시간 채팅에 참여하시는 분들 중 추천되신 분께 드립니다.’라는 진행자의 발언을 통해, 채팅에 참여한 시청자 중 일부에게 물질적 보상이 있을 것임을 안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레몬을 손질하고 썰는 과정은 생략되지 않고 영상에 제시되어 있다.
- ② 방송 도중에 지나간 영상 내용을 요약한 부분은 제시되지 않았다.
- ④ 시청자에게 구독을 부탁하는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 ⑤ 인터넷 개인 방송의 특성을 부각하여 시청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으나, 특정 시청자와 함께 겪었던 경험을 이야기하지는 않았다.

답은꼴 발문 Tip

- 의사소통의 매개체로서 누리소통망(SNS)이 지닌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뉴 미디어의 특성을 묻는 유형

02 위 방송에 나타난 정보 구성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생산자가 방송의 순서를 정하는 데에 수용자의 질문이 영향을 미친다.
- ② 생산자가 수용자의 발언에 반응을 보이며 수용자와 정서적인 유대를 형성한다.
- ③ 생산자가 수용자와 언어적으로 상호 작용을 하며 방송을 쌍방향적으로 진행한다.
- ④ 생산자가 방송의 내용을 재구성하는 데 필요한 추가 자료를 특정 수용자와 공유한다.
- ⑤ 생산자가 수용자의 반응을 고려하여 원래 제공하고자 했던 정보 이외의 정보를 제공한다.

유형 이해

정보 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등장한 새로운 전달 매체인 뉴 미디어의 특성을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 유형이다. 뉴 미디어는 인터넷에 기반을 둔 디지털 매체로, 매체 자료의 생산과 수용이 쌍방향적으로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시된 지문이 뉴 미디어의 어떠한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형 공략

- ① 지문에 나타난 뉴 미디어의 특성을 확인한다.
- ② 각 선지에 제시된 내용이 지문에 나타난 뉴 미디어의 특성에 부합하는지 확인한다.

정답 풀이

- ④ 생산자는 방송 내용을 재구성하는 데 필요한 추가 자료를 특정 수용자와 공유하지 않았다.

오답 풀이

- ① ‘아, 유리병 소독 과정을 말씀드릴까요? 과일청 도전 님,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인데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해요. 그러면 과일청 만들기를 소개하기 전에 이 부분을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라는 언급을 통해 생산자가 수용자의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 제공하고자 하는 정보의 순서를 수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② 생산자는 ‘좋아 좋아 님, 저도 반가워요. 사실 오래간만에 개인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이 저를 잊으셨으면 어쩌나 걱정이 되기도 했거든요. 이렇게 반겨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라는 언급을 통해 수용자의 발언에 반응을 보이며 수용자와 정서적인 유대를 형성하고 있다.
- ③ 생산자가 인사를 건네고 ‘좋아 좋아’가 답을 하거나 ‘레몬청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라는 생산자의 말에 대해 ‘레몬아 미안해’가 반응을 하고 이에 대해 생산자가 답을 하는 등 생산자가 수용자와 언어적으로 상호 작용을 하며 방송을 쌍방향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 ⑤ 수용자는 ‘과일청을 만들 수 있는 다른 과일도 알려 주세요.’와 같이 더 알고 싶은 내용에 대해 요청을 하거나 ‘유리병 소독은 어떻게 하나요?’와 같은 질문을 하고, 생산자는 이에 대해 답을 함으로써 수용자의 반응을 고려하여 원래 제공하고자 했던 정보 이외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답은골 발문 Tip

- 위 방송을 시청한 학생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는 위 뉴스 기사를 읽은 사람들이 작성한 댓글 중 일부이다. 독자들의 반응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매체 자료의 비판적, 주체적 수용을 묻는 유형

03

위 방송 전체를 시청한 시청자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진행자는 레몬청의 효능을 언급하여 여러 과일 중 레몬을 과일청의 재료로 선택한 이유를 드러내고 있군.
- ② 진행자는 과일청을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시청자의 질문에 답을 하면서 자신의 기호를 덧붙이고 있군.
- ③ 진행자는 시청자가 영상을 본 후 과일청을 만들어 볼 수 있도록 과일청을 만드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군.
- ④ 진행자는 과일청을 직접 만들어 먹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최근의 사회적 관심을 반영하여 방송 내용을 선정하였군.
- ⑤ 진행자는 자신이 레몬의 씨를 제거하는 모습을 확대하여 보여 줌으로써 맛있는 레몬청을 만들 때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강조하여 나타내고 있군.

유형 이해

매체 자료를 비판적이고 주체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 유형이다. 동일한 매체 자료라 하더라도 이를 바라보는 관점과 가치에 따라 평가와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매체 자료에 내포된 시각과 관점을 확인하고 매체 자료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형 공략

- ① 지문에 나타난 매체 자료의 내용을 확인한 후, 내용을 어떠한 관점으로 다루고 있는지 파악한다.
- ② 각 선지에 제시된 매체 자료 수용 방식에 대한 내용을 확인한다.
- ③ 지문의 내용이 선지의 내용과 부합하는지 확인한다.

정답 풀이

- ④ 진행자는 과일청을 직접 만들어 먹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회적 관심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오답 풀이

- ① 진행자는 레몬청이 만드는 방법도 간단하고 비타민 함량이 풍부해서 피로 회복에도 효과가 있다고 언급하며 레몬을 과일청의 재료로 선택한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 ② 진행자는 시청자 '궁금해'의 질문에 답을 하면서 자신은 시원하게 먹는 것을 더 좋아한다는 기호를 덧붙이고 있다.
- ③ 진행자는 과일청을 만드는 방법을 보여 주면서 그 방법에 대한 설명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⑤ 진행자는 레몬의 씨를 제거하는 모습을 확대해서 다시 보여 주며 레몬 씨를 빼는 것이 맛있는 레몬청을 만들 때에 가장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04

매체

유형 연습 ③

[01~04] 다음은 인터넷 블로그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작성 시간: 2000년 9월 9일, 오후 6시 30분


예로부터 지금까지 인간은 공간을 장식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 자신이 속해 있는 공간에 다양한 물품을 배치하여 꾸미고, 이를 타인에게 자랑하는 경우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이는 인간이 갖고 있는 자기 과시 혹은 자기만족에 대한 표현 방식으로, 인간의 본능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 그래서 우리의 일상에는 실용적으로 사용하는 가구, 공간 내에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각종 식물, 다양한 이미지를 제공하는 장식품 등이 늘 함께한다. 공간을 장식하는 물품 중에 인류의 오랜 역사와 함께한 것이 있다. 바로 조소, 흔히 말하는 조각이다.

조각이란 무엇일까? 입체적인 형상으로 만드는 아름다움

㉡ 조각의 사전적인 의미는 ‘재료를 가지고 새기거나 깎아서 입체적인 형상을 만드는 것’이다. 돌이나 나무 등의 재료에 도구를 활용하여 재료를 깎아 특정한 모양으로 만들어 내는 것을 ‘조각’, 반대로 재료를 덧붙여서 만드는 것은 ‘소조’라고 부른다. 이러한 조각과 소조를 합하여 ‘조소’라고 부르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넓은 의미의 조각은 정확히는 이 조소를 뜻하는 것이다.

㉢ 인류 역사에서 조각은 아주 오랜 옛날부터 등장한다. 선사 시대에 만들어진 ‘빌렌도르프의 비너스’를 비롯하여,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다양한 조각들, 우리나라 삼국 시대에 만들어진 수많은 반가 사유상과 석탑들, 종교적인 의미로 많이 제작된 중세의 각종 성상들, 위대한 예술가이자 과학자인 미켈란젤로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만들어 낸 수많은 조각들, 그리고 컴퓨터와 3D 프린터를 활용한 현대의 조각까지, 조각은 인류의 역사와 궤를 같이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긴 역사를 갖고 있다.

조각은 배치하는 장소에 따라 크게 실내 조각과 실외 조각으로 나눌 수 있다. 실내 조각은 제한되고 한정된 공간 내에 배치하기 위해 제작된 조각으로, 성당이나 교회, 절 등 특정한 장소에 걸맞게 만들어진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공간의 한계 때문에 규모적인 면에서 보는 사람을 압도하는 듯한 형식으로는 제작되기 어려우며, 세부적인 부분을 강조하여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다. 고대 그리스나 로마의 조각상을 예로 들어 보면, 신체의 세부적인 표현이나 옷깃, 장식 등의 표현이 섬세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양식은 동양의 조각상도 다를 것이 없다. 국보로 지정된 금동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을 보면 미륵보살이 입고 있는 옷이나 장신구, 손의 섬세한 표현들을 쉽게



▲ 금동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

[A] 찾아볼 수 있다. 우리가 취미 삼아 만들곤 하는 피규어 역시 세밀하고 섬세한 표현이 주가 되는 실내 조각이라고 볼 수 있다.



▲ 미국 러시모어산의 두상

반면 실외 조각의 경우 대부분 규모에서 보는 사람을 압도하는 경우가 많다. 실외 조각은 실내 조각보다 공간적인 제약을 받지 않아 더욱 거대한 작품으로 보는 사람을 압도하며, 먼 곳에서 조각을 볼 수 있는 경우도 많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우는 조각이 단상 위에 올라가 있고, 산을 깎아 그 자체로 조각을 만들기도 한다. 이는 커다란 크기에서 오는 위압감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실외 조각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그런지, 특정한 부분을 과장하거나 축소하는 등 형상을 단순화하여 만드는 경우가 많다. 인물상의 경우 이목구비를 크게 그리거나 옷의 표현을 단순화하는 등의 변형이 그것이다. 동양의 산 중턱을 깎아 만든 대불, 미국의 위인을 조각한 러시모어산의 두상 등 다양한 곳에서 이러한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조각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 삶의 다양한 의미를 담아 만드는 형상

조각은 공간을 장식하는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다양한 의미를 갖는다. ㉞ 종교적인 의미, 존경과 기념의 의미, 공간의 정체성을 부여하는 의미 등 조각에 따라 그것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천차만별이다. 어떤 이들은 뱃머리에 조각된 선수상을 보고 항해의 안전을 바랄 것이며, 어떤 사람은 자신이 믿는 종교의 성상을 보며 신앙심을 고취할 것이다. 인류 역사에서 조각은 단순한 돌조각, 쇠조각에 지나는 것이 아니다. ㉟ 수많은 조각가가 재료에 의미를 부여하며 형상을 제작하고, 많은 사람이 조각을 보며 그 의미에 대해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 조각이 우리의 삶에 존재하는 이유일 것이다.

전체 댓글 ㉞

조각 좋아: 글 잘 읽었어요. 조각을 보는 사람들이 조각의 의미를 이해해야 한다고 했는데,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명시적으로 제시한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작권은 중요해: 공공 기관 누리집에 이 블로그에 있는 사진과 똑같은 금동 미륵보살 반가사유상 사진이 있는 걸 봤어요. 이런 자료를 사용할 때도 저작권을 지켜야 하지 않을까요?

신기한 조각 나라: 이 글을 읽으니 우리나라 조각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우리나라 고유의 특성을 담은 조각 작품을 더 알고 싶은 저 같은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문헌을 추가하면 어떨까요?

공부하자: 실외 조각을 감상할 때에는 어디에서 보는지도 중요하니 보는 사람의 위치나 거리에 따라 같은 조각도 달리 보인다는 내용을 제시하기 위해 위치나 거리, 각도를 달리하여 다양한 시선으로 촬영한 동영상을 보여 주면 좋을 것 같아요.

▶ 23052-0057

01

매체 자료의 정보 전달 방식을 묻는 유형

위 블로그 게시물을 작성한 필자가 사용한 표현 전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독자가 원하는 자료에 선택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자료를 비선형적인 형태로 제시하였다.
- ② 작성 시간과 수정 시간을 함께 제시하여 독자가 글이 수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 ③ 문자 언어와 사진을 함께 활용하여 독자가 서로 다른 양식의 정보를 결합하여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 ④ 독자가 블로그 본문 이외의 자료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사진의 출처가 담긴 웹사이트 주소를 제시하는 형태로 공유하였다.
- ⑤ 불특정 다수인 독자의 이해 수준을 고려하여 조각과 관련된 용어를 설명할 때에 학술 자료에 제시된 전문가의 견해를 직접 인용하였다.

▶ 23052-0058

02

매체 자료에 나타난 언어의 적절성을 묻는 유형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접속 부사 '그래서'를 통해 공간 장식에 대한 인간의 관심이 가구, 각종 식물, 장식품이 인간의 일상에 함께하는 원인을 드러내고 있다.
- ② ㉡: 어미 '-거나'를 통해 조각을 만들 때에는 재료를 가지고 새기거나 깎는 방식 중 어느 것이든 선택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 ③ ㉢: 보조사 '은'을 통해 '조각'이 문장의 화제임과 동시에 주어로 사용됨을 보여 주고 있다.
- ④ ㉣: 의존 명사 '등'을 통해 조각에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 ⑤ ㉤: 보조 용언 '보다'를 통해 조각의 상태를 추측하거나 어렵듯이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 23052-0059

03

매체 언어의 표현 방법을 묻는 유형

<조건>을 반영하여 [A]의 빈칸에 들어갈 소제목을 작성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조건

- [A]의 내용을 포함할 것.
- 표현 방식의 측면에서 다른 소제목과의 통일성을 고려할 것.

- ① 실내 조각과 실외 조각, 어떻게 다를까? 섬세함과 위압감
- ② 실내 조각과 실외 조각, 정밀함과 장엄함의 차이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 ③ 실내 조각과 실외 조각, 기원은 무엇인가? 표현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
- ④ 실내 조각은 실외 조각보다 어떤 점이 뛰어난가? 사물과 공간에 대한 이해
- ⑤ 정밀한 실내 조각과 웅장한 실외 조각, 그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인가?

매체 자료의 내용과 표현의 수정 방안을 묻는 유형**04** 댓글을 반영하여 블로그의 게시물을 수정·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조각에 어울리는 음악을 들으며 조각을 보게 되면 작품을 더 깊이 있게 감상할 수 있으니 블로그에 배경 음악을 삽입하는 것이 좋겠어.
- ② 동양 조각의 보편적인 특성을 보이는 작품 제목을 소개한 후, 작품의 제목을 클릭하면 상세 내용이 다른 창으로 제시되도록 구성하는 것이 좋겠어.
- ③ 게시물에 삽입한 사진이 저작권자가 사용을 승인한 것인지 확인하고, 이용 조건에 따라 출처 등의 정보를 사진 자료와 함께 제시하는 것이 좋겠어.
- ④ 드론과 같은 무인기로 산 중턱에 자리 잡고 있는 대불이나 러시모어산의 두상을 정면에서 고정하여 촬영한 결과를 담은 동영상을 추가하는 것이 좋겠어.
- ⑤ 조각으로 유명한 미술관의 전시 물품 및 관람 시기 등의 정보를 다룬 부분을 추가하고 글꼴이나 글씨 색상을 다르게 처리하여 정보를 강조하는 것이 좋겠어.

유형 연습 ③ Zoom In

짧은글 발문 Tip

- (가)와 (나)의 정보 구성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에 나타난 정보 전달 방식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매체 자료의 정보 전달 방식을 묻는 유형

01 위 블로그 게시물을 작성한 필자가 사용한 표현 전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독자가 원하는 자료에 선택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자료를 비선형적인 형태로 제시하였다.
- ② 작성 시간과 수정 시간을 함께 제시하여 독자가 글이 수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 ③ 문자 언어와 사진을 함께 활용하여 독자가 서로 다른 양식의 정보를 결합하여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 ④ 독자가 블로그 본문 이외의 자료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사진의 출처가 담긴 웹사이트 주소를 제시하는 형태로 공유하였다.
- ⑤ 불특정 다수인 독자의 이해 수준을 고려하여 조각과 관련된 용어를 설명할 때에 학술 자료에 제시된 전문가의 견해를 직접 인용하였다.

유형 이해

매체 자료의 정보 전달 방식을 파악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 유형이다. 유사한 주제를 전달한다고 하더라도 매체가 달라지면 그로 인해 정보 전달 방식의 특성 또한 달리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매체 자료에 따라 정보 전달 방식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형 공략

- ① 지문에 나타난 매체 자료의 정보 전달 방식을 확인한다.
- ② 각 선지에서 매체 자료의 정보 전달 방식에 대한 내용을 확인한다.
- ③ 지문의 매체 자료의 정보 전달 방식이 선지의 내용과 부합하는지 확인한다.

정답 풀이

- ③ 글과 관련된 실내 조각(금동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 실외 조각(미국 리시모어산의 두상) 사진 자료를 함께 제시하여 독자가 서로 다른 양식의 정보를 통해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오답 풀이

- ① 독자가 자료에 선택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자료를 비선형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다.
- ② 작성 시간은 제시되었으나 수정 시간은 제시되지 않아 독자가 글이 수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없다.
- ④ 사진의 출처를 제시하지 않았고 웹사이트 주소도 제시하지 않았다.
- ⑤ 학술 자료에 제시된 전문가의 견해를 직접 인용하지는 않았다.

답은꼴 발문 Tip

- (가)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에 나타난 문법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매체 자료에 나타난 언어의 적절성을 묻는 유형

02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접속 부사 '그래서'를 통해 공간 장식에 대한 인간의 관심이 가구, 각종 식물, 장식품이 인간의 일상에 함께하는 원인임을 드러내고 있다.
- ② ㉡: 어미 '-거나'를 통해 조각을 만들 때에는 재료를 가지고 새기거나 깎는 방식 중 어느 것이든 선택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 ③ ㉢: 보조사 '은'을 통해 '조각'이 문장의 화제임과 동시에 주어로 사용됨을 보여 주고 있다.
- ④ ㉣: 의존 명사 '등'을 통해 조각에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 ⑤ ㉤: 보조 용언 '보다'를 통해 조각의 상태를 추측하거나 어렵듯이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유형 이해

매체 자료에 나타난 언어의 적절성을 묻는 문제 유형이다. 매체 자료에 나타난 언어적 표현과 선지에 제시된 문법 단위에 대한 설명이 적절하게 대응하는지 대조해 보아야 한다.

유형 공략

- ① 각 선지에 제시된 내용을 확인한다.
- ② 지문에 제시된 내용이 선지에 제시된 설명에 부합하는지 판단한다.

정답 풀이

- ⑤ '조각을 보며'의 '보다'는 보조 용언이 아니라 본용언으로, '눈으로 대상의 존재나 형태적 특징을 알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오답 풀이

- ① 접속 부사 '그래서'를 통해 앞 문장의 내용이 뒤에 이어지는 내용의 원인임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어미 '-거나'를 통해 나열된 동작이나 상태, 대상들 중에서 어느 것이든 선택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 ③ 보조사 '은'을 통해 문장의 화제와 주어를 동시에 나타내고 있다.
- ④ 의존 명사 '등'을 통해 앞서 언급한 것 이외에도 같은 종류의 것이 더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답은골 발문 Tip

- <조건>에 따라 신문 기사의 표제를 작성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나)의 표제와 부제를 <조건>에 따라 작성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매체 언어의 표현 방법을 묻는 유형

03

<조건>을 반영하여 [A]의 빈칸에 들어갈 소제목을 작성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조건

- [A]의 내용을 포함할 것.
- 표현 방식의 측면에서 다른 소제목과의 통일성을 고려할 것.

- ① 실내 조각과 실외 조각, 어떻게 다를까? 섬세함과 위압감
- ② 실내 조각과 실외 조각, 정밀함과 장엄함의 차이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 ③ 실내 조각과 실외 조각, 기원은 무엇인가? 표현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
- ④ 실내 조각은 실외 조각보다 어떤 점이 뛰어난가? 사물과 공간에 대한 이해
- ⑤ 정밀한 실내 조각과 웅장한 실외 조각, 그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인가?

유형 이해

매체 자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표현 방법이 적절한지 판단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제 유형이다. 창의적인 표현, 적절한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매체 자료에 사용된 언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활용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매체 자료의 내용을 파악하고 그 내용에 부합하는 표현인지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형 공략

- ① 지문에 나타난 매체 자료의 내용을 확인한다.
- ② <보기>에 제시된 매체 자료의 특성 또는 <조건>에 제시된 정보를 파악한다.
- ③ 각 선지에 제시된 내용이 <보기> 또는 <조건>에 제시된 정보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한다.

정답 풀이

- ① [A]에서는 실내 조각과 실외 조각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 또한 다른 소제목과의 통일성을 고려하면 의문문과 답의 방식으로 소제목을 작성해야 한다. 따라서 [A]의 내용을 포함하며 의문문과 답의 방식으로 표현된 제목으로, ‘실내 조각과 실외 조각, 어떻게 다를까? 섬세함과 위압감’이 가장 적절하다.

오답 풀이

- ② ‘실내 조각과 실외 조각, 정밀함과 장엄함의 차이는 어떻게 나타나는가?’는 [A]의 내용 중 일부만 담고 있으며, 표현 방식의 측면에서 다른 소제목과의 통일성이 고려되지 않았다.
- ③ ‘실내 조각과 실외 조각, 기원은 무엇인가? 표현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은 [A]의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다.
- ④ ‘실내 조각은 실외 조각보다 어떤 점이 뛰어난가? 사물과 공간에 대한 이해’는 [A]의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다.
- ⑤ ‘정밀한 실내 조각과 웅장한 실외 조각, 그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인가?’는 [A]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표현 방식의 측면에서 다른 소제목과의 통일성이 고려되지 않았다.

답은골 발문 Tip

- <보기>는 (나)에 달린 댓글이다. <보기>를 바탕으로 (나)의 세 번째 슬라이드를 수정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나)의 @를 <조건>에 따라 수정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매체 자료의 내용과 표현의 수정 방안을 묻는 유형

04

댓글을 반영하여 블로그의 게시물을 수정·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조각에 어울리는 음악을 들으며 조각을 보게 되면 작품을 더 깊이 있게 감상할 수 있으니 블로그에 배경 음악을 삽입하는 것이 좋겠어.
- ② 동양 조각의 보편적인 특성을 보이는 작품 제목을 소개한 후, 작품의 제목을 클릭하면 상세 내용이 다른 창으로 제시되도록 구성하는 것이 좋겠어.
- ③ 게시물에 삽입한 사진이 저작권자가 사용을 승인한 것인지 확인하고, 이용 조건에 따라 출처 등의 정보를 사진 자료와 함께 제시하는 것이 좋겠어.
- ④ 드론과 같은 무인기로 산 중턱에 자리 잡고 있는 대불이나 러시모어산의 두상을 정면에서 고정하여 촬영한 결과를 담은 동영상에 추가하는 것이 좋겠어.
- ⑤ 조각으로 유명한 미술관의 전시 물품 및 관람 시기 등의 정보를 다른 부분을 추가하고 글꼴이나 글씨 색상을 다르게 처리하여 정보를 강조하는 것이 좋겠어.

유형 이해

매체 자료에 제시된 내용과 표현을 수정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문제 유형이다. 자료에 대한 수정 방향은 게시물의 댓글, 시청자 게시판의 반응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료에 대한 수정 방향을 담고 있는 내용을 분석하고 처음 생산한 매체 자료를 수정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유형 공략

- ① 자료에 대한 수정 방향으로 제시된 내용을 분석한다.
- ② 각 선지에 제시된 내용을 확인한다.
- ③ 수정 방향으로 제시된 내용이 선지에 제시된 내용에 반영되었는지 판단한다.

정답 풀이

- ③ ‘저작권은 중요해’의 댓글을 반영하여 게시물에 사용된 사진의 저작권 정보를 확인하고 이용 조건에 따라 상세 정보를 함께 제시하는 것은 수정·보완 방안으로 적절하다.

오답 풀이

- ① 조각과 어울리는 음악을 배경 음악으로 삽입하는 것은 댓글에는 나타나 있지 않아 댓글을 반영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다.
- ② 동양 조각을 소개하고자 하나 이는 동양 조각의 보편적인 특성에 초점을 둔 것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조각을 알고 싶어 하는 ‘신기한 조각 나라’의 댓글을 반영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다.
- ④ 드론 등을 활용하여 산 중턱에 자리 잡고 있는 조각 작품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자 하는 방안은 적절하지만 정면에서 고정하여 촬영한다고 했으므로, 위치나 거리, 각도를 달리하여 다양한 시선으로 촬영한 동영상을 보여 주면 좋을 것 같다는 ‘공부하자’의 댓글을 반영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다.
- ⑤ 미술관의 전시 물품 및 관람 시기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댓글에는 나타나 있지 않아 댓글을 반영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다.

수능완성

국어영역 독서·문학·언어와 매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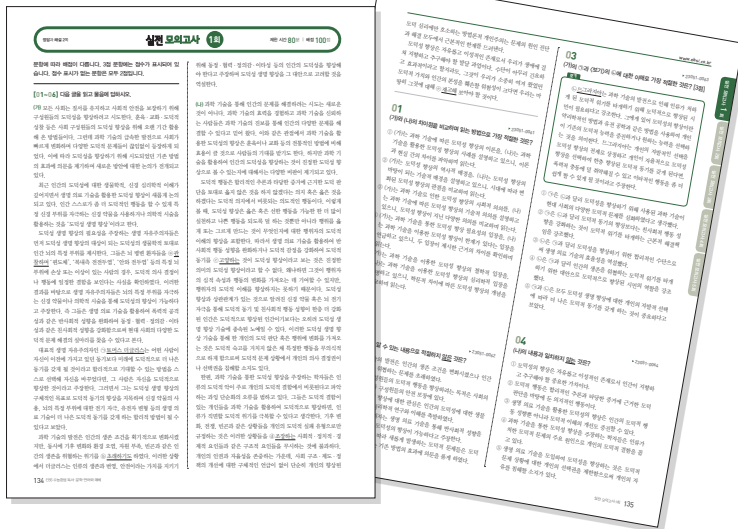
실전편

수능완성 <실전편>은 최근 3개년도에 걸쳐 시행된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모의평가 문항을 철저히 분석하여 실전과 가장 가까운 문항을 수록하였습니다. 실전처럼 구성된 45개 문항을 정해진 시간에 맞춰 풀어 봄으로써 자신의 실력을 점검하고, 부족한 영역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문제 풀이 후,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여 국어영역의 사고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실전 모의고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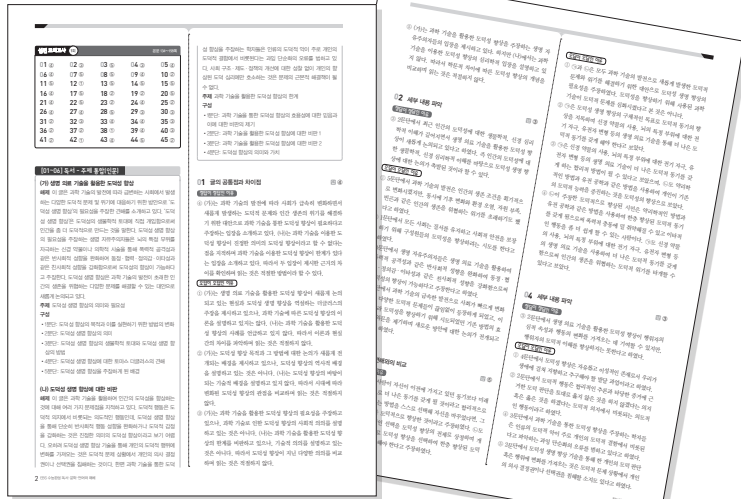
실전 모의고사는 45개 문항씩 총 5회분의 모의고사를 수록한 코너입니다.

실제 수능 국어영역에 응시한다는 생각으로 모의고사를 풀어 보는 과정에서, 실전 감각이 길러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정답과 해설

정답과 해설에서는 각 선지에서 정답과 오답의 핵심 요소가 되는 부분을 '정답이 정답인 이유'와 '오답이 오답인 이유'를 통해 제시하였습니다. 각각의 선지가 적절/부적절한 이유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실제 문제 풀이의 사고 과정을 기를 수 있어 실력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학생 EBS 교재 문제 검색

EBS 단추에서 문항코드나 사진으로 문제를 검색하면 푸러봇이 해설 영상을 제공합니다.

[23051-0001]
1. 아래 그래프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아래 그래프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20
2. 40
3. 60
4. 80

▶ **정답: 3**

※ EBS 사이트 및 모바일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 사진 검색은 EBSi 고교강의 앱에서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교사 교사지원센터 교재 자료실

교재 문항 한글 문서(HWP)와 교재의 이미지 파일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교재 자료실

- 한글다운로드
- 교재이미지 활용
- 강의활용자료

※ 교사지원센터(<http://teacher.ebsi.co.kr>) 접속 후 '교사인증'을 통해 이용 가능

이 책의 차례

실전편

실전 모의고사 1회	134
실전 모의고사 2회	160
실전 모의고사 3회	184
실전 모의고사 4회	212
실전 모의고사 5회	240

EBS 수능완성
국어영역



**실전 모의고사
1회**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릅니다. 3점 문항에는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01~0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모든 사회는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적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구성원들의 도덕성을 향상하려고 시도한다. 훈육·교화·도덕적 성찰 등은 사회 구성원들의 도덕성 향상을 위해 오랜 기간 활용해 온 방법들이다. 그런데 과학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며 다양한 도덕적 문제들이 끊임없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도덕성을 향상하기 위해 시도되었던 기존 방법의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며 새로운 방안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최근 인간의 도덕성에 대한 생물학적, 신경 심리학적 이해가 깊어지면서 생명 의료 기술을 활용한 도덕성 향상이 새롭게 논의되고 있다. 인간 스스로가 좀 더 도덕적인 행동을 할 수 있게 특정 신경 부위를 자극하는 신경 약물을 사용하거나 의학적 시술을 활용하는 것을 ‘도덕성 생명 향상’이라고 한다.

도덕성 생명 향상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생명 자유주의자들은 먼저 도덕성 생명 향상의 대상이 되는 도덕성의 생물학적 토대로 인간 뇌의 특정 부위를 제시한다. 그들은 뇌 병변 환자들을 ㉠ 관찰하며 ‘편도체’, ‘복내측 전전두엽’, ‘안와 전두엽’ 등의 특정 뇌 부위에 손상 또는 이상이 있는 사람의 경우, 도덕적 의사 결정이나 행동에 일정한 결함을 보인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생명 자유주의자들은 뇌의 특정 부위를 자극하는 신경 약물이나 의학적 시술을 통해 도덕성의 향상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즉 그들은 생명 의료 기술을 활용하여 폭력적 공격성과 같은 반사회적 성향을 완화하여 동정·협력·정의감·이타성과 같은 친사회적 성향을 강화함으로써 현대 사회의 다양한 도덕적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본다.

대표적 생명 자유주의자인 ㉡ 토머스 더글러스는 어떤 사람이 자신이 이전에 가지고 있던 동기보다 미래에 도덕적으로 더 나은 동기를 갖게 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선택해 자신을 바꾸었다면, 그 사람은 자신을 도덕적으로 향상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그는 도덕성 생명 향상의 구체적인 목표로 도덕적 동기의 향상을 지목하며 신경 약물의 사용, 뇌의 특정 부위에 대한 전기 자극, 유전자 변형 등의 생명 의료 기술이 더 나은 도덕적 동기를 갖게 하는 합리적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과학 기술의 발전은 인간의 생존 조건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켰지만, 동시에 기후 변화와 환경 오염, 자원 부족, 빈곤과 같은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는 위기를 ㉢ 초래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글러스는 인류의 생존과 번영, 안전이라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 동정·협력·정의감·이타성 등의 인간의 도덕성을 향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도덕성 생명 향상을 그 대안으로 고려할 것을 역설한다.

(나) 과학 기술을 통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과학 기술의 효력을 경험하고 과학 기술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과학 기술의 진보를 통해 인간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어 왔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과학 기술을 활용한 도덕성의 향상은 훈육이나 교화 등의 전통적인 방법에 비해 효용이 클 것으로 사람들의 기대를 받기도 한다. 하지만 과학 기술을 활용하여 인간의 도덕성을 향상하는 것이 진정한 도덕성 향상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도덕적 행동은 합리적인 추론과 타당한 증거에 근거한 도덕 판단을 토대로 옳지 않은 것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 혹은 옳은 것을 하겠다는 도덕적 의지에서 비롯되는 의도적인 행동이다. 이렇게 볼 때, 도덕성 향상은 옳은 혹은 선한 행동을 가능한 한 더 많이 실천하고 나쁜 행동을 되도록 덜 하는 것뿐만 아니라 행위를 옳게 또는 그르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행위자의 도덕적 이해의 향상을 포함한다. 따라서 생명 의료 기술을 활용하여 반사회적 행동 성향을 완화하거나 도덕적 감정을 강화하여 도덕적 동기를 ㉣ 고양하는 것이 도덕성 향상이라고 보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도덕성 향상이라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이 행위자의 심적 속성과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는 데 기여할 수 있지만, 행위자의 도덕적 이해를 향상하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도덕성 향상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신경 약물 혹은 뇌 전기 자극을 통해 도덕적 동기 및 친사회적 행동 성향이 한층 더 강화된 인간은 도덕적으로 향상된 인간이기보다는 오히려 도덕성 생명 향상 기술에 종속된 노예일 수 있다. 이러한 도덕성 생명 향상 기술을 통해 한 개인의 도덕 판단 혹은 행위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도덕적 숙고를 거치지 않은 채 특정한 행동을 무의식적으로 하게 함으로써 도덕적 문제 상황에서 개인의 의사 결정권이나 선택권을 침해할 소지도 있다.

한편, 과학 기술을 통한 도덕성 향상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인류의 도덕적 악이 주로 개인의 도덕적 결함에서 비롯된다고 파악하는 과잉 단순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그들은 도덕적 결함이 있는 개인들을 과학 기술을 활용하여 도덕적으로 향상하면, 인류가 직면할 도덕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기후 변화, 전쟁, 빈곤과 같은 상황들을 개인의 도덕적 실패 유형으로만 규정하는 것은 이러한 상황들을 ㉤ 조장하는 사회적·정치적·경제적 요인들과 같은 구조적 요인들을 무시하는 것에 불과하다. 개인의 인권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가운데, 사회 구조·제도·정책의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이 단순히 개인의 향상된

도덕 심리에만 호소하는 방법론적 개인주의는 문제의 원인 진단과 해결 모두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드러낸다.

도덕성 향상은 자유롭고 이성적인 존재로서 우리가 생애에 걸쳐 지향하고 추구해야 할 발달 과업이다. 수단이 아무리 필요하고 효과적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소중히 여겨 왔었던 도덕적 가치와 인간의 본성을 훼손할 위험성이 크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것에 대해 ㉔ 재고해 보아야 할 것이다.

01

▶ 23051-0061

(가)와 (나)의 차이점을 비교하며 읽는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과학 기술에 따른 도덕성 향상의 이론을, (나)는 과학 기술을 활용한 도덕성 향상의 사례를 설명하고 있으니, 이론과 현실 간의 차이를 파악하며 읽는다.
- ② (가)는 도덕성 향상의 역사적 배경을, (나)는 도덕성 향상의 바탕이 되는 기술적 배경을 설명하고 있으니, 시대에 따라 변화된 도덕성 향상의 관점을 비교하며 읽는다.
- ③ (가)는 과학 기술로 인한 도덕성 향상의 사회적 의의를, (나)는 과학 기술에 따른 도덕성 향상의 기술적 의의를 설명하고 있으니, 도덕성 향상이 지닌 다양한 의의를 비교하며 읽는다.
- ④ (가)는 과학 기술을 통한 도덕성 향상 필요성의 입장을, (나)는 과학 기술을 이용한 도덕성 향상이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언급하고 있으니, 두 입장이 제시한 근거의 차이를 확인하며 읽는다.
- ⑤ (가)는 과학 기술을 이용한 도덕성 향상의 철학적 입장을, (나)는 과학 기술을 이용한 도덕성 향상의 심리학적 입장을 설명하고 있으니, 학문적 차이에 따른 도덕성 향상의 개념을 비교하며 읽는다.

02

▶ 23051-0062

(가)를 읽고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과학 기술의 발전은 인간의 생존 조건을 변화시켰으나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를 초래하였다.
- ② 사회가 구성원들의 도덕적 행동을 향상하려는 목적은 사회의 질서 유지와 구성원들의 안전 보장에 있다.
- ③ 도덕성 생명 향상에 대한 관심은 인간의 도덕성에 대한 생물학적, 신경 심리학적 연구와 이해를 촉발하였다.
- ④ 생명 자유주의자는 생명 의료 기술을 통해 반사회적 성향을 완화함으로써 도덕성의 향상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 ⑤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도덕적 문제들은 도덕성을 향상하려는 기존 방법의 효과에 의문을 품게 하였다.

03

▶ 23051-0063

(가)의 ㉑과 <보기>의 ㉒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기

㉒ <드그라지아>는 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인류가 처하게 된 도덕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도덕적으로 향상된 시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그에게 있어 도덕성의 향상이란 약리화적인 방법과 유전 공학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개인이 기존의 도덕적 능력을 증진하거나 원하는 능력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한다. 드그라지아는 개인의 자발적인 선택을 도덕성 향상의 전제로 상정하고 개인이 자율적으로 도덕성 향상을 선택하여 한층 향상된 도덕적 동기를 갖게 된다면, 폭력적 충동에 덜 취약해질 수 있고 이타적인 행동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 ① ㉑은 ㉒과 달리 도덕성을 향상하기 위해 사용된 과학 기술이 현대 사회의 다양한 도덕적 문제를 심화하였다고 생각했다.
- ② ㉑은 ㉒과 달리 도덕적 동기의 향상보다는 친사회적 행동 성향을 강화하는 것이 도덕적 위기를 타개하는 근본적 해결책을 강조했다.
- ③ ㉒은 ㉑과 달리 도덕성을 향상하기 위한 합리적인 수단으로써 생명 의료 기술의 효율성을 역설했다.
- ④ ㉒은 ㉑과 달리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는 도덕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대안으로 도덕적으로 향상된 시민의 역할을 강조했다.
- ⑤ ㉑과 ㉒은 모두 도덕성 생명 향상에 대한 개인의 자발적 선택에 따라 더 나은 도덕적 동기를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04

▶ 23051-0064

(나)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도덕성의 향상은 자유롭고 이성적인 존재로서 인간이 지향하고 추구해야 할 중요한 가치이다.
- ② 도덕적 행동은 합리적인 추론과 타당한 증거에 근거한 도덕 판단을 바탕에 둔 의지적인 행동이다.
- ③ 생명 의료 기술을 활용한 도덕성의 향상은 인간의 도덕적 행동 성향뿐 아니라 도덕적 이해의 개선도 증진할 수 있다.
- ④ 과학 기술을 통한 도덕성 향상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인류가 처한 도덕적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개인의 도덕적 결함을 꼽고 있다.
- ⑤ 생명 의료 기술을 도입하여 도덕성을 향상하는 것은 도덕적 문제 상황에 대한 개인의 선택권을 제한함으로써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

05

▶ 23051-0065

(가)와 (나)를 읽은 학생들이 <보기>에 대해 보일 수 있는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갑은 큰 부자여서 때때로 값비싼 물건을 구매하는 등의 즐거움을 누리고 있다. 그러나 갑은 그의 경제적 지원을 통해 삶의 어려움에서 당장 벗어날 수 있는 거지에게 한 푼도 적선하지 않는다. 그러던 그는 자신과 달리 거지를 도와주어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부자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이후 갑은 자신의 태도를 돌아보고 거지를 도와주고 싶은 동기를 갖게 될 것을 기대하며, 스스로 이타성을 향상하는 알약을 먹기로 결정했다. 알약을 먹은 뒤부터 갑은 거지에게 동정심을 느끼기 시작했고, 그는 거지의 배고픔을 면하게 하려고 사과 한 알을 거지에게 주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는 알약을 복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전과 마찬가지로 거지에게 돈을 주어야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

※ 단, 알약 이외에 갑의 이타성을 향상시킨 다른 요소는 없다고 본다.

- ① (가)에 따르면, 알약을 먹고 갑이 거지에게 동정심을 느끼기 시작한 것은 도덕성이 향상된 결과이다.
- ② (가)에 따르면, 갑이 알약을 먹은 것은 지금보다 더 나은 도덕적 동기를 갖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일 것이다.
- ③ (나)에 따르면, 갑이 거지에게 사과 한 알을 주기로 결심한 것은 신경 약물로 인한 갑의 무의식적 행동일 뿐이다.
- ④ (나)에 따르면, 갑이 거지에게 사과를 준 것과 달리 돈을 주지 않겠다는 판단을 하게 된 것은 알약이 갑의 의사 결정권을 강화해 준 결과로 볼 수 있다.
- ⑤ (나)에 따르면, 거지가 경제적인 지원을 받지 못해 어려움에 처한 상황은 갑이 향상하려 한 개인의 도덕성 이외에 사회 구조의 문제를 함께 살펴야 한다.

06

▶ 23051-0066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살펴보며
- ② ㉡: 가져오기도
- ③ ㉢: 복돋우는
- ④ ㉣: 이루는
- ⑤ ㉤: 되생각해

[07~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사람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새로운 현상이 등장하면, 그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다양한 정보원을 ㉠ 찾는다. 특히 새로운 현상이 불러오는 위험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관련 정보를 탐색하려는 경향이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개인적 경험을 활용하여 위험 상황을 파악하지만,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서도 위험 상황을 파악하기도 한다. 이때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 작용에서 일어나는 의사소통의 정도가 커질수록 위험 상황에 대해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는 위험 인식 또한 커진다.

그러나 우리는 개인적 경험이나 주변 사람들과의 의사소통만으로는 위험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 이처럼 위험 상황과 관련하여 정보의 수준과 양이 부족하거나 불확실하다고 느낄 때 사람들은 미디어가 전달하는 정보에 의존하게 된다. 사실 주변 사람들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특정 정보를 공유하는 경우도 그 출발은 미디어가 제공한 정보에 근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이유로 미디어 연구자들은 ㉡ 미디어가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에게 위험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위험 상황을 인식하게 하는 핵심 요소라고 말한다. 연구자들은 또한 미디어가 위험 요소를 자주 다룸으로써 그 위험 요소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게 되는 것이 일반 대중의 사고(思考)를 지배한다고 설명하며, 미디어가 대중에게 위험 상황에 대한 인식을 지각시키는 데 중요한 기능을 해 왔다고 주장한다.

현대 사회에서는 위험 상황과 관련한 정보가 주로 미디어를 중심으로 개인과 집단, 사회와 같은 다양한 위험 정보 수용 주체들에게 전달된다. 위험 정보를 수용하는 주체들은 위험 상황에 대한 정보에 반응하는 정보 처리 시스템 역할을 하는데, 이를 통해 위험 상황에 대한 정보가 사회적으로 확산되어 나간다. 위험 상황에 대한 정보가 사회적으로 확산되는 과정은 크게 위험 상황에 대한 정보의 전달 단계와 전달된 정보에 대한 해석 및 반응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위험 상황에 대한 정보의 전달 단계에서 전달되는 정보에는 미디어가 직접 생산해 전달하는 정보와 이를 사람들이 2차적으로 전달하는 정보가 있다. 전달되는 정보의 특성은 위험 상황에 대한 인식을 증폭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의 특성에는 정보량, 논쟁의 정도, 선정적 표현의 정도 등이 포함된다. 즉 특정 위험에 대한 정보가 반복적이고 집중적으로 전달될수록, 지속적으로 전달될수록, 위험 상황에 대한 정보와 관련된 논쟁이 많을수록, 위험 상황에 대한 정보가 선정적으로 표현될수록 정보 수용 주체들의 위험 상황에 대한 인식은 커지게 된다.

한편 전달된 정보에 대한 해석 및 반응 단계에서는 위험 상황에 대한 정보를 수용하는 다양한 주체들이 위험 상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재가공하여 전달하게 된다. 위험 상황에 대한 정보를 수용하는 개인이나 집단의 구성원들은 자신이 속한 조직의 가치 및 사회 문화적 맥락 등의 영향을 받

으면서 위험 상황에 대한 정보를 해석하고 재구성하게 된다. 이때 위험 상황과 관련한 정보에 대한 대중의 반응은 위험 상황에 대한 정보의 확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런데 대중은 특정 정보를 특정한 방향으로 단순화해 인식 [A] 함으로써 편향이나 왜곡된 반응을 보이는 특성이 있다. 사람들은 불확실한 정보에 직면했을 때, 이를 합리적으로 처리하기보다는 어림짐작에 의해 직관적으로 처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정보의 해석적 오류나 편견이 발생한다. 즉 사람들은 이해하기 힘들거나 익숙하지 않거나, 불확실한 정보에 대해서는 즉흥적으로 받아들이거나 선입견을 갖고 잘못된 해석을 하는 등의 반응을 보인다. 결국 위험 상황에 대한 정보의 특성이 불확실할 때 대중이 체계적인 정보 처리 단계에 이르지 못함으로써 위험 상황에 대한 인식이 증폭되어 사회적으로 확산하게 된다.

미디어는 대중이 위기에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긍정적 역할을 한다. 가령 전염병이 전국적으로 유행하는 질병 재난이 발생한 상황에서 감염의 위험성을 경고함과 동시에 감염 예방 수칙을 전달해 위험 상황을 극복하게 만드는 데 기여한다. 하지만 문제는 미디어가 이러한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의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는 점이다. 미디어는 사회적으로 위험하고 중요한 사안일수록 관련 정보를 과잉 생산하고 유포하는 속성이 있다. 위험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나 행동은 일차적으로 위험 상황에 대한 인식과 관계가 있지만, 이 위험 상황에 대한 인식은 정보를 제공하는 미디어의 속성에 지대한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위험 상황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미디어의 정보 구성과 표현 양상을 체계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위험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07

▶ 23051-0067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위험 상황과 관련한 정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유형화하여 제시하고, 각 유형의 특성을 나열하고 있다.
- ② 위험 상황에 대한 정보의 개념을 정의하고, 위험 상황에 대한 정보의 속성과 이를 뒷받침하는 전문가의 견해를 살펴보고 있다.
- ③ 위험 상황에 대한 정보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위험 상황에 대한 정보의 전달을 조절하기 위한 방안을 소개하고 있다.
- ④ 위험 상황에 대한 정보가 형성되는 절차를 단계적으로 고찰하고, 위험 상황에 대한 정보에 따른 사회 변화 양상을 예측하여 제시하고 있다.
- ⑤ 위험 상황에 대한 정보를 확산시키는 요인을 설명하고, 위험 상황에 대한 정보가 사회적으로 확산되어 가는 과정을 단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08

▶ 23051-0068

윗글을 읽고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미디어가 전달하는 정보의 구성과 표현 양상은 정보 수용자의 태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 ② 사람들은 정보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미디어가 전달하는 정보를 이용하려 한다.
- ③ 미디어는 위험 상황에 대한 경고를 통해 대중이 위기에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한다.
- ④ 위험 상황에 대한 정보를 수용하는 주체들은 위험 상황에 대한 인식이 사회적으로 확산되어 가는 정보 처리 시스템의 역할을 수행한다.
- ⑤ 미디어가 직접 생산한 정보와 이를 2차적으로 전달하는 정보 중에서 위험 상황에 대한 인식을 심화하는 정보는 미디어가 직접 생산한 것이다.

09

▶ 23051-0069

㉠의 이유를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정보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대응으로 미디어는 정보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이다.
- ② 미디어가 위험 요소를 자주 다룸으로써 대중의 위험 인식을 경감하는 데 중요한 기능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 ③ 불확실한 정보를 대량으로 생산함으로써 대중이 위험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적절히 파악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 ④ 사람들은 미디어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위험 상황을 파악하고 다른 사람과 상호 작용하며 위험 상황의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이다.
- ⑤ 개인적으로 경험하기 어려운 불확실한 정보에 대해 주변 사람들과 활발한 의사소통을 하게 하여 정보의 불확실성을 줄여 주기 때문이다.

10

▶ 23051-0070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20△△년 ○월 주택가 도로의 아스팔트에서 기준치 이상의 방사선이 검출되었다는 사실이 뉴스를 통해 보도되었다. 이를 뒤 한국 원자력 안전 위원회는 주택가 도로의 방사선량을 다시 측정하였고, 최초 사건 보도 5일 후에 정부는 한국 원자력 안전 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택가 도로의 방사선 검출량은 주민 안전에 이상이 없는 수준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후 주택가 지역 주민들과 환경 운동 단체, 방사선 전문가 집단은 정부의 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였고, 이를 둘러싼 논쟁이 지속적으로 전개되었다.

사건이 최초 보도된 이후 사흘 동안 4,000여 건에 해당하는 보도가 집중되었으며, 안전에 이상이 없다는 정부의 발표 이후 이를 둘러싼 논쟁에 대해 5,000여 건의 추가 보도가 지속되었다. 사건 및 정부 평가 결과에 대한 보도 내용에는 암이나 백혈병과 같은 중대 질병과 연관된 표현이 매우 많았다. 그리고 이러한 보도 내용은 사람들이 인터넷이나 소셜 미디어를 통해 다시 전달함으로써 더욱 확산되었다.

- ① 인터넷이나 소셜 미디어를 통해 다시 전달된 보도 내용은 미디어가 생산한 정보를 2차적으로 전달한 정보에 해당하겠군.
- ② 주택가 도로의 방사선 위험성에 대한 논쟁에서 정부와 시민들의 입장의 차이를 분명히 알수록 위험 상황에 대한 인식이 증폭된다고 할 수 있겠군.
- ③ 보도 내용에 암이나 백혈병과 같은 중대 질병과 연관된 표현이 매우 많았다는 것은 위험 상황에 대한 정보가 선정적으로 표현되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겠군.
- ④ 주택가 지역 주민들과 환경 운동 단체, 방사선 전문가 집단의 의견 표명이 지속적으로 보도된 것은 정보 수용 주체들의 위험 상황에 대한 인식을 증폭하였겠군.
- ⑤ 방사선 검출 사실에 대한 최초 보도 이후 사흘 동안 4,000여 건의 보도가 집중되었다는 것을 통해 위험 상황의 인식을 증폭할 수 있는 정보량이 많았음을 알 수 있겠군.

11

▶ 23051-0071

〈보기〉를 참고하여 [A]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미국의 경제학자이자 심리학자인 카너먼은 인간은 어떤 문제 상황에 대한 해답을 구할 때, 논리적 사고 과정에 근거한 합리적 추론을 하기보다는 직감이나 경험에 의존해 답을 구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주장하였다.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논리적 사고 과정에 근거해 합리적 추론을 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주 접하거나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경험이나 사례들을 바탕으로 직관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고 보았다. 카너먼은 직감이나 경험에 의존해 직관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식을 ‘휴리스틱’이라고 불렀다.

- ① 사람들이 불확실한 정보에 직면했을 때, 이를 어림짐작으로 처리하는 방식은 ‘휴리스틱’에 해당한다.
- ② 직감이나 경험에 의존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심리적 성향으로 인해 사람들은 위험 정보를 특정한 방향으로 단순화해 인식한다.
- ③ 사람들은 자주 접하거나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사례를 바탕으로 불확실한 정보나 이해하기 힘든 상황을 직관적으로 해석하게 된다.
- ④ 위험 정보에 대해 수집하고 이를 해석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사람들은 불확실한 위험 정보를 즉흥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다.
- ⑤ 논리적 사고 과정에 근거한 합리적 추론을 하기보다는 직관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식은 불확실한 정보에 직면한 사람들에게 체계적인 정보 처리를 위한 수단으로 작용한다.

12

▶ 23051-0072

문맥상 ㉠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의미가 불분명한 단어는 사전을 찾아라.
- ② 요즘 많은 사람이 감기로 병원을 찾는다.
- ③ 나는 이번 일을 계기로 자신감을 찾았다.
- ④ 그 사람은 고향에서 마음의 평정을 찾았다.
- ⑤ 부모님께서는 주말에 산이나 바다를 찾는다.

[13~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최근 컴퓨팅 환경은 인터넷과 결합한 가상화 기반의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이 일반화되고 있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만큼의 IT 시스템 자원을 필요한 시간만큼 이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기술을 뜻한다. 클라우드 컴퓨팅 이용자는 자신이 별도의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지 않아도 클라우드 컴퓨팅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클라우드 컴퓨팅을 이용하면 IT 시스템 자원과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고, 관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거의 ㉠ **들이지** 않으면서도 IT 시스템 자원과 소프트웨어를 필요한 만큼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클라우드 컴퓨팅은 중앙 집중형 데이터 센터에서 데이터를 처리하기 때문에 데이터 송수신의 지연 문제나 데이터 저장 및 관리에 대한 보안 문제의 위험성이 크다.

클라우드 컴퓨팅의 기반을 이루는 기술로는 가상화, 클러스터 관리, 분산 시스템 등이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기술로는 가상화를 ㉡ **끝**을 수 있다. 가상화는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컴퓨터 시스템의 물리적 자원인 CPU, 메모리, 디스크 등을 논리적으로 추상화해 물리적 한계에 종속되지 않고 원하는 형태로 분리, 통합하는 기술을 통칭해서 ㉢ **일컫는다**. 가상화는 실제 존재하는 CPU, 메모리, 디스크 같은 물리적 자원들을 논리적 자원들의 형태로 표시하기 때문에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사용자에게는 컴퓨터 시스템의 물리적 자원들이 논리적 형태로 나타난다. 가상화를 통해 하나의 장치로 여러 동작을 하게 하거나 반대로 여러 개의 장치를 ㉣ **묶어** 하나의 장치인 것처럼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컴퓨터 시스템의 물리적 자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하지만 하나의 장치를 논리적으로 분리한 상황에서 이를 통제하거나 관리하려면 단일 장치를 관리할 때보다 복잡하다는 문제가 있다. 이를 위해 가상화는 접근 방법 및 자원 관리를 위한 추상화된 계층의 소프트웨어를 추가하였으며, 이를 하이퍼바이저라고 ㉤ **부른다**. 하이퍼바이저는 CPU나 메모리와 같은 물리적 컴퓨팅 자원에 서로 다른 각종 운영체제의 접근 방법을 통제하고, 다수의 운영 체제를 하나의 컴퓨터 시스템에서 가동할 수 있게 하는 소프트웨어이다. 하이퍼바이저는 하드웨어와 운영 체제 사이를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하이퍼바이저로 인해 클라우드 컴퓨팅 사용자는 실제 하드웨어 대신 하이퍼바이저가 구축한 가상 머신을 접하게 된다. 가상 머신은 실제 기반 컴퓨터 하드웨어의 단지 일부에서만 실행되더라도 불구하고, 각각의 가상 머신은 자체 운영 체제를 실행하며 독립적인 컴퓨터인 것처럼 작동한다. 이를 통해 컴퓨터 시스템의 물리적 자원인 하드웨어의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클라우드 컴퓨팅이 제공하는 서비스 모델에는 세 가지가 있다. 먼저 사용자에게 컴퓨터 시스템의 물리적인 자원을 직

접 제공해 주는 ㉠ IaaS 모델이 있다. 사용자는 저장 장치, CPU, 메모리 등 원하는 컴퓨터 시스템 자원을 요청하고, 네트워크를 통해 이를 사용하게 되는 형태이다. 사용자가 직접 컴퓨터 시스템 자원을 구성하고 관리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사용자에 따라 다른 방법과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음은 사용자가 곧바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는 ㉡ PaaS 모델이 있다. PaaS 제공자는 사용자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거나 실행하는 데 기반이 되는 컴퓨터 시스템의 물리적 자원을 제공하고 관리한다. PaaS 모델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별로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에 필요한 프로그램 설치, 개발 환경의 설정을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PaaS 모델은 소프트웨어 개발에 필요한 모든 구성이 완료된 환경을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끝으로 애플리케이션을 서비스하는 ㉢ SaaS 모델이 있다. 이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사업자가 네트워크를 통해 별도의 설치 없이 곧바로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해 주거나, 사용자가 원격으로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수 있는 모델이다. 사용자는 간단한 절차만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모든 관리 권한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사업자에게 있다.

13

▶ 23051-00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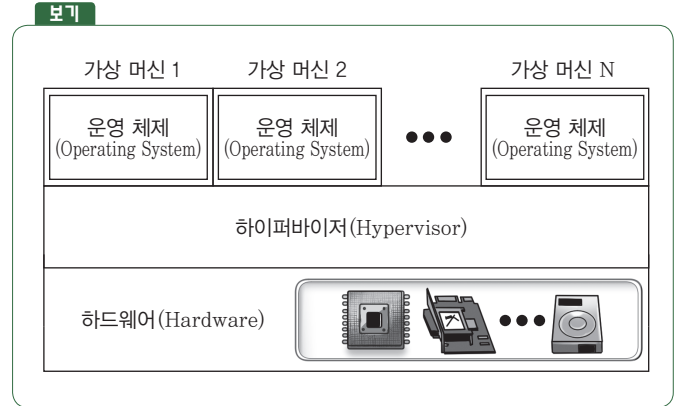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클라우드 컴퓨팅은 이용자가 시·공간의 제약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②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의 일반화는 인터넷 환경의 발달 및 확산과 관련이 있다.
- ③ 클라우드 컴퓨팅의 핵심 기술인 가상화는 컴퓨터 시스템의 물리적 자원의 효율성을 높여 준다.
- ④ 클라우드 컴퓨팅을 이용하는 사용자는 컴퓨터 시스템의 물리적 자원을 논리적 형태로 접하게 된다.
- ⑤ 클라우드 컴퓨팅 사용자는 하이퍼바이저를 통해 가상 머신을 실행하는 실제 하드웨어를 접하게 된다.

14

▶ 23051-0074

[A]를 바탕으로 <보기>를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상 머신 1’은 ‘하드웨어’의 전체가 아닌 일부에서만 실행된다.
- ② ‘하이퍼바이저’는 논리적으로 분할된 ‘하드웨어’의 효율적인 활용을 가능하게 한다.
- ③ ‘가상 머신 1’과 ‘가상 머신 2’를 실행하는 운영 체제는 서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작동된다.
- ④ ‘하이퍼바이저’는 ‘가상 머신 1’과 ‘가상 머신 2’의 운영 체제들이 ‘하드웨어’에 접근하는 방법을 통제한다.
- ⑤ ‘하이퍼바이저’는 ‘하드웨어’와 가상 머신을 매개하여 다수의 운영 체제를 물리적 자원의 형태로 표시하여 관리한다.

15

▶ 23051-0075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사용자의 목적에 맞게 컴퓨터 시스템 자원을 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② ㉡은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환경 설정의 어려움을 경감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을 원하는 사용자의 편의를 높여 준다.
- ③ ㉢을 이용하는 사용자는 IT 시스템 자원의 설치와 유지, 관리에 대해 권한을 가지지 않는다.
- ④ ㉠은 ㉡과 달리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해 요청한 컴퓨터 시스템 자원을 사용자가 직접 관리해야 한다.
- ⑤ ㉡은 ㉢과 달리 사용자가 원하는 소프트웨어를 곧바로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16

▶ 23051-0076

클라우드 컴퓨팅과 <보기>의 '에지 컴퓨팅'을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기

중앙 집중형 데이터 센터에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클라우드 컴퓨팅의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IT 말단 기기들에서 실시간 수집, 판단, 학습을 통한 가공된 정보를 송수신하는 '에지 컴퓨팅'이 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에지 컴퓨팅은 사용자 말단 기기 주변에 컴퓨팅 장치가 위치하는 개념으로 기존의 클라우드 컴퓨팅을 대체하는 방식이 아닌, 클라우드 컴퓨팅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공생 관계로 활용된다. 전통적으로 데이터의 전달 또는 부분적인 저장만을 지원하던 말단 장치들에 데이터 처리 능력을 부여하여 사용자의 말단 기기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클라우드와 같은 중앙 집중형 데이터 센터로 보내지 않고, 데이터가 발생한 에지에서 실시간으로 처리한다.

- ① 에지 컴퓨팅과 달리 클라우드 컴퓨팅은 데이터 저장에 대한 보안 문제의 발생이 낮다.
- ② 에지 컴퓨팅과 달리 클라우드 컴퓨팅은 사용자 말단 기기 주변에 데이터 저장 장치가 위치하고 있다.
- ③ 에지 컴퓨팅과 달리 클라우드 컴퓨팅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IT 기기가 요구된다.
- ④ 클라우드 컴퓨팅과 달리 에지 컴퓨팅은 중앙 집중형 데이터 센터를 이용하지 않고 사용자의 기기에서 발생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
- ⑤ 클라우드 컴퓨팅과 달리 에지 컴퓨팅은 데이터 송수신 지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중앙 집중형 데이터 센터에서 정보를 가공하여 이용한다.

17

▶ 23051-0077

문맥상 ㉠~㉣와 가장 가까운 의미로 쓰인 것은?

- ① ㉠: 주인께서 아무도 집 안으로 들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 ② ㉡: 아이는 손가락을 꼬으며 소풍 갈 날만을 기다렸다.
- ③ ㉢: 마을 사람들이 모두 그의 효도를 일컬었다.
- ④ ㉣: 경기가 어려워지자 은행은 가계 대출을 묶기 시작했다.
- ⑤ ㉤: 사람들은 그를 불운한 천재라고 부른다.

[18~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어유와 계장님네 이 기음 매자꾸나
기음노래 내 부르리
천지 삼기실 제 사람이 같이 나니
너르나 너른 천하 많으나 많은 사람
현우가 다르거니 귀천이 같을손가
성인이 범을 지어 사민을 나누시니

[A] 행실 닦고 글 읽기는 선비님네 할 일이오

만들기는 장인이오 바꾸기는 장사로다
치치한 우리들은 할 일이 무어시고
속미와 포루는 고금의 한 법이니
복전 역색이 이 아니 근본인가
종년 작고 수곤 줄도 알건마는
양사부육이 이 아니면 어이하리

창경이 처음 울고 뽕잎이 푸를 적에
동풍은 습습하고 세우는 몽몽한데
밭으로 가져꾸나 행여 이 때 잃을세라
송아지 먹거나 남은 벌써 가는구나
자네 거름 다 가져갔나 우리 씨앗 나눠 가소
앞집 보습 뒷집 쟁기 선후를 다툼손가
높은 언덕 낮은 이랑 차례로 일군 후에
골고루 씨 뿌려라 행여 빈 데 있을세라
이삭이 비록 난들 가꾸어야 아니 되랴
엇그제 갓 맨 기음 어느 사이 벌써 기네
가을을 바라거니 세벌* 수고 꺼릴손가

(중략)

[B]

추풍이 건듯 불어 백로에 위상하니*
㉠ 들 가운데 누린 구름 네턱으로 한 빛이라
온 여름 주린 뱃속 먹지 않아도 절로 부르네
이른 논의 참새 무리 늦은 논의 기러기 떼
남의 속 모르기는 알미울손 짐승이라
내일은 들 거두세 새벽밥 일찍 하소
낮 갈아 손에 들고 지게 꾸며 등에 걸고
베거나 묶거나 이거니 지거니
젊으신네 도리깨질 늙으신네 그네질
섬 우기네 새끼 꼬네 어즈러이 구는지고
자네 밭에 몇 묶음인가 내 눈 소출 이뿐일세
공사채 다 갚으면 남은 것이 얼마일까
어유와 계장님네 이내 말씀 들어 보소
종년토록 수고타가 하루 겨를 못 얻을까
건넌 동네 떡을 하고 너머 마을 술을 빚소
울 뒤에 밤이 벌고 마당가에 대추 떨어지네
게 찌니 닭 삶으니 가지가지 향미로다

실전 모의고사 1회
실전 모의고사 2회
실전 모의고사 3회
실전 모의고사 4회
실전 모의고사 5회

룡복기 봉탕인들 이에서 나올손가
 [C] 김풍헌 이약정을 좌상으로 모신 후에
 현 패랭이 베 무지렁이 차례로 앉은 후에
 질동이 내어놓고 쪽박 잔 가득 부어
 잡거니 밀거니 사양하며 추천할까
 물장구 조금 피리 곡조도 좋을시고
 술김에 흥이 나니 되춤이 절로 난다
 어디에서 면주인은 불속객이 오단 말고
 잔기침 끊은 호령 반절은 무슨 일인가
 어서 나소 자주 나소 반객인들 내물손가
 환자* 배자 부세 전령 응당 구실 말라 할까
 [D] 향청 분부 작청 구청 원님인들 어이 알리
 한 집에 세네 군포 제구실도 못 하거든
 사돈일지 권당일지 일죽 무리 더욱 설워
 저 너머 십여 호가 어젯밤에 닳단 말가
 뉘라셔 우리 정상* 그러다가 구중궁궐의 님 계신 데 드리리
 - 작자 미상, 「기음노래」

- *치치한: 하찮은.
- *속미: 좁쌀.
- *포루: 베와 실.
- *양사부육: 부모를 섬기고 처자식을 보살핌.
- *세벌: 세 번에 걸쳐 김을 매는 것.
- *위상하니: 서리가 내리니.
- *면주인: 주나 부·군·현과 면 사이를 오가며 문서 심부름을 하던 사람.
- *불속객: 오라고 청하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찾아온 손님.
- *환자: 춘궁기에 곡식을 대여하고 추수기에 돌려받는 제도.
- *정상: 딱하고 가없는 형편.

(나) 그 뒤로 나는 사흘이 멀다 하고 내 『강희자전』이 팔리거나 없었나 싶어서 그 책사에를 풀 방구리에 쥐 드나들 듯 뺨질나게 드나들었다.

돈만 생기는 날에는 그가 말한 대로 칠십 원을 주고 다시 회수하리라는 생각으로 부리나케 드나들어 보았으나, 요행으로 내 『강희자전』은 열흘이 지나고 보름이 지나도 꽃아 둔 그 자리에 그대로 꽃혀 있었다.

꼭 한 달 만에야 겨우 돈 칠십 원을 마련해 가지고 갔다.

“여보, 이 책 나 삽니다.” 하고 『강희자전』을 뽑아서 옆구리에 끼면서 돈 칠십 원을 주인 앞에 던졌다.

주인은 안색이 별안간 창백해지면서,

“그건 파는 책이 아닙니다.” 하는 것이다.

“안 파는 책이 어디 있단 말이요. 당신이 오십 원에 사서 이십 원을 붙여서 칠십 원을 받는다고 그러지 않았소?”

“아닙니다, 그러지 맙쇼. 두고 보려고 합니다.”

주인은 얼굴이 붉으락푸르락하면서 내 옆구리에서 곧 『강희자전』을 도로 빼앗을 것같이 굴었으나, 나는 잠자코 문을 열고 길

로 나서고 말았다. 길을 걸으면서 나는 또 이런 생각을 했다.

‘저 친구가 내가 갖기에 망정이지, 다른 사람이 갖더라면 필시 한 오백 원쯤은 받았으려다.’

아무튼 생산력이 왕성한 세상임에는 틀림이 없어. 오십 원이란 놈이 열흘에 백오십 원씩 마구 새끼를 치는데, 이놈이 고작 한 달 만에 아홉 배 새끼를 치는 셈이다.

문명(文明)한 나라에서는 좁은 국토에 생식이 과다할 때는 산아 제한을 국책으로 강행한다는데……. 위정자, 모름지기 일고(一考)를 촉(促)할 만한*이야깃거리다.

지남여름에 시골서 교장 노릇 하는 G 군이 오래간만에 찾아왔다.

“자네 웬일인가?”

“나? ㉠감투 하나 쓰러 왔네.”

“정말인가?”

“그럼 거짓말로 아나?”

정계(政界)에 매일같이 감투 씬이 벌어지고 장안 안 여관마다 감투 사러 온 친구들이 뒷간에 구더기 끓듯 한다는 소문이 신문마다 벽적거리는데, 난생 처음으로 교장 노릇도 해 보니 그깟 놈의 것 아무것도 아닐세, 나라고 감투 못 쓰란 법 있을라구, 예라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 그는 이러한 생각 끝에 전후불고(前後不顧)하고* 서울로 튀어 올라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막상 올라와서 동정을 살펴보아 한즉, “그 감투란 것 좀체로 쓰기 어렵네. 하불실(下不失)* 십만 원은 있어야 겨우 술잔 값이나 될는지 모르겠네.”

허나 이 기회에 꼭 감투는 쓰고 내려가야겠는데,

“자네는 광면(廣面)한 친구이니까 혹 그럴듯한 굶이 없겠느냐.”는 것이다.

나는 웃을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현상은 G 한 사람에 한한 것이 아니요, 이렇기 때문에 세상은 썩을 대로 썩어 가는 것이지만, 우선 아쉬운 대로 나는 G에게만이라도 충고할 의무를 느끼고서 이렇게 권고해 돌려보냈다.

“실례이지 모르나 자네는 세상을 좀 더 알아야 하네. 껌데기 세상만 보지 말고 속껌질을 벗기고 그 속에 있는 세상을 보아야 하네. 감투란 원래 값이 비싼 것이 아닐세. 아니라기보다 한 푼어치 값도 없는 것이요, 또 값이 있을 수도 없네. 감투가 돈으로 환산되는 날 세상은 망하는 날일세. 왜 그러냐 하면 감투를 밀친 들여서 사는 날 벌써 감투 밀친을 뽑아야 할 생각이 안 나겠나? 가령 책 장사가 『강희자전』 한 권을 오십 원이고 백 원이고 주고 샀다 치세. 학자 아닌 책 장사가 자기 신주덩어리가 아닐 바에야 그 책을 가보로 모셔 둘 리 없고, 팔게 될 경우에는 본전만 받고 팔겠나? 오백 원이고 육백 원이고 흠뻑 이(利)를 남겨야 팔 것 아닌가. ㉡이렇게 보면 자네는 책 장사요, 감투는 『강희자전』이란 말일세.”

꽤 모욕적인 언사로 이렇게 말했는데도 G는 껄껄 웃기만 했고 그가 돌아가면서 중시 해결을 못 지운 것 같은 눈치로 가고 말았지만, 그를 돌려보내 놓고 나는 나대로 괜히 웃음이 터져 올라서 못 견디었다.

- 김용준, 「강희자전과 감투」

*일고를 축할 만한: 깊이 한번 생각해 봄직한

*전후불고하고: 앞뒤 가리지 않고

*하불실: 아무리 적어도

*굽: 방도나 길

18

▶ 23051-0078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내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자아 성찰의 과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② 구체적 사례를 통해 세태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③ 인간의 삶과 공간의 의미를 연결 지어 주제 의식을 구체화하고 있다.
- ④ 역사적 상황을 직시함으로써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여 주고 있다.
- ⑤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감을 제시함으로써 세상과 거리를 두려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19

▶ 23051-0079

(가)의 화자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성인의 가르침이 담긴 학문을 배우려 애쓰고 있다.
- ② 서로 도우며 농사를 짓는 것을 바람직하게 여기고 있다.
- ③ 가족을 돌보는 것에 부담을 느껴 이를 회피하려 하고 있다.
- ④ 잔치 때 좌상으로 모신 사람들에게 세금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 ⑤ 고된 노동을 한 후 휴식을 취하며 새의 울음소리에 빗대어 간절한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20

▶ 23051-0080

<보기>의 '관북 관찰사'가 (가)를 창작했다고 가정할 때, (가)의 [A]~[D]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19세기 어느 문집에는 (가)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관북 관찰사로 재임하던 분이 우리말로 '김매기 노래' 한 편을 지으셨다. 쟁기질로부터 시작하여 벼를 거둘 때까지 '밭이랑에서 켜는 수고'와 가을걷이 후에 '때에 맞춰 잔치는 즐거움'을 수집하여 진술하였고, 백성들이 켜는 고통까지 언급하였다. 그분은 관직을 마칠 때 임금께 '백성들의 괴로움'을 살필 것을 청원하였고, 그 후에도 거듭하여 그 뜻을 아뢰었다.

- ① [A]에는 농민의 지위와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는 내용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사대부인 작가의 관점이 투영되었다고 짐작할 수 있겠군.
- ② [B]에서는 농민이 농작물을 키우기 위해 켜는 노고와 농민이 수확 후 갚아야 할 빚에 대해 염려하는 내용을 드러내고 있군.
- ③ [C]에서는 농민들이 가을걷이 후에 때에 맞춰 잔치를 열어 다양한 음식을 차린 후 술을 마시고 흥겨워하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군.
- ④ [D]에는 백성들이 켜는 힘겨운 고통을 임금에게 알리고 싶다는 소망이 나타나는데, 이는 관북 관찰사가 관직을 마치고 임금에게 아뢴 내용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겠군.
- ⑤ [A]와 [C]는 동일한 대상과 대화를 나누며 상대방의 조언을 듣는 방식인데, 대화 내용을 통해 백성들이 고통을 겪게 되는 구조적인 모순을 전달한다고 볼 수 있겠군.

21

▶ 23051-0081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은 모두 미래에 대비한 도덕적 측면을 강조하는 수단이다.
- ② ㉠과 ㉡은 모두 당대 현실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이다.
- ③ ㉠과 ㉡은 모두 세속적 가치에 대한 달관적 태도를 드러내는 소재이다.
- ④ ㉠은 노력하여 얻은 결과이고, ㉡은 부정하게 얻으려고 하는 결과이다.
- ⑤ ㉠은 지난 삶에 대한 만족감을, ㉡은 지난 삶에 대한 허무감을 담은 사물이다.

22

▶ 23051-0082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선생님: 수필은 일반적으로 글쓰기가 일상생활에서 겪은 인상적인 체험을 바탕으로 서술하는 글입니다. (나)에는 두 가지의 인상적인 체험이 다양한 표현 방식을 통해 제시되어 있는데, 이 두 체험은 궁극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작중 상황을 드러내며 독자들에게 교훈을 전달합니다. 그러면 (나)의 ‘첫 번째 체험’과 ‘두 번째 체험’을 비교하면서 작품의 특징을 이해해 봅시다.

- ① ‘첫 번째 체험’은 글쓰이의 경제적 곤란으로 인해, ‘두 번째 체험’은 G의 출세욕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② 글쓰이는 가정하여 말하는 방식으로 ‘첫 번째 체험’의 주인과 ‘두 번째 체험’의 G가 유사한 속성을 지녔다고 간주하고 있다.
- ③ ‘첫 번째 체험’에서 글쓰이가 책을 자주 드나드는 것과 ‘두 번째 체험’에서 여러 사람들이 벼슬을 사려는 것을 부각하기 위해 모두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 ④ 글쓰이는 ‘첫 번째 체험’의 주인과 ‘두 번째 체험’의 G에게 묻는 방식으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주인과 G의 표면적인 반응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 ⑤ 글쓰이는 ‘첫 번째 체험’에서는 자신이 팔았던 책을 되찾은 후에, ‘두 번째 체험’에서는 G를 질책한 후에 국가가 사회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교훈을 직접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23

▶ 23051-0083

(나)의 글쓰이가 ㉠을 통해 전달하려는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어떤 벼슬을 하더라도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 ② 벼슬에 오르면 그 지위를 악용하여 더 많은 돈을 벌어들여려고 할 것이다.
- ③ 좋은 책을 구입해 그것을 꾸준히 읽고 연구하면 언젠가 원하는 벼슬을 할 것이다.
- ④ 책이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 돌아가듯이 벼슬도 능력 있는 사람이 맡아야 할 것이다.
- ⑤ 학문을 가르치는 일에 뜻이 없다면 차라리 장사를 해서 돈을 버는 것이 나을 것이다.

[24~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승상이 부인과 함께 집에 돌아오니 ㉠ 내실(內室)이 텅 비어 있었다. 가뜩이나 염려하던 차에 의혹이 가슴에 가득하여 집안 내외인을 다 찾으니, 비복 중에 한 사람이 먼저 와서 아뢰되,

“㉡ 월영각에 난데없는 선동(仙童)이 노복들을 부르시나 차마 혼자 가지 못하여 모두 보온즉, 방 안에 가득한 것은 없어지고 한 소년 선동이 앉아서 ‘아버님께서 집에 돌아와 계시냐.’ 하고 묻사오니, 그 연고를 알지 못하겠나이다.”

승상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그 비복을 데리고 월영각에 가 보니, 한 소년이 승상을 보고 섬돌 아래로 내려와 엎드려 가로되,

“소자는 십 년을 부모 걱정시키던 불초자 원이로소이다.”

승상이 우연히 그 형상을 보고 급히 부인을 청하여 좌정하고 소년을 불러 대청 위에 앉히고 묻기를,

“이 일이 하도 괴이하니 사실을 자세히 이르라.”

하였다.

소년이 아뢰기를,

“오늘 묘시(卯時)에 붉은 도포를 입은 선관이 내려와 이르기를, ‘남두성이 옥황상제께 득죄하여 십 년 동안 허물을 쓰고 세상을 보지 못하게 하였는데, 죄악이 다 끝났다.’ 하고, 허물을 벗겨 방 안에 두고 이르기를, ‘이 허물을 가져갈 것이로되 네 부모께 뵈어 확실한 자취를 알게 하라.’ 하고 갔사오니, 소자가 보자기를 벗고 보온즉 허물이 곁에 놓여 있고 책 세 권이 놓였사오니, 십 년 불효를 어찌 다 아뢰리이까?”

승상이 자세히 살펴보니 과연 [허물]이 방 안에 놓여 있고 천서(天書) 세 권이 분명히 놓여 있었다. 마음에 크게 놀라고 기뻐하여 소년의 손을 잡고 마음 가득 기뻐하여 말하기를,

“네가 십 년 동안을 보자기 속에 들어 있었으니 무슨 알 만한 일이 있을 것이니, 자세히 일러서 우리의 의혹을 털게 하라.”

원이 고개를 숙여 재배하고 말하기를,

“소자가 보자기 속에서 십 년 동안 고행하였사오나 아무런 줄을 몰랐사오니 황송함을 이길 수 없사오이다.”

승상 부부가 그제야 원을 안고 등을 어루만지며 가로되,

“네가 어이하어 십 년 고생을 이토록 하였느냐?”

하고 못내 기뻐하였다. 내외 상하(內外上下)며 이웃 사람과 가까운 친척 가운데 누가 기뻐하지 않으리오.

[중략 부분 줄거리] 병마 대원수 도총독이 된 김원은 아귀에게 납치된 세 공주를 구출하기 위해 지하국으로 내려간다. 김원은 자신이 공주를 구출하기 위해 지하국에 내려왔음을 공주에게 밝힌다.

공주가 이 말을 듣고 일변 놀라고 일변 기뻐하며 정신을 수습하지 못하다가 오랜만에 대답하기를,

“진실로 이 갈을진대 하늘의 해를 다시 보려니와 장군의 재주

가 어떠한지 모르나 저놈의 조화가 무궁하니 어찌 제어하리오?”

원수가 말하기를,

“어쩔거나 변신을 할 것이니 놀라지 마시고 소장의 변신한 것을 은밀하게 가져다가 그놈의 진위를 살피게 수건에 싸서 들여가소서.”

하고 즉시 몸을 흔들며 작은 주먹만 한 수박으로 변신하였다. 공주가 행여 수문 장졸이 알까 두려워서 던지시 수건에 싸서 옆에 끼고 ㉢ 대아문에 다다르니, 수문장이 군사를 불러 분부하되,

“대장군 분부에 아무 시녀라도 중문 출입에 몸을 뒤져 보라 하여 계시니 명령대로 출입을 자세히 살피라.”

하니, 문졸이 명령을 듣고 일시에 달려들어 몸을 뒤지려 하였다.

공주가 그릇을 땅에 놓고 붉은 치마를 떨치고 가로되,

“빨래하러 나온 시녀가 무엇이 몸에 있으리라 하느냐?”

수문장이 아무것도 없음을 보고 들어가라 하거늘, 공주가 그제야 그릇을 옆에 끼고 안으로 들어가 ㉣ 아귀가 자는 협실에 놓았다. 원수가 그제야 본모습을 내어 문틈으로 엿보니, 아귀가 손에 비수를 들고 머리를 동이고 신음하는 소리가 우레 같고 아홉 입으로 숨 쉬는 바람에 방문이 여닫히니 철마산에서 보던 것보다 더 웅장하였다. 이놈이 비록 흉악하나 사람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며 귀신도 아니므로 신량이 없어 음양(陰陽)을 몰랐다. 상하 여인을 도적하여 시녀를 삼아 좌우와 거처에 위풍만 보이려 하고 곁에 두고 부리니, 여인이 삼천여 명이요 나졸이 수십만으로서 위엄이 제후의 나라보다 더하였다. 좌우의 궁전을 돌아보니 서쪽 마구간에 [준마 천여 필]이 매여 있고, 동편 곳집에 금은보화가 무수히 쌓였으니 천하에 이름 없는 은근한 치국의 기틀이었다.

원수가 마음속으로 생각하되,

‘이놈을 세상에 머물러 두면 천하에 큰 근심이 되리라.’

백계를 생각하다가, 갑자기 깨달아 공주께 아뢰기를,

“[독한 술]을 많이 빚어 좋은 안주를 장만하여야 계교를 베풀어이다.”

세 공주가 여러 여자를 데리고 약속을 정한 후에, 십여 일이 지나매 원수가 여러 여자를 청하여 여차여차하게 계교를 갖추고 기다리라고 하였다.

이때 아귀가 칼에 상한 대가리가 거의 다 나오니, 모든 시녀를 불러 말하기를,

“내 병이 조금 나았으니 4, 5일 후 세상에 나가 남두성을 잡아 죽여 내 분함을 풀리라. 너희는 나를 위하여 마음을 위로하라.”

여자들이 이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각각 술과 성찬을 가지고 권한기를,

“대왕의 상처가 나오시면 첩 등의 복인가 하나이다. 수이 차도를 얻사오면 남두성 잡기야 어찌 근심하리오? 주찬을 대령하였사오니 다 드셔서 첩 등의 우러르는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아귀가 이 말을 듣고 술을 가져오라 하거늘, 여러 여자가 일시에 한 그릇씩 드리니, 아홉 입으로 권하는 대로 먹으니 그 수를 알 수 없었다. 술이 반쯤 취하매 여러 여자가 거짓으로 위로하여 말하기를,

“장군은 잠깐 잠을 청하여 아픔을 잊으소서.”

아귀가 여자들이 하는 말을 듣고 잠을 자려 하였다.

막내 공주가 아귀 곁에 앉아 말하기를,

“보검을 놓고 잠을 자소서. 취중에 보검을 한번 휘둘러서 치면 잔명이 죄 없이 상할까 하나이다.”

아귀가 말하기를,

“장수가 잠을 자나 칼을 어찌 손에서 놓으리오마는 혹 실수함이 있을까 하노니, 그 말이 괴이하지 않으니 받아 머리맡에 세워 두라.”

하고 칼을 주었다.

공주가 칼을 놓고 아귀가 잠들기를 기다렸다. 아귀가 깊이 잠들었거늘, 비수를 가지고 협실로 나와 원수에게 잠들었음을 이르고 함께 후원에 이르러 큰 기둥을 가리키고 말하기를,

“원수의 칼로 저 기둥을 쳐 보소서.”

원수가 즉시 비수를 들어 기둥을 치니 기둥이 반쯤 부러졌다. 공주가 크게 놀라서 말하기를,

“만일 그 칼을 썼더라면 성사도 못 하고 도리어 큰 화가 미칠 뻔하였습니다.”

아귀가 쓰던 **비수**로 기둥을 치니 썩은 풀이 베어지는 듯하였다. 마음속으로 크게 기뻐하며 공주와 함께 **아귀가 자는 방**에 이르러 문을 가만히 열고 들어가 공주에게 말하기를,

“매운 재를 준비하였다가 아귀의 아홉 머리를 다 베어 내치거든 즉시 재를 온몸에 뿌리소서.”

약속을 정하고 비수를 메고,

“아귀야!”

하고 큰 소리로 불렀다. 아귀가 잠을 미처 깨지 못하여 기지개 켜 때 자세히 보니 온몸에 비늘이 돋혀 있었다. 아귀가 잠을 깨지 못함을 보고 칼을 들어 아홉 머리를 치니 아귀의 아홉 머리가 일시에 떨어졌다. 여러 여자가 일시에 **재**를 끼치니 아귀인들 어찌하리오? 머리 없는 등신이 일어나며 대들보를 받으니 대들보가 부러졌다. 아귀가 한 식경이나 난동을 부리다가 거꾸러지거늘, 공주 등이 아귀가 죽었음을 보고 분분하게 치하하였다.

- 작자 미상, 「김원전」

24

▶ 23051-0084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비복이 자신이 경험한 내용을 승상 부부에게 거짓으로 이야기하는 공간이다.
- ② ㉡은 김원이 자신의 정체를 가족들에게 드러내는 데 실패한 공간이다.
- ③ ㉡은 공주가 김원의 초현실적 능력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공간이다.
- ④ ㉡은 김원과 공주가 아귀에 대항하기 위해 협력을 하는 공간이다.
- ⑤ ㉡은 아귀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공주의 제안을 거절하는 공간이다.

25

▶ 23051-0085

윗글의 소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허물’은 승상이 김원의 정체를 믿는 데 도움이 되는 소재이다.
- ② ‘준마 천여 필’은 원수가 공주를 구출하기로 결심하는 데 계기가 되는 소재이다.
- ③ ‘독한 술’은 원수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소재이다.
- ④ ‘비수’는 원수가 아귀를 물리치는 과정에서 원수에게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소재이다.
- ⑤ ‘재’는 아귀가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지 못하도록 하는 소재이다.

26

▶ 23051-0086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고전 소설에서 변신을 하는 주체는 자아의 속성을 다른 대상에게 노출시키는 경우도 있고, 도리어 자아의 속성을 다른 대상에게 알려지지 않게 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변신을 통해 정체성을 확인하거나 정체를 숨기는 과정이 자신의 의지에 따라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타자의 결정에 따라 변신을 겪게 되는 경우도 있다.

- ① ‘승상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였다는 것을 볼 때, 김원이 ‘십 년 고생’을 하는 동안은 김원이 천상계에서 지상으로 내려온 존재라는 속성이 승상 부부에게 노출되지 않은 시기라 할 수 있다.
- ② 옥황상제가 남두성에게 ‘십 년 동안 허물을 쓰고 세상을 보지 못하게 하였’다는 것을 볼 때, 김원이 허물을 쓴 것은 타자의 결정에 따라 변신을 겪은 것이라 할 수 있다.
- ③ 김원이 ‘십 년 동안을 보자기 속에 들어 있었’다는 것을 볼 때, 김원이 ‘소년 선동’의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나타난 것은 변신을 통해 자아의 속성이 다른 대상에게 노출된 것이라 할 수 있다.
- ④ 김원이 공주에게 ‘어쨌거나 변신을 할 것’이라 말한 것을 볼 때, 공주가 변신한 김원을 데리고 아귀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는 것은 김원에게 남두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깨닫게 해 주려는 공주의 의도가 드러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 ⑤ 김원이 ‘그놈의 진위를 살피게 수건에 싸서 들어가소서’라고 말한 것을 볼 때, 김원이 ‘몸을 흔들어 작은 주먹만 한 수박으로 변신’한 것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정체를 숨긴 것이라 할 수 있다.

27

▶ 23051-0087

〈보기〉의 선생님의 설명을 바탕으로 윗글과 ㉠의 공통점을 파악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선생님: ‘기존 세계’에 있던 김원은 지하국이라는 ‘다른 세계’에 진입하여 공주를 만납니다. 이처럼 ‘기존 세계’의 존재가 이물(異物)에 의해 강제로 ‘다른 세계’로 끌려가거나, 주인공이 이물에게 붙잡힌 대상을 구출하기 위해 힘든 관문(關門)을 뚫고 여러 과업을 수행하고 돌아오는 구조의 서사는 설화에서 소설에 이르기까지 흔히 나타납니다. ㉠아래 설화를 읽고 윗글과 비교하여 감상해 볼까요?

옛적에는 순창 읍내가 남원군 채계산 밑 적성강가에 가까이 있었다는데 그때 순창의 원님이 내려오면 그날 밤 채계산 금돼지가 내려와서 원님 마누라를 업어 가고 업어 가고 하더라. 그래서 순창골 원으로 온 사람은 모두 마누라를 빼앗겼지. 그런데 어떤 원이 새로 내려와서 그 금돼지가 어디 사는가 알아보려고 원님 마누라 몸עד 명주실 꾸리를 한끝을 매어 놓고 한쪽은 방에다 두고 실이 풀려 나가게 해 놓았다. 한밤중쯤 되니까 금돼지가 내려와서 원님 마누라를 업고 달아났단 말이지. 이쪽에서는 명주실 꾸리를 풀어 주었어. 그리고 나서 이튿날 아침에 원님은 사령들한테 총이랑 칼이랑 창이랑 군물을 들려 갖고 그 명주실 간 데를 좇아 따라갔어. 그러니까 실은 채계산 위에 있는 굴속으로 들어가 있더라지 뭐야. 그래서 그리로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그 들어 다니는 문은 큰 독으로 딱 막아 놔서 들어갈 수가 없더라. 그런데 어떻게 어떻게 해서 겨우 그 독을 치고 굴안으로 들어가 보니 금돼지는 어디 가고 없고 원님 마누라하고 다른 여자가 아홉이나 있더라. 원님은 자기 마누라랑 여러 여자를 모두 다 구해서 나왔다. 그 굴은 지금도 채계산에 있어. (후략)

- 임석재 채록, 「원님 마누라를 잡아가는 금돼지」

- ① 이물이 있는 곳이 화려한 모습으로 그려져 있는데, 이는 주인공이 있던 ‘기존 세계’와 대비되고 있어.
- ② ‘다른 세계’에 진입한 주인공이 비현실적인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주인공의 영웅성이 부각되고 있어.
- ③ 주인공이 ‘다른 세계’의 이물과 대결하는 장면을 통해 주인공의 가치관이 변화하는 과정을 드러내고 있어.
- ④ 주인공이 이물을 만나기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기존 세계’의 존재가 넘어서야 하는 관문이 나타나 있어.
- ⑤ 이물에 의해 ‘다른 세계’로 끌려온 존재들의 행위로 인해 이물이 주인공에게 가하는 위협이 점차 심화되고 있어.

[28~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집은 건축물로서의 의미를 넘어, 생활 공동체의 근거지라는 가치를 함의한다. 가족들에게 집이란 거주 공간이면서, 가족 구성원들에게 안정성을 보장하는 사적(私的) 영역이다. 안정성이란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지속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가능성에서 비롯된다. 정착이 특정한 공간을 점유하고 그 공간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고려할 때, 정착을 통해 집은 물리적 공간에서 개인적·심리적 가치를 지닌 장소로 바뀔 수 있다.

외부 세계의 물리적·심리적 위협으로부터 보호와 안락을 제공하는 안식처로서의 집은, 가족들에게 자신들만의 고유한 가치를 부여한다. 일상생활을 함께 영위하면서 구성원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외부 세계를 고찰하고 해석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성원들 간의 동질감은 생활 공동체를 유지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한다. 이때 집은 구성원들의 유대 관계를 형성하는 심리적 터전의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가족들이 집에 함께 머문다는 것은 결속을 강화하여 외부 세계의 위협에 맞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집을 짓는다는 것은 정착의 의지를 드러내는 일이다. 그런데 정착의 의지가 쉽게 실현되지 못하는 까닭은 정착의 문제가 사회적 권력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사회적 권력이란 타인을 지배할 수 있는 공인된 권리와 힘을 가리킨다. 정착의 의지와 사회적 권력 사이에 마찰이 발생할 때 집에 대한 주권의 문제가 대두된다. 이때 집에 대한 주권 문제는 소유권의 문제와 연관된다. 집에 대한 소유권을 보장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정착의 의지가 쉽게 실현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주거 환경의 개선과 같이 정착을 지속할 수 있는 조건들 역시 변화시키기 쉽지 않다.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은 삼 남매를 포함한 가족들이 자신들이 지은 집을 지켜 나가는 과정을 형상화하고 있다. 특히 형제인 **두 인물**의 관점으로 정착에 대한 열망을 부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 가족들의 결속이 경험의 공유와 기억의 축적에 의해 강화되었음을 드러낸다. 또한 집이 당대 가족들의 경험뿐만 아니라 정착을 열망해 온 선조들의 역사가 중첩된 장소임을 강조한다.

(나) “너희들은 엄마를 잘못 두어 이 고생이다. 아버지하고는 상관없단다.”

어머니는 장남인 **㉠** 나에게만 말했다. 외할머니에게 들은 말을 나에게 전한 것이었다. 천년을 두고 우리의 조상은 자손들에게 이 말을 남겼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었다. 아버지도 씨종의 자식이었다.

할아버지의 아버지 대에 노비제는 사라졌다. 증조부 내외분은 아무것도 몰랐다. 나중에서야 해방을 맞았다는 것을 알았으나 두 분이 한 말은 오히려 ‘저희들을 내쫓지 마십시오.’였다. 할아버지는 달랐다. 할아버지는 유습에서 벗어나려고 했다. 늙은 주인은 할아버지에게 집과 땅을 주었다. 그러나 쓸데없는 일이었

다. 모르는 면에서는 할아버지나 증조부나 같았다. 증조부 대까지는 선조들이 살아온 경험이 도움이 되었으나 할아버지 대에는 그것이 도움을 주지 못했다. 할아버지에게는 어떤 교육도 없었고 경험도 없었다. 할아버지는 집과 땅을 잃었다.

“할아버지도 난쟁이었어?”

언젠가 영호가 물었다.

나는 영호의 머리를 쥐어박았다.

좀 큰 영호는 말했다.

“왜 지난 일처럼 쉬쉬하는 거야? 변한 것이 없는데 우습지도 않아?”

나는 가만있었다.

영희는 손수건을 꺼내 두 눈에 대었다 떼었다. 아버지는 계속 책을 읽었다. 어머니는 뒷집 명희 어머니와 이야기하고 있었다.

“얼마에 파셨어요?”

“십칠만 원 받았어요.”

“그럼 시에서 주겠다는 이주 보조금보다 얼마 더 받은 셈이죠?”

[A] “이만 원 더 받았어요. 영희네도 어차피 아파트로 못 갈 거 아녜요?”

“무슨 돈이 있다구!”

“분양 아파트는 오십팔만 원이구 임대 아파트는 삼십만 원이래요. 거기다 어느 쪽으로 가든 매달 만 오천 원씩 내야 된대요.”

“그래 입주권을 다들 팔고 있나요?”

“영희네도 서두르세요.”

어머니는 괴로운 얼굴로 서 있었다. 어머니를 명희 어머니가 다그쳤다.

“저희는 내일이라도 떠날 준비가 돼 있어요, 영희네가 돈을 해준다면. 집이야 도끼질 몇 번이면 무너질 테구.”

영희의 눈에 다시 눈물이 괴었다. 커도 마찬가지로였다. 계집애들은 잘 울었다. 내가 영희 옆으로 다가갔을 때 영희는 장독대 바닥을 가리켰다. 장독대 시멘트 바닥에 ‘명희 언니는 큰오빠를 좋아한다’고 씌어져 있었다. 집을 지을 때 남긴 **㉡** 낙서였다. 영희가 웃었다. 우리에게는 그때가 제일 행복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도랑에서 돌을 저 왔다. 그것으로 계단을 만들고, 벽에는 시멘트를 쳤다. 우리는 아직 어려 힘드는 일을 못 했다. 그래도 할 일이 많았다. 우리는 며칠 동안 학교에 가지 않았다. 하루하루가 즐거웠다. 처음 보는 사람들이 하루에도 몇 차례씩 떼를 지어 동네를 돌았다. 그때만은 더러운 옷을 입은 어린아이들도 울음을 그쳤다. 옥박지르는 주인의 기세에 눌린 개들도 짖기를 멈추고 뒤로 물러섰다. 온 동네가 조용해졌다. 갑자기 평화스러워져 어안이 병병할 정도였다. 나는 우리 동네에서 풍기는 냄새가 창피했다. 그들은 아버지에게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그들과 악

수할 때 아버지는 발뒤꿈치를 들었다. 아버지가 어떤 자세를 취했건 상관이 없었다. 난쟁이 아버지가 우리들에게는 거인처럼 보였다.

“너 봤지?”

내가 물었다.

영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봤어.”

영희가 말했다.

그때 아버지에게 허리를 굽혀 인사한 사람은 개천에 다리를 놓고 도로를 포장하고, 우리 동네 건물을 양성화시켜 주겠다고 말했다. 우리는 어른들을 따라 크게 크게 손뼉을 쳤다. 다음 사람은 먼저 사람이 다리를 놓고, 도로를 포장하겠다고 하니 구청장으로 보내고, 자기는 이리이러한 **나랏일을** 하겠으니 그 일을 하게 해 달라고 말했다. 어른들은 또 손뼉을 쳤다. 우리도 따라 쳤다. 커서까지 나는 그때 일을 종종 생각하고는 했다. 두 사람의 인상은 아주 진하게 나의 머릿속에 남았다. 나는 그들을 증오했다. 그들은 거짓말쟁이었다. 그들은 엉뚱하게도 계획을 내세웠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계획이 아니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많은 계획을 내놓았다. 그런데도 달라진 것은 없었다. 설혹 무엇을 이룬다고 해도 그것은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었을 것이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우리의 고통을 알아주고 그 고통을 함께 저 줄 사람이었다.

(중략)

행복동 생활의 마지막 며칠은 우리에게 악몽과 같았다. 우리는 영희를 찾아 헤매었다. 영희를 본 사람은 없었다. 영희는 가방도 들지 않고 집을 나갔다. 갖고 나간 것은 줄 끊어진 기타와 팬지꽃 두 송이뿐이었다. **⑥ 나는** 좀 큰 돌멩이를 집어던졌다. 이 번에도 소리를 들을 수 없었다. 잔물결이 수초 사이로 밀려왔다.

[B] 지섭이 이발관 집 공터를 지나 곧장 걸어오고 있었다. 그의 손에 쇠고기가 들려 있었다. 대문 앞까지 나온 아버지가 그의 손을 잡고 들어갔다. 아버지가 쇠고기를 부엌 안 어머니에게 넘겨주었다. 부엌 안에 연기가 자욱했다. 형이 안쪽 아궁이 앞에 엎드려 불을 피우고 있었다. 형은 눈물을 씻으면서 일어나 아궁이에 나무를 넣었다. 어머니는 밖으로 나와 눈물을 씻었다. 우리는 며칠 동안 명희네 집에서 나온 나무를 쪼개 때었다. 형은 명희네 안방 문설주를 쪼개 아궁이에 넣고 나왔다. 형의 몸에서 연기 냄새가 났다. 아버지가 발은기침을 했다. 아버지와 지섭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섭은 아버지에게 빌려준 책을 읽었다. 아버지는 그가 감옥살이를 했다고 말했다. 아버지에 의하면 그는 잘못된 것도 없이 감옥에 갔었다. 그는 마루에 걸터앉아 책을 읽었다. 형과 나는 시멘트 담 앞에 서서 밖을 내다보았다. 집들이 다 헐려 곧바로 동사무소가 보였다. 그 너머로 밝고 깨끗한 주택가가 보였다. 그 바른쪽은 슈퍼마켓이 있는 큰길이다. 영희가 한때 일한 **⑦ 빵집**이 보였다. 형과 내가 유리창 밖에서 본 영

희는 정말 예뻐다. 아무도 영희가 난쟁이의 딸이라는 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우리는 끝내 영희를 찾지 못했다.

부엌에서 고깃국 끓는 냄새가 났다. 고기 굽는 냄새도 났다. 어머니가 상을 내려 행주질을 했다. 동사무소 앞에 사람들이 서 있었다. 쇠망치를 든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헐어 버린 집들 공터를 가로질러 우리 집을 향해 오고 있었다. 내가 대문을 잠갔다. 어머니가 밥상을 차렸다. 형이 상을 들어다 마루에 놓았다. 형은 나를 걱정했다. 괜한 걱정이었다. 그들이 쇠망치로 머리를 내리친다고 해도 나는 가만히 있었을 것이다. 아버지가 먼저 수저를 들었다. 그 옆자리에서 지섭이 수저를 들었다. 어머니는 마루 끝에 앉아 국을 마셨다. 형과 나는 밥을 국에 말았다.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꼼짝도 하지 않고 식사를 했다. 영희가 이 시간에 어디서 어떤 식탁을 대하고 있을지 우리는 알 수 없었다. 우리의 밥상에 우리 선조들 대부분이 묶어 흘러보낸 시간들이 올라앉았다. 그것을 잡아 칼날로 눌렀다면 피와 눈물, 그리고 힘없는 웃음소리와 발은기침 소리가 그 마디마디에서 흘러 떨어졌을 것이다. 대문을 두드리던 사람들이 집을 싸고돌았다. 그들이 우리의 시멘트 담을 쳐부수었다. 먼저 구멍이 뚫리더니 담은 내려앉았다. 먼지가 올랐다. 어머니가 우리들 쪽으로 돌아앉았다. 우리는 말없이 식사를 계속했다. 아버지가 구운 쇠고기를 형과 나의 밥그릇에 넣어 주었다. 그들은 뿌연 시멘트 먼지 저쪽에 서서 우리를 지켜보았다. 그들은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그대로 서서 우리의 식사가 끝나기를 기다렸다. 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가 송농을 떠 왔다. 아버지와 지섭이 송농을 마셨다. 송농을 다 마시자 어머니가 밥상을 들었다. 내가 먼저 내려가 잠갔던 대문을 열었다. 어머니는 밥상을 들고 밖으로 나갔다. 형이 이불과 옷가지를 싼 보따리를 메고 뒤따라 나갔다. **쇠망치를 든 사람들은** 무너진 담 저쪽에서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우리는 어머니가 싼 짐을 하나하나 밖으로 끌어냈다. 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가 조리·식칼·도마 등을 들고나왔다.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나왔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공구들이 들어 있는 부대를 메고 나왔다. 쇠망치를 든 사람들 앞에 쇠망치 대신 종지와 불펜을 든 사나이가 서 있었다. 그가 아버지를 보았다. 아버지가 바른손을 들어 집을 가리키고 돌아섰다. 쇠망치를 든 사람들이 집을 쳐부수기 시작했다. 한꺼번에 달라붙어 집을 쳐부수었다. 어머니는 돌아앉아 무너지는 소리만 들었다. 북쪽 벽을 치자 지붕이 내려앉았다. 지붕이 내려앉을 때 먼지가 올랐다. 뒤로 물러섰던 사람들이 나머지 벽에 달라붙었다. 아주 쉽게 끝났다. 그들은 쇠망치를 놓고 땀을 씻었다. 사나이가 종지에 무엇인가 써넣었다. 지섭이 들고 있던 책을 아버지에게 주었다. 그는 사나이를 향하여 걸어갔다.

“방금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지섭이 물었다. **사나이는** 몇 초 후에야 지섭의 말을 알아들었다. 그가 말했다.

“삼십 일까지 철거를 하게 돼 있었죠? 시한이 지났어요. 행정 대집행법에 따라 철거 작업을 했습니다. 더 이상 할 이야기도 없습니다.”

사나이가 돌아서려고 했다.

지섭이 재빨리 말했다.

“지금 선생이 무슨 일을 지휘했는지 아십니까? 편의상 오백 년이라고 하겠습니까. 천년도 더 될 수 있지만, 방금 선생은 오백 년이 걸려 지은 집을 헐어 버렸습니다. 오 년이 아니라 오백 년입니다.”

— 조세희,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28

▶ 23051-0088

[A], [B]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다른 인물들을 바라보는 한 인물의 내면을 제시하고 있다.
- ② [B]는 인물들이 반복적으로 보이는 행동을 제시하여 인물들 간에 발생한 갈등의 원인에 대해 밝히고 있다.
- ③ [A]는 인물들의 대화를 제시하여, [B]는 인물이 과거에 한 말을 제시하여 감추어졌던 사실을 드러내고 있다.
- ④ [A]는 일어난 사건의 순서를 바꾸어, [B]는 한 인물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어 제시하여 활발해지는 공간의 분위기를 부각하고 있다.
- ⑤ [A]와 [B]는 모두 시선의 이동을 통해 관찰한 인물들의 행위를 제시하고 있다.

29

▶ 23051-0089

(가)의 두 인물을 바탕으로 ㉠, ㉡를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증조부가 노비 제도가 없어졌음에도 유습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 ② ㉡는 아버지가 누군가에게서 책을 빌린 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다.
- ③ ㉠은 아버지가 거인처럼 보일 때 그 광경을 보지 못한 ㉡를 책망했다.
- ④ ㉡는 쇠망치를 든 사람들이 집으로 접근할 때 ㉠이 ㉡ 자신에 대해 괜한 걱정을 한다고 생각했다.
- ⑤ ㉠과 ㉡는 동생을 찾아 함께 나섰지만 동생의 행방을 찾는 데에 실패했다.

30

▶ 23051-0090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으로 인해 ‘나’는 현재와 대비되는 과거의 상황을 떠올린다.
- ② ㉡에서 ‘나’는 타인들이 영희와 아버지의 관계를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 ③ ㉠으로 인해 ‘나’가 숨기려던 사실이 밝혀지고, ㉡에서 ‘나’는 영희를 찾을 수 있는 실마리를 찾게 된다.
- ④ ㉠은 ‘나’에게 집을 짓는 과정을, ㉡은 ‘나’에게 영희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게 한다.
- ⑤ ㉠과 ㉡을 통해 ‘나’는 과거에 긍정적인 감정을 느꼈던 순간을 상기한다.

31

▶ 23051-0091

(가)를 바탕으로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나랏일’을 하려는 사람이 제시한 계획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네에 변화가 없었던 것은, 집에 대한 소유권을 보장받지 못한 상황에서 주거 환경이 쉽게 변화할 수 없음을 나타내겠군.
- ② ‘나’가 담 밖을 내다보고 깨끗한 주택가를 발견하는 것은, 외부 세계에 대한 관찰과 해석을 통해 새로운 심리적 터전으로 옮겨 가고자 하는 ‘나’의 희망을 보여 주겠군.
- ③ ‘쇠망치를 든 사람들’이 ‘우리’ 식구들의 식사 광경을 지켜보는 것은, 담이 무너짐으로써 사적 영역인 ‘우리’ 집이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었음을 나타내겠군.
- ④ ‘사나이’가 철거의 정당성을 ‘행정 대집행법’에 따른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가족이 정착할 수 있는 집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 권력의 지배를 받고 있음을 보여 주겠군.
- ⑤ ‘지섭’이 ‘사나이’에게 철거를 오백 년이 걸려 지은 집을 헐어 버린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선조들로부터 이어진 정착의 열망이 훼손당한 것을 ‘지섭’이 의식하고 있음을 드러내겠군.

[32~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 잃어버렸습니다.

무얼 어디다 잃었는지 몰라
두 손이 주머니를 더듬어
길에 나아갑니다.

㉡ 돌과 돌과 돌이 끝없이 연달아
길은 돌담을 끼고 갑니다.

㉢ 담은 쇠문을 굳게 닫아
길 위에 긴 그림자를 드리우고

㉣ 길은 아침에서 저녁으로
저녁에서 아침으로 통했습니다.

돌담을 더듬어 눈물짓다
쳐다보면 하늘은 부끄럽게 푸릅니다.

㉤ 풀 한 포기 없는 이 길을 걷는 것은
담 저쪽에 내가 남아 있는 까닭이고,

내가 사는 것은 다만,
잃은 것을 찾는 까닭입니다.

- 윤동주, 「길」

(나) 오늘도 하루 잘 살았다

굽은 길은 굽게 가고
곧은 길은 곧게 가고

막판에는 나를 신고
가기로 되어 있는 차가
제시간보다 일찍 떠나는 바람에

㉠ 걷지 않아도 좋은 길을 두어 시간
땀 흘리며 걷기도 했다

그러나 그것도 나쁘지 아니했다
걷지 않아도 좋은 길을 걸었으므로
만나지 못했을 뻔했던 싱그러운
바람도 만나고 수풀 사이
빨강게 익은 명석딸기도 만나고
해 저문 개울가 고기비늘 찍으러 온 물총새
물총새, 쪽빛 날갯짓도 보았으므로

이제 날 저물려 한다

길바닥을 떠돌던 바람은 잠잠해지고
새들도 머리를 숲으로 돌렸다
오늘도 하루 나는 이렇게
잘 살았다.

- 나태주, 「사는 일」

32

▶ 23051-0092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서술어만으로 행을 구성하여 시적 상황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있다.
- ② ㉡: 같은 시어를 반복하며 계속 이어지는 담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 ③ ㉢: 대상을 의인화하여 대상이 지닌 긍정적 이미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④ ㉣: 시간의 흐름을 연속적으로 제시하여 길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⑤ ㉤: 걷는 길의 모습을 제시하며 화자가 처한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33

▶ 23051-0093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막판’ 즈음에 벌어진 일로 인해 ‘나’가 걷게 된 길이다.
- ② ‘땀’과 시간의 소비라는 예상치 못한 것들을 ‘나’가 겪게 되는 길이다.
- ③ ‘바람’과 ‘명석딸기’, ‘물총새’ 등 만나리라 생각지 않았던 대상들을 ‘나’가 만나게 되는 길이다.
- ④ ‘바람’이 잠잠해지고 ‘새들’이 ‘숲’으로 돌아가게 된 사연을 ‘나’에게 들려준 길이다.
- ⑤ ‘나’가 자신의 ‘하루’에 대해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경험들을 제공한 길이다.

실전 모의고사 1회

실전 모의고사 2회

실전 모의고사 3회

실전 모의고사 4회

실전 모의고사 5회

34

▶ 23051-0094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문학에서 성찰을 통한 자기 고백은 타자화된 시선, 즉 타인이 자신을 바라보듯 스스로의 내면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는 현실적인 자아와 이상적인 자아를 교차시킴과 동시에 잊고 싶었거나 부끄러운 순간들을 시 속으로 다시 불러내 마주하게 하여 자기 정화를 이루도록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부조리한 현실에 대응할 수 있는 의지와 태도를 드러내거나 일상에서 얻은 깨달음을 드러낸다. 「길」이나 「사는 일」에서는 길을 걷는 행위를 인생사와 동일시하면서 그 속에서 얻은 깨달음을 화자의 목소리를 통해 드러내거나, 예상하지 못했던 순간들에서 얻은 깨달음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성찰적 태도를 나타낸다. 그리고 이러한 성찰들이 작품을 통해 공동체 사회에 전달됨으로써 우리가 이어 가야 할 가치를 전승한다는 의의를 지닌다.

- ① (가)의 화자가 ‘잃은 것을 찾는’ 행위가 삶의 이유라고 하는 것은 시인이 부조리한 현실에 대응하고자 하는 의지와 태도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② (가)의 화자가 ‘하늘’이 푸르른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것은 현실에 안주하여 이상적인 자아를 찾지 않던 부끄러운 순간들을 떠올리며 자기 정화를 시도하기 때문이겠군.
- ③ (나)의 화자가 ‘굽은 길’과 ‘곧은 길’을 걷은 하루의 삶을 ‘잘 살았다’고 평가하는 것은 시인이 ‘길’을 걷는 것과 인생사를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겠군.
- ④ (나)의 화자가 ‘제시간’을 지키지 못한 ‘차’로 인해 겪은 일들을 노래한 것은 시인이 삶에서 잊고 싶었던 순간들을 불러내어 스스로를 성찰하는 모습을 드러낸 것이겠군.
- ⑤ (나)의 화자가 ‘그러나 그것도 나쁘지 아니했다’라고 한 것은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일들도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고, 여기에서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가치 있는 삶의 모습을 전달하고자 한 것이겠군.

[35~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피동문과 사동문은 어떤 기준 문장과 대조되는 용어로 사용된다. 그 기준 문장은 피동문과 대조해서는 능동문이라고 하고 사동문과 대조해서는 주동문이라고 한다.

- (ㄱ) 호랑이가 고기를 먹었다.
- (ㄴ) 고기가 호랑이에게 먹혔다.
- (ㄷ) 사육사가 호랑이에게 고기를 먹였다.

(ㄱ)을 기준 문장으로 하여 피동사 ‘먹히다’가 사용된 피동문(ㄴ)과 사동사 ‘먹이다’가 사용된 사동문(ㄷ)이 성립된다. 그러므로 (ㄱ)은 피동문과 대조해서는 능동문이 되고, 사동문과 대조해서는 주동문이 된다.

능동문의 목적어는 피동문에서 주어라 되고 능동문의 주어는 피동문에서 부사어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때 부사어는 종종 생략된다. 이와 반면에 사동문에서는 사동주라고 불리는 새로운 참여자를 도입한다. 사동주는 사동문에서 피사동주라고 불리는 주동문의 주어라 하는 행위나 처한 상태를 야기하는 주어로 사용한다. 이 때문에 피동문에 비해 사동문은 그 구조가 훨씬 복잡하다.

- (ㄹ) Y가 자동사/형용사.
⇒ X가 Y를 사동사.
⇒ X가 [Y가 자동사/형용사]-게 하다.㉠
⇒ X가 Y를 [(Y가) 자동사/형용사]-게 하다.㉡
- (ㅁ) Y가 Z를 타동사.
⇒ X가 Y에/에게 Z를 사동사.㉢
⇒ X가 [Y가 Z를 타동사]-게 하다.㉣
⇒ X가 Y에/에게 [(Y가) Z를 타동사]-게 하다.㉤

(ㄹ)과 (ㅁ)에서 사동사를 사용한 사동문은 홑문장이므로 구조가 단순한 반면, ‘-게 하다’ 사동문의 구조는 다소 복잡하다. (ㄹ)과 (ㅁ)의 ‘-게 하다’ 사동문에서는 주동문이 부사형 어미 ‘-게’가 이끄는 부사절로 안겨 있다. 절에는 원칙적으로 주어라 있어야 하므로 (ㄹ)과 (ㅁ)의 부사절인 [] 속에도 주어라 있어야 하는데, 그 주어인 Y는 [] 앞에 있는 목적어나 부사어와 같은 말이므로 생략된다. 이에 더해 사동문 ㉢과 ㉤에서는 ‘Y에/에게’ 대신에 ‘Y를’을 쓰는 것도 가능하여 그 구조가 좀 더 복잡한 양상을 띤다.

35

▶ 23052-0095

㉠~㉣의 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그때 마술사는 장미가 저절로 피게 했다.
- ② ㉡: 누나의 고통이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 ③ ㉢: 선영이 언니는 그 집에 이삿짐을 옮겼다.
- ④ ㉣: 할아버지께서 내가 그 일을 하게 하셨다.
- ⑤ ㉤: 동생이 나에게 그 상품을 구입하게 했다.

36

▶ 23052-0096

윗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의 ㄱ~ㄴ 중 적절한 진술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보기

- ㄱ. 사동문에 있는 사동주를 제거하면 피동문이 된다.
- ㄴ. “엄마가 나를 안았다.”는 ‘엄마’가 주체가 되어 행동한 것이므로 “나는 엄마에게 안겼다.”와 대조하면 능동문이다.
- ㄷ. ‘-게 하다’ 사동에서 피사동주가 목적으로 나타나면 ‘-게’가 이끄는 부사절에서 주어는 나타나지 않는다.
- ㄹ. “나는 개를 밥을 먹였다.”는 안긴문장의 주어인 ‘개가’가 목적어 ‘개를’로 됨으로써 만들어진 문장이다.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37

▶ 23052-0097

<보기>의 ㄱ~ㄴ에서 음운 변동이 일어난 횟수를 바르게 비교한 것은?

보기

- ㄱ. 흠이불[흔니불] ㄴ. 갸히다[가치다]
- ㄷ. 꽃밭만[꼴뵤만] ㄹ. 짓밟는[진뵤는]

- ① ㄷ=ㄹ > ㄱ=ㄴ
- ② ㄷ=ㄹ > ㄱ > ㄴ
- ③ ㄷ > ㄹ > ㄴ > ㄱ
- ④ ㄹ > ㄷ > ㄱ > ㄴ
- ⑤ ㄹ > ㄷ > ㄴ > ㄱ

38

▶ 23052-0098

<보기>의 ㉠~㉣을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우리말 어미는 위치에 따라 선어말 어미와 어말 어미로 구분되고, 어말 어미는 기능에 따라 종결 어미, 연결 어미, 전성 어미로 나뉜다. 전성 어미는 결합하는 용언이 어떤 품사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지에 따라 명사형 어미, 관형사형 어미, 부사형 어미로 나뉜다.

다음 문장에 쓰인 어미를 분석해 보자.

- 더 열심히 ㉠ 노력했다면, 더 나은 결과를 ㉡ 얻었겠지.
- ㉢ 찬란하게 ㉣ 빛나는 태양은 우리의 ㉤ 밝은 미래를 ㉥ 상징합니다.

- ① ㉠, ㉡에서는 각각 동일한 개수의 어미가 분석된다.
- ② ㉢, ㉣에서는 하나의 종결 어미가 분석된다.
- ③ ㉤, ㉥에서는 동일한 기능을 하는 어미가 분석된다.
- ④ ㉢, ㉣, ㉥에서는 각각 한 개의 어미만 분석된다.
- ⑤ ㉠~㉥에서는 각각 한 개의 어말 어미가 분석된다.

39

▶ 23052-0099

<보기>의 ㉠에서의 모음 조화와 ㉡에서의 모음 조화를 모두 확인 할 수 있는 예들로 적절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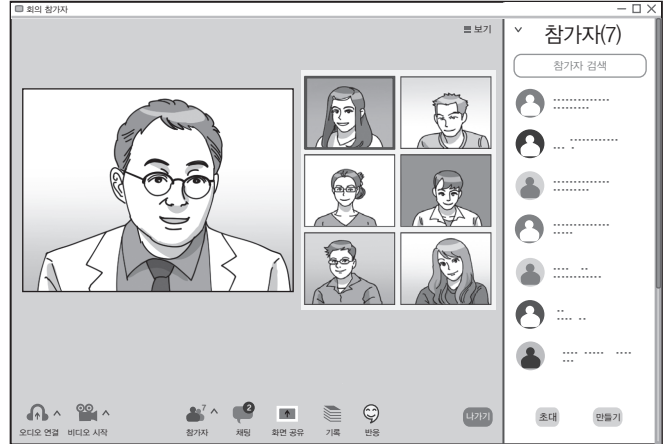
보기

중세 국어에서 양성 모음과 음성 모음은 체계적인 대립을 이루었으므로 모음 조화가 현대 국어보다 잘 지켜졌다. 양성 모음과 음성 모음의 대립은 단모음뿐만 아니라 단모음을 포함한 이중 모음에서도 확인된다. 중세 국어의 모음 조화는 ㉠하나의 형태소 내부, ㉡체언과 조사의 결합, 어간과 어미의 결합 등에서 나타날 수 있었다.

- ① 누네(눈에), 고대(곳에)
- ② 안춤(앉음), 업숨(없음)
- ③ 저거(적어), 자가(작아)
- ④ 아드릭(아들의), 구루미(구름의)
- ⑤ 도련ㅎ다(동그랗다), 두련ㅎ다(동그랗다)

[40~45] (가)는 비대면 온라인 인터뷰의 일부이고, (나)는 인터뷰에 참가한 학생이 찾은 자료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비대면 온라인 인터뷰



학생 1: 안녕하세요? 저희 동아리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국은 지금 늦은 밤이지요? 화면과 소리 상태는 괜찮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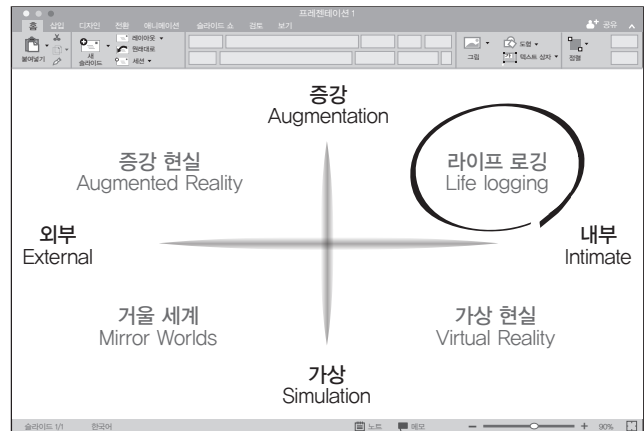
연구원: 네, 잘 들리고 손 흔들어 인사하시는 분들 모습도 잘 보입니다. 정보 통신 동아리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메타버스 연구를 하고 있는 조○○ 연구원입니다.

학생 1: 동아리 주제 발표 영상을 준비하면서 학생들이 가장 알고 싶은 주제로 메타버스를 꼽아서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먼저 메타버스의 개념은 무엇인가요?

연구원: 메타버스는 미국의 공상 과학 소설에서 처음 언급된 말로 완벽하게 정의가 내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디지털 연결이 진화하면서 우리는 현실의 물리 법칙이 적용된 가상 공간에서 사회·경제·문화 활동을 하고 있지요. 이러한 3차원 가상 세계를 ‘메타버스’라는 용어로 포괄하여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생 2: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이라 사실 이해가 어렵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연구원: 일반적으로 메타버스는 구현되는 공간과 정보 유형에 따라 라이프 로깅, 거울 세계, 증강 현실, 가상 현실로 분류하는데요. (파일을 찾아 공유하고) 공유한 화면을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라이프 로깅은 (화면의 글자에 동그라미를 하며) 현실에

서 겪은 경험이나 정보를 디지털 플랫폼에 기록하여 저장, 공유하는 활동을 가리키는데, 대표적인 예가 누리 소통망(SNS)입니다. 라이프 로깅은 스스로가 기록하여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스마트폰의 위치나 검색 내역 등이 기록될 수도 있는데요, 이 기록들은 빅데이터로 정리되어 ㉔ 다른 메타버스를 활용하는 요소가 됩니다. 거울 세계는 실제 세계의 모습, 정보 등을 디지털 세계에 복사하듯 가져와 만든 메타버스입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에서 지도 앱을 켜면 우리 동네와 똑같은 동네가 나오는데 이것을 거울 세계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세계는 원하는 정보만 가공하여 보여 주기 때문에 현실 세계와는 다릅니다. 증강 현실은 현실 세계라는 바탕에 디지털 요소를 가미해서 덧칠을 하는 것으로 실존하는 물건이나 사람이 있어야만 완성되는 세계입니다. 실제 세계에 다양한 가상 필터 이미지를 덧입히면 누구든 만화나 게임 속 주인공이 될 수 있죠.

학생 2: 혹시 게임 속 캐릭터를 현실 세계에서 찾을 수 있게 하여 전 세계를 사냥터로 만든 것도 바로 증강 현실 기술인가요?

연구원: 네, 맞습니다. 증강 현실이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 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상 현실은 우리가 메타버스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으로 새로운 세상을 디지털화한 것을 의미합니다. 가상 현실은 공간, 시대, 문화, 제도 등 모든 것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고 그렇게 만들어진 디지털 세상에서 새로운 '나'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공간에서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내가 살아가는 것이죠. 영화 「아바타」의 주인공을 떠올려 보면 쉬울 거예요.

학생 3: 메타버스가 이미 우리 삶에 스며들어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미국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인 가상 현실 플랫폼 △△△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기업 가치가 수십 배 올랐다고 들었어요. 많은 기업이 메타버스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어요.

연구원: 맞습니다. 메타버스는 비즈니스 공간의 제공, 아이템의 상거래, 간접 광고, 콘텐츠 제공 등의 속성을 지니고 있어서 기업들이 주목할 만한 시장이죠. 또 채팅 창에 송◇◇ 학생이 사용자의 수익 창출 관련해서도 사례를 알고 싶다고 질문 주셨는데요, 사례는 대단히 많습니다. 시간 관계상 채팅 창에 제 블로그를 링크해 드릴게요.



학생 1: 저는 메타버스가 양날의 검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메타버스로 인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구원: 메타버스 공간에서는 현실 세계와 ㉕ 다른 가치관과 규범이 통용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옳고 그름에 대한 윤리나 사회적 통념도 바뀌고 있죠. 특히 현실과 가상 공간을 구분하지 못하는 탈감각화로 인한 사회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가상 세계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폭력을 행사하고 이를 현실에서도 죄의식 없이 저지른 사건이 이슈가 되기도 했죠. 또한 개인정보 유출로 비밀이 없는 세계가 도래할 것이라는 불안감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를 잘 활용하는 세대와 그렇지 못한 세대의 정보 격차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폭력, 개인 정보 보호 문제, 부족한 대중성 등 해결해야 할 숙제들이 많지만 새로운 미래를 열어 갈 혁신의 아이콘으로서 메타버스의 가능성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직접 부딪쳐 경험하면서 메타버스 세상의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나) 학생이 찾은 자료

a. 인터넷 신문 칼럼

▽▽ 신문

[>> 칼럼] 고령화 문제 해결할 대안, 메타버스에서 찾자!

이□□ 교수
입력 20××.06.26.23:00 | 업데이트 20××.06.27.08:16

2025년 초고령 사회 진입
메타버스로 노인 소통 플랫폼 만들어 선제적 대응
‘은빛 세상’, 소통과 교육, 의료 서비스까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큰 과제 중의 하나가 고령화 문제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5년이 되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20.3%를 돌파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다고 한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메타버스에서 찾을 수 있다.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통 플랫폼(가칭 ‘은빛 세상’)을 만들어 이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은빛 세상’을 구상해 보면, 어르신들이 ‘은빛 세상’에 들어가 가상 아바타로 자신의 모습을 꾸미고, 자신의 생각을 기록하여 공유하도록 한다. 또 자신의 일생 사진을 연도별, 장소별 등으로 정리하여 저장한다. 어르신들이 일생 동안 만났던 인연들을 다시 만날 수도 있다. 그리고 가상 현실[VR] 기기를 통해 세계 각지 여행지의 풍경, 소리, 바람, 냄새까지 보고 듣고 느낄 수도 있다. 다시 만난 사람들과 메타버스 공간에서 여행을 함께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무력감과 외로움에 빠져 있는 어르신들의 삶에 큰 활력이 될 것이다.

‘은빛 세상’은 ‘은빛 학교’나 ‘은빛 병원’과 같은 ㉠ 다른 플랫폼을 파생시킬 수도 있다. 주위를 돌아보면 배움에 대한 갈증이 있지만 먹고사느라 바빠 여유가 없었거나 몸이 불편해 집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어르신들이 많다. ‘은빛 학교’는 이런 어르신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나 개인은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다. 한편 어르신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건강이다. 메타버스 공간에서 다양한 원격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메타버스 서비스를 통해 노인들에게 새로운 생활을 열어 준다면 그들의 삶과 우리 사회를 더욱 건강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 최근 1년간 관련 사건 기사들, 찾아보니 많네요. T T

<https://m.lbo.com/News/Read/26560004267>
<http://www.▽▽news.co.kr/news/aidxno=25861>

메타버스의 이용자인 우리가 이런 상황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데도 관련 법령이나 제도가 최신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합니다.

의견을 함께 나누어요. 공감 클릭! 댓글 적기!

♡공감 19 | ◀ 댓글 11 | ^

b. 개인 블로그

블로그 152개의 글 목록 열기

열아홉 살이 꿈꾸는 세상

URL 복사 +이웃 추가

메타버스 이대로 괜찮은가?

<1> 현실 세계에서의 안전 문제

요즘 걷거나 운전하는 중에 스마트폰을 보는 사람들로 인한 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증강 현실 게임은 이용자를 몰입하게 하기 때문에 게임 이용자는 물론 주변 사람들에게 안전사고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무단 침입 등의 문제를 야기합니다. 증강 현실 게임에 빠진 ‘스몸비족’(스몸비 클릭)은 자신과 주변의 ㉠ 다른 사람들 모두를 위협에 빠뜨립니다. 따라서 시야를 가리거나 주변을 파악하기 힘들 만큼의 몰입을 요하는 증강 현실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적절한 규제가 필요해 보입니다.



▲ [사진] 증강 현실 게임을 하면서 걸어가는 모습

<2> 메타버스에서의 범죄 문제

메타버스 속의 아이들은 각종 디지털 범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메타버스에서는 마치 현실 세계처럼 생활하며 새로운 친구를 사귀기도 쉽고 자신의 아바타를 치장해 대리 만족을 느낄 수도 있으며 게임 아이템을 만들어 돈을 버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디지털 범죄와 달리 다양한 가치를 침해당할 위험성이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메타버스에서 성적 침해뿐만 아니라 사용자들의 사회적 평가와 재산에 대한 침해가 야기되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특히 메타버스 속 아바타를 자신의 분신과 같이 인식한다는 점에서 피해자에게는 큰 충격이 될 수 있습니다.

40

▶ 23052-0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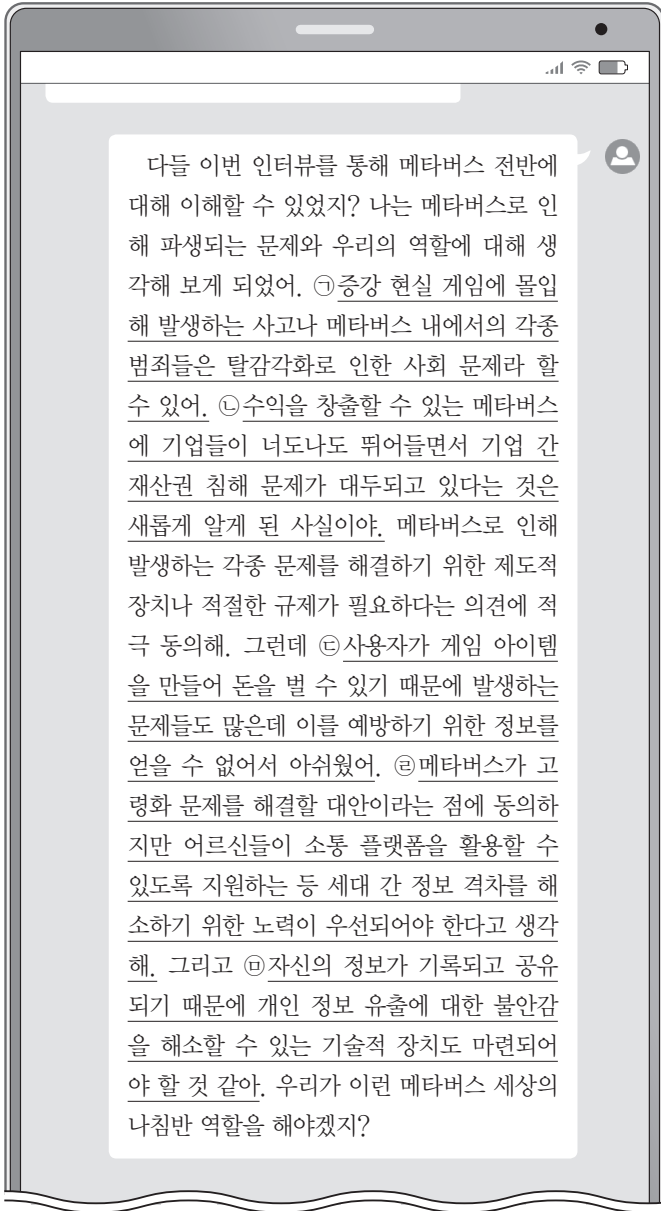
(가)를 통해 알 수 있는 매체의 특성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인터뷰 과정에 문자나 하이퍼링크 등을 사용하고 있어 정보를 복합 양식적으로 구성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다른 공간에 있는 사람과 온라인으로 만나고 있어 대면 인터뷰에 비해 시간적·공간적 제약이 적다고 할 수 있다.
- ③ 여러 명이 함께 실시간으로 인터뷰 과정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진행 중에 궁금한 내용을 즉각적으로 질문하기 어렵다.
- ④ 화면과 소리의 상태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연결 상태에 따라 영상과 음성이 불안정한 경우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화면을 공유하고 해당 내용에 표시하며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대면이지만 전달 내용에 집중하게 하는 수단을 활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41

▶ 23052-0101

다음은 (가)에 참여하고 (나)를 읽은 학생이 동아리 대화방에 올린 글이다. (가)와 (나)를 수용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② ㉡ ③ ㉢ ④ ㉣ ⑤ ㉤

42

▶ 23052-0102

(나)에 나타난 정보 전달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칼럼의 내용을 본문 앞에 요약적으로 제시하여 수용자들이 글의 구성과 핵심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 ② a는 칼럼의 최초 작성 시간과 수정 시간을 병기하여 수용자들이 수정 전과 후의 내용을 비교하여 볼 수 있도록 하였다.
- ③ b는 전달 내용과 관련된 사진과 영상 자료를 제시하여 시각과 청각을 결합함으로써 수용자가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 ④ b는 본문과 글자의 굵기와 형태를 달리하는 소제목에 다른 자료를 연결하여 수용자의 선택에 따라 추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 ⑤ a와 b는 모두 수용자들에게 행동을 촉구하는 제목을 사용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다.

43

▶ 23052-01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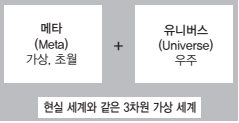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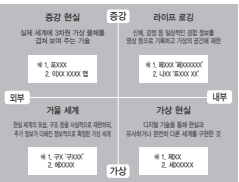

(나)의 a와 b를 수용할 때 유의할 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는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메타버스 플랫폼을 가정하고 그 효과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실효성을 지닌 대안인지 판단해야 한다.
- ② b는 메타버스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지 않은 개인이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신뢰할 수 있는 내용인지 확인해야 한다.
- ③ a는 b와 달리 다수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공식적인 매체이므로 '은빛 세상', '은빛 학교', '은빛 병원'이 보편적으로 수용할 만한 서비스인지 판단해야 한다.
- ④ b는 a와 달리 메타버스 안팎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서로 대립되는 두 주장을 나열하고 있으므로 편파적으로 서술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 ⑤ a와 b는 메타버스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을 보여 주고 있으므로 각 의견이 논리적으로 타당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44

▶ 23052-0104

다음은 (가)와 (나)를 참고하여 작성한 동아리 주제 발표 영상의 스토리보드 일부이다. 학생들이 고려했을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화면	화면 설명	화면 및 음향 효과				
#1	똑똑! 메타버스는 어디에서 타나요?	주의를 환기하고 호기심을 자극하는 제목을 제시함.	실제 노크 소리, 이어 타자 소리에 맞춰 한 글자씩 제시함.				
#2	메타버스란 	어원을 제시하여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	차분하고 잔잔한 음악				
#3	메타버스의 분류 	- 각 유형의 칸에 개념과 대표적인 예를 함께 제시함. - 출처를 제시함.	기준을 먼저 제시하고 각 유형에 대한 내용은 설명 시 하나씩 나타난다.				
#4	메타버스를 활용한 경제 활동 ☆☆☆ 사용자가 게임 아이템을 제작해 수익을 창출하는 가상 세계 플랫폼 <table border="1" data-bbox="191 1265 430 1333"> <tr> <td>과정 1</td> <td>과정 2</td> <td>과정 3</td> <td>과정 4</td> </tr> </table>	과정 1	과정 2	과정 3	과정 4	메타버스를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는 플랫폼을 소개하고 수익 창출 과정을 구체적으로 보여 줌.	각 과정에 해당하는 사진을 차례대로 제시함.
과정 1	과정 2	과정 3	과정 4				
#5	메타버스의 명(明)  <table border="1" data-bbox="191 1546 430 1605"> <tr> <td>사진 1 소통</td> <td>사진 2 교육</td> <td>사진 3 진료</td> </tr> </table>	사진 1 소통	사진 2 교육	사진 3 진료	- 메타버스의 긍정적인 측면을 제시함. - 노인이 컴퓨터 앞에 앉아 메타버스를 활용하고 있는 모습을 제시함.	- 빠르고 경쾌한 음악 - 소통, 교육, 진료 사진을 차례대로 제시함.	
사진 1 소통	사진 2 교육	사진 3 진료					
#6	메타버스의 암(暗) <1> https://m.lbo.com/News/Read/26560004267 <2> http://www.vnews.co.kr/news/aidxno=25861	- 메타버스의 부정적인 측면을 제시함. - 각종 문제를 최근 1년간 사건 기사 중심으로 제시함.	- 느리고 우울한 음악으로 바뀜. - 하이퍼링크로 기사 연결 시 클릭 소리				

- ① (가)에서 언급된 내용 중에서 메타버스를 활용한 수익 창출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였으므로 구체적인 자료를 찾아 보강하여 제시하자.
- ② (가)에서 설명한 메타버스의 유형에 대해 각 유형별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정보의 출처를 찾아 밝힘으로써 신뢰할

만한 정보임을 보여 주자.

- ③ (나)에 제시된 메타버스로 인해 발생한 사건 기사를 직접 연결하여 보여 줌으로써 시의성 있는 정보로 그 심각성을 드러내자.
- ④ (나)에 제시된 메타버스의 명과 암을 각각의 화면으로 구성하고 배경 음악을 내용에 어울리도록 달리 사용하여 전달의 효과를 높이자.
- ⑤ (가)와 (나)에 제시된 메타버스의 정의를 종합하여 개념을 밝히되 그 어원에 착안하여 주의를 환기하고 궁금증을 유발할 만한 제목을 사용하자.

45

▶ 23052-0105

<보기>의 ㉠에 해당하는 예만을 ㉡~㉤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다른’은 ‘해당되는 것 이외의.’를 뜻하는 관형사인 경우가 있고, ‘비교되는 두 대상이 서로 같지 아니하다.’의 의미를 갖는 ㉣ 형용사 ‘다르다’의 관형사형인 경우도 있다.

- ① ㉠
- ② ㉡
- ③ ㉠, ㉢
- ④ ㉡, ㉤
- ⑤ ㉢, ㉤

EBS 수능완성
국어영역



**실전 모의고사
2회**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릅니다. 3점 문항에는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01~0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고전 논리에서는 어떤 진술도 참 또는 거짓이라는 두 개의 진리치만 갖는다. 참과 거짓은 모순 관계이므로 어떤 진술이 참이라면 그 진술을 부정할 경우 진리치는 거짓이 된다. 그래서 모든 진술은 참이거나 거짓이라는 배중률과, 하나의 진술이 참이면서 동시에 거짓일 수 없다는 모순율은 고전 논리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했다. 그런데 ㉠ ‘이 문장은 거짓이다.’(L)처럼 자신이 거짓이라고 말하는 **거짓말쟁이 진술**은, 고전 논리에 따를 경우에는 진리치를 단정할 수 없다. 왜 그럴까?

배중률에 의해서 L은 참이거나 거짓이어야 한다. 우선 L이 참이라고 가정해 보자. 그러면 ‘이 문장은 거짓이다.’가 참이 되어 L은 거짓이 된다. 즉 L은 참이라고 가정하는 동시에 결론은 거짓이라는 의미가 되어 모순율을 위반한다. 따라서 L이 참이라는 가정은 버려야 한다. 이번에는 반대로 L이 거짓이라고 가정해 보자. 그러면 ‘이 문장은 거짓이다.’가 거짓이 되어 L은 참이 된다. 이 또한 모순율을 위반하므로 L이 거짓이라는 가정도 버려야 한다. 하나의 진술에서 상호 모순되는 두 개의 진술이 도출되는 것을 논리적으로 역설이라고 한다. 거짓말쟁이 진술에서는 ‘참이라고 가정하면 거짓’과 ‘거짓이라고 가정하면 참’이 도출되는데 이를 거짓말쟁이 역설이라고 한다.

자기 자신을 말하는 문장 구조가 사용된 진술을 자기 지시성이 있는 진술이라 한다. ‘한국의 수도는 서울이다.’는 한국의 수도가 어디인지 말할 뿐 자기 지시성은 없다. 하지만 ‘이 문장은 한국어 문장이다.’는 자기 자신을 가리키며 그것이 어떤 언어로 이루어져 있는지 말하고 있으므로 자기 지시성이 있다. 20세기 초 타르스키는 거짓말쟁이 진술에 사용된 자기 지시성 때문에 역설이 생긴다고 보았다. 그는 진술의 진리치에 대한 고전 논리의 가정을 고수하는 관점에서 거짓말쟁이 역설을 해결하기 위해 ‘언어 위계론’을 제시하였다.

언어 위계론에서 ‘이 문장이 있다.’는 어떤 사실에 대해 말하는 진술인 대상 언어라 한다. 반면 ‘이 문장이 있다.’에 ‘거짓이다’가 덧붙여진 L은 메타언어라 한다. 메타언어란 대상 언어에 대한 참 또는 거짓을 말하는 진술로 대상 언어에 ‘참이다’ 또는 ‘거짓이다’라는 진리 술어를 덧붙여 만든다. 이때 메타언어는 대상 언어보다 위계가 더 높다. 만약 메타언어 뒤에 진리 술어를 하나 덧붙여 새로운 진술을 만들면, 기존의 진술은 대상 언어가 되고 새로운 진술은 메타언어가 된다. 이러한 이론을 전제로 삼아, 그는 메타언어에 포함된 진리 술어는 자신보다 낮은 위계인 언어만 언급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그 결과 자신에 대해서 참이나 거짓

이라고 말하는 진술은 있을 수 없기에 거짓말쟁이 역설은 해소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타르스키가 언어 위계론을 제안하자 일부 학자들은 ㉡ 고전 논리에 없던 또 다른 규칙을 추가한 것을 지적하면서, 이 때문에 고전 논리의 가정 안에서 역설이 해소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며 이론의 한계를 주장했다. 한편 어떤 학자들은 자기 지시성이 역설의 원인이 아니라는 반론을 제기했다. ‘이 문장은 참이다.’는 자기 지시성이 있지만 역설이 발생하지 않는다. 참이라면 참일 것이고, 거짓이라면 거짓이기 때문이다. 또는 두 진술로 구성된 ‘뒤 문장은 거짓이다. 앞 문장은 참이다.’의 경우 두 진술에는 자기 지시성이 없어도 역설이 발생한다. 앞의 진술을 참이라고 가정하면 뒤의 진술인 ‘앞 문장은 참이다.’는 거짓이 된다. 이는 참이라고 가정하는 동시에 결론은 거짓이 되어 모순율을 위반한다. 반대로 앞의 진술을 거짓이라고 가정하더라도 모순율을 위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세기 후반에는, 진술의 진리치에 대한 고전 논리의 가정을 포기하는 관점에서 거짓말쟁이 진술을 이해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크립키는 참도 아니고 거짓도 아닌 진리치를 가진 진술이 존재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거짓말쟁이 진술이 그러한 사례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프리스트는 참과 거짓인 진술 이외에 ‘참인 동시에 거짓’인 진술이 존재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거짓말쟁이 진술이 그러한 사례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01

▶ 23051-0106

타르스키의 관점에서 ㉠을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은 진리 술어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 ② ㉠은 ‘이 문장이 있다.’보다 위계가 낮다.
- ③ ㉠ 뒤에 ‘거짓이다’를 덧붙이면 ㉠은 대상 언어에 속하지 않게 된다.
- ④ ‘거짓이다’가 ‘이 문장이 있다.’를 언급한 것이라고 본다면 ㉠에 나타난 역설은 해소될 수 있다.
- ⑤ ㉠ 뒤에 ‘참이다’를 덧붙여 새로운 진술을 만들면, ㉠에 포함된 ‘거짓이다’는 새로 만들어진 진술에 대해 언급할 수 있다.

02

▶ 23051-0107

문맥상 ㉠의 의미로 적절한 것은?

- ① 참과 거짓이 모순 관계라고 규정한 것.
- ② 진술을 메타언어나 대상 언어로 구분한 것.
- ③ 진술의 진리치가 두 개보다 많을 수 있다는 것.
- ④ ‘거짓이다’라는 의미의 위계가 ‘참이다’보다 높다고 정한 것.
- ⑤ 진리치가 참인 진술의 개수가 거짓인 진술의 개수보다 더 많다고 간주한 것.

03

▶ 23051-0108

거짓말쟁이 진술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를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크립키는 배중률에 부합하는 사례로 거짓말쟁이 진술이 있다고 주장했다.
- ② 프리스트는 모순율이 반드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에서 거짓말쟁이 진술을 설명했다.
- ③ 타르스키와 크립키는 거짓말쟁이 진술이 참이면서 동시에 거짓인 진술이라고 보았다.
- ④ 크립키는 프리스트와 달리 고전 논리를 지지하는 관점에서 거짓말쟁이 진술을 설명했다.
- ⑤ 타르스키와 프리스트는 거짓말쟁이 진술에는 자기 지시성이 사용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04

▶ 23051-0109

윗글의 내용을 <보기>와 같이 정리할 때, 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자기 지시성 있음.	자기 지시성 없음.
역설임.	A	B
역설이 아님.	C	D

- ① 고전 논리에서는 A에 해당하는 진술을 참이라고 하면 거짓이 되고 거짓이라고 하면 참이 된다.
- ② ‘뒤 문장은 거짓이다. 앞 문장은 참이다.’라는 진술은 B의 사례에 해당한다.
- ③ ‘이 문장은 한국어 문장이다.’라는 진술은 C의 사례에 해당한다.
- ④ ‘신라의 수도는 경주이다.’라는 진술은 D의 사례에 해당한다.
- ⑤ C와 D에 해당하는 진술은 진리 술어를 포함하지 않는다.

05

▶ 23051-0110

윗글과 <보기>를 함께 고려할 때,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기

고등학생인 갑돌이가 ‘모든 고등학생은 거짓말만 한다.’(T1)라고 진술한 경우, 이 진술은 거짓말쟁이 역설로 많이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문장은 거짓이다.’와 달리 ㉠갑돌이의 진술은 역설로 볼 수 없다. 우선 T1을 참이라고 가정한다면, 갑돌이는 모든 고등학생에 포함되므로 T1은 거짓이 된다.

이제 T1을 거짓이라고 가정하자.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모든 a는 b이다.’에 대한 거짓인 진술은 ‘어떤 a는 b가 아니다.’이다. 즉 T1에 대한 거짓인 진술인 ‘어떤 고등학생은 참말을 한다.’(T2)가 참이면 T1은 역설이 된다. 하지만 T2가 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역설로 볼 수 없다.

- ① T1과 T2의 ‘고등학생’에 갑돌이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 ② T2의 ‘어떤 고등학생’이 갑돌이일 수가 있기 때문이다.
- ③ T2의 ‘어떤 고등학생’에 갑돌이의 친구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 ④ T2의 ‘어떤 고등학생’에 갑돌이가 포함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 ⑤ T1과 T2의 ‘고등학생’에 갑돌이의 친구가 제외될 수 있기 때문이다.

[06~1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명목 화폐란 화폐의 겉면인 액면에 표시되어 있는 가격 단위로 거래되는 화폐를 말하며, 표시되어 있는 가격을 명목 가치라 한다. 조선은 명목 화폐를 발행했는데, 화폐의 액면 가격에 제조 비용을 뺀 만큼의 이익인 주조 차익을 남기면 재정 수입의 증가를 ㉔ 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민간에는 미포(米布), 즉 쌀과 베라는 물품 화폐가 ㉕ 두루 쓰이고 있었으나, 태종은 다나무 껍질로 만든 화폐인 저화(楮貨)를 도입했다. 사삼서의 관장 아래 1402년에 최초로 저화 2천장을 발행하면서 저화 1장의 명목 가치는 포 1필 또는 쌀 2말로 맞췄다. 그리고 화폐 개혁의 성공이 화폐에 대한 신뢰에 달려 있다고 보고, 저화를 통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저화의 수요를 창출하는 정책과 ㉖ 저화를 시장에 공급해 주는 정책을 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화의 명목 가치는 그대로인데 시장에서 정해지는 가격인 실질 가치는 계속 하락했다. 미포와 달리 저화의 재료에는 실질 가치가 거의 없어 백성들은 저화 사용을 꺼렸고 재질의 특성상 위조도 ㉗ 매우 잦았기 때문이다.

주화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된 중국을 본 세종은, 저화 대신에 구리로 만든 주화를 도입했다. 주화는 위조가 어렵고 구리의 양에 따른 실질 가치도 있기 때문이었다. 사삼서의 관장 아래 1425년에 조선통보를 발행하면서 주화 1문의 명목 가치는 쌀 1되* 또는 저화 1/2장으로 정했다. 주화와 저화는 ㉘ 아울러 같이 쓰이게 했지만 주화의 정착을 위해 저화의 사용은 얼마 후 금지시켰다. 그런데 화폐 정책의 잦은 변경으로 백성들은 주화를 신뢰하지 않았고 물품 화폐를 더 선호했다. 그 결과 주화의 실질 가치가 명목 가치보다 낮아져 주화로 표시한 물건 가격은 계속 상승했다. 발행 다섯 달 후 시장에서는 주화 3문이 쌀 1되로 거래되고 주화로 표시한 포 가격 역시 상승했다. 또한 주화가 제작되면서 구리의 수요가 늘어 구리의 가격도 상승했기 때문에, 주화의 명목 가치와 재료의 실질 가치의 차이를 이용해 주화를 녹여 구리 상태로 팔아 차익을 얻으려는 이들도 있었다. 주화로 표시한 물건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는 주화의 실질 가치를 높여야 했으므로, 세종은 관청이 가지고 있는 쌀인 국고미를 시장에 팔아 주화를 환수했다. 하지만 물품 화폐가 더 선호되는 상황에서는 주화를 환수해도 실질 가치는 높아지지 않았다. 그리고 시중에 쌀이 늘어난 만큼 주화로 표시한 쌀 가격만 하락하고 포나 구리의 가격은 하락하지 않았다. 그 결과 쌀 대신 포를 화폐로 삼는 백성들만 늘었고, 결국 주화를 정착시키는 데는 실패하였다.

17세기부터는 상업의 확대로 인해 백성들은 고액 거래나 가치의 저장이 ㉙ 쉬운 화폐가 필요했다. 또한 당시 조선은 재정의 어려움도 해결해야 했으므로 숙종은 1678년부터 상평통보를 발행했다. 이때의 상평통보를 초주단자전이라 하고 명목 가치는 은 1냥당 주화 400문으로 정했다. 그리고 상평통보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명목 가치에 따라 언제든지 관청에서 주화와 은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구리는 국내 생산 및 일본으로부터 수입을 통해 공급받고 있었으나 늘어나는 주화의 수요에 비해 공급량은 부족했다. 그래서 초주단자전 발행 이듬해에 대형전을 발행했는데, 이는 초주단자전보다 구리의 양은 두 배 늘리고 은 1냥을 주화 100문과 교환할 수 있도록 정했다.

일부 부유한 상인들은 자산 축적의 목적으로 주화를 집 안에 쌓아 두기 시작했다. 하지만 구리의 공급량은 여전히 부족했기 때문에, 화폐의 수요에 비하여 공급은 부족한 현상인 전황(錢荒)이 발생하여 주화의 실질 가치가 높아지게 되었다. 그 결과 채무가 있던 백성들은 이자율이 높아졌고,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물품이 아닌 주화로 채무를 상환하라고 요구했다. 그래서 채무자는 더 많은 물품을 주고 주화를 구해야 했으므로 이 시기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많았다.

그래서 화폐량을 늘리기 위해 1752년 영조 때, 초주단자전에 비해 구리의 양을 줄인 중형전이 발행됐다. 발행 당시 은 1냥당 주화 100문으로 정했으므로 ㉚ 중형전의 발행은 국가 재정에도 도움이 되었다. 이후 100년 넘게 더 이어진 상평통보의 사용으로 거래의 수단은 물품이 아닌 돈이 자리 잡게 되었다.

- *문: 조선 시대에, 화폐를 세던 단위.
- *되: 곡식의 부피를 재는 단위로, 한 되는 한 말의 10분의 1임.
- *냥: 귀금속의 무게를 잴 때 쓰는 무게의 단위.

06

▶ 23051-0111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저화는 식물의 껍질을 재료로 삼아 만든 화폐이다.
- ② 사삼서는 태종 및 세종 때 화폐에 관한 업무를 담당했다.
- ③ 저화와 조선통보는 특정 비율에 맞춰 서로 교환이 가능했다.
- ④ 발행 당시 저화 1장의 명목 가치는 포 1필 또는 쌀 2말이었다.
- ⑤ 세종의 주화 제도는 중국이 주화 제도를 정착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다.

07

▶ 23051-0112

‘상평통보’가 사용된 시기의 경제 상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상평통보의 제조에 필요한 재료를 일본과의 무역을 통해 공급받기도 했다.
- ② 전황 시기에 채권자는 채무자가 물품보다 주화로 상환해 주는 것을 더 선호했다.
- ③ 1679년에 발행한 상평통보는 지난해에 발행한 것에 비해 1문당 명목 가치는 하락했다.
- ④ 1678년을 기준으로 은 2냥은, 같은 해 발행된 상평통보 800문으로 관청에서 바꿀 수 있었다.
- ⑤ 일부 부유한 상인들의 집에 쌓인 상평통보의 수량이 늘수록 당시의 채무자는 더 많은 물품을 주고 주화를 구해야 했다.

08

▶ 23051-0113

〈보기〉는 ‘태종’ 시기에 실시했던 정책이다. ㉠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보기

- ㉠. 백성들이 만든 베를 관청에서 저화로 매입하였다.
- ㉡. 백성들이 저화를 지불하면 관청에서 국고미를 방출하였다.
- ㉢. 중앙 정부는 관리들에게 달마다 녹봉을 저화로 지급하였다.
- ㉣. 관청이 보유한 물고기를 백성들에게 저화를 받고 판매하였다.

- ① ㉠, ㉡ ② ㉠, ㉢ ③ ㉡, ㉣
- ④ ㉠, ㉢, ㉣ ⑤ ㉡, ㉢, ㉣

09

▶ 23051-0114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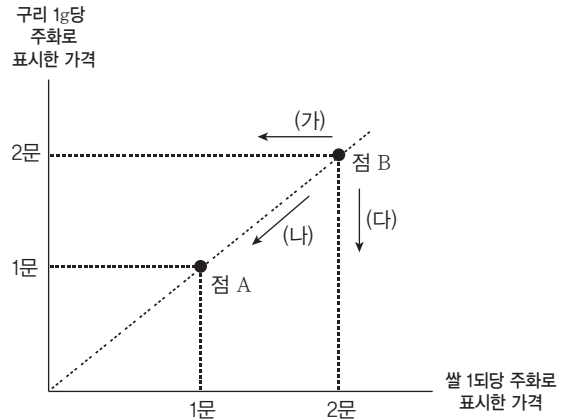
- ① 중형전과 대형전의 액면 가격은 동일한데 구리의 함유량은 중형전이 더 높았기 때문이다.
- ② 초주단자전과 중형전의 액면 가격은 다르지 않는데 구리의 함유량은 중형전이 더 낮았기 때문이다.
- ③ 초주단자전처럼 중형전도 명목 화폐 형태로 유통되어 상평통보에 대한 백성의 신뢰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 ④ 중형전은 대형전과 달리 액면 가격의 척도가 은과 연관되어 있어 시장에서 중형전의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 ⑤ 명목 가치는 중형전과 대형전이 다르지 않는데 주화를 만드는 데 소모되는 비용은 중형전이 더 적었기 때문이다.

10

▶ 23051-0115

〈보기〉는 학생이 자료를 사용하여 ‘세종’ 때 주화의 정착이 실패한 현상에 대해 설명한 것이다. ㉠~㉥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미포와 주화가 화폐로 사용되며 주화 1문에 구리 1g이 들어 있다고 가정할 때, 위 그래프를 통해 세종 때 주화의 정착이 실패한 현상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점 A의 상황은 ㉠ 구리 1g 가치가 쌀 1되와 동일합니다. 이후 주화로 표시한 물품 가격이 변한 점 B의 상황에서는, ㉡ 구리 1g으로는 쌀 1되를 살 수 있지만 주화 1문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때는 ㉢ 주화의 명목 가치보다 주화에 들어 있는 구리의 실질 가치가 더 높아진 것이어서, ㉣ 주화 1문을 녹여 팔아 2문의 차익을 얻으려는 백성들도 있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세종은 국고미를 팔아 주화를 환수해 점 B의 상황(가)~(다) 방향 중 (나)로 이동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세종의 시도는 ㉤ 점 B의 상황(가)로 이동시켰고, 그 결과 오히려 포로 거래를 하려는 백성들이 늘면서 주화의 정착은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11

▶ 23051-0116

문맥상 ㉠~㉥와 바꾸어 쓸 수 있는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도모(圖謀)할
- ② ㉡: 통용(通用)되고
- ③ ㉢: 빈번(頻繁)했기
- ④ ㉣: 범용(汎用)이 되게
- ⑤ ㉤: 용이(容易)한

[12~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식물의 광합성이란 빛에너지를 이용하여 물과 이산화 탄소로부터 포도당과 같은 유기물과 산소를 만들어 내는 과정으로, 식물은 광합성을 통해 생장에 필요한 에너지를 획득한다. 광합성의 과정은 빛이 필요한 단계인 명반응과 이산화 탄소가 필요한 단계인 암반응으로 ㉠ 나뉜다. 명반응은 엽록체의 틸라코이드 막에서, 암반응은 엽록체의 스트로마에서 ㉡ 일어난다.

명반응에서는 광합성 색소에서 흡수한 빛에너지를 이용하여 NADPH가 합성된다. 이 과정에서 물이 분해되어 산소가 발생하고 이 산소는 기공을 통해 방출된다. 암반응에서는 포도당이 합성된다. 이때는 루비스코라는 효소가 기공으로 흡수된 이산화 탄소와 결합하여, 포도당을 합성하는 반응에 관여한다. 그런데 포도당을 합성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수소 이온과 전자는 명반응에서 만들어진 NADPH가 NADP⁺로 산화되면서 공급된다. 따라서 광합성은 ㉢ 명반응이 먼저 일어나야 암반응이 진행될 수 있다.

식물의 생장에 알맞은 온도나 습도가 바뀌면 광합성 효율, 즉 시간당 포도당을 합성하는 속도가 ㉣ 떨어질 수 있다. 벼는 온대 다습한 환경에서 광합성 효율이 높다. 하지만 벼를 사막과 같은 고온 건조한 환경에서 재배하면, 벼는 낮 동안 기공을 닫아 수분 손실을 막는다. 그러면 이산화 탄소를 흡수하지 못해, 벼 내부는 이산화 탄소 농도에 비해 산소 농도가 높아지게 된다. 이러한 조건에서는 루비스코가 산소와 결합하게 되어, 벼는 산소를 소모하고 이산화 탄소를 방출하는 현상인 광호흡을 하게 되고, 그 결과 광합성 효율은 감소한다.

(나) 식물은 광합성으로 유기물을 만드는데, 이때 사용하는 에너지는 태양광이고 부산물은 산소뿐이므로 청정하다. 이러한 식물의 광합성을 인공적으로 구현한 기술을 ‘인공 광합성’이라 한다. 인공 광합성은 실제로 유기물을 제조하는 것이 아니라 빛을 이용하여 물로부터 수소를 만들어 내기까지의 반응을 뜻한다. 수소를 만들어 낼 수 있다면 기존의 화학 공정을 이용하여 다른 유기물을 제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초기의 인공 광합성 기술은 빛에너지로 얻은 전기를 별도의 축전 장치에 모아 두었다가, 이 전기로 물을 분해하여 수소를 얻는 것이었다. 하지만 전기를 저장하고 전달하는 과정에서 에너지의 손실이 ㉤ 생겼다. 그래서 빛에너지로 직접 물을 분해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광전기 화학 전지가 고안되었다. 이 전지는 광합성의 명반응을 모방한 것으로, 물에 ‘작동 전극’과 ‘상대 전극’이 담겨 있고 두 전극은 전선으로 이어진 구조이다. 양극인 작동 전극은 반도체 물질이, 음극인 상대 전극은 백금이 사용된다. 빛을 반도체 물질을 향해 조사하면 물은 수소 이온(H⁺), 전자(e⁻), 산소(O₂)로 분해되어 반도체 물질 쪽에서는 산소가 발생한다. 그리고 전자는 전선을 따라 백금으로 이동하여 물속의 수소 이온과 결합하므로 백금 쪽에서는 수소(H₂)가 발생한다. 이때 이러한 일

련의 과정이 일어나더라도 빛에 부식이 되는 반도체 물질은 전지의 안정성을 낮추므로 전극으로 사용할 수가 없다.

빛을 흡수한 반도체 물질에서 전류의 흐름이 생겨야 하는데, 이 조건은 ‘에너지띠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 이론에서는 원자가띠에 있는 전자가, 흡수한 빛에 의해 띠틈 이상의 에너지를 얻으면 전도띠로 뛰어넘어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상태가 된다고 설명한다. 이때 두 띠 사이의 에너지 차이를 띠틈이라 하고, 단위로는 eV^{*}를 사용한다. 전지에 사용될 수 있는 반도체 물질의 띠틈은 1.3eV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보다 작으면 반도체 물질에 전류가 흐르더라도 물이 분해되지 않아 수소도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띠틈이 3eV를 ㉥ 넘으면 에너지가 강한 파장인 자외선을 주로 흡수해서 수소를 발생시키므로 전지의 효율이 낮아진다. 이때는 반도체 물질에 불순물을 첨가하여 전기 전도도를 높여 주면 띠틈을 줄이는 효과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만든 물질은 자외선보다 에너지가 적은 가시광선을 흡수하더라도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상태가 되므로, 조사된 빛에너지의 더 많은 양을 전기 에너지로 전환시켜서 전지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

*eV: 전자볼트, 1eV는 하나의 전자를 1V 올리는 데 필요한 에너지 단위임.

12

▶23051-0117

(가)와 (나)의 중심 화제를 고려할 때, 서술된 내용의 관계로 적절한 것은?

- ㉠ (가)는 광합성 효율을 평가하는 요소를 설명하였고, (나)는 광합성 효율을 측정하는 기술을 소개하였다.
- ㉡ (가)는 식물의 광합성에 관한 원리를 제시하였고, (나)는 광합성의 원리가 사용된 특정한 기술을 설명하였다.
- ㉢ (가)는 식물의 광합성에 대한 발견 과정을 소개하였고, (나)는 인공 광합성 기술에 대한 변천 과정을 제시하였다.
- ㉣ (가)는 식물의 광합성과 관련한 가설들을 검토하였고, (나)는 광합성과 관련한 가설들을 입증해 나가는 과정을 살폈다.
- ㉤ (가)는 식물의 광합성 속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설명하였고, (나)는 식물의 광합성 속도를 높이기 위한 인공적인 기술을 소개하였다.

17

▶ 23051-0122

문맥상 ㉠~㉥의 단어와 가장 가까운 의미로 쓰인 것은?

- ① ㉠: 수익금은 직원들에게 공평하게 나뉘어야 한다.
- ② ㉡: 나는 의자에서 일어나 너에게 다가갔다.
- ③ ㉢: 곧 너에게 중요한 임무가 떨어질 것이다.
- ④ ㉣: 오늘 온종일 비가 내려서 계획에 지장이 생겼다.
- ⑤ ㉤: 도둑은 부역의 창문을 넘어서 들어온 것이 틀림없다.

[18~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이렇게 서둘러 달려갈 일이 무언가

환한 봄 햇살 꽃그늘 속의 설렘도 보지 못하고
 날아가듯 달려가 내가 할 일이 무언가
 예순에 더 몇 해를 보아 온 같은 풍경과 말들
 종착역에서도 그것들이 기다리겠지

들판이 내려다보이는 ㉠산역에서 차를 버리자
 그리고 걷자 발이 부르들 때까지
 복사꽃 숲 나오면 들어가 낮잠도 자고
 소매 잡는 이 있으면 하룻밤쯤 술로 지새면서

이르지 못한들 어떠랴 이르고자 한 곳에
 풀씨들 날아가다 떨어져 몸을 묻은
 산은 파랑고 강물은 저리 반짝이는데

- 신경림, 「특급열차를 타고 가다가」

(나)

즐겁고 아름다운 일은 양이 많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A]
 그런데 당신의 사랑은 양이 적을수록 좋은가 봐요.
 당신의 사랑은 당신과 나와 두 사람 사이에 있는 것입
 니다. [B]
 사랑의 양을 알려면 당신과 나의 거리를 측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과 나의 거리가 멀면 사랑의 양이 많고 거
 리가 가까우면 사랑의 양이 적을 것입니다. [C]
 그런데 적은 사랑은 나를 웃기더니 많은 사랑은 나를
 울립니다.

뉘라서 사람이 멀어지면 사랑도 멀어진다고 하여요. [D]
 당신이 가신 뒤로 사랑이 멀어졌으면 날마다 날마다 나
 를 울리는 것은 사랑이 아니고 무엇이에요. [E]

- 한용운, 「사랑의 측량」

(다) 동양인은 폭포를 사랑한다. 비류직하삼천척(飛流直下三千尺)이란 상투어가 있듯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그 물줄기를 사랑한다. ㉠으레 폭포수 밑 깊은 못 속에는 용이 살며 선녀들이 내려와 목욕을 한다. 폭포수에는 동양인의 마음속에 흐르는 원시적인 환각의 무지개가 서려 있다.

서구인들은 분수를 사랑한다. 지하로부터 하늘을 향해 힘차게 뻗어 오르는 분수, 로마에 가든 파리에 가든 런던에 가든, 어느 ㉡도시에나 분수의 물줄기를 볼 수 있다. 분수에는 으레 조각이 있고 그 곁에는 콩코르드와 같은 시원한 광장이 있다. 그 광장에는 비둘기 떼가 날고 젊은 애인들의 속삭임이 있다. 분수에는 서

양인의 마음속에 흐르는 원초적인 꿈의 무지개가 서려 있다.

폭포수와 분수는 동양과 서양의 각기 다른 두 문화의 원천이 되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대체 그것은 어떻게 다른가를 보자. 무엇보다도 폭포수는 자연이 만든 물줄기이며, 분수는 인공적인 힘으로 만든 물줄기이다. 그래서 폭포수는 심산유곡에 들어가야 볼 수 있고, 거꾸로 분수는 도시의 가장 변화한 곳에 가야 구경할 수가 있다. ① 하나는 숨어 있고, 하나는 걸으며 드러나 있다. 폭포수는 자연의 물이요, 분수는 도시의 물, 문명의 물인 것이다.

장소만이 그런 것은 아니다. 물줄기가 정반대이다. 폭포수도 분수도 그 물줄기는 시원하다. 힘차고 우렁차다. 소리도 그렇고 물 보라도 그렇다. 그러나 가만히 관찰해 보자. ② 폭포수의 물줄기는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낙하한다. 만유인력, 그 중력의 거대한 자연의 힘 그대로 폭포수는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물이다.

물의 본성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것이다. 하늘에서 빗방울이 대지를 향해 떨어지는 것과 같다. 아주 작은 도량물이나 도도히 흐르는 강물이나 모든 물의 그 움직임에는 다를 것이 없다. 폭포수도 마찬가지이다. 아무리 거센 폭포라 해도 높은 데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고 떨어지는 중력에의 순응이다. 폭포수는 우리에게 물의 천성을 최대한으로 표현해 준다.

그러나 분수는 그렇지 않다. 서구의 도시에서 볼 수 있는 분수는 대개가 다 하늘을 향해 솟구치는 분수들이다. 화산이 불을 뿜듯이, 혹은 로켓이 치솟아 오르듯이, 땅에서 하늘로 뻗쳐 올라가는 힘이다. 분수는 대지의 중력을 거슬러 역류하는 물이다. 자연의 질서를 거역하고 부정하며 제 스스로의 힘으로 중력과 투쟁하는 운동이다. 물의 본성에 도전하는 물줄기이다.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천연의 성질, 그 물의 운명에 거역하여 그것은 하늘을 향해서 주먹질을 하듯이 솟구친다. ③ 가장 물답지 않은 물, 가장 부자연스러운 물의 운동이다.

그들은 왜 분수를 좋아했는가? 어쩌서 비처럼 낙하하고 강물처럼 흘러내리는 그 물의 표정과 정반대의 분출하는 그 물줄기를 생각해 냈는가? 같은 힘이라도 폭포가 자연 그대로의 힘이라면 분수는 거역하는 힘, 인위적인 힘의 산물이다. 여기에 바로 운명에 대한, 인간에 대한, 자연에 대한 동양인과 서양인의 두 가지 다른 태도가 생겨난다.

그들이 말하는 창조의 힘이란 것도, 문명의 질서란 것도, 그리고 사회의 움직임이란 것도 실은 저 광장에서 내뿜고 있는 분수의 운동과도 같은 것이다. 중력을 거부하는 힘의 동력, 인위적인 그 동력이 끊어지면 분수의 운동은 곧 멈추고 만다. ④ 끝없이 끝없이 인위적인 힘, 모터와 같은 힘을 주었을 때만이 분수는 하늘을 향해 용솟음칠 수 있다. 이 긴장, 이 지속, 이것이 서양의 역사와 그 인간 생활을 지배해 온 힘이다.

- 이이령, 「폭포와 분수」

18

▶ 23051-0123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이상적 공간을 제시하여 새롭게 알게 된 가치의 중요성을 구체화하고 있다.
- ② 대비되는 상황을 제시하여 화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 ③ 인간의 삶과 공간의 의미를 연결 지으며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④ 자연이 인간에게 미친 긍정적인 영향을 강조함으로써 자연 예찬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 ⑤ 부정적인 현실을 언급하며 이에서 파생된 절망감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19

▶ 23051-0124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명령형 어미를 사용하여 실천적인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 ② (가)는 도치법을 활용하여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 ③ (가)는 의문형 문장을 활용하여 화자가 강조하려는 삶의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 ④ (나)는 추상적 개념을 가시적인 것으로 형상화하여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⑤ (나)는 경어체를 사용하여 대상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20

▶ 23051-0125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현재 처지에 대한 화자의 조바심을, ㉡은 특정 공간에 대한 글쓴이의 의아함을 드러낸다.
- ② ㉠은 자연과 일체화되고 싶은 화자의 마음을, ㉡은 특정 공간에 대한 글쓴이의 비판적 태도를 드러낸다.
- ③ ㉠은 삶의 태도에 대한 화자의 생각이 전환되는 장소이고, ㉡은 글쓴이가 스스로를 성찰하는 공간이다.
- ④ ㉠은 화자가 평소와는 다른 삶과 연결되는 장소이고, ㉡은 글쓴이가 서양의 가치관을 발견하는 공간이다.
- ⑤ ㉠은 화자가 과거에 겪었던 어려움을 떠올리게 하는 장소이고, ㉡은 글쓴이가 현재 어려움을 겪는 공간이다.

21

▶ 23051-0126

〈보기〉를 바탕으로 [A]~[E]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한용운의 시를 관통하는 핵심은 ‘임’ 혹은 ‘당신’에 대한 사랑이다. 「사랑의 측량」에 드러나는 사랑은 사랑에 대한 통념과는 다르다. 일반적으로 사랑은 서로 간의 거리를 좁히고, 더 많이 알고자 하면서 서로 유사해지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리고 이 익숙함은 처음에 서로에게 가졌던 사랑의 숭고함을 소실시킨다. 그래서 「사랑의 측량」에서는 ‘사랑’을 ‘측량’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나’는 임과 멀어지는 슬픔을 느끼면서도 익숙함이 아닌 숭고함을 위해 거리가 멀어지는 슬픔을 받아들이며 변치 않는 사랑을 노래하고자 한다. 즉 사랑하는 사람과의 거리를 역설적으로 표현하며 임을 향한 사랑의 숭고성을 노래한 것이다.

- ① [A]: ‘즐거운 일’에 대한 통념을 제시하면서 이와 상반되는 ‘사랑’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② [B]: ‘당신’과 ‘나’ 사이의 거리 측량이 ‘사랑의 양’을 알 수 있는 방법임을 제시하고 있다.
- ③ [C]: ‘사랑’과 ‘거리’와의 역설적 관계를 밝힌 후 ‘당신’을 위해 ‘나’의 웃음이 많아져야 함을 드러내고 있다.
- ④ [D]: 서로 유사해지는 과정을 거친 사람들이 ‘사랑’에 대해 하는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않는 화자를 드러내고 있다.
- ⑤ [E]: 임과의 ‘거리’가 멀어져 슬픔을 느끼면서도 임에 대한 사랑이 커져 가는 숭고함에 대해 노래하고 있다.

22

▶ 23051-0127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글쓴이가 폭포에 ‘원시적인 환각의 무지개’가 서려 있다고 생각하게 된 이야기들을 제시하고 있다.
- ② ㉡: ‘폭포’와 ‘분수’가 있는 곳을 언급하며 숨어 있어 쉽게 볼 수 없는 공간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
- ③ ㉢: ‘폭포수’의 모습을 제시하여 자연의 법칙과 질서에 순응하는 ‘물의 본성’을 담은 ‘폭포수’를 드러내고 있다.
- ④ ㉣: ‘분수’의 움직임에 대한 글쓴이의 평가로, 물의 천성을 거역한 움직임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
- ⑤ ㉤: ‘분수’의 지속성에 대한 것으로 자연의 법칙을 거스를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 밝히고 있다.

23

▶ 23051-0128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기

독일의 시인 하인리히 하이네는 철도로 인해 인간이 겪는 공간과 시간 개념의 혼란을 지적한 바 있었다. 기차는 오로지 출발과 도착의 공간 이동만 있을 뿐, 그 사이의 공간은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었던 것이다. 즉 기차의 빠른 속도는 약속에 늦지 않는 시간과 그 시간에 접하게 되는 새로운 공간을 열었지만 그 사이 공간을 완전히 지워 버렸다. 이는 근대의 목적 지향적, 속도 지향적인 기계론적 세계관의 상징과도 같았다. 이와 같은 기계론적 세계관은 자연을 거부하는 인위적인 힘을 중시하는 문화와 연관이 깊다. 중력을 거스르고, 인위적인 기계 장치를 통해 자연을 지배하는 가치가 바로 이러한 서양적 창조성의 기반이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우리 삶에서도 여유보다는 목적을, 사색보다는 속도를 중시하는 풍조를 가져온 근대의 일면을 보여 준 것이다.

- ① (가)의 '서둘러 달려갈 일'은 '특급열차'를 타고 빠른 속도로 목적지로 가는 것을, (다)의 '원초적인 꿈의 무지개'는 목적보다는 여유를 중시하는 삶의 태도와 연관이 있겠군.
- ② (가)의 '설렘'은 근대의 삶과 연결되고, (다)의 시원하고 힘찬 '물줄기'는 자연에 얽매이지 않았기에 '제 스스로의 힘'을 통해 '모터'가 만들어 낼 수 있는 인위적인 물줄기이겠군.
- ③ (가)의 '내가 할 일'은 사색을 중시하는 태도를 보여 주고, (다)의 '로켓이 치솟아 오르듯이' '하늘로 뻗쳐 올라가는' 것은 새로운 공간을 여는 서양적 창조성과 연관이 있겠군.
- ④ (가)의 '그것들'은 속도 지향적 세계관의 반복적 일상을 의미하고, (다)의 '심산유곡'은 '거대한 자연의 힘'의 물줄기가 있는 곳으로 기계론적 세계관이 지배하는 공간과는 대비되는 공간일 수 있겠군.
- ⑤ (가)의 '복사꽃 숲'은 우리 삶에서의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 주고, (다)의 '문명의 질서'는 목적 지향적 삶을 중시하는 글쓴이의 태도와 연관이 있겠군.

[24~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밤이면 행길로 문을 낸 서편 집들 중에 간혹 문등(門燈)을 단 집이 있었다. 그것은 토지, 가옥, 인사 소개업이라는 간판을 붙인 집이었다.

그것도 같은 집에 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모퉁이를 지나면 있으려니 하였던 문등이 없어지기도 하고 저 모퉁이는 어두우려니 하고 가면 의외의 새 문등이 켜 있기도 하였다.

요사이 문등이 또 한 개 새로이 켜지었다. 저녁마다 장구 소리와 어울려서 나어린 계집애의 목청으로 부르는 노랫소리가 새어나오던 집이었다.

새 문등이 달리자 초롱을 든 인력거꾼이 그 집 문밖에서 기다리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리고 이 여름에는 초저녁부터 그 집 안방에 가득 차게 쳐 놓은 생초 모기장을 볼 수 있었다.

다른 집들은 이 여름에도 여전히 모기썩을 피우고 있다.

그 집도 작년까지는 모기썩을 피웠던 것이다. 저녁마다 집으로 돌아올 때에 모기썩 내에 잠긴 이 골목에서, 붉은 도련을 친 그 초록 모기장을 볼 때마다, 병일이는 위 꼭지를 척 도려 놓은 수박을 연상하였다.

이 골목을 지나가면 새로운 시구 계획으로 갓 닦아 놓은 넓은 길에 나서게 된다.

옛 성벽 한 모퉁이를 무찌르고 나간 그 거리는 아직 시가다운 시가를 이루지 못하였다.

헐린 옛 성 밑에는 낮고 작은 고가들이 들추어 놓은 고분 속같이 침울하게 별려져 있고 그것을 가리기 위한 차면(遮面)같이, 횡담에 함석 영을 덮은 새 집들이 단별 줄로 나란히 서 있을 뿐이다.

이러한 바라크식 외곽 거리의 맞은편은, 아직도 집들이 들어서지 않았었다. 시탄 장사, 장목 장사, 웅기 노점, 시멘트로 만드는 토관 제조장 등, 성 밖에 빈 땅을 이용하는 장사 터가 그저 남아 있었다.

도시의 발전은 옛 성벽을 깨트리고, 아직도 초평(草坪)이 남아 있는 이 성 밖으로 뻗어 나오기 시작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아직도 자리 잡히지 않은 이 거리의 누렁던 길이 때연과 발걸음에 나날이 짙어서 꺼멥게 멩들기 시작한 이 거리를 지나면, 얼마 안 가서 옛 성문이 있었다. 그 성문을 통하여 이 신작로의 수직선으로 뚫린 시가가 바라보이는 것이었다.

그 성문 밖을 지나치면 신흥 상공 도시라는 이 도시의 공장 지대에 들어서게 된다. 병일이가 봉직하고 있는 공장도 그곳에 있었다.

병일이는 이 길을 2년간이나 걸었다. 아침에는 집에서 공장으로, 저녁에는 공장에서 집으로 가는 가장 가까운 길이므로 이 길을 걷는 것이었다.

병일이는 취직한 지 2년이 되도록 신원 보증인을 얻지 못하

였다.

매일 저녁마다 병일이가 장부의 시재(時在)를 적어 놓으면 주인은 금고의 현금을 세었다. 병일이가 장부에 적어 놓은 숫자와 주인이 세 현금이 맞아떨어진 후에야 그날 하루의 일이 끝나는 것이었다.

주인이 금고 문을 잠근 후에, 병일이는 모자를 집어 들고 사무실 문밖에 나간다. 한 걸음 앞서 나섰던 주인은, 곧 사무실 문을 잠가 버리는 것이었다.

사무실 마루를 쓸고, 흠치고, 손님에게 차와 점심 그릇을 나르고, 수십 장의 편지를 쓰고, 장부를 정리하는 등 소사와 급사와 서사의 일을 한 몸으로 치르고 난 뒤에, 하숙으로 돌아가는 병일의 다리와 머리는 물병과 같이 무거웠다.

주인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공장 문밖을 나서면 하루의 고역에서 벗어났다는 시원한 느낌보다도 작은 별들이 반짝이는 하늘 아래 말할 수 없이 호젓하여짐을 금할 수 없었다.

(중략)

빗소리밖에는…… 고요한 저녁이었다.

병일이는 다시 쇼윈도 앞으로 돌아서서 연하여 하품을 하면서 사진을 보고 있었다. 그때에 갑자기 사진이 붙어 있는 뒤 판장이 젖혀지며 커다란 얼굴이 쭈욱 나타났다.

병일이의 얼굴과 마주친 그 눈은 한 겹 유리창을 격하여 잠시 동안 병일이를 바라보다가, 붉은 손에 잡힌 비로 쇼윈도 안을 쓸어 내고 전등알까지 쓰다듬었다.

전등알에는 천장과 연하여 풀솜 오리 같은 거미줄이 얽혀

[A] 있었다.

비를 놓고 부채로 쇼윈도 안의 하루살이와 파리를 쫓아내는 그의 혈색 좋은 커다란 얼굴은 직사되는 광선에 번질번질 빛나 보이었다. 그리고 그의 미간에 칼자국같이 깊이 잡힌 한 줄기의 주름살과, 구뚝술을 잘라 붙인 듯한 거친 눈썹과, 인중에 먹물같이 흐른 커다란 코 그림자는 산 사람의 얼굴이라기보다, 얼굴의 윤곽을 도려낸 백지 판에 모필로 한 획씩 먹물을 칠한 것처럼 보이었다.

병일이는 지금 보고 있는 이 얼굴이나 아까 보던 사진의 그것은 모두 **조화되지 않은 광선의 장난**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암흑한 적막 속에 잠겨 들고 만 옛 성문 누각의 한편 추녀 끝만을 적시는 듯이 보이는 빗발이 다시 한번 병일이의 머릿속에 떠올랐다.

이렇게 서서 의식의 문밖에 쏟아지는 낙숫물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있는 병일이는, 광선이 희화화한 쇼윈도 안의 초상이 한 겹 유리창을 격하여 흘금흘금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충혈된 눈을 마주 보았다.

변한 바람세에 휘어진 빗발이 그들이 격하여 서로 바라보고 있는 유리창에 뿌려서 빗방울은 금시에 미끄러져서 길게 흘러내렸다.

‘희화된 초상화에서 흐르는 땀방울!’

병일이는 의식적으로 이러한 착각을 꾸며 보았다. 지금껏 자기를 흘금흘금 바라보는 그 충혈된 눈에 작은 반감을 가졌던 것이었다.

㉠비에 놀란 듯한 얼굴은 쇼윈도에서 사라졌다. 그리고 현관문이 열리었다.

현관문을 열어 잡고 하늘을 쳐다보던 그는,

“비가 대단하구만요. 이리로 들어와서 비를 그으시지요. 자 들어오세요.”

하고, 역시 하늘을 쳐다보고 서 있는 병일이에게 말하였다.

그의 적삼 아래로는 뚱뚱한 배가 드러나 보였다. 가차 없이 비를 쏟고 있는 푸렁뚱한 하늘같이 그의 내어 민 배가 병일이의 조급한 신경을 거슬러었으나, 처음 보는 사람에게 이같이 친절 한 것은 등실한 그 ㉡배의 성격이거니 생각하며 귀하는 대로 현관문 안에 들어섰다.

그는 병일이에게 의자를 권하고 이어서 휘파람을 불면서 조금 전에 떼어 들었던 판장에서 사진들을 떼기 시작하였다.

함석지붕에 떨어지는 빗소리는 어수선한 좁은 방 안을 침울하게 하였다.

구뚝술을 잘라 붙인 듯한 눈썹을 찌푸려서 미간의 외줄기 주름살은 더욱 깊어지고, 두드러진 입술에서 새어 나오는 휘파람 소리는 날카롭게 들리었다.

병일이는 빗소리가 섞여 오는 휘파람 소리를 들으며 테이블 위에 놓인 앨범을 뒤적이고 있었다.

“금년에는 비가 많이 올걸요.”

휘파람을 불다 말고 사진사는 이렇게 말을 건네며 병일이를 쳐다보았다.

“글쎄요……?”

“두고 보시우. 정녕코 금년에는 탕수가 나고야 맙네다.”

“……글쎄요……?”

병일이는 역시 이렇게 대답할밖에 없었다.

“서문의 문지기 구렁이가 현신을 했답니다.”

“……?”

말없이 쳐다만 보고 있는 병일이에게 어떤 커다란 사변의 전말이나 설명하듯이 그는 일손을 멈추고

“어제저녁에 비가 부슬부슬 오실 때…….”

하고 말을 시작하였다.

어떤 사람이 우산을 받고 성문 안을 들어갈 때에 누각 기왓장이 우산을 스치고 발 앞에 철썩철썩 떨어졌다. 그래 쳐다본즉 그 넓은 기왓골에 10여 골이나 걸친 큰 구렁이가 박죽 같은 머리를 내두르고 있었다고 한다. 사람들은 모여들었다. 그중에 날쌔 젊은이가 올라가서 잡으려고 하였다. 노인들은 성문지기 구렁이를 해하면 재변이 난다고 야단쳤다. 갈기려는 채찍을 피하여 달아나는 구렁이를 여기 간다 저기 간다 하며, 잡지 말라는 노인들을

둘러싼 젊은이들은 문 위에 올라간 사람을 지휘하며 웃고 떠들었다. 마침내 구렁이는 수많은 기왓골 틈으로 들어가 숨고 말았다. 안심한 노인들은 분한 것 놓쳤다고 떠드는 젊은이들 틈에서 이 여름에는 무서운 홍수가 나리라고 걱정하였다고 한다.

“노인들의 증험이 틀리지 않습니다.”

하고 그의 말은 끝났다.

“글쎄요?”

병일이는 이렇게 꼭 같은 대답을 세 번이나 하기가 미안하였다. 그렇다고 “설마 그럴까요.” 하였다가 이 완고한 젊은이의 무지와 충돌하여 부질없는 얘기가 벌어지게 되면…… 귀찮은 일이다.

그때에 현관문으로 작은 식함(食函)이 들어왔다. 오늘 만든 듯한 새 사진을 붙이고 있던 주인은 일감을 밀어 치우고 식함에 놓인 술병과 음식 그릇을 테이블 위에 받아 놓고 의자를 당겨 앉으며

“자, 우리, 같이 먹읍시다. 이미 청하였던 것이지만.”

하고 술을 따라서 병일이에게 건네었다.

병일은 코끝에 닿을 듯한 술잔을 피하여 물리았으며,

“미안합니다만 나는 술을 먹지 않습니다.”

하고 거절하였다.

“그러지 마시구 자, 한 잔 드시우. 자, 이미 권하던 잔이니 한 잔만…….”

아직 인사도 안 한 그가 이렇게 치근스럽게 술을 권하는 것이 불쾌하였다. 그래서 여러 번 거절하여 보았다. 그러나 이렇게 굳이 권하는 것은 이런 사람들의 호의로 생각할밖에 없었고 더구나 돌아가는 잔이라든가 권하던 잔이라든가 하는 술꾼들의 미신적 습관을 짐작하는 병일이는 끝끝내 거절할 수가 없었다.

마지못해서 받아 마시고는 잔을 그이 앞에 놓았다. 술을 따라서 잔을 건네면 이 술추렴에 한몫 드는 셈이 되겠는 고로 빈 잔을 놓은 것이었다.

- 최명익, 「비 오는 길」

*도련: 저고리나 두루마기 자락의 가장자리.

*탕수: '홍수'의 평안도 방언.

24

▶ 23051-0129

[A]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보이는 대상의 일부에 초점을 맞추어 보는 이의 느낌을 서술하고 있다.
- ② 명암의 대비를 연출하여 빛의 밝기에 따라 상반되게 나타나는 대상의 심리를 전달하고 있다.
- ③ 보이는 대상의 형상을 객관적으로 묘사하여 보는 이가 느끼는 주관적인 감정을 배제하고 있다.
- ④ 사물로 보이는 대상이 점차 사람으로 변하는 과정을 서술하여 보는 이가 체험하는 신기함을 표현하고 있다.
- ⑤ 보이지 않는 신체의 부분을 암시하는 서술을 통해 보는 이가 추측하는 대상의 전체 형상을 제시하고 있다.

25

▶ 23051-0130

㉠,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으로 인해 병일은 상대방의 얼굴과 자신을 바라보는 소원도 안 초상의 얼굴이 서로 다른 인물의 얼굴임을 알아차린다.
- ② ㉡으로 인해 병일은 상대방에게서 느껴지는 반감을 상대방에게 드러낸다.
- ③ ㉠으로 인해 사진사는 병일에게 사진관으로 들어올 것을 권유하게 되고, ㉡으로 인해 병일은 사진사의 권유에 응한다.
- ④ ㉠은 사진사에게 홍수에 대한 화젯거리를 제공하고, ㉡은 병일이 사진사의 예견에 동의하는 계기를 제공한다.
- ⑤ ㉠과 ㉡은 병일의 속내를 파악한 사진사가 병일에게 반감을 갖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26

▶ 23051-013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노랫소리가 들려오던 집에 새로운 문등이 달리자 문밖에서 초롱을 든 인력거꾼이 기다리는 모습이 등장한다.
- ② 병일이 봉직하고 있는 공장은 옛 성문 밖 신흥 도시의 공장 지대에 위치한다.
- ③ 병일은 퇴근을 하면서 하루의 고역에서 벗어났다는 시원함을 느낄 수 있어 항상 같은 길을 걷는다.
- ④ 사진사가 노인들의 증험이 맞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데에 대해 병일은 동의하지 않는다.
- ⑤ 사진사는 술과 음식이 도착하자 병일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여러 번 권한다.

27

▶ 23051-0132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도시화가 진행되기 시작하는 시기는 과거와 현재의 변화를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비 오는 길」은 변화를 경험하는 인물의 내면을 형상화한다. 관심이란 특정한 시각을 통해 주체가 세계와 관계를 맺는 방식이다. 인물이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는 것은 생활 방식의 변화와 계약에 의해 신뢰가 형성되는 도시민의 세태, 과거 인습에 대한 세대 간 사고의 대립, 기계 문물에 대한 회의 등이다. 「비 오는 길」은 이를 통해 과거로부터 전해 오는 관습을 부정하면서도 새로운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고 주저하는 인물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 ① 여름 초저녁 서편 집 안방에 쳐 놓은 ‘모기장’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생활 방식에 주목하는 병일의 관심을 나타내는 대상이겠군.
- ② 병일이 ‘신원 보증인’이 없어 주인에게 믿음을 받지 못하는 것은, 계약에 의해 신뢰가 형성되는 도시민의 세태로 인해 제대로 대우를 못 받는 병일의 처지를 드러내겠군.
- ③ 병일이 사진관의 사진을 ‘조화되지 않은 광선의 장난’이라고 여기는 것은, 병일이 기계 문물과 그것을 다루는 사람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 주겠군.
- ④ 서문 기왓골의 ‘구렁이’를 대하는 젊은이들과 노인들의 반응은, 과거의 인습에 대한 세대 간의 사고가 대립하고 있음을 나타내겠군.
- ⑤ 병일이 비운 잔에 술을 따라 사진사에게 다시 술잔을 권하지 않는 것은, ‘미신적 습관’을 부정함에도 술꾼들의 관습을 받아들이 수밖에 없는 인물의 내면을 드러내겠군.

[28~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조선 중기 문신 임제는 단종 복위 운동을 하다가 박팽년, 성삼문, 이개, 하위지, 유응부, 유성원 등 여섯 신하가 죽음을 맞은 병자사화(丙子士禍)를 소재로 하여 「원생몽유록」을 창작하였다. 병자사화 당시 박팽년, 성삼문 등 집현전 출신 학자들은 단종으로부터 강제로 왕위를 찬탈한 세조를 제거할 계획을 세우지만 1차 시도가 실패로 돌아갔다. 이 과정에서 성삼문은 거사를 미루자고 제안하였고 무인(武人)이었던 유응부는 문신들의 유유부단함을 질책하며 예정대로 거사를 치르자고 주장하였는데, 논의 끝에 성삼문의 의견대로 거사를 미루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거사의 전말이 발각되어 단종 복위 운동이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다.

㉠ 임제는 바로 이러한 병자사화를 소재로 하여 정치권력의 모순을 폭로하기 위해 「원생몽유록」을 창작한 것이었다.

이처럼 몽유록은 조선 시대 제도권에서 소외된 식자층들이 꿈을 활용한 담화 형식을 통해 현실에서의 불만이나 자신들의 이상을 표출한 서사 양식이다. 특히 몽유록은 역사적 사실과 인물을 토대로 서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서사는 몽유자의 시각을 통해 전개된다. 몽유자는 환몽의 상황을 직접 경험하는 인물로서, 몽유자가 현실에서 가졌던 문제의식과 고뇌가 몽유 과정 속에도 반영되어 현실 세계와 몽유 세계에서 공통된 관심사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즉 몽유자의 특성과 인식이 꿈꾸기 전과 꿈속 세계, 꿈꾼 후에 이르기까지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한편 몽유자 본인이 주인공인 동시에 작중 서술자인 경우도 있지만, 몽유자의 경험을 다른 인물이 듣고 몽중 상황에 대한 논평을 덧붙이는 경우도 있다.

(나) 세상에 원자허(元子虛)라는 자가 있었으니 강개한 선비였다. 기개가 씩씩하고 도량이 크되 시대를 타고나지 못해 나은(羅隱)과 같은 억울함을 자주 품었고, 원헌(原憲)과 같은 가난함을 견디기 어려웠다. 아침에 나가 밭 갈고 밤에 돌아와 옛사람의 책을 읽되, 벽을 뚫어 빛을 끌어들이거나 반딧불이를 주머니에 잡아 넣는 등 갖가지 방법을 모두 썼다. 역사책을 보다가 나라가 망하고 운수가 바뀌어 세력이 없어지는 곳에 이르러서는 과연 책을 덮고 눈물을 흘리며, 마치 자신이 그때에 처하여 나라의 패망을 보면서도 부지할 힘이 없어 애태우는 양했다.

중추 한가위 저녁에 달빛을 좇아 책을 펼쳐 보는데 밤이 무르익자 피로해져 절상에 기대어 잠이 들었다. 몸이 갑자기 가벼이 들려 아득히 오르니, 시원한 기분이 마치 바람을 몰고 올라가는 양하고, 표연한 느낌이 마치 깃이 돌아 신선이 된 듯하였다. 어느 강기슭에 이르렀더니, 긴 물결이 굽이쳐 이어지고 첩첩 산이 나타났다. 때는 한밤중이어서 사방이 적막한데, 달빛이 대낮 같고 물결이 비단처럼 빛나며, 바람이 갈잎을 울리고 이슬이 단풍 숲에서 굴러떨어졌다. 처량히 눈을 들어 보니 마치 천만 가지 느껴움과 답답함이 불평스러운 기운으로 맺혀 풀 수 없을 듯하였

다. 이에 ‘휘익’ 하고 길게 휘파람 소리를 내고는 낭랑하게 절구한 수를 다음과 같이 읊조렸다.

한스러운 강 물결 오열하며 흐르지 못하고
갈대꽃 단풍잎은 차갑게 비비며 스삭거린다
분명코 장사의 강 언덕이로구나
달빛도 흰데 영령들은 어디서 노니는가?

배회하며 기웃기웃하는 즈음에 갑자기 발소리가 멀리서부터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다. 얼마 있더니 갈대꽃 덩굴 깊은 곳에서 어떤 호남아가 번득 뛰쳐나왔다. 복건과 유생복 차림에 표정이 맑고 눈썹이 준수하였다. 늙름하기가 수양산 백이숙제 같았다. 그가 앞으로 와서 읊하며 말하기를,

“자허는 어찌 그리 더디 오시는가? 우리 임금께서 받들어 마중하게 하셨다네.”

하니, 자허는 그가 산의 정령이나 나무 도깨비인가 의심하여 놀라 대꾸할 말이 없었다. 그러나 그 모습이 빼어나고 행동거지에 기품이 넘쳐 저도 모르게 속으로 ‘뛰어난 이로다.’ 감탄하며 이내 뒤따라 걷게 되었다. 백여 걸음쯤 가자 우뚝 솟은 정자가 강 앞에 나타났다.

어떤 사람이 난간에 기대앉아 있는데 옷차림이 임금 같았고, 또 다섯 사람이 옆에서 모시고 있었는데 모두 벼슬아치의 복장을 했으며 각기 등급이 있었다. 그 다섯 사람은 모두 세상에 드문 호걸들로서 모습이 당당하고 기백이 양양하였다. 가슴속에는 고마(叩馬)와 도해(蹈海)의 의리와 경천봉일(擎天捧日)의 충성을 품고 있었다. 진실로 이른바 6척의 어린 고주(孤主)를 부탁하고 백 리의 제후국을 맡길 만한 자들이었다.

자허가 다다른 것을 보고는 다섯 사람이 모두 나와 맞이하며 예를 갖추었다. 자허는 마주 예를 행하지 않고 이들을 지나쳐 곧장 앞으로 걸어가 임금을 알현하였다. 그러고는 도로 걸어 나와 물러서서는 말석에 꿇어앉아 모두 좌정하기를 기다렸다. 복건을 쓴 자가 자허의 오른쪽에 앉고, 그 위로는 다섯 사람이 차례로 앉았다. 자허는 이상하기 짝이 없어 몹시 불안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일찍부터 난초 향기와 같은 명성을 들어온 터라 깊이 사모하는 마음이 하늘에 닿았소. 좋은 밤에 만났으니 상대를 의아해 하지는 마시구려!”

하니, 자허가 곧 자리에서 일어나 비켜서서 감사의 표시를 하였다.

자리를 잡고 앉은 후에 서로 고금의 흥망을 논하였는데 다들 열심이어서 누구도 지루해하지 않았다. 복건 쓴 자는 한숨을 쉬면서 탄식했다.

“요순탕무는 만고의 죄인입니다. 후세에 여우처럼 알랑거리려 선위를 차지하는 자가 그에 근거를 대고, 신하로서 임금을 정벌하는 자가 그로부터 명분을 삼습니다. 천 년의 도도한 세월

이 흘렀건만 누구도 그 폐해를 구제하지 못했습니다. 네 임금
은 역적의 효시가 되었습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임금이 정색을 하고 말했다.

“아! 이게 무슨 말인가? 네 임금의 거룩함이 있으면서 네 임금
과 같은 시대에 처하였다면 가하거니와, 네 임금의 거룩함이
없고 네 임금의 때도 아니라면 불가한 것이다. 네 임금이 무슨
죄가 있겠는가! 네 임금을 빙자하여 명분을 삼는 자들이 역적
일 뿐이다.”

복건 쓴 자가 손을 올려 절하고 고개를 조아리며 사과하였다.

“마음속에 불평이 있어 그 말이 지나치게 분격하는 줄 저 스스
로도 몰랐나이다.”

임금이 이르기를,

“그만두시오! 아름다운 손님이 자리에 계시니 한가로이 다른
일을 논하지는 마시지요. 달 희고 바람 맑은데, 이 같은 좋은
밤을 어찌 그냥 넘기겠는가?”

하고는, 곧 비단 두루마기를 벗어 주고 강마을에서 술을 받아 오
게 하였다.

술이 몇 순배 돌아 임금이 잔을 잡고 흐느껴 울며 여섯 사람을
돌아보고 이르기를,

“경들은 각자 자기 뜻을 말하여 말 못 할 억울함을 풀어 보지
않겠는가?”

하니, 여섯 사람이 말했다.

㉠ “임금께서 노래를 지어 부르시면 신들이 거기에 화답하겠나
이다.”

임금이 비감한 표정으로 옷깃을 매만지고, 슬픔을 이기지 못
해 노래하였다.

[중략 부분 줄거리] 임금과 다섯 신하. 원자하는 자신들이 처한 현실
에 대해 울분을 토하거나, 지난 역사에 대한 회한을 담아 시를 읊는다.

얼마 안 있어 갑자기 범 같은 한 선비가 들어왔다. 키가 남들보
다 월등히 크고 기상이 유달리 용맹하며, 얼굴은 대춧빛처럼 검
붉고 눈은 별과 같이 빛났다. 문산의 의리, 중자의 맑음으로 위풍
이 넘쳐 보는 이로 하여금 절로 존경심이 일게 하였다. 그가 앞으
로 나아가 임금을 알현하고 다섯 사람을 돌아보며 이르기를,

“아! 썩은 유생들과는 큰일을 함께 이루지 못하겠구나.”

하였다. 이어서 칼을 뽑아 들고 일어나 춤을 추면서 비분강개하
여 노래를 하는데 그 소리가 마치 큰 종소리와 같았다.

바람 소슬하니 나뭇잎 지고 물결은 차다
칼 어루만져 긴 휘파람 불 제 북두성 비졌도다
[A] 살아서는 충효 온전하고 죽어서는 굳센 혼백 되었도다
그 도량 어떠한가 둥그런 명월이로다
아아! 함께 창업을 도모할 수 없는 썩은 유생들 누구라 탓하라

노래가 미처 끝나지도 않았는데 달이 어두컴컴해지고 시름겨
운 구름이 끼더니, 비가 쏟아지고 바람이 몰아쳤다. 귀를 찢는
천둥소리가 울리니 모두가 홀연히 흩어졌다. 자허도 놀라 깨어
나니 한바탕 꿈이었다.

자허의 벗 해월거사가 듣고는 통곡하여 말하기를,

“무릇 옛날부터 임금이 흐리멍덩하고 신하가 사리에 어두우면
마침내 나라가 전복되는 지경에 이른 일이 많았네. 자네 이야
기를 들어 보니 그 임금 노릇 하는 자는 필시 현명한 임금으로
여겨지고, 그 여섯 사람도 모두 충의로운 신하임이 분명하네.
충의로운 신하들이 현명한 임금을 보필하였는데, 어찌 이리
참혹한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오호라! 세력이 그렇게 만
든 것인가? 시운이 그렇게 만든 것인가? 그렇다면 불가불 세
력과 시운에 원인을 돌려야 하고, 또한 하늘에도 돌리지 않을
수 없네. 하늘에 원인을 돌린다면 **복선화음***은 하늘의 도가 아
니었던가? 무릇 하늘에 원인을 돌릴 수 없다면 캄캄하고 막연
하여 이 이치를 이해하기 어려우니, 우주는 아득하여 다만 지
사(志士)의 한을 보텔 뿐이로세.”

하였다.

— 임제, 「원생몽유록」

***나은**: 중국의 이름 높은 시인으로, 어려서부터 재능이 있었지만 과거 시험에 열 번
이나 낙제를 하였음.

***원한**: 춘추 전국 시대 공자의 제자로, 집안이 가난했지만 절의를 지키고 안빈낙도
를 추구하였음.

***장사**: 초나라의 굴원이 빠져 죽기도 하고, 그 지류에 초의제가 시해되어 버려진 곳.

***고마**: 말 앞에서 머리를 조아린다는 뜻으로, 주나라 무임금이 은나라를 치러 갈 때
백이와 숙제가 말고삐를 잡고 막았다는 고사에서 유래함.

***도해**: 바다에 몸을 던진다는 뜻으로, 춘추 전국 시대 노중련이라는 선비가 신원연
이 진나라를 황제국으로 높이겠다고 한 말을 듣고 바다에 몸을 던지려 했다는 고
사에서 유래함.

***경천봉일**: 하늘을 떠받치고 해를 떠받들 충성.

***요순탕무**: 요임금은 자신의 신하였던 순에게 천하를 물려주었고, 탕왕과 무왕은
각각 하나라와 상나라를 정벌하여 새로운 왕조를 세웠음.

***복선화음**: 착한 사람에게는 복을 주고 악한 사람에게는 재앙을 줌.

28

▶ 23051-0133

(가)를 참고할 때 (나)를 읽은 후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원자허가 처한 상황과 그의 성격을 묘사한 것은 몽유자의 성격을 드러내어 주제 의식을 드러내는 데 기여하는군.
- ② 임몽 이전에 시대 현실에 대해 원자허가 가진 울분은 몽중에서 임금이 높이 평가하는 원자허의 지조로 이어지는군.
- ③ 해월거사가 원자허의 꿈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것은 몽유자가 현실에서 가졌던 고뇌가 몽유 과정을 통해 완전히 해소되었기 때문이군.
- ④ 해월거사가 임금과 여섯 신하에 대해 안타까워한 것은 몽유자의 경험을 다른 인물이 듣고 몽중 상황에 대한 논평을 덧붙이는 경우에 해당하는군.
- ⑤ 원자허가 꿈속에서 여러 사람과 국가의 흥망에 대해 논하는 것은 제도권에서 소외된 식자층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꿈을 활용한 담화 형식을 통해 드러냈음을 보여 주는군.

29

▶ 23051-0134

㉠을 바탕으로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이상하기 짝이 없어 몹시 불안’해하는 자허의 모습은 세조에 의해 왕위를 찬탈당한 단종의 상황에 대한 자허의 연민을 형상화한 것이군.
- ② ‘후세에 여우처럼 알랑거리려 선위를 차지하는 자’에 관한 ‘복건 쓴 자’의 인식은 단종의 왕위를 빼앗은 세조에 대한 사육신의 입장과 유사하군.
- ③ ‘자기 뜻을 말하여’ 풀어 보고자 하는 ‘말 못 할 억울함’은 병자사화로 인해 단종과 여섯 신하가 모두 느낄 법한 감정에 해당하는군.
- ④ ‘아! 썩은 유생들과는 큰일을 함께 이루지 못하겠구나.’는 세조를 처단할 계획이 실패한 과정에서 문신들의 우유부단함을 질책한 유응부의 입장이 연상되는군.
- ⑤ ‘복선화음은 하늘의 도가 아니었던가?’는 세조가 왕위를 찬탈한 상황에 대한 작가의 비판적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군.

30

▶ 23051-0135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복건 쓴 이는 임금의 지시에 따라 원자허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 ② 원자허는 복건 쓴 이의 외양을 근거로 그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 ③ 임금은 요순탕무에 대하여 복건 쓴 이의 평가와 다른 견해를 드러내었다.
- ④ 원자허는 꿈속에서 경험한 내용을 해월거사에게 전달하기 위해 꿈에서 깨려고 노력하였다.
- ⑤ 해월거사는 원자허의 꿈에 등장한 여섯 신하의 충절을 높이 평가하였다.

31

▶ 23051-0136

㉠에 대해 임금이 <보기>와 같이 노래를 불렀다고 할 때, [A]와 <보기>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보기

강 물결 흑흑 흐느끼는 소리여 끝이 없도다
 내 한스러움 길고 길어 그와 같구나
 살아서는 천승의 임금 죽어서는 외로운 닢
 새 임금은 가짜 임금* 제왕은 거짓 높임*
 옛 나라 백성들 모조리 항적에게 옮겨 주었네
 예닐곱 신하 함께하니 닢을 그나마 기대했더니
 오늘 밤이 무슨 밤이뇨 강 누각에 같이 올랐노라
 달빛에 빛난 물결 내 마음 시름겹게 하느니

*새 임금은 가짜 임금: 초나라 항량이 민심을 바탕으로 초희왕을 옹립함.
 *제왕은 거짓 높임: 항량의 조카가 실권을 잡고 초희왕을 ‘의제’라 칭하며 거짓으로 높이면서 업신여김.

- ① [A]에는 <보기>와 달리 화자의 고뇌를 부각하는 자연물이 드러나 있다.
- ② [A]에는 <보기>와 달리 자신이 처한 현실에 대한 화자의 애상적 정서가 드러나 있다.
- ③ <보기>에는 [A]와 달리 노래를 듣고 있는 신하들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 인식이 드러나 있다.
- ④ [A]와 <보기>에는 모두 화자가 이르고자 하는 이상적 공간이 드러나 있다.
- ⑤ [A]와 <보기>에는 모두 자신이 저지른 행위에 대한 화자의 반성적 인식이 드러나 있다.

[32~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영산홍록(映山紅綠)에 봄바람 넘노나니 황봉백접(黃蜂白蝶)
 붉은 꽃 푸른 잎은 산양산기(山陽山氣)를 자랑하고
 가는 새 오는 나비 춘기춘흥(春氣春興)을 조롱한다
 죽장(竹杖)을 짚고 망혜(芒鞋)를 신어라
 천리강산 들어가니 만장폭포도 좋거니와
 여산(廬山)이 여기로다 비류직하삼천척(飛流直下三千尺)
 의시은하낙구천(疑是銀河落九天)^{*}은 옛글에도 일러 있고
 타기황앵(打起黃鶯)^{*} 아이들은 막교지상(莫教枝上)에 한을
 마라

피꼬리 탓이 아니더냐 황금 같은 저 피꼬리
 황금 갑옷 펼쳐입고 세류영(細柳營)에 넘노는 듯
 벽력같이 우는 소리 깊이 든 잠 다 깨운다
 산 절로 수 절로 하니 산수 간에 나도 나도 절로
 이 중에 절로 난 몸이 늙기도 절로 하리
 ㉠ 화류 장대(章臺) 고운 여자
 너희 얼굴 곱다 하고 자랑하지 말려무나
 뒷동산 피는 꽃은 명춘 삼월 피려니와
 나와 같은 초로인생(草露人生) 한번 끄적 죽어지면
 다시 갱생 어려워라
 낙양성 십리허에 높고 낮은 저 무덤은
 영웅호걸이 몇몇이며 절대가인이 몇몇이나
 통일천하 진시황은 아방궁(阿房宮)을 사랑 삼고
 삼천궁녀를 시위하여 몇만 년을 살자 하고
 만리장성 굳게 쌓고 기천만 년 살았더니
 사구평대(沙丘坪臺) 저문 날에 여산청초(驪山靑草) 속절
 없다^{*}

- 작자 미상, 「영산가(廬山歌)」

*비류직하삼천척 / 의시은하낙구천: 삼천 척이나 되는 폭포가 나는 듯이 곧장 쏟아져 내리니 마치 저 높은 하늘에서 은하수가 떨어지는 듯하네. 이백(李白)의 「망여산폭포」의 한 구절.

*타기황앵: 나무를 쳐서 피꼬리를 날아가게 함.

*사구평대 ~ 속절없다: '사구평대'는 진시황이 죽은 곳, '여산'은 진시황이 묻힌 곳으로, 인생무상을 의미함.

(나) 벼슬을 저마다 흐면 농부(農夫) 흐 리 뉘 이시며
 의원(醫員)이 병(病) 고치면 북망산(北邙山)이 저려흐라
 아히야 잔(盞) ㄱ특 부어라 내 뺏대로 흐리라

- 김창업

(다) 술 먹고 뿔뚝 뿔뚝 뿔뿔러 가며 먹지 마자 크게 맹서(盟誓) |
 흐엿더니
 춘하추동(春夏秋冬) 호시절(好時節)의 ㉠ 남린(南隣) 북촌(北村)
 다 청(請) 흐여 희호동락(熙皞同樂) 흐을 머레 어허 맹서(盟

誓) | 가소(笑) | 로다

인생(人生)이 일장춘몽(一場春夢)이니 먹고 놀며 흐노라

- 작자 미상

32

▶ 23051-0137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색채어를 활용하여 화자가 느끼는 계절감을 나타내고 있다.
- ② (나)는 화자가 특정한 대상을 부르며 자신이 바라는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
- ③ (다)는 감탄사와 감탄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나타내고 있다.
- ④ (가)와 (나)는 화자가 청자에게 묻는 방식으로 자신의 심리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 ⑤ (가)와 (다)는 한자어를 활용하여 삶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집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33

▶ 23051-0138

<보기>를 바탕으로 (가)~(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선생님: 고전 시가에서 덧없고 유한한 인생을 소재로 삼는 작품들은 살아 있는 동안 유희를 즐기자는 내용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는 잡가로 무상감에 얽매이지 않고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유희를 즐기는 모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는 사대부 가사의 영향을 받아 옛 글을 인용하거나 중국 고사를 언급하는 등 상류층의 언어 관습을 따르는 특성이 있습니다. (나)는 평생 관직에 나서지 않았던 김창업의 시조로 유한한 인생 속에서 자기 방식대로 즐기며 살아가겠다는 태도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설시조인 (다)도 인생은 덧없는 것이므로 술을 마시며 즐기겠다는 태도를 노래하고 있는데, 장황한 수사나 일상의 모습에 대한 구체적 묘사 등을 통해 흥미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 ① (가)의 ‘만장폭포’는 화자가 유희를 즐길 수 있는 자연을 가리키고, ‘여산이 여기로다’는 아름다운 자연에 대한 화자의 만족감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② (나)의 ‘의원이 병 고치면 북망산이 저려하랴’는 그 누구도 죽음을 막을 수 없음을 언급하며 인생이 유한하다는 화자의 생각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③ (가)의 ‘산 절로 수 절로 하니 산수 간에 나도 나도 절로’는 화자가 자신의 덧없는 인생을 빗댄 것으로, (다)의 ‘희호동락 흥을 머뭇’는 화자가 유희를 즐기기 위해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④ (가)의 ‘만리장성 굳게 쌓고 기천만 년 살았더니’는 중국 고사를 언급한 것으로, (다)의 ‘술 먹고 빚둑 뷔쳐 뷔저러 가며’는 일상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⑤ (나)의 ‘내 뺏대로 흐리라’와 (다)의 ‘먹고 놀여 흐노라’는 인생을 즐기며 살아가겠다는 화자의 태도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겠군.

34

▶ 23051-0139

㉠와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와 달리 화자가 재회를 바라는 존재이다.
- ② ㉡는 ㉠와 달리 화자와 즐거움을 공유하는 존재이다.
- ③ ㉠와 ㉡는 모두 화자가 장점을 인정하며 부러워하는 존재이다.
- ④ ㉠와 ㉡는 모두 화자가 내적 갈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는 존재이다.
- ⑤ ㉠은 화자의 처지와 동일시되는 존재이고, ㉡는 화자의 처지와 대비되는 존재이다.

35

▶ 23052-0140

<보기>는 소리의 동화에 대한 설명이다. ㉠과 ㉡이 모두 일어난 예로 적절한 것은?

보기

음운 변동에서 교체의 일종인 동화는 어떤 음운이 앞뒤 다른 음운의 영향을 받아 그 음운과 비슷하거나 같은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을 말한다. 앞의 음운이 뒤의 음운에 영향을 주면 순행 동화, 그 반대면 ㉠역행 동화라고 하고, 영향을 받는 음운이 영향을 주는 음운과 같아지면 ㉡완전 동화, 비슷해지면 부분 동화라고 한다.

- ① 국물[궁물] ② 엮는[엄는] ③ 낮말[난말]
- ④ 신라[실라] ⑤ 칼날[칼랄]

실전 모의고사 1회
실전 모의고사 2회
실전 모의고사 3회
실전 모의고사 4회
실전 모의고사 5회

36

▶ 23052-0141

〈보기〉는 훈민정음의 특징 중 일부를 설명한 표이다. ㉠과 ㉡에 들어갈 수 있는 말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3점]

보기

특징	사례
기본자는 발음 기관 또는 하늘, 땅, 사람의 모습을 본떠서 만들었다.	㉠
기본자에 획을 더하거나 기본 자끼리 합쳐 또 다른 글자를 만들었다.	‘ㄴ’에 획 하나를 더하여 ‘ㄷ’을 만들고, ‘ㅅ’과 ‘ㄱ’을 합쳐 ‘ㅆ’을 만들었다.
같은 성질을 가진 글자는 글자 모양을 유사하게 만들었다.	㉡

	㉠	㉡
①	‘ㄷ’과 ‘ㄹ’은 획이 더해진 글 자이지만 소리가 세어지지 않는다.	‘ㄴ’과 ‘ㄷ’은 발음 위치가 동일하다.
②	‘ㅣ’는 사람이 서 있는 모양을 상형한 것이다.	‘ㄱ’에 비해 ‘ㅋ’은 소리가 거 세졌을 뿐 다른 성질은 같다.
③	‘ㅏ’는 ‘ㅣ’의 오른쪽에 ‘·’를 합친 글자이다.	‘ㅡ’는 땅의 평평한 모양을 상 형한 것이다.
④	‘ㅅ’은 이의 모양을 상형한 것 이다.	원칙적으로 종성에서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의 8가지 글자만을 사용하였다.
⑤	종성을 위해서는 따로 글자를 만들지 않고 초성의 글자를 다시 썼다.	‘ㅅ’과 ‘ㅂ’을 나란히 써서 ‘ㅆ’ 을 만들었다.

[37~3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우리말의 ‘이다’는 홀로 쓰일 수 없고, 다른 말과 결합하여서 만 쓰일 수 있다는 점에서 조사의 특성을 갖는다. 그런데 결합하는 단어에 따라 ‘이’가 탈락될 수 있어 특이하다. 가령, ‘장미이다’는 ‘장미다’와 같이 쓸 수 있는데, 결합하는 단어의 마지막 음절이 모음으로 끝나면 ‘이’가 탈락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달리, ‘꽃이다’와 같이 결합하는 단어의 마지막 음절이 자음일 때는 ‘*꽃다’와 같이 ‘이’가 탈락될 수 없다.

‘이다’는 다른 말과 결합하여 ‘학생이다’, ‘학생이었다’, ‘학생이겠다’ 등과 같이 활용하여 문장에서 주어의 속성이나 부류를 지정하는 뜻으로 쓰인다. 그런데 이때에도 특이한 점이 있다. 과거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었-’이 ‘이다’와 함께 쓰일 때, 결합하는 단어의 마지막 음절이 모음인 경우 ‘-였-’으로 줄여 쓸 수 있다. 가령, ‘오징어이었다’는 ‘오징어였다’로 쓰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앞말이 자음으로 끝난 경우에 ‘공책이었다’를 ‘*공책였다’와 같이 줄여 쓸 수 없다. 간혹 ‘*공책이었다’와 같이 쓰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이는 잘못된 표기이다. ‘-였-’은 ‘이었-’이 줄어든 말이므로 ‘*공책이었다’는 ‘*공책이이었다’라고 쓴 것과 같기 때문이다. ㉠ ‘이-’에 종결 어미 ‘-에요’가 결합된 ‘이에요’를 줄여 쓰는 경우도 이와 동일하다.

한편 ‘아니다’는 ‘이다’와 다르게 체언과 결합하지 않고도 홀로 쓰일 수 있어 조사로 보기 어렵고 ‘아니다’, ‘아니고’, ‘아니니’ 등과 같이 활용할 수 있으므로 용언으로 볼 수 있다. 특히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와의 결합이 어렵고, 명령형이나 청유형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형용사라고 할 수 있다.

형용사 ‘아니다’의 활용에서도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가 결합할 때의 표기에 유의해야 한다. 형용사 어간 ‘아니-’에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었-’과 종결 어미 ‘-다’가 결합하면 ‘아니었다’가 된다. 그런데 ‘*아니였다’로 잘못 쓰는 경우가 많다. ‘아니-’에 ‘이다’가 다시 결합할 이유가 없으므로 ‘*아니였다’와 같은 표기는 잘못이다.

*는 문법에 맞지 않는 표기임을 나타냄.

37

▶ 23052-0142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장미이다’는 문장에서 서술어로 쓰인다.
- ② ‘이다’는 조사와 용언의 성격을 모두 갖는다.
- ③ ‘이다’의 ‘-다’는 ‘먹다’의 ‘-다’처럼 종결 어미이다.
- ④ ‘아니다’의 활용을 고려하면 ‘아니다’의 어간은 ‘아니-’이다.
- ⑤ ‘아니예요’의 종결 어미 ‘-예요’는 ‘-예요’에서 줄어든 것이다.

38

▶ 23052-0143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꽃이에요’는 ‘*꽃이이에요’로 볼 수 있겠군.
- ② ‘장미예요’의 ‘예’는 ‘이에’가 줄어든 말이겠군.
- ③ 자음으로 끝난 명사 뒤에서 ‘이에’는 ‘예’로 줄지 않겠군.
- ④ ‘호랑이’와 ‘이에요’가 결합한 ‘호랑이에요’는 올바른 표기이겠군.
- ⑤ 모음으로 끝난 명사 뒤에서 ‘이에’는 ‘예’로 쓰는 것이 자연스럽겠군.

39

▶ 23052-0144

<보기>의 ㉠에 해당하는 문장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우리말에서는 화자가 청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높임 표현을 쓰는 경우가 있다. ㉠ 화자 입장에서는 높이지 않아도 되는 대상이 청자에게 높임의 대상이 되는 점을 고려하여 그 대상을 높이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 ① (아들이 엄마에게) 할머니께서는 어디 가셨나요?
- ② (할머니가 손자에게) 이거 아빠한테 갖다 드려라.
- ③ (누나가 동생에게) 어제 할머니께 보청기 사 드렸어.
- ④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아버지 지금 밖에 나갔습니다.
- ⑤ (교사가 유치원생에게) 우리 친구들, 동물 사진 잘 보았나요?

[40~43] 다음은 실시간 인터넷 개인 방송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진행자: 반갑습니다. 매주 월요일 패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 보는 ○○○의 진행자 유이 대디입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프로그램 진행해 주실 패션 저널리스트 김□□ 님을 소개합니다. 김□□: 안녕하세요. 패션 전문 잡지 △△△을 발간하고 있는 저널리스트 김□□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복고풍 패션에 대한 내용을 다뤄 볼까 합니다. 지난주 옷을 사러 매장에 방문해 진열된 옷들을 보니 확실히 복고풍, 그러니까 레트로가 정말 대세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복고 사랑: 제 주변에서는 레트로보다는 뉴트로라는 말을 더 많이 쓰던데요, 뉴트로가 맞는 표현 아닌가요? ㉠

복고 사랑 님 말씀대로 먼저 무엇이 정확한 용어인지부터 확인해야겠군요.

김□□: 레트로(Retro)는 회상이나 추억 등을 의미하는 단어인 레트로스펙트(Retrospect)에서 온 말이고요, 뉴트로는 레트로에 새롭다는 의미의 ‘New’를 결합한 말이니 모두 과거의 것을 바탕으로 한다는 공통점이 있죠. 하지만 레트로는 과거를 그리워하면서 그것을 재현하려는 경향을 뜻하고, 뉴트로는 기성세대들의 문화를 신세대들이 색다른 발상으로 재해석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 유행하는 패션을 지칭하는 것이라면 뉴트로라고 말하는 것이 ㉡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진행자: 뉴트로가 더 적절한 표현이니 앞으로 용어 사용에 신경을 써야겠네요. (웃음) 확실히 뉴트로가 유행인 것 같아요. 요즘에는 50대의 부모님들이 20대 자녀들의 패션이 익숙하다고 말씀하실 정도니까요.

☎ 패션 공주: 맞아요. 저도 우리 엄마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20년 전 사진인데 엄마의 패션이 지금의 패션과 크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

패션 공주 님처럼 자녀들이 부모님의 옛날 사진이 낯설지 않다고 느끼는 경우도 또 하나의 뉴트로 유행 사례가 될 수 있겠네요.

실전 모의고사 1회
실전 모의고사 2회
실전 모의고사 3회
실전 모의고사 4회
실전 모의고사 5회

웃음 가득: 저는 유행에 민감하지 않아서 뉴트로 패션을 잘 모르겠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㉔

웃음 가득 님, 오랜만입니다. 궁금하신 점은 패션 저널리스트께서 ㉔ 알려 주실 겁니다. 그렇죠?

김□□: 네, ㉔ 저만 믿으세요. (웃음) 아마도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 유행했던 ㉔ 소위 세기말 패션이 최근 다시 유행하는 것 같아요. 상의 길이가 짧아서 독특했던 1990년대의 배꼽티가 이제는 크롭 티로 불리며 유행하고 있고요, 또 그 시기에 통바지로 불렸던 너넉한 크기의 바지가 이제는 와이드 팬츠로 불리며 널리 사랑받고 있습니다. 또 머리 장신구 중 곱창 밴드나 집게 핀도 다시 사랑받고 있는 것들이죠.

[B]

머리핀 사랑: 곱창 밴드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사용되던 장신구 중 하나이니, 뉴트로의 사례는 아닌 것 같아요.㉕

머리핀 사랑 님의 말씀처럼 곱창 밴드는 지속적으로 사용되었지만 최근에 사용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뉴트로의 하나로 소개를 한 것입니다.

패션 집중: 그런데 과거에 유행했던 것들이 다시 유행하는 이유는 뭘까요?.....㉖

진행자: 패션 집중 님께서 왜 예전의 유행이 다시 나타나는지를 물어보셨는데요. 사실 저도 묻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김□□: 글썄요. 전문가들마다 생각들이 다 달라서 정확히 이렇다고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㉖ 패션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한정적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예를 들어 바지의 경우 너넉한 폭을 가진 것에서 몸에 달라붙는 것까지 세 가지나 네 가지 정도의 형태가 있는 거죠. 그런데 계속해서 현재와 다른 새로움을 추구하다 보니 돌고 돌아 결국 예전의 유행이 다시 사랑받게 되는 것 같아요.

[C]

진행자: 오늘 방송으로 뉴트로 패션에 조금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고정 시청자 등록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꼭 고정 시청자 등록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도 김□□ 님과 함께 올가를 유행하게 될 패션 아이템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꼭 참여하여 많은 의견 보내 주세요. 그럼 안녕!

40

▶ 23052-0145

위 방송에 반영된 진행자의 방송 계획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청자들의 관심이 중요한 매체이니, 지난 방송의 인기를 실감했던 개인적 경험을 제시하면서 방송을 시작해야지.
- ② 방송 중간에 접속한 경우 앞의 내용을 볼 수 없으니, 마무리 인사 전에 방송의 주요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해야지.
- ③ 고정 시청자들의 참여가 중요하니, 고정 시청자의 댓글을 소개할 때 이전 방송에서 달았던 댓글도 함께 언급해야지.
- ④ 매주 주기적으로 새로운 영상을 제작하고 있으니, 다음 방송의 출연자와 내용을 예고하고 시청자의 참여를 유도해야지.
- ⑤ 시청자의 흥미를 유지해야 하니, 긴 설명이 필요한 내용은 접속자가 직접 찾아볼 수 있는 누리집 주소를 소개하여 제시해야지.

41

▶ 23052-0146

매체 수용자의 역할을 중심으로 ㉑~㉖의 기능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㉑: 진행자의 발언에서 사용된 용어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질문으로, 진행자가 김□□의 발언을 바탕으로 해당 방송에 더 적합한 용어가 '뉴트로'임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 ② ㉒: 진행자의 발언 내용과 호응하는 자신의 경험을 소개한 것으로, 진행자가 '뉴트로'의 유행을 보여 주는 또 하나의 사례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
- ③ ㉓: 진행자가 진행하는 방송의 주요 제재에 대한 추가적 정보를 요청하는 질문으로, 진행자의 요청으로 김□□가 '뉴트로'의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할 수 있게 한다.
- ④ ㉔: 김□□가 설명한 대상 중 일부에 대한 의구심을 표현한 것으로, 김□□가 자신이 한 말의 오류를 파악하고 '뉴트로'의 사례로 소개한 대상 중 일부를 제외할 수 있게 한다.
- ⑤ ㉕: 주요 소재와 관련하여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은 내용에 대한 질문으로, 진행자가 방송 내용의 흐름을 전환하며 유행이 반복되는 이유를 김□□에게 물을 수 있게 한다.

42

▶ 23052-0147

[A]~[C]에 나타난 진술 방식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서는 [C]와 달리 유사한 속성을 공유하는 두 대상이 갖는 차이점을 소개하고 있다.
- ② [B]에서는 [C]와 달리 현재 나타난 상황을 과거의 특정 시기와 연관 지어 설명하고 있다.
- ③ [C]에서는 [A]와 달리 이어질 설명 내용이 가진 한계점을 먼저 제시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이어 가고 있다.
- ④ [A]와 [B]는 모두 과거의 특정 현상이 현재의 특정 현상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전달하고 있다.
- ⑤ [B]와 [C]는 모두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이를 설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사용하고 있다.

43

▶ 23052-0148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추측 표현인 ‘-ㄹ 것 같다’를 사용하여 발화자 자신의 의견을 완곡하게 드러내고 있다.
- ② ㉡: 보조 동사 ‘주다’를 사용하여 패션 전문가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시청자를 위한 것임을 드러내고 있다.
- ③ ㉢: 보조사 ‘만’을 사용하여 발화자 자신의 전문적 지식과 견해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④ ㉣: 부사 ‘소위’를 사용하여 ‘세기말 패션’이라는 용어가 발화자 자신에 의해 처음 쓰이게 된 것임을 드러내고 있다.
- ⑤ ㉤: 부정어 ‘아니다’와 의문형 어미 ‘-ㄹ까’를 결합하여 발화자 자신의 의견을 조심스럽게 드러내고 있다.

[44~45] 다음은 블로그 내용이다. 물음에 답하십시오.

블로그 126개의 글 목록 열기

[건강 상식] 밥 배와 디저트 배는 따로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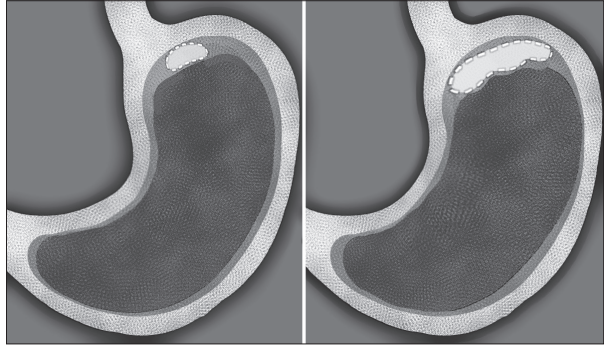
정보 사랑 님 · 작성 2023. 05. 22. 19:00 URL 복사

‘밥 배 따로, 디저트 배 따로’라는 말 들어 보셨나요? 혹시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라는 말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어서 하는 우스갯소리로만 알고 계시나요?

정말 ‘배 터지게’ 식사를 한 뒤에 달콤한 디저트의 유혹에 넘어가 또 먹어 본 경험, 모두 다 있으시잖아요? 😊 그런데 어떻게 배가 부른 상태에서 지치지 않고 또 디저트를 먹을 수 있을까요? 정말 궁금하시죠?

예전에 방영된 ‘의학 상식 00’에서 그 내용을 다뤘는데요, 소위 ‘디저트 배’는 뇌가 먹고 싶다는 충동을 느낄 때 실제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해요. 방송에서는 한 남성이 배불리 식사를 하고 나서 평소 좋아하는 과일을 본 후 다시 식욕이 생겨서 먹는 장면을 보여 주었는데요, 이때 식사 후 위의 모습과 달콤한 디저트를 본 후 위의 모습을 비교한 영상이 함께 나왔어요.

[그림 1]



(출처: 의학 상식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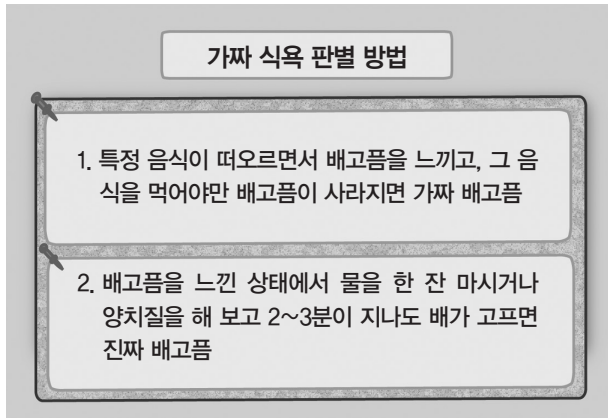
왼쪽 화면은 최대한 많은 양의 식사를 한 뒤의 위 모습이에요. 빈틈이 거의 없이 꽉 찬 거 보이시죠? 실제로 식사를 한 후 남성은 너무 배가 부르다면서 이제 아무것도 먹지 못할 거라는 말을 했어요. 그런데 평소 좋아하는 디저트를 본 후 위가 꿈틀대더니 오른쪽 화면과 같이 위가 확장하면서 공간을 만든 거죠. 정말 놀라운 인체의 신비입니다. 😊

고칼로리 음식을 보거나 냄새를 맡는 것만으로도 뇌의 식욕 중추가 자극을 받으면서 먹고 싶다는 충동을 일으키고, 이어서 보상 중추가 신호를 보내면 위가 가득 찼다고 해도 디저트를 위한 공간을 만들어 내는 거죠. 이런 뇌의 신호는 포만감을 알리는 신호보다 강해서 필요 이상의 음식을 섭취하는 원인이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가정 의학과 전문의 박□□는 “고탄수화물은 인슐린 과다 분비를 부르

고, 인슐린은 혈당을 급격하게 떨어뜨려 다시 탄수화물을 찾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다.”라고 경고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소위 ‘디저트 배’는 가짜 식욕인 셈인데요, 필요 이상의 음식물 섭취는 몸에 악영향을 주니 조심해야겠죠. **가짜 식욕과 진짜 식욕을 구분해서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해야 할 것 같아요.** 가짜 식욕 구별법은 아래 그림을 참고하세요.

[그림 2]



(출처: 의학 상식 ○○)

유익한 정보였나요? 다음에는 오늘 포스팅에 이어서 소위 ‘디저트 배’와 관련성이 높은 탄수화물 중독의 개념과 대처 방안에 대해 알아볼게요. 이상 건강한 정보들을 제공하는 정보 사랑이었습니다. 😊

#밥배 #디저트배 #위확장 #가짜식욕

♡ 공감 20 | 💬 댓글 8 | ^

이 블로그의 건강 상식 카테고리 글(클릭 이동)

밥 배와 디저트 배는 따로 있다? 2023. 05. 22.	가짜 배고픔, 다이어트의 적 2022. 08. 19.	가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 2019. 07. 07.	여름철 수면 관리 꿀팁 4가지 2018. 05. 11.
---	-------------------------------------	---	---

<이전 / 다음>

44

▶ 23052-0149

위 블로그의 정보 구성 및 유통 방식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매체 수용자들은 블로그 글을 작성한 시간을 통해 블로그에 소개된 글이 언제 생산된 것인지를 점검할 수 있군.
- ② 매체 수용자들은 글자의 크기와 진하기를 통해 매체 생산자가 어떤 내용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군.
- ③ 매체 수용자들은 블로그 글의 내용에 반응하는 공감하기나 자신의 생각을 작성하는 댓글을 통해 매체 생산자와 상호 작용할 수 있군.
- ④ 매체 수용자들은 ‘이 블로그의 건강 상식 카테고리 글’을 통해 해당 카테고리에서 비슷한 시기에 누적된 동일한 소재를 다른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군.
- ⑤ 매체 수용자들은 블로그 글의 아래에 ‘#’ 기호와 함께 제시된 핵심 정보를 통해 블로그 글의 주요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정보도 용이하게 검색할 수 있군.

45

▶ 23052-0150

위 블로그에서 활용한 시각 매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그림 1]은 [그림 2]와 달리 구체적인 수행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시각 매체이다.
- ② [그림 2]는 [그림 1]과 달리 정보의 출처를 포함하고 있어 정보의 신뢰도가 더 높은 시각 매체이다.
- ③ [그림 1]은 문자로 제시된 정보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된 시각 매체이고, [그림 2]는 문자로 설명한 정보 중 일부를 요약적으로 제시한 시각 매체이다.
- ④ [그림 1]은 방송에 제시된 두 가지 상황을 비교하며 주요 정보를 설명하기 위한 시각 매체이고, [그림 2]는 앞에서 제시한 내용과 관련된 추가적 정보를 제공한 시각 매체이다.
- ⑤ [그림 1]과 [그림 2]는 모두 공통점을 지닌 정보를 나란히 배치하여 정보들 간의 유사한 특성을 부각한 시각 매체이다.

EBS 수능완성
국어영역



**실전 모의고사
3회**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릅니다. 3점 문항에는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01~0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독서 과정을 설명하는 모형은 상향식 모형, 하향식 모형, 상호작용식 모형으로 나눌 수 있다. 세 모형은 완결된 메시지를 가진 의사소통의 단위인 텍스트를 이해하는 과정에 대해 서로 다른 관점을 보여 준다.

① 상향식 모형에서는 독서를 작은 언어 단위의 이해로부터 시작하여 큰 언어 단위의 이해로 확대하면서 전체 의미를 파악하는 직선적인 과정으로 본다. 예를 들어 ‘별’이라는 텍스트를 읽을 때 먼저 낱자 ‘ㅂ, ㄹ, ㅍ’를 인지하고, 다음으로 낱자들의 결합인 ‘ㅂ+ㄹ+ㅍ’로 된 글자를 확인한 후, 그 글자의 의미를 떠올리는 것이다. 따라서 상향식 모형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작은 단위인 낱자의 식별부터 큰 단위인 글 전체의 의미 파악에 이르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여러 기능이다. 하지만 독자가 가진 어휘나 통사 구조에 대한 지식과 문맥 또한 텍스트 이해에 중요하게 작용하므로, 단순히 독서 과정을 직선적이고 상향적인 것으로만 보기는 어렵다.

텍스트 해독을 중시하는 상향식 모형과는 달리, ㉠ 하향식 모형에서는 독서를 텍스트에 대한 독자의 가정이나 추측에서 비롯되는 의미 구성 과정으로 본다. 이런 가정이나 추측은 텍스트의 구조나 내용에 대한 독자의 배경지식에 영향을 받는다. 그러므로 텍스트의 구조나 내용에 대한 풍부한 배경지식을 가진 독자는 텍스트를 쉽게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텍스트의 내용이 독자에게 매우 어려울 때에는 텍스트에 대한 가정과 추측을 하지 않고 단어와 문장의 의미를 순서대로 파악하며 읽어 나가는 것이 오히려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텍스트 내용이 매우 쉬울 때에도 굳이 텍스트에 대한 가정이나 추측에 시간을 소모할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모든 독서를 텍스트에 대한 독자의 가정이나 추측에서 비롯되는 의미 구성의 과정으로만 보기는 어렵다.

상향식 모형에서 중시하는 텍스트 해독을 하향식 모형에서도 독서의 한 과정으로 생각하며, 하향식 모형에서 중시하는 배경지식을 통한 텍스트의 의미 구성 또한 상향식 모형에서도 독서의 한 과정으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두 모형은 상대적으로 독서 과정에서 중심으로 여기고 강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구분되는 것이다. 따라서 독서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는 상향식 모형과 하향식 모형을 함께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텍스트의 직선적인 해독을 중시하고 이로부터 독서를 시작하는 상향식 모형과, 독자의 배경지식을 통한 가정과 추측을 중시하고 이로부터 독서를 시작하는 하향식 모형의 절충적 관점이 상호작용식 모형이다.

상호작용식 모형에서 말하는 상호작용이란 독자가 텍스트 이해에 사용하는 여러 기능 간의 상호작용을 의미한다. 상호작용식 모형에서는 어휘 식별 및 인식과 같은 낮은 수준의 독서 기능부터 가정과 추측을 통한 텍스트의 의미 파악과 같은 상위 수준의 독서 기능까지 다양한 독서 기능이 동시에 상호작용하며 독서가 이루어진다고 본다. 독자의 배경지식을 통한 가정과 추측으로 의미를 구성하는 것은 텍스트에 있는 단어나 문장 등의 의미 해독을 통해 더 정교해지고, 텍스트의 의미 해독은 텍스트에 대한 독자의 가정과 추측 등이 개입하면서 더욱 정교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상호작용식 모형은 독서가 올바르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 원인이 배경지식을 활용한 의미 구성 기능의 문제인지, 언어를 해독하는 능력의 문제인지 명확하게 찾기가 어렵다.

01

▶ 23051-0151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은 독서의 과정을 텍스트 중심으로 생각하며, ㉡은 독서의 과정을 독자 중심으로 생각한다.
- ㉡ ㉠에서 독서의 과정으로 여기는 텍스트의 해독은 ㉡에서는 독서의 과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 ㉢ ㉠은 배경지식을 통해 텍스트의 의미를 가정하고 추측하여 구성하는 것을 독서의 일부라고 생각한다.
- ㉣ ㉡은 텍스트의 구조에 대한 배경지식을 가진 독자가 그렇지 않은 독자보다 텍스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 ㉠과 ㉡이 독서 과정에서 각각 중요하게 여기는 독서 기능이 동시에 상호작용한다고 보는 것이 상호작용식 모형이다.

02

▶ 23051-0152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사례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 ㉠ 동일한 낱자들로 구성된 ‘아버저’와 ‘아버지’를 읽을 때 의미를 쉽게 떠올릴 수 없는 ‘아버저’보다 의미를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아버지’가 더 쉽게 인식된다.
- ㉡ ‘사자-의사’, ‘호랑이-간호사’로 단어를 짝을 지어 제시했을 때보다 ‘사자-호랑이’, ‘의사-간호사’로 단어를 짝을 지어 제시했을 때 지각하는 속도가 더 빠르다.
- ㉢ ‘역시 그는 손이 컸다.’라는 문장은 ‘손’이라는 단어로 인해 중의성을 가지지만, ‘그는 이번에도 음식을 푸짐하게 차렸다.’라는 문장이 앞에 있으면 명확한 의미로 해석된다.

- ① ㉠은 독서를 작은 단위에서 큰 단위의 해석으로 나아가는 직선적인 과정으로 보는 모형을 반박할 수 있는 사례이군.
- ② ㉠은 독자의 배경지식이 텍스트의 정보를 통해 변화하는 것을 보여 주므로 독자와 텍스트가 상호 작용하는 사례이군.
- ③ ㉡는 단어를 주어진 순서대로 파악하는 것이 텍스트의 이해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 주는 사례이군.
- ④ ㉢는 문맥을 파악하는 것이 텍스트 이해에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보는 모형을 반박할 수 있는 사례이군.
- ⑤ ㉢는 독자가 텍스트를 이해하는 것과 배경지식을 활용하는 것은 별개임을 보여 주므로 독서를 상호 작용하는 행위로 보는 모형을 반박할 수 있는 사례이군.

03

▶ 23051-0153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다음의 글이 무엇을 설명하는지 생각하며 읽어 보자.

이 일은 간단하다. 우선 물건을 여러 항목으로 분류하는데, 때로는 한 묶음으로도 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한 번에 너무 많은 물건을 함께 처리하려 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차라리 조금씩 처리하는 것이 낫다. 앞서 언급한 것은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지만 이를 주의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발생한다. 이 일은 꽤 복잡하지만 생활의 한 부분이므로 결국은 알아 두어야 한다. 미래에 이 일을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아무도 미래를 알 수는 없다. 이 일이 끝나면 다시 물건을 여러 항목으로 분류해야 한다. 여러 항목으로 분류된 내용물은 나중에 당신에게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며, 이 일은 반복될 것이다.

이 글은 어려운 단어나 문장이 사용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독자가 글을 이해하기 어려우며 내용을 기억하기도 힘들다. 하지만 ‘세탁기 사용에 대한 글’이라는 제목을 미리 알고 읽으면 쉽게 글을 이해하고 내용을 기억할 수 있다.

- ① 텍스트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원인이 단어를 해독하는 능력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② 독자가 텍스트를 이해하는 데 사용하는 여러 기능 간의 상호 작용이 오히려 텍스트의 내용 추측에 어려움을 준다.
- ③ 텍스트의 문장 구조가 복잡하지 않은데도 해석이 어렵다면 텍스트를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④ 독서를 할 때는 단어와 문장의 의미를 단순히 해독하는 것이 아니라 배경지식을 텍스트와 연결하여 이해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 ⑤ 텍스트의 내용이 어려울 때는 텍스트에 대한 가정과 추측보다는 단어와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며 순서대로 읽는 것이 독서에 도움이 된다.

실전 모의고사 1회
실전 모의고사 2회
실전 모의고사 3회
실전 모의고사 4회
실전 모의고사 5회

[04~0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외부의 간섭 없이 민간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에 따라 경제 활동이 이루어질 때 시장이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하지 못하는 상태를 시장 실패라고 하는데, 시장 실패가 발생하는 가장 대표적인 원인은 외부 효과 때문이다. 외부 효과란 어떤 경제 주체의 경제 활동이 다른 경제 주체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을 주거나 손해를 끼치면서도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는 것을 의미한다. 즉 경제 활동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나 편익이 해당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자와 판매자 이외의 제삼자에게까지 파급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외부 효과가 존재한다면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 자원을 배분하고 있어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거나 받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가격 설정을 통한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어 시장 실패가 발생하는 것이다.

외부 효과 중에서도 어떤 경제 주체가 경제 활동을 하면서 의도하지 않은 손해를 제삼자에게 끼치면서도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을 ㉡외부 불경제라고 하고, 어떤 경제 주체가 경제 활동을 하면서 의도하지 않은 혜택을 제삼자에게 주면서도 대가를 받지 않는 것을 ㉢외부 경제라고 한다.

외부 효과를 해결하는 방법 중 정부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세금 부과이다. 다른 사람에게 의도하지 않은 피해를 주는 외부 불경제를 발생시키는 경제 활동은 그 대가를 치르지 않기 때문에 사회 적정량보다 많이 일어난다. 외부 불경제로 인해 사회에 손해를 끼치는 경제 활동을 사회 적정량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해당 활동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물건을 생산하는 것에 세금을 부과하면 생산 비용이 증가하여 공급자는 생산을 줄이게 되고, 제품의 가격 또한 상승하여 수요량은 감소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외부 불경제를 발생시키는 해당 물건의 생산이 사회 적정 수준으로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보조금 지급이나 조세 감면이다. 다른 사람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을 주는 외부 경제를 발생시키는 경제 활동은 대가를 받지 않기 때문에 사회 적정량보다 적게 일어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외부 경제를 발생시키는 생산 주체에게 사회가 받은 혜택만큼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세금을 감면해 주어, 해당 생산을 사회 적정 수준으로 늘리게 하는 것이다.

한편 경제학 이론인 코즈의 정리에 따르면 외부 효과가 존재하더라도 이해 당사자가 많지 않고 거래 비용이 충분히 적다면 국가의 개입 없이 개인 간에도 외부 효과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거래 비용이란 상품의 가격 외에 개인 간 거래와 협상에 수반되는 비용 일체를 의미한다. 여기서 비용은 금전적인 비용뿐 아니라 노력 등 무형의 비용도 포함한다.

[A] 이해 당사자들이 거래나 협상을 하여 그 결과로 얻는 만족감이 거래 비용보다 크다면 국가의 개입 없이 개인 간에도 충

분히 외부 효과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코즈의 정리의 한계점은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외부 효과로 인해 시장 실패가 발생하는 상황 가운데 상당수는 거래 비용이 높고, 이해 당사자들이 많거나 이해 당사자에 대한 정보가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나) 공공재란 공원이자 경찰 등과 같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를 의미한다. 공공재는 주로 국가에서 공급하는데, 해당 국가의 국민이 아니거나 국민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람들도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경제학적으로 공공재의 특성에 대해 잘 이해하려면 배제성과 경합성의 의미를 알아야 한다. 배제성이란 재화와 서비스의 이용 대가를 공급자에게 지불하지 않은 사람이 해당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하지 못하도록 배제할 수 있는 성질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재화와 서비스는 대부분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서는 이용할 수 없지만, 국가가 제공하는 치안 서비스 같은 경우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도 이용할 수 있다. 이처럼 재화와 서비스에 따라 배제성의 존재 여부가 다르다. 한편 경합성이란 어떤 사람이 재화나 서비스를 사용하거나 소비할 때 다른 사람이 그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할 수 있는 기회가 감소하는 성질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빵을 사고 싶은 사람은 두 명인데 빵이 한 개라면 한 사람은 빵을 구매할 수 없으므로 빵은 경합성이 있는 재화이며, 공중파 방송은 누군가 시청하고 있어도 다른 사람이 시청할 수 있으므로 경합성이 없는 서비스이다. 이처럼 재화나 서비스에 따라 경합성의 존재 여부가 다르다.

재화나 서비스는 배제성과 경합성을 기준으로 사적 재화, 클럽재, 공유 자원, 공공재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로 사적 재화는 돈을 내지 않으면 가질 수 없고, 내가 사용하면 다른 사람이 소비할 수 있는 기회가 감소하는 것으로, 배제성과 경합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 음식, 자동차 등 생활에 필요한 대부분의 재화나 서비스가 여기에 포함된다. 둘째로 클럽재는 배제성은 있으나 경합성이 없는 것으로 상수도 서비스가 예가 될 수 있다. 셋째로 공유 자원은 경합성은 있으나 배제성이 없는 것으로서 강에 사는 물고기와 같은 자연 자원이 예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공공재는 배제성과 경합성이 모두 없는 것을 의미한다. 즉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도 이용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

공공재가 배제성과 경합성이 없다고 해서 공공재 생산에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누군가는 경제적인 이득이 없어도 비용을 들여 사회에 필요한 공공재를 생산해야 하는데, 그렇게 생산된 공공재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이용이 가능하다. 배제성이 없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이용하려는 현상을 무임승차 문제라고 한다. 공공재의 생산을 시장에 자율적으로 맡겨 놓을 경우, 무임승차 문제 때문에 사회가 필요로

하는 양만큼 공공재가 생산되지 않고 적게 생산될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해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곳에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있지 않는 것이며, 이런 의미에서 시장 실패가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인해 공공재는 대부분 국가에서 생산 및 공급하게 된다.

04

▶ 23051-0154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특정한 경제 현상에 대한 상반된 입장과 그 근거를 서술하고 있다.
- ② (가)와 (나)는 특정한 경제 현상이 나타나는 사례와 그에 대한 학자들의 상반된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 ③ (가)는 특정한 경제 현상을 일으키는 원인을 언급하고 있고, (나)는 특정한 경제 개념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 ④ (가)는 특정한 경제 현상의 변화 과정을 통시적으로 살피고 있고, (나)는 특정한 경제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을 공시적으로 살피고 있다.
- ⑤ (가)는 특정한 경제 현상의 해결법을 연구한 경제 이론을 언급하고 있고, (나)는 특정한 경제 현상이 사회에 미친 영향을 여러 기준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05

▶ 23051-0155

㉠, ㉡의 공통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정부의 세금 정책을 통해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② 시장이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하지 못하는 상태의 원인이 된다.
- ③ 어떤 경제 주체의 경제 활동이 다른 경제 주체에게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다.
- ④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 자원이 배분되고 있어도 해당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 ⑤ 해당 문제를 발생시키는 생산물을 사회 적정 수준으로 줄여야 시장 실패를 극복할 수 있다.

06

▶ 23051-0156

[A]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 갑은 밝고 따뜻한 집을 만들기 위해 유리창을 크게 만들어 집 안에 햇빛이 많이 들어오게 하였다. 얼마 뒤 갑의 옆집에 살던 을은 자신의 집을 허물고 새로 3층짜리 집을 지었는데, 을이 의도하지 않은 일이 발생했다. 을의 집이 높아 갑의 집에 햇빛이 잘 들어오지 않게 된 것이다.
- 병의 공장과 정의 가축 농장은 서로 인근에 있었다. 그런데 병이 의도하지 않았으나 병의 공장에서 나온 오염 물질이 지하로 유입되어, 지하수를 이용하는 정의 농장에 있는 가축들이 질병에 걸리거나 죽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 ① 갑과 을이 서로 협상을 원하며 협상에 소요되는 비용이 충분히 적다면, 코즈의 정리에 따라 이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높다.
- ② 을이 갑에게 피해 보상 금액을 지불할 의사가 있고, 피해 보상 금액으로 인한 갑의 만족감이 햇빛으로 얻는 만족감보다 크다면, 코즈의 정리에 따라 이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높다.
- ③ 병의 공장에서 나온 오염 물질이 정의 농장뿐 아니라 불특정한 다수의 농장에도 피해를 끼쳤다면, 코즈의 정리에 따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 ④ 병과 정의 문제 해결을 위해 거래나 협상을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매우 크다면, 국가의 개입 없이 개인 당사자 간의 협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 ⑤ 병의 공장에서 나온 오염 물질 때문에 정의 가축이 질병에 걸린 것이 밝혀진다면, 코즈의 정리에 따라 개인 당사자 간의 협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더 줄어든다.

07

▶ 23051-0157

(나)를 바탕으로 할 때, <보기>의 A~D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다음 표는 재화 및 서비스를 배제성과 경합성의 존재 유무에 따라 A~D로 분류한 것이다.

재화 및 서비스	배제성과 경합성의 존재 유무
A	배제성과 경합성이 모두 있음.
B	배제성이 있으나, 경합성이 없음.
C	배제성이 없으나, 경합성이 있음.
D	배제성과 경합성이 모두 없음.

- ① 어떤 주택에 세입자가 주택 소유자에게 월세를 내고 거주하고 있다면, 그 주택은 A에 해당한다.
- ② 스마트폰을 통해 유료로 음악이나 동영상을 감상하는 서비스는 B에 해당한다.
- ③ C에 대해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이용만 하려 한다면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④ 특정 국가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그 국가의 영주권이 없다면 그 국가의 D를 이용할 수 없다.
- ⑤ D의 생산을 민간 시장에 자율적으로 맡긴다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양보다 적게 생산될 가능성이 높다.

08

▶ 23051-0158

(나)를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고속 도로와 일반 도로는 상황에 따라 배제성과 경합성의 존재 유무가 달라질 수 있다. 고속 도로는 통행 요금을 받지만 길이 막히지 않기 때문에 목적지까지 빠르게 갈 수 있는 수단이다. 그런데 가끔 특정한 이유로 고속 도로가 꽉 막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어떤 사람의 고속 도로 이용에 의해 다른 사람이 제대로 고속 도로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일반 도로는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길이 좁고 출퇴근 시간에는 사용하는 사람이 많아 도로를 원활하게 이용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심야에는 일반 도로도 이용자가 극히 적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도로를 함께 사용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 ① 한산한 고속 도로는 배제성이 있지만 경합성은 없다고 할 수 있겠군.
- ② 꽉 막힌 고속 도로는 배제성과 경합성의 존재 유무가 사적 재화와 동일하군.
- ③ 출퇴근 시간의 일반 도로는 배제성과 경합성의 존재 유무가 공유 자원과 동일하군.
- ④ 심야의 일반 도로는 배제성과 경합성이 모두 없다고 할 수 있겠군.
- ⑤ 일반 도로는 시간에 따라 배제성과 경합성의 존재 유무가 클럽재와 동일할 수 있겠군.

09

▶ 23051-0159

㉠의 문맥적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팬으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 ② 그녀는 날아오는 공을 받았다.
- ③ 그는 어떤 옷이든지 잘 받는다.
- ④ 욕조에 물을 받아 목욕을 하였다.
- ⑤ 그 둘은 달빛을 받고 나란히 섰다.

[10~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심리학에서 일반적으로 다루는 인간의 내면 의식과 정신에 대한 연구보다,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 일어나는 관찰 가능한 행동을 통해 인간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려는 것을 행동주의 심리학이라고 한다. 행동주의 심리학의 대표적인 사례는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이다. 조작적 조건화란 어떤 주체가 긍정적 결과를 가져오는 행동을 계속 수행하게 만들고, 부정적 결과를 가져오는 행동은 하지 않도록 학습하게 하는 것이다. 이런 행동주의 심리학을 구성하고 있는 핵심 개념에는 강화와 소거, 벌 등이 있다.

특정 행동을 했을 때 긍정적인 결과를 제공해 주는 것을 보상이라 하는데, 보상을 통해 특정 행동의 발생 빈도를 증가시키는 것을 강화라고 한다. 강화는 다시 정적 강화와 ㉠부적 강화로 나눌 수 있는데, 정적 강화란 특정 행동을 한 주체에게 그가 가지 있게 여기는 어떤 것을 제공함으로써 그 행동의 강도와 빈도를 증가시키는 것이며, 부적 강화란 특정 행동을 한 주체에게 그가 바라지 않는 어떤 것을 제거해 줌으로써 그 행동의 강도와 빈도를 증가시키는 것이다.

강화에 의해 특정 행동이 학습되었더라도, 그 행동에 대해 더 이상 보상을 제공하지 않으면 학습된 행동이 점차 사라지는데 이를 소거라고 한다. 따라서 학습된 행동이 소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강화를 계획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강화 계획이라고 한다. 즉 강화 계획은 대상이 학습시키려는 행동을 할 때 주어지는 보상의 적절한 시기와 방법에 대한 규칙을 의미한다.

강화 계획은 우선 지속적 강화 계획과 간헐적 강화 계획으로 나눌 수 있다. 지속적 강화 계획은 행동이 일어날 때마다 보상을 주는 것이고, 간헐적 강화 계획은 보상을 가끔 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 중 간헐적 강화 계획은 보상이 제시되는 간격과 비율에 따라 두 가지 형태로 나뉘는데, 간격 계획은 행동이 일어날 때 시간에 따라 강화를 주는 것이고, 비율 계획은 행동이 일어날 때 행동의 횟수에 따라 강화를 주는 것이다. 각각의 계획은 간격과 비율이 고정적이냐 변동적이냐에 따라 다시 두 가지의 하위 계획으로 분류된다. 즉 간헐적 강화 계획은 행동이 일어나면 정해진 시간마다 보상이 주어지는 고정 간격 계획, 행동이 일어나면 일정하지 않은 시간마다 보상이 주어지는 변동 간격 계획, 정해진 횟수의 행동이 일어날 때 보상이 주어지는 고정 비율 계획, 일정하지 않은 행동 횟수마다 보상이 주어지는 변동 비율 계획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각각의 강화 계획은 장단점을 가지고 있어 적절하게 사용해야 하는데, 지속적 강화 계획은 행동을 할 때마다 보상이 주어지므로 행동을 빠르게 강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행동으로 인한 보상이 제거되면 급격히 행동의 빈도나 강도가 줄어들므로, 행동이 계속 일어나게 하는 데에는 간헐적 강화 계획이 더 효과적이다.

강화와 반대로 특정 행동을 약화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해 사용

하는 것을 벌이라고 하는데, 벌에는 수여성 벌과 ㉡제거성 벌이 있다. 수여성 벌은 행동의 주체에게 부정적인 것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며, 제거성 벌은 행동의 주체에게 긍정적인 것을 제거하는 것이다. 벌은 행동을 약화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지만 새로운 행동을 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과한 벌을 주거나 너무 자주 벌을 주는 것은 오히려 행동의 빈도나 강도의 개선에 역효과를 유발하며 이는 강화도 마찬가지이다.

10

▶ 23051-0160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행동주의 심리학의 특정 이론을 설명하고 해당 이론의 원리를 반박할 수 있는 다른 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 ② 행동주의 심리학을 적용한 사례와 다른 심리학을 적용한 사례를 비교하여 행동주의 심리학의 장점을 제시하고 있다.
- ③ 행동주의 심리학에서 다루는 여러 개념을 정의하고, 정의한 개념 중 일부를 특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하여 설명하고 있다.
- ④ 심리학에서 일반적으로 다루는 영역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행동주의 심리학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 ⑤ 행동주의 심리학이 등장한 배경을 언급하고, 행동주의 심리학의 여러 개념을 통해 행동주의 심리학의 발달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11

▶ 23051-0161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은 모두 대상에게 특정한 행동의 발생 빈도를 증가시키기 위한 것이다.
- ② ㉠과 ㉡은 모두 대상에게 특정한 것을 제거함으로써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고자 하는 방법이다.
- ③ ㉠은 대상에게 긍정적인 것을 제공하는 것이고, ㉡은 대상에게 부정적인 것을 제공하는 것이다.
- ④ ㉠은 대상이 이미 행하는 행동을 하지 않게 학습시키는 것이고, ㉡은 대상에게 새로운 행동을 학습시키는 것이다.
- ⑤ ㉠은 보상을 통해 특정한 행동을 학습시키는 것이고, ㉡은 보상을 통해 특정한 행동을 점차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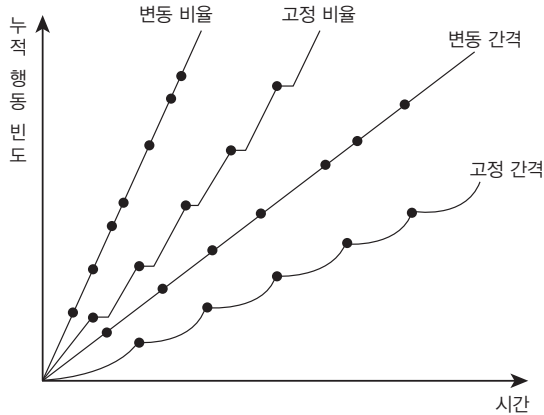
12

▶ 23051-0162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제시된 그래프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대상의 특정한 행동을 강화하기 위해 고정 간격 계획, 변동 간격 계획, 고정 비율 계획, 변동 비율 계획을 각각 사용하였더니, 시간에 따른 대상의 누적 행동 빈도의 변화가 아래의 그래프와 같았다. 행동의 강화에 사용한 보상은 모두 일치하였으며, 선 위의 점은 보상을 제시한 시점이다.



- ① 강화를 받는 시간 간격이 일정하면 강화를 받은 직후에 행동의 빈도가 급격히 증가한다.
- ② 정해진 횟수의 행동 후에 보상을 제시한다면 보상을 제시하기 바로 직전에는 행동의 빈도가 줄어든다.
- ③ 대상이 예측하지 못하는 시간마다 행동에 대한 보상을 제시한다면 시간이 흐를수록 행동의 빈도가 점차 감소한다.
- ④ 강화를 받기 위해 필요한 행동의 수가 일정하지 않으면 보상을 제시한 직후 일정 시간 동안 행동이 나타나지 않는다.
- ⑤ 대상이 강화를 언제 받는지 예측할 때보다 예측하지 못할 때 시간에 따른 누적 행동의 빈도가 더 일관되게 증가한다.

13

▶ 23051-0163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 ㉠ 부모가 아이와 함께 자주 도서관에 방문하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아이가 도서관에서 소란을 일으켰다. 부모는 아이의 행동을 고치기 위해 아이가 소란을 일으킬 때 도서관 밖에 나가 있으라고 하였다.
- ㉡ 어떤 인터넷 쇼핑몰에서 고객이 구매한 제품에 대해 후기를 작성하면 구매에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 ㉢ 학생이 수업 시간에 소란스러운 행동을 할 때마다 교사가 독서 과제를 제시하였더니, 수업 시간 중 학생의 소란스러운 행동이 줄어들었다.
- ㉣ 어떤 제과 회사에서 특정 번호가 적힌 추첨권을 과자 한 봉지에 하나씩 넣어 판매하였고, 매주 회사 웹 사이트에 추첨 번호를 올려 같은 번호가 적힌 추첨권을 가진 사람에게 선물을 주었다.
- ㉤ 아이가 소리를 지르자 부모는 아이를 달래기 위해 아이에게 관심을 주었다. 이후 아이가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는 일이 늘어났고, 그때마다 부모는 더욱 아이에게 관심을 주며 달래 주었다.

- ① ㉠: 아이가 도서관을 싫어한다면 부모가 아이에게 도서관 밖으로 나가 있으라고 한 것이 아이의 문제 행동을 강화할 수 있다.
- ② ㉡: 고객이 후기 열 개를 작성할 때마다 인터넷 쇼핑몰이 포인트를 지급했다면, 인터넷 쇼핑몰은 고정 비율 계획을 사용한 것이다.
- ③ ㉢: 학생이 독서를 싫어한다면 수업 시간 중 학생의 소란스러운 행동을 줄이기 위해 교사가 학생에게 수여성 별을 제공한 것이다.
- ④ ㉣: 제과 회사에서 매주 정해진 시간에 추첨 번호를 웹 사이트에 올렸다면, 제과 회사는 과자 판매를 위해 고정 간격 계획을 사용한 것이다.
- ⑤ ㉤: 아이의 소리를 지르는 행동이 부모의 관심으로 인해 강화되었다면, 아이가 소리를 지를 때 부모가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 아이의 소리를 지르는 행동이 점차 소거될 것이다.

[14~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동물과 식물, 세균 등과 같은 생명체는 유전 정보를 담은 유전 물질을 가지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생명체의 유전 물질은 ㉠ DNA이다. 생명체가 가진 유전 정보가 전달되고 발현되는 일반적인 흐름을 중심 원리라고 하는데 그 흐름은 다음과 같다. 우선 DNA에 있는 유전 정보를 복사하여 ㉡ RNA라는 물질이 만들어진다. 이후 RNA는 생명체를 구성하는 세포 안에 있는 소기관인 리보솜에 유전 정보를 전달하는데, 이때 DNA의 유전 정보를 전달하는 RNA를 mRNA라고 한다. 리보솜은 mRNA로부터 전달받은 유전 정보에 따라 체내의 아미노산을 순서대로 결합하여 세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특정 단백질을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다른 생명체에 기생하는 바이러스 중 일부는 일반적인 생명체와 달리 DNA가 아닌 RNA를 유전 물질로 가진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런 바이러스도 유전 물질에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특정 단백질이 만들어진다.

바이러스는 리보솜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증식을 하기 위해서는 살아 있는 다른 생명체의 세포에 침투해야 한다. 사람에게 에이즈를 일으키는 HIV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외부가 지질 이중막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사람의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세포막도 지질 이중막이다. 그렇기 때문에 HIV 바이러스의 단백질과 사람의 세포의 단백질의 결합이 일어날 때, 바이러스의 막과 사람의 세포막이 융합되어 바이러스 안의 유전 물질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하지만 모든 바이러스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지질 이중막을 가지고 있지만 HIV 바이러스보다 더 복잡한 과정을 거치며, 지질 이중막이 없고 단백질 껍질만 가진 바이러스는 단백질 껍질과 숙주의 세포가 특이적으로 결합한 후 주사기로 약물을 주입하듯 유전 물질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도 한다. 이렇게 여러 방식을 통해 바이러스가 다른 생명체의 세포에 침투하지만, 모든 세포에 바이러스가 침투하는 것은 아니다. 사람의 세포에는 침투하지만 다른 동물의 세포에는 침투하지 않는 바이러스가 있기도 하고, 사람의 세포 중 신경 세포에는 침투하지만 혈액 세포에는 침투하지 않는 바이러스가 있는 등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바이러스는 세포에 침투한 후 유전자를 복제하여 증식하기 시작한다. RNA가 유전 물질인 바이러스 중에는 RNA 그 자체가 mRNA가 되어 숙주 세포의 리보솜을 이용하여 증식에 필요한 단백질을 만드는 것도 있고, RNA로부터 DNA를 만들고 이 DNA의 정보로 다시 mRNA를 만들어 이를 통해 증식에 필요한 단백질을 만드는 것도 있다. 후자에 해당하는 바이러스를 레트로바이러스라고 한다. 바이러스가 증식할 때는 일단 RNA나 DNA와 같은 유전 물질을 많이 복제하면서 이를 감싸게 될 단백질 껍질 또한 많이 만들어 낸다. 그러면 저절로 유전 물질과 단백질 껍질이 조립되는데 이를 바이러스 단백질의 자기 조립이라고 하며, 이를 통해 바이러스가 증식한다. 이와 같은 증식 방식

은 유전 물질 없이 단백질 껍질만 있거나 단백질 껍질 없이 유전 물질만 있는 바이러스가 생성되는 문제가 있지만, 한 번에 많은 증식을 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바이러스가 숙주의 몸에 침투해 증식하기 시작하면 숙주에게 다양한 원인으로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 숙주에 침투한 바이러스는 우선 숙주의 세포에 있는 리보솜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리보솜을 바이러스의 증식에 이용한다. 이로 인해 숙주의 세포는 점점 죽어 가는데 이런 현상을 세포 병변 효과라고 한다. 즉 바이러스가 세포를 직접 죽게 만드는 것이다. 또한 바이러스가 숙주의 세포를 직접 죽게 만들지는 않지만 다른 원인을 제공하여 숙주에게 질병이 발생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간염 바이러스이다. 간염 바이러스는 바이러스 자체가 간세포를 죽게 만들지는 않지만,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몸 안에서 바이러스를 공격하는 면역 세포인 T 세포가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간세포를 공격하게 된다. 그 결과 바이러스가 제거되는 효과가 있지만 간세포도 같이 죽기 때문에 감염이 일어나는 것이다.

대개 바이러스는 감염 후 단기간 내에 질병을 일으키지만, 오랜 기간에 걸쳐서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자궁 경부암이나 두경부암을 일으키는 인간 유두종 바이러스이다. 인체에는 p53과 RB와 같은 종양 억제 유전자가 있어 세포가 과도하게 증식하는 것을 막거나 적절하게 세포를 죽게 만들어 암을 억제한다. 하지만 인간 유두종 바이러스에 있는 특정 단백질은 종양 억제 유전자가 작용하는 것을 억제하여, 세포가 적절하게 제거되거나 과도한 증식이 제어되는 것을 막기 때문에 암이 유발되는 것이다. 또한 바이러스로 인한 질병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인체에는 굉장히 많은 바이러스가 존재하므로, 사람은 바이러스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그러므로 바이러스에 대해 연구하고 바이러스에 대한 대처 방안을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14

▶ 23051-0164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바이러스는 동물과 식물뿐 아니라 세균에도 기생할 수 있다.
- ② 숙주가 바이러스에 감염되어도 세포 병변 효과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
- ③ 바이러스 중에는 질병을 억제할 수 있는 유전자가 작용하는 것을 막는 것이 있다.
- ④ 레트로바이러스가 RNA로부터 DNA를 만드는 것은 중심 원리의 흐름과 일치한다.
- ⑤ 지질 이중막을 가진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HIV 바이러스보다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이 더 복잡하다.

15

▶ 23051-0165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과 ㉡은 모두 생명체 내에서 복제가 가능하다.
- ② 생명체는 ㉠이나 ㉡에 담긴 정보로 단백질을 만들어 낸다.
- ③ ㉡ 중에는 ㉠이 가진 유전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있다.
- ④ 모든 바이러스는 다른 생명체와 달리 ㉠이 없으며 ㉡에 유전 정보를 담고 있다.
- ⑤ ㉠을 통해 ㉡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고, ㉡을 통해 ㉠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다.

16

▶ 23051-0166

다음은 읽 글을 읽은 학생의 독서 활동이다. 읽 글을 참고할 때 [A], [B]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독서 활동: 글을 읽는 중 궁금한 것을 질문하고 답을 찾기

- 질문 1. 바이러스가 증식을 위해 다른 생명체의 세포에 침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답: [A]

- 질문 2. 바이러스가 숙주의 세포에 침투하면 왜 숙주의 세포가 죽어 가는가?

→ 답: [B]

	[A]	[B]
①	바이러스는 증식을 가능하게 만드는 유전 물질이 없기 때문이다.	바이러스가 숙주의 세포 안에서 단백질을 만드는 소기관을 장악하기 때문이다.
②	바이러스는 증식에 필요한 리보솜이 없기 때문이다.	바이러스가 숙주의 세포를 파괴하여, 숙주의 세포가 바이러스로 변하기 때문이다.
③	바이러스가 유전자를 통해 숙주의 세포를 바이러스로 변형시키기 때문이다.	숙주의 세포가 단백질을 만들 수 없도록 바이러스가 방해하기 때문이다.
④	바이러스는 아미노산을 결합하여 단백질을 만드는 것을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숙주의 세포 안에 있는 리보솜이 원래 해야 하는 역할을 바이러스가 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⑤	바이러스는 다른 생명체의 세포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야만 스스로 증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숙주의 세포가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질을 바이러스가 만들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17

▶ 23051-0167

읽 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기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인체의 면역 체계가 작동하게 되는데, 인체에 있는 사이토카인이라는 단백질이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면역 세포인 T 세포나 대식 세포에 신호를 전달하여 바이러스 감염 부위에 면역 세포가 모일 수 있게 한다. 또한 사이토카인 단백질은 면역 세포를 계속 자극하면서 더 많은 사이토카인 단백질을 분비하도록 만든다. 그런데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 중 일부는 이런 면역 반응이 통제를 벗어나 사이토카인 단백질이 과다 생성되어 너무 많은 면역 세포가 활성화된다. 그렇게 되면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면역 세포에 의해 인체에 필요 이상의 많은 염증이 생기면서 인체의 정상적인 기능을 해치게 되고 고열, 다발성 장기 부전 등이 일어나 인체에 심각한 손상이 올 수 있는데, 이를 사이토카인 폭풍이라 한다.

- ① 사이토카인 폭풍은 바이러스가 인체에 침투하여 증식하는 것을 인체가 감지하지 못하여 일어나는 현상이군.
- ② 바이러스의 유전 물질과 사이토카인 단백질은 인체의 면역 세포에게 신호를 직접 전달한다는 공통점이 있군.
- ③ 바이러스는 인체의 세포를 죽게 만들 수 없지만, 사이토카인 단백질은 인체의 세포를 직접 죽게 만들 수 있군.
- ④ 침투한 바이러스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처럼 지질 이중막을 가지지 않아야 사이토카인 폭풍이 나타날 수 있군.
- ⑤ 간염 바이러스로 인해 간염이 걸리는 것과 사이토카인 폭풍으로 인해 인체가 손상되는 것은 모두 인체의 면역 반응으로 인한 것이군.

[18~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흐르는 것이 물뿐이라

우리가 저와 같아서
 강변에 나가 ㉠삽을 씻으며
 거기 슬픔도 퍼다 버린다
 일이 끝나 저물어
 스스로 깊어 가는 강을 보며
 쭈그려 앉아 담배나 피우고
 나는 돌아갈 뿐이다
 삽자루에 맡긴 한 생애가
 이렇게 저물고, 저물어서
 셋강 바닥 썩은 물에
 달이 뜨는구나
 우리가 저와 같아서
 흐르는 물에 삽을 씻고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의 마음으로
 다시 어두워 돌아가야 한다

-정희성, 「저문 강에 삽을 씻고」

(나) 너 들어 보았니

저 동구 밖 느티나무의
 푸르른 울음소리

날이면 날마다 삭풍 되게는 치고
 우듬지 끝에 별 하나 매달지 못하던
 지난겨울
 온몸 상처투성이인 저 나무
 제 상처마다에서 뽑아내던
 푸르른 울음소리

너 들어 보았니
 다 청산하고 떠나 버리는 마을에
 잔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그래도 지킬 것은 지켜야 한다고
 소리 죽여 흐느끼던 소리
 가지 팽팽히 후리던 소리

오늘은 그 푸르른 울음
 모두 이파리 이파리에 내주어
 저렇게 생생한 초록의 광휘를
 저렇게 생생히 내뿜는데

앞들에서 ㉡모를 내다
 허리 펴는 사람들

왜 저 나무 한참씩이나 쳐다보겠니
 어디선가 북소리는
 왜 동동동동 울려 나겠니

-고재중, 「면면함에 대하여」

18

▶ 23051-0168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설의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현실 극복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 ② (나)는 감각의 전이가 드러나는 시구를 반복하며 대상의 고통과 변화를 형상화하고 있다.
- ③ (가)는 (나)와 달리 문장 성분의 순서를 바꾸어 쓰면서 의미를 강화하고 있다.
- ④ (가)와 (나)는 모두 음성 상징어를 통해 상황에 대한 생동감 있는 묘사를 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명령형 문장을 사용하여 대상에 대한 화자의 거리감을 드러내고 있다.

19

▶ 23051-0169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1연과 3연에서는 ‘너’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청자를 직접 제시하면서 친근감을 유발하고 있다.
- ② 1연에서 제시된 ‘느티나무’가 ‘지난겨울’에 처했던 상황을 2연에서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별 하나 매달지 못한 ‘느티나무’에 대한 ‘사람들’의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 ③ 2연에서 ‘느티나무’의 ‘상처’에서 나던 ‘울음소리’를 3연에서는 ‘마을’에 남은 ‘사람들’이 ‘흐느끼던 소리’와 관련지어 ‘느티나무’와 ‘사람들’이 모두 고통받는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
- ④ 4연에서는 ‘오늘은’으로 시상을 전환하며 ‘느티나무’가 ‘초록의 광휘’를 ‘생생히 내뿜는’ 모습을 통해 변화된 ‘느티나무’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 ⑤ 5연에서는 3연에서 드러난 ‘느티나무’와 ‘사람들’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희망을 잃지 않으려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20

▶ 23051-0170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과 달리 삶의 희망을 발견하는 행위와 연결된다.
- ② ㉡은 ㉠과 달리 노동으로 인해 힘겨운 삶과 연결된다.
- ③ ㉡은 ㉠과 달리 삶의 고통을 씻어 내고자 하는 행위와 연결된다.
- ④ ㉠과 ㉡은 모두 삶을 이어 가기 위한 노력과 연결된다.
- ⑤ ㉠과 ㉡은 모두 주어진 현실에 저항하는 삶과 연결된다.

21

▶ 23051-0171

<보기>를 읽고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우리 사회에 불어닥친 산업화는 다양한 문제를 가져왔다. 경제의 중심지가 농촌에서 도시로 변화하면서 젊은이들이 도시로 떠나는 이농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농촌에 남은 사람들은 공동체 붕괴로 인한 슬픔을 겪으면서도 농촌을 지키기 위한 희생적 노력과 의지를 보여 주었다. 그리고 도시의 노동자가 된 사람들은 희망 없는 삶의 고통을 겪기도 하였다. 한편 산업화는 환경 오염이라는 문제를 불러오기도 하였다. 우리 문학은 이농 현상으로 인해 나타난 고통과 환경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고통을 함께 겪고 있다고 생각된 자연물에 대한 동질감을 드러내거나, 인간을 자연물로 형상화하여 산업화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내었다.

- ① (가)에서 ‘흐르는 것이 물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저와 같’다고 표현한 것은 자연에 대해 동질감을 느끼는 인간의 모습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② (가)의 ‘셋강 바닥 썩은 물’에 ‘삼을 씻고’, ‘다시 어두워 돌아가’는 모습은 환경 오염과 도시 노동자의 희망을 잃어버린 모습을 동시에 표현하고자 한 것이겠군.
- ③ (나)의 ‘온몸 상처투성이인 저 나무’가 ‘푸르른 울음소리’를 낸다고 표현한 것은 산업화로 인해 고통을 겪는 사람들의 모습을 ‘나무’로 형상화한 것이겠군.
- ④ (나)의 ‘지킬 것은 지켜야 한다고 / 소리 죽여 흐느끼’는 모습은 농촌 공동체가 붕괴되는 현실로 인해 느끼는 슬픔과 현실에 대한 극복 의지를 동시에 드러낸 것이겠군.
- ⑤ (나)의 ‘푸르른 울음’을 ‘이파리 이파리에 내주’는 모습은 이농 현상으로 떠난 이들이 ‘마을’에 가져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촌 사람들이 희생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겠군.

[22~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아버지는 원래가 마부였다. 서울에 올라오기 전 시골에서도 줄곧 말 마차를 끌었다. 어찌다가 소달구지를 끄는 적도 있기는 했으나 얼마 가지 않아서 도로 말 마차로 바꾸곤 했다. 그런 아버지였으므로 서울에 올라와서는 내내 말 마차 하나로 버텨 나왔었는데 어떻게 마음먹었는지 노새로 바꾸고 만 것이다. 노새나 말이나 요즘은 그놈의 삼륜차 때문에 아버지의 일감이 자칫 줄어들 듯하기도 했다. 웬만한 오르막길도 끄떡없이 오르고, 웬만한 골목 안 집까지도, 드르륵 들이닥치니 아버지의 말 마차가 위험을 느낌 직도 했고, 사실 일감을 빼앗기기도 했다. 그런데도 그때마다 아버지는 큰소리였다. “휘발유 한 방울 안 나오는 나라에서 자동차만 많으면 뭘 해.” 마치 애국자처럼 말하는 것이었으나 나는 아버지의 그 말 뒤에 숨은 오기 같은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너무 고단해서였을까, 이날 밤 나는 앞뒤를 가릴 수 없을 만큼 깊이 잠에 빠졌던 것 같다.

골목에서 뛰쳐나온 노새는 큰길로 나오자 잠시 망설이다가 곧 길 복판으로 뛰어들어 갔다. 그러자 달려가고 달려오던 차들이 브레이크를 밟느라고 짹— 짹— 소리를 냈으나 노새는 그걸 본체 만체하고 달렸다. 어디서 뛰어나왔는지 교통순경이 호루라기를 불며 달려오다가 노새가 가까이 오자 혼비백산해서 도망갔다. 인도를 걸어가던 사람들이 일제히 발을 멈추고 노새의 가는 곳을 쳐다보곤 저마다 놀라고, 또는 재미있다는 표정을 지었다.

“허허, 저놈이 제 세상 만났군.”

“고삐 풀린 말이라더니 저놈도 저렇게 한번 뛰어 보고 싶었을 거야.”

“엄마, 저게 뭘데 저렇게 뛰어가? 말이지?”

“글쎄, 말보다는 노새 같다, 애.”

사람이 그러거나 말거나 노새는 뛰고 또 뛰었다. 연탄 집을 매지 않은 몸은 훨훨 날 것 같았다. 가파른 길도 없었고 채찍질도 없었고 앞길을 막는 사람도 없었다. 신호등에 파란불이 켜진 때도 있었고 노란불이 켜진 때도 있었으며 빨간불이 켜진 때도 있었으나, 막무가내로 그냥 뛰기만 했다. 노새는 이윽고 횡단보도에 이르렀다. 마침 파란불이 켜져서 우우 하고 길을 건너던 사람들이, 앗, 앗, 외마디 소리를 지르며 풍비박산이 되었다. 보통이를 이고 가던 아주머니가 오메 소리를 지르며 펍 그 자리에 넘어지자 머리 위에 있던 보통이가 데그르르 굴렀다. 다정히 손잡고 가던 모녀가 어

[A] 머뭇 소리를 지르며 제자리에 우뚝 섰다. 재잘거리며 가던 두 아가씨가 엄마! 소리를 지르며 한꺼번에 영켜 넘어졌다. 자전거에 맥주 상자를 싣고 기우똥기우똥 건너가던 인부가 앞사람이 갑자기 뒷걸음질 치는 바람에 자전거의 핸들을 놓쳐 중심을 잃은 술 상자가 우르르 넘어졌다. 밉스 목도리에 몸을 휘감고 가던 아주머니가 난 몰라! 하고 소리를 지르며 핵 돌아서다가 자기도 모르게 옆에 있는 낮모르는 아저씨 품

에 안겼다. 땃국이 잘잘 흐르는 잠바 청년 하나가 이때 위! 하면서 앞을 가로막았으나 노새가 앞다리를 번쩍 한 번 들자 어이쿠 소리를 지르면서 인도 쪽으로 도망갔다.

노새는 그대로 달렸다. 뒤미처 순경이 쫓아오는 소리가 나고 앵앵거리며 백차가 따라오고 있었다. 노새는 그러나 아랑곳하지 않았다. 노새는 어느덧 변화가에 들어서고 있었다. 여기는 아까의 횡단 길보다도 더욱 사람이 많았다. 노새는 자꾸 자동차가 걸리는 것이 귀찮았던지 성큼 인도 쪽으로 방향을 꺾었다. 그러자 이번에는 더욱 요란스러운 혼란이 벌어졌다. 사람들은 달랑달랑하는 노새의 목에 달린 방울 소리가 들릴 때는 호기심으로 그쪽을 쳐다보았다가도, 금세 인파가 우, 우,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고 하면서 눈앞에 노새가 뛰어오자 어쩔 바를 모르고 웁, 웁, 소리를 지르며 달아나기에 바빴다. 분홍색 하이힐 짝이 나뒹굴고, 곱게 싣 상품 상자들이 이리저리 흩어졌다. 신사가 한옆으로 급히 비키다가 콘크리트 전봇대에 이마를 짚고, 군인이 앞사람의 뒤통수에 밟혀 기우똥하다가 뒤에 오는 할아버지를 안고 넘어졌다. 배지를 단 여학생이 황망히 길옆 제과점으로 도망치다가 안에서 나오던 청년과 마주쳐 나무토막 쓰러지듯 넘어지고, 아이스크림을 훔고 가던 꼬마들이 얼싸안고 넘어졌다.

변화가 옆은 큰 시장이었다. 노새가 이번에는 그 시장 속으로 뚫고 들어갔다. 머리에 수건을 동이고 좌판 앞에 앉아 있던 아낙네들이 아이구 이걸 어찌지, 하면서 벌떡 일어서는 것을 신호로 시장 안에 벌집 쑤신 듯한 소동이 사방으로 번져 갔다. 콩나물 통이 엮어지고, 시금치가 흩어지고, 도라지가 짓이겨지고, 사과 알이 테굴테굴 굴렀다. 미꾸라지 통이 엮어지고, 시루떡이 흩어지고 테토론 옷감이 나풀거리고 제주 밀감이 사방으로 굴렀다. 갈치가 뛰고 동태가 날고, 낙지가 미끈둥미끈둥 길바닥을 메웠다. 연락을 받고 달려왔는지 시장 경비원 세 명이 이놈의 노새, 이놈의 노새, 하면서 앞뒤를 막았으나 워낙 젓 먹던 힘까지 다 내서 길길이 뛰는 노새를 붙들지는 못하고, 저 노새 잡아라, 저 노새, 하고 외치며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할 뿐이었다.

골목을 뛰쳐나온 지 한 시간이 지났을까, 노새는 시장 안에서 한바탕 복세를 떨고는 다시 한길로 나왔다. 이 무렵에는 경찰에 비상이 걸렸는지 곳곳에 모자 끈을 턱에까지 내린 경찰관들이 지키고 서 있었다. 서울 장안이 온통 야단이 난 모양이었다.

(중략)

아버지와 나는 한도 끝도 없이 걸었다. 어느새 거리는 점심때쯤 되었고, 눈발이 비치기 시작했다. 어느 곳을 가나 거리는 사람으로 붐벼 있었고, 그 많은 사람들은 우리 부자더러 어디를 그리 바빠 가느냐고, 노새를 찾아다니느냐고 묻지 않았고, 아버지와 나는 아무에게도 노새를 보지 못했느냐고 묻지 않았다. 다리는 쇠사슬을 단 것처럼 무겁고, 배가 고프고 쓰렸다. 나는 그런 우리가 옛날애기에 나오는 길 잃은 나그네 같다고 생각했다. 길은 멀고 해는 저물었는데 쉬

[B]

어 갈 곳이라고는 없는 그런 처지 같았다. 아무리 가도 인가는 나타나지 않고, 멀리서 깜박깜박 비치는 불빛도 없었다. 보이느니 거친 산과 들뿐, 사람이나 노새는 보이지 않았다.

아버지와 내가 동물원에 들어간 것은 거의 해가 질 무렵이었다. 어떻게 해서 동물원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나는 잘 기억해 낼 수가 없다. 둘 중의 아무도 동물원에 들어가자고 말한

사람은 없었는데 어째서 발길이 이곳으로 돌려졌는지 모른다.

정처 없이 걷다가 마침 닿은 곳이 ㉠동물원이어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들어왔는지도 모르겠다. 하여튼 나는 희한한 곳엘 다 왔다 싶었다. 내 경우 동물원에 와 본 것은 지금까지 딱 한 번밖에 없었으니까. 그것도 어린이날 무료 공개한다는 바람에 동네 조무래기들과 함께 와 본 것뿐이었다. 그때는 사람들에 치여 제대로 구경도 못 했는데 지금 나는 구경꾼도 별로 없는 동물원을 더구나 아버지와 함께 오게 되었으니, 참 가다가는 별일도 있는 것이구나 하였다. 남들 눈에는 한가하게 동물원 구경을 온 다정한 부자로 비칠 것이 아닌가. 동물원 안은 조용하고 을씨년스러웠다. 동물들은 제집에 처박혀 있거나 가느다란 석양이 비치는 곳에 웅크리고 있거나 하였다. 막상 들어온 아버지는 그런 동물들을 별로 눈여겨보지 않았다. 동물들의 우리를 보다가 하늘을 보다가 할 뿐, 눈에 초점이 없었다. 칠면조도 사자도 호랑이도 원숭이도 사슴도 그런 눈으로 건성건성 보고 지나갈 뿐이었다. 그러던 아버지가 잠시 발을 멈춘 곳은 얼룩말이 있는 우리 앞이었다. 얼룩말은 두 마리였다. 아버지는 그러나 그 앞에서도 멍하니서 있기만 하지 이렇다 할 감정의 표시를 하지 않았다. 나는 그런 아버지를 한 번 쳐다보고, 얼룩말을 한 번 쳐다보고 하였다. 그러나 아버지의 얼굴이 어찌면 그렇게 말이나 노새와 닮았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하였다.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 꼭 그랬다. 길게 찌진, 감정이 없는 눈이며 노상 별름별름한 코, 하마 같은 입, 그리고 덜렁하니 큰 귀가 그랬다. 아버지가 너무 오래 말이나 노새를 다뤄 와서 그런 건지, 애당초 말이나 노새 같은 사람이어서 그런 짐승과 평생을 같이해 온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막상 얼룩말 앞에 세워 놓은 아버지는 영락없는 말의 형상이었다.

- 최일남, 「노새 두 마리」

(나) S#65. 양재천/낮

길게 뻗은 양재천을 따라 나 있는 조깅 코스.

출발 모임 장소에서 준비 운동을 하고 있는 양재천 마라톤 클럽 사람들.

정욱, 자전거를 끌고 초원과 함께 옆에 서 있다.

오십 대의 사람 좋게 생긴 클럽 회장이 정욱과 초원을 회원들에게 소개시켜 준다.

구석에서 춘천 마라톤 참가 신청서를 나눠 주고 있는 총무.

구경하는 초원에게도 무심코 한 장 준다.

- 시간 경과 -

마라톤 클럽 사람들과 달리기를 하고 있는 초원.

정욱은 사이클을 타고 초원 옆을 따라가며, 코치를 해 주고 있다.

초원을 앞지르는 어떤 사람.

초원, 그러자 갑자기 속력을 내서 그 사람을 따라잡는다.

정욱: (자전거를 멈추고) 야야! 스토옴!

숨을 헐떡이며 제자리 뛰기를 하고 있는 초원에게 얘기하는 정욱.

정욱: 처음에는 천천히…… 다른 사람 따라가지 마. 알았어?

초원: 네.

다시 뛰기 시작하는 초원…… 정욱도 자전거에 올라탄다.

그때, 초원을 앞질러 가는 다른 사람…… 그러자 초원, 또 속력을 내서 총알처럼 따라간다.

화가 나서 자전거를 내팽개친 정욱,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 있는 초원에게 다가간다.

하지만, 화를 내려다가 참고, 차분하게 말을 꺼낸다.

정욱: 처음에 빨리 뛰면 안 돼. 그럼 나중에 못 뛰단 말야. (뭔가 생각하다가) 초원아…… 세렝게티에서 가장 빠른 동물이 뭐지?

초원: (숨을 몰아쉬며) 치타. 시속 113킬로미터.

정욱: 그래. 하지만 치타는 오래 못 뛰잖아…… 너무 빨리 뛰니까. 오래오래 뛰려면, 너무 빨리 뛰면 안 되는 거야.

초원: 너무 빨리 뛰면 안 되는 거야~.

정욱: 그래. 그러니까 천천히…… 너무 빨리 뛰면 지쳐서 쓰러져. 이동 중에 지쳐서 무리에서 떨어진 얼룩말은 어떻게 되지?

초원: 낙오된 얼룩말들은 사자와 하이에나 밥이 된다~.

정욱: 그래. 그러니까 있는 힘껏 막 뛰면 안 돼. 자, 호흡 고르고, 다시 뛰어.

정욱, 초원의 손을 잡아 일으킨다.

초원, 뛰기 시작하지만, 정욱의 손을 놓지 않는다.

정욱도 초원의 손을 잡고 속도를 올려 주며, 천천히 뛰기 시작한다.

초원의 손을 보는 정욱, 손등에 어린 시절에 물어뜯은 흉터가 남아 있는 걸 본다.

흉터가 있는 손을 한동안 물끄러미 바라보며 뛰는 정욱.

초원: 코치 선생님~.

정욱: 응? (고개를 들어 초원을 바라본다.)

초원: …… 내일도 또 오세요?

정욱: (약간 놀라며) …… 그럼.

초원 표정을 유심히 바라보는 정욱…… 뭔가 불이 살짝 웃는 것처럼 움직인 것 같기도 하고…….

손으로, 스쳐 가는 풀잎들을 훑으며 달리는 초원.

옆으로 펼쳐진 풀잎들에 비스듬히 쏟아지는 오후의 햇살.

초원의 얼굴을 바라보는 정욱…… 바람을 맞으며 달리는 초원의 표정, 평화로워 보인다.

‘어쩌면 정말 뛰는 걸 좋아하고 있는지도 몰라 이 녀석…….’

정욱, 고개를 돌려 세워 놓은 자전거가 멀어져 가는 걸 바라보고, 초원의 손을 놓으려 한다.

하지만 손을 놓아주지 않는 초원.

초원을 바라보는 정욱…… 웬지 자신도 손을 딱히 놓기는 싫다.

그대로 계속 달려가는 두 사람…….

자전거에서 점점 멀어져 간다.

심장 소리가 아득하게 들리는 가운데, 두 사람, 어느새 함께 진지한 표정으로 달리고 있다.

앞서거나 뒤서거나, 슬로 모션으로 보여지는 정욱과 초원…….

여우비가 내리고, 두 사람 조금씩 흠뻑리는 빗속에서 차분한 표정으로 달리고 있다.

빗속에서 내달리는 그들의 육체가 햇살을 받아 아름답게 빛난다.

한강이 보이는 반환점에서 다시 돌아가는 두 사람.

- 시간 경과 -

비는 더 이상 내리지 않는다. 자전거가 있는 곳에 다시 돌아온 두 사람.

길옆 풀밭 위에 사지를 짝 뺀고 누운 정욱…… 미친 듯이 숨을 몰아쉬다.

옆에 누운 초원, 가슴에 두 손을 올리고 있다.

(중략)

S#66. 경마장/낮

- ㉠ 지축을 울리며 트랙을 힘차게 질주하는 경주마들.
- ㉡ 말의 근육, 갈기 등이 아름답게 클로즈업된다.
- ㉢ 넋이 나간 얼굴로 달리는 말들을 쳐다보고 있는 초원.
- ㉣ 그 옆에선, 그런 초원을 바라보고 있는 정욱.
- ㉤ 초원과 정욱, 달리는 말 자체를 구경하며 그렇게 사람들 틈에 서 있다.

S#67. 서울랜드/낮

초원을 ㉠ 동물원에 데려간 정욱.

정욱: 자, 니가 좋아하는 동물의 왕국에 있는 거 여기 다 있으니까 실컷 봐.

그런데 막상 동물원에 간 초원은 전혀 좋아하는 기색이 아니다. 기운 없고, 마치 자폐아 같은 동물들을 보면서 표정이 더 이상해진다.

손을 뺀 동물원 우리 창살을 잡는 초원.

카메라가 우리 안쪽에서 초원을 잡는다. 초원도 마치 우리 안에 있는 듯 보인다.

정욱, 생각보다 초원이 재미없어하는 게 이상하다는 표정.

인파들 속을 걷는 초원과 정욱.

웬지 불안한 표정의 초원…… 정욱의 손을 슥 잡는다.

다정해 보이기도, 어색해 보이기도 하는 두 사람.

인서트 - 철창에 갇힌 동물들이 그려진 초원의 일기장.

(중략)

S#76. 마라톤 대회장/아침

중간 규모의 마라톤 대회.

천여 명의 참가자들이 준비 운동을 하고 있다.

출발 준비를 하고 있는 초원…… 그 옆에는 경숙과 페이스메이커가 있다.

경숙: 초원아! 이 아저씨만 따라가, 알았지? 혼자 빨리 뛰면 안 돼?

초원: 네.

페이스메이커: 걱정 마세요. 제가 잘 이끌게요. 잡지에 나온 사진보다 훨씬 잘생겼네, 녀석!

출발선으로 가서 서는 초원과 페이스메이커.

경숙의 얼굴 위로 사람들이 출발하는 사운드가 들린다.

걱정스런 표정으로 바라보는 경숙.

(5킬로미터 지점)

페이스메이커를 따라 달리고 있는 초원.

그러나 뒷사람들이 앞으로 치고 나가자, 금방 페이스메이커를 앞지른다.

그런 초원을 제지시키느라 곤욕스러운 페이스메이커.

그렇게 몇 번 실랑이를 벌이다가, 결국 페이스메이커를 앞질러 혼자 달리는 초원.

(결승점)

초조한 얼굴로 기다리는 경숙……. 바닥에 떨어진 종이를 주워, 학을 접는다.

(30킬로미터 지점)

작열하는 태양…… 집어삼킬 듯 달궂진 아스팔트 위를 달리는 마라토너들…….

초원, 숨을 헐떡거리며 뛰어오다, 괴로운 표정으로 다리가 풀리는 듯하더니 넘어진다.

(결승점)

초조하게 초원을 기다리고 있는 경숙.

앰블런스가 도착하고, 사람들이 한 사람을 업고 달려온다.

경숙, 사색이 되어 뛰어가 보지만, 다행히 초원은 아니다. 의료진이 몰려와 쓰러진 사람에게 심장 마사지를 하지만, 이미 생명이 끊어졌는지 의식이 없다.

이를 바라보는 경숙…… 두려움이 스쳐 간다.

그때, 본부석 응급 천막 쪽에서 들리는 왁자지껄한 소리…….

경숙, 그쪽으로 다가가자 초원이 소동을 피우고 있는 걸 발견한다.

초원: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주사 안 맞아요!

무릎에 반창고를 붙인 채 사색이 되어 있는 초원에게 달려가는 경숙.
 의사: 중간에 탈진해 쓰러졌어요. 수액 주사를 놔 주려고 하는
 건데…….
 - 시간 경과 -
 대회장 입구를 걸어 나오는 초원과 경숙.
 경숙, 어깨가 축 늘어져 있다. 시상식이 열리는지, 뒤쪽에서 박수
 소리가 난다.
 초원, 멈춰 서서 바라보더니 그쪽을 향해 걸어가려 한다. 경숙이
 손을 잡는다.
 초원: 메달!
 경숙: 완주해야지 메달 주는 거야, 초원아.
 초원: (시상대를 바라보며) 메달 주세요…….

피곤하게 생겼다. 그때, 메달을 목에 건 아저씨가 지나간다.
 경숙: (메달을 가리키며) 저 그거…… 완주해야만 주나요?
 아저씨: 아. 이거요? (자기 메달을 보며) 참가 신청한 사람은 다
 줘요. 나두 중간에 포기했는데요, 뭐.
 본부석에서 메달을 타 오는 경숙.
 메달을 손에 들고 걸어오면서, 뭔가 망설이는 듯한 표정.
 초원, 엄마를 발견하고 고개를 돌리는 순간, 메달을 손바닥에 꼭
 쥐는 경숙.
 그리고 메달 쥔 손을 뒤로 감춘다. 그녀의 표정을 스치고 가는 어
 떤 결심…….
 초원 앞에 다가온 경숙.
 경숙: 초원아, 메달 안 준대. 완주 못 해서.

S#77. 초원의 학교 직업 훈련장/낮

교장, 담임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경숙.
 십여 명의 아이들이 나사를 조이고 끼우며, 직업 훈련을 받고 있다.
 교장: (경숙을 보며) 그만큼이면 학교로선 충분히 도와드린 겁니
 다. 마라톤 완주를 했다고 뭐가 그렇게 달라집니까? 이제 직업
 교육도…….
 경숙: 직업 교육 받으면, 뭐가 달라지나요?
 담임: (난처한) 어머님…… 마라톤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직장
 을 다니면서도 취미로 충분히…….
 경숙: 집착이라뇨. 난 초원이가 좋아하는 걸 시키고 싶은 거뿐이
 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그러는 것도 잘못입니까?
 교장: 하지만 초원이는 남들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경숙: 아뇨. 똑같아요. 달릴 때만큼은…….
 - 정윤철·송예진·윤진호, 「말아톤」

22

▶ 23051-0172

(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골에서 말 마차를 끌기도 했던 아버지는 서울에 올라온 후 노새를 몰게 되었다.
- ② 큰길로 나온 노새는 달려오던 차들에 놀라 길 복판으로 뛰어 들었다.
- ③ 변화가에서 노새의 방울 소리를 듣던 사람들은 눈앞으로 노새가 뛰어오자 호기심을 가지고 노새를 쳐다보았다.
- ④ 시장에서 소동을 벌이는 노새의 앞뒤를 막던 경찰들은 노새를 붙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뛰어다녔다.
- ⑤ 아버지와 함께 노새를 찾아다니던 ‘나’에게 사람들은 별일을 다 겪는다고 말을 걸었다.

23

▶ 23051-0173

[A],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노새의 행위에 반응하는 인물들의 속내를 서술하고 있다.
- ② [B]는 노새를 찾겠다는 목표를 이루려는 인물들의 긍정적인 태도를 서술하고 있다.
- ③ [A]는 노새로 인해 벌어진 상황을, [B]는 노새를 찾아다니며 느낀 인물의 심정을 서술하고 있다.
- ④ [A]는 의인화된 노새의 의식의 흐름에 따라, [B]는 인물들의 이동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술하고 있다.
- ⑤ [A]와 [B]는 노새로 인해 심화되는 인물들의 외적 갈등에 대한 서술자의 평가를 서술하고 있다.

24

▶ 23051-0174

(나)의 S#66에서 ㉠~㉣를 촬영할 때 고려할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공간의 성격을 고려해서 질주하는 경주마들과 경마장 트랙이 함께 보이도록 해야겠군.
- ② ㉡: 말의 근육과 갈기를 화면에 크게 나타내어 말의 근육과 갈기의 움직임이 섬세하게 보이도록 해야겠군.
- ③ ㉢: 초원의 얼굴에 나타난 표정을 보여 주어 초원의 심리가 드러나도록 해야겠군.
- ④ ㉣: 정육이 바라보는 시선 방향에 초원이 보이도록 해야겠군.
- ⑤ ㉤: 인파가 많음을 강조하기 위해 장면을 원경으로 나타내어 두 인물이 관중과 구별되지 못하도록 해야겠군.

25

▶ 23051-0175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나'가 노새의 행방을 알게 되는 곳이고, ㉣은 정육이 초원의 본심을 알게 되는 곳이다.
- ② ㉠은 '나'가 아버지에게 연민을 느끼는 곳이고, ㉣은 정육이 초원에게 거부감을 드러내는 곳이다.
- ③ ㉠은 '나'가 노새에 대한 걱정을 숨기는 곳이고, ㉣은 초원이 정육에게 의지하려는 마음을 숨기는 곳이다.
- ④ ㉠은 '나'가 과거에 못 이룬 소망을 실현하는 곳이고, ㉣은 초원이 소망을 실현할 수 없음을 깨닫는 곳이다.
- ⑤ ㉠은 '나'가 아버지에게서 말과 닮은 유사성을 발견하는 곳이고, ㉣은 초원과 동물들의 유사성이 드러나는 곳이다.

26

▶ 23051-0176

(가)와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에서 아버지는 시대의 변화에, (나)에서 경숙은 학교 교장의 말에 순응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인다.
- ② (가)에서 아버지는 마부로 살려는 의지를 갖고 있고, (나)에서 초원은 정육에게 마라톤을 배울 의욕을 보인다.
- ③ (가)에서 얼룩말은 아버지의 관심을 끄는 대상이고, (나)에서 얼룩말은 초원이 주의해야 할 행동을 환기하는 대상이다.
- ④ (가)에서 '나'와 아버지는 노새의 행선지를 알지 못하고, (나)에서 초원은 다른 사람이 말해 준 방식에 따라 마라톤을 하지 않는다.
- ⑤ (가)에서 노새는 뛰는 행위로 인해 사람들에게 포획된 대상이 되고, (나)에서 초원은 달리기로 인해 사람들에게 동경의 대상이 된다.

27

▶ 23051-0177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시간의 흐름에 변화를 주어 사건을 서술하는 방식은 서사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에 기여한다. 시간이 흘렀음에도 지속되는 특정한 행위 또는 과거와 현재의 대비된 상황을 제시함으로써, 생략을 통해 시간의 경과를 제시함으로써, 한 공간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상황을 다각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인물들은 알 수 없는 동 시간대·다른 공간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제시함으로써, 인물의 심리를 부각하거나 일어난 상황에 대해 수용자가 전체적으로 파악 또는 종합적으로 해석하도록 유도하기 때문이다.

- ① (가)에서 ‘뒤미처 순경이 쫓아오는 소리가 나고 앵앵거리며 백차가 따라오고 있었다.’와 ‘노새는 그러나 아랑곳하지 않았다.’와 같이 동시에 일어난 상황을 상반된 분위기를 통해 제시한 것은, 독자가 상황의 분위기를 전체적으로 파악하도록 유도하는 것이겠군.
- ② (가)에서 아버지와 함께 온 동물원의 상황에서 어린 시절 동네 아이들과 함께 왔었던 과거의 일을 제시한 것은, 과거와 대비되는 동물원에 대한 인물의 인상을 부각하기 위한 것이겠군.
- ③ (나)의 S#65에서 ‘한강이 보이는 반환점에서 다시 돌아가는 두 사람.’과 ‘비는 더 이상 내리지 않는다.’는 장면 사이에 시간의 경과를 나타낸 것은, 날씨 변화를 통해 생략된 시간을 제시함으로써 생략된 시간 전 심화되었던 인물 간의 외적 갈등을 드러내려는 의도를 나타낸 것이겠군.
- ④ (나)의 S#76에서 ‘5킬로미터 지점’에서 초원이 페이스메이커와 실랑이를 벌이는 상황과 ‘결승점’에서 초원을 기다리는 경숙의 상황을 나란히 제시한 것은, 인물들이 알 수 없는 다른 공간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수용자가 종합적으로 해석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겠군.
- ⑤ (나)의 S#76에서 ‘5킬로미터 지점’ 이후의 ‘결승점’과 ‘30킬로미터 지점’ 이후의 ‘결승점’에서 초원을 기다리는 경숙의 모습을 제시한 것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지속되고 있는 행위를 통해 인물의 심리를 부각하기 위한 것이겠군.

[28~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앞부분 줄거리] 사대부 신분임에도 과거에 실패하고 장사꾼으로 살던 주생은 가세가 기울어 기생이 된 배도를 만나 사랑에 빠진다. 그러다 이웃에 있는 노 승상 댁에 갔다가 노 승상의 딸 선화를 만나고, 배도의 주선으로 선화의 동생 국영의 스승이 된 주생은 선화와 사랑에 빠지게 된다.

주생은 창문 위에 걸린 시구를 보았다. 마지막 구절을 손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아름다운 선화가 무슨 근심이 있어 이런 시를 지었소?”

선화는 조용히 대답했다.

“여자의 몸은 수심과 함께 나서, 만나지 못했을 때는 서로 만나기를 원하고, 만나면 서로 헤어질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러니 어찌 여자의 몸으로서 편안하게도 근심이 없겠습니까. 하물며 낭군님은 절단지기(折檀之譏)를 어겼고, 저는 행로지욕(行露之辱)을 받았습니다. 불행히도 하루아침에 우리

[A] 사랑의 자취가 발각된다면 친척들에게 용납되지 못할 것이요, 동리 사람들은 천하게 여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비록 우리들이 손을 잡고 해로하려 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의 일은 구름 속에 든 달과 같으며 숨은 꽃과도 같습니다. 설사 한때는 즐겁다 하더라도 그것이 오래가지 못할 테니 어찌하겠습니까.”

말을 마친 후, 눈물을 주룩 흘리며 원한 품은 태도를 보였다. 거의 자신을 억제하지 못하였다. 주생은 눈물을 훔쳐 주며 위로해 말했다.

“대장부가 어찌 아녀자 하나를 얻을 수 없겠는가. 내 나중에 중매의 절차를 밟아 예법으로 그대를 맞이할 것이니 너무 걱정을 마오.”

선화는 눈물을 거두며 치사했다.

“낭군님의 말씀대로만 될 것 같으면 저의 아름다운 얼굴이 비록 집안을 화목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나물을 케어 정성껏 제사를 받드는 일만은 다하겠습니다.”

선화는 향합을 열었다. 조그만 화장 거울을 꺼내어 돌로 깨뜨렸다. 한쪽은 자기가 갖고 다른 한쪽은 주생에게 주며,

“동방화촉(洞房華燭)의 밤을 기다렸다 다시 하나로 합하와요.”

했다. 또한 흰 비단부채를 주면서 말했다.

“이 두 물건은 비록 하찮은 것이지만 제 마음의 간곡함을 나타내는 것이옵니다. 제 소원이오니 이 몸을 이 세상 끝까지 함께 할 아내로 생각하시어 가을밤의 원한을 끼치지 마시옵고, 혹시 항아(姮娥)가 그림자를 잃을지라도 꼭 밝은 달빛을 어여뵈여겨 아껴 주옵소서.”

이후로 그들은 밤이면 만났고 새벽으로 헤어졌다. 하룻밤도 거르는 법이 없었다.

어느 날 주생은 오랫동안 배도를 만나지 않았음을 생각했다.

그녀가 이상히 여길까 두려워 그녀의 집으로 가서 잤다. 밤사이 선화는 기다리지 못해 주생의 방에까지 갔다. 선화는 주생이 쓰던 향낭 주머니를 풀어 보았다. 그녀는 배도가 지은 시 두어 폭을 발견했다. 그녀는 화가 치밀었고 질투심이 솟아났다. 그래서 책상 위에 있는 붓을 들어 까맣게 지워 버렸다. 그 밑에다 ‘㉠안아미사(眼兒眉詞)’ 일 절을 지어 푸른 비단에 써서 주머니 안에 집어넣고는 나가 버렸다.

그 사(詞)는 다음과 같았다.

창밖의 그림자 보이는 듯 사라지고,
기울어진 달은 누각 위에 높이 떴네.
우수수 대나무 소리는 풍류 이취 요란하고,
오동나무 그림자는 집 안에 가득한데,
깊은 밤 고요는 수심을 자아내네.
이 외로운 밤 방탕한 입은 소식조차 없으니,
어디서 노니느라 나머지 잊었는가.
아서라 생각 말자 잊으려 하나,
멀리 있는 정은 답답도 해.
그래도 행여나 시간을 헤며 앉아 기다리네.

이튿날 주생이 돌아왔다. 선화는 조금도 질투하거나 원망스러운 얼굴을 나타내지 않았다. 또 주머니를 꺼려 본 것도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주생 스스로 깨달아서 부끄러워하게 하고자 함이어서 일체 내색을 하지 않았다.

하루는 승상 부인이 술자리를 마련해 놓고 배도를 불렀다. 부인은 주생의 학행(學行)을 칭찬했다. 아들 글 가르치는 데 수고를 한다고 치사했다. 그러고는 손수 술을 따라 배도로 하여금 주생에게 잔을 권하게 했다.

주생은 이날 밤 술에 취해 정신이 없었다. 배도는 혼자 앉았으니 따분하기 이를 데 없었다. 그래서 주생의 주머니를 꺼려 보았다. 그녀는 자신이 지은 사(詞)가 먹으로 지워진 것을 보았다. 마음은 자못 언짢았고 괴이한 생각이 들었다. 또한 그 밑에 ‘안아미사’를 보니 선화가 한 것이 분명했다. 그녀는 몹시 화가 치밀었다. 그녀는 이 사를 소매 속에 감춘 다음 주머니를 전처럼 싸매 두었다. 앓은 채 아침을 기다렸다.

주생이 술에서 깨어나자 침착하게 물었다.

“낭군님은 이곳에서 무작정 머물러 있을 건가요? 도대체 돌아오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주생은,

“국영이가 공부를 아직 다 마치지 못한 탓이오.”

하고 대답했다.

“그래요. 처의 동생을 가르치는 것이니 불가분한 마음을 다해야겠지요.”

주생은 얼굴을 붉히며,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오?”

하고 물었다. 배도는 얼마 동안 말이 없었다. 그럴수록 주생은 당황하여 어찌할 줄을 몰랐다. 고개를 푹 숙이고 방바닥만 응시했다. 배도는 그 사를 꺼내어 주생의 면전에 던지며 말했다.

“담장을 넘어 서로를 따르고, 담에 구멍을 뚫어 서로를 엿보았구로. 이 어찌 군자가 할 짓입니까. 난 지금 곤장 들어가 부인에게 말씀 올리렵니다.”

배도는 몸을 일으켰다. 주생은 황망히 그녀를 붙잡아 앉히고 사실을 고백했다. 머리를 조아리며 간곡히 빌었다.

“선화는 나와 백년해로를 굳게 언약한 사이인데, 어찌 죽을 곳으로 몰아넣는단 말이오.”

배도는 마지못해 뜻을 돌리고는,

“그렇다면 곧 저와 같이 돌아갑시다. 그렇지 않으면 낭군님이 저와의 언약을 어긴 바에야 제가 무어라고 맹세를 지킬 것이오리까.”

하고 말했다.

주생은 하는 수 없었다. 부인에게 탄 핑계를 대고 배도의 집으로 돌아갔다. 배도는 선화와 의 관계를 알고 난 다음부터는 다시는 주생을 선랑이라 부르지 않았다. 마음속에 불평이 끓어올라서였다.

주생은 오로지 선화만을 생각했다. 몸은 나날이 여위어 갔다. 끝내는 병을 빙자해 자리에 눕고 말았다. 스무 날이 지나갔다. 돌연 국영이 병으로 죽었다는 전갈이 왔다. 주생은 제물을 갖춰 영구 앞에 나아가 전(奠)을 올렸다.

선화 역시 주생과 이별한 후 상사의 병이 깊어 기거동작도 남의 손을 빌려야 했다. 문득 주생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는 병을 무릅쓰고 억지로 일어났다. 담장 소복을 하고 주립 안에 혼자 서 있었다.

주생은 전을 끝냈다. 멀리 선화가 보였다. 눈을 찡긋해 정을 표시했다. 머리를 숙이고 서성거리다 뒤돌아보니, 그녀는 이미 사라져 보이지 않았다.

세월은 흘러 몇 달이 지났다. 배도마저 병들어 눕고 말았다. 숨을 거두기 전, 그녀는 주생의 무릎을 베고 눈물을 가득 머금은 채 말했다.

“저는 봉비하체로서 그들에만 의지하여 살아오다가 아름다운 청춘이 다 가기도 전에 시들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제 저는 낭군님과 영원히 이별을 하게 되었으니, 비단웃이며 좋은 관현악기가 소용이 없고, 전날의 소원도 다 그만입니다. 다만 원하옵는 바는 제가 죽은 후에 낭군님은 선화를 취하여 배필로 삼으시옵소서. 그리고 내 죽은 뒤 시신은 낭군님이 왕래하시는 길가에 묻어 주신다면 죽더라도 산 것같이 여기고 편안히 눈을 감겠습니다.”

배도는 말을 마치고 기절했다. 한참 만에 다시 깨어나 주생을 바라보며 말했다.

“주랑, 주랑이여, 부디부디 몸조심하시어요. 몸조심하……”
이러기를 몇 번 하더니 숨을 거두고 말았다.

— 권필, 「주생전」

- * **절단지기:** 「시경(詩經)」 「정풍(鄭風)」 〈장중자(將仲子)〉에 나오는 말로, 남의 집 담장을 넘어가 그 집 처녀의 정조를 빼앗는 죄를 범했다는 뜻.
- * **행로지옥:** 「시경(詩經)」 「소남(召南)」 〈행로(行露)〉 편에 나오는 말로, 길을 가다가 무례한 남자에게 정조를 빼앗겼다는 뜻.
- * **봉비하체:** 순무와 무의 뿌리라는 뜻으로, 뿌리가 맛이 있을 때도 있고 맛이 없을 때도 있는 것처럼 사람도 젊고 예쁠 때도 있고 늙고 병들 때도 있음을 이르는 말.

28

▶ 23051-0178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초현실적인 사건 전개를 통해 긴박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② 공간적 배경을 묘사하여 인물 간의 사랑이 이뤄질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 ③ 권위 있는 조력자의 도움을 통해 주인공의 내적 갈등이 해소되고 있다.
- ④ 과거와 현재를 교차하여 특정 사건이 일어난 원인에 대해 입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 ⑤ 특정 소재를 중심으로 한 두 인물의 행위를 통해 인물 간의 갈등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29

▶ 23051-0179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기

「주생전」은 사대부 신분이지만 여러 차례 과거에 실패하고 장사에 나선 주생, 집안이 몰락하여 기생이 되었지만 기생 신분에서 벗어나고 싶은 배도, 안정적인 사대부 가문의 규수인 선화 사이의 삼각관계를 그린 애정 소설이다. 애정 소설은 표면에 나타난 남녀 간의 애정담 속에 인물의 욕구가 잠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애정을 나누는 인물 간에 신분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 표면적 사랑 이면에는 사대부 가문과의 결연을 통해 신분을 상승하거나 가문의 위상을 회복하고자 하는 인물의 욕구가 나타나고는 한다. 또한 특정 인물이 결핍이 있는 경우 다른 인물과의 결연을 통해 결핍을 극복하려는 욕구가 나타나기도 한다. 한편 인물 간의 결연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특정 인물이 자신의 생각을 타인에게 숨기거나, 일부러 거짓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다.

- ① 선화가 화장 거울을 깨뜨려 한쪽을 주생에게 준 것은 주생과의 사랑을 통해 가문의 위상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어.
- ② 선화가 원망스러운 얼굴을 하지 않고 항상 주머니를 풀어 본 사실을 주생에게 말하지 않은 것은 주생과의 사랑을 통해 이미 심리적 결핍을 충족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어.
- ③ 주생이 마음을 다하여 국영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 배도가 이야기한 것은 주생의 심리적 결핍이 국영의 가문에서 해소되기를 배도가 기대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어.
- ④ 주생이 승상 부인에게 핑계를 대고 배도의 집에 머무른 것은 주생에 대한 배도의 불안이 해소되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어.
- ⑤ 배도가 병이 들어 숨을 거두는 것은 사대부 가문과의 결연을 통해 신분 상승을 이루고자 하는 인물의 욕구가 좌절된 것으로 볼 수 있어.

30

▶ 23051-0180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서는 상대의 잘못을 지적하면서도 상대를 용서하려 하고 있고, [B]에서는 자신이 처한 현재 상황을 제시하며 상대에게 미안함을 드러내고 있다.
- ② [A]에서는 자신의 과거 행적을 드러내며 자신의 결백함을 강조하고 있고, [B]에서는 자신이 처할 수 있는 곤란한 상황을 가정하며 상대를 질책하고 있다.
- ③ [A]에서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제시하며 그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고, [B]에서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자신이 원하는 바를 상대에게 요청하고 있다.
- ④ [A]에서는 자신이 근심을 갖게 된 원인을 제시하며 상대를 조롱하고 있고, [B]에서는 자신이 처한 고된 현실을 이야기하며 상대의 반성을 촉구하고 있다.
- ⑤ [A]에서는 자신이 겪은 시련을 이야기하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고, [B]에서는 과거에 상대방부터 도움을 받았던 것을 회상하며 그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고 있다.

31

▶ 23051-0181

〈보기〉를 바탕으로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고전 소설에서 삼입 시는 다양한 기능을 하는데, 인물의 심리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경우도 많다. 「주생전」에서도 ‘안아미사(眼兒眉詞)’를 통해 선화가 처한 상황과 그에 대한 정서를 드러내었다.

- ① ‘창밖의 그림자’가 보이는 듯 사라진다는 것에서 주생이 곁에 없는 선화의 상황이 연상된다.
- ② ‘오동나무 그림자’가 집 안에 가득한 것에서 선화에 대한 주생의 오해를 유발한 장애물의 모습이 연상된다.
- ③ 소식조차 없는 ‘방탕한 입’에서 평소와 달리 자신에게 오지 않은 주생에 대한 선화의 부정적 인식이 연상된다.
- ④ 생각을 하지 않으려 해도 ‘멀리 있는 정은 답답도’ 하다고 한 것에서 주생의 행위로 인해 고뇌하는 선화의 모습이 연상된다.
- ⑤ ‘시간을 헤며 앉아 기다리’는 것에서 주생이 배도의 집으로 간 후 독수공방하는 선화의 모습이 연상된다.

[32~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봄날이 점점 기니 잔설(殘雪)이 다 녹거다
㉠ 매화(梅花)는 불셔 디고 버들가지 누르렀다
㉡ 아히야 올 잘 고티고 채전(菜田) 갈게 하야라

〈제1수〉

잔화(殘花) 다 딴 후의 녹음이 기퍼 간다
백일(白日) 고촌(孤村)에 낮둑의 소리로다
㉢ 아히야 계면도 불러라 긴 조롬 씨오자

〈제3수〉

동리(東籬)에 국화 피니 중양(重陽)이 거예로다
㉣ 자채(自蔡)로 비즌 술이 흐마 아니 니것느냐
아히야 자해(紫蟹) 황계(黃鷄)로 안주(酒) 장만 하야라

〈제6수〉

㉤ 어제 쇼 친 구들 오늘이야 채 덩거니
긴 즘 계우 씨니 아적 날이 늑파 잇다
아히야 서리 녹앗느냐 닐고자도 흐노라

〈제8수〉

이바 ㉥ 아히들아 새히 온다 즐겨 마라
㉦ 현스 현 세월이 소년(少年) 아사 가느니라
우리도 새히 즐겨 흐다가 이 백발이 되얏노라

〈제9수〉

이바 아히들아 날 신다 깃거 마라
자고 새고 자고 새니 세월이 몇춧 가리
백 년(百年)이 하 초초(草草)히 나난 굿버흐노라*

〈제10수〉

- 신계영, 「전원사시기(田園四時歌)」

*자채: 올벼. 철 이르게 익은 벼.

*자해: 게.

*굿버흐노라: 서운해하노라.

32

▶ 23051-0182

〈보기〉의 ㉓, ㉔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전원사시가」는 작가가 귀향한 후 창작한 연시조로 알려져 있다. 이 작품은 크게 사계절의 흥취를 노래하는 ㉓사시가(四時歌)와 선달그믐날 밤의 감회를 노래하는 ㉔제석(除夕)의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각각 특정한 표현 기법을 활용하여 형식적 통일성을 얻고 있다. 사시가는 농촌에서의 유유자적한 삶을 다루는 전가 시조(田家時調)의 성격을 지니고 있고, 제석은 탄로가(嘆老歌)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사시가의 마지막 수에서 겨울의 농촌 생활을 묘사한 후, 제석으로 이어지는 시상 전개 방식은 겨울이라는 동일한 계절을 배경으로 전가 시조와 탄로가의 성격을 유기적으로 연결한다고 볼 수 있다.

- ① ㉓가 전가 시조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농촌 생활과 관련된 구체적 소재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군.
- ② ㉔에서는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화자의 외모 변화와 화자가 현재 느끼는 심리 상태를 드러내고 있군.
- ③ ㉓는 계절의 변화를 순차적으로 제시하며, ㉔는 선달그믐날 밤에 새해를 떠올리며 내용을 전개하고 있군.
- ④ ㉓에 나타난 겨울의 계절감과 관련된 소재를, ㉔에서 다양한 감각으로 형상화하면서 ㉓와 ㉔가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있군.
- ⑤ ㉓는 동일한 시어를 반복하며, ㉔는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하며 각각 형식적 통일성을 얻고 있군.

33

▶ 23051-0183

㉑와 ㉒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㉑와 ㉒는 모두 화자가 과거의 자신과 비교하는 대상이다.
- ② ㉑와 ㉒는 모두 화자를 위해 화자가 일상에 만족하며 살아가도록 돕는 대상이다.
- ③ ㉑는 화자가 장점을 칭찬하는 대상이고, ㉒는 화자가 단점을 지적하는 대상이다.
- ④ ㉑는 화자가 자신이 바라는 것을 요구하는 대상이고, ㉒는 화자가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전달하여 깨우치는 대상이다.
- ⑤ ㉑는 화자가 자신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고 여기는 대상이고, ㉒는 화자가 자신과 함께 살아갈 수 없다고 여기는 대상이다.

34

▶ 23051-0184

㉑~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㉑: 꽃이 지거나 잎이 변색하는 것을 통해 동일한 계절 속에서의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 ② ㉒: 화자의 한가하고 여유로운 삶의 태도를 제시하고 있다.
- ③ ㉓: 화자가 의문의 방식으로 농촌 생활의 흥취를 강조하고 있다.
- ④ ㉔: 어제와 오늘의 상황을 대비하여 점차 날씨가 풀리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 ⑤ ㉔: 늙은 화자가 덧없는 세월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38

▶ 23052-0188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민성: 성연아. ㉠ 이번 주말에 같이 숙제하기로 하지 않았나?
 성연: 응. (휴대 전화를 보여 주며) 우리 ㉡ 여기 가서 공부할
 까?
 민성: 좋지. 근데 또 누구랑 같이 가기로 했었지?
 성연: (옆에서 공부하는 성민이를 보며) 성민이랑 같이 가
 로 했지.
 민성: ㉢ 저기, 성민아. (휴대 전화를 보여 주며) 이번 주에
 ㉣ 우리 여기 가서 숙제할래?
 성민: 거기 인기 있는 곳이라 시끄럽지 않을까? 저번엔 ㉤ 그
 령던데.
 성연: 이번엔 괜찮을 거야. 시험 기간도 아니고.
 성민: 그래 그럼, 거기로 가자.

- ① ㉠은 발화가 이루어지는 시간에 따라 지시 대상이 달라질 수 있는 표현에 해당한다.
- ② ㉡은 발화 과정에서 화면을 통해 소개된 장소를 가리키는 지시 표현에 해당한다.
- ③ ㉢은 화자와 청자로부터 멀리 있는 곳을 가리키는 지시 표현에 해당한다.
- ④ ㉣은 화자와 청자를 포함한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대명사에 해당한다.
- ⑤ ㉤은 앞에 나온 말을 다시 가리키는 대응 표현에 해당한다.

39

▶ 23052-0189

〈보기〉는 중세 국어 사전을 참고하여 수집한 정보이다. 〈보기〉의 ㉠~㉣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중세어	현대어	예문
㉠ :도·타	좋다	도커나 곳거나(좋거나 곳거나)
㉡ :도·타	좋아지다 병이 낫다	그 아드릭 病이 즉재 도커늘 (그 아들의 병이 즉시 좋아지 거늘)
㉢ 흘·다	흘다	번게 구르믄 흐터(번개가 구름 을 흘어)
㉣ 흘·다	흘어지다	散心은 흐튼 므스미라(산심은 흘어진 마음이다)

- ① ㉠과 ㉡은 소리 나는 대로 적고 있군.
- ② ㉠과 ㉡의 형태는 동일하지만 각각 형용사와 동사로 쓰였군.
- ③ ㉠과 ㉢의 어간은 성조가 서로 달랐군.
- ④ ㉠과 ㉢의 어간 말음은 모두 ‘ㅌ’으로 동일하군.
- ⑤ ㉢과 ㉣의 형태는 동일하지만 각각 타동사와 자동사로 쓰였군.

[40~43] 다음은 텔레비전 뉴스 보도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진행자 멘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알려 드리는 시간입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가하는 요즘, 제로 칼로리 탄산음료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제로 칼로리 탄산음료, 과연 건강에 좋은 **㉠** 걸까요? 박○○ 의학 전문 기자입니다.

[화면 1]



[기자 멘트]

제로 칼로리 탄산음료는 설탕이나 과당 없이 수크랄로스, 아스파르탐과 같은 인공 감미료로 단맛을 낸 음료입니다. 인공 감미료는 칼로리가 거의 없기 때문에 체중 감량에 효과가 **㉢**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제로 칼로리 탄산음료를 구매한 시민들에게 제로 칼로리 탄산음료를 선택한 이유를 물어보았습니다.

[화면 2]



[시민 인터뷰]

일반 탄산음료와 맛은 비슷한데 건강에는 이게 더 좋을 것 **㉤** 같아서 제로 칼로리 탄산음료를 선호합니다. 일반 탄산음료는 칼로리도 높고 당류가 많아서 아무래도…….

[기자 멘트]

그렇다면 제로 칼로리 탄산음료를 부담 없이 많이 마셔도 건강

에 문제는 없는 걸까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봤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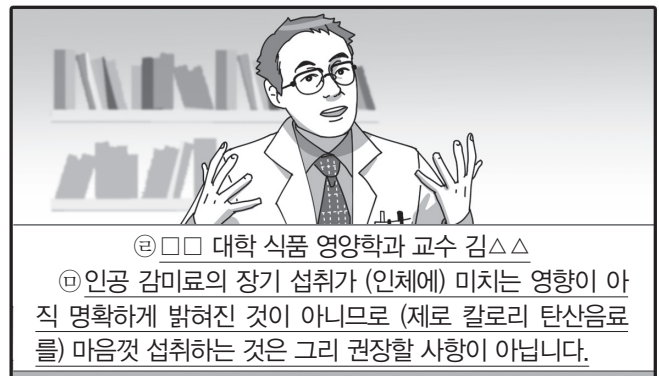
[전문가 인터뷰]

제로 칼로리 탄산음료에 사용되는 수크랄로스, 사카린, 아스파르탐 등은 미국 식품 의약국이 밝힌 인공 감미료 승인 목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 식품 의약국은 이런 인공 감미료가 들어간 음료나 식품에 대해 권고 용량보다 많이 섭취하지 않는 한 인체에 해롭지 않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일반 탄산음료를 마시던 사람이 제로 칼로리 탄산음료를 마시게 되면 **㉥** 단기적으로는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지만, 장내 미생물들이 인공 감미료를 분해해서 만들어진 대사 산물이 비만, 대사 증후군, 당뇨병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 장기적으로 섭취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공 감미료의 장기 섭취가 미치는 영향이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것이 아니므로 마음껏 섭취하는 것은 그리 권장할 사항이 아닙니다.

[화면 3]



[기자 멘트]

㉨ 제로 칼로리 탄산음료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았습시다만 장기적으로 섭취할 경우에 건강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상 박○○ 기자였습니다.

[진행자 멘트]

네. 박○○ 기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기부 천사들에 대한 소식입니다. (후략)

40

▶ 23052-0190

위 방송 뉴스의 정보 구성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의학 전문 기자와 전문가가 준비된 질문에 대해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으며 주요 내용을 전달한다.
- ② 전문가가 같은 공간에 있는 진행자의 요청에 따라 주요 제재에 대한 답을 하며 주요 정보를 전달한다.
- ③ 진행자가 질문을 하면 이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지닌 의학 전문 기자와 전문가가 각자의 견해를 제시한다.
- ④ 의학 전문 기자가 시민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하면서 시민들의 반응과 주요 제재에 대한 정보를 전달한다.
- ⑤ 진행자가 제재에 대한 시청자 반응을 토대로 질문을 하고 의학 전문 기자가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41

▶ 23052-0191

㉠~㉤의 기능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글자의 모양과 진하기를 달리하여 주요 제재를 부각했다.
- ② ㉡: 주요 제재에 대해 시청자가 보일 수 있는 반응을 제시하여 시청자의 관심을 유발했다.
- ③ ㉢: 주요 제재에 대한 핵심 정보를 질문의 형태로 요약하여 시청자가 주요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했다.
- ④ ㉣: 인터뷰 대상인 전문가의 소속과 전공 분야를 제시하여 방송 내용에 대한 신뢰성을 강화했다.
- ⑤ ㉤: 음성 언어에서 불충분하게 제시된 내용을 보완하여 방송 내용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게 했다.

42

▶ 23052-0192

위 방송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방송을 들은 학생의 반응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인공 감미료가 함유된 제로 칼로리 탄산음료에 칼로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군.
- ② 제로 칼로리 탄산음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이유 중 하나는 사람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군.
- ③ 제로 칼로리 탄산음료를 장기적으로 섭취하면 장내 미생물이 파괴되어 비만이나 당뇨병이 생길 수 있군.
- ④ 단기적인 체중 감량 효과만을 생각해 본다면 일반 탄산음료보다 제로 칼로리 탄산음료를 섭취하는 게 좋겠군.
- ⑤ 미국 식품 의약국의 견해에 따르면 제로 칼로리 탄산음료를 일정한 수준 이하로 먹으면 건강에 나쁜 영향은 없겠군.

43

▶ 23052-0193

뉴스 보도의 언어적 특성을 고려할 때,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해요체’의 준말을 사용하여 격식체에 비해 시청자들에게 친밀하게 말을 건네고 있다.
- ② ㉡: 인용할 때 쓰는 조사를 활용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의 남의 말이나 글임을 표현하고 있다.
- ③ ㉢: 연결 어미를 활용하여 앞 절과 뒤 절이 인과적으로 이어짐을 표현하고 있다.
- ④ ㉣: 보조사 ‘는’을 사용하여 다른 상황과 대조적인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 ⑤ ㉤: 관형사절과 부사절을 활용하여 정보를 집약적으로 요약 제시하고 있다.

[44~45] 다음은 인터넷 신문 기사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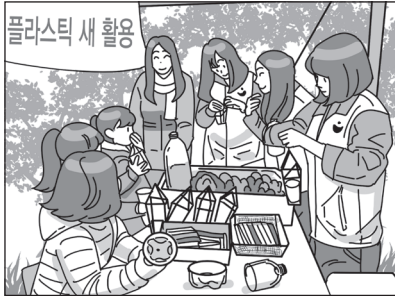
○○ 시민 신문

환경을 먼저 생각한 올해의 ○○시 축제

입력 20××.09.28.10:54 | 수정 20××.09.28.11:26


최근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축제에서도 확산되고 있다. 올해 우리 ○○시 축제는 온갖 쓰레기가 넘쳐나던 예년의 축제와는 달리 일회용품이 사라지면서 훨씬 깨끗하고 친환경적인 모습으로 탈바꿈해서 진행되고 있다.

○○시는 올해 축제를 기획하면서부터 지속 가능한 축제를 표방했다. 우선 홍보 책자를 만들지 않고 대신 행사장 곳곳에 나무 안내판을 설치하고 그 안에 QR 코드를 삽입하여 스마트폰으로 행사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지역의 시민 단체들과 합동으로 ‘새 활용’ (업사이클링, 재활용품에 디자인이나 활용도를 더해 가치가 높은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체험 행사를 마련해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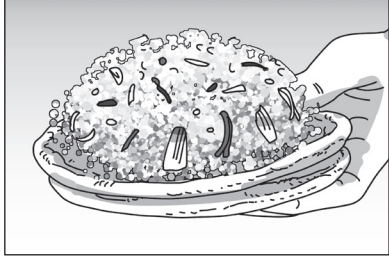


▲ [사진] ○○시 축제 중 플라스틱 ‘새 활용’ 체험 행사

특히 먹거리 구역 전체를 일회용품이 없는 친환경 구역으로 만들었다. 관람객들은 다회용기에 담긴 음식을 받아 식사를 하고 지정된 곳에 그릇을 반납했다. 특히 비빔밥을 뽕튀기에 담아 주어 시민들의 관심을 받았다. 비빔밥을 다 먹은 뒤 뽕튀기를 후식으로 먹게 되니 쓰레기가 아예 나오지 않게 되는 것이다.



▲ [사진]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먹거리 구역








▲ [사진] 뽕튀기에 담긴 비빔밥

○○시 축제에 참여했던 한 관람객은 “축제라는 들뜬 분위기 속에서도 항상 넘쳐나는 쓰레기통을 보면서 불쾌했는데 이번에는 거의 모든 쓰레기통이 텅 비어 있어서 색달랐다.”라고 했다. ○○ 시청 관계자는 인터뷰를 통해 “축제도 기후 위기를 포함한 생태 문제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 이제 단순히 즐기는 축제를 넘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축제가 필요하다.”라고 밝히며 이번 축제의 취지를 설명했다.

○○ 시민 신문 이▽▽ 기자

관련 기사(클릭 이동)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시행 후 줄어든 플라스틱 쓰레기 탄소 배출 ‘제로’에 도전하는 각 지역의 축제들

				
행복해요	좋아요	슬퍼요	짜증 나요	화나요
32	189	3	1	0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시 사랑: 뽕튀기 그릇에 담긴 비빔밥은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20××.09.28.13:45

↳ 밥이 보약: 뽕튀기 먹을 때는 옛날 느낌도 나더라고요. 쓰레기를 만들지 않고 먹는 밥맛도 꿀맛~~!! 20××.09.28.14:12

실전 모의고사 1회

실전 모의고사 2회

실전 모의고사 3회

실전 모의고사 4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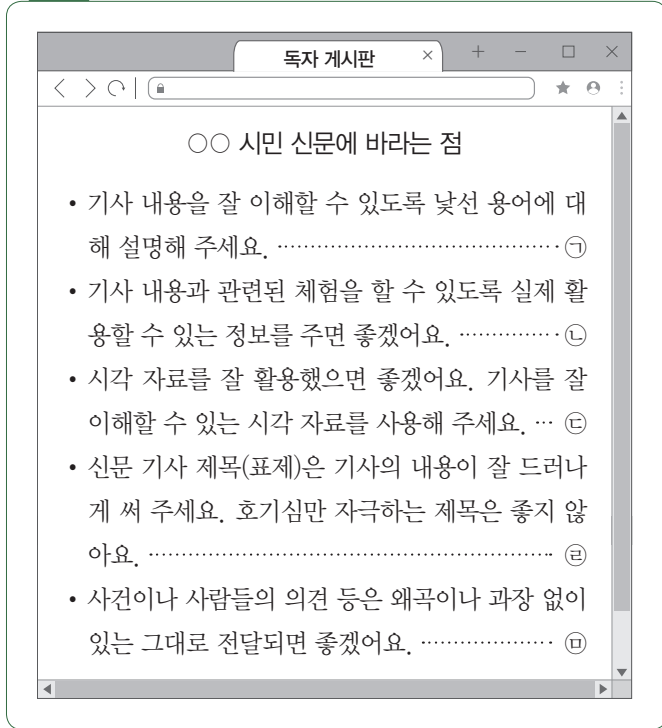
실전 모의고사 5회

44

▶ 23052-0194

〈보기〉는 기자가 위 기사를 작성할 때 참고한 내용이다. 〈보기〉의 반영 양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 ① ㉠을 고려해, 독자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 용어인 '새 활용'에 대해 그 의미와 함께 유사한 어휘도 제시했다.
- ② ㉡을 고려해, ○○시 축제의 변화 내용과 축제 운영 기간, 축제 장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 ③ ㉢을 고려해, 기사에서 설명하고 있는 체험 행사, 먹거리 구역, 비빔밥 등의 사진을 기사에 활용했다.
- ④ ㉣을 고려해, 기사의 주요 소재인 '○○시 축제'를 포함해 축제의 성격을 드러내는 제목을 사용했다.
- ⑤ ㉤을 고려해, 관람객과 ○○ 시청 관계자 인터뷰 내용은 직접 인용의 방식으로 내용을 전달했다.

45

▶ 23052-0195

위 인터넷 신문 기사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기사의 입력 시간과 수정 시간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두 시간 사이의 격차를 활용해 기사의 시의성을 판단할 수 있다.
- ② 기사 내용에 대한 수용자들의 반응을 볼 수 있으므로 다양한 반응의 이유를 점검해 반응의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다.
- ③ 관련된 다른 기사를 볼 수 있는 하이퍼링크가 있으므로 수용자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추가적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④ 문자, 이미지 등이 복합 양식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수용자는 문자 정보를 모두 수용해야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다.
- ⑤ 수용자가 기사에 대한 의견을 작성할 수 있으므로 수용자의 견에 대한 기사 작성자의 생각을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EBS 수능완성
국어영역



**실전 모의고사
4회**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릅니다. 3점 문항에는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01~0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조선 후기 신분제의 동요와 사회 계층 간의 이동을 촉발한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다. 우선 농업 생산력의 발전을 들 수 있는데, 이로 인해 양반이 아닌 계층 중에서도 경제적으로 성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또한 중앙 별열^{*}의 관직 독점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소외되었거나 경제적으로 몰락한 양반층인 잔반이 나타나 양반층이 분화된 것도 하나의 요인이다. 그리고 양반층이 균역의 부담을 지지 않는 등 신분제로 인한 병폐가 지속되자, 양반이 아닌 상민들이 과중한 균역과 같은 차별을 피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신분 상승을 시도한 것도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신분 상승 시도는 양반 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영향을 미쳤으며, 지배 신분이던 양반의 권위와 희소가치를 점차 ㉠ 떨어뜨렸다. 즉 사회 계층 내부의 분화와 함께 양반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신분제가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다.

조선 후기에는 신분제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노비 제도에도 큰 변화가 생겼다. 노비 중에는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외거 노비도 있었는데, 부를 축적한 노비는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거나 관리와 결탁하여 신분 상승을 도모했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영조 연간인 1746년에 국가에서 편찬한 법전인 『속대전』을 통해 노비가 쌀 13석가량의 돈을 국가에 납부하면 노비 신분을 벗어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노비가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는 합법적인 조건이 마련된 것이다.

조선 후기 실학자들은 당시 조선 사회가 직면해 있던 현실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제안을 하였으며, 특히 신분 제도의 불합리성으로 인해 능력에 맞는 직무를 맡을 수 없는 현실적 모순을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해결하려는 개혁안들을 제시했다. 실학자들은 개인의 능력보다 문벌을 중시하는 신분적 차별을 조선 사회의 잘못된 인습이라고 생각하고, 신분보다는 능력에 맞게 업무나 직업을 가지는 사회 분업적 개념을 도입하여 신분제 개혁의 기준으로 삼았다. 양반 세습제를 비판하거나 노비 제도를 개혁하려는 주장은 17세기 유형원 이래로 많은 실학자에 의해 구체적으로 제기되었다.

대부분의 실학자들은 신분제의 전면적인 철폐를 주장하는 것에는 이르지 못했다. 신분 제도 자체를 인습으로 바라보았지만, 조건 없는 만민 평등을 주장하는 것에는 이르지 못한 것이다. 그들에게는 유교적 계층 의식이 여전히 남아 있었고, 대부분 양반 출신이라는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하지만 신분제가 점차 무너지는 역사적 흐름 속에서 당시의 시대상을 관찰하고 근대적인 개혁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조선 후기 실학자들을 긍정적으로

로 평가할 수 있다.

*별열: 나라에 공이 많고 벼슬 경력이 많은 집안.

(나) 조선 후기에는 오랜 시간 지속되던 봉건적이고 인습적인 제도를 비판하고 이를 개혁하고자 하는 다양한 시도가 있었다. 이 중 신분제 개혁이 대표적이며 조선의 신분제를 개혁하고자 한 선구적인 학자들로는 유형원과 이익, 유수원이 있었다.

17세기 실학자인 유형원은 양반 세습제의 개혁을 위해 과거 제도를 폐지하고 공거제로 관리를 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거제는 양반과 상민을 포함한 양인^{*}을 대상으로 능력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여 같은 학제에 따라 공부하게 한 후, 그중 우수한 인재를 관리로 임명하는 것이다. 또한 그는 노비 제도의 단계적 철폐를 주장했다. 노비를 단번에 없애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양인과 천인의 결혼이 확산되던 조선 후기의 상황에서 우선 아버지가 노비여도 어머니가 양인이면 그 자녀도 양인이 되게 하는 노비종모법을 시행하여 노비 신분의 세습을 점점 줄이고자 했다. 그리고 노비 제도 철폐를 위해 국가가 공식적으로 기준이 되는 날짜를 정해 이전 출생자에 대해서만 노비 문서를 만들 수 있게 하고 이후에는 이를 허용하지 말 것을 주장했다. 노비 제도가 폐지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노동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해서, 유형원은 급료를 지급하여 노동자를 고용하는 고공 제도의 운영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제안하였다.

18세기 전반의 실학자인 이익은 당시 조선에 놓고먹는 양반이 크게 늘어 사회적 폐단이 많아졌다고 생각하여, 『성호사설』에서 나라를 좀먹는 병폐로 과거 제도, 노비 제도, 양반 문벌 제도, 게으름 등을 언급하였다. 이익은 신분제로 인해 농민을 천하게 여기는 것을 막고 국익에 도움이 되도록 놓고먹는 양반들이 농사를 지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를 위해 양반도 관직에 오르지 않으면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사농합일론과 농사를 짓는 선비들 중에서 인재를 등용하는 역전과를 주장했다. 또한 이익은 노비 신분의 세습과 노비 매매를 반대하면서, 양반이 소유할 수 있는 노비의 수를 제한하고 노비가 줄어들 수 있도록 노비종모법을 시행할 것을 주장했다. 이익은 노비 신분에서 벗어나는 백성이 많아지면 군포^{*}를 더 많이 징수할 수 있으므로, 노비종모법이 국가 재정의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군포를 징수하는 호포제에는 반대하였는데, 자신의 능력으로 관리가 된 사람에게에는 균역을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것이다. 관리에게 균역을 지우지 말자는 입장은 유형원도 마찬가지였다.

실학자 유수원은 이익과 같은 시대를 살았고 이익처럼 신분제를 개혁하고자 했지만, 중요하게 생각한 지점이 달랐다. 이익이

농민과 농촌에 집중했다면 유수원은 상공업이 발달한 도시에 집중하였다. 유수원은 이용후생의 실현을 위해 양반 문벌의 타파를 주장하고, 사농공상의 평등과 균형적 발전 방안을 제시했다. 관제 개혁을 통한 능력 중심의 관료 체제 정착, 세금 부담의 합리화를 위한 재산 정도에 따른 균분 균세가 그것이다. 또한 유수원은 천인을 제외한 백성은 신분 고하의 차별이 없다고 생각하여, 사농공상을 능력에 따라 구별하자고 제안했다. 양반과 상민을 포함한 양인의 아이들이 4~5세가 되면 스승에게 교육받도록 하여 그 자질을 바탕으로 15세 이전에 사와 농공상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양반이 농업이나 상공업에 종사하기 어려웠던 조선 후기의 상황을 비판하고, 벼슬을 하지 않는 사대부는 농업뿐만 아니라 상공업과 같은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국가가 허용하여 사농공상의 차별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인: 조선 시대의 신분 제도에서 천인이 아닌 사람.

*군포: 조선 시대에, 병역을 면제하여 주는 대신으로 받아들이던 배.

*이용후생: 기구를 편리하게 쓰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넉넉하게 하여, 국민의 생활을 나아지게 함.

*사농공상: 백성을 나누던 네 가지 계급. 선비, 농부, 공장(工匠), 상인을 이르던 말.

01

▶ 23051-0196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조선 후기 신분제의 변화 양상을 제시하고, 당시 학자들이 제안한 신분제 개혁안의 특징과 한계를 언급하고 있다.
- ② (가)는 조선 후기 신분제 동요에 따른 각 계층의 대응 방식을 제시하고, 각 계층이 제시한 신분제 개혁안의 특징을 개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 ③ (나)는 조선의 신분제가 변화한 과정을 공시적으로 살펴보고 여러 학자가 제시한 신분제 개혁안을 살피고 있다.
- ④ (나)는 조선 후기 실학자들이 주장한 신분제 개혁안의 한계점을 제시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조선 후기의 봉건적 제도의 문제점을 언급하고, 이를 개혁하는 방안이 적용된 실제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02

▶ 23051-0197

(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조선 후기에 균역을 피하기 위해 신분 상승을 시도하는 계층이 있었다.
- ② 이익은 노비 제도를 바로 폐지하기보다는 노비의 수를 점진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 ③ 조선 후기에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노비는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여 신분 상승을 도모하기도 하였다.
- ④ 유형원은 기존의 과거 제도를 비판하면서 모든 신분의 사람 중 능력이 있는 자가 관직에 오를 수 있는 시험 방식을 제시하였다.
- ⑤ 유형원은 노비 제도를 폐지한 후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여 노동자를 고용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03

▶ 23051-0198

(가)를 바탕으로 <보기>의 정약용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18세기 실학자 정약용은 양반에게 특혜가 집중되면서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했다.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국가의 발전을 위해 국가가 직업을 선비, 농부, 공인, 상인, 과일과 채소 재배, 배와 비단 짜기, 목재 등 자재 관리, 가축 기르기, 산나물 캐기 등으로 나누어 사람들을 적절하게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세유표』를 통해 부농, 상공업자 등의 신흥 서민층을 관료 체제에 흡수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는 양반의 역할이지만 우수한 농민과 공인을 행정직에 발탁하는 직업별 과거제의 실시를 주장했다. 아울러 양반은 국익을 위해 기존의 유학 외에 농업에 대한 연구, 기구의 발명, 원예와 목축 등의 실용적 학문을 수행할 것을 요구했다.

- ① 사농공상을 나누고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는 양반이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했음을 볼 때, 유교적 계층 의식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군.
- ② 다양한 실용적 학문을 수행할 것을 양반에게 권유했음을 볼 때, 국익을 위해 양반 인구가 증가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했음을 알 수 있군.
- ③ 양반에게 특혜가 집중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했음을 볼 때, 양반 중 잔반의 등장을 긍정적으로 생각했음을 알 수 있군.
- ④ 부농과 상공업자 등의 신흥 서민층을 관료로 임명하려고 한 것을 볼 때, 대부분의 실학자들처럼 신분제의 전면적인 철폐를 주장했음을 알 수 있군.
- ⑤ 국가가 직업을 배정하는 방식을 통해 신분제를 개혁하고자 한 것을 볼 때, 조선 후기에 노비가 양인이 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국가의 제도를 비판했음을 알 수 있군.

04

▶ 23051-0199

<보기>는 (나)를 읽은 학생의 독서 활동이다. (나)를 참고할 때 [A]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자료를 수집하여 글 내용 이해에 활용하기

<자료를 수집하여 정리하기>

[자료 1] 유형원, 『반계수록』 중 일부분

학교에 들어간 자는 나이에 따라 서열을 정하도록 한다. 공경의 자제도 서인이 될 수 있으며 귀천을 세습하지 않는 것이 도이다.

[자료 2] 이익, 『성호사설』 중 일부분

선비를 농부와 하나로 합해 법으로 지도하고 농사짓는 선비 중 재덕이 있는 자를 초야에서 뽑아 천거한다면, 백성들이 농사에 종사할 것을 본업으로 생각하여 각자가 그 업에 안정될 것이다.

[자료 3] 유수원, 『우서』 중 일부분

농공상업에 종사하는 양반은 국가가 관리가 될 수 없게 하였으니, 지금 선비가 농공상업에 종사하면 벼를 사귀고 혼인과 벼슬에 장애가 있다. 국가가 양반을 우대한다고 하나 실제로는 그 손을 묶어 배를 주리게 하니, 우대한다는 것이 오히려 곤란케 하였다. 사농공상은 모두 같은 백성이다. 만일 백성의 아이들을 한 모양으로 행세하게 한다면 높고 낮을 것이 없다.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글의 내용 정리하기>

[A]

- ① [자료 1]을 통해 신분에 따른 서열을 비판하고, 양반 신분의 세습을 개혁하고자 했던 유형원의 생각을 알 수 있다.
- ② [자료 2]를 통해 농민을 천하게 여기는 것을 막으려고 했던 이익의 주장을 알 수 있다.
- ③ [자료 2]를 통해 농사를 짓는 선비 중에서 인재를 등용하고자 했던 이익의 생각을 알 수 있다.
- ④ [자료 3]을 통해 양반이 상업에 종사하기 어려웠던 조선 후기의 상황을 비판한 유수원의 생각을 알 수 있다.
- ⑤ [자료 3]을 통해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능력에 따라 사농공상으로 구별하자고 제안한 유수원의 생각을 알 수 있다.

05

▶ 23051-0200

(나)를 참고할 때,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조선 후기 영조와 정조 때 상공업의 진흥과 봉건적인 인습의 개혁을 지향했던 북학과 실학자들은 신분제에 따라 양반이 노동을 하지 않는 것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개혁하고자 했다. 홍대용은 양반이라도 학식이 없어 관리에 오르지 못했다면 농업에 종사해야 하며, 일하지 않는 양반은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놀고먹는 양반을 나라를 갇아먹는 썸으로 인식한 박제가는 양반의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반이 상업에 종사하는 것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허가하고, 성과가 우수한 자를 관직에 등용하자고 주장했다. 박지원은 농공상을 지도해야 한다는 양반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양반이 국가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학문을 연구하지 않아 국가가 피폐하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양반들이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실학을 연구할 것을 촉구했다.

- ① 이익과 홍대용은 관리에 오르지 못한 양반이 농업에 종사해야 한다고 생각했군.
- ② 유수원과 박제가는 양반이 실생활과 관련된 생업에도 종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군.
- ③ 이익과 박지원은 국익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것을 신경 쓰지 않는 양반을 부정적으로 생각했군.
- ④ 유형원과 박제가는 조선의 봉건적 인습을 개혁하기 위해 국가가 공식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했군.
- ⑤ 유수원과 박지원은 이용후생을 위해 양반이 실학을 연구해 농민을 지도하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군.

06

▶ 23051-0201

㉔의 문맥적 의미와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면접관은 이번 채용에서 그를 떨어뜨렸다.
- ② 그런 행동은 위신을 떨어뜨리는 이유가 된다.
- ③ 내 그림을 그의 그림에서 떨어뜨려서 전시했다.
- ④ 불안정한 미래 전망은 주가를 떨어뜨리게 된다.
- ⑤ 동생은 얼마 전에 사 준 신발을 벌써 떨어뜨렸다.

[07~1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빅 데이터 기술과 컴퓨팅 연산 기술로 무장한 인공 지능은 인간처럼 스스로 학습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인간의 고유 영역이라고 간주되었던 문화와 예술 분야에서도 뛰어난 창작 능력을 보여 주고 있다. 베토벤이 미완성으로 남긴 교향곡을 인공 지능이 완성하여 오케스트라가 750여 명의 관객 앞에서 이를 초연한 일은 인공 지능에 의한 창작 활동의 대표적 사례로 볼 수 있다. 인공 지능에 의한 창작물이 ㉕ 증가함에 따라 이를 법적으로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창작물에 대한 보호와 관리는 저작권법에서 다루어지는데, 인공 지능에 의한 창작물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저작권법상 논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인공 지능에 의한 창작물은 저작권법상 저작물로서 인정될 수 있는지, 둘째 인공 지능에 의한 창작물이 저작물이라면 그 저작자는 인공 지능인지 아니면 그 배후에 있는 인간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다.

저작권법 제2조에 의하면,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이에 따르면 저작물의 성립 요건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과 창작성이다. 그렇다면 인공 지능이 만들어 낸 창작물은 저작권법상 표현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해 먼저 인공 지능이 과연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까지 표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의문을 ㉖ 제기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인공 지능이 독자적으로 작품을 창작하면서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인공 지능이 만든 작품이 인간의 마음과 머리를 감동시킨다면 인간이 만든 저작물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인공 지능이 만든 작품에서 우리가 어떤 사상이나 감정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만일 작품 제작에 인간이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면 그것을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대변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볼 때, 인공 지능에 의한 창작물은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가 어려운 면이 있다.

한편, 인공 지능이 만들어 낸 작품이 저작권법상 창작성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것은 창작성의 정의에 따라 달라지는데, 만약 창작성을 인간의 의식이나 자각의 측면에서 정의하면 인공 지능이 아무리 ㉗ 정교해진 다 해도 창작성이 인정될 수 없다. 그러나 창작성을 단순히 무엇인가를 만들어 내는 성질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면 인공 지능도 창작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인공 지능이 기존의 작품에 단순하고 반복적인 변경만을 가한 경우부터 시작해서, 창작성을 인정받을 만큼 창의적인 형태로의 변경을 가했거나 전혀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수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인공 지능의 수준과 알고리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창작성의 요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뒤따라야 한다.

인공 지능이 만든 작품이 창작성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작품의 저작자 또는 저작권의 귀속 주체는 누구인가? 저

작권법상 저작자라고 함은 ‘저작물을 창작한 자’로서 자연인^{*}을 ㉔ 지칭한다. 그러나 인공 지능에 의해서 만들어진 작품의 경우에, 누가 ‘저작물을 창작한 자’에 해당되는지에 관해서도 논란이 제기된다. 예컨대, 인공 지능에 의해서 만들어진 작품의 ‘창작’에 참여한 당사자로 인공 지능의 알고리즘을 개발·코딩한 프로그래머, 일련의 선택 내지 지시와 이미지를 입력한 이용자, 상당한 데이터를 통해서 일정한 패턴을 학습시키는 자, 인공 지능 또는 로봇 그 자체 가운데 누가 ‘저작물을 창작한 자’에 해당되는지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 저작자는 자연인에 한정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는 점이다.

인공 지능에 의해서 만들어진 작품이 저작권법상 창작성의 요건을 충족시키고, 그 작품을 창작한 자, 즉 저작자가 누구인지에 관한 명확한 판단을 하더라도 그 저작자에게 반드시 저작권이 귀속되어야 하는지 여부는 또 다른 문제이다. 특히 저작권을 창작 촉진을 위한 수단으로 보는 공리주의의 관점에서 보면, 저작권의 귀속 문제는 창작의 촉진이라고 하는 법 목적 달성에 가장 효율적인 귀속 주체를 찾는 과제일 뿐이다.

한쪽에서는 인공 지능에 대한 투자 보호와 산업 진흥을 위하여 인공 지능에 의한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를 주장하고 있다. 인공 지능이 만든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보호함으로써 인공 지능 산업의 경제적 이익을 증진하여 사회의 효용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배타적 권리인 저작권을 대량의 창작물을 생산해 낼 수 있는 인공 지능에 부여할 경우 독점화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것임을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다. 인공 지능은 스스로 학습을 통하여 다양한 창작물을 인간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대량으로 창작해 내기 때문에 향후 창작 활동의 범위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간이 잠재적 피해자로서의 위치에 놓이게 될 위험이 내재되어 있다. 또한 인공 지능은 인터넷상의 무수한 자료를 통해서 학습하거나 이를 이용해서 창작을 하게 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타인의 저작물 이용에 관한 이용 허락이나 공정 이용, 저작권 침해의 쟁점이 ㉔ 수반된다. 이러한 점에서 인공 지능에 의한 창작물에 대한 보호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 자연인: 법이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인정하는 자연적 생활체로서의 인간.

07

▶ 23051-0202

다음은 글쓰기가 윗글을 쓰기 위해 미리 구상한 글쓰기 계획이다. 윗글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무엇을 설명할 것인가?	인공 지능에 의한 창작물이 현행 저작권법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함. ①
내용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	글의 처음 부분에 논의의 배경을 제시하고 인공 지능에 의한 창작물의 보호와 관련된 우려를 전하며 글을 마무리함. ②
독자의 흥미를 어떻게 유지해 나갈 것인가?	설명하려는 정보와 관련하여 상황을 가정하여 묻고 대답해 가면서 독자의 관심을 유도함. ③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하여 내용을 설명할 것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체적 예를 통해 설명함으로써 독자의 이해를 도움. ④ 글에서 다룰 주요 논란을 서두에 제시하여 독자가 내용을 예측하며 읽도록 함. ⑤

08

▶ 23051-0203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저작권법 제2조에 명시된 저작물 요건으로서의 표현 기준은 표현의 주체로 자연인을 전제하고 있다.
- ② 인공 지능이 만든 창작물의 경우 타인의 저작물 이용에 관한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 ③ 창작 방식과 속도, 창작물의 수량에서 보이는 인공 지능의 창작 활동의 특성은 인간의 창작 활동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 ④ 공리주의의 관점에서는 인공 지능이 만든 창작물에 대한 저작자가 분명해지면 저작권은 그 저작자에게 반드시 귀속된다고 본다.
- ⑤ 인공 지능의 창작 행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빅 데이터 기술과 인공 지능을 위한 무수한 학습 자료가 기반으로 갖추어져야 한다.

09

▶ 23051-0204

〈보기〉를 참고하여 밑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기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이론적 근거로 공공의 복리 증진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경제적 유인의 제공이라는 실정권론과 창작자에 대한 도덕적으로 정당한 대가의 지급이라는 자연권론이 있다. 실정권론에서 저작권은 사회 발전의 증진이라는 공익을 위한 도구로서 주어지는 실정권에 불과하다. 즉 인간의 노력이나 인격에 대한 보상을 위해 주어지는 권리가 아니라, 사회에서의 효용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실정법을 바탕으로 인정되는 권리인 것이다. 반면에 자연권론에서 저작권은 인간의 지적 노동의 결과이므로 이에 대한 보상으로서 배타적 권리가 부여되어야 한다고 본다.

- ① 실정권론은 인공 지능에 의한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인공 지능에 대한 투자 보호와 산업 진흥을 위한 도구로 생각하겠군.
- ② 인공 지능에 의한 창작물의 대량 생산이 불러일으키는 독점화에 대해 실정권론은 인공 지능에 의한 창작 활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보겠군.
- ③ 인공 지능에 의한 창작물이 알고리즘에 따라 생성된 것으로 볼 때 자연권론은 저작권이 인공 지능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겠군.
- ④ 자연권론은 기존의 작품에 단순하고 반복적인 변경만을 가한 경우라도 사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한 경우라면, 인공 지능에게 저작권을 부여하겠군.
- ⑤ 자연권론은 경제적 유인의 제공을 통한 창작 활동의 증진을 중요하게 생각하므로, 이미지를 자동으로 만드는 인공 지능의 저작권을 인정할 수 있겠군.

10

▶ 23051-0205

다음은 밑글을 읽은 학생이 토론에 참여하기 위해 메모한 내용의 일부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 토론 주제: 인공 지능이 만든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하고 보호해야 하는가?
- 나의 주장: 인공 지능이 만든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하고 보호해야 한다.
- 주장에 대한 근거 정리
 - 저작권법상 창작성의 의미를 단순히 무엇인가를 만들어 내는 성질로 정의하면 인공 지능도 창작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①
 - 인공 지능이 만든 작품이 인간의 마음과 머리를 감동시킨다면 인간이 만든 저작물과 동일한 가치를 지닌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 인공 지능은 문화 및 예술 분야에서 활발한 창작 활동을 바탕으로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과는 다른 내용의 창작물을 표현하고 있다. ③
- 예상되는 반론 정리
 - 인공 지능에 의해 만들어진 창작물의 경우에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부여할 저작자를 인공 지능 자체로 특정할 수 없다. ④
 - 인공 지능이 만든 작품이 인간의 관여 없이 독자적으로 제작된 것이라면 그것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저작물로 볼 수 없다. ⑤

11

▶ 23051-0206

문맥상 ㉠~㉥와 바꿔 쓸 수 있는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늘어남
- ② ㉡: 던질
- ③ ㉢: 뚜렷해진다
- ④ ㉣: 이른다
- ⑤ ㉤: 따른다

실전 모의고사 1회
실전 모의고사 2회
실전 모의고사 3회
실전 모의고사 4회
실전 모의고사 5회

[12~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사용자가 컴퓨터로 음악을 ㉔ 듣는 프로그램의 실행 버튼을 누른다고 해서 그 프로그램이 곧바로 실행되는 것은 아니다. 운영 체제는 대기 목록인 ‘대기열’에 실행시킨 순서대로 프로그램을 등록해 두었다가, 이 중 하나를 ㉕ 골라 중앙 처리 장치인 CPU를 할당하고 동시에 대기열에서는 삭제한다. 즉 프로그램이 실행 중이라는 것은 프로그램에게 CPU를 할당한 상태를 의미한다. 만약 10초 길이의 음악이 재생 후 종료되었다면 음악 재생 프로그램에게 CPU를 할당한 10초를 음악 재생 프로그램의 ‘실행 시간’이라 한다. 그런데 한 개의 CPU에는 한 번에 한 개의 프로그램만 할당할 수 있어서 대기열에 등록된 것 중 어느 것을 골라 할당할 것인지는 운영 체제의 일부인 CPU 스케줄링이 결정한다.

스케줄링의 성능은 ‘시스템 입장’과 ‘사용자 입장’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시스템 입장에서는 CPU가 쉬지 않고 최대한 많이 일을 할수록 고성능으로 ㉖ 본다. 그래서 단위 시간당 CPU가 일한 시간의 비율인 CPU 이용률이 높거나, 단위 시간당 프로그램을 처리한 개수인 작업 처리량이 많을수록 고성능이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사용자가 실행한 프로그램이 가급적 빨리 CPU를 할당받아야 고성능으로 본다. 그래서 같은 개수의 프로그램을 처리할 때, 프로그램 각각의 대기 시간의 합인 ‘총 대기 시간’이 적을수록 고성능이다. 대기열에 등록된 프로그램 P1, P2, P3를 순서대로 처리하는 스케줄링의 경우 각각의 대기 시간을 구하는 방식은, P1은 즉시 실행되므로 대기 시간은 0이 되며, P2의 대기 시간은 P1의 실행 시간과 같으며, P3의 대기 시간은 P1과 P2의 실행 시간의 합과 같다.

2000년대 이전의 대다수의 개인용 컴퓨터는 CPU가 한 개뿐이었다. 이 컴퓨터에 실행 시간이 서로 다른 다수의 프로그램들이 대기열에 등록되어 있다고 하자. 우리는 이들을 하나씩 처리해 나가거나, 조금씩 번갈아 가며 처리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스케줄링이 고안되었다.

FCFS(First-Come First-Served) 방식은 대기열에 등록된 프로그램 순서대로 CPU를 할당하며, 할당된 프로그램이 작업을 완료하면 다음 프로그램에게 CPU를 할당한다. 한편 RR(Round-Robin) 방식은 등록된 순서대로 CPU를 할당하지만 프로그램마다 균일하게 ‘최대 할당 시간’을 부여한다. 그래서 실행 중인 프로그램에게 최대 할당 시간만큼만 CPU를 할당하고 시간 내에 작업을 완료하면 프로그램은 종료된다. 반면에 그 시간 내에 작업을 완료하지 못하면 해당 프로그램은 종료되지 않은 상태로 대기열의 마지막 순서에 재등록되며, 동시에 대기열의 다음 순서인 프로그램에게 CPU를 할당한다. 또 하나는 SJF(Shortest Job First) 방식이 있는데, 이는 대기열에 있는 프로그램마다 실행 시간을 계산하여 이 값이 가장 짧은 프로그램에게 CPU를 우선 할당한다. 그리고 할당된 프로그램이 작업을 완료해야 다음 프로그램이 실행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HRN(Highest

Response ratio Next) 방식은 프로그램마다 ‘(대기 시간 + 실행 시간) / 실행 시간’으로 응답률을 ㉗ 구하여, 이 값이 가장 큰 프로그램에게 CPU를 할당한다. 그리고 할당된 프로그램이 작업을 완료하기 전에는 다른 프로그램에게 CPU를 할당할 수 없다. 작업이 완료되면 다른 프로그램들의 대기 시간도 달라졌으므로 응답률을 재산정하여 이 값이 가장 큰 프로그램에게 CPU를 할당한다. 이 방식은 ㉘ SJF 방식의 단점을 보완한 기법으로 평가받는다.

2000년대 이후에는 두 개 이상의 CPU를 사용한 개인용 컴퓨터가 대중화되었다. 이때부터는 일부 CPU만 일하고 다른 CPU는 ㉙ 쉬는 상태를 방지하는 기술인 ‘이주’가 스케줄링에 추가되었다. 가령 두 개의 CPU(CPU1과 CPU2)가 가진 각각의 대기열에는 프로그램이 두 개씩 등록되었다고 가정하자. 얼마 후 CPU1 측에는 모든 프로그램이 종료되었고 CPU2 측에는 종료된 것이 없다면, 운영 체제는 CPU2의 대기열에 있는 프로그램을 CPU1의 대기열로 옮겨 주는데 이를 이주라고 한다.

12

▶ 23051-0207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CPU 스케줄링은 운영 체제의 한 부분에 해당한다.
- ② 사용자가 실행한 프로그램은 대기열에 등록되었다가 CPU에 할당된다.
- ③ 이주는 특정 CPU가 일하지 않는 시간의 비율을 줄이기 위해 사용되는 기술이다.
- ④ 작업 처리량이 많은 CPU 스케줄링은 시스템 입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 ⑤ CPU 이용률이 높으면 사용자가 실행한 프로그램이 가급적 빨리 처리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13

▶ 23051-0208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HRN 방식은 SJF 방식과 달리 실행 시간이 길더라도 대기 오래 했다면 우선 처리될 수 있기 때문이다.
- ② HRN 방식은 SJF 방식과 달리 대기열에 등록된 프로그램의 순서가 늦더라도 대기 시간은 짧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 ③ HRN 방식은 SJF 방식과 달리 단위 시간당 더 많은 개수의 프로그램을 처리하기 위해 응답률이 낮은 프로그램부터 CPU를 할당하기 때문이다.
- ④ SJF 방식은 프로그램에게 CPU를 할당한 후 실행 시간을 계산했지만, HRN 방식은 두 순서를 바꿈으로써 프로그램의 실행 시간이 더 줄었기 때문이다.
- ⑤ SJF 방식은 프로그램에게 CPU를 할당할 때 실행 시간의 평균값을 이용했지만, HRN 방식은 대기 시간의 평균값을 이용하여 계산의 정확도를 높였기 때문이다.

14

▶ 23051-0209

〈보기〉는 윗글을 읽은 학생이 추가로 찾아본 내용이다. 학생의 반응 중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끼리 짝지은 것은?

[3점]

보기

스케줄링은 선점 방식과 비선점 방식으로 나누어진다. 현재 CPU에 할당된 프로그램을 잠시 멈추고 다른 프로그램으로 바꿀 수 있다면 선점 방식이라고 하고, 그렇지 않다면 비선점 방식으로 분류된다.

- 『컴퓨터 개론』, ○○출판사

학생: 윗글의 스케줄링 방식 중 (㉠)은/는 선점 방식으로, (㉡)은/는 비선점 방식으로 분류할 수 있겠구나.

	㉠	㉡
①	RR	FCFS, SJF, HRN
②	FCFS, SJF	RR, HRN
③	RR, HRN	FCFS, SJF
④	FCFS, SJF, HRN	RR
⑤	RR, SJF, HRN	FCFS

15

▶ 23051-0210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의 [A]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최대 할당 시간이 1초이고 RR 방식의 스케줄링을 사용하는 CPU가 한 개뿐인 컴퓨터가 있다. 대기열에는 실행 시간이 각각 3초, 1초, 2초인 프로그램 X, Y, Z가 순서대로 등록되어 있다. 먼저 X가 실행된 후 대기열에 재등록되었다고 하자. 다시 X가 실행되기 직전까지 CPU에서는 ([A])이/가 차례대로 진행될 것이다.

- ① Y의 실행, Z의 실행과 종료
- ② Y의 실행과 종료, Z의 실행
- ③ Y의 실행과 종료, Z의 실행과 종료
- ④ Z의 실행, Y의 실행과 종료
- ⑤ Z의 실행과 종료, Y의 실행

16

▶ 23051-0211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프로그램 P, Q, R, S의 실행 시간은 각각 10초, 15초, 30초, 40초이다.

[상황 1] CPU가 한 개뿐인 컴퓨터의 대기열에 P, Q, R, S 순서로 등록되어 있다.

[상황 2] CPU가 한 개뿐인 컴퓨터의 대기열에 S, R, Q, P 순서로 등록되어 있다.

[상황 3] 이주 기술이 사용되는 운영 체제에서 두 개의 CPU (CPU1과 CPU2)는 각각 대기열을 가진다. CPU1에는 Q, P 순서로, CPU2에는 S, R 순서로 등록되어 있다.

- ① [상황 1]에서 FCFS 방식을 이용할 경우 프로그램의 처리 순서와 SJF 방식을 이용할 경우 처리 순서는 같다.
- ② FCFS 방식을 [상황 1]에서 이용할 경우 P의 대기 시간과 [상황 2]에서 이용할 경우 S의 대기 시간은 같다.
- ③ FCFS 방식을 [상황 1]에서 이용할 경우 프로그램의 총 대기 시간은 [상황 2]에서 이용할 경우보다 더 짧다.
- ④ [상황 3]에서 CPU1에 FCFS 방식을 이용할 경우 P의 대기 시간은 15초이다.
- ⑤ [상황 3]에서 두 개의 CPU에 SJF 방식을 이용할 경우 CPU1의 대기열에 있는 프로그램이 CPU2의 대기열로 옮겨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17

▶ 23051-0212

문맥상 ㉠~㉣의 단어와 가장 가까운 의미로 쓰인 것은?

- ① ㉠: 이 약은 두통이 심할 때 잘 듣는 약으로 알려져 있다.
- ② ㉡: 울퉁불퉁한 곳을 흙으로 메워 판판하게 골라 놓았다.
- ③ ㉢: 날씨가 좋을 것으로 보고 집에 우산을 놓고 나왔다.
- ④ ㉣: 그는 위험에 빠진 친구를 구하여 많은 칭찬을 받았다.
- ⑤ ㉤: 갑자기 노래 연습을 하다 보니 목이 쉬는 경우가 많았다.

[18~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심규에 드러안자 옥매로 벗을 삼아
 여행을 맑게 닳고 방적을 힘쓰더니
 동군이 유정하여 삼사월을 모라오니
 ㉠ 원근 벼랑에는 홍금당을 둘러 잇고
 춘변의 도리화는 가지마다 색을 띠어
 사창 안 부녀 흥을 제 혼자 돋우는데
 도로혀 생각하니 인생이 이만이라
 여자의 달라짐도 예부터 이심으로
 한 걸음 돌려서 완풍경 하려 하고
 지심하는 우생들과 일언의 구일하니
 맛바위 사미당에 대회를 여러 내어
 금차 옥잠은 용모의 광채 되고
 녹의홍상은 도로의 문명하다
 춘풍이 다시 부러 새봄을 더하는 듯
 ㉡ 일시에 모인 부녀 삼십 여인 열좌하네
 규리 한담으로 차차로 수작하고
 청유 분 모아 내어 소담히 장만하여
 옥녀 선동들을 먼저 엮어 내어노코
 ㉢ 조용히 모여 안자 정결히 요기한 후
 그제야 일어서서 곳곳을 완상하니
 동풍 어제 비에 봄경이 새로왔네
 ㉣ 대상의 벽도화는 날 위하여 옷어 잇고
 강두의 양류지는 의연한 춤이로다
 오색운 깊은 골의 척촉이 만발하니
 무릉도원인들 이에서 더하오며
 전계에 맑은 징담 한가도 한가할사
 청승별계를 다시 보와 무엇하리
 귀가의 도흔 소리 조수 호음 아닐손가
 노선생 사시음에 무권춘산 금수명이
 형용도 도홀시고 진실로 이경이라
 정전의 푸른 풀은 한 가지로 띄어 있다
 주렴계 얻은 마음 내 또한 깨달으니
 형형색색을 조화옹이 비저 내니
 모으면 하나 되고 흠으면 만 개로다
 도라안자 바라보니 성인의 술 아닌가
 노래하며 취하여 주야를 모르거니
 아는가 모르는가 이 보소 남자들아
 춘시 호광음의 여자 조롱뿐이로다
 너무들 조롱 마오 남자 수치 또 있나니
 앞에는 사서삼경 곁에는 제자백가
 위인도 경계술이 다 주어 버렸거늘
 보고 읽고 못 행하니 단청 구경 아닐소나
 인근에 너른 집을 구태여 마다하고

[A]

산경 좁은 길로 구차하게 찾아가니
 산금 야수가 벗하려 하는고야
 영대에 거친 띠를 뉘 능히 베어 내리
 ㉔ 그래도 명리상에 헛욕심 자아내야
단양 화월리에 저 소리 흠염하니
저러한 남자들은 불취반치 되는구나
 우뚝한 대장부는 더욱 아니 본받으랴
 어와 저 남자야 아마도 옥창 부녀는 신선인가 하노라
 - 안동 권씨, 「반조화전가(反嘲花煎歌)」

*심규: 여자가 거처하는, 깊이 들어앉은 집이나 방.
 *지삼하는: 감매는.
 *정담: 연못.

18

▶ 23051-0213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거의 즐거웠던 일을 떠올리며 현실의 덧없음을 환기하고 있다.
- ② 설득적 어조를 통해 잘못된 세태를 극복하기 위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③ 움직임은 나타내는 동일한 어휘를 반복하여 대상의 역동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 ④ 자연물을 소재로 하여 서로 대립하던 것들이 타협에 이른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 ⑤ 이상향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화자가 체험한 공간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19

▶ 23051-0214

〈보기〉를 바탕으로 ㉠~㉔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화전놀이는 주로 여성들이 봄철에 경치가 아름다운 곳을 찾아, 진달래 꽃잎을 이용해 화전(花煎)을 만들어 먹으며 하루를 즐기는 전래의 풍습이다. 여성들은 화전놀이를 하는 날은 집안일에서 벗어나 아름다운 경치를 구경하거나 노래와 춤을 즐기며 재미있게 지냈다. 이러한 화전놀이는 단순히 일회성 행사로 그친 것이 아니라 행사가 끝난 후 화전놀이를 소재로 하는 가사로 만들어져 생활 속에서 향유되었는데, 일부 화전 가사는 남성 중심의 억압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맺혔던 감정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였다.

- ① ㉠: 화전놀이가 이루어지는 봄철의 계절감을 색채 이미지를 통해 부각하고 있군.
- ② ㉡: 화전놀이에 참가하는 여성들의 규모와 그들이 이야기를 주고받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군.
- ③ ㉢: 화전놀이가 먼저 화전을 만들어 먹고 이후에 아름다운 경치를 구경하는 방식으로 진행됨을 알 수 있군.
- ④ ㉣: 화전놀이 도중에 여성들이 꽃으로 치장한 후 함께 춤을 추며 즐거워하는 상황을 제시하고 있군.
- ⑤ ㉤: 남성들의 잘못을 조롱하는 내용으로 남성 중심의 억압적 분위기에서 맺혔던 감정을 해소할 수 있었겠군.

20

▶ 23051-0215

[A]를 <보기>에 대한 답변이라고 할 때, [A]를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기

분벽사창은 부녀의 지킬 바요
 강산완경은 남자 일로 드럿더니
 오늘 일 보와하니 옛말과 다르구나
 규중 부녀는 산수 간의 완경하고
 풍류 남자는 독좌공당 하여세라
 물가를 오르내린들 도흔 경을 어이 알니
 연녹 방초 안의 단청 구경 하시는가
 광풍이 종일하니 화전도 경이 업다

- 홍원장, 「조화전가」에서

- ① <보기>의 ‘옛말’을 본받아 행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기고 있다.
- ② <보기>에서 언급한 ‘강산완경’과 관련된 구체적 사례를 들고 있다.
- ③ <보기>의 ‘단청 구경’이라는 표현을 되받아 활용하여 <보기>의 화자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나타내고 있다.
- ④ <보기>의 화자가 지적한 문제점을 인정하며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 ⑤ <보기>에서 제안한 화전놀이의 실행 방법을 따르기 어렵다고 생각해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21

▶ 23051-0216

윗글에 묘사되어 있는 여인들의 모습을 그림으로 나타낼 때,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산속에서 화전놀이를 방해하는 남성을 만나 그를 달래는 모습
- ② 집 안에서 노동에 시달리는 신세를 한탄하며 남편을 원망하는 모습
- ③ 여러 장소를 다니려고 일부러 허름한 옷을 챙겨 입고 집을 나서는 모습
- ④ 여인들이 돌아가며 자연을 예찬하는 시를 지어 낭송하며 즐거워하는 모습
- ⑤ 한 여인이 밭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이야기하며 화전놀이를 하자고 약속하는 모습

[22~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비둘기 울며 아뢰되,

“소생이 근본 충효를 본받고자 하여 사서삼경(四書三經)과 외가서(外家書)를 많이 보았으니 죽히 육십사괘를 짐작하며 충효를 본받았더니, 근년 정월분에 종급새 딸밤각시로 더불어 일 년 운수를 본즉 ‘금년 수(數)가 불길하와 관재 구설수가 있으니 잔치를 벌여 즐기는 곳에는 가지 말라.’ 하는 [A] 것을 정녕이 알지 못하옵기로 무심히 알았삽더니, 까치 낙성연에 우연히 지나옵다가 이 지경을 당하오니 오는 수는 면하기 어렵단 말이 옳사오며, 일전에 어려운 줄을 알지 못한단 말이 옳사외다. 저 암까치 사리도 알지 못하고 소생을 모함하였사오니 소생의 죽고 삶은 명찰하신 사또 처분에 있사오니 아뢰올 말씀 없나이다.”

하거늘, 군수 비둘기의 말을 들은 후,

“감영에 보고한 회답을 기다려 결정하여 집행하리라.”

하고, 엄중히 가두었더니 하루는 회답 문서가 도착했거늘, 형벌을 드디어 집행하되 증인들은 특별히 석방하고 정범은 엄형(嚴刑) 세 차례에 풀어 주거늘, 비둘기 크게 기뻐하여 춤추며 하는 말이,

“큰 죄를 면키 어렵단 말은 거짓말이요, 돈이 있으면 귀신도 부릴 수 있단 말이 옳도다.”

하며, 의기양양하여 돌아가는지라.

(중략)

과거에 새로이 장원 급제한 양반이 암행어사를 자청하여 민정 살피려고 내려올새 성은 난(鸞)이요, 이름은 춘이니, 대대로 청백하여 군자지절(君子之節)을 가져 있고 도량이 창해 같아 아는 것이 귀신같은지라. 산림에 돌아다니며 방백 수령의 착하고 착하지 않음을 가리오며 만민의 병고(病苦)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살피려고 방방곡곡에 염탐하며 순행하더니, 하루는 마침 할미새 집에 다다라 쉬더니 할미새 물레질하다 말고 물러앉으며 턱 받치고 묻지 않는 말을 열 놉이 성기는 듯이 나팔대며 이르되,

“세상에 원통하고 모질고 기막힌 일도 있더이다. 까치 집을 새로 짓고 낙성연하다가 비둘기한테 여차여차 맞아 죽었으며, 이리이러하여 대살(代殺)치 못하였더이다.”

하는 말을 날날이 설화하거늘, 어사 난춘이 듣기를 다하고 분함을 참지 못하여 비장 새매로 더불어 약속을 정하고 이튿날 골에 들어가 출도(出道)하고 좌정 후에 시척 암까치와 증언을 했던 섬동지 등을 날랜 나줄을 놓아 성화같이 잡아들이고 먼저 암까치를 불러들여 물으되,

“네 서방이 남의 손에 맞아 죽을시 분명하다 하거늘 어찌하여 대살치 못하였는다?”

암까치 통곡하여 여쭙오되, 비둘기 연석에 참여하여 고기와 술을 많이 먹고 술이 대취하여 온갖 방법으로 능욕하며 여차여차하여 소녀의 서방을 죽였사오니, 두민(頭民) 섬동지 놉이 비둘기한테 뇌물을 많이 받고 본관 사또께 거짓 고소하여 아뢰 말이며,

책방과 수청 기생이 뇌물을 받아먹고 본관에게 사실을 날조하여 고해바쳐 희살되게 한 사연을 날날이 아뢰는데, 어사 듣기를 다 하고 크게 노하여 한편,

“비둘기를 결박하여 잡아들여라.”

하고, 나졸 보내어 까치 무덤을 파헤쳐 검시할새, 시신이 조금도 상(傷)치 아니하고 매 맞은 상처가 분명하여 머리도 깨어지고 허리도 상하였는지라. 세세히 검시하고 두꺼비를 잡아들여 엄형 분부 알,

“이놈아 들어라. 너는 길짐승으로 소위 우두머리라 칭하고 날 짐승 중에 참여하여 음흉한 흉계를 내어 국법을 그르게 하였으니 죄는 만 번 죽어 마땅하다. 또한 살변(殺變)은 막중하고 큰 일이어늘 네 간사한 피로써 좌우청축하며 뇌물을 수다히 받았으니 죄는 죽어도 아깝지 않다. 소위 우두머리로 동네의 일에 소소한 일이라도 공사(公私)를 다 편히 하는 것이 사리에 마땅하거늘 사정(私情)을 위하여 뇌물을 받고 공사(公事)를 폐하였으니 너를 당당히 죽여 훗사람을 징계하리라.”

호령이 추상(秋霜)같은지라 두꺼비 황망히 여쭙오되,

“민이 밝게 살림을 받고 있음에 추호의 말이오나 어찌 꺼리어 감추거나 숨기겠습니까? 고서에 일렀으되, 자기가 스스로 만든 재앙은 살길이 없다고 하였사오니 민이 어찌 살기를 바라오리까. 과연 집안 살림이 몹시 어려웁기로 소소 전냥(錢兩)을 받아먹사옵고 국법을 어기었사오니, 만 번 죽어 마땅하니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탓하리오? 다만 수의사또 처분만 바라웁니다.”

어사 분부하되,

“두꺼비는 아직 칼을 씌워 단단히 가두어라.”

하고, 한편 고을 수령은 봉고파직하고 정범 비둘기를 올려 문초하여 가로되,

“너는 들어라. 법전에 일렀으되 ‘살인자는 사(死)라.’ 하였거늘 한갓 재물만 믿고 천명을 어기고 자취를 감춰 제명을 다해 편히 살다 죽기를 바라니 이 아니 가소한가? 세상에 너 같으면 법관 명색이 어이 있을꼬? ‘재앙과 경사, 화와 복이 모두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 하였으니 네 죄에 죽는 것을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탓하리오.”

말을 끝내고 좌우 나졸을 호령하여 당장 때려죽일새, 오형(五刑)*을 갖추어 죄인을 죽여 삼문(三門) 밖에 끌어 내치고 또한 책방 구진이와 수청 기생 앵무새를 잡아들여 계하에 꿰리고 분부하되,

“너희는 관가 봉공지도(奉公之道)에 힘을 다하여 위로 국정을 있는 힘을 다해 떠받들고 아래로 백성을 어루만져 달래는 것이 사리에 온당할 것이어늘 한갓 청탁을 위하여 국정을 흐리었으니, 당당히 너희를 정하(庭下)에서 성명을 없이할 것이로되 십분 짐작하여 죽이지 않고 멀리 유배 보내노라.”

하고, 섬동지를 올려 각기 곤장 구십 대에 무인절도(無人絕島)로 귀양 보내고, 그 남은 증인들은 각각 엄하게 곤장 삼십 대에 풀

어 주고 이 연유로 나라에 계문(啓聞)*하니라.

이때에 암까지 달려들어 비둘기의 배를 채고 간을 내어 가지고 청천(靑天)을 향하여 무수히 표백하고, 동헌에 들어가 수의사또께 치하하여 알,

“소녀 십육 세에 출가하와 불과 수년에 참혹지변을 당하오매 달리 부모 동생 없삽고 일가친척 없사와 다만 첩의 일신뿐이오매, 단독 일신 되어 힘이 미치지 못하오매 대살치 못하옵고 주야 통곡으로 무정세월을 허송하오며 낭군의 뒤를 따르지 못하옵은 양값음의 뜻이라.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헤아려도 소용이 없더니 하늘과 신령이 도와 오늘날 가부(家夫)의 원수를 갚게 되옵기는 명천(明天)이 감동하사 일월(日月) 갈사온 수의사또님을 만나와 소녀의 원한을 풀어 주옵시니 성덕을 의논할진대 하해(河海)가 깊지 않삽고 태산이 무겁지 아니하오니 소녀 비록 미천하온 계집이온들 사또님 큰 은혜를 골수에 새겼삽거늘 잠을 자며 꿈을 꾸는 동안 만분지일이나 갚사오리까? 옳드려 원하옵건대 사또님은 큰 복을 누리옵소서.”

하고, 비둘기 간을 가지고 지아비 산소에 이르러 그 간을 묘앞에 벌여 놓고 제문 지어 제사할새, 그 제문에 하였으되,

“유세차 경진(庚辰) 십이월 갑자 초나흘 정음가처(淨音家妻) 감소고우(敢昭告于)* 현벽 가군(家君) 웅작부군(雄鵠府君) 전생에 어찌 죄가 있어 세상에 나와 십 세 전에 부모를 여의고 십분 애통하다가 새 집을 지은 후에 백년해로하자 하였더니 희년 칠십 살다가 처자 동생 모여 앉고 제명을 살고 편안히 자리에 누워 죽을지라도 쏠다커든 남의 손에 죽단 말까? 의외에 명천(明天)이 감동하사 어사를 만나 가부의 원수를 갚사오니 어찌 은혜가 막중하지 아니리이꼬?”

축문을 마치고 일장통곡하니 산천초목이 다 설워하는 듯하더라. 짧은 탄식 긴 한숨으로 세월을 보내더니, 하루는 몸이 혼미하여 침구에 의지하여 잠깐 졸더니 이윽고 까치 들어와 앉으며 하는 말이,

“그동안 고생이 어떠하더뇨? 나는 황천(黃泉)에 돌아가 부모를 모시고 잘 있으니 뒷날에 만나자.”

하고, 잠깐 배합하였더니 과연 잉태하여 알을 까니 일남 일녀라. 손안에 있는 보석 구슬같이 귀히 길러 공문거족(公門巨族)으로 혼인을 하여 재미를 보니 가부(家夫)의 생각이 더욱 비감하더라.

— 작자 미상, 「까치전」

*대살: 살인자를 사형에 처함.

*오형: 죄인을 다스리던 다섯 가지 형벌. 태형(答刑)·장형(杖刑)·도형(徒刑)·유형(流刑)·사형(死刑).

*계문: 조선 시대에, 신하가 글로 임금에게 아뢰던 일.

*감소고우: 감히 밝혀 아뢰. 흔히 제문(祭文)이나 축문(祝文)에서 신(神)에게 고하려고 쓰는 말.

(나) 인화 남자가 이르되,

“그대네는 다투지 말라. 나도 잠깐 공을 말하리라. 미누비 세

누비 놀로 하여 저가락같이 고우며, 혼술이 나곤 아니면 어찌 풀로 붙인 듯이 고우리오. 침재(針才) 용속(庸俗)한 자가 들락 날락 바르지 못한 것도 나의 손바닥을 한번 씻으면 잘못된 흔적이 감추어져 세요의 공이 나로 인하여 광채 나느니라.”

울 낭자 크나큰 입을 벌리고 너털웃음으로 이르되,
 “인화야, 너와 나는 소임이 같다. 그러나 인화는 침선뿐이라. 나는 천만 가지 의복에 아니 참여하는 곳이 없고, 가증한 여자 들은 하루 할 일도 열흘이나 구기여 살이 주역주역한 것을 나의 광둔(廣臀)으로 한번 스치면 굵은 살 가는 살 날날이 퍼지며 제도와 모양이 고와지고 더욱 하절(夏節)을 만나면 소임이 다사하여 일일도 한가하지 못한지라. 의복이 나곤 아니면 어찌 고우며 더욱 빨래하는 여자들이 게을러 풀 먹여 넣어 두고 잠만 자면 부딪쳐 말린 것을 나의 광둔 아니면 어찌 고우며, 세상 남녀 어찌 반반한 것을 입으리오. 이리므로 작의공(作衣功)이 내 제일이 되나니라.”

규중 부인이 이르되,
 “칠우의 공으로 의복을 다스리나 그 공이 사람의 쓰기에 있나니 어찌 칠우의 공이라 하리오.”

하고 말을 마침에 칠우를 밀치고 베개를 돋우고 잠을 깊이 드니 척 부인이 탄식하고 이르되,

“매야할사 사람이요 공 모르는 것은 여자로다. 의복 마를 제는 먼저 찾고 일워 내면 자기 공이라 하고, 게으른 중 잠 깨우는 막대는 나곤 아니면 못 칠 줄로 알고 내 허리 부러짐도 모르니 어찌 야속하고 노엽지 아니하리오.”

교두 각시 이어 가로되,
 “그대 말이 가하다. 옷 말라 자를 때는 나 아니면 못 하련마는 드나니 아니 드나니 하고 내어 던지며 양각을 각각 잡아 흔들 제는 불쾌하고 노엽기 어찌 측량하리오. 세요 각시 잠깐이나 쉬랴 하고 달아나면 매양 내 탓만 여겨 내게 트집하니, 마치 내가 감춘 듯이 문고리에 거꾸로 달아 놓고 좌우로 고면하며 앞뒤로 시험하여 언어 내기 몇 번인 줄 알리오. 그 공을 모르니 어찌 애원하지 않으리오.”

세요 각시 한숨짓고 이르되,

[B] “너는커니와 내 일찍 무슨 일 사람의 손에 보채이며 요악지성(妖惡之聲)을 듣는고, 각골통한(刻骨痛恨)하며, 더욱 나의 약한 허리 휘두르며 날랜 부리 두루혀 힘껏 침선을 돕는 줄은 모르고 마음 맞지 않으면 나의 허리를 부러뜨려 화로에 넣으니 어찌 통원하지 않으리오. 사람과는 극한 원수라. 갇을 길 없어 이따금 손톱 밑을 찢러 피를 내어 한을 풀면 조금 시원하나, 간혹한 감토 할미 밀어 만류하니 더욱 애달프고 못 견디리로다.”

인화가 눈물지어 이르되,
 “그대는 데아라 아야라 하는도다. 나는 무슨 죄로 포락지형(炮烙之刑)을 입어 붉은 가운데 낮을 지지며 굵은 것 깨치기는 나

를 다 시키니 삶고 괴롭기 측량하지 못할레라.”
 울 낭자 근심하며 왈,

“그대와 소임이 같고 욕되기 한가지라. 제 옷을 문지르고 먹을 잡아 몹시 흔들며 우겨 누르니, 황천(黃泉)이 덮치는 듯 심신이 아득하여 나의 목이 달아날 적이 몇 번이나 한 줄 알리오.”

칠우 이렇듯 담론하며 회포를 이르더니 자던 부인이 문득 깨쳐 칠우에게 왈,

“칠우는 내 허물을 그대로 하느냐.”
 감토 할미 머리를 조아리며 왈,

“젊은것들이 망령되어 생각이 없는지라 죽하지 못하리로다. 저희 등이 재주 있으나 공이 많음을 자랑하여 원언(怨言)을 지으니 마땅히 곤장을 칠 만하되, 평일 깊은 정과 저희 조그만 공을 생각하여 용서하심이 옳을까 하나이다.”

부인 답 왈,
 “할미 말을 좇아 물시(勿施)하리니, 내 손부리 성함이 할미 공이라. 꺾어 차고 다니며 은혜를 잊지 아니하리니, 비단 주머니를 지어 그 가운데 넣어 몸에 지녀 서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니, 할미는 머리를 조아려 사례하고 칠우는 부끄러워하며 물러나니라.

— 작자 미상, 「규중칠우쟁론기」

22

▶ 23051-0217

(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감영에서 보낸 회답 문서에는 암까지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는 내용이 있었다.
- ② 어사는 까치의 죽음을 조사하기 위해 염탐을 하다가 할미새 집에 오게 되었다.
- ③ 어사는 법전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비둘기를 처벌하였다.
- ④ 어사는 책방 구진이 관가에 매인 존재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였다고 생각했다.
- ⑤ 암까지는 죽은 남편이 등장하는 꿈을 꾸 다음 아들딸을 낳았다.

23

▶ 23051-0218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까치전」은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을 통해 탐관오리의 악행과 부패한 사회상을 풍자한 작품이고, 「규중칠우쟁론기」는 규방에서 사용하는 소재들에 빗대어 자신의 공치사만 늘어놓는 세태를 풍자한 작품이다. 두 작품 모두 말하고자 하는 바를 그대로 드러내지 않고 다른 것에 빗대어 설명하는 가탁(假託)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가탁을 활용한 서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인간 세태의 다양한 모습을 비판하고 경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과정에서 가탁의 대상은 특정 시대적 상황의 인물을 상징하는 경우가 있으며 다른 대상과 서로 대비되는 성격을 이루어 선악의 대비가 뚜렷한 경우도 있다.

- ① (가)에서 진실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 군수는 무능한 관리를 빗댄 것이군.
- ② (가)에서 책방 구진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뇌물을 받은 것은 부패한 사회상을 보여 주는군.
- ③ (가)에서는 송사가 공정하게 진행되지 않는 세태를, 비둘기가 뇌물을 써서 풀려난 것에 빗댄 것이군.
- ④ (나)에서 울 낭자가 자신이 인화보다 소임이 많다고 자랑하는 것은 인간 세태의 선악의 대립을 보여 주는 것이군.
- ⑤ (나)에서 감토 할미가 규중 부인에게 용서를 청하는 것은 연륜에 맞게 처신을 하는 모습을 빗댄 장면이군.

24

▶ 23051-0219

<보기>를 참고할 때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 ① Ⓐ에서 최종 판결을 내린 존재가 Ⓑ에서는 송사의 증언을 하고 있다.
- ② Ⓐ에서 송사 결과에 만족한 존재가 Ⓑ에서는 송사의 결과에 반발하고 있다.
- ③ Ⓐ에서 거짓 증언을 한 존재가 Ⓑ에서는 송사의 결과를 인정하고 있다.
- ④ Ⓐ에서 패배한 존재가 Ⓑ에서는 천상계의 절대자로부터 송사에 관한 도움을 받고 있다.
- ⑤ Ⓐ에서 송사 결과에 만족하지 못한 존재가 Ⓑ에서는 판결이 내려지는 데 방해를 하고 있다.

25

▶ 23051-0220

(나)의 등장인물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인화 낭자는 자신의 도움으로 인해 다른 대상의 장점이 부각된다고 생각하고 있어.
- ② 척 부인은 자신의 고통을 제대로 알아주지 않는 대상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어.
- ③ 교두 각시는 자신을 대하는 다른 대상의 태도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며 하소연을 하고 있어.
- ④ 울 낭자는 자신이 고통을 겪었던 과거 상황을 이야기하며 상황을 개선할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 ⑤ 규중 부인은 자신에게 도움을 준 대상에 대한 고마움을 드러내며 자신의 계획을 말하고 있어.

실전 모의고사 1회
실전 모의고사 2회
실전 모의고사 3회
실전 모의고사 4회
실전 모의고사 5회

26

▶ 23051-0221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신의 판단에 대해 후회를 하며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다.
- ②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하며 상대방의 불합리함을 비판하고 있다.
- ③ 다른 대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며 그 대상과의 관계 개선을 원하고 있다.
- ④ 상대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드러내며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기대하고 있다.
- ⑤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관을 드러내며 상대방이 겪는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27

▶ 23051-0222

〈보기〉는 **세요 각시**를 소재로 한 고전 수필이다. [B]와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아깝다 바늘이여, 어여쁘다 바늘이여, 너는 미묘한 품질과 특별한 재치를 가졌으니, 물중(物中)의 명물(名物)이요, 군세고 곧기는 만고(萬古)의 충절(忠節)이라. 추호(秋毫) 같은 부리는 말하는 듯하고, 뚜렷한 귀는 소리를 듣는 듯한지라. 능라(綾羅)와 비단에 난봉(鸞鳳)과 공작을 수놓을 제, 그 민첩하고 신기함은 귀신이 돕는 듯하니, 어찌 인력(人力)이 미칠 바리오. (중략)

금년 시월 초십일 술시(戌時)에 희미한 등잔 아래서, 관대 깃을 달다가, 무심중간(無心中間)에 자끈동 부러지니 깜짝 놀라와라. 아야 아야, 바늘이여, 두 동강이 났구나. 정신이 아득하고 혼백(魂魄)이 산란하여 마음을 뺏아 내는 듯, 두골을 깨쳐 내는 듯, 이속도록 기가 막히고 혼이 나갔다가 겨우 정신을 차려, 만져 보고 이어 본들 속절없고 하릴없다.

- 작자 미상, 「조침문」

*능라: 두꺼운 비단과 얇은 비단.

*난봉: 난조와 봉황을 아울러 이르는 말.

- ① 〈보기〉와 달리 [B]에는 대상에 대한 예찬적 인식이 나타나 있다.
- ② 〈보기〉와 달리 [B]에는 다른 존재와 갈등을 겪는 상황에 대한 대상의 부정적 반응이 드러나 있다.
- ③ [B]와 달리 〈보기〉에는 자신에게 가해지는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대상의 노력 과정이 나타나 있다.
- ④ [B]와 〈보기〉에는 모두 대상이 훼손된 상황에 대한 서술자의 논평이 나타나 있다.
- ⑤ [B]와 〈보기〉는 모두 대상에 인격을 부여하여 대상이 겪는 내적 갈등을 부각하고 있다.

[28~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당당한 문화인인 아들은 흠투성이인 김 영감을 ‘내 아버지로라’고 내세우기조차 꺼려 했다. 이러한 아버지를 가졌다는 것은 자기의 큰 치욕이라고까지 생각해 온 터다. 결혼을 하면서도 자기 아버지를 칭하지 않은 것도 그 자신은 친구나 동료들한테 달리 변명을 했겠지마는 기실 자기 아버지의 그 흠투성이 꼴을 보고 싶지 않다는 허영에서였다. 김 영감만 해도 이런 눈치를 못챌 리는 없었다. 집안에서고 동리에서 왜 며느리 보는 데 안 가느냐고 해도,

“아, 그 잘난 놈 잔치에 못난 애비가 가? 땀풀 콧주식이 아들 놈처럼 저 애빌 보구 누구냐니까 ‘우리 집 머슴’ 하고 대답하더라는데 그런 놈들이 애빌 보구 행랑아범이라고 하지 말란 법이 있단가?”

이렇게 격분을 했었다. 또 사실 그때의 수택으로서는 늑중 그렇게 대답했을 것이었다. 그러기가 싫으니까 차라리 못 오게 한 것이었다. 이런 아들이 지금 도시에는 얼마나 많을 건고? ……

“사람이란 흠내를 맡아야 하느니라. 대처(도회) 사람들이 암만 고량진미로 음식을 만든대도 시골 음식처럼 구수한 맛이 없느니라. 마찬가지야. 사람이란 흠내도 맡고 된장 맛도 나고 해야 구수우한 맛이 나는 게지. 음식이나 사람이나 대처 사람들이 맑구 정오(경우)야 밝지! 하지만 ㉠ 사람이란 정오만 가지고 산다드냐! 일테면 말이다. 내가 네 발등을 잘못해 밟았다고 치자꾸나. 그러면 넌 발끈할 게다. 하지만 우리 시골 사람들은 잘못해 밟았나 보다 하군 그만이거든. 정오로 친다면야 남의 발을 밟은 사람이 글치. 그래, 이 많은 인총에 정오만 가지고 살려구 들어?”

수택이가 중학교를 다닐 때 고향에 돌아온 것을 붙잡고 김 영감은 이렇게 자기의 지론을 펴던 것이다. 그때만 해도 도회 물을 먹은 아들은 물론 코웃음을 쳤었다.

몇 행가 후다. 음력 과세를 한다고 고향에 내려온 일이 있었다. 이십 년래의 흑한이니, 삼십 년래의 추위니 날마다 신문이 떠들어 댄 때였다. 그는 걸으로는 하도 오래간만이니 집에 와서 과세를 한다고 꾸짖지만 기실은 근방 읍에까지 출장이 있어서 온 김에 들른 것이었다.

그날 밤 수택의 집에는 도적이 들었다. 벽에서 나는 황토 냄새와 그야말로 된장 내처럼 퀴퀴한 냄새로 잠을 못 이루고 있을 때 울안에서 발소리가 난다. 조금 있더니 누군지 밖에서,

“아무것도 없으니 나오! 나오.”

하는 애원 소리가 들린다. 아버지의 음성이었다.

수택은 문구멍으로 가만히 내다봤다. 도적이 분명하다. 밖에서는 나오라고 하나 나갈 길을 막아선지라 어쩔 줄을 모르는 모양이었다. 황당해한 도적은 급기야 애원을 하기 시작했다.

“나갈 길을 좀 틱워 주서유!”

이때 그는 벌써 부엌을 돌아서 울안에 와 있었다. 손에 흥기 하나 들지 않은 줌도적임을 발견한 그는 ‘억’ 소리와 함께 덮치어 잡아넣었다. 그는 학생 시절에 배운 유도로 도적을 메다치고는 제 허리끈으로 두 팔을 꽂꽂 묶었다.

온 집안이 깨고 뒤미처 김 영감도 달려들었다. 영감의 손에는 지렛작대기가 쥐여 있었다. 도적놈도 그랬고 수택이도 그랬고 온 집안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했다. 몽둥이에 맞을 사람은 그 도적이리라고—

그러나 아니었다. 지렛작대기에 아랫종아리를 얻어맞은 것은 아들이었다. 수택 자신도 그랬고, 도적도 그랬을 게고 집안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었다. — 이것은 영감이 흥분한 나머지 잘못 때린 것이라고 —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수택은 얼른 피했었다. 피하고는 안심을 했던 것이다.

[A] 그러나 아니었다. 김 노인의 작대기는 재차 아들에게로 향하고 겨누어졌다.

“이 몰인정한 녀석. 내 물건 도적 안 맞았으면 그만이지 사람은 왜 친단 말이나, 응? 이 치운 겨울에 도적질하는 사람은 여복해 하는 줄 아냐? 우리네 시골 사람은 그런 법이 없다!”

도적은 울고 있었다. 도적의 등에는 쌀 한 말이 짊어지워졌다.

이튿날 수택은 지루할 만큼 긴 설교를 듣지 않으면 안 되었다.

“사람이란 법만 가지구 사는 게 아니니라. 법만 가지고 산다면야 오늘날처럼 법이 밝은 세상이 또 어디 있겠니. 법으루만 산다면야 법에 안 걸릴 놈이 또 어딴단 말이나. 넌 법에 안 걸리는 일만 하고 사는 상심지? 그런 게 아니니라. 올 갈에두 면소 뒤 과수원에서 사과 하나 따 먹다가 징역을 갔느니라. 남의 것을 따는 건 나쁘지. 나쁘기야 하지만 그걸 징역 갈 쥘 아니지. 어젯밤 일을 본다면 넌두네 과밭의 실괄 따면 징역 보낼 사람이 아니냐. 너 어제 그걸 누구 줄 아냐? 모르는 체하긴 했다만 내 저 아버지 잘 안다. 알구 보면 다 알 만한 사람야. 시골서야 서로 모르는 사람이 어딴겠나. 모두 한집안 식구거든…… 사람 사는 이치가 다 그런 계란 말야!”

[중략 부분 줄거리] 신문 기자의 반복된 일상에 염증을 느껴 오던 수택은 흠냄새에 대한 막연한 동경을 가지고 아내와 함께 귀향을 한다.

‘이렇게 보잘것없는 자연이었던가?’

속기나 한 것처럼 허무해서 우두머니 섰으려니까 김 영감이 꼴지개를 지고 나온다.

“엿다, 이걸 네 거다. 이런 데 와 살자면 모두 배워야지!”

숫돌물이 뿌옇게 그대로 말라붙은 낫이다. 수택은 아무 말 없

이 받아 들고 따라가다가 풍경 말을 했다.

“뭐? 경치? 애, 넌 ㉠ 경치만 먹구 살 작정이야? 여기 경치가 어때? 산이 없냐 물이 없냐. 숲이 있겠다, 십 리만 나가면 수리 조합 보가 있겠다…….”

“볼 게 뭐 있어요?”

그것이 자기 아버지의 탓이거나 한 것처럼 통명스럽게 사방을 훑어보려니까,

“그래, 여기 경치가 서울만 못하단 말이나.”

하기가 무섭게 지계를 벗겨 내던지고는 상스러울 만큼 수택의 목덜미를 잡아 가랑이 속에다 집어넣는다.

“자, 봐라! 먼 산이 보이고 저 숲이며 저 물이며, 이만하면 되잖았느냐.”

수택은 아버지가 너무 흥분이 돼서 서두는 통에 어리둥절하고만 있었다. 엄한 독선생을 만난 때처럼 부자유했다.

“그래, 보렴. 세상이란 모두 거꾸루 봐야 하는 게다. 경치 경치 하지만 제대루 볼 땐 보잘것없던 것이 가랑이 밑으로 보니까 희한하잖으나. 사람 산다는 것두 그러니라. 너들 눈엔 여기 사람들 사는 게 우습지? 허지만 여기 사람들은 상팔자야. 더 촌에 들어가 보면 조밥이구 콩보리밥이구 간에 하루 한 끼 제대루 못 얻어먹는다. 그런 걸 내려다보면 되나. 거꾸루 봐야지! 너들 눈엔 우리가 이러구 사는 게 개돼지같이 보겠지만서도 알구 보면 신선야, 신선. 너들 월급쟁이에다 대? 그 연기만 자옥한 돌판에서 사는 서울 사람들에다 대? 보렴, 네. 여기 사람들이 어떻게? 너들처럼 얼굴이 새하얗진 않지? 그게 신선이 아니구 뭐냐?”

이 급조(急造)된 ‘젊은 신선’은 그날 해가 지도록 끌려다니며 역새에서 서뻘서뻘 손을 베며 풀을 베었다. 하면 되리라고 생각한 낫질이 그 좁은 원고지 칸에 글자를 써넣기보다 이렇게 어려우리라고 생각지 못했던 것이었다.

아침에는 새벽같이 끌리어 일어났다. 먼동이 트기가 무섭게 ‘어험’ 소리가 문턱에 난다. 나가 보면 김 영감의 삼태기에는 벌써 쇠똥이 그득하게 담겨져 있었다.

“네 봐라. 이놈이 줄 땐 허리가 아파도 눈에다 너두면 벼가 그저 시키메지는구나. 그까짓 암모니아에다 대? 그걸 한 가마에 오원씩 주고 사다 넣느니 이놈을 며칠 주웠으면 돈 벌구 거름 생기구…… 자, 어서 차림 차려라. 네 맥두 깨우구. 해가 똥구멍까지 치밀었는데 몸이 근지러워 어떻게 질편히 뉘단 말이나.”

수택이 부처는 처음에는 허영이었다. 대학을 마치고 세숫물까지 떠다 바치라던 수택이와 처가 매일처럼 그 드센 일을 한다 해서 동리에서 한 화젯거리가 될 것을 상상만 해도 유쾌한 일이었다. 그리고 사실 수택이가 현 양복 조각을 입고 발을 맨다거나 삼을 짚고 물꼬를 보러 간다거나 비틀비틀 꼴지계를 지고 개천을 건너올 때마다 동리 사람들은 경이의 눈으로 그를 맞았던 것이었다. 그의 아내가 물동이를 이고 비탈을 내려가다가 발목을 빼끗

해서 동이를 깨 먹었을 때도 그들은 웃는 대신 동정의 눈으로 보아 주었고, 호미를 들고 남편 뒤를 따라나서는 것을 보고는 이웃집 달순이며 앞집 봉년이를 큰일이나 난 듯이 불러다 구경을 시키고 했던 것이다. 그들은 동리 사람들의 이런 경이의 시선을 등 뒤에 느끼며 일을 했다. 이런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심지어의 위안이기도 했다. 지금의 그들에게는 잘하는 것이 자랑도 되지 못하는 것도 부끄럼이 되지 않는 유리한 조건이 있었던 것이다.

“애, 애어마. 너 그렇게 호밀 깊이 묻으면 배추 뿌리에 바람이 들잖겠냐. 요걸 요렇게 다루어 가지고 살짝 흠을 일으키고 이쪽 손으로 풀을 집어내야지. 허, 그래두 그러는구나. 옳지, 옳지.”

이렇게 새 머느리(실상은 현 머느리지만)한테 잔소리를 하는가 하면, 어느새 수택의 등 뒤에 와서 서 있는 것이었다.

“에이끼, 미련한 것! 배추밭 매는 걸 밥 먹듯 하는구나. 밥 한술 떠 넣고 반찬 한 가지 집어 먹구— 그 식이 아니냐. 아, 이쪽으론 흠을 이렇게 일으키면서 왼손으론 풀을 집어내야지. 그걸 어떻게 따루따루…….”

“아직 손에 안 익어 그렇습니다, 아버지.”

수택은 이렇게 변명을 하는 도리밖에 없었다.

밤에는 거적 한 닢이 등에 지워진다. 물꼬를 지키라는 것이었다.

“네게 준 건 난 모른다. 농사 다 지어 논 게니까 걷음새까지 네 손으로 해서 꼭꼭 챙겨 봐야 삼동을 나지.”

동구를 벗어 나오니 약간 일그러진 달이 아카시아 숲에 걸렸다. 말복도 지난 지 오래건만 아직도 바람은 무더웠다. 천변에는 여기저기 동리 부인네들이 보리밥 먹기에 흘린 땀을 들이고 아이들은 조약돌들을 또닥또닥 두드린다. 실개천 물소리도 제법 여물다. 풀 속에서 반딧불이 반짝이고 개구리 소리가 으수이 어울리는 것이 역시 아직도 여름밤이다.

수택은 빨래 자리로 놓은 돌 위에 쪼그리고 앉아서 양치를 쳤다. 아침저녁으로 반죽한 치분으로만 닦아 온 이가 물로만 웅얼 웅얼해 뱉어도 입안이 환한 것이 이상할 정도다. 그는 삼을 질질 끌고 징검다리를 건너 논길로 들어섰다. 광대 줄 타듯 하던 논두렁도 어느새 평지처럼 평탄해진 것 같고, 아랫종아리에 차이는 이슬이 생기 있는 감촉을 준다. 아스팔트를 거닐다가 상점에서 뿌린 물이 한 방울만 튀어도 시비를 걸던 일이 마치 옛날 꿈 같았다.

“이만하면 나도 농촌 제일과는 마친 셈인가?”

— 이무영, 「제과 제장」

*인출: 한곳에 많이 모인 사람의 무리.

*과세: 설을 씌.

28

▶ 23051-0223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수택은 고향을 떠난 후 오랜만에 음력 과세를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흑한의 날씨를 무릅쓰고 고향 집에 들른다.
- ② 김 영감은 세상을 거꾸로 보면 농촌 사람들이 도시 월급쟁이보다 나은 생활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
- ③ 수택은 손을 다쳐 가면서 낫질을 하다가 자신이 그간 해 온 글쓰기보다 농사일이 힘들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 ④ 수택은 농사일에 어설피다고 핀잔을 주는 김 노인에게 일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변명을 한다.
- ⑤ 수택은 치분으로 양치를 해 오다가 물로만 양치를 해도 입안의 느낌이 좋아진다는 것을 알게 된다.

29

▶ 23051-0224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 ① ㉠을 통해 도시인들이 중시하는 삶의 원칙에 대해 옹호하고 있다.
- ② ㉡을 통해 도시인의 면모에서 벗어난 수택을 이해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 ③ ㉠은 수택의 태도에 대한 김 영감의 호감에서, ㉡은 수택의 태도에 대한 김 영감의 반감에서 비롯된다.
- ④ ㉠에 대해 김 노인은 사례를 들어 정당성을 입증하려 하고, ㉡에 대해 김 노인은 예를 들어 수택을 비판한다.
- ⑤ ㉠과 ㉡으로 인해 수택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반성적 태도를 가지게 된다.

30

▶ 23051-0225

[A]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공간에 대한 인물의 심리를 감각적 표현을 통해 나타내고 있다.
- ② 의도를 숨기려는 인물들이 대화를 통해 서로의 의도를 확인하고 있다.
- ③ 대결하는 상대가 달라짐에 따라 인물 간의 대립 관계가 변화하는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 ④ 경험을 통해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상대방을 비판하는 특정 인물의 태도를 부각하고 있다.
- ⑤ 인물들이 예상하고 있는 사태를 미리 제시하여, 이와 상반된 결과의 의외성을 드러내고 있다.

31

▶ 23051-0226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제1과 제1장」은 도시인의 귀농 과정을 통해 서사를 전개하고 있다. 귀농은 이질적인 상황에 대처하는 적응의 문제를 수반한다. 이 작품에서 귀농은 도시인과 농민 사이의 가치관 차이로 인해 발생한 거부감을 없앴으로써, 도시인이 농촌 문화에 흡수되는 양상으로 귀결된다. 흡수는 기존의 생활 방식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도시인이 기존의 생활 방식을 온전히 버리고 새로운 생활 방식에 동화되었을 때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정체성의 변화를 모색하는 도시인에게 반감을 드러내지 않는 농민들의 태도는, 도시인이 농촌 생활에 정착하는 데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① 수택이 귀농하기 전 결혼식을 올리면서도 아버지를 청하지 않고 김 영감 역시 아들을 보러 가지 않은 것은, 두 인물 사이의 가치관 차이에서 발생한 거부감 때문이겠군.
- ② 김 영감이 농촌에서의 삶이 신선의 삶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수택에게 도시인의 태도에서 벗어나 농촌에서의 삶에 동화될 것을 요구하는 것이겠군.
- ③ 수택이 흰 양복 조각을 입고 밭을 매는 것에 대해 동리 사람들이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본 것은, 수택이 새로운 생활 방식으로 농촌 문화에 흡수되었음을 드러내겠군.
- ④ 농사일에 서툰 것이 수택에게 유리한 조건이 되었던 것은, 반감을 드러내지 않는 농민들의 태도가 수택이 농촌 생활에 정착하는 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 주겠군.
- ⑤ 수택이 아스팔트에서의 물방울과 논두렁에서의 이슬에 대한 감촉을 다르게 인식하는 것은, 수택이 도시의 생활 방식에서 벗어나 농촌의 생활 방식에 적응해 가고 있음을 나타내겠군.

[32~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노주인(老主人)의 장벽(腸壁)에
무시(無時)로 인동(忍冬) 삼긴 물이 나린다.

자작나무 덩그럭 불이
도로 피어 붉고,

구석에 그늘지어
무가 순 돌아 파릇하고,

흙냄새 훈훈히 김도 서리다가
바깥 풍설(風雪) 소리에 잠착하다*.

산중(山中)에 책력(冊曆)*도 없이
삼동(三冬)이 하이양다.

- 정지용, 「인동차(忍冬茶)」

- *무시로: 특별히 정한 때가 없이 아무 때나.
- *잠착하다: 한 가지 일에만 정신을 골몰하게 쓰다.
- *책력: 달력.

(나) 기다리지 않아도 오고

기다림마저 잃었을 때에도 너는 온다.
어디 빨발 구석이거나
썩은 물웅덩이 같은 데를 기웃거리다가
한눈 좀 팔고, 싸움도 한판 하고,
지쳐 나자빠져 있다가
다급한 사연 들고 달려간 **바람**이
흔들어 깨우면
눈 부비며 너는 더디게 온다.
더디게 더디게 마침내 올 것이 온다.
너를 보면 눈부셔
일어나 맞이할 수가 없다.
입을 열어 외치지만 소리는 굳어
나는 아무것도 미리 알릴 수가 없다.
가까스로 두 팔을 벌려 껴안아 보는
너, 먼 데서 이기고 돌아온 사람아.

- 이성부, 「봄」

32

▶ 23051-0227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1연에서는 차를 마시는 행위를 신체 내부가 보이는 듯한 표현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 ② 2연과 3연은 색채 이미지를 통해 생명력 넘치는 분위기를 형상화하고 있다.
- ③ 4연에서는 외부 공간과 내부 공간을 대비하여 두 공간의 특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④ 4연에서는 계절적 배경을 드러내면서 화자가 이에 집중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 ⑤ 5연에서는 공간의 대비를 통해 탈속적 이미지를 형상화하고 있다.

33

▶ 23051-0228

(나)의 **바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화자와 화자가 기다리는 대상 간의 매개체이다.
- ② 화자가 지닌 나약함에 대해 준엄한 깨달음을 주는 대상이다.
- ③ 화자가 기다리는 대상에 대해 품은 의구심을 풀어내는 존재이다.
- ④ 화자가 기다리는 대상에 대해 품은 부정적인 생각을 정확히는 존재이다.
- ⑤ 화자가 바라는 이상적 상황과 회피하고픈 현실을 모두 보여 주는 대상이다.

34

▶ 23051-0229

<보기>의 ㉠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선생님: 시에서 화자는 자연의 섭리를 자신이 처한 상황과 연결 지어 노래하기도 합니다. 계절의 순환과 같은 것은 자연의 섭리이기에 필연적일 수 있고, 필연적이기에 기다림 속에서도 확신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인동’과 같은 표현은 ‘겨울을 이겨 낸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매서운 추위의 겨울이 만물의 생명을 억누르고 있는 상황에서의 의지적 태도를 드러낸 것입니다. 이처럼 겨울이 지나 따뜻한 봄이 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생명력이 만발하는 모습들을 기대하며 의지적 자세로 봄을 기다리는 태도는 다양한 작품에서 나타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을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을 발표해 볼까요?

- ① (가)에서는 ‘삼동’이라는, 매서운 추위를 지닌 계절적 배경을 통해 화자가 녹록지 않은 현실에 놓여 있음을 드러내고 있어요.
- ② (가)에서는 ‘자작나무 덩그럭 불’이 ‘도로’ 일어나는 것을 통해 추운 겨울에도 이어지는 생명력을 형상화하면서 상황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어요.
- ③ (가)에서는 ‘인동 삼킨 물’을 마시며 계절을 건디는 행위와 ‘순 돌아 파릇’한 이미지, ‘흙냄새’를 함께 제시한 것에서 필연적인 자연의 섭리를 드러내고 있어요.
- ④ (나)에는 ‘기다리지 않아도’ 올 것이라고 믿는 ‘봄’이라는 계절에 대한 확신적 태도가 담겨 있어요.
- ⑤ (나)에서는 ‘더디게 더디게’ 오는 ‘봄’을 보고 외치지만 ‘소리’가 ‘굳’는 것에서 아직 만물의 생명력이 억눌려 있는 상황을 드러내고 있어요.

35

▶ 23052-0230

㉠~㉣에 공통으로 적용된 음운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 첫-+-고 → [질:꼬]
- ㉡ 읊-+-지 → [읍찌]
- ㉢ 빛+만 → [빈만]

- ① 예사소리가 그와 같은 조음 위치의 된소리로 바뀌는 음운 변동이다.
- ② 용언 어간 뒤에 어미가 결합하는 경우에만 일어나는 음운 변동이다.
- ③ 종성에서 발음되는 자음이 7가지로 제한되어 일어나는 음운 변동이다.
- ④ 음절 초성에 올 수 있는 자음에 적용되는 제약 때문에 일어나는 음운 변동이다.
- ⑤ 자음과 자음이 만나 한 자음이 다른 자음과 같거나 비슷하게 바뀌는 음운 변동이다.

36

▶ 23052-0231

<보기>는 단어의 의미에 대한 학습 활동의 일부이다.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다의어에는 여러 개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각각의 의미에 대응하는 유의어가 있는 경우, 한 다의어에는 여러 개의 유의어가 존재하여 문맥에 맞게 바꾸어 쓸 수 있다. 각 용례의 '얼굴'과 바꾸어 쓸 수 있는 단어를 써 보자.

다의어	용례	유의어
얼굴	명수는 심각한 <u>얼굴</u> 로 서류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
	그는 내가 부르자 창문을 열고 <u>얼굴</u> 을 드러냈다.	㉡
	그는 무용계의 새 <u>얼굴</u> 로 혜성처럼 등장했다.	㉢
	내가 무슨 <u>얼굴</u> 로 그 사람을 다시 찾아갈 수 있겠느냐?	㉣
	김동호 선수는 작년에 놀라운 활약을 하여 그 팀의 <u>얼굴</u> 이 되었다.	㉤

- ① ㉠: 표정 ② ㉡: 모습 ③ ㉢: 인물
- ④ ㉣: 면목 ⑤ ㉤: 위신

37

▶ 23052-0232

〈보기 1〉은 문장의 종결 표현과 상대 높임에 대한 설명이다. 이에 따라 〈보기 2〉를 설명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1

문장의 종결 표현은 크게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감탄문으로 나뉜다. 일반적으로 문장의 종결 표현을 결정짓는 것은 종결 어미인데, 종결 어미는 문장의 종결 표현을 결정짓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등급의 상대 높임도 결정짓는다.

보기 2

- ㉠ 거기 누구요?
- ㉡ 식사하고 야구 구경 갑시다.
- ㉢ 이보게, 여기에서 쉬어 가세.
- ㉣ 정말 여기는 경치가 눈부시게 아름답구나.
- ㉤ 여보, 오늘은 늦을 것 같으니 먼저 자구려.

- ① ㉠: 종결 어미 '-요'에 의한 해요체 의문문이다.
- ② ㉡: 종결 어미 '-십시오'에 의한 하십시오체 청유문이다.
- ③ ㉢: 종결 어미 '-세'에 의한 하계체 평서문이다.
- ④ ㉣: 종결 어미 '-구나'에 의한 해체 감탄문이다.
- ⑤ ㉤: 종결 어미 '-구려'에 의한 하오체 명령문이다.

[38~3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우리가 한글을 처음 배울 때 모음을 나타내는 글자로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를 외우곤 한다. 그런데 이 10개만으로는 우리말의 모음을 제대로 쓸 수 없다. ‘개’, ‘애’, ‘계’, ‘예’ 등과 같이 10개 이외의 모음으로 표기되는 많은 단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글 맞춤법에서는 한글 자모 24개 가운데 모음 글자는 10개이고 나머지 모음 글자는 이 10개 중 둘 또는 세 개가 합쳐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어, ‘ㅘ’는 ‘ㅏ’와 ‘ㅑ’가 합쳐진 글자이고, ‘ㅙ’는 ‘ㅓ’, ‘ㅑ’, ‘ㅣ’가 합쳐진 글자인 것이다.

이러한 설명은 훈민정음이 처음 만들어질 당시 모음 글자를 만들었던 원리와 관련이 있다. 훈민정음 제자해에서는 모음의 기본자를 하늘[天]과 땅[地], 사람[人]을 본뜬 ‘ㆍ, ㅡ, ㅣ’로 삼아 기본자를 바탕으로 초출자 ‘ㄱ, ㅋ, ㆁ, ㆁ’를 만들고, 초출자를 바탕으로 재출자 ‘ㄴ, ㄷ, ㄹ’를 만들었다. 이 11자는 훈민정음의 28자 가운데 모음 글자 11개에 해당하고, 이들을 제외한 모음 글자들은 둘 이상의 글자가 합쳐졌다고 보았다. 이렇게 만들어진 11개의 모음 글자 가운데 ‘ㆍ’를 제외하면 우리가 외웠던 10개의 모음 글자가 되는 것이다.

한편 모음을 나타내는 글자의 문제에서 단모음을 표시하는 모음 글자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모음은 발음하는 도중에 입술과 혀의 모양이 고정되어 달라지지 않는 단모음과 혀의 위치나 입술의 모양이 달라지는 이중 모음으로 나뉘는데, 이러한 소리의 특성을 고려하면 단모음은 하나의 글자로 적고, 이중 모음은 둘 또는 세 개의 글자가 합쳐진 글자로 적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세 국어의 단모음 ‘ㅣ, ㅡ, ㅓ, ㅑ, ㅜ, ㅠ, ㅗ, ㅛ, ㅝ’는 모음 기본자와 초출자에 해당하여 모두 하나의 글자로 표기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중 모음 가운데에도 하나의 글자로 표기한 경우가 있었다. 재출자 ‘ㄴ, ㄷ, ㄹ’는 ‘ㅓ, ㅑ, ㅜ, ㅠ’의 앞에 반모음 ‘j’가 각각 더해진 이중 모음을 표기하는 글자이지만 단모음을 표기하는 문자와 같이 11개의 모음 자모에 포함되는 것이다.

현대 국어의 단모음 체계는 중세 국어로부터 상당한 변화를 겪어 중세 국어 단모음에 ‘ㅘ, ㅙ, ㅚ, ㅛ’가 추가되고 ‘ㆍ’가 없어졌다. 현대 국어와 달리, 중세 국어에서 ‘ㅘ, ㅙ, ㅚ, ㅛ’는 모두 반모음 ‘j’가 단모음 뒤에 더해진 이중 모음이었다. 가령, ‘ㅘ’는 단모음 ‘ㅏ’와 그 뒤에 반모음 ‘j’가 더해진 이중 모음이었다. 이 점에서 현대 국어에서 ㉠

실전 모의고사 1회

실전 모의고사 2회

실전 모의고사 3회

실전 모의고사 4회

실전 모의고사 5회

38

▶ 23052-0233

㉗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단모음은 하나의 글자로 표시한다.
- ② 단모음은 두 글자가 합쳐진 글자로 표시한다.
- ③ ‘ㄱ, ㅋ, ㆁ, ㆁ’는 단모음임에도 두 글자가 합쳐진 글자로 표시한다.
- ④ 이중 모음 ‘ㅑ, ㅕ, ㅗ, ㅛ’는 두 글자가 합쳐진 글자로 표시한다.
- ⑤ 이중 모음 ‘ㅕ, ㅗ, ㅛ, ㅑ, ㅕ, ㅗ, ㅛ’는 하나의 글자로 표시한다.

39

▶ 23052-0234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ㄱ’은 ‘ㄱ’, ‘ㄱ’, ‘ㄱ’의 세 개의 글자가 합쳐진 글자이겠군.
- ② 현대 국어의 단모음 수가 중세 국어의 단모음 수보다 많겠군.
- ③ 중세 국어에서는 반모음 ‘j’가 단모음의 뒤에도 올 수 있었겠군.
- ④ 한글 24 자모의 모음 글자 중 여러 글자가 합쳐진 글자는 없겠군.
- ⑤ 훈민정음의 재출자는 반모음 ‘j’가 단모음 앞에 오는 이중 모음을 나타냈겠군.

[40~42] (가)는 학생들이 나는 대화이고, (나)는 (가)를 참고하여 만든 자료이다.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학생 1: 우리 모두가 국어 수업 시간에 발표할 내용이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는 앱 소개하기’인데, 뭘 소개할지 정했어?
 학생 2: 공부에 도움이 되는 앱을 소개하면 어때? 내가 요즘 사용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유용성이 높은 것 같아.
 학생 3: 어떤 앱인데?
 학생 2: 진도 관리랑 시간 관리도 해 주고, 문제 풀 때에 필요한 타이머 기능도 있어. 하나의 앱에 이 기능들이 다 있어서 여러 개를 설치할 필요도 없고 좋아.
 학생 3: 어디 한번 봐.
 학생 1: 아, 나도 사용하고 있는데 편리하더라. 그런데 새로 나온 앱이어서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 다른 친구들에게 소개하면 좋겠다.
 학생 2: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구성하는 게 좋을까?
 학생 1: 일단 앱의 기능을 소개해야지. ㉠ 진도 관리나 시간 관리라는 기본 기능을 소개하는 게 필요해.
 학생 3: 나는 이 앱을 아직 쓰지 않고 있잖아. ㉡ 나처럼 아직 이 앱을 쓰지 않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 앱이 필요한 상황을 안내 해주어야 설치할지 말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
 학생 2: 그래. 그리고 친구들에게 소개하는 내용이니까 격식을 갖춘 말투보다 ㉢ 우리 반 친구들을 직접 호명하며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구성하면 좋겠다. 소개할 때에는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슬라이드를 만들어 활용하면 더 좋을 것 같아.
 학생 1: 좋아. ㉣ 기능을 설명하는 슬라이드의 중간 부분에 사각형을 그리고, 그 안에 앱 사용 방법에 대한 설명 등을 넣어서 이 앱을 어떤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안내하자.
 학생 3: ㉤ 이 앱에 직접 접속할 수 있는 경로를 안내하는 슬라이드를 구성하는 것도 필요하겠어.

(나)

진도 관리, 시간 관리

다른 앱을 써 보았지만
만족하지 못했던 지난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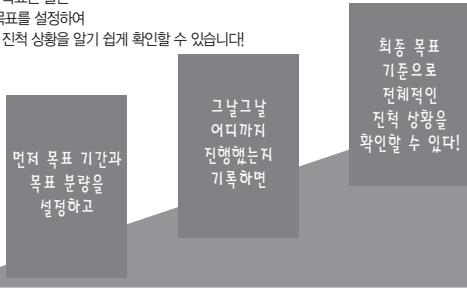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던 중
수많은 앱의 바다에서 찾아낸
꿀 같은 앱 '관리왕'!

관리왕만 있으면 공부왕이 되기 위한 준비는 충분하다!

기능 1: 진도 관리

오늘 내가 어디까지 공부했는지, 내일은 어디까지 공부할지, 시험 범위에 맞춰서 공부하고 있는지... 책에 표시만 해 놓고 있어버리던 과거는 그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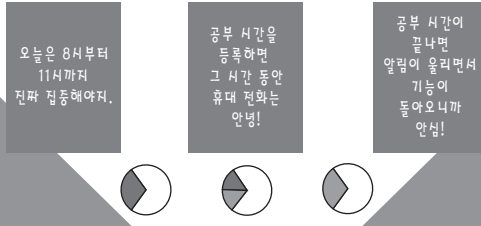
관리왕 앱에서는 교재별 기간별 학습 분량 설정으로
그날의 학습 목표는 물론
주간, 월간 목표를 설정하여
학습 목표와 진척 상황을 알기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능 2: 시간 관리

항상 부족한 나의 의지.
금세 휴대 전화를 열어 친구들과 수다를 떨고 동영상 보는
공부에 방해가 되는 행동은 이제 그만!

관리왕 앱에 그날 공부 일정을 등록해 두면
공부를 하는 시간 동안 휴대 전화의 다른 기능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의지가 약한 우리에게 다소 가혹하지만 좋은 기능!



학습 상황과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우리 모두 원하는 성과를 거두자!



지금 바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40

▶ 23052-0235

(가)의 ㉠~㉣ 중 (나)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41

▶ 23052-0236

(가)를 고려할 때 (나)의 표현 맥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생산자는 자신의 생각을 진솔하게 나타내기 위해 개인의 감정을 전달하기 용이한 매체를 선정했다.
- ② 생산자는 수용자가 유용하게 여길 것으로 판단되는 정보를 제재로 선정하여 발표 내용을 구성했다.
- ③ 생산자는 자신이 정보를 활용하면서 깨닫게 된 가치 있는 경험에 대해 성찰하는 것을 표현 목적으로 설정했다.
- ④ 생산자는 수용자가 정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할 때에 정보가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내용을 주제로 구성했다.
- ⑤ 생산자는 수용자가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에 접근하기 위한 절차와 결과를 명시적으로 보고하는 형식으로 구성했다.

42

▶ 23052-0237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글과 이미지가 복합 양식적으로 결합된 슬라이드를 제시했다.
- ② 같은 슬라이드 내의 문장의 종결 방식을 각각 달리하여 표현했다.
- ③ 제목과 본문의 순서를 나타내는 목차를 별도의 슬라이드로 구성했다.
- ④ 슬라이드에서 제시한 내용과 관련된 앱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QR 코드를 삽입했다.
- ⑤ 기능을 설명하는 슬라이드끼리는 글자의 모양과 크기를 활용하여 통일성을 확보했다.

실전 모의고사 1회

실전 모의고사 2회

실전 모의고사 3회

실전 모의고사 4회

실전 모의고사 5회

[43~45] 다음은 보이는 라디오 방송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진행자: 안녕하세요. ‘시사 토크, 보이는 라디오’ 시간입니다. 스튜디오에 건축 분야 올해의 인물로 선정되신 박○○ 건축가를 모셨는데요. ㉠ 지금 스마트폰 앱이나 누리집으로 접속해서 시청하고 계신 분들, (웃음) 여기 제 옆에 계신 멋진 분, 잘 보이시죠? 벌써 많은 분이 글을 올려 주고 계시네요. 화면 보시면서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건축가: 안녕하세요. 환경과 사람을 생각하는 건축가 박○○입니다. 여러분과 지속 가능한 건축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바람풍: 셔츠 왼쪽에 프린팅된 큰 나무, 시원해 보여요. 이것도 친환경 디자인? ㅎㅎ 지속 가능한 건축, 궁금해집니다~~!

진행자: 바람풍님께서 셔츠에 관심을 보이시네요. 제가 보기도 친환경 디자인 맞습니다. (함께 웃음) 지속 가능한 건축에 대해 물으셨는데, 요즘 ‘지속 가능성’이 사회적 화두죠. 지속 가능한 건축이란 무엇인가요?

건축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미래 세대가 자연환경을 누릴 가능성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건축을 일컫습니다. 환경 파괴와 기후 위기를 최소화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만들어 가는 것이죠.

진행자: 구체적으로 어떤 건축물들이 있을까요? 건물 외벽에 식물을 심는, 그런 커튼 같은 것도 해당되나요?

건축가: 네, 맞습니다. 남향 건물은 여름에 햇빛이 강하게 내리 쬐어 건물 온도가 높아지는데, 외벽의 덩굴 식물과 나무는 온도 상승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죠. 또 가을이 되어 잎이 떨어지면 채광 범위가 늘어나 건물 온도를 따뜻하게 유지해 줍니다. 계절적 현상을 이용해 건축물의 미관과 성능을 동시에 잡은 친환경 건축이죠. 그런데 지속 가능한 건축은 친환경을 고려하는 수준의 개념이 아니고 굉장히 포괄적인 접근을 필요로 합니다. 지속 가능한 건축은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사용 감축, 폐기물 감축, 자연환경 보호, 건물 안팎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위한 건강한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진행자: 우리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건축이군요.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께 대표적인 건축물을 직접 보여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사진 자료는 없을까요?

건축가: ㉡ 아, 그러면 잠깐만요. (스튜디오 밖에 있던 자신의 태블릿 컴퓨터를 가지러 화면에서 사라짐.)

건축학 개론: 앗! 가신 건 아니죠? ^^

진행자: 건축학 개론님, 가신 건 아니고요. (웃음) 제가 갑작스레 요청을 드려서……. 저기 자료 가지고 오시네요. 여러분은 지금 올해의 인물 박○○ 건축가와 만나고 계시니까.

건축가: (돌아와 태블릿 컴퓨터에서 사진을 찾아 보여 주며) 이 사진은 독일의 보봉(Vauban) 마을인데요. 여기 지붕에 태양광 설비, 또 단열성이 높은 3중 창호, 그린 커튼도 보이시죠? 지속 가능한 건축은 화석 연료 대신 재활용이 가능한 재료나 다른 에너지원으로 눈을 돌려 천연자원 고갈을 줄이는 것입니다.

진행자: ㉢ 참, 잠시 안내해 드리면 보이는 라디오로 접속하지 않으신 분들은 스마트폰으로 ‘보봉 마을’을 검색하시면 사진을 보실 수 있습니다.

건축가: 건축물에 사용되는 에너지는 세계에서 생산되는 에너지의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 마을은 효율적인 디자인과 액티브 시스템, 패시브 시스템을 통해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였는데요. 액티브 시스템은 가동부가 있고 유지 관리가 필요한 외부 장치가 있는데, (태블릿 컴퓨터의 사진에서 지붕을 확대하여 보여 주며) 여기 태양광 패널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패시브 시스템은 가동부 없이 운영되는데 낮에 태양의 열에너지를 저장했다가 밤에 열에너지를 서서히 방출하도록 열용량이 큰 벽체를 사용한 것입니다. 이런 액티브 시스템과 패시브 시스템을 동시에 활용하여 효율을 더욱 높인 제로 에너지 건물도 있는데요. 제로 에너지 건물은 건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에너지의 합이 제로가 되는 건물을 말합니다.

진행자: ㉣ 에너지도 고려해야 하지만 건축 재료도 중요하죠? 건축 재료에 특히 관심이 많으신 것으로 아는데 지속 가능한 재료는 어떤 것인가요?

건축가: 맞습니다. 건축 재료는 건물의 탄소 발자국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건축 재료를 고를 때 저는 ‘줄이기, 재사용하기, 재활용하기’를 원칙으로 합니다. 재료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건물의 생애 주기를 파악해야 합니다. 건물의 생애 주기는 재료의 원산지, 생산 방식, 운송, 유지, 폐기 후 처리 과정을 모두 포함합니다. 저는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거나 재활용이 가능한 재생 자원으로 만들어져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는 재료를 찾고 있습니다.

20세기 소년: 경제적인 측면을 무시할 수 없지 않나요? 지속 가능한 건축도 좋지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갈 듯!

건축가: 많은 분이 비용 문제를 지적하시는데요, 20세기 소년님도 이런 문제에 대해 질문 주셨네요. (진행자를 보며) 답변드려도 될까요?

진행자: 예. 저도 궁금합니다.

건축가: 지속 가능한 건축물은 공사비가 높을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건축가와 건축 공학자, 건축주, 그리고 공동체가 지속 가능성에 투자한다는 의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초기 비용은 더 들어갈 수 있지만 건물의 생애 주기 동안 건물을 가동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줄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경제적 측면에서도 이익입니다.

불휘 기쁜 나무: 우아~ 멋진 박○○ 님! 팬입니다~. 건축 학과에 진학하려고 하는데, 지치고 힘든 고3에게 정신 번쩍 드는 말 좀……. :)

진행자: 고3 학생이 글 주셨네요. 후배 건축가가 될 불휘 기쁜 나무 님에게 격려의 말 한마디 해 주시죠.

건축가: (웃으며 손을 흔듦.) 후배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건축가 노면 포스터의 말을 전하고 싶어요. “건축가는 과거에 알고 있던 것을 바탕으로 현재를, 그리고 완전한 미지의 영역인 미래를 설계한다.” 힘든 하루하루가 모여야 멋진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파이팅!

진행자: 오늘 유익한 말씀, 감사합니다. 보내 드리면서 음악 한 곡 들겠습니다. 잠시 후 ‘안전 속도 5030’에 대해 김△△ 연구원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이 방송은 놓치신 분들을 위해 ‘다시 듣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43

▶ 23052-0238

<보기>를 참고하여 위 방송의 특성을 파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보이는 라디오는 듣는 매체이자 아날로그 매체였던 라디오가 정보 통신 기술과 결합한 뉴 미디어에 밀려 위기에 봉착하자 방송사에서 마련한 대안으로, 라디오 방송실의 영상을 실시간으로 보여 주는 서비스이다.

- ① 음성 언어와 음향뿐만 아니라 영상과 문자 언어를 함께 사용하여 정보를 구성한다.
- ② 정보의 제공과 이에 대한 의견 제시, 답변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져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다.
- ③ 이동 통신 기기를 이용할 수 있고 놓친 방송을 원하는 시간에 볼 수도 있어 시간적·공간적 제약이 적다.
- ④ 영상을 보며 방송의 진행 과정을 확인할 수 있어 제공하고자 하는 정보 외의 돌발 상황도 공유가 이루어진다.
- ⑤ 정보 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여러 매체를 통합함으로써 실시간으로 영상의 수정과 보완 등의 편집이 가능하다.

실전 모의고사 1회

실전 모의고사 2회

실전 모의고사 3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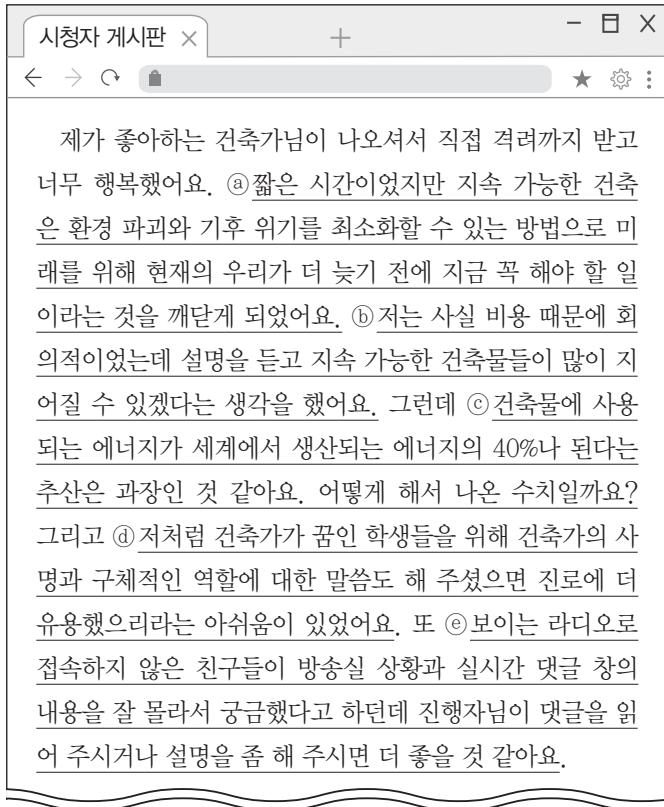
실전 모의고사 4회

실전 모의고사 5회

44

▶ 23052-0239

다음은 위 방송을 본 '불휘 기쁜 나무'가 쓴 게시 글이다. ㉠~㉣에 나타난 수용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 지속 가능한 건축이 지닌 사회적 요구와 그 필요성에 대해 판단하였다.
- ② ㉡: 자신이 지녔던 의심이 해소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지속 가능한 건축의 실현 가능성을 점검하였다.
- ③ ㉢: 건축물에 사용되는 에너지의 비율을 추산한 것이 정확한 정보인지를 점검하였다.
- ④ ㉣: 특정 진로와 관련하여 유용한 정보가 불충분했음을 판단하였다.
- ⑤ ㉣: 수용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지속 가능한 건축의 장단점을 공평하게 다루었는지 점검하였다.

45

▶ 23052-0240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시간 부사 '지금'과 지시 대명사 '여기'를 통해 현재 '보이는 라디오'로 접속한 사람들의 주의를 환기하여 방송에 집중하도록 하고 있다.
- ② ㉡: 접속 부사 '그러면'을 통해 건축물의 사진 자료를 요청한 진행자의 말을 수용하여 이를 실행하고자 함을 보여 주고 있다.
- ③ ㉢: 감탄사 '참'을 통해 '보이는 라디오'로 접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사진을 볼 수 없다는 생각을 갑자기 떠올렸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④ ㉣: 보조사 '도'를 통해 에너지 사용보다 건축 재료가 지속 가능한 건축에 더 중요한 고려 사항을 나타내고 있다.
- ⑤ ㉣: 관형사 '이런'을 통해 '보이는 라디오'로 접속하지 않은 사람들로 하여금 '20세기 소년'의 질문이 비용 문제임을 추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BS 수능완성
국어영역



**실전 모의고사
5회**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릅니다. 3점 문항에는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01~0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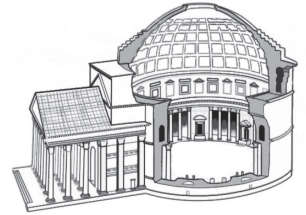
고대 그리스는 산지가 많고 평지가 적은 지형적 특성 때문에 도시를 정비하면서 도시의 구획이나 건축물의 배치에 일정한 규칙을 적용하기 힘들었다. 그에 반해 건축물에는 일정한 규칙을 적용하여 간결한 구성 요소를 보여 주었는데, 이런 특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건축물이 신전이다. 그리스 신전은 주재료가 무거운 대리석이며 크게 삼각 지붕, 기둥, 기단이라는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삼각 모양의 지붕은 건축물이 구조적으로 안정감을 있게 느껴지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데 신전의 지붕 또한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그리스 신전의 기둥은 도리스식, 이오니아식, 코린트식으로 나눌 수 있다. 도리스식 기둥은 가장 단순한 형태로 하단부에 주춧돌이 없고 상단부에는 사발 모양의 주두만 있어 단순하고 강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며, 이오니아식은 주두 양쪽에 소용돌이 모양의 장식이 있고, 코린트식은 이오니아식 주두에 화려하고 섬세한 나뭇잎 모양의 장식을 추가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단은 땅 위에 돌로 쌓아 올린 단으로 신전을 받치고 있는 부분을 가리키는데, 건축물의 내구성을 높이는 것과 같은 여러 기능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㉔ 신전에서 기단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기능적인 측면을 넘어서서 건축물에 특별한 상징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기단은 신전이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하는 요소이며, 우리나라의 일부 전통 건축물에서도 기단이 이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스와 달리 전쟁을 통해 넓은 영토를 차지한 고대 로마는 이동의 편리성과 체계의 통일성을 위해 길과 도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였다. 그 과정에서 도시를 사각형으로 구획하고 각 도시를 대로로 연결해 로마로 향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대로에는 개선문을 ㉕ 만들어 승전을 기념하고 입구의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로마는 영토 확장을 위한 군대가 발달하였는데, 군대는 주로 집단으로 움직이므로 개선문과 같은 각종 건축물은 크기가 커야 했고 넓은 입구가 필요하였다. 그래서 기둥 간의 폭을 좌우로 넓게 하여 넓은 입구를 얻으려고 했지만, 기둥 위에 놓인 인방은 길어질수록 가운데가 쳐지거나 부서지는 문제가 발생하여 건축물의 안정성을 높이는 다른 방법을 고안할 필요가 있었다. 그 결과 내려오는 하중을 분산하는 곡선형 구조물인 아치와 안정성이 높은 건축재인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건축물을 만들게 되었다.

아치는 돌을 통째로 깎아 만든 것이 아니라 몇 개의 돌을 맞추어 조립하는 것으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차례대로 조각을 조립하다가 맨 위에 키스톤이라는 쐐기돌을 끼워 완성한다. 그러면 하중이 양쪽으로 고르게 분산되어 구조적으로 안전하게 된다. 아

치의 응용 방법은 다양하여 아치를 앞으로 계속 포개 나가면 터널이 될 수 있고, 옆으로 연결하면 다리가 되며, 반구형으로 쌓으면 돔이 된다. 아치는 아치가 만든 가상의 원에서 좌우 반지름과 높이 반지름이 같아야 가장 안정적이는데, 이는 좌우가 넓은 아치일수록 아치를 받치는 기둥의 높이도 높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치를 사용한 로마의 대표적인 건축물은 판테온 신전과 콜로세움이다.

㉗ 판테온의 입구는 그리스 신전과 같은 형태이고, 핵심인 몸체 부분은 아치를 반구형으로 쌓은 거대한 돔 형태의 지붕을 기둥과 벽이 받치고 있다. 판테온 몸체의 돔형 지붕은 지름이



▲ 판테온의 구조

43미터인데 지붕을 포함한 건축물 전체의 높이도 지붕의 지름과 같은 43미터로 설계하여 건축물의 안정성을 확보하였다. 그리스는 신전과 같은 대규모 건축물을 지을 때 대부분 무거운 대리석을 활용하였지만, 로마는 대리석보다 가벼운 석회와 화산재 등으로 시멘트를 만든 다음, 시멘트에 자갈이나 모래를 혼합한 콘크리트를 건축재로 사용하였다. 콘크리트는 대리석보다 가볍지만 내구성이 강하기 때문에, 무거운 대리석으로는 만들 수 없는 판테온의 거대한 돔형 지붕을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안정적으로 지을 수 있었던 것이다.

㉘ 콜로세움은 벽돌을 쌓아 올린 아치가 연속으로 된 구조물을 원처럼 동글게 붙인 형태이며, 둘레가 527미터이고 높이가 48미터인 거대한 건축물이다. 콜로세움은 4층으로 이



▲ 콜로세움의 모습

루어져 있는데, 1층에서 3층까지는 아치가 있는 구조이다. 1층에는 도리스식, 2층에는 이오니아식, 3층에는 코린트식 기둥 모양이 조각되어 있는데, 구조적으로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식 기둥이 조각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콜로세움은 기둥 모양의 조각을 장식의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로마가 콜로세움과 같은 거대한 건축물을 안정적으로 지을 수 있었던 이유는 아치를 사용한 것과 콘크리트를 이용한 조적식 구조를 활용하였기 때문이다.

*주두: 기둥의 맨 윗부분.

*인방: 기둥과 기둥 사이 또는 출입문이나 창 따위의 아래나 위에 가로놓여 벽을 지탱해 주는 나무나 돌.

*조적식 구조: 돌이나 벽돌 따위를 쌓아서 이루는 건축 구조.

01

▶ 23051-0241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콜로세움은 1층에서 3층으로 갈수록 화려한 기둥 모양의 조각으로 장식되어 있다.
- ② 고대 그리스와 로마는 대규모 건축물을 지을 때 서로 다른 재료를 주로 사용하였다.
- ③ 판테온의 지붕에 사용된 아치가 만든 가상의 원은 좌우 반지름과 높이 반지름이 같다.
- ④ 고대 그리스는 로마와 달리 지형적 특성 때문에 체계적으로 도시를 구획하고 건축물을 배치하기가 어려웠다.
- ⑤ 두 기둥 위에 하나의 돌을 올릴 때보다 아치 형태로 돌을 조립하여 쌓아 올리면 기둥 간의 거리를 좁게 할 수 있다.

02

▶ 23051-0242

윗글과 <보기>를 바탕으로 ㉠을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기

기단은 건축물의 터를 다듬은 다음 터보다 높게 쌓은 단을 의미한다. 기단은 지하수나 빗물 등이 건축물로 스며드는 것을 막으므로, 주로 물에 약한 목조로 된 우리나라 전통 건축물의 내구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기둥을 거쳐 전달되는 지붕의 하중을 분산시켜 건축물이 기울거나 침하되는 것을 예방한다. 기단의 높이는 건축물에서 외관상 중요한 요소이다. 지붕면이 정면이 되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건축물에서 기단이 없거나 그 높이가 낮을 때에는 외관이 불품없는 반면, 기단이 높은 건축물은 외관상 위용이 있어 보인다. 또한 기단은 건축물과 다른 공간의 상대적인 위계를 나타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찰 안의 건축물에는 대부분 기단이 있는데, 특히 불상을 모시는 대웅전의 기단은 다른 건축물의 기단에 비해 더 높다. 이는 공간의 상대적인 위계를 나타내기 위한 의도가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① 신전이 세워지는 터를 다듬어 신전이 구조적으로 안정성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다.
- ② 건축물의 지붕면이 정면을 향하도록 만들어 건축물의 위용이 드러나게 만드는 것이다.
- ③ 기단이 무거운 신전의 하중을 기둥을 거쳐 분산시키므로, 신전이 기울거나 침하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다.
- ④ 신전을 땅보다 높여 인간이 살아가는 공간과 신을 모시는 공간이 위계적으로 차이가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 ⑤ 그리스의 지형 때문에 물이 신전 하부로 스며드는 것을 막으므로, 물에 약한 목조로 된 신전의 내구성을 높이는 것이다.

03

▶ 23051-0243

㉠과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과 ㉡은 모두 자갈이나 모래를 재료로 하는 건축재를 사용하였다.
- ② ㉠과 ㉡은 모두 로마의 건축물이지만 그리스 신전의 건축 요소와 양식을 일부 활용하여 만들었다.
- ③ ㉠의 지붕과 ㉡과 같은 건축물을 로마가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시멘트를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 ④ ㉠은 아치를 반구형으로 쌓아 올린 구조물이 있으며, ㉡은 원처럼 둥글게 붙인 아치가 각 층을 이루고 있다.
- ⑤ ㉠의 입구 부분의 기둥과 ㉡의 기둥 모양의 조각은 건축물의 하중을 지탱하여 건축물을 구조적으로 안전하게 한다.

04

▶ 23051-02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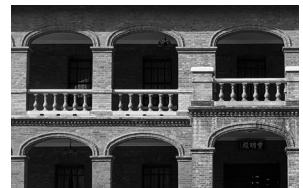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건축물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덕수궁은 1897년 선포된 대한 제국의 황궁으로 옛 이름은 경운궁이다. 덕수궁에는 조선 시대부터 내려온 전통적인 건축물과 더불어 대한 제국 시절 새롭게 준공된 서양식 건축물이 함께 존재한다.



▲ 덕수궁 중화전



▲ 덕수궁 중명전



▲ 덕수궁 석조전



▲ 덕수궁 석조전의 기둥

- ① 덕수궁 중화전의 정면을 보면 그리스 신전에서 사용한 세 가지 요소를 발견할 수 있군.
- ② 덕수궁 중명전은 하중이 분산되어 구조적으로 안전하게 만들어 주는 구조물이 사용되었군.
- ③ 덕수궁 석조전은 정면 중앙에 있는 지붕 모양 때문에 구조적으로 안정감 있게 느껴질 수 있겠군.
- ④ 덕수궁 석조전의 기둥은 그리스가 사용하던 이오니아식 기둥의 주두 모양을 활용하여 만들어졌군.
- ⑤ 유럽이 아닌 지역의 근현대 건축물에서도 고대 그리스와 로마가 사용한 건축 요소를 발견할 수 있군.

05

문맥상 ㉔와 바꿔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건립(建立)하여
- ② 결성(結成)하여
- ③ 구성(構成)하여
- ④ 설립(設立)하여
- ⑤ 조직(組織)하여

▶ 23051-0245

[06~1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행정청이 상대방에게 법을 집행하는 것을 처분이라 하고 처분은 법적 효과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한다. 세금 부과처럼 처분의 상대방이 가진 이익을 침해하는 것은 침익적 처분이라 한다. 반면에 영업 허가처럼 처분의 상대방에게 이익을 부여하거나, 처벌 기간을 줄여서 처분의 상대방이 입을 불이익을 줄여 주는 것은 수익적 처분이라 한다. 그런데 처분이 어떤 사유로 인하여 무효이거나, 취소 또는 철회가 되면 처분의 효력은 소멸된다.

처분이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흠이 있는 상태를 하자라고 하며, 하자의 판단은 처분을 내린 시점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처분을 내린 뒤에 ㉔근거가 되는 법령의 내용이 바뀌었다더라도 처분 당시의 법령을 따랐다면 그 처분은 적법하다. 무효란 처분 당시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서 그 처분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을 말한다. 가령 처분 당시 근거가 되는 법률이 위헌이었거나, 권한이 없는 행정청이 처분을 했거나, 행정청의 서명 날인이 없는 경우, 처분의 상대방이 사망을 한 경우 행정법에서는 이들을 중대한 하자로 본다.

반면에 행정청의 착오로 세금의 액수를 법령의 내용과 다르게 거둔 경우나, 행정청이 영업 정지 처분을 하기 전에 처분의 상대방으로 하여금 반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등을 행정법에서는 ㉔중대한 하자까지는 아니라고 보고 취소의 사유로 정해 놓았다. 이러한 처분은 분명 하자는 있지만 일단 처분을 내린 시점부터 처분의 효력은 발생한다. 그리고 나중에 하자를 이유로 행정청이나 법원이 처분을 취소해야 처분의 효력은 소멸된다.

행정청이 자신이 내린 처분에 대해 스스로 취소하는 것을 직권 취소라 한다. 침익적 처분에 대한 직권 취소는 처분의 상대방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법적인 근거가 없더라도 가능하며, 취소하면 그 처분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된다. 다만 수익적 처분을 취소한다는 것은 처분의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이므로 '상당성의 원칙'에 따른다. 즉 적법한 행정으로 얻는 공익과 취소에 의해 상대방이 입게 될 손해를 비교하여, 공익이 더 크다면 취소할 수 있다. 그리고 ㉔이 경우는 취소가 결정된 이후부터 효력이 소멸된다. 단 처분의 상대방이 사실을 은폐했기 때문에 행정 기관이 하자 있는 처분을 내린 경우라면, 상대방은 위법한 처분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행정청은 이러한 위법한 처분으로 얻은 상대방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직권 취소할 수 있다.

직권 취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처분의 상대방은 법원을 통한 재판으로 자신의 이익이 침해당한 것을 구제받아야 하는데 이를 쟁송 취소라 한다. 쟁송 취소는 처분의 상대방이 잃은 권리를 회복시키는 것이 목적이므로 원고가 승소하면 법원에 의해 그 처분은 취소되어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된다. 그래서 ㉔쟁송 취소의 대부분은 침익적 처분의 효력을 소멸시킬 목적으로 이루어

10

▶ 23051-0250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기

행정청은 □□법 제57조에 따라 음식점 영업자인 A에게 식당의 환기 시설을 보완하라는 내용의 시설 개선 처분을 '4월 1일'에 내리고 10일간의 기한을 주었다. A는 그 처분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기에 해당 행정청은 '5월 1일'에 같은 법 제58조에 따라 A에게 영업 정지 처분을 내리고 당일 A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대해 A는 같은 법 제64조에 따라 영업 정지 처분에 대한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영업 정지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6월 1일'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 ① 시설 개선 처분과 달리 영업 정지 처분은 침익적 처분에 해당 하는군.
- ② 소송에서 법원은 영업 정지 처분의 적법성을 '4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겠군.
- ③ 행정청이 청문 절차를 5월 31일까지 A에게 부여했다면 처분을 적법하게 만들 수 있었군.
- ④ 소송에서 A가 승소할 경우에는 □□법 제57조에 따른 시설 개선 처분에 대한 효력은 법원에 의해 소멸되었군.
- ⑤ 영업 정지 처분의 절차에는 하자가 있으므로 A는 소송을 제기한 날부터 판결이 날 때까지의 기간 동안 영업을 할 수 있겠군.

11

▶ 23051-0251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적절한 것은?

- ① ㉠: 법을 집행했던 행정청의 명칭이
- ② ㉡: 행정청이 하자를 인정하면 효력이 없어지는 처분은
- ③ ㉢: 수익적 처분을 취소한 경우는
- ④ ㉣: 현재는 적법하지만 처분 당시에는 위법이었던 처분을
- ⑤ ㉤: 하자의 치유에 해당한다.

[12~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현재 지구에서 우주로 나가는 운송 수단은 로켓이 유일하다. 로켓을 우주로 보내기 위해서는 지구의 중력을 이겨 낼 만한 추력(推力)*을 낼 수 있고 공기가 없는 우주 공간에서도 작동되는 로켓 엔진이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로켓은 연료와 산화제를 함께 싣고 다니며 엔진 내부에서 연료와 산화제를 같이 연소시키는 방식을 사용한다. 이때 로켓 엔진에 사용되는 연료와 산화제를 가리켜 추진제라고 한다.

로켓 엔진은 사용하는 추진제가 액체나 고체냐에 따라 액체 로켓 엔진과 고체 로켓 엔진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액체 로켓 엔진은 추진제를 탑재하기 위한 연료통과 별도의 산화제 탱크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추진제를 연소실로 보내기 위한 펌프, 밸브 및 파이프 등의 많은 부품이 필요하고 구조가 복잡하여 제작 비용이 많이 든다. 하지만 액체 로켓 엔진은 같은 질량 대비 추진제가 내는 추력의 효율이 더 높고, 발사 뒤에도 추진제의 공급을 조절하여 점화와 소화의 반복을 통해 추력을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로켓의 자세 제어가 용이하다. 한편 ㉡고체 로켓 엔진은 연료와 산화제를 혼합하여 굳힌 고체 추진제만이 로켓 내부의 긴 원통형의 구조물에 들어가 있다. 고체 로켓 엔진에서는 이 구조물이 연소실을 겸하기 때문에 별도의 산화제 탱크와 추진제를 옮기기 위한 장치가 필요가 없다. 이는 고체 로켓 엔진의 구조를 간단하게 하고 고체 로켓 엔진의 무게를 가볍게 만들어 준다. 그러나 고체 로켓 엔진은 추력을 제어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 고체 로켓 엔진의 추력은 추진제 중앙에 형성된 빈 공간의 표면 형상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고체 추진제는 일단 제작이 되고 나면 형상을 조절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추력을 제어할 수가 없으며, 점화 후 연소 속도의 조절도 불가능하다.

로켓 엔진은 엔진 내부에서 추진제를 연소하여 고온·고압의 가스를 만들어 낸다. 이 가스를 분출함으로써 발생하는 반발력으로 로켓은 추력을 얻는다. 액체 로켓 엔진은 연료와 산화제가 만나서 연소하는 별도의 연소실이 있다. 높은 압력으로 연소실로 보내진 추진제는 연소실 내부의 수많은 분무공을 통해 물줄기 형태 또는 가스 형태로 뿜어진다. 이렇게 뿜어진 추진제는 서로 부딪치고 부서져 안개처럼 변하면서 연소가 활발하게 일어나는데, 이때 연소실 내부의 압력은 거의 균일하게 유지된다. 한편 고체 추진제의 점화는 추진제 중앙의 비어 있는 내부 표면에서 시작되고 연소가 진행됨에 따라 추진제의 연소면이 추진제의 내부로 파고들면서 추진제가 차지하지 않는 연소실 내부의 공간이 점점 넓어진다. 추진제가 모두 연소될 때까지 이러한 현상은 지속된다. 이에 따라 고체 로켓 엔진의 연소실 내부의 압력은 계속 변화한다. 추진제의 연소면에서 연소된 가스가 노즐을 통해 팽창하며 빠져나가는 것은 액체 로켓 엔진과 같다.

*추력: 물체를 운동 방향으로 밀어붙이는 힘

(나) 1960년대 초반까지 모든 우주 발사는 태양, 행성, 우주선의 상호 작용을 고전적인 2체 문제로 ㉠ 다루어 우주로의 이동을 위해 강력한 로켓의 힘으로 중력을 이기려고만 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으로 달성이 가능한 우주 임무는 지구 궤도 안쪽으로는 금성, 지구 궤도 밖으로는 목성까지로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문제에 미국의 수학자 마이클 미노비치가 해답을 제시하였다. 미노비치는 우주선 발사체가 근접 비행으로 행성 부근을 통과하면 발사체의 운동 에너지가 행성 부근을 통과하기 전과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우주선 발사체가 행성에 접근하기 전의 운동 에너지와 근접 비행 후의 운동 에너지는 좌표계에 따라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우주선 발사체가 지나는 행성을 기준으로 한 좌표계에서는 우주선 발사체의 운동 에너지는 변화가 없고 운동의 방향만 바뀐다. 하지만 태양을 기준으로 한 좌표계에서 보면 임의의 방향으로 움직이던 우주선 발사체를 행성이 나포해서 끌고 다녔으므로 행성이 우주선 발사체에 대해 일을 했거나 또는 우주선 발사체가 행성에 대해 일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태양을 기준으로 한 좌표계에서 본 우주선 발사체의 운동 에너지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미노비치는 이러한 현상을 이용하면 우주선 발사체가 연쇄적으로 행성과의 근접 비행을 통해 우주선 발사체의 속도와 방향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으며 이를 **중력 추진**이라고 불렀다.

우주선 발사체가 한 행성으로 접근하게 되면 우주선 발사체에 미치는 행성의 중력이 태양의 중력보다 큰 공간이 존재한다. 이러한 공간을 행성의 '중력장'이라 한다. 태양계의 각 행성은 각각의 중력장을 가지며 모든 행성과 위성의 중력장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은 태양의 중력장이다. 우주선 발사체가 어느 행성의 중력장 안으로 진입하면 우주선 발사체는 행성의 중심을 초점으로 하는 쌍곡선을 따라 이동하면서 행성의 중력장을 탈출하여 다시 태양의 중력장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 이때 행성에 대한 우주선 발사체의 속도의 크기는 행성의 중력장에 진입할 때와 같고 방향만 바뀌어 행성에 대한 우주선 발사체의 에너지는 보존된다. 그러나 태양에 대한 우주선 발사체의 속도는 태양의 중력장을 탈출할 때와 진입 후에 방향뿐만 아니라 그 크기도 달라진다. 행성의 중력장 안에 있는 동안 우주선 발사체가 행성에 이끌려 운동하므로 태양에 대한 우주선 발사체의 속도는 행성에 대한 우주선 발사체의 속도에 행성의 공전 속도가 더해져야 하기 때문이다. 진입 속도의 방향이 행성의 궤도 속도 방향이나, 아니면 반대 방향이나에 따라 태양에 대한 우주선 발사체의 상대적인 속도의 크기는 더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다. 이것이 미노비치가 발견한 중력 추진의 요체이다.

중력 추진의 방법을 이용하면 지구에 가까운 행성의 중력을 활용하여 더 멀리 있는 외행성까지 우주선 발사체를 빠르게 보낼 수 있고 태양계 바깥까지 멀리 보낼 수 있다.

*2체 문제: 서로 작용하는 두 물체의 운동을 다루는 문제.

12

▶ 23051-0252

다음은 (가)와 (나)를 읽은 학생들이 수행할 독서 활동지의 일부이다. 학생들의 대화 내용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다음에 제시된 두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가)와 (나)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정리해 보자.

- 글의 화제 및 내용
- 서술 방식

학생 1: 각자 글은 다 읽어 봤지? 그럼 이제 함께 정리해 보자.
 학생 2: 글의 화제 및 내용을 보면, 로켓이 우주 공간에서 비행하는 데 필요한 요소들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가)와 (나)의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 ①
 학생 3: 하지만 (가)는 로켓의 추력과 관련된 구조적 측면의 요소를, (나)는 로켓의 추력에 영향을 미치는 외적 측면의 요소를 설명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지. ②
 학생 4: 그리고 서술 방식을 살펴보면, (가)는 (나)와 달리 두 대상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혀 대상의 특징을 부각하고 있어. ③
 학생 1: 반면에 (나)는 (가)와 달리 특정 학자의 견해를 인용하여 로켓의 기존 이동 방법이 가진 문제에 대한 대안을 설명하고 있군. ④
 학생 2: 마지막으로 덧붙이자면, (가)와 (나)는 모두 화제와 관련된 주요 개념을 정의하고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사례를 제시하고 있지. ⑤

실전 모의고사 1회
 실전 모의고사 2회
 실전 모의고사 3회
 실전 모의고사 4회
 실전 모의고사 5회

13

▶ 23051-02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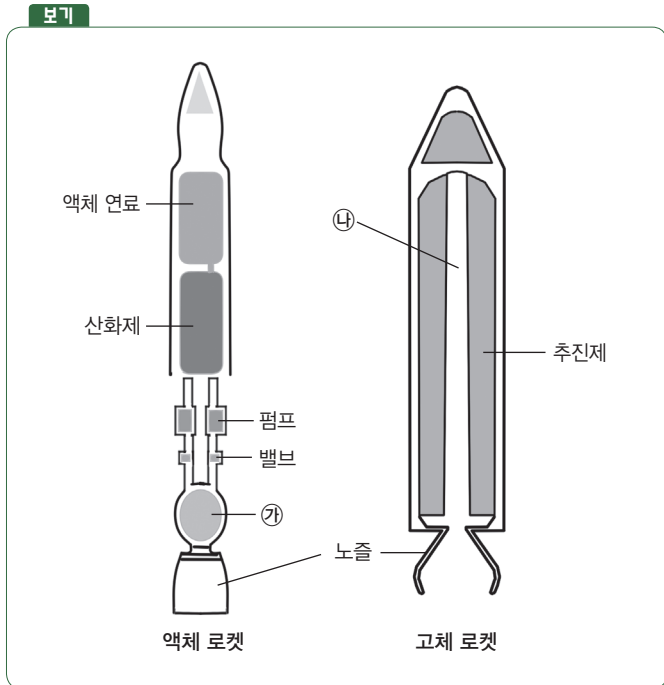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과 달리 추진제의 특성으로 인해 발사체의 무게가 가볍다.
- ② ㉠은 ㉡과 달리 점화 후 연소 속도의 조절이 어려워 추진제의 추력 효율이 낮다.
- ③ ㉡은 ㉠과 달리 추진제의 형상에 따라 추력이 큰 영향을 받게 된다.
- ④ ㉡은 ㉠과 달리 제작에 많은 부품이 사용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든다.
- ⑤ ㉡은 ㉠과 달리 발사 뒤에도 점화와 소화의 조절을 반복하여 로켓의 추력 제어가 용이하다.

14

▶ 23051-0254

(가)를 참고하여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액체 로켓의 ㉠의 내부에는 수많은 구멍이 있으며 이를 통해 ㉡로 이동한 추진제의 연소를 촉진한다.
- ② 액체 로켓의 추진제는 높은 압력으로 ㉡로 보내지기 때문에 이를 위한 별도의 장치가 추가로 필요하다.
- ③ 액체 로켓은 ㉡에서 생성된 고온·고압의 가스를 통해 추력을 얻기 때문에 공기가 없는 곳에서도 비행이 가능하다.
- ④ 고체 로켓의 경우 연소가 진행됨에 따라 ㉡는 점차적으로 넓어지게 된다.
- ⑤ 고체 로켓에서는 온도와 압력이 높아진 연소 가스가 ㉡에서 일정한 압력으로 압축되어 노즐을 빠져나가도록 조절된다.

15

▶ 23051-02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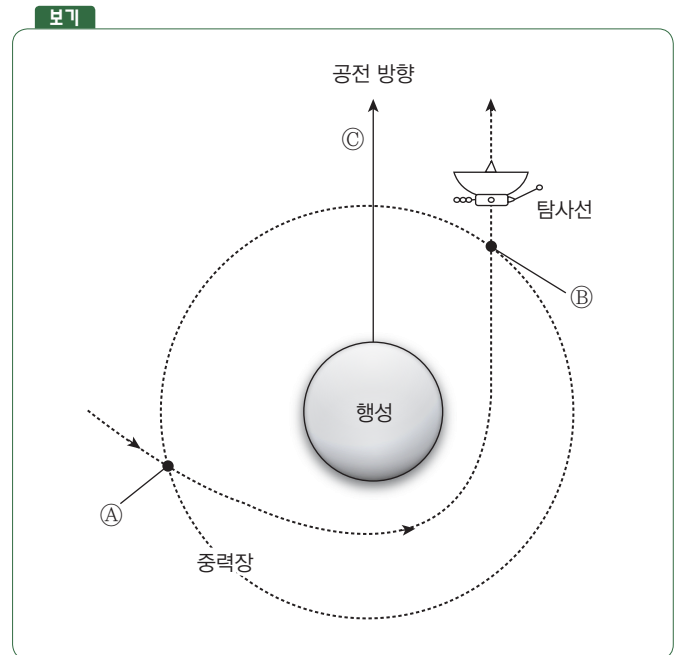
(나)를 읽고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중력을 이겨 내는 로켓의 힘만으로는 우주 탐사의 범위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
- ② 태양계 안에서는 우주선 발사체에 미치는 행성의 중력이 태양의 중력보다 큰 공간이 존재한다.
- ③ 행성에 접근하기 전과 근접 비행 후 우주선 발사체의 운동에너지는 좌표계와 관계없이 동일하다.
- ④ 우주선 발사체가 연쇄적으로 행성과의 근접 비행을 하면 우주선 발사체의 속도와 방향이 바뀔 수 있다.
- ⑤ 우주선 발사체가 어느 행성의 중력장 안으로 진입하면 행성의 중심을 초점으로 하는 쌍곡선을 따라 이동한다.

16

▶ 23051-0256

<보기>를 바탕으로 중력 추진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A와 B에서 행성에 대한 탐사선의 속도의 크기는 동일하다.
- ② 탐사선이 A와 B 사이를 벗어나면 탐사선은 태양의 중력에 의한 영향을 받는다.
- ③ 탐사선이 A를 지나 태양의 중력장을 탈출한 후 B에서 다시 태양의 중력장에 진입한 것으로 보면 A와 B에서 태양에 대한 탐사선의 속도는 달라진다.
- ④ 태양을 기준으로 한 좌표계에서 볼 때, 탐사선이 A와 B 사이에 있는 동안 탐사선의 속도는 행성에 대한 탐사선의 속도에 행성의 공전 속도가 더해진 것이다.
- ⑤ 탐사선이 C의 반대 방향으로 진입하면, 행성에 대한 탐사선의 속도는 태양의 중력장을 탈출할 때보다 행성의 중력장을 탈출할 때에 더 작아진다.

17

▶ 23051-0257

㉔와 같은 의미로 사용된 것은?

- ① 무고한 사람을 범인처럼 다루면 안 된다.
- ② 이 상점은 중고 물품을 주로 다루는 곳이다.
- ③ 그 부서는 회사에서 무역 업무를 다루기도 한다.
- ④ 일간지들은 경제 위기를 중요한 문제로 다루고 있다.
- ⑤ 그녀는 다양한 악기를 마음대로 다루며 무대에 올랐다.

[18~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돌담 기대 친구 손 붙들고
 토한 뒤 눈물 닦고 코 풀고 나서
 우러른 ㉠젓빛 하늘
 무화과 한 그루가 그마저 가려 섰다

이봐
 내겐 꽃 시절이 없었어
 꽃 없이 바로 열매 맺는 게
 그게 무화과 아닌가
 어떤가
 친구는 손 뽑아 등 다스려 주며 [A]
 이것 봐
 열매 속에서 속 꽃 피는 게
 그게 무화과 아닌가
 어떤가

일어나 들어서 ㉡검은 개굴창가 따라
 비틀거리며 걷는다
 검은 도둑팽이 하나가 날쌔게
 개굴창을 가로지른다.

- 김지하, 「무화과」

(나) 눈물 아롱아롱

피리 불고 가신 님의 밟으신 길은
 진달래 꽃비 오는 서역(西域) 삼만 리.
 흰 옷깃 여며 여며 가옵신 님의
 다시 오진 못하는 파촉(巴蜀) 삼만 리.

신이나 삼아 줄길 슬픈 사연의
 울음이 아로새긴 육날 메투리.
 은장도 푸른 날로 이냥 베어서
 부질없는 이 머리털 엮어 드릴걸.

초롱에 불빛, ㉢지친 밤하늘
 굽이굽이 ㉣은햇물 목이 젖은 새,
 차마 아니 솟는 가락 눈이 감겨서
 제 피에 취한 새가 귀족도 운다.
 그대 하늘 끝 호올로 가신 님아.

- 서정주, 「귀족도」

(다) 삭삭기 세물에 별헤 나는

삭삭기 세물에 별헤 나는
 구은 밤 닻 되를 심고이다

실전 모의고사 1회

실전 모의고사 2회

실전 모의고사 3회

실전 모의고사 4회

실전 모의고사 5회

그 바미 우미 도다 삭 나거시아
 그 바미 우미 도다 삭 나거시아
 유덕(有德) 흐신 님을 여히으와지이다 <제2연>

옥(玉)으로 련(蓮)스고즐 사교이다
 옥(玉)으로 련(蓮)스고즐 사교이다
 바회 우희 접두(接柱)흐요이다
 그 고지 삼동(三洞)이 꿰거시아
 그 고지 삼동(三洞)이 꿰거시아
 유덕(有德) 흐신 님 여히으와지이다 <제3연>

므쇠로 털릭을 몰아 나는
 므쇠로 털릭을 몰아 나는
 털스(鐵絲)로 주롬 바고이다
 그 오시 다 혈어시아
 그 오시 다 혈어시아
 유덕(有德) 흐신 님 여히으와지이다 <제4연>

므쇠로 한쇼를 디어다가
 므쇠로 한쇼를 디어다가
 ㉠ 털슈산(鐵樹山)에 노호이다
 그 쇠 털초(鐵草)를 머거아
 그 쇠 털초(鐵草)를 머거아
 유덕(有德) 흐신 님 여히으와지이다 <제5연>
 - 작자 미상, 「정석가(鄭石歌)」

18 ▶ 23051-0258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 ② 색채의 대비를 활용하여 화자 내면의 번뇌를 구체화하고 있다.
- ③ 반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의성어를 활용하여 대상에 대한 애뜻함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 ⑤ 시적 허용을 활용하여 화자가 지닌 정감의 깊이를 부각하고 있다.

19 ▶ 23051-0259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공간의 변화를 제시하여 화자의 정서가 심화되는 과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② 말을 건네는 방식을 활용하여 화자와 ‘친구’ 간의 거리감을 심화하고 있다.
- ③ ‘친구’는 동일한 대상에 대해 화자와 다른 시각을 드러내며 화자를 위로하려 하고 있다.
- ④ ‘친구’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화자와 청자 간의 대립 해소를 드러내고 있다.
- ⑤ 특정 대상에 대한 화자의 단정적인 표현을 반복하며 화자 자신의 삶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화하고 있다.

20 ▶ 23051-0260
 ㉠과 ㉡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시적 화자가 지향하는 이상적 공간이다.
- ② 시적 화자의 소망이 성취되는 공간이다.
- ③ 시적 화자가 울분을 토로하는 공간이다.
- ④ 시적 화자가 의지하고픈 대상이 있는 공간이다.
- ⑤ 시적 화자가 처한 부정적 현실이 드러난 공간이다.

21 ▶ 23051-0261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에는 화자와 대비되는 행동을 보이는 존재가 공존하고 있다.
- ② ㉡에는 임과의 단절감이 드러나고, ㉢에는 임과 함께하고픈 화자의 바람이 투영되어 있다.
- ③ ㉠은 ㉡와 달리 화자가 시적 청자와 함께하고 있다.
- ④ ㉢은 ㉠과 달리 현실에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곳이다.
- ⑤ ㉡와 ㉢은 모두 화자가 보고 싶어 하는 대상이 존재하는 곳이다.

22

▶ 23051-0262

〈보기〉는 고전 작품을 설명하는 방송 내용의 일부이다. 이를 바탕으로 (다)의 구조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방송 내용의 일부

오늘은 ‘고전을 이해하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석가」의 구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2연부터 제5연까지의 「정석가」의 구조는 원재료 제시 및 가공, 가공의 결과물 및 이와 관련된 공간 제시, 그 공간에서 발생하는 불가능한 사건 제시와 후렴구의 반복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제3연을 정리한 표를 보면서 앞서 설명 드린 구조를 살펴보시죠.

연	㉠	㉡	㉢	㉣	㉤	후렴
3	옥	다듬어	연꽃	바위	꽃이 피면	임과 이별

제3연과 표를 보시면 「정석가」의 구조를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른 연에서는 원재료와 이를 가공하는 부분이 빠지거나, 가공의 결과물과 관련된 공간이 빠지는 등 구조가 변주되기도 하지만, 구조의 틀을 생각한다면 변주된 부분들을 추리할 수도 있죠. 자, 그럼 다른 연들도 표와 연관 지어 살펴볼까요?

- 제2연에는 ㉠과 ㉣에 해당하는 내용이 빠져 있지만, 구조상 ㉠에 ‘생뿔’이 들어간다면, ㉣에는 ‘구워’가 들어갈 수 있겠군.
- 제2, 4연은 ㉤에 다른 연들과는 달리 공간에 대한 설정이 빠진 채로 화자의 행위만을 설정하여 놓았군.
- 제2연은 ㉤에 결과물이 생명을 얻는 것을, 제4연은 결과물이 남아있는 것을 설정하였군.
- 제4, 5연은 원재료에 해당하는 ㉠에 ‘무쇠’라는 재료가 동일하게 배치되었군.
- 제2, 4, 5연 모두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는 조건이 동일하게 ㉤에 들어간 것이군.

23

▶ 23051-0263

〈보기〉를 바탕으로 (가)~(다)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우리의 전통 정서 중에는 한(恨)의 정서가 있다. 한은 꿈이나 사랑처럼 성취하고 싶은 욕구가 있지만 이를 가로막는 다양한 상황들로 인해 답답함을 느끼면서 방향을 잃고 엉켜 있는 마음의 상태를 의미한다. 문학에서는 사랑의 상실로 인해 발생한 한을 풀고자 하는 모습이 자주 나타나는데, 사랑하는 임에 대한 기억이나, 임과 하지 못해 애석했던 일들을 지속적으로 떠올리며 임과의 심리적 거리감을 좁히려는 태도를 통해 주로 드러난다. 한편 인간이 가진 운명적 유한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한의 정서도 있다. 이러한 경우, 유한성을 넘어 영원성을 희구하는 방식으로 그 한을 풀어내고자 하는 모습이 작품에 드러나기도 한다.

- (가)에서 화자는 우리러보고자 하는 대상마저 가로막고 있는 ‘무화과 한 그루’를 통해 자신이 하고자 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는 답답함을 형상화하고 있다.
- (가)에서 화자는 ‘꽃 시절’이 없었다며, 자신이 성취하고 싶었던 것이 가로막힌 채 결국 시간이 지나 버린 상황으로 인한 한을 드러내고 있다.
- (나)에서 화자는 ‘삼만 리’라는 표현을 통해 임과의 거리감을 드러내면서 임과 함께하고픈 소망을 이루지 못해 발생한 한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나)에서 화자는 자신의 ‘머리털’을 베어서 임에게 ‘신’이라도 삼아 주지 못해 애석한 마음을 드러내며 인간의 유한성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다)에서 화자는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난다면 임과 이별하겠다는 상황을 설정하여 임과의 이별을 거부하고 영원한 사랑을 희망하는 태도를 통해 한의 정서를 풀어내고자 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24~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을은 속이 온통 비어 있는 계절이었다. 티끌 한 점 없이 파랗게 드리워져 있는 하늘이 그랬고, 물처럼 말갭게 흘러내리는 햇살이 그랬다. 적어도 거기에만은 지난 전쟁이 아무런 상흔도 남기지 못한 셈이었다. 감추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눈에 띄는 모든 사물들은 제각기 텅 빈 속을 흰히 드러내고 있었다.

그렇다고는 해도 잠자리처럼 투명한 생명체가 또 어디 있을까. 가을 햇살의 무늬이듯 아른아른 날아오르는 잠자리 떼를 보고 있노라면 나는 일쭉, 콧날이 맹해지곤 했다. 가진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보다 맑고 정갈한 생명들이었다. 다병한 어머니의 얼굴을 나는 자주 연상했다.

나는 내 열 개의 손가락 사이마다 날개를 접힌 채 가지런히 끼여 있는 잠자리들을 들여다보았다. 고추잠자리는 무엇보다 우선 그 몸매가 고왔다. 열 개의 마디마다 주홍빛 물감이 손끝에 묻어날 듯했다. 된장잠자리는 삼각형의 흑색 무늬 때문에 다소 꺼림칙한 느낌을 주었다. 누런 몸통 끝부분에 가지런히 찍혀 있는 세 개의 얼룩무늬를 보고 있노라면 매번 기분이 언짢아지곤 했다. 가슴통 양쪽에 세 줄의 검은 선이 그어져 있는 고추잠자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특히 누런 빛깔의 암컷은 언제나 우울하고 불길한 느낌을 갖게 했다. 이 무렵엔 도무지 구경하기 힘든 것이긴 하지만, 어쩌다 간혹 걸려드는 밀잠자리도 느낌은 마찬가지였다. 몸통 하나 가득히 묻어 있는 흰 가루가 내게는 도무지 못마땅했다. 그것이 손끝에 묻어날 때마다 나는 영 질겁을 하곤 했다. 이들에 비해 대모잠자리는 무엇보다 그 흑갈색의 무늬가 아름답게 느껴졌다. 투명한 두 개의 날개 끝에 선명하게 박혀 있는 그 흑갈색 무늬를 나는 오래도록 들여다보며 거듭 찬탄해 마지않았다.

그러나 내가 그것들에 매료당했던 가장 큰 이유는 실상 다른 데에 있었다. 것처럼 연약하고 섬세한 몸통과 가늘고 긴 세 쌍의 다리와 그리고, 명주 울 같은 맥(脈)을 제하고는 온통 투명하기만 한 두 쌍의 날개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거의 모든 잠자리들은 투박한 머리와 육식용(肉食用)의 단단한 구기(口器)와 한 쌍의 크고 불량한 겹눈과 그리고, 끝 같은 턱을 지니고 있는지…… 그 불가해한 모순이 나를 강하게 사로잡았던 것이다.

친구 태길이가 지친 얼굴로 돌아왔다. 포충망 속엔 또 한 마리의 잠자리가 들어 있었다. 우리는 손 대신 발로 가위바위보를 했다. 그가 이겼다. 나는 그의 앞에 내 두 손을 내밀었다.

열 개의 손가락 틈새마다 그날의 포획물이 훔훔히 박혀 있었다.

그가 왼손 것을 택했다. 바른손 것은 자연히 나의 몫이었다. 우리는 천천히 집을 향해 걸었다. 무슨 보석 반지처럼 잠자리들을 손가락 사이에 잔뜩 낀 채였다. 몹시 허기가 졌기 때문에 머리통을 이고 가기가 힘들었다.

어머니는 여전히 누워 있었다. 웬지 안심이 되었다. 그 머리맡에서 누나가 나를 돌아보았다. 뽀얀 얼굴이었다. 저녁

어스름 속에서도 아주 메말라 보이는 얼굴이었다. 나는 벽에 기대선 채 한동안 입을 떼지 않았다. 그리고 생각했다. 그래,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거다. 고물 자전거를 툴툴거리며 아버지가 돌아오기를. 어쩌면 오늘 밤쯤 그 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나는 생각했다.

[A] “많이두 잡았네…….”

누나가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그리고는 잠자리를 한 마리씩 천천히 놓아주었다. 장난감 같은 우리들의 방, 그 좁은 공간 속을 그것들은 어지러이 날아다녔다. 마치 여위고 굶주린 혼백처럼 더할 수 없이 나약하고 투명한 몸짓으로…… 육식이 아니라 설사 풀을 먹는다고 해도, 또는 그 끝에 맺힌 이슬만 취한다고 해도 우리는 결코 그들처럼 투명한 넋을 지닐 수는 없으리라고 나는 생각했다.

(중략)

어머니의 낮빛은 갈수록 희고 투명해졌다. 얼굴만이 아니었다. 이불 밖으로 빠져나온 손이며 발목들도 마찬가지였다. 핏기 한 점 없이 창백한 피부 아래 실날같은 정맥들이 아른아른 내비쳤다.

당연하다고 나는 생각했다. 어머니의 변모는 너무나 당연한 결과여서 조금도 놀랄 일이 못 되었다. 아주 이따금씩 한두 모금의 물을 청해 마시는 것 외에는 거의 아무것도 취하려 하지 않는 어머니였다. 당신의 몸이 뱀의 허물처럼 투명해짐도 그 당연한 결과가 아니라.

벽을 향해 죽은 듯 누워 있는 어머니를 보고 있노라면 나는 곧잘 환상에 사로잡히곤 했다. 아주 눈부신 환상이었다. 마침내 남루한 육신을 벗어던지고 나비처럼, 또는 잠자리처럼, 햇빛 화사한 창공으로 투명하게 날아오르는 환상이었다.

언덕 위의 개척 교회에서는 더 이상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다. 겨울로 접어들면서부터 그곳 창고는 바닥이 나 버렸다. 전지분유의 그 빠따빠다하고 찰진 맛을 기억하며 우리는 주일마다 몰려갔지만 그러나 매번 빈손으로 돌아왔다.

사정은 성당도 마찬가지였다. 그해 연말에 옷가지 몇 점을 얻어 낸 것으로 그만이였다. 하느님도 마침내 거털이 나신 모양이라고, 아쉽게 우리는 체념했다. 하지만 그 옷들이 그해 겨울을 나는 데에 도움을 주었던 것만은 우리들 중 아무도 부인할 수 없으리라.

비록 누군가 입던 것이긴 해도 그것은 우리들의 추위를 조금은 가려 주었다. 제아무리 잘 만들어진 방한복이라고 한들 안의 추위까지야 막을 수 없는 노릇이다. 공복에서 오는 추위가 실상은 더 가혹했다. 하지만 그것들을 뒤집어쓰고 나서면 안의 추위도 조금은 견딜 만했다.

그래, 아주 조금이다. 그리고 꼭 그만한 농도로 우리들의 신앙심도 남아 있었다.

물론 예외도 있다. 저 광목 자루 속에서 나온 소녀가 그 비슷

한 예였다.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었다. 그녀의 아버지가 휴전선 저쪽에서도 독실한 신자였다는 사실을. 그러나 예의 선명질적인 소녀만은 사정이 달랐다. 나는 감히 단정할 수가 있다. 그녀가 만약 독실한 신앙심을 지니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저 휴전선 너머의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말이다. 왜냐하면 그녀 역시 우리들처럼 언덕 위의 개척 교회와 시내의 성당을 번갈아 드나들었기 때문이다. 소량의 전지분유와 두 뒷박의 옥수수가루 또는 풀때죽 중 그녀 역시 어느 한쪽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녀에게는 하나의 계기가 있었다고 나는 믿고 있다. 통은 창고에서 손수레를 끌던 그녀의 아버지 — 정확히 말하자면 ‘끌던’이 아니라 ‘밀던’이 옳다. 왜냐하면 그 손수레마저 자기 것이 아니었으므로, 어쨌든 그녀의 아버지가 허리를 심하게 다쳐 몸져누운 게 바로 그것이었다.

아버지의 불행한 사고를 계기로 그녀의 태도는 표변했다. 자신의 신앙이 바로 아버지의 지팡이거나 하듯 그녀는 독실했던 것이다. 바람 드센 언덕배기의 그 천막 교회를 그녀는 새벽마다 오르내렸다. 한겨울에도 내의를 입지 않았다. 믿음이 추위를 잊게 해 준다고 여전히 창백한 얼굴과 나약한 몸매의 그녀는 말했다.

만성적인 공복감 때문에 항상 결뻑거리고 있는 아이들을

[B] 보면 그녀는 또 이렇게 말했다.

“기도를 해, 열심히, 열심히 기도드리면 배고픈 것도 잊어 버린다. 너, 아버지가 말했어. 사람은 빵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그러므로 믿는 자는 배고프지 않다.”

가엾은 그들 부녀가 어떤 식으로 날마다의 허기를 달랠 것인가를 나는 충분히 상상할 수가 있다. 머지않아 그 병약한 소녀마저 제 아버지의 곁에 쓰러져 버릴 것이라고 나는 생각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녀는 잘 견디어 냈다.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결판났는지를 나는 알고 있지 못하다. 그러나 적어도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하다. 즉 우리 가족이 마침내 그 판자촌을 떠나기까지, 예의 선명질적이고 허약한 소녀는 꺾이지 않고 깨끗하게 잘 버티어 내고 있었다는 점이다.

㉠ 고통 없이는 결코 그 작고 창백한 얼굴을 회상할 수가 없다. 특히 험하게 열려 있는 그녀의 두 눈은 말이다. 먼 훗날, 나는 그와 유사한 눈빛을 비아프라 난민들 속에 섞여 있는 아이들에게서 발견하고 놀란 적이 있다. 그러나 그 소녀의 눈매처럼 타는 듯 빛나고 있지는 않았다.

㉡ 이제는 고백해야겠다. 나는 그 소녀에게 조금씩 이끌려 들고 있었다. 처음엔 우리 모두를 놀라게 했던 그 발작 때문에, 다음엔 병적인 그녀의 용모 때문에, 그리고 최후엔 그 감동적인 신앙 때문에 내 작은 마음은 점점 기울어져 갔다. 교회나 길목에서는 물론, 꿈속에서조차도 그녀의 주위를 기웃거릴 만큼.

그녀의 말이 전혀 거짓은 아니었다. 때로는 소녀의 얼굴을 머

릿속에 그리는 것만으로도 나는 공복감을 잠시 달랠 수 있었다. 물론 아주 잠시였다. 하물며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에게 기도 드림으로써 배고픔을 잊을 수 있다는 그녀의 말이 내게도 조금은 수궁이 되었다. 짙은 모를 일어로 되 저 병약한 소녀보다야 하나님 쪽이 훨씬 더 효과적이리라고 나는 결론지었다.

몹시 허기진 날 저녁 무렵에 나는 언덕 위의 교회로 슬며시 올라갔다. 우리 유년 주일 학교 천막은 다행히 비어 있었다. 조금은 계면쩍기도 했지만 보다 절실한 감정이 나를 때밀어 넣었다. 그것은 고통이었다. 주린 육체의 아픔이었다. 나는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쥐었다.

결과는 몹시 부끄러운 것이었다. 차라리 그 소녀에게 기도를 드렸던 편이 더 나았으리라. 허리가 끊어지는 듯한 공복감 때문에 나는 잠시도 버텨 낼 재간이 없었다. 부끄럽게, 허망하게 나는 도망쳐 나왔다. 몸이 온통 견잡을 수 없이 떨리고 있었다. 너무나 심한 떨림이어서 식은땀이 끈끈하게 내뻘 지경이었다. 바람 세찬 언덕배기를 계절음으로 내려오면서 나는 딱히 누구에게 라고 할 것 없이 두루두루 알감자를 먹여 주었다.

“물을 마시렴.”

누나가 담담한 얼굴로 말했다. 그러고는 어머니의 머리맡에 놓여 있던 물 대접을 집어다 주었다. 나는 그것을 한 모금 들이켰다. 아주 차가웠다. 관자놀이께로 찬바람 한 줄기가 빠져나갔다. 진저리를 친 다음에 나는 또 한 모금을 들이켰다. ㉢ 이번에는 견딜 만했다. 식도를 타고, 비어 있는 위장 속으로 부드럽게 스며드는 감촉을 나는 의식했다. 상쾌한 기분이 들었다.

“물도 급하게 마시면 체하는 거다.”

누나가 대접을 집어 갔다. 그러고는 천천히 한 모금 들이켰다. 나는 다시 그것을 받아 들고 누나처럼 천천히, 맛을 음미하듯 또 한 모금을 마셨다.

예의 소녀보다 누나 쪽이 한결 현명하다고 생각되었다. 물은 온갖 맛을 지니고 있었다. 결코 맛만이 아니다. 그것은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음식물의 빛깔과 형태와 미각으로 쉽게 환치되었다. 온통 푸짐한 환상의 만찬이었다.

누나와 나는 이불로 몸을 둘둘 감고 마주 앉은 채 번갈아 가며 한 모금씩 물을 마셨다. 아니, 만찬을 즐겼다. 그러고는 상상의 포만감 속으로 빠져들었다. 무거운 식곤증과 더불어 잠이 쏟아졌다.

— 이동하, 「장난감 도시」

24

▶ 23051-0264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나’는 잠자리를 더 많이 갖기 위한 태길과의 승부에서 이겼음에도 그 과정에서 힘을 쓴 탓에 허기를 느끼게 된다.
- ② ‘나’는 개척 교회에서 얻은 전지분유와 성당에서 받은 옷 덕분에 겨울을 어렵지 않게 보낸다.
- ③ 소녀가 교회와 성당에 번갈아 다니는 까닭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그녀 아버지의 말 때문이다.
- ④ ‘나’는 소녀의 병적인 용모 때문에 그녀에게 기울어져 가는 마음을 다잡기 위해 교회에서 기도를 드린다.
- ⑤ 누나는 ‘나’에게 탈 없이 물을 마시는 법에 대해 말하고는 물 대접을 집어 물을 한 모금씩 천천히 마신다.

25

▶ 23051-0265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서술자가 이야기를 서술하는 순간에 느끼는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은 서술자가 반복된 행위에 대한 느낌의 차이를 서술하고 있다.
- ③ ㉠과 ㉢은 각각 이후에 서술할 내용의 성격에 대해 밝히고 있다.
- ④ ㉠과 ㉡은 모두 서술자가 과거 자신의 외양을 주관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 ⑤ ㉢은 서술자가 과거에 숨겼던 사실을 밝히려는 의지를 나타내고, ㉡은 서술자가 과거 자신의 상태를 전달하고 있다.

26

▶ 23051-0266

[A], [B]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는 인물이 느끼는 포만감을 부각하기 위한 동화적 공간 분위기가 나타나 있다.
- ② [B]는 세계에 대해 신앙으로 맞서려는 인물이 좌절하게 되는 원인을 제시하고 있다.
- ③ [A]는 잠자리를 매개로, [B]는 불행한 사고를 통해 인물 간의 반감이 드러나는 계기를 제시하고 있다.
- ④ [A]에는 처지의 변화가 일어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인물의 회의적 인식이, [B]에는 어려움을 이겨 내려는 인물의 의지적 태도가 드러나 있다.
- ⑤ [A]와 [B]에는 모두 아버지의 부재로 인해 궁핍이 심해지는 가정 환경이 나타나 있다.

27

▶ 23051-0267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장난감 도시」에서는 세계에 대한 인물의 인식을 시각적 속성이나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제시한다. 투명함은 현실의 질곡이 드러나지 않는 일상을 나타내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모순을 나타낸다. 투명함은 궁핍한 현실의 실상을 나타낼 때 창백함이라는 속성으로 변주된다. 한편 환상을 통해 제시되는 시각적 이미지는 인물의 심리를 대비적으로 나타낸다. 벗어나기 어려운 극심한 고통은 투명한 이미지로, 고통에서 벗어나고픈 소망은 다채로운 이미지로 구체화되기 때문이다. 이 작품은 이러한 형상화 방식을 통해 전후 현실의 질곡을 견뎌 내는 인물의 경험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① 온통 비어 있는 가을 하늘의 풍경에서 전쟁의 상흔을 발견할 수 없다는 점은, ‘나’가 현실의 질곡에 무심한 가을의 일상을 투명함이라는 속성을 통해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군.
- ② 투명한 날개를 지닌 잠자리가 육식용 구기와 꿀 같은 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매료된 것은, ‘나’가 잠자리의 생김새로부터 이해하기 어려운 모순을 느꼈기 때문임을 나타내는군.
- ③ 병든 어머니가 나비처럼 투명하게 날아오르는 환상에 사로잡히는 것은, 벗어나기 어려운 현실의 극심한 고통을 ‘나’가 투명한 이미지의 환상을 통해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군.
- ④ 소녀에게 기도드렸던 편이 더 나왔으리라고 생각한 것은, ‘나’가 창백함을 드러내는 소녀를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신념을 제공한 존재로 인정하게 되었음을 나타내는군.
- ⑤ 허기를 면하기 위해 물을 마시면서 음식들로 가득한 환상의 만찬을 상상하는 것은, 다채로운 이미지를 드러내는 상상을 통해 궁핍한 현실을 벗어나고픈 ‘나’의 소망을 드러내는군.

[28~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앞부분 줄거리] 안평국의 왕비가 중병이 들자 둘째 아들 성의가 서역으로 가서 일영주를 구했는데, 만아들 향의가 일영주를 빼앗고 성의의 눈을 찔러 바다에 빠뜨린다. 맹인이 된 성의는 중국의 사신 호 승상에 의해 구출되어 중국 황제의 궁 후원에 머물다가 공주와 친분을 쌓는다. 이때 성의가 기르던 기러기가 왕비의 편지를 성의에게 전하는데, 공주가 이 편지를 읽어 주자 성의는 눈을 뜨게 되고 황제는 성의를 부마로 삼으려 한다.

차시 공주 적 공자의 급제를 마음속에 은근히 기뻐하더라. 상이 적 한림의 기질이 빼어남을 보시고 부마를 유의하사 적 한림을 불러 권하며 왈,

“경이 비록 타국 사람이니 짐의 나라에 들어와 소년등과하여 재명(才名)이 빼어난지라. 짐이 한 딸이 있으나 비록 덕행이 부족하나 군자의 아내가 될 만하니, 이제 경으로써 부마를 정하나니 사양치 말라.”

하신대, 한림이 내심에 환희하나 거짓 사양하여 엎드려 아뢰기를,

“신이 외국 인물로 됨됨이가 둔하고 미련하고 타고난 운수가 사나웁거늘 성의(聖意) 융성하와 해해지택(海海之澤)을 입사와 일신이 영귀하옵거늘, 갈수록 성은이 크고 두터워
[A] 하교(下敎) 여차하시니 신이 손복(損福)하옵지라. 엎드려 바라옵건대 폐하는 신의 구구하온 사정을 살피사 부마지교를 거두시고 신의 외로운 몸을 편케 하시면 결초보은하와 국은을 만분지일이나 갚삼고자 하나이다.”

상이 허락하지 않아 가라사대,

“경은 너무 사양치 말라.”

하시니, 한림이 더욱 황공하여 성은을 정중하게 사례하나, 복이 덜할까 조심스러워 불안하여 몸 둘 바를 알지 못하거늘, 상이 크게 기뻐하사 사천관(司天官)에 택일하라 하시니, 일자가 열흘밖에 남지 않았는지라. 한림이 하릴없어 물러나 승상부에 돌아와 승상을 뵈옵고 연중(筵中) 이야기를 고할새, 성의 굳으심과 은상(恩賞)의 후덕을 칭송하여 누수 중흥하는지라. 승상이 위로 왈,

“이 또한 하늘이 정한 운명이요, 또한 그대 몸이 영귀할 때니 이제는 귀국(貴國) 부모를 뵈옵기 쉬운지라. 심중에 기꺼함이 가하거늘 도리어 마음을 상해하고 슬퍼함은 불가하도다.”

하고 위로하더라. 한림이 서실에 돌아와 부모를 생각하고 마음을 진정치 못하더라.

상이 내전에 드사 성의로 부마 정한 말씀이며 길일(吉日)이 열흘밖에 남지 않음을 황후더러 말씀하시니, 황후 또한 크게 기뻐하사 손꼽아 날을 기다리시더라.

이러구러 길일이 다다르니, 한림이 위엄 있는 태도를 갖추어 혼례를 행하매, 신랑 신부의 모습 차등이 없어 왕모(王母) 요지연(瑤池淵)에서 잔치함* 같더라. 날이 저물어 촛(燭)을 잡아 동방(洞房)에 나아가 원앙 이불 속에 첫날밤을 이루니 무산(巫山)·낙

포(洛浦)*라도 이에서 더하지 못할러라.

다음 날 아침에 황상을 찾아뵈는데, 상과 후 새로이 어루만지며 사랑하시더라. 삼일 후 한림과 공주 승상부에 나아가 뵈오니, 승상이 답례하고 좌정 후 부인이 하례 왈,

“귀한 공주 금지옥엽으로 인연이 있사와 누추한 곳에 왕림하시니, 광채가 갑절이나 나나이다.”

공주가 예의를 갖추어 사양할 뿐이더라. 종일 잔치하고 날이 저물어, 공주 궁으로 돌아가니라.

이러구러 몇 달이 지나매 부마 공주를 대하여 슬피 한탄하며 눈물 흘리며 왈,

“복(僕)이 타국인으로 대국에 들어와, 용문(龍門)에 현달(顯達)하고 겸하여 천원이 망극하여 부마 되니, 일신이 영귀하니 부모를 생각하며 망극하온지라. 어찌하면 본국에 돌아가 부모를 뵈오리오.”

하고 눈물을 비 오듯 흘리거늘, 공주 단정히 대 왈,

“첩이 군자를 좇으며 여필종부(女必從夫)는 떳떳한 일이라.
[C] 황상께 아뢰어 몇 달 말미를 얻으리이다.”

하고, 공주 입결하여 황상께 주 왈,

“부마 아버지와 헤어진 지 오래오매, 사모함이 간절하온지라. 신이 또한 시부모를 찾아뵈고자 하오니, 몇 달 말미를 허소서.”

상이 가라사대,

“경의 부부 아버지를 뵈려고 하니, 이는 당연한 일이라. 짐이 어찌 막으리오.”

하신대, 부마 부부 사(謝)한 후, 양전(兩殿)께 하직하고 승상 부부께 하직한 후 발행할새, 천자 하교하사 군관 수십 인과 군사 일천과 명장 일인을 따로 뽑아 정해 주시고, 사자를 먼저 보내사 자초지종을 안평국에 통하니라.

(중략)

이전에 기러기 발에 서찰을 매고 여러 날 날아 본국에 다다르니, 차시 왕비 성의를 생각하고 청천(青天)만 바라더니 홀연 기러기 슬피 울고 내려와 앉거늘, 자세히 보니 발에 서신을 매었거늘, 즉시 끌러 보니 이 곧 성의의 필적이러라. 서중(書中) 사의(辭意) 참담하고 전후수말이 지상(紙上)에 어리었더라. 왕비 보기를 다하매 흥격이 막히고 기운이 다하여 기러기를 붙들고 대성 통곡하니, 차시 향의 울음소리를 듣고 대경하여 생각하되, ‘성의 만일 살아 돌아오면, 본적(本跡)이 탄로 나리라.’ 하고, 심복 무사 부래를 불러, 여차여차하라 하니, 부래 옹악코 가니라.

차시에 계홍 감사 장계(狀啓)를 올렸거늘, 왕이 보시니,

대국(大國) 부마 적성의와 공주 일행이 나아가니 착실히 대접하라.

한 것이요, 또한 여러 해 만에 부자 상봉하는 치하(致賀)며, 사위를 고른 서찰이러라. 왕이 서찰을 보고 나서 대희하여 즉시 내전

에 들어가 비를 대하여 수말(首末)을 설화하고 일희일비함을 마지아니하더라. 왕이 제신(諸臣)을 모으고 사신을 맞아 별궁에 정성껏 대하시고 일자를 기다려 제신을 거느려 십 리 교외에 나와 성의의 일행을 기다리더라.

차시 부마 일행이 정히 행하더니, **홀연 한 발의 대포 소리에 군사와 [D]가 내달아 길을 막고 크게 외쳐 왈,**

[D] “너희는 타국 사람으로 무단히 우리 지방을 범하니, 이는 곧 도적이라.”

하고 말을 몰아 달아드니, 이는 적(賊) 부래라. 부마와 공주가 대경하여 어찌할 줄을 모르더니, 군관 중 일인이 용맹이 뛰어난 자가 있는지라. 이에 장창을 들고 말에 올라 대호 왈,

“우리는 천조장사(天朝將士)라. 부마와 공주를 모시고 나오거늘, 너희는 어떤 도적이완대 항거하나뇨?”

하고 맞아 싸워 수십 합에 이르되 승부가 없더니, 날이 저물매 각기 쉬고 이튿날 해가 돋자 부래 또 나와 외쳐 왈,

“적장은 나와 어제 결정짓지 못한 승부를 결하라.”

하거늘, 군관이 대로하여 창을 비껴들고 나오려 하매, 호위한 장사 말려 왈,

“내 오늘 나아가 적을 벨 것이니 너는 아직 물러 있으라.”

군관 왈,

[E] “어찌 조그만 도적 잡기에 장군이 수고를 하시리었고? 오늘 은 마땅히 도적을 베어 오리이다.”

하고 창을 겨눠 들고 말을 타고 나아가 싸워 십여 합에 이르러는, 군관이 몸을 돌이키며 크게 꾸짖는 소리에 부래를 베어 내리치고 남은 군사를 짓치니, 남은 무리가 사망으로 흩어져 달아나거늘, 이에 위의(威儀)를 차려 나아가니라.

차설. 향의가 군마가 패함을 듣고 대경실색하여 친히 칼을 들고 나아가더니, 문득 한 사람이 대호 왈,

“이 무지한 놈아! 동기(同氣)를 몰라보고 이렇듯 지악불량(至惡不良)하니 너 같은 놈을 베어 후인을 징계하리라.”

하고 **일 합에 베어 죽이고 스스로 목을 베니 어찌 쾌활치 않으리오.** 이 사람은 안평국 협객이러라.

이러구러 부마 일행이 환란을 벗어나 도성으로 행할새, 만조백관(滿朝百官)이 국왕을 모셔 기다리다가 영접하여 잠깐 별궁으로 맞아들이고, 왕이 신하를 거느려 별궁에 나아가 왕자를 볼새, 부마 공주로 더불어 부왕을 맞아 땅에 엎드려 목 놓아 울며 눈물을 흘려 말씀을 못 하더니, 이윽고 왕자 정신을 진정하여 전후수말을 고한대, 왕이 듣기를 다하매, 향의의 소행에 깜짝 놀라 눈물을 흘릴 뿐이더라. 왕자 향의의 불측한 악심(惡心)을 꺼리거나 미워하지 않고 **도리어 슬퍼하여 대군의 격식으로 장사 지내고** 수중(水中)에 원통하게 죽은 벋사람의 자식들을 불러 각기 상사(賞賜)를 많이 하고 다 소원을 좇아 시행하니라.

- 작자 미상, 「적성의전」

***손복**: ‘복을 전부 또는 일부 잃음.’을 이르는 말로, 임금의 은혜가 과분함을 경양하여 표현할 때 주로 쓰는 말.

***왕모 요지연에서 잔치함**: 서왕모가 주나라 목왕을 만나 요지연에서 잔치를 벌임. 남녀 모두 뛰어남을 의미함.

***무산·낙포**: 무산신녀와 낙포복비를 가리키는 말로, 무산신녀는 구름과 비로 변하여 초희왕과 놀았던 신녀를, 낙포복비는 낙포에 살던 하백의 아내를 의미함.

28

▶ 23051-0268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그대 몸이 영귀할 때니 이제는 귀국 부모를 뵈옵기 쉬운지라.’를 볼 때, 승상은 성의가 부마가 되면 안평국의 왕과 성의의 재회가 더 쉬워질 것이라 생각한 것 같아.
- ② ‘길일이 열흘밖에 남지 않음을 황후더러 말씀하시니’를 볼 때, 황상은 사천관이 택일한 일정대로 공주의 혼인을 추진한 것 같아.
- ③ ‘홀연 한 발의 대포 소리에 군사와 군마가 내달아 길을 막고 크게 외쳐’를 볼 때, 부래는 왕의 기대에 어긋나는 행위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아.
- ④ ‘일 합에 베어 죽이고 스스로 목을 베니 어찌 쾌활치 않으리오.’를 볼 때, 안평국 협객은 성의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애통함 때문에 스스로 목을 베는 것 같아.
- ⑤ ‘도리어 슬퍼하여 대군의 격식으로 장사 지내고’를 볼 때, 장사를 지낸 행위의 주체가 성의라고 한다면 성의는 향의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향의에 대한 예를 표한 것 같아.

29

▶ 23051-0269

[A]~[E]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 스스로를 낮추고 황상의 은혜를 칭송하면서 황상의 제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 ② [B]: 자신의 과거 행적을 공주에게 이야기하며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 ③ [C]: 자신의 입장에 대한 정당성을 드러내며 성의의 고민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④ [D]: 부마 일행의 행위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을 드러내며 부마 일행을 공격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⑤ [E]: 현재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강조하며 장군의 명령을 수용하고 있다.

30

▶ 23051-0270

<보기>를 참고하여 뒷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기

선인과 악인의 대립이 뚜렷한 고전 소설의 경우, 악인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선인이 고국에서 타국으로 밀려나는 경우가 있다. 특히 타국으로 밀려난 선인은 고국에 있는 악인에 의해 끊임없이 고통을 받는데, 고난과 시련 끝에 조력자를 만나게 된다. 그리고 조력자의 도움으로 자신의 능력을 계발한 선인은 다른 인물과의 결연을 통해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된다.

- ① 성의가 황상에게 거짓 사양을 하는 것은 타국으로 밀려난 성의가 고국에 있는 악인에 의해 고통을 겪게 되는 원인이 되었군.
- ② 성의가 공주와 혼인을 하게 된 것은 성의가 고국에서 타국으로 왔다는 사실이 황상에게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군.
- ③ 공주가 입궐을 하여 황상께 시부모를 찾아뵙고자 청하는 것은 성의가 고국으로 회귀하는 데 기여하였군.
- ④ 항의가 심복 무사 부래를 불러 여차여차하라고 한 것은 성의가 악인과의 대립 끝에 고국에서 타국으로 밀려나는 원인이 되었군.
- ⑤ 안평국 협객이 항의를 베어 죽인 것은 성의가 조력자의 도움으로 고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는 계기가 되었군.

31

▶ 23051-0271

뒷글의 소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천자의 ‘하교’는 성의가 안평국으로 가는 길에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 ② ‘기러기’는 성의와 왕비 사이의 물리적 거리에도 불구하고, 왕비가 성의의 과거 행적을 알 수 있게 해 주었다.
- ③ ‘울음소리’는 항의가 성의에 관한 미래 상황을 대비하는 데 영향을 끼쳤다.
- ④ ‘서찰’에는 항의가 성의에게 악행을 저질렀다는 점과 성의가 안평국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이 실려 있었다.
- ⑤ ‘군마’가 부마 일행을 막은 것에는 성의를 위협에 빠뜨리려는 항의의 의도가 반영되어 있다.

실전 모의고사 1회

실전 모의고사 2회

실전 모의고사 3회

실전 모의고사 4회

실전 모의고사 5회

[32~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앞부분 줄거리] 꿈을 이루지 못하고 변두리에 음악 학원을 개업한 지수는 영업을 방해하는 경민을 만나게 되고, 경민의 유일한 혈육인 할머니와 다투면서 엉겁결에 경민을 돌보겠다는 약속을 하게 된다. 그러던 중 경민이 음악에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한다. 지수는 경민을 통해 자신이 유명해질 수 있다는 기대를 품고 경민을 연습시킨 뒤 콩쿠르에 나가게 된다.

S#74. 콩쿠르장/낮

지수, 점점 더 거만한 포즈를 취한다. 그러나 무대로 나오지 않는 경민. 지수 순간 당황한다. 다시 한번 경민을 부르는 심사 위원.

심사 위원: 다음 129번 윤경민.

지수, 당황한다. 초조한 눈빛으로 무대의 커튼을 바라보는 지수. 그때, 커튼 안에서 경민이 쭈뼛거리며, 걸어 나온다. 지수, 잘하라는 듯, 경민에게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인다. ㉠ 그때, 갑자기 경민을 비추고 있던 조명등이 꺼진다. 순식간에 컴컴해지는 공연장. 놀라는 지수의 얼굴. 객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온다.

관객들: 뭐야?

경민, 연주장 위에서 두리번거리며, 불안하게 서 있다. 이때, 다시 들어오는 조명. 경민, 눈이 부신 듯, 팔로 눈을 가리고, 불안한 듯, 서 있다. 지수의 불안한 얼굴과 교차 편집된다.

심사 위원: 윤경민 학생, 얼른 쳐요.

경민이 그저 무대 위의 환한 조명을 응시한다. ㉡ 지수, 경민에게 계속 안달하며, 사인을 보낸다.

지수: (작은 소리로) 경민아 얼른 쳐!!

INSERT 경민의 회상 - 커다란 트럭이 라이트를 밝게 켜고 경민을 향해 달려온다. 경민을 밀치고 트럭에 치이는 경민의 엄마.

㉢ 경민,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리기 시작한다. 무대를 불안하게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경민. 경민, 팔로 얼굴을 가리고, 주저앉아 고래고래 소리를 지른다.

경민: 악! 악!

지수,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다. 관객들 웅성거린다. 당황한 심사위원석의 정은의 얼굴과 지수, 경민의 모습, 교차된다. 이때, 사회자, 마이크로 지수를 부른다.

사회자: 윤경민 보호자! 아이 좀 달래세요.

S#75. 복도/낮

넓은 유리창을 통해 복도로 햇빛이 쏟아진다. 콩쿠르장에서 흘러나오는 첼로 소리. 창가에 서로 떨어져서 앉아 있는 지수와 경민. 시

무룩하게 있는 경민과 멍한 표정으로 앉아 있는 지수. ㉣ 그들의 앞을 지나가는 밝은 표정의 사람들.

S#76. 지수의 학원 건물 앞/밤

지수와 경민이 택시에서 내린다. 경민, 지수의 뒤를 졸졸 쫓아간다.

지수: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될 줄 알았어. (한숨을 내쉰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던 지수, 따라오는 경민을 향해

지수: (건조하게) 가. 내일부터 학원에 오지 마. 알았어?

경민, 계속 지수를 쳐다본다. 경민, 지수를 졸졸 쫓아간다. 경민, 지수의 옷을 꼭 붙잡는다. 지수, 경민의 손을 떼어 낸다. 떨어지지 않으려는 경민. 지수, 화가 나 소리 지른다.

지수: 나 너 포기했다구! 가란 말야, 가 버려 제발! 내 인생에서 없어져 줘!

(중략)

S#98. 중환자실/낮

할머니의 침대로 다가가는 지수와 경민. 경민, 지수의 뒤로 숨으려고 한다. 경민을 침대가로 미는 지수. 할머니 쭈글쭈글한 손으로 경민을 더듬는다. 움찔하는 경민. ㉤ 할머니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고개를 푹 숙이는 경민.

할머니: 썩을 놈. 밥은 제때 쳐먹고 댕기는 거여? 피아논가 뭐가 배운다고?

경민: (고개를 끄덕인다.) ……

할머니: 이 핼미 없었으면 좋겠지? 핼미 없어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혀 이 썩을 놈아. (지수에게) 저놈 애미가 네 살 땀가 차에 받혀 죽었어. 새끼는 밀어 버리고 지가 대신 차에 받혀 뒤통지.

할머니, 경민을 바라보다가 지수를 향해

할머니: 음력으로 칠월 열아흐렛날 니년이 저 썩을 놈 미역국 끓여 줘.

경민, 불안하게 할머니와 지수를 번갈아 바라본다. 지수,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겨우 참으며 돌아선다. 경민, 지수를 따라가야 할지 할머니 곁에 남아야 할지 어찌할 줄 몰라 망설인다. 경민, 잠이 든 할머니에게 까치발을 들어 이불을 덮어 주고 지수를 쫓아간다. 할머니의 침대를 돌아보는 경민.

S#99. 화장터/낮

할머니의 시신이 화장되는 것을 지켜보는 지수와 광호. 경민, 복도 의자에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다. 그런 경민을 안타깝게 쳐다보는 지수.

(중략)

S#106. 학원/밤

지수: 경민아…… 선생님이 치는 모차르트 들어 볼래?

경민, 지수를 바라보며 고개를 강하게 끄덕인다. 울 듯 찡그리다가 미소를 지어 보이는 지수. 경민을 위한 모차르트를 연주하는 지수. 연주가 끝나고 박수치며 좋아하는 경민.

지수: (피아노 건반을 하나 누르며) 너 지난번에 만났던 외국 아저씨하고 아줌마 생각나지?

경민, 아무 반응이 없다. 그저 지수의 눈을 뚫어져라 바라본다.

지수: 그 아저씨하고 아줌마가 경민이가 너무 똑똑하고 예뻐서 경민이랑 영원히 같이 살고 싶대! 어때? 근사하지? 그때 갔던 그 집보다 훨씬 더 좋은 집에서 살 거래! 기분 좋지?

경민, 이해가 안 간다는 듯, 지수를 뻔히 쳐다본다. 경민, 심각한 표정으로

경민: 선생님은?

지수: 나?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장난스러운 목소리로) 난 여기 있어야지! 그래야 학생들 피아노 가르치지! 내가 없으면 누가 피아노 가르쳐?

경민, 고개를 단호하게 절레절레 흔들며, 갑자기 지수의 목을 꼭 끌어안으며,

경민: 나도 안 가!

지수의 뺨으로 찼던 눈물이 흐른다.

S#107. 지수의 집/낮

지수가 거실 테이블에 앉아, 종이에 뭔가를 쓰고 있다. 지수가 쓰는 글씨 클로즈업.

‘윤경민, 무슨 일이 있어도 피아노 그만두면 안 돼! 많이많이 사랑해 경민아!’

지수, 종이를 접는다. 종이와 물건을 챙겨 경민이 잠들어 있는 건넌방으로 들어가는 지수. 경민 정신없이 자고 있다. 경민의 머리맡에 앉아 경민의 작은 배낭에 물건을 집어넣는 지수. 경민이 옷장에서 찾아낸 호로비츠의 슈만 연주 음반과 편지도 함께 넣는다. 놀이공원에서 광호가 찍어 준 사진도 함께 넣는다.

S#108. 지수의 집/밤

지수의 집 거실 테이블에 케이크와 먹을 것이 놓여 있다. 지수와 경민이 케이크 위에서 타고 있는 촛불을 바라본다. 지수, 애써 미소를 지으며, 경민에게

지수: 어서 불 꺼!

경민, 촛불을 후 불어 끈다. 경민, 침통한 지수의 눈치를 살피다

갑자기 피아노로 뛰어간다. 그러곤 피아노에 앉아 한 손으로 피아노를 치기 시작한다. 처음 들어보는 아름다운 곡조가 흘러나온다. 지수, 피아노로 다가가 경민의 옆에 앉는다.

지수: 아주 멋지다. 니가 만든 거야? 제목이 뭐야?

경민: 엄마!

지수,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이며 손을 건반 위에 올려놓는다. 경민의 피아노 연주에 맞춰 함께 곡을 연주하는 지수. 경민이 만든 ‘엄마’라는 곡의 연주가 끝나고, 경민, 지수의 목에 매달리며

경민: 안 갈래!

그러다 갑자기 방으로 뛰어 들어갔다 나오며, 지수의 앞에 S#1에서 가져갔던 메트로놈을 내놓는다.

경민: 이거 줄게! 안 갈래! 도둑질 안 할게.

지수, 메트로놈을 보며, 경민을 끌어안고 목이 메인다.

- 김민숙, 「호로비츠를 위하여」

32

▶ 23051-0272

㉠~㉡에 대해 감독이 요구할 만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인한 인물의 극적 긴장감을 고조시킬 수 있도록 조명을 정확한 순간에 꺼 주세요.
- ② ㉡: 준비한 것들을 보여 주지 못할까 봐 애를 태우는 인물의 심리가 드러나도록 연기해 주세요.
- ③ ㉢: 트라우마로 인해 고통받는 인물의 불안감이 드러나도록 연기해 주세요.
- ④ ㉣: 등장인물들이 느끼는 심리와 잘 대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밝고 행복한 표정들을 지으며 지나가 주세요.
- ⑤ ㉤: 할머니를 무서워하며 할머니를 혈육으로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인물의 심리가 드러나도록 연기해 주세요.

33

▶ 23051-0273

윗글에 사용된 **INSERT**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여러 장면을 이어 붙인 장면을 제시하며 감춰졌던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도록 한다.
- ② 등장인물이 예상했던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담긴 장면을 제시하고 있다.
- ③ 과거 사건과 현재 사건의 유사한 부분을 제시하여 영화 관객들이 인물의 불안한 심리를 이해하도록 한다.
- ④ 과거 사건에서 비롯된, 무대 위 인물이 가진 죄책감을 부각하면서 이에 대해 다른 인물들이 공감하도록 하고 있다.
- ⑤ 무대 위 인물이 특정 현상에 대해 공포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장면을 제시하며 인물의 태도에 대한 다른 인물의 오해를 풀고 있다.

34

▶ 23051-0274

〈보기〉는 윗글을 영화화한 작품에 대한 비평의 일부이다. 이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지수는 자신의 꿈을 이루지 못한 데서 오는 열등감이 강하고,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자기 서사’에 매몰되어 타인을 도구로 삼아 자신의 이상적인 자아상을 구축하는 것에 빠져 있다. 이와 같던 지수가 경민과 관계 회복을 도모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서사’가 ‘부모 서사’로 전환되면서부터이다. 홀로 된 경민에 대해 고민하는 과정에서 지수는 ‘부모’의 역할을 선택한다. 지수는 부모 된 심정으로 제자의 독립과 성공을 바라며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욕망과 더불어 아이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까지도 희생하며 아이의 미래를 도모하는 모습은 작품의 감동을 자아내는 요소가 된다.

- ① S#74에서 지수가 거만한 포즈를 취하는 것은, 경민을 도구로 삼아 자신의 꿈을 이루지 못해 갖게 된 열등감을 없앨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인한 것이겠군.
- ② S#76에서 지수가 경민에게 앞으로는 피아노 학원에 오지 말라고 하며 화를 내는 것은, ‘자기 서사’에 매몰되어 경민과의 관계를 단절하고자 하는 것이겠군.
- ③ S#98에서 지수가 경민의 생일을 이야기하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눈시울을 붉히는 것은, 지수와 경민의 이야기가 ‘부모 서사’로 변모해 가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겠군.
- ④ S#106에서 지수가 경민을 외국인 부부에게 보내려고 하는 것은, 경민이 자신에게 준 열등감과 함께 성공에 대한 자신의 욕망도 내려놓고자 하는 것이겠군.
- ⑤ S#108에서 지수가 헤어지기 싫어하는 경민을 잡지 않는 것은, 제자의 미래를 도모하기 위해 함께하고픈 마음도 희생하는 모습이겠군.

35

▶ 23052-0275

<보기>는 음운 변동의 유형에 대한 수업의 한 장면이다. [A]에 들어갈 수 있는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선생님: 이때까지 배운 것을 정리해 볼까요? 음운의 교체란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것이고, 탈락이란 한 음운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첨가란 한 음운이 새로 생기는 것이고, 축약이란 두 음운이 합쳐져 제3의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그럼 이 유형들 중 두 가지가 함께 나타난 예를 찾아서 말해 볼까요?

학생: 네, 선생님. [A] 나타납니다.

- ① ‘들끓는[들끓른]’에는 탈락과 교체가
- ② ‘서울역[서울력]’에는 첨가와 교체가
- ③ ‘집합소[지합쏘]’에는 축약과 교체가
- ④ ‘젓혀서[저쳐서]’에는 축약과 탈락이
- ⑤ ‘뺏히는[발피는]’에는 첨가와 축약이

36

▶ 23052-0276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나라 말쓰미 ㉠中國(중국)에 달아 文字(문자)와로 서르 스뭇디 ㉡아니홀썩 이런 전초로 어린 百姓(백성)이 니르고 저 흥 ㉢배 이셔도 ㅁ츨내 제 ㅁ뜨들 시러 퍼디 ㅁ흔흥 노미 ㉣하나라 내 이를 爲(위)햏야 어엿비 너겨 새로 스물여덟 字(자)를 ㅁㅇ노니 사릅마다 햏여 수비 니겨 날로 ㉤뿌메 便安(편안)키 햏고저 흥 ㅁ르미니라

[현대어 풀이]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문자로는 서로 통하지 아니하므로 이런 이유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끝내 제 뜻을 능히 펴지(펼치지) 못하는 사람이 많으니라. 내 이를 위해 불쌍히 여겨 새로 스물여덟 자를 만드니 사람마다 하여금 쉽게 익혀 날로 씀에 편안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 ① ㉠: 처소를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 ‘에’가 쓰였다.
- ② ㉡: 이유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 ‘-르썩’이 쓰였다.
- ③ ㉢: 의존 명사 ‘바’와 주격 조사 ‘이’가 결합된 것이다.
- ④ ㉣: ‘하다’는 현대 국어의 ‘하다’와 다른 의미로 쓰였다.
- ⑤ ㉤: 현대 국어의 명사형 어미 ‘-ㅁ’과 같은 ‘-음’이 쓰였다.

[37~3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말소리는 같지만 의미가 다른 단어를 동음어 혹은 동음이의어라고 한다. 가령, ‘물을 건너거나 또는 한편의 높은 곳에서 다른편의 높은 곳으로 건너다닐 수 있도록 만든 시설물’을 뜻하는 ‘다리’와 ‘사람이나 동물의 몸통 아래 붙어 있는 신체의 부분’을 뜻하는 ‘다리’는 발음은 같지만 의미가 다른 동음이의어이다. 그런데 단어는 아니지만 우리말 접사 가운데 발음은 같은데 그 의미가 달라 동음이의어와 유사한 관련을 맺는 것들이 있다.

어근이나 단어의 앞에 붙어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접두사 가운데 ‘한데’의 ‘한-’과 ‘한걱정’의 ‘한-’을 살펴보자. ‘한데’의 ‘한-’은 ‘바깥’의 뜻을 갖는 반면, ‘한걱정’의 ‘한-’은 ‘큰’의 의미이다. 이들은 ㉠ 발음은 같지만 의미가 다른 동음이의 관계에 있는 접두사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발음이 같고 의미가 다르다고 해서 모두 동음이의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 접두사 ‘한-’과 관련된 단어에는 ‘한여름’이나 ‘한낮’ 등도 있다. 이 단어들에 쓰인 ‘한-’은 ‘한창인’의 의미를 갖는데, 이때의 ‘한-’과 ‘한걱정’의 ‘한-’을 동음이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두 접사의 의미, 즉 ‘한여름’의 ‘한-’이 갖는 의미 ‘한창인’과 ‘한걱정’의 ‘한-’이 갖는 의미 ‘큰’이 의미적으로 가까워 의미적 연관성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의 단어가 의미적 연관성을 갖는 여러 의미를 갖는 경우 다의어라고 하는데, 접사의 경우에도 다의어처럼 하나의 접사가 여러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접사와 단어가 발음은 같은데 의미가 다른 경우도 있다. 예컨대, ‘익살맛다’의 ‘-맛다’와 ‘야단맛다’의 ‘맛다’를 살펴보자. ‘익살맛다’의 ‘-맛다’는 ‘그것을 지니고 있음.’의 뜻을 더하고 명사와 결합하여 형용사를 만드는 접미사이다. 이에 비해 ‘야단맛다’의 ‘맛다’는 ‘어떤 좋지 않은 일을 당하다.’라는 뜻을 갖는 동사이다. 접미사 ‘-맛다’와 동사 ‘맛다’는 발음은 같지만 의미도 다르고 기능도 다르다.

특히 단어 형성 차원에서 이 단어들의 구성을 분석해 보면, ‘익살맛다’는 ㉡ 어근과 접미사가 결합한 파생어인 반면, ‘야단맛다’는 어근과 어근이 결합한 합성어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따라서 단어를 구성하는 요소가 접사와 형태가 같다고 해서 모두 파생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동사나 형용사가 본래의 뜻을 유지하면서 다른 성분과 결합한 단어는 파생어가 아니고 합성어이기 때문이다.

37

▶ 23052-0277

㉠에 해당하는 접두사의 쌍으로 짝지어진 것은? [3점]

- ① [‘그런 행동은 몰상식하다.’에서의 ‘몰-’
 ‘물표를 받아 당선했다.’에서의 ‘물-’
- ② [‘복숭아가 설익었다.’에서의 ‘설-’
 ‘옷이 설말라 녹녹하다.’에서의 ‘설-’
- ③ [‘땃니가 났다.’에서의 ‘땃-’
 ‘납은 신발은 땃대어 수선했다.’에서의 ‘땃-’
- ④ [‘경제적 안정을 되찾았다.’에서의 ‘되-’
 ‘마음에 되새기려 한다.’에서의 ‘되-’
- ⑤ [‘맞대결이 벌어지다.’에서의 ‘맞-’
 ‘바구니를 맞들었다.’에서의 ‘맞-’

38

▶ 23052-0278

㉠에 해당하는 예를 <보기>의 ㉠~㉣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 그는 성격이 ㉠ 별나다.
- 기름이 ㉡ 솟아났다.
- 휴가를 ㉢ 값지게 보냈다.
- ㉣ 주름진 얼굴이 기억난다.

- ① ㉠, ㉡ ② ㉠, ㉢
- ③ ㉠, ㉣ ④ ㉡, ㉢
- ⑤ ㉡, ㉣

39

▶ 23052-0279

<보기>의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한 것은?

보기

- 그
- 「대명사」
1. 말하는 이와 듣는 이가 아닌 사람을 가리키는 삼인칭 대명사. ㉠
 2. 앞에서 이미 이야기하였거나 듣는 이가 생각하고 있는 대상을 가리키는 지시 대명사. ㉡
- 「관형사」
1. 듣는 이에게 가까이 있거나 듣는 이가 생각하고 있는 대상을 가리킬 때 쓰는 말. ㉢
 2. 앞에서 이미 이야기한 대상을 가리킬 때 쓰는 말. ㉣
 3. 확실하지 아니하거나 밝히고 싶지 아니한 일을 가리킬 때 쓰는 말. ㉣

- ① ㉠: 그 마음 영원히 변치 않고 지켜 주길 바랍니다.
- ② ㉡: 포기하자는 의견도 있으나 그보다는 다시 도전하자는 의견이 더 많았다.
- ③ ㉢: 그는 생각도 바르고 마음씨도 참으로 좋은 사람이다.
- ④ ㉣: 그 누군가가 어둠 속에서 나올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다.
- ⑤ ㉣: 그 이야기의 전말은 다음에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40~45] (가)는 [학습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인터넷 검색을 통해 찾은 내용이고, (나)는 학생이 참고한 자료이다. 물음에 답하십시오.

[학습 활동]

‘디지털 배려’에 관한 여러 매체 자료를 수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매체 자료를 생산하는 활동을 해 보자.

(가) 인터넷 검색 내용

[기고] 디지털 소외! 친절한 디지털 환경 조성 노력 필요
기술의 발전에는 배려가 필요하다. 누구나 디지털 기기에 접근하기 쉽도록 기술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고령자나 장애인 등 디지털 소외 계층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고려하여 만들어야……

디지털 격차 해소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추진
○○ 통신 위원회에서는 노년층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 사회 모두의 배려가 필요하다는 영상을 제작 배포하고……

장애타인 및 고령자 디지털 소외 문제, 해법은?
웹 접근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은 물론, 웹 접근성 인증 제도의 의무화 등 웹 접근성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며……

[인터뷰]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인터넷 이용률 격차는 매년 줄고 있지만 웹 접근성 수준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 진흥원 박△△ 팀장은 20××년 웹 접근성 실태 조사 결과 발표에서 “장애나 나이에 관계없이 누구나 어떤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개념을 ‘접근성’이라 하는데, ‘웹 접근성’ 역시 누구나 인터넷 사이트에 접근하기 쉽도록 기술적으로 보장해야 하며……”

웹 접근성, 법률과 가이드라인 있지만 처벌 등에 관한 법적 장치 필요
① ‘지능 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웹 접근성 준수는 법적 의무 사항이다. 그러나 위반 사항 발생 시 처벌할 법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나) 학생이 참고한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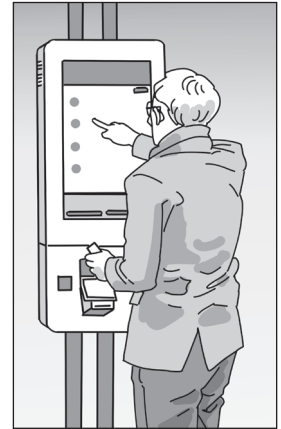
a. 잡지에 실린 인쇄 기사

[기획 특집]

소통과 배려의 디지털 세상 만들기

김<< 씨(78세)는 얼마 전 카페에서 당혹감을 느꼈다. 바로 키오스크(무인 주문 결제기)로 주문해야 하는 낯선 상황 때문이었다. ① 그는 커피 한 잔을 사기까지 우여곡절을 겪었다. 메뉴 화면의 작은 글씨 때문에 이 버튼 저 버튼을 누르며 진땀을 빼다 겨우 장바구니에 담았을 때는 등 뒤의 따가운 시선을 느꼈다. 그리고 ▲ [사진] 키오스크로 주문하고 있는 어르신 모습

도 결제 방법을 몰라 메뉴 화면과 장바구니를 왔다 갔다 하다 다섯 잔의 커피가 담긴 것을 모르고 그대로 결제를 할 뻔했다.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세대에게겐 쉽고 빠른 방법이 노인들에게는 높은 벽처럼 느껴질 수 있다.



노인들이 디지털 기기 앞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덜어 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변화하는 디지털 세상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구 노인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키오스크 체험존이 있다. 이곳에서는 노인들에게 고속버스나 기차표 예매, 음료나 음식 주문 등의 실전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디지털 교육도 병행하고 있다. 디지털 기기 사용의 어려움은 이러한 교육을 통해 해소할 수도 있지만 기기의 개발 및 제작 단계에서 접근성을 고려하여 디지털 약자를 배려하는 여러 가지 기능을 추가하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디지털 약자를 배려하는 따뜻한 조력자가 되어야 한다. 행복한 디지털 세상을 위한 구성원의 인식 개선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세상은 현재의 ‘나’와 미래의 ‘나’가 함께 살아가는 곳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실전 모의고사 1회
실전 모의고사 2회
실전 모의고사 3회
실전 모의고사 4회
실전 모의고사 5회

b. 인터넷 신문 기사

▽▽ 신문

모두를 위한 웹 접근성, 갈 길이 멀다

박☆☆ 기자 abcd@haaa.com

입력 20××-02-24 23:00

●●부의 최근(23일) 보도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웹 접근성 평균 점수가 60.8점으로 전년 대비 0.1점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인터넷 이용률 격차가 2004년 35.4%에서 2017년 20.2%, 2020년 13.6%로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우리나라의 웹 접근성 수준은 답보 상태로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

웹 접근성은 장애인, 장애인, 고령자 등 다양한 사용자들을 고려하여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차별 및 제한 없이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으로, 현재 우리나라 모든 웹사이트는 법에 따라 웹 접근성을 갖추어야 한다.

공공 기관 웹사이트의 경우는 웹 접근성 준수가 의무화 되어 비교적 잘 지켜지고 있으나 교육, 금융, 의료 등 각 분야 민간 기관은 아직 웹 접근성 준수에 소극적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웹 접근성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실효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처벌 규정이 약하고 피해 사실 입증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어 실제 처벌 사례는 극히 드물다.

시각 장애인 A 씨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원하는 상품의 상세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화면 낭독기를 사용하였지만 대체 텍스트가 입력되어 있지 않아 구매에 어려움을 겪었다. 시각 장애인의 경우, 화면 확대, 고대비, 대체 텍스트 등의 기능을 이용하여 웹사이트를 사용하고 있는데 웹 접근성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정보에 접근할 수 없게 된다.

웹 접근성 정책은 장애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웹 접근성 정책이 고령자들의 정보 접근권 보장을 포함하며, 시각 장애인의 70% 정도가 후천적 장애라는 통계를 고려한다면 웹 접근성 정책은 결국 모두를 위한 정책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에 대해 ◇◇ 위원회 정▲▲ 연구원은 “웹 접근성에 대한 공감대를 넓힐 필요가 있으며 웹 접근성 인증 제도를 의무화하고 위반 사항 발생 시에는 실질적인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 기사]
 (클릭) 웹 접근성 위반 안 하려면?
 (클릭) ◎◎ 대학교, 웹 접근성 품질 인증 마크 획득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A]
등록

40

▶ 23052-0280

[학습 활동]을 수행하는 학생이 (가)의 ㉠~㉣에 대해 판단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의 검색 내용을 통해 디지털 소외 계층으로서 디지털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확인할 수 있군.
- ②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을 인식 개선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알아보려면 ㉠보다 ㉡을 참고해야겠군.
- ③ 웹 접근성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면 ㉡보다 ㉢, ㉣을 참고해야겠군.
- ④ 웹 접근성의 개념과 실태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하려면 ㉢보다 ㉣을 참고해야겠군.
- ⑤ ㉠, ㉡에서는 기술적 배려를 통한 디지털 환경 조성, ㉢, ㉣에서는 공감을 통한 사회적 환경 조성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고 있군.

41

▶ 23052-0281

(나)의 a, b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디지털 배려의 방법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하이퍼링크로 제시하여 수용자의 선택에 따라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② a는 사진 자료를 바탕으로 디지털 배려가 필요한 대상의 실제 경험을 제시하고 있어, b에 비해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로 구성되어 있다.
- ③ b는 시의성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장애인의 인터넷 이용률은 늘었지만 웹 접근성 점수는 답보 상태인 상황을 제시하여 웹 접근성 보장의 필요성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 ④ b는 웹 접근성 위반의 사례와 웹 접근성 준수 관련 기사를 함께 제공하고 있어, a에 비해 문제 상황을 부각하고 정보를 실재감 있게 전달하고 있다.
- ⑤ a는 디지털 소외 계층의 입장에서, b는 장애인의 입장에서 웹 접근성을 다루고 있어 디지털 배려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의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42

▶ 23052-0282

다음은 [A]에 작성된 내용이다. 독자의 수용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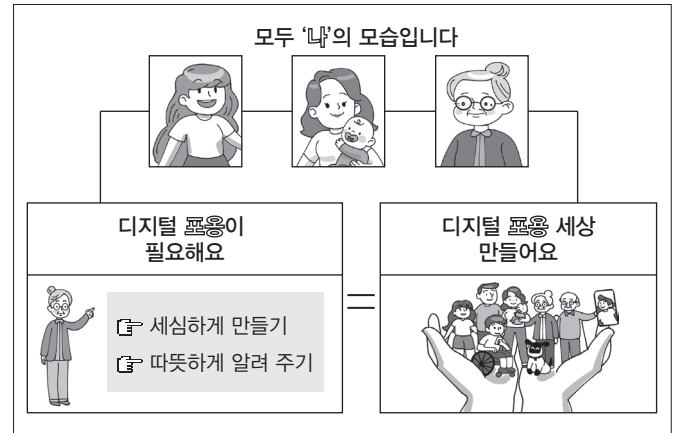
- ↳ 독자 1: 웹 접근성 준수를 위한 가이드라인의 내용이 궁금해요. 기사를 읽고는 그림이나 사진의 경우 시각 장애인을 위해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 정도밖에는 알 수 없네요.
- ↳ 독자 2: 맞아요. 어머니께서 노안으로 저시력이신데 어떤 사이트는 화면이 잘 안 보인다고 하세요. 명도 대비 규정이 어떻게 되나요? 저는 실효성 없는 웹 접근성 인증제보다 정부 차원에서 준수 조항을 개발자가 인지하도록 홍보하고 반드시 지키도록 강제하는 장치가 더 절실하다고 봐요.
- ↳ 독자 3: 웹 접근성은 장애인만을 위한 것인 줄 알았는데 기사를 읽고 ‘모두를 위한’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웹 접근성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는 유용한 기사예요.
- ↳ 독자 4: 웹 접근성 평균 점수로는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문제인지를 잘 모르겠네요. 교육, 금융 등 분야별 점수나 미준수 조항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무엇을 준수하도록 요구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 ↳ 독자 5: 시각 장애인의 70% 정도가 후천적 장애라니 놀라운데요? 믿을 만한 통계 자료인가요?

- ① ‘독자 1’과 ‘독자 4’는 웹 접근성 준수 조항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알 수 없음을 지적하며 정보의 양이 충분한지 판단하였다.
- ② ‘독자 2’는 기사에서 정책으로 제안하고 있는 웹 접근성 인증제의 실효성에 대해 판단하고 웹 접근성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장치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였다.
- ③ ‘독자 2’와 ‘독자 4’는 고령자와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준수 조항에 대한 정보가 개발자에게 유용한지 점검하였다.
- ④ ‘독자 3’은 웹 접근성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을 제시하고 정서적으로 공감하며 기사의 가치를 평가하였다.
- ⑤ ‘독자 5’는 기사의 내용에서 후천적 장애로 인한 시각 장애인의 비율에 대한 정보를 신뢰할 수 있는지 점검하였다.

43

▶ 23052-0283

다음은 (나)의 a를 바탕으로 학생이 제작한 광고 포스터이다. 제작 과정에서 반영된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덜어 줄 방법을 디지털 세상에 필요한 태도로 제시하되 ‘부사어+서술어’ 구조로 간략하게 표현해야겠어.
- ② 디지털 세상의 이미지를 인상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유사한 음운의 두 단어를 사용하여 제시하되 다른 글자와 형태를 달리하여 강조해야겠어.
- ③ 소통과 배려의 디지털 세상 이미지를 단적으로 보여 주기 위해 두 손이 비장애인과 장애인, 고령자 모두를 감싸고 있는 모습을 제시해야겠어.
- ④ 노년층의 디지털 소외에 초점을 맞추어 소통과 배려의 디지털 세상을 만드는 데 걸림돌이 되는 문제 상황을 이미지로 나열하여 보여 주어야겠어.
- ⑤ 기사에서 강조하고 있는 구성원의 인식 개선을 위해 유년, 성년, 노년의 모습을 각각의 이미지로 제시하고 이를 연결하여 모두가 자신의 모습을 보여 주어야겠어.

실전 모의고사 1회
실전 모의고사 2회
실전 모의고사 3회
실전 모의고사 4회
실전 모의고사 5회

44

▶ 23052-0284

다음은 (나)의 b를 바탕으로 학생이 작성한 카드 뉴스의 초안이다. 이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모두 함께 누리는 디지털 세상

- 웹 접근성의 현재와 미래, 아직 갈 길이 멀다 -

[카드 1]

웹 접근성의 실태

전체 평균 점수

2020년	60.7
2021년	60.8

전년 대비 0.1점 ↑
웹 접근성은 제자리걸음

[카드 2]

웹 접근성 미준수 사례

시각 장애인 A 씨의 경우, 온라인 쇼핑물이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아 쇼핑물 이용에 어려움을 겪음.

[카드 3]

모두를 위한 웹 접근성

웹 접근성 인증 제도 의무화
 웹 접근성 위반에 대한 실질적 처벌 장치 마련

[카드 4]

- ① [카드 1]에서는 제목에 바람직한 디지털 세상의 모습을 보여 주고, 부제를 통해 웹 접근성에 초점을 맞추어 미흡한 실태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도록 했어.
- ② [카드 2]에서는 웹 접근성의 실태를 그래프로 시각화하여 제시함으로써 전달의 효과를 높였으나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자료의 출처를 밝혀야 해.
- ③ [카드 2]에서 실태를 파악하기 쉽도록 [카드 2]의 앞에 (나)의 b에 제시된 웹 접근성의 개념,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인터넷 이용률 격차에 대한 정보를 담은 카드를 추가하면 좋겠어.
- ④ [카드 3]에서 장애인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는데 형평성을 고려하여 공공 기관에서의 비장애인과 고령자에 대한 웹 접근성 준수율을 추가하여 문제 상황을 부각해야겠어.
- ⑤ [카드 4]에서는 [카드 1]의 제목과 연결하여 실현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정책적인 측면 외에 (나)의 b에 제시된 공감대를 넓힐 필요성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 마무리하면 좋겠어.

45

▶ 23052-0285

<보기>를 바탕으로 할 때, (나)의 ㉔와 유사한 구조의 문장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안은문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안긴문장, 즉 절이 어떤 종류의 절인지 파악해야 하고, 그 절이 문장에서 어떤 문장 성분으로 기능하는지도 분석해야 한다. 가령, ‘아침을 먹은 소년이 집을 나선다.’에서는 관형사절 ‘아침을 먹은’이 관형어로 ‘소년’을 수식하고 있다.

- ① 소년은 기차가 떠났음에도 계속 서 있었다.
- ② 방 안을 비추던 달빛도 구름에 사라졌다.
- ③ 마을 사람들은 비가 오기만 기원하였다.
- ④ 제비는 겨울이 오기 전에 떠났다.
- ⑤ 동생은 돈도 없이 여행을 갔다.